장편소설 《폭풍의 력사》에 대하여

장편소설 《폭풍의 력사》는 남조선에서 8.15해방직후부터 그 이듬해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미군의 강점과 식민지지배를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해 떨쳐나선 근로대중의 10월인민항쟁을 불러온 남조선로동계급의 9월총파업투쟁의 일단을 실재한 력사적사실을 통하여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일찌기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해방후 새 민주조선의 휘황한 길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조국해방의 은인으로, 절세의 애국자로 열렬히 흠모하며 삼천리강토우에 외세가 없고 인민이 진정한 주인이 된 민주주의적이며 자주적인 통일독립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해 그 어떤 시련의 광풍도 과감히 맞받아 싸워나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남조선을 장차 전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발판으로, 경제적략탈의 대상지로 삼고 무고한 인민들을 마구 살륙하며 참혹한 노예의 운명을 들씌우려고 날뛰는 미국의 침략적진면모와 교활한 민족분렬책동,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으며 일신상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매국역적무리들의 추악상도 그려보이고있다.

소설은 장구하고도 준엄한 반미자주의 력사, 성스러운 통일투쟁사의 한페지를 되새겨주며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에로 지향하는 우리 겨레의 전진을 고무추동할것이다.

제 1 편

1

《기준아, 잠들었니? 얘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러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꿈결같이 들렸다. 벌써 넉달째 자리에 누워있는 기준은 급한 고비를 넘기기는 했으나 아직도 완쾌한 몸은 아니였다. 눈을 감으면 끝없는 진창길에 빠져 무진 애를 쓰거나 큰 바위 같은것에 짓눌려서 허덕이군 했다. 바로 그러한 꿈속에 잠겨있었을 때였다.

아직 쉰다섯밖에 안되였으나 머리가 희였고 얼굴은 주름살에 뒤덮인 그의 어머니 박씨는 애처로운것도 모르고 그를 흔들었다.

《좀 눈을 떠봐라, 응? 일본이 망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기준은 앓는 소리를 내며 옆으로 돌아누웠다. 박씨는 음성을 높일 생각은 못하고 잠시 그의 머리말에 앉아있었다.

주름살에 뒤덮이긴 했으나 오똑한 코날이랑 타원형으로 생긴 얼굴모습 등은 젊어서는 매우 아름다운 녀성이였던게 누구에게나 알려진다.

박씨는 또한 마음씨도 고왔고 퍽 근면하고 강기가 있는 녀성이였다. 그 녀자에게서 아름다움과 생활의 정력을 빼앗아간것은 모진 세월과 그의 남편이였다.

기준의 부친은 스무살 되던 해에 이른바 청운의 뜻을 품고 일본으로 갔으나 완고한 부친에게서 학비를 얻어쓰지도 못하고 떠돌다가 되돌아온 후 허무주의자가 되여 우울한 세상을 보낸 사람이였다. 그는 맑은 정신으로 살아본 일도 없이 그저 집안식솔들의 속만 썩였었다.

기준의 조부가 남기고 간 약간의 가재는 거의 술값이 되여 없어졌는데 일곱칸짜리 집 한채 남은것마저 저당에 잡혀 불어먹으려고 하던 어느날 그는 술에서 채 깨지 못하고 그만 숨을 거두었던것이다.

박씨는 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여서는 안된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고 아들에게 귀띔을 했고 기준 역시 그러한 부친을 존경하느니보다는 비슬비슬 피하기만 했다. 그가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본것은 부친이 돌아가던 열일곱살때까지 단 몇차례에 지나지 않았다.

과부가 된 박씨는 방을 세주기도 하고 삯바느질을 하기도 했다. 간단히 말해서 박씨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생활을 알뜰하고 규모있게 조직함으로써 지켜야 할 례절은 다 지키는 봉건적인 가문 녀성의 품성을 그대로 간직하고있었다. 그래 풋대추 한접시를 놓고라도 죽은 남편의 소상, 대상을 지냈으며 아들 둘, 딸 하나를 학교공부까지 시켰다. 자식들은 름름하게들 자라났으나 큰아들은 스물세살 되던 해 경찰에게 잡혀가더니 이튿날 시체가 되여나왔다. 둘째아들인 기준도 사사모사로 속을 태워주다가 약도 돈도 구할수 없는 마지막판에는 병상에 누워버렸던것이다. 이러한 한평생을 살아온 박씨에게 있어서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은 희한한 일임에 틀림없었다.

《얘야, 좀 정신을 차려라. 해방이 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응?》

기준은 다시 바로누웠다. 그리고는 원체 시력이 약한데다 병으로 인하여 수증기가 서린 유리창처럼 부옇게 된 눈을 떴다.

《무어요?》

《세상이 벌컥 뒤집혔구나.》

박씨는 음성을 낮추어 조심스레 말했다.

《글쎄, 일본이 망했다는구나. 방송에 나왔다고들 하면서 모두 쑤군쑤군 야단들이야. 이젠 자유롭게 살게 된다는구나. 이런 일도 있느냐 말이다.》

《누가 그래요?》

기준은 상반신을 일으켰다.

《모두들 그런다니까. 벌써 어떤 사람은 만세를 부르며 뛰여가더구나.》

세끼죽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은듯이 시들은 무우갈이 희고 쭈글쭈글해진 볼과 턱에 무성하게 자라난 수염이 애오라지 떨리면서 기준의 얼굴에 기쁨과 정기가 떠돌았다. 언제나 무표정하던 아들에게서 그갈이 기쁜 기색을 읽고나자 박씨는 모든게 진실인것을 깨닫고 젊은이처럼 희망에 찬 얼굴표정으로 변했다.

《정말 그런가? 정말일가?》

혼자말로 중얼대면서 기준은 일어나 앉았다. 면도칼과 두껍게 먼지를 뒤집어쓴 거울을 찾아들었을 때 대문소리가 나더니 퇴근시간도 안되였는데 순희가 달려들었다.

《오빠! 오빠!》

이렇게 아이처럼 웨치면서 기준의 방으로 들어온 순희는 해방이라는 말을 거듭하더니 너무 감격해서 어머니와 오라버니의 손을 잡고 그만 흐느껴버렸다. 그바람에 다섯살내기 순희의 아들 정호가 깨여났는데 순희는 아이를 안고 더욱 흐느꼈다.

순희는 결혼을 했으나 남처럼 살수 없었다. 결혼후 남편의 고향인 인천으로 옮겨갔는데 그의 남편은 운송회사의 사무원이였으나 일본군대의 강제징용을 반대하는 로동자들과 내통하고있었다. 하루는 남편이 돌연 경찰에게 끌려갔었는데 원체 신체가 허약했던 그는 고문에 못이겨 사흘후 인천경찰서 류치장에서 목숨을 끊었던것이였다. 순희는 담뿍 첫정이 어리였던 이태동안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친정집으로 돌아올수밖에 없었으며 서울로 돌아와 적십자병원 간호원이 된지 벌써 3년째였다.

하루아침에 애정을 잃은 순희에게는 잔인한 일본통치배들에 대한 증오가 나날이 쌓여갈수밖에 없었다. 이제 해방의 소식을 들으니 순희는 그동안 쌓이고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지고 억울하게 돌아간 남편일

이 새삼스레 엊그제일같이 생각되여 그만 두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순희는 아들 정호를 껴안고 한동안 흐느꼈다. 그러다가 가슴을 진정시키고 기준이 재촉하는대로 그를 부축하여 거리로 데리고 나갔다. …

서울은 도시가 생긴 후 5백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 갖은 변란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슬픈 일도 많았고 때로는 감격에 차기도 했었으나 일찌기 그날처럼 흥분과 환희의 도가니속에 휩싸여본 일이 없었다.

하늘도 그 하늘이요 거리도 그 거리들이였으나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새로운 력사가 시작되게 되였으니 그것은 억눌려 살던 인민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자유와 행복으로 꾸미여질것이며 다시는 그렇게 억눌려 살지 않을것이 약속된 바로 그러한 력사가 아닐수 없었다. 그러므로 학대를 받던 수만, 수십만의 시민들은 감격에 못이겨 모두 밖으로들 달려나왔다.

크고작은 건물들우에는 해방을 경축하는 가지각색 천의 프랑카드들이 뜨거운 해별을 받으면서 춤을 추고있었다. 어느 거리에서나 만세소리가 폭발했다. 굳게 닫혀졌던 유리창들도 활짝활짝 열리고 그속에서도 함성이 터져나왔다.

날씨는 무더운 삼복더위였으나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사실들과 계속 들려오는 새로운 소식들은 머리가 어찔할 정도로 학대받던 사람들의 심장을 고동치게 했다. 그들은 가만가만히 말하지 않았다. 목청을 돋구어 묻고 큰소리로 대답하다가 나중에는 함께 웨치군 했다. 걷는 사람들보다 반달음질치는 사람이 많았다. 땀에 푹 젖은 마소들까지도 어리둥절해서 달려갔다. 흥분에 싸인 갖가지 음성과 음향들은 붐비는 길바닥에서 일어나는 먼지와 함께 자욱히 하늘높이 떠올라 가라앉을 사이가 없었다.

그 다음다음날, 리기준은 기력과 정신을 차려 또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날은 더욱 반가왔고 놀라울만치 희한한 소식이 시내에 퍼졌다.
《정말인가요?》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다.
《저 사람들 보시구려, 막 달려가지 않는가.》
《다들 나가는건가요?》
《그렇잖음 뭐겠소.》
《허— 마침 잘됐군.》
이러한 말들을 거리에서 주고받았다. 그리고는 혁띠들을 졸라매기도 하고 친구들의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기도 하면서 군중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두 앞을 다투어 서울역 앞광장으로들 향해갔다. 떼를 지어가는 수천수만의 군중으로 말미암아 넓은 도로들은 인도도 차도도 구별할수 없게 되였다. 전차는 물론 모든 수레바퀴들은 구르지 못하고 그대로 선채 사람들에게 묻혀버렸다.

청년남녀들이 몰려갔다. 중년남자들이 바쁜 발걸음들을 옮겼다. 자전거들이 종을 울리면서 겨우겨우 사람들속을 헤쳐갔다. 달리는 자전거 앞채에서 붉은기가 나붓겼다. 군중의 머리우에서도 붉은 기발이 날렸다.

어떤 청년은 전차지붕우에 올라서서 만세를 부르면서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었으며 어떤 남자는 말을 타고 내달으면서 이 기발을 휘둘렀다. 일찌기 이 도시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정의와 열정, 투쟁과 승리를 상징하는 기발이 날려본 일은 없었다.

정거장 앞광장은 한없이 밀려드는 군중으로 하여 차차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였다. 질서없이 서로 밀고 밀리고 헤치고 조이면서 모두 정거장앞으로 바투 다가서려고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서른댓 돼보이는 한 녀성은 벗어진 흰 고무신짝을 돌볼새도 없이 맨발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것이였다.

《**김일성**장군님의 항일빨찌산이 온다지?》

《몇시에 도착이래요?》
그러나 누구도 시간을 분명히 대주는 사람은 없었다. 삶는듯이 더웠으나 저고리들을 벗어들지도 못하고 연신 관자노리와 목으로 흘러내리는 땀을 씻으며 더운 입김만 후후 내쉬면서 몇시간이라도 기다릴 작정들이였다.

어느 틈에 촬영가들과 사진기자들은 두어군데다 통나무를 엮어서 드높은 로대를 만들어놓고 그우에들 올라가있었다. 그들은 그우로 기여오르려는 사람들을 자꾸 말리면서 한편 연신 초점을 맞추어본다. 둥근 선인장같은 정거장건물우의 피뢰침을 겨누어보기도 하지만 그날따라 일기가 흐린게 탈인듯싶었다.

일반군중보다도 다소 키가 후리후리해서 제껴쓴 밀짚모자가 눈에 띄우는 리기준은 사람들속에서 안경을 벗어 웃주머니에 넣었다. 누가 보아도 갓 병석에서 일어난 사람으로 인정할 정도로 여위고 창백한 얼굴이였으나 사람들은 그의 앞을 열어주지 않았다. 옆에서 자꾸 팔굽으로 찔러대는것을 막아내면서 그는 조금씩조금씩 로대앞으로 다가갔다.

기준은 촬영기앞에 선 까만 와이샤쯔의 청년을 알고있었으나 소리를 칠 기운이 없었다. 그래 조선빨찌산이 역두에 나타나는대로 그우에 올라설 작정을 하였다.

로대에 기대선 그는 자갈을 깐것처럼 총총히 들이박힌 군중의 머리우를 훑어보기도 하고 붉고 큰 새들처럼 펄럭이는 기발들을 바라보기도 했다.

잠시후 그는 로대나무기둥을 의지하고 그밑에 주저앉았다. 허나 그는 오래 앉아있을수 없었다. 군중이 자꾸 밀려들기도 했거니와 어디서인지 《적기가》의 노래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거센 밀물이 밀려들듯이 합창이 되여 폭발했기때문이였다.
(진정 저 노래였구나!)
기준은 피뜩 정신이 드는듯 했다.
코노래로도 조심스럽게밖에는 불러보지 못하던 노래가 아니였더냐.

진정 저 노래였다!

그는 도로 일어났다. 그리고 자기도 함께 목청높이 부르려 했으나 기력과 정신이 없기보다는 자꾸 목이 메여 소리가 나가지 않았다.

얼굴이 꺼멓게 타고 다 떨어진 의복들을 입은 로동자들이 한데 몰려서서 누가 우리 나라를 지도하게 될것이냐고들 토론했다.

《그야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맞서서 싸운분이지 뭐!》

누구인지 이렇게 말하자 다른 로동자들이 자신있게들 웨쳤다.

《그렇소! **김일성**장군님이시오. 그분만이 우리 나라의 지도자가 될수 있소!》

《옳소!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게 될거요. 그렇게 될거요. 반드시!》

그들의 얼굴에는 더욱 활기가 떠돌았다. 그들은 그냥 서있을수 없는듯 2중3중으로 목말을 타고 서서 목에 피대를 세우며 노래를 불렀다. 몇시간이라도 계속해 부를 기세였으며 어떠한 힘도 감히 막아내지 못할 정도였다.

관자노리에서 흰지렁이같이 기여내리는 땀을 씻을 생각도 않고 기준은 목이 메인채 한없이 그 로동자들을 바라보고있었다.

…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

이러한 구절이 더욱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다. 기준은 한동안 미간을 끔벅거리다가 슬그머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시울을 닦고 땀도 씻었다.

문자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룬 그 광장의 혼잡은 좀처럼 가라앉을것 같지 않았다. 잠시 노래와 만세소리가 멈춘 사이에 《몇시에 도착이야?》 하고 누구인지 물었다.

《곧 도착하겠지.》

누구인지 대답했다.

허나 그날 조선빨찌산은 서울역두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동안 로대우에서 사람들과 싱갱이를 하면서 촬영준비를 하던 촬영가들과 사진가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는지 기계들을 접어들고 로대에서 내려왔다.

이윽고 광장 한귀퉁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두시간 가까이 땀을 빼고 섰던 군중은 차차 흩어졌다.

군중은 오지 않는 손님의 환영준비를 했으나 그렇게 된데 대해서 누가 누구를 책망할수도 또 책망할 필요도 없었다. 그럴것이 **김일성**장군님께서 거느린 항일빨찌산이 38도선을 넘어 서울까지 오리라는 소식은 정확한것이 아니였으나 모두들 믿고싶었고 모두들 확실한것처럼 여기고있었던것이다. 그것은 광장에 모인 로동자들과 시민들의 한결같은 동경이며 희망이였던것이다.

서울역앞 넓은 터전의 복새통에서 겨우 빠져나온 리기준은 남대문동 중턱까지 밀려오다가 가로수밑에 멈춰서서 숨을 돌리고 웃주머니에 넣었던 안경을 꺼내 꼈다.

《조선빨찌산은 안 오나요?》

근처에서 또 이렇게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한 청년이 《글쎄, 아마 안 오는가 봅니다.》 하고 대답하자 다른 목소리가 《그럴리가 있나요. 래일은 틀림없이 올겁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귀에 익은 음성이 《확실치 않은걸 자신있게 말하지 마시오.》 하고 타박을 했다.

목소리가 익어서 돌아다본 기준은 《아, 유형!》 하면서 그의 팔을 잡았다. 값진 여름양복에다 진짜 파나마모자로 시원하게 차린 그 신사는 기준의 전문학교 1년 선배였으며 정체모를 정치단체에도 가담했고 이따금 사회평론도 쓰군 하던 유상렬이였다.

《기준 아닌가, 몹시 상했군그래. 병이 도지면 어쩌려고 나왔나?》
《일없겠지.》
기준은 기여들어가는 목소리였다.
《한번 찾아보려던차에 잘됐군.》
두사람은 혼잡한 속을 빠져나가 남산으로 올라가는 언덕길로 들어섰다.
《자네 자유독립일보라는데서 일하게 됐다지?》
《소식도 빠르군. 일할 의사가 없느냐고 하더군.》
《그래 승낙을 했는가?》
《겨우 일어난 사람더러 무얼 하라나, 글쎄…》
《회복되면 말일세.》
《경험도 없고… 그만두겠네.》
기준의 음성은 역시 기운이 없었다. 빨리 어디로 가 앉고만싶었다.
《내 생각에는 그 신문이 나오게 될것 같지 않네. 한두호쯤이야 나오겠지. 재정도 확실치 않고 거기다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였으니 첫호가 마지막호로 되기 십상이지.》
기준은 묵묵히 걷기만 했다. 느린 발걸음으로 보도를 걷는것이였으나 험한 산길을 치오르듯 숨이 가빴다. 더 걷기가 어려워서 그는 상렬을 길가의 그늘로 끌었다.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생각인가? 좌우간 자네는 량심적인 문화인이니까 큰일을 해야 할게 아닌가?》
《량심적이라고?》
기준이 반문했다.
《량심적이지.》
《량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말인가? 어디다 둘수 있나?》
《우선 일본놈 개노릇 안했으문 됐지.》
기준은 정말 숨이 가빠서인지 한숨을 내쉬였다. 그리고 딴전을 부렸다.

《그렇다면 난 량심적인 사람이 못되네. 그러지 말고 요즘 소식들이나 좀 알려주게.》
상렬은 손수건을 꺼내 그늘밑에다 깔더니 바지가랭이를 치키고 주저앉았다. 그는 담배에 불을 그어대고 두어모금 빨다가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나라에는 일군이 태부족일세. 부족하구말구… 절름발이지식밖에 갖지 못한 사람이야 많지. 글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혁명이 사회주의혁명이 아니라느니 무슨 특수한 민주주의혁명이여야 한다느니 하는자들이 있다니까. 항차 맑스주의를 공부했답시고 하는 친구들도 이러저러한 괴상한 리론들을 내세우고 고집한다니까. …》
이렇게 말한 상렬은 진정 화가 치미는듯 피우던 담배를 땅바닥에 눌러 껐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허기야 어떠한 정치적견해라도 발표할수 있지. 그러니까 서울거리에 떨어지는 수십, 수백가지의 삐라가 수십, 수백가지의 정견을 주장하지 않는가. 어떤 외국학자는 조선사람을 예술적인 민족이라고 했네만 내 생각 같아서는 동시에 정치적인 민족이라고 말하고싶네. 그렇지만 기준이, 우리는 한가지 정견 즉 사회주의의 길밖에는 없네. 그렇지 않은가?》
기준은 잠자코 앉아있었다. 상렬은 자기의 견해를 주장했다.
《자유독립일보에 대한 나의 불만도 여기 있네. 정치적견해들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여서 대체 무엇을 하자는건가? 나는 단언해도 좋다고 생각하네. 이제는 자유롭게 사회주의활동을 할수 있게 됐으니 그 길로 나가야 할것일세!》
그는 행인들을 보고 좀 목소리를 낮추었다.
《자네가 갈길이나 내 갈길이 같을줄 아네. 우리는 당으로 들어가야 하네. 이미 당이 재건되였다네.》
《그런가?》
《아직 몰랐지?》

《어느 틈에…》

《어느 틈에라니? 지하에서 나왔지. 자네도 곧 입당해야 하네. 사회주의자가 당을 떠나서 무얼 할수 있나. 내 입당되도록 노력해주겠네. 원서를 쓰게!》

입당원서를 쓰라는 말에 기준은 흥분했고 당황했다.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당에 대한 기준의 인식은 매우 불충분했다. 그러했기때문에 당에 든다는것을 다만 영예로운 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흥분했다. 허나 한편으로는 과연 자기에게 입당할 자격이 있겠는가 해서 당장 원서를 쓰기라도 하는것처럼 당황하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침착하게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자기가 지금 입당하려 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외람된짓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였다. 기준은 무어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몰랐다.

상렬은 거듭 간곡한 어조로 말했다.

《어쨌든 마음대로 활동할 때가 왔으니까 모두 손을 잡아야 하네.》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유상렬과 헤여진 리기준은 천천히 걸으면서 량심, 지식, 혁명, 사회주의, 정치적민족 그리고 당… 이러한 상렬의 말들을 생각했고 이제는 자유롭게 일할수 있게 되였다는 그의 말을 되뇌여보았다. 그러나 어쩐지 상렬의 말은 빈 씨앗을 깨물듯이 소리만 나는것 같았다. 자유! 그것이 아직 확실하게 손아귀에 잡히지 않았기때문이였다.

조선빨찌산은 언제나 올것인가?

기준은 초조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2

리기준의 건강은 하루하루 달라졌다. 친구들이 돌보아주기도 하였지만 순희가 그의 건강을 위하여 전보다도 더 애를 쓴 까닭이기도 했다. 순희는 일본놈들이 감추고 내놓지 않던 영양가높은 음식물들을 구해왔고 끼니마다 닭알과 설탕을 떨구지 않았다. 또 전에는 한대도 빼낼수 없었던 귀한 주사약을 병원에서 가져다가 하루도 건늬지 않고 매일 놔주었다.

건강이 회복됨에 따라 기준은 차차 일에 대한 의욕이 생겼다. 자기 방을 깨끗이 치우고 벽장안에 싸두었던 서적들을 털어 책장에 꽂았다. 몇해동안 중지했던 일기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친구들과 만났다.

여러 친구들이 그를 자기 사업에 끌어들이려고들 했으나 아직도 그는 제대로 일을 할만 한 몸이 된것이 아니였고 그 사업들이라는게 대개가 공중에 떠있었다. 일제에게 붙어살던 토착지주와 자본가들 즉 반동들은 어디로인지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렇지 못한 졸부들은 자기의 재산을 털어내놓기를 맹세함으로써 살아나려고 애를 썼다. 적지 않은 사업들이 거의 그러한 졸부들의 재정을 믿는것이였으나 정세를 관망하는데 쥐새끼처럼 예민한 그 졸부들은 말로만 재산을 털어내놓았지 한시도 전대의 주머니끈을 늦추지는 않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자유독립일보라는것은 안국동에서 약재장사를 하던 날치기 거간을 전주로 잡은것이였는데 그 장사치가 흥정하던 산동약재나 그후 일본군부에 바쳐 그것으로 졸부가 된 송탄유에 대한 일이라면 혹 몰라도 신문을 내겠다는것은 보통생각으로는 짐작할수 없으리만큼 놀랄 사실이였다. 과연 그 애매한 신문사는 계획한지 보름만에 손을 들었다.

무슨 단체니, 학교니, 출판사니 하는 간판을 걸고 비온 뒤 죽순 나오듯이 쏟아져나오는것들이 매양 그 모양들이였다.

유상렬이가 그후 기준을 찾아와서 맡기려던 일은 소위 사회명사들을 분별없이 다 망라한 방대한 명단을 가진 자금조달사업이였다. 토착지주들을 찾아가 기금을 얻어내자는 그 생각을 기준은 거절할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기준이 막 외출을 하려고 나서는데 백세루양복을 입은 사람이 《리상, 리기준상!》 하고 부르면서 달려들었다.

잠시 멈칫하고 섰던 기준은 그가 리연주식회사의 서무과 직원이던 아라이(기준은 그의 본이름을 몰랐다.)라는것을 알았다. 기준은 일찌기 그가 《국방복》이라는 옷이외의 복장을 한것을 보지 못했기때문에 곧 알아볼수 없었던것이다. 그런데다 고개를 여러번 숙이는 일본식인사를 하지 않고 팔씨름이나 하려 덤비듯이 손을 치켜들고 마치 나도 이러한 선진적인사방법을 알고있다는듯이 악수를 청하는 바람에 더욱 어리둥절했던것이다.

《난 누구시라구…》

《지금 댁으로 찾아오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조선인사무원끼리 협의를 하게 돼서요. 다들 모였을것인데 같이 가시지요.》

기준은 잠시 벙벙히 섰다가 《누가 그런 협의회를 하자나요?》 하고 물었다.

《가나이… 아니, 김지배인대리가 발기했습니다.》

《무슨 협의입니까?》

《회사관리문제입니다.》

《내야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 잘하시겠지요.》

아라이는 그의 앞을 막았다.

《아닙니다. 아직 회사에 적을 두고계신 이상 참가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거듭 거절하려다가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지 들어보고싶기도 해서 그를 따라섰다.

일본제국주의가 날마다 《황국신민》이 되라고 확성기로 웨치던 마지막판에 리기준은 그 회사의 회계원으로 취직을 했었다.

그러나 몇달 다니는 동안 그는 예상했던것과 같이 개밥에 도토리 굴듯 하는 자기의 처신을 더는 지탱해갈수 없었던것이다.

그날 협의회를 발기했다는 가나이라고 불려온 김동호라는 지배인대리는 이따금씩 기준에게도 와서 《당신은 무슨 불만이 그렇게 가득해보이오.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비웃기도 했고 하루는 아주 로골적으로 《우리 황국신민은 누구나 명랑하면서도 승전의 기세가 높은데 당신은 왜 그렇게 우울하오?》 하고 묻기도 했다.

잠자코 듣고만 있는 기준을 보고있다가는 《글쎄, 사상가는 그렇게 우울할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이렇게 빈정댔다.

다시 며칠이 지난 뒤 그는 또 기준을 불러앉히고 물었다.

《련성에 참가하지 않기로 작정했소? 어디 말 좀 들어봅시다.》

《련성》이라는것은 삼동이거나 복중이거나 상관없이 월요일 아침마다 잠뱅이 하나만 걸치고 발가벗은 몸으로 일본말구령을 웨치면서 회사에서 총독부앞까지 뛰여갔다가 돌아오는 《운동》이였다.

기준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까지 말살당하는 그런 지랄을 하느니 차라리 굶어죽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왔었다.

《어째 대답이 없소?》

기준은 할 말이 없었다.

《앞으로도 참가하지 않겠소?》

그는 거듭 물었다.

《참가하지요.》

이렇게 말하고 기준은 그에게서 물러섰다. 그리고는 병을 핑게하고 다시 나가지 않았으며 그런지 며칠후 진짜로 병석에 눕게 되였던것이였다. …

리연주식회사의 조선인사무원들은 그 회사 청사에서 멀지 않은 금각원이라는 중국료리집 빈방에들 모여있었다.

리기준은 심상한 표정으로 그러나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들어갔다.

먼저 김동호의 거무데데한 얼굴과 툭 불거진 눈을 보았다. 그는 전과는 달리 매우 친절한 어조로 깍듯이 조선말인사를 하고 그에게 자리를 권했다.

《한번도 찾아뵙지 못해서 실례 많았습니다. 기준씨!》

동호는 이렇게 말하고 얼른 방 한가운데 있는 안락의자로 가서 깊숙이 주저앉았다. 아무리 세월은 바뀌였어도 나의 위신이야 변할수 있을가보냐 하는듯이 그는 거듭 큰기침을 하면서 눈을 더욱 크게 뜨고 아주 찬찬히 침착하게 좌중을 쭉 훑어보았다.

협의는 곧 시작되였다. 김동호가 먼저 일어나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까히라선언, 포츠담선언에 관하여 이야기했고 반시간이상이나 일본을 욕했는데 결국은 일본제국주의가 나쁜것이 아니라 일본병정들이 잘 싸우지 못해서 일본이 망했다는 주관적해석이였다. 다음으로 그는 리연주식회사의 조선인사무원들이 회사의 일체 재산을 접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길게 설명했다.

그리고는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하고 벌떡 안락의자에 자빠져서 주머니에서 인단갑을 꺼냈다.

반대의견이 없다고들 하자 그는 담배를 피우면서 거듭 좌중을 훑어보더니 매우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회사를 조선사람끼리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각기 담당할 직책들을 진면목하게 정해야 할겁니다. 그게 사업의 순서라는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 성급한 아라이가 《지배인은 긴상이 하시고 부지배인은 리기준상으로…》 하고 말을 떼자 김동호는 매우 준엄한 어조로 《이제부턴 그 상소리 집어치웁시다. 우리 나라 말로 합시다.》라고 타이르면서 특히 우리 나라라는 말에 힘을 주어 소리쳤다. 그러자 모두 찔끔하여 마치 그의 사상이 대단한것처럼 생각해서인지 그를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진면목하게 의논해야 합니다.》

김동호가 말했다. 그는 벌써 수차례나 진면목이라는 일본식 조선말을 아주 떳떳하게 특히 힘을 주어 사용했다. 그는 그 거무데데한 얼굴에 긴장한 빛을 띠우고 말을 계속했다.

《나는 리기준씨를 업무과장으로 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의 의견이 일찌하신다면(그는 일치를 그렇게 발음했다.) 할수 없습니다. 좌우간 일본정치를 반대하고 나선분이라는걸 우리는 일찌해서 인정합시다.》

기준은 아무 대꾸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낯간지러워서 《난 일본정치를 반대하는 행동을 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 말은 들은체만체 하고 《다른 의견들 없습니까?》 하고 김동호가 툭 불거진 눈을 뜨고 물었다. 그러자 아라이가 자기의 성미가 급한것을 수치스레 여겨서인지 《우리 조선민족다웁게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5분만 생각해보지요.》라고 말했다.

그 말에 40살이 넘은 곰보 서무과 직원이 《지배인, 부지배인이야 따루 더 생각할게 있소? 이번에는 업무과장하고 서무과장을 정합시다.》 라며 서둘렀는데 그품이 그도 서무과장 한자리쯤 하려는 모양이였다.

《그럼 그만둡시다.》

아라이는 급히 자기의 의견을 철수해버렸다.

《일찌한 의견입니까?》

김동호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곰보와 몇몇 사람들이 대답했다.

《그럼 이번에는 과장들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들도 물론 진면목하게 의논해서 정해야 하겠는데…》

《그렇구말구요.》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들의 옆에 앉아있던 기준은 공연히 왔다고 생각되여 쑥스럽기도 했고 한편 괴이한 일을 목격하는게 흥미있기도 했다. 무슨 큰 회사의 중역회의나 진행하고있는것 같이 모두 버티고들 앉아서 헛기침들도 하고 목청까지도 가다듬으면서 서로 엄숙한 기분을 자아내게 하는 수작들이 자못 우스웠다.

일본에서도 이름있는 그 중간 착취기관의 존속권을 대체 어느 주권이 언제 그들에게 부여했는지 또 누가 그들의 직책을 임명하는것인지 알바 없는 그 협의에서의 결정들은 예금없는 행표를 쓰나 다름없는 일이였다. 허기야 그무렵 누가 내다붙이는것인지 종로 네거리에 《조선민국》, 《대한공화국》, 박헌영일파가 조작한 《인민공화국》 등등 제멋대로 나라이름을 정하고 김구 혹은 리승만을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쓴 삐라들이 빈번히 나붙어 사람들로 하여금 현기증을 일으키게 할 정도였으니 이 암둔한 사무원들의 일을 어찌 웃어버리기만 하랴!

기준은 탁상공론을 하는 그 자리에 더 앉아있을 필요가 없었으나 그냥 나오고싶지도 않았다. 그래 그는 현재 이 회사에 속한 동산, 부동산을 축내지 말고 보존했다가 새로운 정권앞에 내놓을데 대한 문제들이 정작 구체적으로 론의되여야 한다는것과 자기는 이 회사의 어떤 자리도 바라지 않을뿐아니라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으리라는 이야기를 했다.

거뜬한 마음으로 그는 먼저 그곳에서 나와버렸다.

자기가 량심적으로 살아온것처럼 생각하는 유상렬은 리기준을 량심적인 문화인이라고 했다. 일제자본가의 충실한 심부름군이였던 김동호도 그를 일본정치를 반대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준은 그자신이 생각하고있는바와 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비겁하게 살아온 한개 소시민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경력을 몇마디로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그는 어머니가 말리는것도 듣지 않고 전문학교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사립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고학을 계속할수 없어서 2년도 못되여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한여름과 가을을 미국 그리스도교계통이 경영하는 상업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는데 하루는 교장인 신목사가 그를 불렀다. 그는 교장에게서 문책을 받았다.

《당신, 종교가 자본가들과 밀착되여있다고 가르쳤습니까? 대답해보시오.》

기준은 덤덤히 서있었다. 그렇게 말한게 사실이였기때문이였다.

《왜 대답 안하시오?》 하더니 신목사는 한탄조로 말했다.

《종교는 신성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받아 중생을 도탄에서 구원합니다. … 아— 당신 하나님의 벌 받을줄 알아야 합니다.》

신목사는 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날로 기준을 내쫓았다. 기준은 밥줄이 끊어지긴 했지만 그 가증스러운 신목사를 보지 않게 된게 오히려 마음 편했다. 그후 타락한 생활을 한해동안 하다가 이번에는 《한성상공회의소》라는 간판을 단 기관으로 들어갔다. 상공회의소에 다니는 동안 그는 술과 담배를 배웠다. 매일 아침 뉘우치면서도 그는 저녁마다 술을 마셨다. 그러한 생활에 지친 그는 스물여덟이 되던 해봄에 중국 동북 간도로 갔다. 간도에서 다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려는것이 그의 은근한 속심이였다. 그는 사귀는 사람마다 그 마음을 타진해보았고 근처의 농가로 돌아다녀보기도 했다. 허나 누구에게도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할수 없었다. 결국 그는 중학교 선생으로 안착되여 선생질을 하면서라도 자기를 단련시키려 했으나 겨우 독서회조직에 참가하는 정도로 지내다가 문필생활을 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때 그는 자기자신이 얼마나 비렬한가를 느꼈던지 기차가 길주, 성진(당시)을 지나자 혼자 승강구에 나와 앉아 밤새껏 꿈틀거리는 시커먼 바다만 바라본적도 있었다.

조선말 신문, 잡지들이 페간되기 직전 두어차 경제학론문(그 내용은 소위 신체제경제의 모순을 폭로하려는것이였다.)을 썼는데 그것이 빌미

가 되여 류치장신세를 진 일도 있었다. 다시 계속되는 타락생활, 가까운 친구들의 도피행불로 인한 고독감, 암담한 생활의 연장, 리연주식회사에로의 취직, 득병, 이것이 리기준의 전 경력이였다.

이러한 경력은 리기준의 량심을 측량할수 있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사실 그자신이 자기의 지난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시시한 기억들을 털어버리려는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군 했다. 그는 공상가는 아니였지만 이따금씩 왕청같은 생각에 잠기군 했었다.

(비가 쏟아지는 깊은 밤, 나는 땅바닥을 기여 서수라근처 해안으로 나간다, 거기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배를 잡아탄다, 힘자라는데까지 노를 젓는다, 그러다가 거센 파도에 배가 뒤집혀도 그만이다, 일본경비병의 총탄에 맞아죽어도 그만이다. … 아니다, 죽지 말아야 한다, 죽지 않을것이다. 품에 지녔던 지북침을 보며 북으로 북으로 노를 젓고 또 젓자, 넉넉히 잡고 다섯시간만 저으면 쏘련근해로 들어가버릴게 아니냐!

따바리쉬! 야 까레이! 야 까레스끼 나로드! 이런 정도의 로어는 할수 있다, 나는 살게 될것이다, 나는 내가 희망하는 일을 하게 될것이다! …)

이러한 공상은 적잖게 그를 위안할수 있었으나 결국 그것은 자기 위안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였다. 그러한 공상속에서 량심을 찾아낼수도 없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조그만 마음의 흔적도 찾아볼수는 없는 일이라고 기준은 생각했다.

그도 그럴것이 바로 그무렵은 **김일성**장군님을 선두로 하는 항일빨찌산대원들이 모진 눈보라를 헤치며 수백리씩 행군을 하고 혹은 한줌의 미시가루나 풀뿌리로 끼니를 이어가면서 동만일대와 두만강, 압록강류역들에서 악랄한 일제의 침략군대와 무장투쟁을 계속하고있던 나날이였다.

3

박씨는 해가 저문 후나 밤늦게 들어와서는 또 열심히 책을 뒤적거리군 하는 아들의 눈치를 살피기만 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어느날 아침 기준이 나갈 차비를 하고 마루끝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것을 보자 넌지시 《직업을 정해야지. 허지만 급히 굴지는 말아.》 하고 그의 마음을 슬그머니 떠보았다.

기준은 집에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게 습관처럼 돼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안심시켜야 했기때문에 《직업이요? 정해야지요.》 하고는 일어서려고 했다. 그런데 박씨가 다시 이제는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잘살아야 할게 아니냐고 말하자 그는 좀 설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잘살아야겠으니까 할 일이 많답니다. 서울서도 이렇게 야단이지만 시골서는 더 법석이지요. 일본놈의 신주가 있는 신사를 모조리 두드려부셨답니다. 순사놈들을 모두 내쫓고 일본놈밑에서 세도를 쓰던자들을 몰아냈답니다.》

《그럼 그것들이 어디로 가니?》

《서울로들 도망쳐왔답니다. 그러니 서울이 더 복잡해질수밖에요. 그놈들은 서울에 있는 큰 지주들과 일본놈에게 붙어서 부자가 된것들 그리구 그리스도교인들의 집에 숨어있답니다. 리연회사의 친일파놈들도 숨어서 다시 찾아오지 못하지 않아요. 다시는 그런것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해야겠기때문에 할 일이 많답니다.》

《그렇겠지, 그런걸 내가 다 알겠니.》

《그러구 시골에서들도 모두 인민위원회라는걸 세웠답니다. 어머니도 알아두세요. 인민위원회라는것은 정치를 우리들 손으로 하는 기관이예요. 앞으로는 인민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믿고 그것이 다 잘돼가도록 힘써야 한답니다. 인민위원회를 반대하는 놈들은 반동이랍니다.》

박씨는 알아듣겠다는 표정이였다.

《그렇지만 얘야, 네 몸을 봐라. 또 자리에 눕게 되면 어쩌니? 이번에는 못 일어나. 그저 제 몸이 성해야지 그렇잖음 세상이 시들하니라.》

《제가 무얼 한다나요, 허지만 일을 해야지요. 해야 합니다.》

잠시 입을 다물고서 그는 정거장앞 넓은 터에서 목에 피줄을 세우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무동(남의 어깨우에 올라서는것)을 타고 올라서서 웨치군 하던 로동자들을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그는 또 황금정 네거리에서 일본경찰 셋을 잡아다가 그 추악한 몰골그대로 길바닥에 꿇어앉히고 거기서 가두연설을 하던 청년들을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청년들은 총독부가 당장 철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체 일본경찰을 소탕해야 한다고 웨쳤었다.

모든 량심있는 시민들은 하나같이 정직한 인민이 되려고 애쓰고있었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로선을 잡으려고 애썼으며 《로선》이란 말은 류행어처럼 씌여지게 되였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있을 때 대문밖에서 어떤 귀에 설은 목소리가 기준을 찾았다. 나가보니 그전에 기준이가 쫓겨났던 그 미국 그리스도교계통의 상업학교에서 서무일을 보던 염소수염을 한 중늙은이였다. 그는 수염을 바르르 떨면서 《리선생댁이 옳군요. 문패도 없어서 수태 찾아다녔습니다.》 하고 반기더니 기준을 따라 들어섰다.

《그사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준이 물었다.

《지내느라니 이루 말씀을 마십쇼. 죽지 못해 산다는 말 그대루지요.》

《왜 신목사가 봐주지 않던가요? 그렇게 충실히 해주셨는데…》

《신목사께서도 일본놈들 등살에 입을것도 못 입고 자실것도 못 자셨답니다. 조선사람이니 다같지요.》

(조선사람이니 다같다고? 말이 좋다. 이 여우새끼들아!)

이렇게 생각하던 기준은 모르는척 하고 한발 깊숙이 들어갔다.

《아니, 선천에 땅이 있겠다, 학교에서 돈이 생기겠다, 무엇이 부족했나요?》

《허… 모르시는군. 그 땅도 반은 일본놈이 빼어갔답니다.》

《빼앗긴게 아니라 국방헌금인지 무언지 하고 갖다바치고 그대신 학무부출입까지 하면서 총독부 월급을 타먹질 않았습니까?》

기준이 정통을 찌르자 그 중늙은이는 염소수염을 바르르 떨면서 변명했다.

《허, 리선생두… 그야 사세부득해서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신 신목사께서 일본을 좋아하실리가 있습니까. 잘 아실텐데 그러시는군. 하하하—》

그는 제 혼자 웃다가 슬쩍 묵묵히 앉아있는 기준의 안색을 살피고는 웃음을 거두더니 바투 다가앉으면서 찾아온 용건을 말했다.

《리선생, 그건 다 지나간 이야기고 내 의논할게 있어서 왔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아마 리선생도 마음에 드시리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저… 리선생, 교무주임 한자리 안하시겠습니까? 아니, 교무주임이야 표면상 이름이고 리선생이 상업학교를 맡아보실 의향이 없으시냐 말이지요?》

이 심부름군이 나타난 첫 순간부터 벌써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것을 짐작했던 기준은 적지 않게 흥미가 있어서 《무슨 생각으로 나를 다시 불러들이나요?》 하고 묻고는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허… 그런 말씀 하실줄 알았습니다. 허지만 리선생! 그야 일본놈때였구 이제야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신목사께서도 리선생이 교무주임으로 오신다면 매우 환영하실게 분명합니다요.》

《그럼 신목사의 의사는 어떤지 모르고 오셨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신목사하고도 한번 그런 말이 있고 해서 그래서 왔지요. 그런건 다 념려마시고, 어디 학교를 맡아보실 일을 생각해보십시다요.》

《교장을 한번 만나게 해주실수 있지요?》

기준은 신목사가 당장은 자기를 만날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짐짓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럼요. 헌데 요즈음은 학교일을 제게 일임하시고 잠간 시골에 가셨답니다.》

《어째 잘살던이들은 해방이 되자마자 모두 시골로 갔다고들 하누…》

기준은 혼자말로 중얼댔다.

《신목사야 학교일을 보시기만 하면 자연히 얼마든지 만나실게 아닙니까?》

지난날 욕을 보였던 사람을 다시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려는 그 예수쟁이의 계획은 매우 교활했다.

(도무지 안중에 없었을 나를 기억에서 더듬어내여 이렇게 사람을 보냈으니 얼마나 급했는지 알만 하다. 혁명가로 속단하고 나를 리용하여 제 몸을 살리려는 수작이 우습기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인민의 힘이 무서웠는지 알만 하다.)

이렇게 생각한 기준은 《아무리 급해도 순서가 있습니다. 신목사더러 한번 만나자고 하십쇼.》라고 말해서 그 시끄러운 심부름군을 돌려보냈다.

한편으로 질서를 잡아가면서도 여전히 흥분과 감격에 휩싸인 나날이 지나갔다.

9월 상순 어느날 시민들은 룡산쪽에서 행군해들어오는 미국군대의 행렬을 보았다. 미군은 일본병정들보다도 경편하게 만든 총들을 어깨에 걸치고 고무바닥을 댄 구두들이라 소리도 없이 거뿐거뿐 큰길을 지나가고있었다. 예고도 없이 또 시민의 환영도 긴치 않게 생각해서인지 그들은 어느 틈에 그렇게 슬그머니 상륙한것이였다. 일제의 기관들과 병영들에서 모든 기밀문건, 조선을 략탈하던 죄악적문서들을 불사

르는 화광이 꺼진 뒤였다. 미군은 또한 일본인들과 친일파들이 자기네 사유재산을 돌려빼만 한것은 거의다 돌려빼수 있는 여유를 주고 그들과 협의하에서(총독부측과 부르죠아정객들은 이미 미군이 상륙하기 전에 미국함대를 찾아 인천앞바다로 나갔었다.) 내성스럽게 슬그머니 상륙한것이였다.

시민들은 미군의 행렬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표정이 없었을뿐아니라 미군이 행진하는 한편에서는 여전히 삐라가 날렸고 구호들을 웨쳤다. 그리고 장사치들은 장사에 열중했다. 그 첫날부터 《미군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던것은 단지 소위 태평양방면 미군총사령관의 비행기에서 뿌린 란폭하고 모욕적인 포고문때문만도 아니요, 그들이 속히 들어와 일제를 소탕하지 않은데 불만이 있어서만도 아니였다. 이따금씩 쵸콜레트나 종이에 싼 알사탕을 획 길거리에 던져서 거지아이들로 하여금 서로 머리가 깨지게 덤벼들게 하여 그것을 보고 조선을 알려고 하는 태도 다시말하면 그들과 우리 사람들사이에는 처음부터 전혀 통하는데가 없었기때문이였다.

미군이 상륙한 이튿날 기준은 종로동에 있는 보험회사건물앞에서 문득 신목사와 마주쳤다. 한달동안이나 깊이 숨어있던 그가 처음으로 종로를 활보한 날이였다.

왼쪽볼에 물사마귀가 박히고 근육이 축 처진 얼굴에는 이전과 같은 간교하고도 거만한 표정이 떠있었다. 신목사는 기준과 시선이 마주치자 갑자기 엄한 표정을 하더니 외면을 했다. 그 표정을 본 기준은 그 얼굴에서 전번에는 좀 급했지만… 자, 보아라! 미군이 올라오지 않았니… 하는 말을 읽는듯 했다.

허나 다음순간 기준도 속으로 비웃었다. 그는 (예수쟁이세상이 온줄 알지만… 천만에, 어디 두고보자!) 하고 생각하면서 보험회사건물우를 쳐다보았다. 그 건물우에는 붉은 천에 또박또박 박아쓴 프랑카드가 걸려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조선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그것이 북조선에 와있는 쏘련군사령관의 포고문의 구절들이라는것을 모르는 시민은 없었다. 히틀러가 미국의 힘이 아니라 쏘련군대에 의해서 패망했고 일본제국주의가 조선빨찌산의 영용한 투쟁앞에 굴복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다. 그리고 **김일성**장군님의 지도를 받는 조선인민자신의 힘에 의하여 자유와 행복이 올것을 굳게 믿었다.

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황금정에 있는 양조회사건물 지하실에서 《공산주의자열성자대회》가 열렸다. 그 소식을 들은 리기준은 갓 조직된 동인단체인 사회경제연구회 동료들과 만날 약속까지 어기고 구경을 하러 갔다.

시간전에 들어갔으나 백여명이 앉게 된 그 지하실은 이미 빽빽이 차있었다. 겨우 방청석 한귀퉁이에 엉덩이를 붙인 기준은 손수건을 꺼내 안경알을 닦으면서 장내를 한바퀴 살펴보았다. 텁수룩하게 차린 사람이 많았고 더러는 로동자의 복장을 했으며 더러는 감옥이나 병상에서 나온듯 희고 여윈 얼굴이였다.

기준은 사람들에게 가리웠다가 트인 맨앞의 주최석을 바라보았으나 잘 보이지 않았다. 안경을 닦아 낀 다음에야 그는 주최석에 앉은 사람들을 한사람씩 뜯어볼수 있었다. 모두 무엇인지 심각히 생각하는 표정들이였다. 한가운데 앉은 모시와이샤쯔를 입은 나이먹은 사람이 좌상인듯싶었다.

주최석근처에 유상렬이가 앉아서 누구하고인지 아까부터 귀속이야기를 계속하고있었다.

볼록렌즈처럼 두꺼운 안경을 번쩍이면서 맞은편 창턱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전 《조선일보》 기자 조석우임에 틀림없었다. 인사는 없었으나 기준은 그가 일본군의 군복을 입고 싱가포르까지 종군기자로 갔었다는것만은 알고있었다. 그는 이따금씩 주최석을 바라보기도 하고 회의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살펴보기도 했다.

기준이 담배 한대를 꺼내 늘 하는 버릇으로 한쪽끝을 왼손 엄지손톱에다 탁탁 두드리고있을 때 누구인지 그의 어깨를 쳤다.

《자리가 없군.》

량미간이 좁은데다 코날이 서서 얼핏 보기에는 무척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김재인이였다. 그도 신문기자노릇을 하면서 감각파적인 시를 썼는데 한때 기준과 가까이 지내다가 타락하면서부터 멀어진 친구였다.

《이리 앉게, 자…》 하며 기준은 자리를 죄였다. 의자 한귀퉁이에 엉덩이를 걸친 재인은 흩어진 머리를 쓰다듬어올렸다. 그리고는 조석우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비벼대고 앉은 재인에게서 기준은 느긋한 향수냄새와 아직도 풍겨지는 술냄새를 맡았다.

그는 고개를 돌리면서 생각했다.

(마음껏 먹어대고 놀아대는 판이군!)

개회가 선언되였다. 역시 모시와이샤쯔에 누런 테안경을 낀 50살 가까와보이는 남자가 주최측을 대표하여 먼저 발언했다. 회의장은 갑자기 물을 끼얹은듯이 조용해졌다.

주최측을 대표한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여 본줄거리로 들어가자 어성을 높였다. 그는 맑스, 엥겔스, 레닌을 비롯하여 룩셈부르그, 립크네흐트, 쓰딸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도자들의 명제를 인용하면서 자기의 리론을 전개했는데 메모 한장없이 그렇게 말할수 있는 그의 기억력과 그렇게 할수 있는 용기라 할가, 대담성이라 할가, 그런 점에 기준은 우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기준은 그가 이야기하려는 주요한 골자를 포착하려 애썼으나 한시간 가까이 한 그의 이야기는 중복되는 론설들이 많았고 석연히 알아들을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일체의 애매한 태도 즉 각종 쎅트(분파), 투기주의 또는 타협적인 태도를 타파하고 우리 나라 경제의 각 부분을 조속히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개편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로선은 이러합니다. 즉 토착부르죠아지와 지주들은 그 근저로부터 타도하고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는 레닌동무의 리론에 근거해서 사회주의로 매진하자는 그것입니다.》

어디서인지 《그 리론에 의의가 있소.》 하는 소리가 들리고 《조용하시오.》 하는 반박도 일어났다. 그러나 주최자는 침착히 자기의 이야기를 다 끝마치고 다음과 같이 부언했다.

《저의 리론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비판도 해주시고 좋은 견해들로 많이 성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최측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체소한데다가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아서 고슴도치를 련상케 하는 청년이 일어섰다. 그는 우리 사업에 있어서 기회주의적인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장황히 말한 다음 민족자본을 포섭할데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최측의 리론에 적지 않은 의견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즉시 사회주의를 향해가자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했다.

세번째로 일어난 사람은 한 30살쯤 되여보이는 사람이였는데 그는 조리있게 리론을 전개할수가 없었던지 청중들속에서 《좀더 분명히 말합시다.》, 《요령없는 토론은 그만둡시다.》, 《치웁시다.》 하자 주저앉고말았다.

기준은 속으로 웃으면서 또 담배 한대를 꺼내 손톱에다 두드렸다.

《제 몇가지 토론하겠습니다.》 하면서 일어서는것은 고급양복차림의 유상렬이였다. 그는 주최측을 옹호하면서 수차나 그런것을 다 알고있다는 공박을 받으면서도, 한동안 사고와 관련한 유물변증법적방법을 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뒤에는 쏘련이 지키고있습니다. 전번에 토론한 동무는 필경 주최측의 말씀을 잘못 리해한것 같습니다. 요컨대 나는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부문을 시급히 사회주의적방향에로 전환시키는게 과업이라고 봅니다.》라고 단언했다.

《그건 일반론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리론을 요망합니다.》 하면서 일어난 뚱뚱한 로동자는 탁한 음성이였다.

기준은 무심히 이야기를 듣고있다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잠시후 기준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 뚱뚱한 사람은 지금 후줄근한 로동복을 입고있지만 엊그제까지 비단옷을 입고있던 것을 그는 보았기때문이였다.

기준이가 리연회사에 취직한 직후 회사일로 그 뚱뚱보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간 일이 있었다. 그는 종로에서 송탄유를 일본군부에 바치는 한편 일본의 보험회사 대리점을 경영하고있었던것이다. 기준이가 찾아갔을 때 그는 사장실에 앉아서 누구하고인지 일본말로 전화를 걸고있었다.

《전체 산업을 군수산업으로 돌린 현 시국인데 그건 안됩니다.》

저쪽에서 또 무어라고 하니까 《좌우간 우리는 그런 비국민적인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딴 방도를 생각하시는게 좋지요. 어— 어—》라고 응답하고 전화를 끊었었는데 기준은 그의 본견와이샤쯔와 전화기를 잡은 손의 옷소매에 매달려 하늘하늘 움직이는 보석단추를 지금처럼 유심히 바라보았었다. 바로 그가 왜 저렇게 부끄럼없이 로동자처럼 차리고 나서서 고성대언하는것일가? 회사 사장을 하면서 로동운동이라도 했던것인가?

기준은 암만 생각해도 리해할수 없었다. 그는 구체적리론을 전개한다고 하면서 조선의 산업운수체계를 한바탕 설명하는데 그쳤다.

유상렬과 비슷하게 주최측을 옹호하느라고 미찐이나 뽀뽀브의 명제들을 인용하는 토론이 두사람이나 계속되였다.

그러자 회의장 맨뒤에서 큰소리로 《사회! 여보시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얼굴에 광대뼈가 나오고 턱이 눈에 뜨이도록 불쑥 내민 청년이였다.

그는 아무 문구도 쓰지 않고 리론도 전개하지 않았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토론이 모두 허공중에 떠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개 로동잔데 무엇을 좀 배우려고 왔다가 실망했습니다. 우선 로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시오. 그리고 로동조건을 지어주시오. 뽀뽀브니 꾸시넨이니 하는데 내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각해보시오. 총독부자리에 군정청이 들어앉았습니다.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하잔 말입니까, 그렇잖으면 쏘련과 미국을 싸우게 하자는겁니까? 우리도 알아들을수 있는 토론들을 전개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주저앉았다. 그가 주저앉자 바로 그옆에 앉았던 와이샤쯔바람의 중년남자가 사회를 부르며 긴급동의가 있다고 했다. 머리가 벗어진거랑 눈시울의 주름살이 40살이 훨씬 넘어보였으나 눈이 방울처럼 큰데다 첫인상이 젊은이처럼 쾌활해보였다. 그는 앞선 로동자의 발언과 같은 의견이라고 하면서 탁상공론을 집어치우자고 했다.

《북조선에서 제시하는 로선을 따라야지 그외에 딴 길이 있을수 없습니다. 북조선에 누가 계신가? **김일성**장군님께서 개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있는데 이 대회의 주최측만 모르는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려운 말들, 과격한 언사들만 쓰지 말고 민주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토론합시다!》

《옳습니다!》

먼저 토론하던 턱이 불쑥 나온 청년이 웨쳤다.

그러자 《대단히들 딱딱한데!》, 《건방지군!》 하는 소리들이 들렸다.

《누구들인지 알겠나?》

기준은 넌지시 재인에게 물었다. 재인이 잠자코 있자 옆사람이 말했다.

《젊은이는 동광방직 로동자지만 저 대머리는 누군지요?》

기준은 어쩐지 믿음직한 인상들을 주는 그 로동자와 중년남자를 알고싶었다.

4

《공산주의자열성자대회》는 날이 저물어서야 끝났다. 김재인은 대회에서 여러번 발언을 하려고 일어섰다가 마침내 어느 학생복을 입은 청년이 주최측의 견해가 막연한데 그쳤다고 비난한 뒤를 이어 언권을 얻었다. 그는 십분정도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그 발언이 기준의 마음을 언짢게 했다. 그는 그 좌석에 지식분자들을 많이 참가하도록 조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고 반야유조로 부르죠아정객들의 수준만도 못하다느니, 더 연구들을 하고 다시 기회를 갖는게 좋겠다느니 하는 식의 폭언을 하여 몇사람들의 공박을 받으면서 주저앉았던것이다.

밖으로 나오자 별이 총총했고 어느덧 서늘해진 공기가 소매속으로 스며들었다. 우두커니 서서 몇번 심호흡을 한 기준은 재인과 헤여지려 했다.

《가세.》

재인이 그를 이끌었다.

《피로한걸.》

《그러니 잠간 쉬세.》

기준은 그가 가자는대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광교근처에다 간판을 갈아붙이고 다시 개점한 식당(해방은 우선 자기 차지라는듯이 《경축해방》이니, 《금일개점》이니 하는 광고를 내붙인)인 《에이 완》이라는데로 들어갔다.

식당안은 넓었으나 잔돈푼있는 패거리들에 의하여 거의 자리가 차있었다. 두사람은 구석켠의 빈자리를 찾아가 앉았다.

리기준은 음식이 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서 그의 맞은쪽 식탁에서 떠들던 장사치에 틀림없는 주정뱅이가 술을 고뿌로 들이키고 삶은 돼지고기를 탐욕스럽게 먹어대는 꼴을 바라보다가 담배를

꺼내 손톱우에다 두드려댔다.

음식이 나오자 재인은 술부터 따랐다. 기준은 두어잔밖에 마시지 않았으나 재인은 해장이 늦었다고 하면서 일주(일본술)를 고뿌로 들이켰다.

기준은 소음과 탁한 공기로 말미암아 머리가 어찔할 정도였다. 네온광선도 그에게는 너무 강했다. 기준은 얼른 먹고 나가고싶었으나 재인은 이제부터인듯 했다. 기준은 그의 잔소리를 막았다.

《아까 자네가 한 토론은 기분나빴네. 단지 불성실한 야유였다는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할걸세.》

그러자 재인은 들었던 잔을 도로 식탁우에 놓으면서 《다 한패들인걸 뭘 그래, 끼리끼리들 하고 건달들 하고 모인걸 뭐.》라고 변명했다.

《내 보기엔 참된 사람도 있데!》

《다 그게 그거야.》

재인은 우겼다.

《자네는 아까 그 주격턱의 로동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광방직의 로동자라는 청년?》

《그렇네. 나는 그 로동자의 말을 신중히 들었네. 그는 자기 목소리로 말한 사람이고 그외는 거반 남의 말을 서투르게 흉내냈다고 생각하네. 그렇게 생각지 않는가? 그 사람은 진정한 발언이였고 자네는 순전히 야유를 한거라니까, 그렇다니까!》

《그 로동잔 솔직하더군.》

《솔직하고 진지하지! 적어도 야유는 없단 말야. 내 말 듣게, 그 야유로 모든것을 대하려는 태도, 그건 자네가 오래동안 부르죠아신문의 기자노릇을 한데서 생긴 고질일세. 자고자대도 글쎄 분수가 있잖나?》

거나하게 오르기도 했고 기준의 말이 신랄하기도 했으므로 재인은 해쓱한 얼굴에다 미소를 띠우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허나 기준은 코등으로 흘러내린 안경을 치켜올리며 집요하게 대들었다.

《자네에게서는 바루 그걸 버려야 하네. 그것이 자네를 옳은 시인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사회경제연구회일에 발벗고 나서지도 못하게 하는걸세.》

《알겠네. 알겠어…》

《허지만 그건 마치 자네가 그 녀자를 버리지 못하는것처럼 버리기 어려울걸세.》

재인은 일제의 탄압이 혹심해지고 다른 조선어출판물과 아울러 《조선일보》가 폐간되자 사실상 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로 옮겨가게 되였는데 마음에 내키지 않는 직장에 다니는 그 울분을 다른 세계를 개척함으로써 풀기 시작했던것이다.

다른 세계라는것은 7~8년전부터 미장원을 경영하는 김애라라는 녀자를 통한 음란과 향락의 세계였다. 그 녀자는 타락의 길로 들어선 재인에게 날아다니던 천사와 같이 나타났던것이다. 일체의 사치한 행동표현이 뒤로 숨어버린 때였으니만큼 극히 한정된 사람들끼리 그루빠로 구성된 그 세계는 거기 들어가보지 못한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리해하기 어려웠다. 허나 그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있는지는 추측하고도 남았다. 애라의 미장원에 드나드는 유한마담들을 통하여 회사 중역들, 부르죠아지들이 먹는 술과 빠다와 통졸임의 횡취, 밀회장소(주로 미장원이였으나)의 선정, 전화련락, 반라체와 탕고, 사교춤, 심야와 피로, 이것이 전부였다.

남이 콩깨묵을 씹고있을 때 흰쌀밥을 먹고 모두들 촐촐해있을 때 거나하게 취하여 음란한 음악을 듣는 그것이 단지 일시의 편안에 그친게 아니라 김재인의 앞길에 심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에 틀림없었다.

잠시 묵묵히 앉아있던 재인은 신중한 표정을 했다. 새로 가져온 맥주를 부어 들이마셨다. 그리고 자기 잔에다 또 따라놓고 사방을 훑어본 다음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자네가 간도로 간 때부터 또 그후도 그렇지만 좌우간 자네와의 사이가 멀어져서부터 나는 타락하기 시작

했네. 그러나 나자신을 애라의 세계에서 빼내는 길은 말일세. 애라와 만나지 않는것만으로는 안될걸세. 언제는 내가 그 세계로 가려 했고 그 세계를 옳다고 생각한줄 아는가? 자네도 짐작하다싶이 나는 지난 5년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이 없네. 마셔도 이만저만하게 마셨나. 40살도 못되는 놈이 이제는 알콜에 젖었네. 또 나는 밤을 새워 향락을 추구했네. 그러나 나는 한번도 마음이 편한적이 없었네. 단 한시간도 말일세! 잔뜩 취하면 나는 나쁜 놈이고 좋은 사람이고간에 욕을 퍼부었었네. 개들, 일본놈의 개들 모두 뒈져버려라!

또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 한푼어치도 못되는 량심 개주고 말아라 하고…

애라는 나의 이러한 수작과 내가 시줄이나 쓴다는것이 마음에 들었던것일세. 내가 혹 접시를 마루바닥에 던져 산산이 깨뜨려도 애라는 아무 불평도 안하더란 말야.》

그는 또 맥주를 들이켰다. 그리고는 빈 고뿌를 잡은채 말을 이었다.

《그러나 술이 깨면 간밤에 하던 욕의 열갑절, 스무갑절씩 나자신에게 퍼부었네. 나는 내 육신이 하잘것없는것으로 생각되였단 말야. 그래서 나는 하루 담배를 40～50대씩 피우고 커피를 우유도 섞지 않고 진하게 해서 하루 십여잔씩 마시고 그리고 독주를 퍼부었지. 사실 나는 한달쯤씩 애라를 찾지 않았으나 부르기만 하면 엉금엉금 기여들어갔네.

그사이 무엇을 하셨어요, 얼마나 기다린줄 아세요! 하고 애라가 말하면 나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나라는 사람은 가장 너절하고 졸렬한 자라는걸 아시오! 이렇게 대답하고 휘트맨의 시를 한구절 읊군 했는데 애라는 그러한 나를 아주 고상하게 또 매력있게 생각했단 말일세.》

기준은 한쪽팔로 턱을 고이고 (그러니 어쨌단 말인가!) 하고 혼자 생각하며 무표정하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말일세…》 하며 재인은 취할수록 새파래지는 얼굴로 말을 이었다.

《내가 좀더 철저히 자기 모독을 했던들 다시 시를 쓸수 있었댔는걸. 다시말하면 내게는 좀더 철저한 자기 모독이 필요했단 말일세, 어떻게 생각하나?》

이야기를 끝낸 김재인은 새 담배를 한가치 꺼내서 피우던 꽁초에서 불을 옮겨붙이고 그 꽁초를 홱― 창밖으로 내던졌다.

(줄잡아 30년은, 아니 한세기는 뒤졌다고 할수밖에! 아니…)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준은 문득 다음과 같은 말을 생각했다.

《우리가 다같이 가지고있는 소시민의 잔재를 어떤 사람은 싸고 감추고 어떤 사람은 미화하고 변명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정체는 1년이 가지 않아 알게 될것이다. 모두 진지한 사람들속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생각해보는게 어떤가?》

이것은 사회경제연구회 사무실에서 어느날 박문선이가 한 말이였다. 기준에게는 진지한 사람들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류달리 뇌속에 파고들었다. 기준은 해방후 유상렬을 처음 만나 술한 이야기를 듣고난 후부터 바로 그 문제를 생각하던터였기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만 한 친구는 박문선이라고 생각했다. 기준이 룡정에서 교편을 잡고있을 때 그보다 2년전에 들어왔던 문선은 그곳으로 들어온 지각있는 사람들과 함께 빈한한 농가의 아이들을 모아 야간학교를 만들어 그들을 가르치느라고 애를 썼으며 일제의 주구단체인 협화회에 강제로 들어갈 형편이 되자 조선으로 나와 1942년 봄부터는 자기 고향인 강원도 린제산골로 들어가 아주 화전민이 되여 밭도 부치고 목탄도 구웠었다. 그러면서 로어를 독학하였다.

요즈음도 문선은 로어서적을 알뜰히 구해들여 연구회사무실에서도 그것을 훑어보느라고 골몰했다.

몇년만에 보는 박문선은 전보다 나이도 더 먹었지만 매우 여위였었다. 허기야 김재인도 전보다는 형편없다. 얼굴빛은 더 허여멀쑥하게 희였고 눈시울과 볼에는 전에 볼수 없었던 주름살이 잡혀있었다. 허나 그것은 로동과 인간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노력을 하느라고 생

긴게 아니라 향락과 되풀이되는 자책으로 말미암아 생긴 치사한 주름살이였다.

《나는 그러했네!》 하며 재인은 잠시 흐르던 침묵을 깨뜨렸다.

《헌데 나는 자네에게 꼭 한가지 이야기해야 할게 있네.》

《이야기하게.》

《물론 자네는 나보다 고생도 많이 해봤고 책도 많이 읽는걸 알지만 나는 자네에게 의견이 있네. 자네는 지금 한쪽만 보고있단 말일세. 무슨 말인지 알겠나? 서투른 장기군이 당장 저쪽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모르고 자기 꿍꿍이만 하는것처럼 자네는 지금 <모시두루마기패>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있단 말일세.》

《모시두루마기패》란 이미 《한일합방》전후의 매국적인 로선에 따라 움직이고있는 토착부르죠아지와 그 졸도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였다. 그들은 예수쟁이들과 마찬가지로 8월 15일부터 두더지들처럼 숨어서 지방에서 도망쳐오는 자기 족속들을 규합하고있다가 미군이 상륙하기 전후하여 안심하고 《한국민주당》이니 《대한민족당》이니 하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런데 여기 드나드는 사람들은 대개가 모시두루마기를 입음으로써 《량심》있는 조선사람이라는것을 표시하려 했다.

그래서 《모시두루마기패》라는 말이 생겼는데 어느날 기준은 종로에서 마치 그 꼴을 하고 태여난듯이 《국방복》에다 각반을 치고 살던 리연회사의 부지배인 김동호가 모시두루마기를 입고 가는 모양을 보고 쓴웃음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부르죠아들도 자기 살 궁리를 하고있다는걸 알란 말이네. 미군이 뒤를 받쳐주겠다, 돈은 있겠다, 무에 겁이 나겠나… 그자들이 지금 졸도를 규합하고있는것을 주의하란 말일세. 당장 사회주의로 가자고 하는 열성자대회 주최파나 유상렬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고 자네에게도 하고싶은 말은 한쪽만 보지 말라는것일세.》

《음!》

기준은 잠시 생각했다.

《물론 내 기회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닐세. 부르죠아지들도 졸도를 규합하고 힘을 합친다는것을 알란 말이지. 내 생각 같아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실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믿네. 경제적실권…》

《그게 정치적실권을 잡는것과 어떻게 다른가 말해보게.》

기준이 물었다.

《정치적실권이 잡히면 자연 경제적실권이 잡힌다는 말이지. 그게 맑스주의리론이지. 그렇지?》

재인은 취해서 횡설수설했다.

《그 리론은 누가 모르나? 내가 말하는것은 우리는 아직도 빈껍질들이란 말일세. 빈털터리로 정치적실권이 잡아지나 말일세.》

김재인의 이야기는 한이 없을것 같고 기준은 더 앉아배길수 없어서 재인을 끌어냈다.

그들은 광교에서 헤여졌다. 잠시 전차를 기다리던 기준은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담배를 사려고 보도로 건너섰다. 건너서면서 광교쪽을 보니 김재인은 비틀거리며 애라에게로 들어가고있었다. 애라의 미장원은 레스토랑(서양음식점) 《에이 완》이 있는 건물 3층에 있었다.

아래층 현관문이 열리고 전등불빛이 쫙 퍼지더니 그안으로 재인이 들어섰다. 그러더니 다시 현관앞이 어두워졌다.

×

김재인이 애라를 찾아 올라갔을 때 그 녀자는 불이 밝은 응접실안에서 어떤 녀자와 마주앉아있었다. 애라는 왁살스런 꽃무늬가 놓인 달린옷에다 빨간 실내화를 신고있었다.

《어서 오세요, 이리 앉으셔요. 네?》

그 녀자는 서른다섯이 넘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로장인것이 아니라 마치 처녀와 같은 수줍은 기색과 아양이 섞인 말투로 그를 맞았다.

또 한 녀자는 기생모습이 완연했으나 해방바람에 기생차림으로부터 검정통치마로 변한게 분명했는데 그것은 《모시두루마기패》의 사상표현과 같은것이였다. 짙은 화장과 왼쪽턱에 달린 까만 사마귀를 움직이며 나긋나긋한 표정을 지어보이다가는 교만스럽게 구는품이라든지 면양말에 뾰죽 칠피구두며 보통 검정통치마는 아니였다.

《얘, 인사나 하고 웃어라.》

애라가 이렇게 타박을 주자 그 녀자는 잠간 고개를 숙이면서 《리화자라고 불러주세요.》라고 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아시겠니. 저 백락일선생의…》

애라는 잠간 더듬다가 《애인이랍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재인은 내가 취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는 빨갛게 칠한 그 녀자의 손톱을 그쪽이 무안해할 정도로 바라보았다. 그 손톱이 탁자우에 놓인 미국담배를 한대 꺼냈다.

《이 담배 참 향기롭지, 언니?》

《미군들의 생활은 참 풍부하더라. 역시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나봐요.》

애라가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미국 례찬은 아직 이른데?》

재인이 빈정대자 애라는 《좋은건 좋다고 해야지요 뭐!》라고 말하고 자기도 미국담배를 한대 피워물었다.

《그러다가 또 주대가 없이 살게 될것 같소.》

이같이 말하면서도 재인은 또 (정말 내가 취했는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군.) 하고 생각했다.

애라는 애라대로 지지 않으려 했다. 해방이 되자 애라도 확실히 말이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할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앞으로 나아갈 로선을 잡지 못했습니다. 구태여 로선을 잡으려고 애쓸게 없을것

같아요. 저는 떳떳하게 산것도 없고 량심에 찔리는것도 없어요. 앞으로 그저 이렇게 살아가지요.》

애라는 그렇게 말하는게 바로 자기 경험에서 얻은 《사상》이며 《로선》이기도 하다는것을 주장해보이려는상싶었다.

5

애매한 일부 사람들이 조직한 《공산주의자열성자대회》가 있은지 십여일후 사회경제연구회 회관에 동인들이 모여 유상렬을 기다리고있었다.

사회경제연구회라는것은 모든 조직이 채 토대가 잡히지 않았거나 확실한 발족을 하지 못하고있는 복잡한 정세하에서 사회과학에 관한 연구회들을 상시로 갖는 한편 잡지와 간략한 서적들을 발간하기 위하여 림시로 모은 조그마한 동인단체였다.

이 단체를 조직하게 된 경위는 기준이가 8월 하순 서울로 올라온 박문선과 만나 자기 집에서 하루를 묵게 하면서 과거에 지난 형편이랑 남조선에 조성된 정치정세랑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문득 합의를 얻어서 구체적인 안을 짜보기로 된게 그 시초였다.

처음은 그 동인들로 적지 않은 수의 친구들을 망라해보았으나 그렇게 되면 과학자들의 동맹과도 같았기때문에 이번에는 훨씬 인원을 줄여서 가까이 상종할수 있는 친구들만을 모으게 되였다.

한때 E전문학교에서 문화사강의를 하던 변승룡이 누구보다도 이 사업을 지지찬동하여 발을 벗고 나섰을뿐아니라 자기의 고향 원주에 있는 토지 4만평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재정을 대겠다는 약속까지 했으므로 그를 연구회 주간(어떤 사업이나 일을 지휘하는 사람)으로 하여 사업이 시작되였다.

기준을 자기네 당조직에 넣으려 했으나 본인이 달가와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자 더 이야기를 추진시키지 않고있던 유상렬과 수차 신문사를 경영해보려다가 여의치 않게 된 김재인이 이 연구회로 모였다. 허기야 김재인은 이름만 걸어놓고 드나들기만 했지 실지 연구사업에는 관심이 없었다.

자기의 옛친구로서 해방후 매우 건실하게 나온다고 하면서 변승룡은 송재로라는 시인을 소개했다. 그외에 작고한 정치가 허성의 딸이며 한성대학부속 간호부양성소 독서회사건에 걸려 양성소에서 쫓겨나자 박문선의 고향인 린제로 가서 네댓사람의 촌사람들과 함께 목탄을 구워팔던 자기 당숙집에 1년 가까이 박혀있다가 해방을 맞이한 허봉례가 가입했다. 허봉례는 그때 목탄을 굽던 문선과 린제에서 사귀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함께 서울로 나온 5촌당숙의 권고로 연구회에 들어왔던것이다.

연구회의 첫 사업으로는 박문선과 리기준의 공동노력으로 《공산당선언》을 번역출판했었다. 그 소책자는 발행한 날로 한권도 남지 않고 시내에 퍼졌다. 다음으로는 변승룡이가 《레닌주의의 기초》를 영어역에서 중역하기로 되였으나 시일이 오래 걸렸기때문에 리기준이 영어역에서 중역한 레닌의 《민족문제》가 먼저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사업들이 그들의 주목적은 아니였다. 그들은 각각 연구론문들을 집필하고 보고하기로 되여있으며 거기다 더 많은 정력을 들여야 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는 동안 연구회사업은 유상렬의 의식적인 태공과 재정문제때문에 점차 기세가 떨어지는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광화문동에 있는 대양양품점 웃층을 빌리고있는 그 사무실은 단지 동인들의 련락처정도로 되여버릴 우려까지 있었다.

전날 밤 늦도록 번역원고를 정리하던 기준은 몸이 무거워서 여느날처럼 일어날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열시부터 유상렬의 연구보고가 있기로 되여있어 거기 참가해야 했으므로 부랴부랴 나갔다. 시간이 이미 늦었으나 유

상렬은 나타나지 않았다. 열두시 가까이까지 기다리다가 변승룡이 《벌써 두번이나 이 모양이거던.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게 잘못이지. 그 사람이 무슨 연구발표에 마음이 있겠나?》 하고 두덜댔다.

《마음은 딴데 있지. 그 사람 없다고 우리 일이 조금도 아쉬운건 없소!》

친구들이 잡담을 하건말건 책상에다 누렇게 절고 채양이 뒤틀린 자기의 밀짚모자를 올려놓고 다시 그우에다 로어책을 펴놓고는 한없이 그것만 들여다보던 박문선이 변승룡의 말을 받았다.

《빨리 잡지발간준비들이나 해주셔요. 이러다간 우리 일이 모두 룡두사미가 되겠습니다.》

잡지발간을 맡아보게 된 허봉례의 말이였다.

《자금을 속히 마련하지 못해서 안됐습니다.》 하고 변승룡이 사과하듯이 말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차로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해결해야지!》 하고 혼자 중얼댔다.

동인들은 점심때 헤여져갔다.

리기준은 깐깐하거나 리해타산에 밝은 사람이 아니였으나 덥석덥석 아무데나 덤벼들지 않는 성질이였다. 그러나 일단 무엇이든지 마음을 두면 그 일에 집착하고말았다.

사람과 상종하는데서도 그는 매양 그러했다. 아무하고나 쉽게 친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사귀면 살이라도 베여줄 정도였다.

유상렬에 대한 기준의 태도도 그러한 기준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학교때부터 알면서도 좀처럼 그와 가까와질수 없었던 기준은 자기와 상렬과의 사이에 무슨 면사포 같은것이 드리워져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대체 그것이 무엇일가?) 하고 그는 생각해보았다.

기준은 벌써 십여년전의 다음과 같은 일을 잊지 않고있었다. 1학년 여름방학이 지난 첫 학생회의에서였다.

2학년의 한 학생이 일어나서 동창들을 훑어본 다음 《소부르죠아지,

소시민의 자제들인 당신들이 대체 무엇을 하겠다고 그럽니까, 무엇이든지 하려거든 우선 당신네들의 그 생활토대부터 허물어버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고 꾸짖다싶이 했다. 그 상급생은 그후에도 루차 그렇게 어려운 발언을 했었는데 그가 바로 유상렬이였던것이다.

그후의 상렬은 어떠했던가? 누구보다도 그러한 생활토대를 지켜온 사람은 그였다. 그는 물론 더러 문필활동도 하긴 했으나 나중에는 광산업을 했다. 자본주까지 되지는 못했으나 좌우간 광산으로 따라다니면서 브로카(협잡을 기본으로 하는 장사군)노릇도 하고 덕대노릇까지도 했던게 사실이다. 그러한 상렬이 이번에는 그 열성자대회에서 떳떳하게 사회주의를 설교하려 했으며 그것을 자랑으로 알고있었다.

그러나 유상렬에 대한 기준의 불만은 이미 잘 알고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새삼스레 생각해냈기때문에 생긴것은 아니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입당했다. 당생활을 해본 일도 없고 당지도자들을 한사람도 모르고있는 리기준은 당원이 된 유상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에 두개의 《공산당》이 간판을 걸었고 또 비록 간판은 걸지 않았으되 그외에도 다른 《공산주의자》들의 그룹이 있는 복잡한 속에서 기준은 어리둥절했다.

특히 장안빌딩 현관에다 간판을 붙인 그룹의 사람들은 그 얼굴에 기름기가 돌고있다고 여러 사람이 말하는것을 들었고 양복 웃주머니에다 늘 흰 손수건을 접어 찌르고 다니는 유상렬이가 드나드는 곳이 바로 그 빌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였으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과거의 엠엘종파들의 중심으로 되였다는것을 안 후부터 입당은 고사하고 다른 여러가지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유상렬의 연구보고가 류산된 이튿날 기준은 길거리에서 삐라를 한장 주었는데 그것은 장안빌딩의 《공산당》에서 다른 《공산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격문이였다. 내용은 정견의 차이 또는 의견대립에 있는것보다도 자기네 당을 중심으로 하여 뭉치자는것이였는데 그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이름이 라렬된 가운데에 사회경제연구회가 있었다.

(상렬이의 수작이구나!)

피뜩 이렇게 생각한 기준은 그길로 장안빌딩으로 달려갔다.

《여보시오, 어딜 들어가시오?》

수위인듯 한 사람이 기준을 불렀다.

《선전부에 들어갑니다.》

《승낙없이 못 들어갑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가야겠습니다. 못 들어갈게 무업니까?》

기준은 격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만한것 아실만 한분이 어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저쪽도 시비조로 말했다.

《그럼 선전부의 유상렬씨를 만나게 해주시오.》

잠시 불쾌한 얼굴을 하고있던 수위는 할수 없다는듯이 선전부에 련락을 했다. 그러나 상렬은 나가고 없었다.

기준은 그곳을 나와 곧장 연구회로 달려갔다.

(상렬의 목소리지, 옳지. 여기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층계를 달려올라간 그는 박문선과 마주앉은 상렬이앞에다 그 삐라를 턱 펼쳐서 내놓았다.

《이게 무슨 삐라요? 어째 유형은 자기 마음대로 연구회이름을 리용하고있는가 말이요? 우리가 모두 바지저고리만으로 보인단 말인가!》

기준의 안경은 코등으로 미끄러져내려왔고 여위고 흰 턱뼈가 일긋얄긋 움직였다.

《이 사람이 어째 이렇게 흥분했어? 사정은 듣지도 않고서…》

얼굴을 붉히면서 상렬이 말했다.

박문선은 그 삐라를 집어 읽었다. 일단 이렇게 된 이상 기준은 속에 품었던것을 다 털어내놓지 않을수 없었다.

《유형의 정치적견해와 우리의 견해는 다르다는걸 알아야 하오. 그걸 연구회에서 밝혀보려고 하는데 어째 연구회를 류산시키기만 하오? 이야기가 난김에 말하지만 유형은 리강진이가 주동이 되였던 그 열성

자대회가 옳았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요? 그 극좌적리론들을, 리론도 별게 없습디다만 우리는 그걸 찬동할수 없소! 덮어놓고 사회주의로 가겠다지만 사회주의로 가길 싫어하는 공산주의자는 없을거요.》

삐라를 다 읽고난 문선도 말했다.

《잘되지 않았소. 유형! 남까지 끌고 들어가지 마오!》

그러자 상렬은 《당신들이 오해를 하고있소! 오해하고있다니까!》 하는 말을 반복했다.

6

고향으로 내려간 변승룡은 그길로 자기의 토지를 눅거리라도 전부 팔아버리려 했다. 그리하여 10만원만을 사회경제연구회에 내놓고 나머지는 저축해두려 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안해(자기보다 다섯살이나 더 먹은 안해와 말을 하지 않는지는 벌써 4～5년이상이지만)와 두 자식은 서울로 데려다가 살림을 차릴 작정이였다. 그러한 자기의 계획을 반대한 첫사람은 환갑이 넘은 어머니였다.

《야, 내가 살면 며칠이나 더 살겠다고 그러냐? 난 예서 살다가 내 땅에 묻히겠다. 데려가려거든 네 식구들이나 데려가. 내 농사해서 다 올려보내줄것이니…》

《농사를 하시겠다구요? 이제는 전과 달라서 3.7제로 하잔 말이 나오고있습니다. 헌데 그것도 안될것이 앞으로는 토지를 모두 나누어갖게 되고 지주라는게 없어진답니다.》

어머니는 수긍하지 않았다.

《아이고 맙시사! 농민들이 모두 불한당이 된다더냐, 그게 해방이냐? 아니다. 우리 동네에는 그런 놈은 하나도 없다. 없지!》

《좌우간 소작료를 받을 생각은 마셔야 해요. 그러니까 아예 팔아버리자는게지요.》

이렇게 옥신각신할즈음에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삼촌이 들어섰다.

승룡은 뜰로 내려가 인사를 했다.

어머니는 삼촌의 동의를 구하려고 《글쎄, 얘가 땅을 다 팔겠다지 않습니까, 아니…》 하면서 하소연하다싶이 하며 그 땅을 베고죽겠다고 몇번이나 뇌였다.

잠자코 담배대만 빨고 앉았던 삼촌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땅을 모두 농민에게 나눠주는 세상을 나쁜 세상이라는게 아니여. 허지만서두 난 암만 생각해두 그렇게 될거 같지 않으이. 두구보게! 쉰떡 처분하듯 했다가 공연히 땅만 없애지 않으리…》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생각되실는지 몰라도 이제부터 소작료를 받는건 욕된 일이고…》

삼촌은 입을 벌린채 듣고있다가 《허, 대대로 받던게 어째 자네에게만 그게 욕이 된단 말인가, 원!》 하고 탄했다.

《사회가 그렇게 됐답니다. 소작료를 받아본댔자 고작 1～2년일겁니다.》

《어련히 잘 알아하겠나만서두 나도 찬성 못하겠네.》

《그렇구말구요. 안될 말이다. 나는 여기서 살다가 내 땅에 묻히겠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였다. 승룡은 그들과 의논하기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것 같지 않았다. 은근히 처리할 일을 공연히 떠들썩하게 했구나 하고 후회한 그는 말을 끊었다.

그는 안해가 대청에 내놓은 모시바지저고리를 갈아입었다. 풀대님으로 파나마모자를 쓰고 나가려다가 어색해서 농립모를 하나 얻어쓰고 밖으로 나갔다. 이웃 아주머니들이랑 손아래 사람들에게는 점잖게 인사를 걸었고 년로한 어른들에게는 손을 땅에 대고 공손히 절을 했다.

《공부한 자식은 달라!》

어떤 로인은 그를 돌려세워놓고 이같이 말했고 어떤 어르신네는 《그래, 이번에 무슨 벼슬을 했나?》 하고 아주 정색을 하며 물었다.

《저는 벼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공부하는 단체의 책임자랍니다!》

《공부하는 단체의 책임자라구? 그것도 벼슬이겠지… 큰사람일수록 벼슬자랑은 아니한단 말이여. 그래 대통령은 어느분이 된다던가?》

변승룡은 이러한 말대답을 하느라고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했다. 그러다가 토지거간을 해서 먹고살던 변이식이라는 먼 친척형이 되는 사람을 찾아갔다.

마침 읍에 나갔다 하여 승룡은 뒤동산으로 올라가 한시간쯤 고향 풍경을 내려다보고 개울굽이옆에 있는 자기 땅도 훑어보았다. 고생을 모르고 자라난 그는 사실 자기 토지에 대한 애착심도 가져본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다 철들어서부터는 고향을 떠나 일본이나 서울에서 살았으므로 자기가 소작인들을 착취한다는것이 다만 관념적으로밖에 실감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차차 자기는 착취자의 범주로부터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던것이다.

그러므로 동산에서 고향풍경을 내려다보는 그의 머리속에는 산천이 아름다웁다는 생각만 있었을뿐 소작인들의 여론이 어떠할가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또 자기의 유일한 수입원천을 잃으면 앞으로 고생문이 열릴것만 같기는 했으나 그에 대하여 짐짓 깊이 생각하려들지 않았다. 다만 어쩐지 서운했다.

아깝고 서운했지만 (혁명적으로 해결해야지, 팔아버리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자! 한재빈과 같은 활동가가 되자!) 하고 생각하고 기운을 얻었다.

도로 이식의 집으로 내려왔으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었다. 그는 꼭 만나자더라고 전해달라 하고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귀한 아들을 위해서 부리나케 사람을 시켜서 양 한마리를 잡아 각을 떠 들이게 했다. 승룡이가 들어가자 어머니는 고기를 저미는중이였다.

《요새도 그렇게 술을 과하게 하니?》

어머니가 묻자 승룡은 흥미없이 대답했다.

《가끔 하지요.》

그는 옆집에서 고았다는 불이 확확 붙는 소주에다가 양고기를 먹고 일찌감치 자리에 누워버렸다.

이튿날 일찍 변이식이가 찾아와 승룡의 이야기를 듣더니 념려말라고 하면서 바람개비처럼 나돌았으나 합당한 작자를 찾아내지 못한 모양이였다.

저녁때 다시 찾아온 그는 하루에 되는 일이 있느냐고 하면서 승룡을 고무하는 한편 자기가 구문(이미 들은바가 있는 묵은 소식) 얻어먹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날도 승룡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해방직후에 돌아와 무위도식을 하는 외삼촌과 함께 양고기에 취해버렸다.

사흘째 되던 날 느지막해서 일어난 승룡이 모기장을 헤치고 잠옷바람으로 대청에 나와 앉아 랭수를 들이키고있는데 일본경찰에 의해 폐교당했던 사립학교의 교장이 달려들었다. 그는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이였다.

《변선생, 올라가시지 않았지요? 안 올라가셨군…》 하며 안심하더니 그는 올라앉기를 권해도 굳이 마루끝에 걸터앉아 땀을 씻었다. 그리고 주섬주섬 옷을 입는 승룡에게 말했다.

《어제 저녁에 보도된걸 모르십니까?》

《무슨 보도입니까?》

승룡은 심상히 물었다.

《군정청에서 말입니다. 지주는 종전대로의 소작료를 받으라는 통보를 냈다는게 보도되였습니다. 다들 알고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승룡은 마음 한귀퉁이에 남아있던 자기 땅에 대한 아깝고 서운한 생각이 풀리고 피뜩 땅을 헐값으로 팔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허나 또 한사람의 변승룡은 미군정을 부

당하게 여기고있었다.

《대체 미군정이 무얼 하러 들어왔습니까? 미군정을 시비하는건 안됐지만서두 조선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런 통보를 내는겁니까?》

군위원장은 분개해서 말했다.

《글쎄올시다.》

《그 소문을 들은 농민들과 청년들이 모두 들고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렇잖겠습니까? 우리 인민위원회로서도 그냥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 오늘 오후에는 농민대회를 소집하겠는데 변선생께서 꼭 나오셔서 연설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연설을…》

승룡은 별안간 어리뻥뻥해서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군위원장은 펄쩍 뛰다싶이 했다.

《흥분한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겠습니다.》

《인민위원회에 계신분이 하셔야지요.》

《지금 우리들이 협의회를 한 결과 아무래도 변선생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치했습니다. 이제 다시 변경할수도 없고, 아니 정말 꼭 부탁합니다!》

승룡은 난처한 표정으로 (일은 괴상하게 돼가는군!) 하고 생각했다.

그는 거듭 부탁했다.

《믿습니다. 모두 기대합니다!》

군위원장은 거듭거듭 이렇게 부탁하고 또 급한 볼일이 있다 하면서 총총히 나가버렸다.

여직껏 밖에서 짖어대던 3년 묵은 얼룩개가 마루앞으로 와 두발을 쭉 내밀고 엎드려서 그럼 이젠 어떻게 하겠느냐는듯이 주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있었다.

(아니, 땅을 파는데는 유리한 소식이다!)

변승룡은 생각했다.

허나 그럴수가 있는가? 종전처럼 지주에게 소작료를 받을 권리를 준다면 80퍼센트이상이 농민인 조선사람이 해방되였다는게 무슨 의의가 있단 말인가? 자본주의제도 그대로다! 아니 소작료를 30퍼센트로 하자는 농민들의 제의를 완전히 무시하다니… 그럴수가 있나?

그는 마당으로 내려가 치솔질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다.

무조건 토지는 농민의 소유로 되여야 한다. 그것이 해방이다! 그러한 개혁이 없다면 8.15의 의의는 없다! 미군정의 그같은 시책은 타도되여야 한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한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기의 사상과 현실생활사이에 생긴 모순의 시궁창으로 빠져버렸다. 그는 그속에서 허우적거렸다.

토지를 판다는것은 미군정청의 시책을 수긍하는 행위가 되는것이다. 반역자의 행위다!

그러자 변승룡의 머리속에는 사회경제연구회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중에서도 거뭇거뭇하고 훌떡 벗겨진 박문선의 이마와 코등으로 미끄러져내린 리기준의 검정테안경이 번쩍거렸다. 실망을 한 허봉례의 균형이 잡힌 아름다운 얼굴도 떠올랐다.

서울집을 판다? 그렇게 하면 살기는 어떻게 살고… 대번 거지가 될걸! 그래도 어떻게 땅을 팔아볼수밖에…

이러한 생각을 몇시간씩 계속하고있는데 군에서 사람이 와서 함께 나갔다. 짐짓 넥타이를 매지 않고 샤쯔바람에다 어저께 얻어썼던 농립모를 쓰고 나갔다.

《토지는 농민의 소유여야 하며 농민의 고혈을 착취하는 지주를 배격해야 한다.》라고 하는게 이 부재지주가 하려는 연설내용이였다. 승룡은 사실 연단에 오를 열의도 없었고 용기도 나지 않았다.

(이통에 나도 그깟 4만평쯤 싹 노나주고말가부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그는 꾸즈민스꼬예의 령지로 간 네흘류도브를 생각하고 쓴웃음을 웃었다.

(아니다. 나는 네흘류도브일지 몰라도 해방된 조선농민은 벌써 꾸

즈민스끄예의 농민들이 아니다!) 하면서 그는 대회장인 학교마당으로 들어섰다.

풀잎모자를 쓰기도 했고 맨머리바람이거나 수건을 동이기도 한 남녀농민들이 모여들었다. 아이를 업은 아낙네들도 청년들도 따로따로 모여서서 마당안은 삽시간에 빽빽하게 들어차게 되였다. 농민들은 제각기 웅얼거리고들 있었다.

그는 군위원장의 소개를 받아 연단으로 올라섰다. 장내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는 줄곧 가슴 한편에 뭉클한것을 감각하면서 어성을 높이지도 않고 조심조심히 말을 계속했다.

의무적으로 40분가량 한 이야기건만 의외에도 농민들에게 자극을 주었다.

《그렇소. 지주를 없애치워야 하오!》

《땅을 모두 우리가 관리해야지요!》

《군정청의 통보를 거부합시다!》

운동장안이 들끓다싶이 했다. 청년들은 미군정의 통보를 거부하자고 거듭거듭 웨쳤다.

그렇게들 웨쳤을뿐아니라 승룡이가 연단에서 내려오자 농민들이 그에게로 몰려와 제각기 인사를 보냈다.

한 50살쯤 나보이는 농민이 베잠뱅이에서 땀냄새를 풍기면서 《허ㅡ 우리 마름같은건 립도(서있는 벼)를 팔라드는데 참 선생님, 그런 좋은 말씀 매일 해주우.》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또 30살이 되여보이는 젊은 농사군은 자기는 인민위원회 청년부에 있다고 하면서 넉가래만 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는데 그가 승룡의 손을 어찌나 힘주어 쥐였던지 승룡은 아ㅡ 소리를 칠번 하면서 빼냈다.

인민위원회에서 매일 사람이 와서 이일저일 부탁하는 바람에 이루다 거절할수 없어서 4～5일 보아주면서 토지를 살 의향이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보았으나 그런 일에는 날고뛰는 변이식도 종시 작자를 만나지 못한 모양이였다.

읍과 각 면소재지의 벽들에는 말할것도 없고 길가의 도정표 말뚝에까지 《악질지주를 처단하자! 땅을 농민에게로!》 하는 삐라가 나붙었다.

변승룡으로 하여금 토지를 팔지 못하게 한것은 누구보다도 자각된 농민대중의 기세였다. 이리하여 승룡은 40도가 넘는 독주를 서너되 하고 양 한마리를 얼음에 채워놓고 이럭저럭 다 먹게 되였다. 마지막날 그는 얼근히 취해서 아이를 불러놓고 안해에게 들리도록 소리쳤다.

《래일 아침 떠나겠으니 준비해놔.》

7

미군정은 남조선을 한꺼번에 턱 집어삼키는 형식으로 하지 않고 그들의 다년간의 식민지정책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서 합리적인 술책으로 마치 고양이가 쥐를 먹듯이 우선 중요한 부분을 씹다가 점차로 다 집어삼킬 작정이였다. 그러나 남조선을 마치 잡힌 쥐와 같이 다루려는 그 오만무도한 정책은 단번에 인민들에게 알려졌다.

인민들의 창의와 정치적각성에 의하여 창설된 각급 인민위원회를 해산시키는데 힘을 집중하는 한편 지주의 생활과 정치적활동을 보장해준 미군정은 또 한가지 법령을 내렸다.

그것은 남조선경제의 80프로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인소유였던 일체의 산업과 재산을 《귀속재산》이니 《적산》이니 하는 명목으로 수탈하는 해괴한 법령이였다.

대양양품점이 든 인조대리석의 연평수 8백여평이나 되는 3층건물은 원래 일본인의 소유였던것을 그 양품점이 세든 건물이였다. 그 건물도 물론 《적산》목록에 오르게 되였는데 그와 동시에 그 건물을 접수관리하게 된 사람이 서울부자로 이름있는 백락일이였다.

하루는 리기준이 당의 일을 하게 된 박문선의 부탁을 받고 운수로

동자들에게 보내는 격문을 쓰느라고 회관에 앉았으려니까 아래층에서 양품점 주인이 감때사납게 생긴 중년신사를 데리고 올라왔다.

《사회경제연구회라는게 무엇하는 곳이야, 대체?》 하면서 들어선 그는 리연회사의 지배인대리였던 김동호였다.

기준을 본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리기준씨가 여기 계시군.》 하고 의미있게 말하고는 권하건말건 모시두루마기자락을 젖히고 펄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시두루마기는 철이 좀 늦었으나 《국방복》을 애용하듯이 애용하는 모양이였다. 양품점 주인은 기준에게 그를 소개하러 올라왔으나 피차 아는터임을 알자 창앞으로 다가서서 군악대소리가 나는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몇마디 인사를 나눈 다음 김동호는 짐짓 엄한 표정을 해보이며 팔짱을 끼고 두어번 큰기침을 했다. 그리고는 이 건물이 백락일의 관리로 넘어갔다는 소식과 2층과 3층을 백락일이가 부당수로 있는 《대한민족당》의 사무실로 쓰게 되였다는 사연을 통고하노라고 했다.

《그래 이젠 정치계로 나섰습니까?》

기준이 이렇게 묻자 그는 좀 어색해져서 《내야 정치를 아나요.》 하더니 의자등받이에 기대고 가슴을 펴면서 실무적으로 말했다.

《내야 딴 사업에 바쁘지만 백락일선생과 내 막역하고… 그렇지요. 막역한 사이고 사상도 일찌하니까 말이요. 백락일선생대신 내가 통고를 하러 왔소이다.》

《돈많은 사람들이 어째 남의 사무실을 내놓으랍니까?》

《허ㅡ 난 지금 진면목하게 하는 말이외다. 미군정의 법령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이라는걸 아시오.》

《허지만 일주일안으로 내놓을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래 미군정을 반대하시오?》

《당신은 찬성하시오?》

기준은 어성을 높였다. 그리고는 흘러내린 안경을 치켜올리고 김동호를 쏘아보았다.

그러자 동호도 지지 않겠다는듯이 그 감때사나운 눈알을 디굴디굴 굴리며 《좌우간 금 10월 3일 정확히 진면목하게 통고를 했소이다. 나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 하면서 창가앞에 서있던 양품점 주인을 앞세우고 내려가버렸다.

김동호가 내려가자 기준은 만년필을 책상에 놓고 두팔을 깍지끼여 머리뒤를 받치고 의자등받이에 벌떡 기대였다.

(하, 저렇게들 해서 제자리로들 들어박히게 되는구나. 그리고 미군정이라는것이 그것을 보장해주는구나! 김동호가 백락일의 겨드랑밑에 매달린것을 알게 된것은 흥미있다. 그러나 어쩐지 불길한 예감을 주는건 또 무슨 까닭이냐!)

한동안 이리저리 생각하고있을 때 박문선과 흰 저고리에 검정목치마를 입은 허봉례가 함께 들어왔다.

《왜, 잘 안 써지나?》

박문선은 그 낡은 밀짚모자를 책상우에다 내던지고 물었다.

《생각이 잘 안 나네.》

《어렵게 생각할게 없다니까…》

《어렵게 생각하게 돼서 그러네.》

기준은 두사람에게 회관을 내놓게 되였다는 사정이야기를 했다.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은채 잠시 묵묵하던 허봉례는 《배겨볼 판이지요 뭐. 우리는 <적산> 좀 못쓴다나요.》 하고 야무지게 말했다. 담배만 피우던 박문선도 그런 의사였다.

《배겨야지!》

그때 양품점 주인이 올라왔다. 과부설음은 과부가 안다고 그도 집을 내놓으라는 통고를 받은지라 답답했던것이다. 그는 양품점을 내놓으라는 의도는 비싼 집세를 받기 위해서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다가 미군이야기가 나오자 어제 자기 고향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그는 차안에서 본 이야기를 했다.

《양평가까이 왔을 때 일입니다. 내앞에 제법 멀끔하게 차리고 옆

에 큰 려행가방을 끼고있는 신사가 앉았었는데 한 시골청년이 차칸으로 지나가다가 잠시 물끄러미 그 신사를 바라보더군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신사더러 어디루 가는거야? 하지 않아요. 어쩐셈인가 했더니 청년이 덥석 그 신사복장의 멱살을 잡고 좌중을 향해 여러분! 하고 웨치더군요.

그리고는 이자가 바루 경찰서장을 해먹던 김대우란잡니다. 바루 우리 형을 잡아죽인 놈입니다! 이런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더군요. 청년의 눈에서는 쌍심지가 돋았고 그 신사놈은 침먹은 지네처럼 꼼짝 못하고 얼굴이 질려서 손에 들었던 물부리를 떨어뜨린채 두다리만 부들부들 떨지 않아요. 세상에 참!》

《그래 어떻게 했어요?》

봉례가 채근했다.

《차안의 군중들이 그따윈 당장 요절을 내! 차밖으로 던져버려! 이렇게들 웨칩디다. 그런데 어떤자가 그런건 이제 미군정이 다 처리할거외다. 이렇게 선소리를 하니까 어떤 청년이 언제? 래년에? 쓸데없는 소리말고 죽여! 하고 반대하더군요. 양평정거장에 와닿자 청년은 그자를 플래트홈으로 끌고내려가서 들이족치더군요. 그 틈으로 카빈총을 멘 미군이 눈깔을 치뜨고 군중을 비집고 들어오더니 차림이 그럴듯한 전 경찰서장을 떠밀어보내고 격분에 넘친 청년을 보고 콤뮤니스트, 콤뮤니스트(빨갱이, 빨갱이)! 하더니 그를 끌고 파출소로 들어가잖아요. 차칸의 사람들이 서장놈을 향하여 저놈 잡아라! 하고 웨치자 그놈은 가방을 내던지고 삼십륙계 줄행랑을 치고 차는 떠나고…》

허봉례가 들고있던 펜대를 책상우에 던지면서 맥아더의 포고문 한구절을 야유조로 뇌였다.

《하기와 여히 포고함, 본관 휘하의 전첩군은 본일 38도이남 조선지역을 점령함입니다! 미군은 벌써 남조선을 점령하지 않았어요?》

안경이 코중턱까지 흘러내린것도 모르고 묵묵히 앉아있던 리기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까 신문사친구들에게서 들은 말인데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친일지주랑 민족반역자들 열명이 군정장관의 최고고문으로 임명되였다는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뻔한 일이지. 빌어먹을…》

《나도 그런 말을 들었소. 그만하면 미국의 배짱을 알고도 남았소!》

문선이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다. 동인들은 새삼스레 모두 심각해졌다.

양품점 주인이 인사를 하고 내려가자 모두들 한동안 무엇인지 생각에 잠겼다. 사무실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깃든것 같았다.

잠시후 성큼성큼 층층대 밟는 소리가 났다. 이윽고 키가 작으나 둥근 얼굴에 량미간이 한자나 돼보이는 넙적한 친구가 나타났다.

문선과 련락을 하러 어느 조직에서 나온 모양이였다. 그는 실내로 들어오지 않고 박문선과 쑤군쑤군하더니 기준이 쓴 격문원고를 가지고 갔다.

그를 돌려보낸 문선은 편지 한통을 가지고 들어오더니 《먼데서 왔군.》 하면서 급히 겉봉을 뜯었다. 그리고는 예닐곱장이나 되는 편지를 끄집어내여 단숨에 읽었다.

대충 읽고나자 《평양서 왔소. 김형일이라는 내 막역한 친구인데 들어보시오.》 하며 문선은 그 편지를 중간에서부터 소리내여 읽어주었다.

《박군! 지금 북조선에서는 과거의 온갖 잔재들이 확연하게 소탕되여가고있네. 일체의 정권기관들과 산업운수기관들이 인민의 손에 장악되여가고있는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게다짝들은 물론 량심적으로 나오지 않는 지주와 자본가는 인민이 용허하지 않으며 새로 건설되는 우리의 사회제도가 용허하지 않는다네. …》

《그렇게 되여야 한다니까!》

《잘들 들어보우.》 하며 문선은 계속해 읽었다.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하고 지휘하시던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심으로 해서 가능한것일세. 이제 며칠후 여기서 공산당 5도당열성자회의가 열릴것일세. …》

(한달전에 쓴 편지니까 벌써 끝났겠군.)

《우리는 이번 소집되는 회의를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맞이하고있네. 이 회의를 통하여 우리의 당이 창건되며 우리의 대렬은 굳세여질것일세. 또한 이 회의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실것이 예견된다네. 그리고 명심해야 할것은 당중앙이 북조선에 있게 된다는 바루 그것일세. 나는 박군이 그것을 잊지 않으리라 생각하네. …》

몇줄 넘기더니 문선은 다시 읽어갔다.

《혼란도 있고 애로도 없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건설과 창조, 희망과 기쁨이라는것을 알아주게. 박군! 그런데 남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불쾌하게 만드네. 토착지주들, 자본가들, 친일분자들이 다시 살아나고있다지? 물론 우리는 미군이 무엇을 획책하고있는지 잘 알고있네. 허지만 우리앞에는 비관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나는 믿으며 박군도 믿고있으리라 생각하네. 비록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해도 북에 당중앙이 있고 인민들이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주게. 우리는 다같이 **김일성**장군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어떠한 장애라도 물리치고 종당에는 통일된 나라를 세우고야 말게 아닌가.

… 미군은 더 악랄하게 나올걸세. 허지만 어떠한 침략군이 인민앞에 영원히 군림할수 있단 말인가. 박군! 용기를 북돋아야 하네. …》

박문선이 편지를 다 읽고 접어넣자 이번에는 모두들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있는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빨찌산근거지와 주변인민들의 원조에 대하여 허봉례가 말하자 문선이 보천보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김장군님이 개선하신 이야기를 자기가 아는대로 이야기했다.

이러한 이야기에 꽃이 피자 어느 틈에인지 동인들은 우울한 낯빛들

이 피고 모두 가슴속에 등불이 켜진듯이 얼굴이 밝아왔다.

시계를 꺼내본 문선이 《이크, 늦었군!》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퇴색한 밀짚모자를 집어쓰고 급히 층계로 내려갔다.

그는 당열성자회의에 참가하게 되였다. 그 회의에서 남조선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적활동에 대한 당중앙의 옳바른 지시가 전달되였던것이다. 그에 따라 장안빌딩에 모였던 사람들은 많은 당원들의 비판을 받았고 드디여 그 그룹은 해산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뒤에 밝혀진것처럼 이것은 결국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일제시대의 화요파 및 콩그룹에 의하여 롱단돼버린것이였음은 세상이 아는바와 같다.

박문선에게로 온 북에서의 편지는 누구보다도 기준에게 기쁨과 희망을 품게 했다. 그는 허봉례가 소책자의 교정을 보고있는 동안 창턱에 엎드려 밖을 내려다보면서 간도로 가서 이곳저곳 헤매던 일을 회상해보았다.

나중에 그는 룡정에서 20～30리 떨어져있는 곳으로 들어가 한 농민과 하루밤을 잔 일이 있었다. 행여나 산속에 있는 투사들을 만날수 있을가 해서였는데 무모한 일이였다.

이튿날 새벽 그는 무턱대고 산속으로 들어가보고싶었었다. 그래 험한 길을 타고 한마장쯤 걸었는데 지난밤 사귄 그 농민이 달려왔던것이다.

《그리로 가면 아이 됩네! 거기 일본놈들이 있어서 위험합네! 영낙없이 경찰놈에게 맞아죽거나 잡혀갑네!》

멍청하니 서있던 기준은 슬슬 되돌아설수밖에 없었다. 생각하면 쓴웃음이 나올 일이였다.

(허나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혁명투사들이 조국으로 돌아왔다. 38도선만 넘어가면 만날수 있고 서로 이야기할수 있게 되였다. 평양에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신다! 그것만 생각해도 이제는 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준은 길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시민들은 그치지 않은 행렬처럼 한시도 쉬지 않고 떼를 지어 지나갔다. 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없이 이 거리를 지나다녔다. 그때에는 모두 어깨가 처졌고 기백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은 비록 행색은 같았으나 전혀 다른 사람, 행복한 앞날을 보며 가는 활기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어째서 그렇게 달라졌을가 하고 기준은 생각했다.

알수 있다. 그것은 믿는데가 있기때문이다. 입만 놀리는 행세군들이 아니라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웠던 우리 조선의 혁명가들을 믿기때문이다!

8

김재인은 공중에 뜬 사람이 되였다. 그는 자기 주견대로 신문을 하나 내보려 했으나 끝내 합당한 전주(장사의 밑천을 대주는 사람)가 나서지 않아서 초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의 계획대로 한다면 가령 저명한 작가들이랑 사회경제연구회 동인들 같은 집필진을 미리 정해놓고(그들과의 교섭은 문제없는 일이였다.) 국내 반동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한편 좌익측에서 발로되는 이러저러한 부정적사실들(가령 《공산주의자열성자대회》같은것을 그는 《밑천도 못 건진 우물우물대회》라는 표제로 야유하려 했다.)과 공명주의, 출세주의를 지적함으로써 독자들을 그 어느 신문보다도 많이 획득하려 했던것이다.

사회경제연구회일로 말하면 손에서 책을 놓은지 이미 7～8년인데 이제 새삼스레 잡념을 털어버리고 정반합이니 부정의 부정이니 하면서 머리를 썩인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 아예 바투 들어서지 않았으나 신문사일이 틀어지자 출판사업이나 도와줄가 생각도 했다.

그런데 연구회의 재정은 재정이랄것도 없을 정도로 빈약해서 어디서든지 재정원천을 끌어 대주어야 할 지경이였다.

다시 시를 써야겠다고 결심하고 꼬박 며칠동안 들어앉아보았다. 그런데 첫날은 담배를 두갑이나 피웠고 원고지 한축을 몽땅 휴지로 만들었을뿐 한줄도 쓰지 못했다. 화가 난 그는 이튿날 머리를 싸매고 원고지를 들여다보고 앉았었다.

제목은 《오, 나의 청춘이여!》였는데 제목만 써놓고 네시간을 들여다보다가 찢어버렸다.

도무지 아무 정서도 떠오르지 않았고 머리속은 무슨 잡동사니가 잔뜩 찬 쓰레기통같았다.

사흘째 되는 날에 《심야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으로 김애라를 두고 쓴 매우 실감있는 련애시가 되였는데 눈을 떠보니 꿈이였고 잠결에 잉크병을 쳐서 원고지와 잡지들이 흥건히 잉크에 젖어있어서 더욱 화가 났다.

할수없이 그것들을 내다 말리고 다른 원고지를 꺼내놓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왜 시를 쓰려고 하는지 그 의의를 알수 없게 되였다. 큰돈이 되는것도 아니고 좀처럼 해서는 이름있는 시인이 될것 같지도 않았다.

(누구를 위해선가?)

그는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었다. 그저 애라를 만나고 술을 마시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었다.

허나 애라를 만나는것도 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 녀자는 차차 재인에게서 새로운것 즉 좀더 신바람이 나고 감각적인 춤이라든지 좀더 호탕하고 분방한 생활을 로골적으로 요청했다. 허나 재인은 호탕한 녀자의 그러한 요구를 채워줄 아무 건더기도 없었다. 그는 애라가 이따금씩 조석우를 만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었으나 애라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고 재인도 아는체 하지 않았다.

사업도 안되고 시도 못 쓴채 이래저래 초조한대로 재인의 마음은 공중에 뜨게 되였다.

그러한 어느날 재인은 점심 겸 저녁을 하다가 한잔두잔 거듭한 술

이 얼근해졌다. 친구와 헤여진 그는 아직 초저녁이였으므로 애라를 찾기로 했다.

(벌써 일주일동안이나 만나지 않았는데 그사이에 마음이 변하지나 않았을가? 변해도 좋다. 이 기회에 아주 변해버리는것도 무방하지. 내 신상에 좋지. 나도 이 기회에 정신을 바싹 차리고 앞일을 생각해야 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장원으로 올라갔다. 벌써 저녁 일곱시가 넘었으므로 미장원은 조용했으나 그가 응접실로 들어가면서 힐끔 미장실을 들여다보니 아직도 두어녀자가 머리에다가 수십개의 왕벌레같은것을 물리여놓고있었다.

애라가 고개를 내밀더니 《잠간 기다리세요.》 하고는 사이문을 닫았다.

그는 쏘파에 벌떡 누워서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떤 영화배우의 사진인데 그아래에는 조그만 기발이 붙어있었다. 재인은 둘 다 떼여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담배를 천천히 한대 피우고나자 미장실 바깥문이 열리고 녀성들의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사이문을 열고 애라가 나타났다. 두 팔을 겨드랑까지 드러내놓게 된 까만 달린옷을 입고있었다.

《아이, 피곤해!》 하면서 애라는 의자에 가 주저앉았다. 그리고 긴 하품을 했다. 애라는 재인앞에서 한번도 이렇게 긴 하품을 해본 일이 없었다.

(정말 마음이 변했구나. 맘대루 하라지. 허지만 언제 보나 좋거던. 오— 녀인이여, 그대는 늙어도 오히려 아름다와지나니… 참, 휘트먼은 위대한 시인이거던.)

애라는 할 이야기가 없었다. 담배를 한대 피워물었다. 재인은 쓸데없는 생각을 걷어치우고 다시 벽에 걸린 사진과 기발을 쳐다보았다. 그게 불안했으나 떼라말라 하기도 싫었다.

미장실에서 녀자들의 음성이 들렸다. 말소리가 들리자 재인이 물었다.

《아직 손님이 있군.》

《리화자예요.》

《응, 전에 만난 미인말이지.》

이렇게 중얼대면서 생각하니 문득 재인은 그 녀자와 백락일의 관계가 생각났고 뒤이어 대양양품점건물이 백락일에게로 넘어가면서 연구회 회관까지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생각났다.

(가만있자. 저 녀자가 어느 정도 백락일이를 쥐였다폈다 할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백락일로 하여금 그 건물에서 손을 떼게 할수는 없을가? 그럴수 있는 일이다. 그대신 애라를 슬슬 다루어야 한다. 아주 점잖게…)

이같은 생각이 그럴듯한것이요 성공할수도 있으리라고 독단한 재인은 애라에게로 다가앉아서 《백락일의 첩이라지?》라고 물었다.

애라는 고개를 끄덕거렸으나 두손을 손등끼리 맞대보이고서 말했다.

《이렇게 됐어.》

《왜?》

《또 있으니까…》

《어느 편이?》

《둘이 다 있지 뭐.》

《이쪽은 누구인데?》

《조석우!》

조석우? 백락일이의 첩을 어떻게 조석우가 가로챘을가?

재인은 생각해봐도 알수 없었다. 그가 신문기자로부터 《공산주의자열성자대회》에 참가한 이후부터 정치브로카로 직업전환을 한 사실은 세상이 알고있지만 이런 내막이야 알 도리가 없었다.

(좌우간 등치고 배 문지르는자이니까. 애라와 자주 만난것도 다 화자를 꼬여내기 위해서였는가?)

이렇게 생각하자 애라에 대한 오해도 풀리는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화장을 끝낸 리화자가 나타났다.

《점점 이뻐지시는군요.》

재인은 롱 반 섞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사마귀달린 볼을 움직이면서 징그럽게 웃어댔다.

이런 세계의 녀자들의 심장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알고있는 재인은 거리낌없이 《백락일선생 요즈음 안녕하신가요?》 하고 물었다.

《얼굴도 잊어버리게 됐답니다.》

화자는 털어놓고 말했다.

《어째서요?》

《통일하러 다닌답니다. 모르세요?》

《누가 덮어놓고 통일하겠다나요. 국민총력련맹 리사나리, 대한민족당 부당수나리하고는 통일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낮에는 통일하고 저녁이면 연회를 차리는데 문밖에 미국사람 자동차가 늘어서고 기생들이 죽으로 드나든다고 하더군요 뭐!》

입에 칠한 연지가 묻어난 담배를 재털이에다 탁탁 치면서 애라가 빈정대는 어조로 말했다.

《그러다 한자리 하겠다 얘! 너만 미끄러졌구나.》

《미끄러졌다구? 그깐 두상태기 흥, 더 좋았으면 됐지…》

화자는 손가방을 집어들고 팔목에 찬 손톱만 한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언니, 시간없어요.》 하고 재촉했다.

애라는 외출할 준비를 했다. 화자가 한턱 쓰겠다는것이라 하면서 재인에게도 갈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갈 의사는 있으되 방해자가 되고싶지는 않다고 야유조로 말했다.

녀자들보다 먼저 미장원에서 나온 재인은 기운없이 걸었다.

(일인즉은 묘하게 돼가는군. 정치브로카로 나서면서 우선 백락일을 잡았다는 소식은 엊그제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첩을 챘다고? 정말 천엽속 같구나. 그러나 어디 두고보자, 얼마나 가는가…)

이같이 욕을 하긴 했으나 그의 머리속에 떠오른 고급양복에다 볼록렌즈처럼 두꺼운 안경을 쓴 조석우가 자기보다 몇배 힘차게 생각되였다.

종로 네거리로 나온 재인은 갈 곳이 없었다. 잠시 담배연기를 풍기고 섰다가 동대문쪽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기준이가 이쪽으로 걸어오고있었다.

《잘 만났네.》

재인은 기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연구회 회관문제와 관련해서 무심코 그 건물 관리인의 첩과 만났던 이야기를 꺼냈다.

기준은 이야기를 듣고 《잘됐네, 잘됐어!》 하고는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도 무던히 어처구니없는 사람일세. 뭇놈들이 데리고 행가래질을 치던 계집에게 알아보긴 무얼 알아보려 했단 말인가? 글쎄 어떤 녀자인지 잘 모르긴 해도 그 녀자에게 회관을 눌러쓰게 하도록 말해달라고 하려 했단 말인가? 만약 그런 부탁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였을가? 백락일은 잠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껄껄 웃다가 그게 우리를 친일파니 민족반역자니 하는자들이야, 그것들을 그냥 둘수 없어 하면서 또 웃었을게 아닌가!》

재인은 그제야 비루했던 자기의 생각을 깨닫고 덤덤히 듣고만 있었다. 기준은 종시 불쾌해하는 표정을 펴지 않았다.

《그러구 술 좀 작작 하게. 또 만나세.》

기준은 급한 발걸음으로 사라졌다.

그와 헤여진 재인은 정말 갈 곳이 없었다. 밤 열시도 안돼서 집으로 돌아가는건 무의미한 일이였다. 그는 주위를 훑어보기도 하고 애라의 미장원도 쳐다보았다. 창가에 불빛이 어른거리는것 같아서 그는 몇발앞으로 다가가 보았으나 달빛이 유리창에 반사될뿐 미장원은 창마다 캄캄했다.

잠시 광교앞에 서있던 그는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몇잔 더할수 있음을 확인하자 재인은 청계천을 동쪽으로 끼고 내려갔다.

《고뿌에다 따라주.》

개천가의 대포술집으로 들어가자 재인은 소주를 청했다. 한고뿌 들이키고 한동안 담배만 피우다가 《한고뿌 더 주.》라고 했다. 두번째 고뿌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또 담배를 두석대 계속 피웠다.

《이 소주가 어째 취하질 않소?》

재인이 이렇게 웨치자 주인로파는 《두세잔에 다 취하시던뎁쇼.》 하고 또 따르려 했다.

하지만 석잔째는 돈이 없었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벌써 가을바람이 몸에 스며들었다.

(바람이 왜 이리 쌀쌀하냐?)

9

십여일만에 돌아온 변승룡은 매우 우울했다. 고향에서 지내던 며칠동안의 일들, 땅을 팔려고 바람개비처럼 나돌던 이식이의 꼴, 언제나 거들떠보기도 싫은 그것(그는 자기 처를 늘 이런 대명사로 생각했다.)의 꼴, 마지못해 대회장으로 나가던 일, 청년농민과 악수를 하다가 소리를 칠번 한 일, 두루 이런 회상이 그를 유쾌하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다 돌아오자마자 사무실을 내놓으란다는 소식을 듣자 더욱 우울했다. 그뿐 아니였다. 다음에 출판할 용지 20련값으로 현금 4만원을 구해둔것이 이제는 10련밖에 살수 없게 된것을 알자 기가 막혔다. 계산에 어두운 그는 해방직전에 단 8억원이였던 조선은행권을 몇달동안에 41억원으로 증발한 미군정의 파괴정책을 생각지 않았고 따라서 물가가 나날이 오를것을 정확하게 타산하지 못했던것이다.

그는 까만 진짜 카시미야(카시미야산 양털로 짠 고급양복천)웃옷에

다 회색뽀라(빔을 먹인 실로 구멍이 숭숭하고 천바닥이 비쳐보이게 짠 소모천)바지를 입고 벌써 회색중절모를 쓰고 위풍당당하게 나다니기는 했으나 어딘지 우울한 빛이 떠돌았다.

그날도 변승룡은 오후부터 사무실로 나왔으나 별로 입을 벌리지 않았다. 박문선은 당에서 맡은 일이 더 많게 되여서 나오지 않았고 기준은 원고를 쓰겠노라 하면서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허봉례 혼자 남아서 무엇인지 사무처리를 하고있었다.

두어시간이나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 밀린 신문을 읽던 그는 다시 땅을 팔데 대한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빚을 한 5만원 얻어보라고 《그것》에게 편지를 쓰려고 종이를 꺼냈다. 허나 될성싶지 않았다.

(사람이 웬간히 똑똑해야 빚도 얻지 그 꼴로서야…) 하고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거 불이 났나요? 저 집 유리창이 뻘건데?》

창밖을 내다본 봉례는 《노을이 비꼈군요.》라고 했다.

짧아진 해는 일찍 저물었다. 노을이 비끼자 봉례는 전등을 켜고 또 서류들을 정리했다. 변승룡은 직접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허나 몇줄 써놓고보니 횡설수설이였다. 그는 이따금씩 마주앉아있는 봉례를 바라다보았다.

언제나 화장도 하지 않는 맨 얼굴이였으나 눈시울이며 두볼이 분을 바른것보다 깨끗하였다. 더우기 시원한 눈동자는 스물다섯의 나이로는 너무도 순진해보이는 눈이였다. 나이가 든것은 오직 그의 두뇌만이였으며 어느 사이에 읽었는지 적지 않은 서적을 읽고있는 그 점이였으며 또 이따금씩 눈에 차지 않는 언행을 보면 로처녀다운 충고를 하는 그러한 점들이였다.

봉례는 옆책상에 놓인 소책자의 부수를 세였다. 승룡은 자주 놀리는 봉례의 손을 보았다. 마디가 씨원씨원한 고운 손이였다. 잠시후 그 손은 소책자를 가지런히 쌓아올려 옆에다 밀어놓았다.

이윽고 허봉례는 책상우를 말끔히 치우고 일어났다.

《더 계시겠어요?》
신문과 종이를 한쪽으로 밀어놓으면서 변승룡도 일어섰다.
밖으로 나온 두사람은 광화문을 향해 걸었다. 잠시 거닐다가 변승룡이 말을 건넸다.
《봉례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미인이 오셨나 했지요.》
《미인이요?》 하며 봉례는 웃었다.
《그랬더니 바루 그렇구 그런분이였군요.》
《그렇구 그렇게 유치한 사람이지요.》
두사람은 잠시 덤덤히 걸어갔다.
변승룡의 집은 금화산뒤 북아현정에 있었고 봉례는 어머니와 단 둘이서 효자동에서 살고있었다.
《걸어가시겠어요?》
《걷겠습니다. 효자동까지 바래다드리지요.》
《그럼 거기서 차를 타고 가세요.》
달이 밝았고 사람도 적어서 련애하는 사람들끼리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걷기에 십상이였다. 그들은 좀 어색했으나 태평동을 지나 넓은 광화문동으로 걸어갔다. 얼마쯤 잠자코 걷다가 변승룡이 입을 열었다.
《한가지 문제를 제기할게 해답하십시오.》
《말씀하세요.》
봉례는 컴컴한 가로수들의 그림자 사이사이를 누비듯이 스쳐가는 두사람의 그림자를 내려다보면서 대답했다. 변승룡은 몇발자국 더 걷다가 말문을 열었다.
《한 남자가 말입니다. 에이, 유치하게 뭘… 우리 집 일을 다 아시는데… 내가 말입니다. 안해를 버리고 딴 녀자와 결혼을 한다는것은 도덕적으로나 륜리적으로나 옳지 않을가요?》
《부인과 합의가 된다면야…》
《그런데 그 부인이 불쌍하단 말입니다.》

《그럼 의좋게 사셔야죠.》
봉례는 간명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변승룡은 좀 머쓱해졌다.
봉례는 저벅저벅하는 변승룡의 발자국소리가 자꾸 자기 가슴으로 울려들었고 제기한다는 문제가 수상하고보니 마침내 그 발걸음은 정말 자기에게로 들어설것 같아서 얼른 아무 말이나 꺼내려 했으나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
《모르는 사람은 나를 욕할겁니다.》
변승룡이 말을 계속했다.
《허지만 나는 한두번만 의좋게 살려고 노력한것이 아니랍니다. 노력했지만 끝내 실망하고말았습니다. 나는 란잡한자도 아니고 파렴치한자도 아닙니다. 허지만 나는 그와 그 기분부터 맞지 않아서 아주 단념하고말았습니다.》
또 발자국소리만 울렸다. 북악산에서 써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변승룡은 그 바람에 섞여서 봉례의 모시저고리냄새만도 아닌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와 함께 변승룡은 견딜수 없는 마음의 적막을 느꼈다. 꿀꺽 목젖 울리는 소리가 났다.
두사람은 군정청 옆길로 들어서서 곧장 효자동으로 치올랐다. 가로등도 없는 그 길은 한층 호젓했고 달빛만이 더 밝았다. 변승룡은 어느 틈에인지 울렁울렁해진 마음으로 그러나 되도록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난 요새 책 한권 못 읽었습니다. 연구회 론문도 제출할 기한이 넘었으나 착수도 못했습니다.》
《어떡허시나? 부인을 서울로 모셔오실수밖에 없겠어요.》
봉례는 진지한 어조였다.
《그리고 더 노력하셔야 해요, 그러셔야 해요.》
《봉례씨의 말은 나를 야유하는겁니다.》
《야유가 안예요, 정말! 저는 변승룡씨의 심정도, 괴로우신 마음도 리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밖에 없는걸요. 그 길이 사나운 날씨

가 계속될것 같은 앞날을 위해서 유익하실겁니다.》

어느덧 전차 종점까지 왔으나 변승룡은 겨우 이야기의 운을 떼기만 한셈이였다. 봉례가 승낙한다면 더 걷자고 하고싶었으나 권해볼가 하는데 《그럼 래일 뵙겠어요. 바래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봉례가 말했다.

그리고 갸웃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한번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승룡을 마주보고 돌아서버렸다. 변승룡은 우두커니 선채로 차츰 멀어져가는 봉례의 뒤모양을 바라보았다.

골목안 가게앞으로 지나갈 때 한번 봉례의 자태가 분명히 보였으나 이내 더욱 어두운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마지막 헤여질 때 마주보던 윤기나는 그 눈동자를 변승룡은 언제까지나 마주보고싶었다.

집으로 돌아온 변승룡은 쓸쓸한 심정으로 담배를 피우다가 누워버렸다.

허봉례는 변승룡이 헤여지기 섭섭해하는것도 눈치챘고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있으리라는것도 짐작했다. 허나 거기서 헤여지지 않는다면 피차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실머리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했다.

봉례는 변승룡자신이 말한대로 그를 란잡한 사람이나 파렴치한 남자로 알고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쓴맛, 단맛을 보아온 다른 동인들보다도 단순하며 아직도 도련님티가 력력한 사람으로 생각해왔다. 그는 좀더 세상풍파를 겪어보았어야 했다.

한달전쯤 그가 일주일동안이나 학질을 앓아누웠을 때 봉례는 기준과 함께 북아현정에 있는 집으로 찾아간 일이 있었다.

그들은 유리문을 해단 대청으로 해서 책장이랑 양복장 등 값진 가구들이 갖추어진 넓은 방으로 들어갔었다. 변승룡은 유리처럼 반들반들한 장판방 한편에다 보료를 깔고 두꺼운 비단이불을 뒤쓰고있었다.

머리맡에는 약봉지, 노란 키니네, 환약, 주사약, 체온계, 보다가 접어놓은 잡지 그리고 미국에서 갓 나온 고급양말대님들이 무질서하게 널려져있었다.

그는 겨우 목만 내놓고 호소하다싶이 중얼댔다.

《어— 녹았어.》

《오늘도 떨었나?》

기준이 묻자 겁나는 음성으로 《래일 떨 날이야.》라고 했다.

기준이 소리내여 웃었다.

《단단히 욕을 본 모양이군.》

《열이 40도씩 올라. 학질에 죽는 일은 없나?》

《처음인가?》

《처음이야.》

기준은 또 웃었다.

《일없어요.》

봉례가 대답했었다. …

봉례는 그때 변승룡이 누워있던 장면을 회상해보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눈을 감으면서 고생을 아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고 하던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봉례의 부친 허성은 로동조합운동이 시작되던 1920년부터 당시 유일한 조직체였던 로동공제회에서 일을 계속해오다가 6.10만세사건직후에 검거투옥되여 7년 징역을 살고 나왔었다. 감옥살이만은 남에게 빠지지 않게 했지만 오랜 감옥살이때문에 사회의 움직임에 어두웠고 출옥후 한 일도 적어서 그닥 저명해지지도 못했다.

그런데다 세상을 떠나기 전 몇해동안은 풍때문에 출입을 못했던 불우한 운동가였다.

그러나 봉례는 자기의 부친을 지극히 존경했다. 그의 부친은 아무리 지내기가 어려워도 남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 없었으며 친구사이에라도 구구한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았다.

한번은 어떤 변절한 친구가 찾아왔다가 그의 생활이 너무 간고한것

을 보고 지폐 몇장을 봉례에게 주고 간 일이 있었다. 추후에 그것을 안 허성은 펄쩍 뛰였다. 어린 봉례는 그것을 반환하려고 진종일 싸다니며 돈준 사람을 찾아다녔던것이다.

부친이 돌아간 뒤 봉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지금 로동조합 조직을 준비하는 한사람인 그의 5촌당숙 허인기였다. 그도 6.10만세때 학생모를 쓰고 체포되였고 그후는 기준의 형 기태가 희생된 반제동맹 사건에 련루되여 5～6년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던것이다.

1938년부터 그는 살림을 린제 산골에다 옮겨놓고 목탄을 구웠는데 그러느라고 일제앞에 그닥 추한 꼴을 보이지 않고 해방을 맞이했던것이다.

이러한 집안환경에서 자라난 봉례는 일찍부터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다. 리해할수 없는것은 거듭거듭 읽어보았다. 그러면서 자기도 아버지나 아저씨와 같은 고상한 정신상태에 접근해보려고 했다. 학비를 못대서 녀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2년 가까이 집에서 노는 동안에는 책이 더욱 가까운 벗으로 되였다.

간호부양성소에 들어가서도 봉례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려고 노력했었다. 양성소에 들어간지 1년도 못되는 어느날 봉례는 밤늦게 이불속에서 읽고있던 좌익서적을 사감으로 있는 일본녀자에게 빼앗겼다. 그리하여 경찰서에 끌려가 매를 맞고 양성소에서 쫓겨났다. 그리고는 5촌을 찾아 린제로 갔었다. …

가만가만히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봉례는 손발을 씻고 올라갔다. 곤히 잠든 어머니에게 홑이불을 덮어드리고 잠옷을 갈아입었다.

갈아입으면서 탄력이 있는 자기의 상반신을 훑어보다가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나이 스물다섯, 처녀의 나이로는 환갑이나 다름없었다. 그도 때로는 초조했다. 그러나 한번도 구체적인 대상을 생각한 일이 없었고 생각해볼 겨를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역시 변승룡 같은 남자는 내게는 합당치 않아!)

봉례는 어둠속에서 멀뚱멀뚱 천장을 쳐다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한동안 그런 생각을 하던 봉례는 (내가 정신이 돌았구나! 시시하게 지금 결혼문제가 대두된 판이란 말이냐? 걷어치우자!) 하고 생각하면서 벌떡 일어나 도로 전등의 스위치를 켰다. 그리고는 엎드린채 머리맡에 놓인 최근 쏘련책을 번역한 《정치학교정》을 끌어당겼다.

10

비취색하늘의 가을날씨가 계속되였다. 북악산과 남산에는 단풍이 한고비를 넘었고 먼저 옷을 벗으려는 플라타나스가로수잎들이 쌀쌀한 바람에 날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연구회 동인사이에 별로 달라진 일은 없었다.

유상렬은 비판회가 있은 후 잠시 기세가 죽었다가 다시 당에서 관계하는 《세계일보》가 나오게 되자 그 편집국장으로 가게 되였다. 어떠한 경위를 밟아 그렇게 되였는지 몰랐으나 당이 알아서 하는 일을 동인들은 서로 캐물을 필요가 없었다.

유상렬은 시간이 있는대로 연구회에 들렸고 동인들에게 원고도 청탁하군 했다. 그러는 동안 동인들은 차차 그를 다시 신임하게 되였다.

변승룡과 허봉례는 그날이후 어쩐지 서먹서먹한것만은 사실이였다. 허나 승룡은 그날 밤 하다가 만 나머지 이야기를 아무때고 하고야말것이지만 다만 그 기회를 차일피일 연기하고있는것처럼 생각하고있었고 봉례는 봉례대로 그날 이야기는 그쯤으로 끊고만것으로 간주했기때문에 그 서먹서먹한 감정도 어느 틈에인지 사라져버려 다른 동인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세차례나 회관을 옮기라는 재촉을 받았으나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면서 거절했다. 그러면서 변승룡이가 변통해온 약간의 자금으로 박문선의 론문집인 《인민과 민족의 문제》라는 책자를 발행했다. 그것을

발간하려고 문선과 봉례가 인쇄소에 드나들면서 애를 썼고 변승룡은 원고를 쓰느라고 덜 나왔으며 김재인은 이따금씩 들렸다가 가군 했기때문에 자연 리기준이 회관을 지키게 되였다.

기준은 요즈음 《무엇을 할것인가》로부터 《1보전진 2보퇴각》 등 레닌의 주요한 저서들을 년대순으로 읽어가고있었다.

그날도 기준은 아침일찍부터 나와 종일 공부한것을 학습장에다 기록하다가 머리가 무거워서 회관을 잠그고 잠간 바람을 쏘이려고 종로네거리로 슬슬 걸어갔다.

뜨뜻이 먹고살수 있는 반동적부르죠아지의 정당인 《한국민주당》이 한가지 기발한 생각을 해냈다. 네거리에다 큰 남비를 걸어놓고 《한민당》의 완장을 단 녀자가 종을 흔들고있었다. 남비안은 텅 비여있었다.

그 모양을 본 사람들은 《구세군식이로군.》, 《일본식이야.》 하고들 한마디씩 하고 지나갔다.

《여러분! 우리는 집도 먹을것도 없는 우리 동포들이 장차 기한에 떨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

무엇을 먹고사는지 포동포동 살이 쪘으나 몹시 앙큼스러워보이는 그 녀자가 웨쳤다.

《전재민들, 외지에서 돌아온 동포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집도 옷도 없이 헤매고있습니다. …》

이러한 목소리를 듣자 전차를 기다리던 찌그러진 중절모의 키큰 남자가 조금씩 남비앞으로 다가섰다. 그러더니 한마디 했다.

《한국민주당은 돈많다는데 한국민주당에서 한몫 내구려!》

녀자는 들은체만체 종만 흔들고있었다. 남비안은 여전히 비여있다.

잠시 그 근처에 서있던 젊은 남자가 《이북서 도망쳐온것들 노나줄 작정이로군. 흥!》 하고는 사라져버렸다.

쭈그러진 중절모의 남자는 구부정하고 서서 종 흔드는것을 보고있다가 또 입을 열었다.

《여보시오, 한국민주당에 계신분—》

《왜 그래요?》

녀자는 표독스러운 표정이였다.

《한가지 물어봅시. 거 한국민주당은 일본법률을 그대로 쓴다는 군정청의 법령을 지지하오? 왜 법령 21호로 나오잖았소?》

《아니, 누굴 놀리는건가. 별꼴 다 보겠네.》

녀자는 뱀처럼 발끈 성이 나서 웨쳤다.

《저런 사람들때문에 통일이 안된다니까!》

그러자 키큰 남자는 싱그레 웃으며 《그럴거야, 그 법령을 지지해야지!》 하고는 마침 와서 정거한 전차에 올라탔다.

《한국민주당》녀자가 성이 나서 악을 쓰는 바람에 근처의 사람들이 남비앞으로들 모여들었다. 그때 술에 어지간히 취한 미군 두놈이 휘적휘적 나타났다. 그들은 무엇인지 질겅질겅 씹으면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섰다. 량미간이 다 붙고 눈알이 노란 미군이 끄떡끄떡하면서 그 녀자를 바라보자 녀자는 영어로 지껄였다.

자기는 리박사파로서 자선사업을 하는데 미국을 반대하는 공산당패가 자기를 모욕했다고 말했다. 그 소리를 들은 노랑눈의 미군은 주먹을 쥐고 거기 모여섰던 사람들을 모조리 한대씩 때리려고 했다.

그바람에 사람들이 쫙 헤치고 때마침 길가에 자전거를 세우고있는 사람만 남게 되였는데 뒤에 섰던 키가 장승만 한 또 하나의 미군이 신이 난다는듯이 킬킬대고 웃다가 그 자전거로 달려갔다.

그는 남의 자전거의 손잡이를 움켜잡더니 성큼 집어타고 달렸다. 남대문으로 삼백메터쯤 신이 나서 전속력으로 굴러갔다. 그는 네거리가 보일락말락한 지점에서 뛰여내리더니 자전거를 길바닥에 내꼰진채 또 엉덩방아를 추고 무엇인지 질겅질겅 씹으면서 걸어갔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듯이 그 미군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 라지오에서 《허 험—》 하는 기침소리가 났고 뒤이어 허끄부라진 소리로 《동포 여러분—》 하는 음성이 들렸다.

《박사로군.》
누구인지 두덜댔다. 군중들은 그 라지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조선에 아직 철도가 놓이기 전에 없어졌다가 미국비행기를 타고 나타난 리승만이란자가 무엇때문에 왔는지 사람들은 통 몰랐다.
그런데 리승만이가 나타난지 사흘째 되던 날 밤 정동 으슥한 곳 풀밭에서 미군 셋이 녀학생을 륜간하고나서 군도로 처참하게 살해한 소문이 이튿날 아침에는 서울시민들에게 쫙 퍼졌다.
그런 판에 바로 저 《허 험—》 하는 목소리가 통일방안에 대한 중요방송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미국을 따라갑세다. 우리 미국사람과 미군 존경합세다. …》 하는따위 소리를 해놓았다. 그리고 며칠후에는 어디서 고안해낸것인지 경찰들에게 륙모방망이만 한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다니게 했다.
라지오에서 그 둔탁한 목소리가 또 계속되였다. 어느 지방 사투리(서울사람들은 그것을 《하와이사투리》라고들 했지만)인지 알수 없는 말로 《통일, 통일》을 외우고있었다.
《덮어놓고 통일, 또 나왔군!》
《박사망녕이래!》
이렇게들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리기준은 바람을 쏘이러 나갔다가 이러한 불쾌한 꼴들을 보고 우울한 심정으로 돌아섰다.
네거리에서 돌아온 기준은 몹시 불쾌한 표정으로 천천히 회관 층층대를 올라갔다.
그런데 웬 일인지 연구회간판이 층층대에 떨어졌고 분명히 쇠를 채운 회관문이 활짝 제껴진채 그안에서 누구들인지 왁자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인쇄소에서들 왔나 했으나 인쇄소에서 왔기로서니 남이 채운 문을 함부로 잡아떼고 들어갔을리가 없었다.
의심스러워서 그는 급히 올라가 문앞에 섰다. 사무실안을 들여다보니 생판 모를 사람 7～8명이 들어와서 혹은 의자에 앉아 기준이가 읽던 책과 학습장을 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상우에 걸터앉아 발장구를 쳤고 더러는 서성거리며 떠들었다.

《누구들이시오?》
기준이 들어서면서 물었다.
《님자는 누구가?》
기준의 의자에 앉은 얼굴이 갸름하고 눈가죽이 몹시 팽팽한자가 만만치 않은 잡도리로 되물었다.
《내 여기 있는 사람이요.》
기준이 말했다.
《그런데 어째 남의 집에들 함부루 들어왔소?》
누구인지 《흥, 잘하는군…》라고 하는데 서성거리던 학생복을 입은 땅딸보가 바싹 턱을 들더니 《아니 이게 남의 집이가, 이게 누구 건물인지 상기 모르는구나.》 하고 덤벼들었다.
기준은 그 태도가 하도 불손해서 《누구 건물이건 지금 쓰고있는 임자가 있는거 안요? 어째 쇠를 비틀고 들어왔단 말이요?》 하며 고르지 않은 음성으로 따졌다.
《차, 이거 보디!》
눈가죽이 팽팽하게 생긴자가 이렇게 중얼거리며 일어서더니 기준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리 좀 앉소그래.》
기준은 팔을 젖혀빼고 《아니, 이 사람들이…》 하고 엄한 표정을 해보였다.
《이게 누구 집인가 말해보소.》
팽팽하게 생긴자가 물었다. 그러자 옆에 섰던 한자가 《누구 집이야, 민족반역자의 집이디!》라고 했다.
또 한자는 《누구 집인가 어디 대봐!》 하고 소리쳤다.
《모르겠소.》
이렇게 대답하자 눈이 팽팽한자가 소리쳤다.

《모르는데 왜 남의 집에 함부루 들어있는가 말야?》

《우린 함부루 들지 않았소.》

기준은 더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자 땅딸보가 기준의 앞으로 나서며 또 바싹 턱을 들더니 웨쳤다.

《집을 내지 않겠는가?》

《당신네들은 누구시오, 대체?》

기준은 또 묻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게 묻자 어느 손인지 기준의 덜미를 움켜쥐고 흔들면서 《이 새끼를 거냥…》 하는 말이 들렸다.

기준은 그자의 덜미를 잡으며 홱 돌아섰다.

그 순간이였다. 어느 손인지 그의 안경을 쳐서 벗겨버렸고 다음순간 눈에 불이 일더니 어떤 주먹이 그의 볼을 내질렀다. 마루바닥에서 안경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기준의 입에서는 금시 피가 흘렀다. 기준은 그 폭력단틈에서 벗어나야 하리라고 생각하며 문으로 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필경 눈가죽이 팽팽한자의것이 틀림없는 손이 기준의 멱살을 꽉 움켜잡았다. 허약한데다가 눈까지 빼앗긴 기준은 어쨌든 밖으로 나가야 할것을 생각하고 문에서 비틀비틀하다가 층층대로 굴러떨어지듯 하면서 그자를 끌고 내려왔다.

대양양품점 건물앞 길바닥에서 그는 폭력단들을 막으라고 웨치려 했으나 연거퍼 그의 볼에 주먹이 들어왔다. 그의 볼은 삽시간에 부었고 입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왔다.

기준이 퉤퉤 피를 뱉으면서 잠시 몸을 가누고있을 때 한 녀자가 그 틈사이로 달려들었다.

순희였다.

《아니, 웬 일이예요?》

순희는 숨도 쉬지 않고 줄달음치듯이 말했다.

《이분은 우리 오빠예요. 잘못이 있거든 집이 삼청동이니 나중에 경찰서로 끌어가주세요. 네, 사람들이 모이면 재미없습니다. 이게 웬 일이야? 어서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기준을 잡아끌었다.

《쌍놈의 새끼, 이젠 맛을 봤는가?》

《한번만 용서했다.》

이러한 소리들을 하거나말거나 순희는 기준을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얼마쯤 골목으로 가더니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는 대문을 닫아걸었다.

기준은 순희가 시키는대로 그 집 아래방 돗자리우에 가 누웠다.

순희는 누워있는 기준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훔쳐주고 다음에는 무슨 분가루를 볼에다 바르려 했다. 기준은 도로 일어나서 거울을 빌리라고 하며 상처를 매만져보고 구겨진 옷을 털고 바로잡았다.

《나가시면 안돼요. 이 집은 제 동무의 집이니까 그냥 누워계셔요, 네?》

《련락할 일이 있다. 수건이나 하나 빌려달라고 해라.》

기준은 수건을 얻어 터지고 부어오른 입과 볼을 가리고 《곧 집으로 가겠다.》 하고 말하고는 나서려 했다.

《잠간 기다리세요.》 하더니 순희는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후 돌아와서 《헤쳐간것 같지만 뒤길로 해 가세요!》 하고 주의를 주었다.

리기준은 수건으로 입을 가린채 더듬더듬 걸어서 광화문으로 나섰다. 광화문 네거리를 건너서 태평동으로 나가 곧장 동양인쇄공장으로 갔다.

박문선과 봉례는 창고안에서 교정을 보고있었다. 기준은 그들에게 봉변당한 일과 직접 회관으로 갈게 아니라 양품점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회관 층계에 뒹굴고있을 연구회간판과 서류들을 걷어내달라는게 좋겠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는 도로 공장을 나섰다. …

날이 컴컴해서 허봉례가 연구회간판과 서적들, 서류들을 끼고 기준의 집으로 왔다.

문선과 함께 직접 연구회로 들어가보았는데 문이 열린채 텅텅 비여있었노라 했다. 봉례는 한쪽다리가 부러지고 한쪽알이 깨여져나간 그의 안경까지 가지고 왔다.

《얼마나 다치셨어요?》

《골병이 드셨지요 뭐!》

봉례의 손을 잡아 맞아들인 순희가 대답했다.

박씨도 《저 사람은 매 한번 맞지 않고 자라난 사람이라우. 그런데 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소.》 하고 넉두리를 하다싶이 했다.

《아니, 왜 또 이래?》

순희가 옷고름으로 눈물을 씻으며 훌쩍거리는것을 알고 기준이 화를 냈다.

《울면 무얼 해요.》

봉례도 말렸다.

그러자 순희는 《분해서 그래요.》 하며 고개를 들고 눈물에 젖은 얼굴에 억지로 웃는 웃음을 띠웠다.

봉례는 기준을 웃기고 순희를 위로하느라고 애썼다. 순희는 마음을 늦췄다.

그리고 한동안 자기가 일하는 병원이야기를 하다가 봉례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크림도 안 바르셨는데 화장하신것 같애요.》 하고 말했다. 녀자들은 첫인사만 끝나면 친해지는 모양이였다.

《별말씀을 다하시네.》

《정말이예요, 참 고우세요.》

《그만하세요, 참…》

그때 박문선과 변승룡이 찾아왔다. 봉례가 말했다.

《양품점 주인이 그러는데 그것들은 서북청년회놈들이랍니다. 부르죠아지들은 북에서 도망쳐온 그런 악질들을 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야만들을 없애야 해!》

변승룡은 분개한 어조로 웨쳤다. 문선이 말을 받았다.

《그보다 더한 야만이 이미 상륙했으니까 조그만 야만들이야 그 겨드랑밑에서 살아가지. 그 정도의 폭력의 행사는 아직 시초의 시초인지도 모른단 말야?》

《만약 폭력의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인민은 참지 않을거야.》

변승룡이 또 분개한 어조로 말했다.

《허지만 인민은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지는 않을것이지.》

그러자 허봉례가 말을 받았다.

《폭력으로 대항하게 될는지도 모르잖아요? 인민이 폭력으로 대항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남조선에서 유일한 정권은 미군정이라고 떠벌이면서 해방된 조선인민에게 일본제국주의의 법률을 지킬것을 강요한 미군정에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문선이 대답했다.

《허지만 책임은 나중이고 우선 우리의 손실이 크단 말이지요. 허나 그렇습니다. 미군정이 제아무리 남조선인민을 란폭하게 대한다 해도 두려울것은 없습니다. 일제와 싸운 우리의 억센 힘이 있습니다. 단결된 북조선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또 량심있는 수백만, 수억의 인민들이 있고…》

이렇게들 주고받는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하고 기준은 혼수상태와 같은 깊은 잠에 빠져갔다. 동인들은 두어시간이나 앉았다가 모두 돌아갔다.

×

기준은 저절로 앓는 소리가 나왔으나 어머니나 순희가 들어오면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입을 꾹 다물고있었다. 층층대에서 굴러떨어지면서 허리를 몹시 다친듯 이따금씩 척추가 저려왔다. 한동안 멎었던 피가래

가 또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집안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종이 봉지를 만들어 뱉아서는 창밖으로 팽개쳐버렸다.

그는 상판이 갸르스름하고 눈껍질이 몹시 팽팽한 놈과 턱이 뾰죽한 땅딸보놈을 여러번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질겅질겅 껌을 씹다가 무슨 짐승의 울부짖음같은 소리를 지르며 휘파람을 부는 길거리의 미군을 그려보았다. 그러다가는 또 잠이 들군 했다.

사나흘이 지나자 부은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찜질을 더해서 대엿새후부터는 부은것이 다 내렸고 볼과 이마의 상처는 딱지가 앉기 시작했다. 그후부터는 허리도 좀 덜 아팠다.

그날 병원에서 일찍 돌아온 순희는 보채는 정호를 달래 밖으로 내보내더니 과일접시를 들고 기준에게로 들어왔다.

엎드린채 담배를 피우는 기준의 앞에다 접시를 놓고 책상앞으로 간 순희는 이것저것 책을 꺼내보았다. 그러다가 기준이가 손수 만들어 7~8년동안이나 애용하던 조그만 나무의자에 주저앉더니 오빠의 눈치를 살피다가 말을 걸었다.

《오빠는 왜 독신생활을 하세요?》

기준은 대답이 없다.

《집안에는 안해가 있고 애들이 있어야 해요. 독신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역시 대답이 없다.

《그러니까 방탕하지요.》

《방탕?》

그제야 대꾸를 했다.

《언제인가 녀급이 찾아오잖았어요?》

《6~7년전 이야기를 하는구나.》

《좁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러다간 우리 집안이 더 쓸쓸해질것 같아요. 어머니도 늙으셨고…》

순희는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집안은 7대조부터 서울서 살았다지요? 잘살진 못했지만 자손이 번창했고 모두 씩씩하셨다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큰 오빠는 희생당하고 해서 집안이 몰락했는데 그걸 오빠가 일으켜세워야 하잖겠어요.》

《집안이라는게 무어냐?》

《가족이지요.》

《가문재건사상인가?》

《무슨 사상인지는 모르겠어요. 허지만 이제는 어쨌든 해방도 되였고 하니 가정을 꾸미셔요. 가정을 꾸미는것은 사업을 하는것과 상치되는게 아닙니다.》

《듣기 싫다.》

기준은 순희의 말을 무시했다. 잠시 입을 다물었던 순희는 아무래도 한마디 더 해야 하겠다는듯이 《독신생활을 청산하세요.》라고 했다.

《…》

《제 중매서겠어요. 허봉례가 참 마음씨가 고와요.》

《그런 수고 해달라던?》

《사업을 더 착실히 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미셔요. 꾸미셔야 합니다.》

기준은 바로누워서 눈을 감았다. 순희는 조용히 나가버렸다.

순희가 나가자 기준은 다시 눈을 떴다. 창밖으로 맑은 가을하늘이 내다보였다. 그야말로 비취색하늘이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수 없을것 같았다. 그는 주섬주섬 양복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집뒤로 돌아서 나무가지들을 휘여잡고 올라가면 드높은 언덕에 올라서게 된다. 그 언덕은 이제는 거반 허물어졌지만 원래 서대문과 서소문으로 뻗어나갔던 옛성터였다.

성터로 올라간 기준은 나무그늘에 앉아서 서울장안을 내려다보았다. 30여년을 보아온 곳이지만 볼수록 아름다운 도시였다. 뒤로는 북

악산이 바람을 막아섰고 앞으로 남산의 숲이 우거져서만 아름다운게 아니였다.

어디를 보나 크고작은 집이 들어섰고 어디를 보나 푸른 나무들이 길길이 솟아있다. 저녁노을을 받은 시가는 그대로 그림과도 같았다. 허나 어찌 한장의 그림에다 비할수 있으랴!

이 도시에는 면면히 흘러내린 인민의 정신이 깃들어있지 않는가! 5백여년동안을 거쳐 구박받던 백성들의 고귀한 피땀으로 세워진 도시가 아니였더냐! 그러하기때문에 의의깊고 더욱 아름다운게 아니냐!

찬찬히 사방을 두리번거려보던 기준은 자기가 앉은 그 자리가 무한히 뜻깊은 곳인것 같았다.

혹시 행주산성에서 승리한 명장 권률이 바로 이 성근처에 올라서서 왜적이 들끓는 서울장안을 호시탐탐 바라보았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적섬멸의 명령을 내린 바로 그 자리일지도 모른다.

혹은 일제탄압이 혹심했을 때 **김일성**장군님으로부터 조국해방과 관련한 임무를 받고 멀리 동북에서 파견된 어느 지하공작원이 여기 앉아 내려다보면서 다음 갈 곳을 생각하고있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모두가 나라를 위하여 싸웠고 겨레를 위해 싸워 승리했다.

그러나 리기준은 지금 저 서울에서 쫓겨난것 같았다. 대대로 살던 땅에서 넙치가 되도록 두드려맞고서 이렇게 초라하게 옛성터우에 와앉은게 아니고 무어랴싶었다.

이 도시에 미군이 들어왔다. 미군은 이 도시에 그냥 들어와있는게 아니라 이 도시를 마음대로 짓밟기 시작했다. 미군은 다시금 인민을 구박하려는 정당들과 테로단들을 비호하며 응원한다.

아아, 그들이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그럼 과연 그들이 주인이란 말인가? 주인이 바뀌였단 말이냐?! …

이같이 생각하던 기준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일어선 그는 자기도 모르는새 소리내여 웨쳤다.

《아니다! 영원히 이 땅의 주인은 바뀔수 없다! 없다! 없다!》

11

20여일이 지난 어느날 기준은 요긴히 만나야 할 일이 있다는 유상렬의 기별을 받고 세계일보사로 찾아갔다. 상렬을 찾아 신문사로 간 일은 처음이였다. 편집국장실은 융단을 깐 호화로운 방이였다.

기준이 들어서자 회전의자에 앉았던 상렬은 반가이 맞이하며 그를 응접탁앞으로 안내했다.

기자인듯 한 사람이 기준의 뒤를 따라들어와 《아까 그 기사를 어떻게 할가요?》 하고 물었다.

《그런 기사는 그만둡시다.》

뒤따라 들어온 사람은 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도로 나갔다.

《좌우간 기자들이란 거반 다 무식하더군.》

상렬은 담배를 권하면서 말했다.

《극좌도 푼수가 있지, 현계단이 어떤지는 모르고 그저 덮어놓고 미군반대거던. 미군이 도적질한 기사를 시국의 고려없이 덮어놓고 그대로 싣자는거던. 그건 그렇고, 내 기준의 의향을 들어볼 일이 있네.》

《…》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자네 신문사로 오게. 반대부터 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란 말야. 내 어찌 자네를 보통 평기자로 오라겠나. 이렇게 말하면 좀 야한것 같지만 부국장자리가 비여서 그러네. 그런데 또 들어보란 말일세. 나는 편집국장을 오래하지 않겠네. 그러니 결국 내 일을 할 의사가 없는가 말이지?》

기준은 잠시 묵묵했다. 연구회는 그 시작부터가 림시적인 일이였고 박문선과는 이미 해산할데 대하여 의논하기도 했지만 신문사일을 하고싶지는 않았다. 신문사사업을 결코 얕보거나 경시하는바는 아니였다.

단지 기준은 더 벅찬 투쟁속에, 싸우는 로동자들속에 들어가려는것

이였으며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좀더 건실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기준의 마음을 상렬은 몰랐다.

《글쎄, 만들어낸 신문을 읽으라면 몰라도 그걸 나더러 만들라면 곤난한데…》

《편집국장이야 정세판단만 옳게 하면 되지. 경력도 경험도 필요없다네. 기준이야 넉넉히 해내지.》

이런 이야기는 귀담아듣지 않고 기준은 딴 생각을 했다. 편집국장자리에서 떠날것 같이 말하는 유상렬의 말이 귀에 거슬렸기때문이다. 학생회에서 떠들 때부터 그는 여러 사람들의 우에 앉기 좋아했다. 상렬은 은근히 사회경제연구회의 주간이 변승룡으로는 적합치 않다는 의사를 루차 기준에게 표시했는데 그는 조그만 동인단체에서까지도 자기가 우에 앉으려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그에게 주간을 맡긴다면 아마 좀 연구회일에 열성을 발휘했을는지도 몰랐다.

이러한 그의 마음을 잘 알고있는 기준은 편집국장자리에 길게 만족해있을 유상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했다. 하지만 해방직후부터 《공산주의자열성자대회》니, 《장안파》니 하며 따라다니던 그로서는 그 직책이 결코 낮은게 아니며 그 임무를 충실히 집행해야 할것이였는데 과거를 싹 잊어버리고 벌써 딴 생각을 한다는 말이 좋게 들리지 않았다.

《좌우간 나에게 적합한 일같지 않아서 그러네.》

《내 생각에는 자네가 그중 적합할것 같네. 찬찬히 생각해보게나. 그러구 또 한가지 의논할 일이 있네. 해방직후부터 말했지만 이제는 입당수속을 하지그래. 내 보증 서겠으니…》

며칠전 기준은 박문선의 보증으로 입당원서를 제출했는데 그걸 상렬에게 말해도 좋을지 어떨지 생각해보았다. 또 기준은 상렬이 자기를 굳이 신문사로 끌려하고 입당보증도 기어이 자기가 서려는 그의 속심을 생각해보았다.

김재인이나 변승룡에 비한다면 유상렬은 훨씬 조직적두뇌를 가진 사람이였다. 그가 김재인을 사회의 기생충으로밖에 보지 않으며 변승룡을 지주의 책상물림으로밖에 여기지 않는것은 정확한 판단이였다. 그러나 친구들을 오직 자기의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한 리용물로만 여기는것은 좋은 일이 아니였다. 상렬은 변승룡이가 없는데서는 그를 반드시 《물주》라고 불렀다.

그는 박문선과 기준을 만만히 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연구회의 이름을 제 마음대로 리용했고 기준을 박문선보다 자기곁으로 끌려는 공작을 계속하고있었다.

허나 기준은 아무것도 더 생각지 않으려 했다. 그를 되도록 나쁘게 생각지 않으려 했고 그를 오해하고싶지도 않았다. 그는 당원이며 진정한 혁명가가 되려는 그의 동지였기때문이다.

이미 입당원서를 제출했다는 말을 들은 상렬은 잘됐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보증인이 되지 못한걸 서운해하는것 같았다.

《내 일을 념려해주니 감사하네. 지금이 아니라도 아무래도 함께 일을 하게 될거니 잘 지도해주게나.》

《잘 생각해보게.》

상렬은 기준을 현관밖에까지 바래러 나왔다. 그는 거듭 말했다.

《정치운동을 하려면 언론기관을 잘 장악해야 한다네. 언론기관 일군들의 발언권이 당내에서도 크다네.》

어느덧 추위가 닥쳐왔다. 우수수 가랑잎이 날리고 어느 나무나 엉성해진 가지에 파마한 머리같은 까치둥지만 매달려있었다. 모두들 외투를 꺼내 입었으나 외투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이나 껴입고 나왔다.

추위와 함께 시내에는 테로단들이 날뛰기 시작했다. 사회경제연구회가 습격당했던 그런 정도의 테로행위는 매일 신문지상에 실렸다.

12월 3일에는 학병동맹이 두번째로 습격을 받았으며 12일에는 서울시인민위원회가, 14일에는 과학자동맹의 일체 물품이 파손당했다. 미

군정은 백주에 버젓이 나다니는 테로단을 내버려둠으로써 은근히 그를 조장시키고있었다.

종로와 남대문동에 어깨를 비벼대고 늘어선 건물들의 유리창마다에서 휘날리던 기발들도 자취를 감추지 않을수 없었다. 그대신 미국사람들은 민족자본가들을 옆에 앉혀놓고 수판을 튀기면서 쌘프랜씨스코나 마카오를 떠난 미국상품의 매매계약을 하고있었으며 그들을 포함한 모든 친일파들은 이름과 간판을 바꾸어가지고 전보다도 더욱 많은 리익을 남겨먹을 일에 골몰하고있었다.

잘 먹고 잘 입던 민족반역자들은 다시 버젓하게 종로를 활보하고 다녔다.

기준은 신목사가 다시 학교를 경영하고있을뿐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자주 군정청출입을 하고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그는 그런 소식에 밝은 김재인에게서 무슨 꿍꿍이를 하는것인지 조석우를 매수한 일, 조석우가 슬그머니 백락일의 첩을 물려받았을뿐아니라 슬금슬금 김애라를 꾀여내고있는데 아마 큰 장사판을 벌리는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다.

어느날 저녁 기준은 집에서 나와 큰 골목안을 걷다가 초가집 대문앞에서 멈춰섰다. 사람들이 모여섰고 한 50살이 되여보이는 녀인이 퇴마루에 쓰러져 마루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있었기때문이다. 기준은 밖에서 어물거리다가 어떤 중늙은이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딸이 독약을 먹었다는구료.》

《왜 먹었다나요, 그 딸이 누군데요?》

《열여덟에 난 처년데 군정청에 취직한지 닷새 되는 날 미국사람이 마취약을 멕이고 처녀를 버려놨답니다. 나중에 깨나서 쥐약을 먹었다나…》

《그런데 들어간게 잘못이군요.》

기준이 혼자말로 중얼댔다.

《그런 꼴 당하러 들어갔겠소? 추위는 닥치고 먹고살려고 들어갔지. …》

이러한 말도 일리가 있는듯싶어서 기준은 묵묵히 물러섰다. 가난하게 사는 순진한 시민들은 빈 남비를 두드리고 서있는 《한국민주당》을 미군처럼 미워하게 되였다.

골목을 돌아서 나오려니까 어디서인지 아리랑곡조가 들려왔다.

락동강 7백리 공굴 놓고
하이카라 잡놈이 손질하네

인심도 소란했고 정치정세도 점점 험악해갔다. 큰길로 나오자 어떤 지게군이 막걸리에 취했는지 얼근해진 목소리로 아리랑을 웅얼거리는 것이였다.

하이카라 잡놈이 손질하더니
키다리 잡놈이 매질하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아리랑을 입속으로 웅얼거리기만 하지는 않았다.

인민의 힘은 차차 뭉치기 시작했다.

이미 11월 5일에는 조선로동조합 전국평의회가 결성되였으며 12월로 들어서자 농민, 청년, 부녀 등 계층별조직들이 각각 무어졌고 반파쑈투쟁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이러한 일들은 남조선인민의 투쟁력을 조직정비한것이였으며 남조선인민이 로골적으로 식민지정책을 실시하고있는 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개시한것으로 되였다.

기준은 자기의 갈길이 나날이 확실해지는것 같았다.

12

연구회 동인들은 박문선의 주선으로 섬유산별 문화부가 쓰는 사무실을 림시련락처로 정하고 서로 련계를 가졌다. 문화부장 안철이라는 사람은 동인들이 드나드는것을 매우 환영했으나 로동자들의 감정과 취미를 잘 리해하지 못하는 동인들은 불편해했다. 며칠후 승룡은 그의 외삼촌이 경영한다는 남대문근처의 라지오상회 웃층을 빌렸다.

그들의 재정은 여전히 긴장했다. 두권의 책자의 발간으로 다소의 현금이 융통되기는 했으나 그 현금은 동인들의 담배값, 리발료 혹은 뭉테기로 쓴 돈들도 채 메꾸지 못할 정도였다. 연구회를 해산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으나 좀더 두고보자고들 했다.

섣달 30일 오후 그들은 래년도사업을 어떻게 할것인지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었다. 사업이래야 별 복잡한게 없었기때문에 한시간쯤으로 끝났다.

《금년해도 다 갔구나.》

《영원히 사라져버릴거지.》

《해방의 감격, 그것은 력사에 남지.》

이런 대화들을 하는것을 듣고 앉았던 변승룡이 친구들을 보고 《오늘 집에서 한턱 쓰겠는데 올 의사들 없소?》 하고 제기했다.

《한턱 쓰겠다는데 안 갈 사람 있어?》

박문선이 찬성했다.

《아무리 정세가 복잡해도 하루 저녁 머리들을 쉬지. 마침 어머니가 고기랑, 불붙는 술이랑 보내왔으니 망년회를 하세.》

모두들 망년회에 대찬성이였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송재로도 부르기로 했다. 허봉례만은 남자들끼리 술 마시는데 끼여앉아있는것처럼 어색한건 없을뿐아니라 전평신문을 맡아보게 된 당숙 허인기와 만

날 약속이 있어서 모두들 같이 가자고 했으나 굳이 사양했다.

변승룡이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좀 처져서 동인들이 한두사람씩 서대문에서 전차를 내려 금화장주택지구에 이르렀다.

승룡의 서재겸으로 쓰는 안방으로들 들어갔다. 마루에서 방에 이르기까지 벌써 안주인이 없는 집이라는게 알렸다. 여러가지 가구들이 있고 옷들이 걸렸어도 녀자의것이라고는 통 눈에 띄지 않았다.

김재인과 박문선은 먼저 와서 바둑을 벌려놓고있었다. 재인은 양복멜빵을 뒤로 벗어젖히고 와이샤쯔소매를 걷고서 《흥, 좌우로 협공을 하는군요.》 하면서 검정바둑알을 놓았다.

《협공이 아니라 진공이지요.》

서슬이 희끗희끗해진 양복소매가 바둑판으로 올라오더니 흰 바둑알을 놓으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너무 오래 돼서 무슨 빛갈인지 분간할수 없을뿐아니라 소꼬리처럼 돌돌 말린 넥타이에다 턱을 꾹 붙이고 바둑판을 들여다보았다.

변승룡은 음식을 차리는걸 지휘하는건지 이따금씩 껄껄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얼마후 범가죽같은 얼룩덜룩한 무늬의 잠옷을 입은 변승룡이 방으로 들어왔다.

놀음이라고는 장기쪽도 겨우 옮겨놓는 정도의 기준이였으므로 그는 변승룡이 늘 누워있는 보료에 벌떡 누워있었다.

《유상렬이가 어찌된셈이야?》

변승룡이 물었다.

《신문사에 들렸다 오겠답니다. 곧 올텐데 웬만하면 시작하지.》

《다되였어.─》 하며 변승룡은 도로 나갔다.

《이것 봐라, 일망타진 안야?》

김재인은 애석한 어조로 말한다.

《한점 가져가시오. 그대신 이건 다 떼웠습니다.》

박문선이 자신있게 말한다.

《에이, 한번 실수는 병가상사라지.》
재인의 말이였다.
《패가망신도 병가상사지요.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문선의 야유였다.
그러는 동안 기준은 그대로 누워서 섬유산별 문화부장 안철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는 키가 작으나 둥근 얼굴에 량미간이 한자나 돼보이는 넙적한 얼굴이였다.
기준은 처음 그의 사무실로 갔을 때 의자를 권하고 책상우를 닦아주고 하면서 그가 너무도 친절히 대해주는 바람에 도리여 당황할 정도였었다. 그런데 안철은 일제시대에 자기가 종연방직공장에서 사무원노릇을 했다는 다 아는 사실을 이야기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일제시대에 로동운동에 참가한것 같은 냄새를 풍기고있었다.
(수수한것 같으면서도 어쩐지 소부르죠아인테리냄새가 나는 친구야. 그건 그렇고 자꾸 일을 부탁하는데는 난처한데… 무슨 삐라를 써달라, 원고를 써달라고 졸라대는데는 거절할 재간이 없거던…)
이러한 생각을 하고있는데 뜰에서 인사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다. 시인 송재로였다. 영문학을 전공한다는 그는 이름만 연구회에 걸어놓았을뿐 도무지 3～4차밖에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가 들어오자 기준은 벌떡 일어났다.
《오래간만입니다.》
시인은 기준과 문선에게 공손히 악수를 청하고 재인에게는 그의 등을 툭 치는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리고 보료로 올라앉더니 방금 사가지고 온듯 《캬멜》갑을 꺼내 두어대 뽑아 친절히 기준에게 권했다.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그 집안일을 도맡아하는 나이먹은 식모와 공단저고리에 붉은 끈으로 머리뒤를 동여맨 녀자(하관이 좀 빠른게 변승룡의 동생이 분명했다.)가 식탁을 맞들고 들어왔다. 뒤이어 변승룡이 들어왔다.

박문선이 상을 들여오는것을 힐끔 보더니 《몸 달것 없습니다.》 하며 재인을 놀려댔다.
《이젠 그만둬.》
변승룡이 말했다.
《석점이나 놓구 두면서 쩔쩔매네.》
《가만있어…》
재인이가 말하자 변승룡은 《가만있긴 무얼…》 하면서 바둑판을 쓱쓱 쓸어버렸다.
비록 행색은 초라했지만 좌상이고 이마가 훌떡 벗어졌다고 하여 변승룡은 문선을 웃자리에 앉혔다. 좌우에 재인과 시인, 기준은 변승룡과 마주앉았다.
통닭이 두마리, 소고기산적과 변승룡이 늘 좋아하는 생선매운탕, 알쌈, 어란…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도록 차려들여왔다.
《성찬이로군!》
문선이 감탄했다.
재인도 《가끔 이렇게 내시오.》 하며 수저를 들었다.
《소청대로 하지.》
변승룡이 대답하고 주전자를 들어 술을 붓기 시작했다.
《이게 불붙는 술이야.》
잔에 부은 술은 랭수같이 맑았으나 과연 잔테두리에 뺑 돌아 줄을 그으면서 기름이 돌았다.
《자, 다난했던 1945년을 보냅시다.》
모두 잔을 찧었다. 쭉- 쭉- 들이키는 소리가 났다.
《야, 근사한데…》
《입에선 순하지만 넘보지들 마우.》
변승룡이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맥주도 준비했으니 어느것이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섞어마시면 안된다거니 맥주를 먼저 마시자거니 하다가 결국 소주를 한홉씩 하고 맥주에 달라붙었다.

《정말 잊을수 없는 해란 말야!》
좀 얼근해지자 감상적인데 곧잘 빠지군 하는 변승룡이 감개무량한 어조로 말했다.
《력사의 다른 페지가 열렸으니…》
《그야 영원히 잊을수 없지.》
재인이 대꾸했다.
《40여년동안의 일제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새로운 쇠사슬이 사지를 엮으려고 하고…》
기준이 말했다.
그러자 닭의 다리를 집어들면서 시인이 《다시 쇠사슬에 얽힌 프로메테우스인가, 빌어먹을!》 하고 말했다.
그러는 한편 재인은 문선에게 자꾸 바둑이야기를 들이대고있었다.
《아까 그 한점만 제대로 놓았더면 대세가 바뀌는걸 그랬는데…》
문선은 산적을 씹으면서 대답했다.
《언제나 그 한점이 문제지요. 바둑뿐아니라 매사가 그렇습니다. 그 한점이 한점이 아니라 모두랍니다.》
맥주거품이 치오르듯이 좌석이 좀 부글부글해졌을 때 변승룡의 동생이 《오빠, 손님 오셨어요.》라고 말했다.
유상렬이가 왔다. 그는 방으로 들어서자 외투와 중절모를 벗어 걸었다. 붉은 줄이 간 새파란 고급양복에다 붉은 바탕에 노란 무늬가 놓인 화사한 넥타이를 매고있었다.
그는 시인과 악수를 하고 머리에 빗질을 하면서 잠시 자리를 엿보다가 기준의 옆에 앉았다. 잔이 이쪽저쪽에서 오갔다.
《또 후래삼배로군. 그놈의 삼배가 늘 먼저 취한다니까…》
유상렬은 두어잔 마시고나더니 《가만있소. 술 좀 천천히들 마십시다.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생겼소.》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선이 《오, 아까 무슨 중요한 외전이 들어온다더니?》 하고 정색을 했다.

《바루 그거야. 모스크바에서 열린 3국외상회의의 결정을 유피(미국의 유피통신)가 전했는데 조선을 앞으로 5년동안 <신탁통치>를 하게 됐다는군.》
모두들 숨을 죽이고 저가락을 놓았다. 그리고는 유상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즉 조선이 쏘, 미, 영, 중 네 나라의 <신탁통치>를 받게 되였단 말야.》
《<신탁통치>라는게 뭐야?》
시인이 물었다.
《결국 우리 힘으로 정부를 세울수 없으니까 유관국가들이 정치를 해주겠다는거지.》
《더 자세한 소식은 없소?》
문선이 물었다.
《그거야.》
유상렬이 대답했다.
《저것, 호외가 돌지 않아.》
모두들 밖에서 뛰여가는 신문배달의 방울소리를 들었다.
《그럼 까히라선언은 다 어떻게 됐어? 다 헛문서인가? 얘, 호외 가져오너라, 얼른—》
변승룡이 분개해서 웨쳤다.
《아니, 그럼 이젠 인민에게 무어라고 하겠는가? 인민이 바보들인가?!》
재인은 락담한 어조로 웨쳤다.
호외가 들어왔다. 변승룡은 호외를 받아들더니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다.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이라, 1. 조선을 독립국으로 회복시키고…》
그는 쭉 읽어가다 《그건 그렇고…》 하고는 둘째 조항을 읽었다.

둘째 조항은 쏘미공동위원회를 조직하는 문제였다. 셋째 조항으로 넘어갔다.

《흠, 여기로군.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조선림시정부와 협의후 5년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쏘, 미, 영, 중의 공동심의를 받는다. 여기군, 여기야!》

《흥, 참!》

유상렬의 음성이였다.

《이젠 알만 해.》

시인의 목소리였다.

변승룡이 3상회의결정을 읽는 동안 모두들 몇잔 마신 술이 깨였다. 그리고 다 읽고나서도 말들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뜨리고 김재인이가 고뿌를 들었다가 깨지도록 식탁에 내리치며 《망했다. 아주 망했어!》 하고 심각하게 부르짖었다. 그의 성격이 신경질적인것을 알면서도 좌석의 친구들은 그의 말에 찔렸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바라고있는 조국은 독립국가이지 《신탁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고 웨쳤다.

《기진맥진하게 되잖았나?》

유상렬이 자기 무릎을 쳤다. 시인은 상반신을 흔들면서 술자리를 걷어치울가, 어쩔가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한잔 먹어야 하겠기에 그냥 묵묵히 앉아있었다.

《반대다, 반대!》

이렇게 변승룡이 웨쳤다.

《맑스주의가 퇴각하는거야!》

이런 소리를 유상렬이가 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자꾸 흘러내리는 안경을 벌써 네번째 치켜올리면서 호외를 거듭 읽고있는 리기준의 표정 역시 신중했다.

그는 《신탁통치》란 말이 어디서 나왔단 말인가? 하다가 좋다, 조선은 현재 그대로의 조선인것이며 앞으로 나가야 할 조선인것이다! 맑스주의가 퇴각을 한다고?! 쓰딸린과 쏘련외상이 자본가들 하고 타협을 했단 말인가, 천만에! 이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배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어쨌든 나는 정의와 진리를 믿는다!》 하고 웨쳤다.

그러자 박문선이 고뿌를 치켜들었다.

《그렇다.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마시자!》

기준과 문선의 잔이 부딪쳤다. 그리고 두사람은 맥주를 쭉 들이켰다.

다른 사람들은 신명이 나지 않아했다.

재인은 거듭 《망했어. 망해!》라고 중얼댔고 변승룡은 《녹았구나!》 하고 통탄했다.

그러나 모두들 두사람을 따라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마시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북조선을 위하여 마셨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연구회를 위하여 마셨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취해버리기 전까지 가슴속에 《신탁통치》라는 말이 큰 가시처럼 걸려있었다.

얼근들해지자 송재로가 이번 서울신문에 보냈다는 자작 송년시를 랑송하기 시작했다. 좌석이 조용해졌다.

시인은 좀 넙적한 얼굴을 들고 눈을 감고 약간씩 고개를 흔들면서 랑송을 했다. 본인은 상당히 흥이 나는 모양이였으나 기준에게는 《푸른 바다 저쪽에서 왔는가》라는 말과 《너의 손길이 나의 가슴을》 하는 두마디 이외에는 잘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유상렬이 다시한번 읊으라고 하자 시인은 역시 눈을 감고 약간씩 고개를 흔들었는데 잘 알수 없는 시였다.

《좋다!》

다 랑송하고나자 변승룡이 이렇게 소리쳤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잠자코 있었다.

기준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작가가 되려다가 찌부러진 사람은 아무 쓸모없는 페로운 인간이 된다더니 그 말이 옳겠군. …)

맥주를 《들어 뻥》한 다음 다시 소주를 들이댔다. 소주를 마시면서부터 머리들이 홱 돌아서 좌석이 벅적해졌다. 재인이 잡가를 시작하자 상렬이 저가락으로 상을 두드렸다. 술에 약한 문선은 건넌방 침대우에 나가떨어졌다. 다른 사람들은 두시가까이까지 떠들었다.

헤여질 림박에 유상렬과 김재인이 대두리싸움을 했다.

싸움의 시초는 간단했다. 김재인이 해방직후 《공산주의자열성자대회》에서 한 유상렬의 토론을 《시시한 토론》이라고 한게 빌미가 되여 상렬이 《그럼, 자넨 변증법의 법칙들을 옳게 리해하고있단 말인가?》 하면서 대들었다.

《난 몰라.》

《모르면 그러구 있으란 말야.》

《난 몰라도 자네가 변증법을 잘 모르고있다는 사실만은 안단 말야.》

《무엇이 어째?》

《자네 같은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부른다는건 안다니까…》

《남의 계집 해먹으러 다니는게 기회주의가 아니고 내가 기회주의야?》

《자식두…》

《무어라구?》 하면서 유상렬이 팔을 걷어붙였다.

기준과 변승룡이 가까스로 뜯어 말렸다.

《너깐것 다시 보질 않겠다.》

상렬의 말이였다.

이같이 소시민들의 술좌석은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끝났다. …

그날 밤 김애라는 미국사람과 춤을 추었다. 일본인이 경영하던 정자옥백화점이 《피 엑스》라는 미국잉여상품의 판매점이 되였고 그 3층에는 추잡한 무도장이 꾸며졌었다. 리화자는 이따금씩 조석우와 함께 《피 엑스》로 가서 미국화장품을 사기도 하고 웃층으로 올라가 춤도 추었다. 거기에 애라가 가끔 끼웠다.

그날도 세사람이 한시간쯤 무도장에서 엇바꾸어가며 춤을 추었는데 조석우가 잘 아는 미군(그는 차코브슨이라는 미군정청 상업부 고문이였다.)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하여 차를 몰고 금화장으로 갔다.

그날 저녁때 재인이가 금화장을 넘다가 애라가 미국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는것을 보았는데 그때 조석우와 리화자는 벌써 그 집안으로 들어갔었던것이다.

두시가까이까지 떠들다가 유상렬과 싸우고 변승룡의 집을 나선 재인은 곧장 애라에게로 갔다. 그러나 문이 잠겨있었다. 아래층에 있나 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을 때 재인은 미군찌프차에서 내리는 애라와 마주쳤다. 그날 밤 애라는 조석우와 함께 끌려가 춤을 추고 소다물을 얻어먹었을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변명했으나 재인은 곧이듣지 않았다.

(하다못해 양갈보짓을 해? 에이, 더러운것!)

재인은 이렇게 생각하며 미장원에서 나와버렸다.

재인이가 나가버리자 애라는 혼자말로 《아이, 취했나보다. …》 하면서 머리빈침을 모두 빼놓고 자리에 누워버렸다.

13

이튿날 오후 송재로가 라지오상점으로 전화를 걸어온 일이 있었다. 그는 지난밤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혹 변승룡의 집에 놓았는지 기억이 없느냐고 물었고 기준도 모르겠노라 했더니 이번에는 《신탁통치》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그는 다른 말로는 아직 못 읽었으나 3상회의결정 영문판을 보니까 그 대목이 《트레스트쉽》이라는 말로 되여있다는것과 《트레스트쉽》

이면 반드시 《신탁통치》로 번역하지 않아도 좋다는것이였다.

기준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번역하지 않아도 다른 말이 있을것이다. 허나 무슨 말로 번역을 하든 이미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들대로의 배짱이 서있었던것이며 미제의 어리광대를 감수하고있는 부르죠아지들도 물론 그들의 상전의 배짱과 다를리 없었다.

그러므로 민족부르죠아《정치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탁통치》를 받아들이자고 실언을 한 송 아무개는 그같은 발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지 두시간도 지나지 않아 암살당하고말았던것이다.

기준은 날마다 신문을 주의해 읽었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은 사흘동안이나 애매한 태도로 나왔다.

학대를 받고 살던 대다수의 시민들은 모스크바3상결정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으나 미제의 고용간첩인 박헌영도배들은 그같이 의식적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량심적인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켜놓았던것이다.

소부르죠아지들과 좌익을 두둔하던 《중간파》들이 동요했음은 말할것도 없었다.

《조선공산당은 무얼 하는가?》

동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인이 이렇게 두덜댔다. 그리고는 당원인 박문선의 안색을 살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들끼리 판단 못할거믄 평양의 태도를 알아봐서라두 3상결정을 곧바루 받아물수 있는게 아닌가?》

모두 덤덤히들 담배만 피웠다. 기준도 역시 생각에 잠겨있었다. 얼마후에야 변승룡이가 다시 한탄하듯이 말했다.

《어찌됐든 일제시대의 재판이야. 식민지생활을 할 운명인걸…》

그러자 김재인이 말을 받았다.

《그저 모두 제 갈길을 택해야지. 언제는 별수 있었나?》

이러한 말들을 듣자 문선은 고르지 않은 음성으로 말했다.

《무슨 말들을 그렇게 하나? 그건 투항주의일세, 투항주의!》

《이번에 적지 않은 손실을 본것은 사실이야.》

기준이 말했다.

《허지만 그걸 가지고 크게 실망할게 있나, 실망할건 없어!》

문선과 기준이 번갈아가며 길게 설명을 해도 변승룡과 김재인은 시무룩한 표정들이였다.

며칠후 기준은 모스크바3국외상회의결정이 남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미제의 흉책을 분쇄한 쏘련의 주장에 의하여 채택된것이며 그 결정은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념원하는 조선인민의 의사와 일치되는것임을 확실히 알게 되였다.

기준뿐이 아니였다. 어느 틈에인지 인민대중은 그 결정의 의의를 옳게 짐작하게 되였으며 반동정당들에서 계속하여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 시작하자 그 결정이 인민에게 결코 불리한것이 아님을 더욱 깨닫게 되였다. 그런데다 공산당과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뒤늦게나마 3상회의결정을 지지하는 성명들을 발표했다.

3상회의의 결정발표는 조선사람들을 완전히 두파로 갈라놓았다. 한패는 극소수의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친미분자와 테로부랑배들이였다. 이런자들은 미국을 하느님처럼 믿었으며 미제국주의가 장차 세계를 제패할거니 미국에 붙어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다.

허나 그와는 비할수도 없을 정도로 거대한 힘을 보여주고있는것은 량심적인 인민대중이였다.

일시 혼란에 빠졌던 인민대중은 3상회의결정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그리고 박헌영도배가 계속 음으로양으로 8.15직후부터 북조선의 시책을 무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은 북조선을 지지했다.

더우기 북조선에서 3상결정을 절대지지하고있다는 소식이 라지오를 통해서 시내에 퍼지게 되자 시민들은 열렬히 북조선을 지지하고나섰다.

그리고 비록 리론적으로 설명할줄 모른다 해도 사람들은 일본법률을 그대로 쓰려고 하고 일본제국주의가 하는 방법대로 남조선사회를 다스리려는 미제를 반대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하여 시내는 일시에 살기를 띤 도시로 변해버렸다. 테로단이 공공연하게 거리에서 폭행을 감행했다. 삐라를 빼앗았고 붙인 삐라를 쥐여뜯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눈앞에 닥친것이였다. 그러했기때문에 1월 3일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 지지하는 군중대회가 서울운동장에서 열리게 되자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던것이다.

넓은 운동장안은 울타리밑까지 까맣게 사람에 뒤덮여서 일단 그 사이에 끼여버린 사람은 한걸음도 움직일수 없었다. 운동장안뿐아니라 동대문 네거리와 황금정 네거리까지 좌우 큰길이 사람으로 뒤덮여있었다. 두말할것도 없이 차바퀴는 어떤것이건 굴러가지 못했다. 정거한 전차지붕우에도 사람이 가득 올라가 법석들을 했다.

기준은 동인들과 함께 연구회에서 나왔으나 도중에 모두 뿔뿔이 헤져서 결국 혼자가 되였다.

밀물에 휩쓸리듯이 운동장안으로 밀려들어간 기준은 주석단앞으로 다가서려 했으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목적을 이룰 도리가 없었다.

수백수천폭의 프랑카드들과 붉은 기폭이 운동장을 뒤덮었다. 함성이 폭발했다.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 절대지지한다!》

《절대지지한다!》

모두가 3상회의결정을 지지하는 길만이 조선이 조속히 통일독립되는 길이며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열릴 쏘미공동위원회의 사업이 순조롭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들이였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만세!》를 한없이 불렀다.

군중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 붉은기를 들고 나왔을가? 어찌하여 미국기발은 주석단근처와 그우에 서너폭 힘없이 매달려있을뿐 군중들의 손에는 하나도 들려있지 않을가?

그렇게 누가 조직한것도 아니였다. 그것은 군중의 의사였다. 어떠한 힘도 군중의 의사를 막을수는 없다. 두시간가까이 진행된 그 대회에서 계속 함성을 올린 군중들은 목청이 모두 변했다. 그러나 모두들 변한 목청을 가다듬어 거듭거듭 웨쳤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의 통일독립 만세!》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 지지하자!》

리기준의 목청도 변했다. 그는 뻣뻣해진 다리로 연신 발돋움을 해서 주석단과 군중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함성과 함께 물결치듯 하는 기폭들을 바라보기도 했다. 군중이 만세를 부를 때는 더 힘을 들이군 했다.

기준은 문득 작년 8월의 일이 생각났다. 정거장앞 그 복새통에서 이렇게들 말했다.

《언제 온답니까?》

《래일은 틀림없이 올겁니다!》

기준은 그 대화가 아직도 귀에 쟁쟁했다. 그런데 래일 틀림없이 오는게 아니라 이미 와있었다는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조선빨찌산은 물론 38도선을 넘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온 민족의 한결같은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빨찌산의 투철한 반제자주리념, 열렬한 애국정신은 이미 1945년 8월 15일 썩 전에 조선인민의 머리속에 찾아든것이 아니고 무엇이였던가!

시위행렬은 군중들에게 더욱 큰 감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제가끔 벅찬 가슴으로 운동장에서 미여져나왔다. 그리하여 종로 네거리로 향해가면서 터질듯이 가슴에 꽉 차있는 감격을 거리에다 뿌리기 시작했다.

시위는 종로 네거리에서 안국동으로 휘돌아 군정청앞을 지나서는 남대문앞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각기 헤여지기로 되였었다.

기마경찰들이 날뛰였다. 꺼먼 제복에다 모자끈을 턱에 걸친 경찰들이 말뚝들처럼 거리에 늘어서있었다. 철갑모를 쓰고 엠피완장을 두른

미군들이 그 사이사이에 늘어섰다. 시위행렬의 대렬밖으로 삐져나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모조리 감금하려는것이였다. 그러나 시위대렬은 그것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50살이 넘어보이고 머리중심으로 가리마를 타넘긴 로파 한사람이 피로한줄도 모르고 어디서부터인지 기준의 뒤를 따라오고있었다. 단정한 외모였으나 이마에 주름살이 거미줄치듯 했고 회색무명치마에다 무슨 학생복같은 상의를 덧입었다. 그리고 한팔에는 삐라뭉치를 끼고 있었다.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기준이 로파와 발을 맞추어주면서 물었다.

《좀 힘이 들기루 대수요?》

《아드님은 없으신가요?》

《전차운전사라오.》

그런데 하고 기준은 로파를 살펴보았다. 그가 덧입은 그 옷이 그러고보니 전차승무원의 제복이였다. 폭발한 만세소리가 뜸해진 틈을 타서 로파가 말했다.

《전차운전을 하다가 엊저녁에 류치장으로 끌려들어갔다오.》

《왜요?》

《미군자동차를 받았다는구료. 아니, 그래 전차가 차길밖으로 나가 남의 차를 받았겠소? 술취한 미군놈이 차를 너무 빨리 몰다가 전차를 받은걸 애꿎은 우리 애만 잡아갔다는구료.》

《그건 어디서 가져오셨나요?》

기준은 로파의 겨드랑이쪽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그저께 밤에 우리 애가 가지고 들어와서 오늘 군정청앞에다 뿌릴거라고 합디다. 그래 내라도 뿌리려고 가지고 나왔지.》

무엇인지 더 묻고싶었으나 행렬이 반달음질을 쳤다.

《이리 주십쇼, 제가 뿌릴게요.》

《아니요. 내 뿌리겠소.》

로파도 발걸음을 서둘렀다. 40～50메터쯤 달려가는 동안에 기준은 그 로파를 놓쳤다. 군정청앞으로 다가오자 군중은 더욱 함성을 올렸고 삐라를 길바닥이 허옇도록 뿌려댔다.

경찰들과 미군엠피가 군정청담을 쫙 둘러싸고있었다. 그리고 행렬밖으로 삐져나와 구호를 부르는 사람들을 나꿔채려고 했다.

문득 기준은 군정청정문앞을 보고 놀랐다. 어느 틈에인지 그 로파가 기준보다도 앞서가 거기서 삐라를 뿌리고있었기때문이였다. 경찰놈들이 로파를 잡으려고 했다. 로파는 자기 팔을 잡으려는 경찰의 팔을 뿌리쳤다. 이번에는 미군엠피에게 팔목을 잡혔다. 그때 또 만세소리가 폭발했다. 그러자 로파는 한팔을 잡힌채로 그 만세소리에 호응하여 미군이 어쩌건말건 쇠소리를 내여 고함쳤다.

《조선독립 만세!》

(저런, 구호를 다 부를줄 아네.)

기준은 이렇게 생각하며 그의 앞으로 달려갔다. 눈물겨운 그 광경을 목격한 군중은 로파를 향하여 더욱 목청높이 열광적으로 만세를 불렀다.

그때 행렬에 끼여가던 자주빛통치마를 입은 한 처녀가 그 로파의 옆으로 달려갔다. 처녀는 재빨리 로파의 팔을 잡아끌었다. 그러자 경관 한놈이 이번에는 처녀의 팔을 잡았다. 그 광경을 본 군중은 그들쪽으로 쏠렸다. 기준은 무엇인지 목구멍까지 치밀어오르는것 같아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다가 로파와 처녀의 앞으로 달려들었다.

《놔라!》

기준은 흥분해서 이렇게 웨치면서 로파와 처녀의 팔을 놈들의 손아귀에서 힘껏 당기였다. 그리고는 군중속으로 잡아끌었다. 미군엠피와 경관이 이번에는 기준의 덜미를 잡았다.

《못 놓겠니?》

기준은 다시 웨치면서 잡힌 덜미를 비틀고 놈들과 정면으로 서려 했다. 그 순간 아우성을 치며 군중이 기준과 경찰사이로 밀려들었다. 미

군엠피는 군중을 피해나갔고 경관놈은 군중속에 섞이여 볶이다가 겨우 도망쳤다.

리기준은 흥분과 승리감으로 하여 사지가 와들와들 떨리였다. 오직 벅찬 가슴으로 밀려가다싶이 광화문동 네거리로 향했다. 로파도 그 처녀도 군중속에 섞이여서 보이지 않았다.

《**김일성**장군 만세!》

기준이 군중에 호응하여 다시 이렇게 웨친것은 한참후였다.

시위행렬에서 몹시 흥분해서였던지 기준은 이튿날 몸살이 나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

오후까지 누웠다가 밖에 나갈것을 단념하고 전전날 섬유산별에서 부탁받은 선전문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삐라로도 찍고 한편 전평신문에도 게재할거라고 했다. 두어시간에 써질것 같던것이 결국 1시에야 끝났다.

다음날 기준은 그 원고를 가지고 섬유로조로 안철을 찾아갔다.

섬유로조는 서울역앞의 그전 운송회사가 있던 큰 건물(그 건물에 전평산하의 로조들과 신문사 편집부가 있었다.)의 2층 맨 끝방에 있었다.

기준이 찾아갔을 때 안철은 십여명의 로동자들을 자기 방에 모여놓고 무엇인지 열심히 설명을 하는상싶었다.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민 기준은 《회의중이시군요?》 하고 들어가기를 망설이는데 《일없습니다. 들어오세요.》 하면서 안철이가 일어서 나와 기준의 손을 잡고 끌어들였다. 그리고는 설렁탕집 걸상같은 긴 외쪽나무걸상에다 기준을 앉히였다.

《한 5분만 앉아계십시오.》 하고는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다.

《…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친절한 해설과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로동자들이 다 동무들과 같이 사상적준비가 돼있다고 생각하면 사업이 거칠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로동자들의 생활형편이 매우 어렵다는것을 념두에들 두시고 로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임금이 차례

지도록 각각 직장사정을 고려하실것과 분회 회비를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도록 하되 규정한 최저률을 줄이면 줄였지 한푼이라도 넘어서는 것은 반역행위로 알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할건 그겁니다.》

그러더니 다시 그들에게 물었다.

《이제는 원료나 반제품을 빼내다 파는자들이 좀 적어졌겠지요?》

《형편없습니다. 더 심해지나 봅니다.》

턱을 불쑥 내밀고 한 로동자가 대답했다.

기준은 이 방에 들어와서부터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있었다.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도무지 아물아물 생각이 안 났다. 그러다가 그의 음성을 듣자 비로소 그가 지난해 《공산주의자열성자대회》에서 발언을 했던 그 로동자인것을 깨달았다.

(옳다. 바로 그 동무야! 응, 이런데 와있구나.)

기준은 혼자 생각했다.

주걱턱은 말을 이었다.

《허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에게는 관리인문제가…》

《네. 관리인문제는 일간 다시 회합을 갖기로 했으니까 그날 하기로 하고 단지 <군정을 배격하자!> 하는 슬로간(구호)을 내거는것은 당분간 고려해야 할겁니다.》

《그건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종업원대회준비에서 뭐 더 물어보실것들 없습니까?》

모두 없다고들 대답했다.

《그럼 곧들 돌아가십시오.》

안철이가 말했다.

《삐라는 4시까지 가지러들 보내시고 선전대준비를 이제부터 곧 추진시켜야 합니다.》

모두들 일어서 서로 악수들을 하고 더러는 담배를 붙여물고 나갔다.

주걱턱 로동자는 안철에게로 오더니 《래일부터라도 우리는 관리인의 비행을 폭로하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좌우간 그러한 방향에서 하는건 일없겠지요. 마침 잘됐습니다. 이분이 신문원고를 쓰셨는데 인사들 하시지.》

기준은 일어나서 그 로동자의 손을 잡았다. 그는 동광방직의 분회위원인 정형규였다. 그는 광대뼈가 나온 그 넙적한 얼굴에 서글서글한 웃음을 띠우고 기준의 손을 잡았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그전에 토론할 때와는 달리 매우 겸손해보였다. 도로 의자에 앉은 정형규는 낡아빠져서 찢어진것을 흰실로 꿰맨 외투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부스럭거렸다. 그러더니 잎초를 한줌 집어내 종이에다 말려고 했다.

기준이 《이것 피우시지요.》 하면서 권연갑을 꺼내 그와 안철에게 권했다.

《원고를 보여주실가요?》

기준은 담배를 손톱에다 두드리다가 안주머니에서 원고를 꺼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신있는 글이 못됩니다. 좀 읽어봐주십시오.》

안철과 정형규는 한장씩 받아 읽어갔다. 다 읽고난 안철은 정형규에게 의견을 물었다.

정형규는 《글쎄요!》 하면서 머리를 벅벅 긁더니 《외람합니다.》 하고는 공장실정을 모르니까 무리한 일일거라 하면서 동광방직이 현재 가장 애로로 여기는 점은 과반수가 되는 녀성로동자들의 단합이 부족한것이라 했다.

《관리인 차코브슨은 전 동광방직의 주주였던 백락일과 결탁하여 그의 병정인 김동호란자를 지배인으로 데려다 앉혔답니다. 김동호란자는 전 리연회사의 지배인대리였습니다.》

(동호란 놈이 공장으로 갔구나. 잘 모였군…)

《그자는 제가 잘 압니다.》 하고 기준이 대답했다.

《그러십니까? 헌데 그자는 차코브슨과 백락일이 시키는대로 원료는 원료대로 제품은 제품대로 함부로 팔아버리고있습니다.》

《그래 제대로 작업도 못하고있답니다.》

안철이 설명했다.

《하루 대여섯시간밖에 못합니다. 그걸 구실로 동호란자는 종업원들의 임금을 평소의 반액밖에 주지 않습니다.》

정형규는 강조했다.

《원료를 팔지 말고 제대로 조업을 계속하게 하자고 요구해야 할것이며 특히 녀성동무들의 단결력이 고무되도록 다시한번 손을 대주셨으면 합니다. 미안합니다.》

안철도 동감이라고 말했다.

기준은 그 의견들을 다 듣고 그대로 참작하여 고쳐쓰겠노라 했다.

원고를 읽는 동안 4～5명의 로동자가 들어와 안철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정형규는 곧 돌아갔으나 또 누구인지 문건을 들고 들어와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방에서 전화를 받으라고 했다.

반시간이상이나 거기 앉았다가 기준은 겨우 정신을 차린 안철에게 가겠다는 인사를 했다.

《이거 참 미안합니다.》

안철은 비로소 그 넓다란 량미간을 기준에게 보이면서 말했다.

《여기선 아무 대접도 못한답니다.》

《천만의 말씀을…》

《종일 이 모양이지요. 기준씨 같은분이 여기 계시면 얼마나 일이 잘될는지 모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내겠습니까.》 하면서 기준은 얼굴을 붉혔다. 그러지 않아도 그는 지금 30매밖에 안되는 그 원고를 쓰느라고 이틀동안이나 애쓰던 일과 그렇게 쓴 원고가 한 로동자의 의견에 의하여 쓸모없이 된 사실을 부끄러이 생각하고있던차였다.

안철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것 같았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때그때의 닥친 사무를 처리할뿐이지

뭐 일반적인걸 압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기준은 고쳐쓸 원고를 래일 시위행진이 끝난 뒤에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안철에게서 나왔다.

(그렇군. 바로 그 사람이였군. 그의 이름이 정형규! 건실한 로동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왔다. 그는 집으로 향해 걸으면서 또 생각했다.

(백락일이가 주주라, 그리고 김동호란 놈이 그 공장에다 둥지를 틀었다고? 참 묘하게 찾아들어갔군. 차코브슨이란 놈은 또 어떤 도적놈이람…)

14

(정말 나를 배반했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해일가? 어쨌든 미국놈에게 가서 춤을 춘건만은 사실이다. 또 새벽에 그놈의 차를 타고 돌아온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무엇을 오해인가 아닌가 생각하는가? 세상에 그래 미국놈하고 그렇구 그렇다니, 빌어먹을! 에이, 안 보면 그만이다. 이제는 끝났다. 마침 잘되였다. …)

혼자 《에이 완》구석에 와앉은 김재인은 이런 생각에 골몰해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재인은 지난 5～6년동안 함께 지내오던 애라를 완전히 잊을수는 없었다. 불시에 애라를 빼앗기고보니 미상불 서운했는데 그건 곪아터진 응어리만 쏙 빠진게 아니라 응어리와 함께 생살점까지 문드러져나간것 같았다.

그날 밤 헤여진채로 아주 모르는 사람이 되기는 너무도 무심한 일이였다. 본남편과 사실상 리혼을 한것이나 다름없이 된 후 애라는 누구보다도 재인을 좋아했다. 그 녀자는 재인이 무슨짓을 하든 말리지 않았으며 무엇 하나 재인에게 요구하지 않았었다.

재인은 여직껏 여러 녀성들과 상종해보았지만 애라와 같이 매력있는 녀자는 없다고 생각했다. 보통사람들의 눈에는 애라라는 녀자가 갈보이상이 아니며 그보다 더 하등한 동물은 없다고 생각하련만 재인은 양귀비처럼 보였다.

야비하고 음탕한 행동이 그에게는 고상하고 순진해보였으며 미에 대한 교양이 매우 부족한 사람까지도 그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돌리지 않을수 없을 정도였지만 재인에게는 그게 처녀와 같이 온순하고 수줍은 표정으로 보였다.

더우기 그는 애라가 침실에서 바로 보지도 않고 딴 곳을 보는것도 아닌 실눈으로 보는 그 표정(바로 그게 갈보의 자세와 표정이였는데)을 잊을수 없었다. 거기다 비하면 언제인가 몇번 상종한 일이 있는 옥실이라는 기생은 그 제자에 지나지 않았고 리화자 같은것은 완전히 락제라고 그는 단정했다.

자기를 그렇게 배반할수가 있는가?

그는 계속 생각했다.

(설마, 그날 밤 욕을 하고 나와서 벌써 열하루가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토라졌을는지 모르겠다.)

사실 재인은 애라를 찾아보러 왔다가 차마 웃층으로 곧바로 올라가기가 안되여서 얼근해서 올라가려고 식당으로 들어온것이였다. 술이 몇잔 들어가자 마음이 매우 너그러워져서 이제 당장 애라를 만난다면 모든것을 풀수 있을것만 같았다.

그는 식탁에 모자를 놓아둔채로 어둑어둑해진 밖으로 나왔다. 현관문을 열고 찬찬히 층계를 올라갔다. 그는 구두소리를 죽이고 사방을 훑어본 다음 미장실열쇠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직 손님이 남아있었다.

(조용히 만나는게 좋다!)

그는 급히 돌아서서 내려와버렸다. 5시 45분이였으므로 정각 6시가

되거든 일어서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시계추가 느린것 같아서 맥주를 두고뿌 더하고 3분전에 다시 올라갔다.

애라는 일을 끝내고 어떤 녀자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재인은 옆방문을 열었다.

애라는 재인이가 나타나자 옆방으로 나와 잠간 미소를 띠웠다.

(그러면 그렇지, 그럴리가 있나? 저렇게 상냥하게 대해주지 않나 말야.) 하고 재인은 의자에 앉았다.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애라가 마주앉으며 물었다. 재인은 잠시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듯 한 표정을 하고있다가 《글쎄, 노염을 사게 됐소 안됐소?》 하고 물었다.

《어째 대답이 없소?》

재인은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 성냥을 그어대는 애라의 희고 호사한 손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조선녀성은 조선녀성으로서의 지조가 있어야지. 지금 미국놈들이 남조선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잖소. 조선이 40여년동안 일본놈에게 박해를 받았어도 한사람의 녀성도 일본놈을 따른 일이 없잖소?!》

김재인은 바로 이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별렀던것이였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움직일수 없는 진리인것처럼 여겨졌으나 막상 입밖에 내고보니 어쩐지 김이 빠진 소주처럼 무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라와의 화해는 곧 이루어질줄 알았다. 그러나 사태는 달랐다.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당신은 공산당패니까요.》

《내가 무슨 공산당?》

《알겠어요.》

《좌우간 식사나 하고 올라옵시다.》

그러자 애라는 담배를 눌러 끄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손님이 있어요. 한 30분동안 할 이야기가 있으니 혼자 하시고 올라오세요.》 하면서 미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안에서 부리는 아이를 나무라는

애라의 신경질적인 소리가 들렸다.

도로 내려간 재인은 병마개만 뗀 맥주 한병을 마저 마시면서 제1작전은 그쯤해놓았고, 제2작전은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겨있었다.

이럭저럭 한 20분 지난 뒤 적당한 계획을 세운 재인은 마지막잔을 들이키려 했다. 그때 바로 그가 앉은 창밖에서 자동차가 와멎는 소리가 났다. 재인은 무심코 창가림을 방긋이 젖혀보았다. 그런데 그 소리는 차가 와멎는게 아니라 어느 틈에 왔던것인지 미군찌프차가 떠나는 소리였으며 그 차안에는 갓 화장을 한 얼굴에 매서운 표정을 하고있는 애라가 앉아있었다.

조석우는 언제 내가 그러했더냐, 언제 남의 술만 얻어먹으려 다녔더냐 하는듯이 쪽쪽 빼고 다녔다. 그리고 《영생그릴》, 《랑랑》 또는 《에이 완》앞에 차를 세워놓고 식사를 하러 왔다가는 차로 돌아가군 했다.

백락일이가 그를 잡은 동기는 백락일에게 있어서 그가 정치면, 경제면 및 생활면에서 필요했기때문이였다.

정치, 경제면에 있어서는 영어도 능숙해서(백락일은 그렇게 인정했다.) 미국사람들과 능히 교제할수 있고 또 공산주의정치를 잘 알고있으면서도(백락일은 또 그렇게 판단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 바로 조석우가 필요했다. 여직껏 《량심》을 생각하다가 궁한 생활을 하던 과거를 청산하려는 조석우와 같은 인물을 끌라잡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생활면에 있어서는 리화자의 문제였다. 백락일은 집안재정의 지출을 3분의 1쯤 줄이는 측면과 아울러 조금도 새로운 맛이 없는 리화자를 처치하려 하던중 조석우에게 큰 인심을 쓰는척 하고 슬그머니 그 녀자를 그에게 내맡기였다. 능청맞은 조석우는 내심 흡족하면서도 백락일의 귀찮은 존재를 감당해주는체 하고 물려받았다. 그런 꿍꿍이속들은 화자자신도 모르는바 아니였으나 그 녀자는 늙은 친일파보다 젊은

친미파가 좋았다.

첫 사업으로 백락일과 조석우는 미군정청 상업부 고문인 차코브슨을 통하여 대양양품점건물을 접수하는 사업에 성공했으며 다음으로는 그보다 몇십갑절 중요한 사업을 진행했다.

즉 백락일이가 중역으로 있는 동광방직의 일본인소유주권을 차코브슨이 넘겨받은것을 계기로 차코브슨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동광방직공장에 단단히 둥지를 틀고 들어앉는 사업이였다. 표면상의 관리인은 차코브슨이였으나 사실은 백락일이가 공장을 좌지우지할수 있게 꾸며놓았다. 그 공장의 사무를 말아보는 지배인으로는 해방전부터 백락일의 충복이며 해방후 모시두루마기를 입고 초라니(봉건사회에서 궁중에서 악귀를 쫓는다고 하는 미신적의식을 할 때의 인물)처럼 백락일을 따라다니던 김동호를 임명했다.

차코브슨은 쌘프랜씨스코 차코브슨주식회사의 사장이였다. 그는 일본의 생사와 견직물을 수입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나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하자 처녀지처럼 생각되는 남조선에다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아무 사업도 안하는것처럼 생각되여 자진하여 고문의 자격으로 태평양을 건너온것이였다. 마침 그의 동생이 남조선강점 미24군단의 총참모대리를 하고있었고 쌘프랜씨스코에서 절친하게 지내던 모리스가 군정청 경무부에서 일을 하고있는것이 그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지어주었던것이다.

차코브슨의 권한을 알게 된 백락일과 조석우는 마치 5만톤급의 큰 배에 올라타고 진수를 하는것같이 든든한 마음이였다. 조석우는 서너달동안에 자기가 잊어버렸던 영어를 다 회복했을뿐아니라 혀바닥이 미국식발음으로 돌아가는것을 깨닫고 자기의 어학재주가 비범한것을 자신있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자기의 외교수완도 단지 신문사 사회부 기자로서는 아까왔다는 느낌을 새삼스레 갖게 되였다. 백락일은 그에게 필요한대로 동광방직의 지출예산속에서 비용을 꺼내쓰도록 승낙했다.

방대한 재산과 천수백명의 사무원들과 로동자들이 자기밑에서 《굽실거리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된것을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한 김동호는 조석우의 지시를 백락일의 그것과 같이 엄격히 지켰다.

차코브슨은 서울로 들어오자 우선 금화장에 있는 그전 일본인의 집(어느 은행 우두머리의 집이였다.)을 접수하여 자기 취미에 맞도록 보수하고 료리사를 채용했다.

조석우의 견해에 의하면 그 미국인은 상업가일뿐아니라 박식가였다. 그는 유럽 각국은 물론 동양나라들의 현재뿐아니라 그 력사까지 잘 알고있다고 생각했다. 또 그는 연극, 음악 특히는 문학, 철학에도 조예가 깊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조석우가 그에게 자기도 적지 않은 지식을 소유하고있다는것을 자랑할 작정으로 《당신은 아프턴 씽클레어나 잭크 런던 같은 작가들의 파괴적사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차코브슨은 구멍새가 큼직큼직해서 말상 흡사한 그 얼굴에 잠시 무표정하더니 어깨를 한번 으쓱 들어보였다.

《그 사람들 사상 파괴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야만과 문명을 거꾸로 생각했을뿐이지요.》

사실 씽클레어고 런던이고 이름만 기억했지 그들의 작품 한편 읽어보지 못했던 조석우는 고개만 끄덕일수밖에 없었다.

《들어보시오, 미스터 조!》

차코브슨은 말을 계속했다.

《그건 미국사람이 다 아는 일입니다. 나와 나의 박식한 친구들은 자유와 인간을 알뿐아니라 문명을 리해합니다. 히틀러는 아리아민족이 가장 문명했다고 했고 아리아민족으로 전세계의 패권을 쥐려고 했습니다. 문명과 비문명을 꺼꾸로 본 점에 있어서 히틀러나 런던이나 다 같지요. 우리의 의견은 다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합중국사람들 아리아민족을 문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명했던 때가 있지요. 그러나 포이엘바흐가 나와서부터 도이칠란드는 뒤떨어져갔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차코브슨은 손가락으로 양탄자가 덮인 책상을 가

볍게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지금 우리 나라에 굉장한 사상이 대두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상계에서의 원자력의 발견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책 한권 기증하지요.》

그는 책장 유리문을 열고 두툼한 흑색표지의 책을 한권 끄집어냈다.

조석우는 두손으로 받았다.

《고맙습니다.》

《읽어보시오. 고도의 문명에 대한 리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도한 문명은 히틀러처럼 침략하고 략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만과 미개인들이 스스로 굴복하고 모든것을 스스로 제공하게 할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술책도 필요없고 히틀러처럼 야비한 선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명인답게 사업할것입니다.》

조석우는 서뿔리 한마디 꺼냈다가 그만 어리둥절해져버렸다.

차코브슨은 까만 표에 금글자가 박히고 붉은 끈으로 장식한 미국산 위스키가 아니면 마시지 않았다.

그는 호탕하게 마시였고 꺼리낌없이 잘 놀았다. 그는 이따금씩 조석우에게 《어째서 조선녀성들 모두 그렇게 미개하오? 뒤떨어졌소!》라고 말했고 어떤 때는 《고상하게 놀데가 없으니 서울은 참 답답한 곳이요.》라고 했다.

이러저러해서 조석우는 김애라가 필요했다. 미국인들과 교제하려면 때가 벗은 녀자가 필요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왕 물려받은 리화자를 내굴릴 마음은 없었다. 애라가 김재인과 보통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그닥 가까이 지내던 사이도 아닌 그의 생각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

애라를 꼬여내기는 힘드는 일이 아니였다. 화자가 다리를 놓을수도 있고 또 직접 자기가 찾아가 아주 은근하게 돈뭉치나 고가의 미국사치품으로 그 녀자의 허벅다리를 가볍게 두드릴수도 있었다. 애라가 바라는 신바람이 나고 감각적인 춤이라든지 방탕하고 분방한 생활은 바

로 조석우가 사는 주변에 얼마든지 전개되고있는 판이였다.

조석우의 소개로 차코브슨과 함께 수차 식사를 해본 김애라는 그 미국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사람들이 늘 말하는것 같은 그런 오만하고 야욕적이며 안하무인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누구에게나 인사가 분명했으며 더우기 녀성에게는 함부로 손을 대거나 야유하거나 하지 않았다. 애라는 미국영화보다도 영국영화를 좋아했지만 게리 꾸빠라는 미국배우에게는 홀딱 반했었다. 그런데 차코브슨의 면모가 적지 않게 그 남자배우 같은데는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세번째로 차코브슨을 그의 집에서 만나던 저녁 함께 술을 마시다가 조석우는 전화를 걸러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애라는 변소로 갔었다. 애라는 변소에서 화장을 고쳐하고 나와 무심코 식당에 친 초록창가림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 차코브슨과 리화자가 둘이 서로 포옹하는 그림자였다. 애라는 가슴에서 불이 일어났다.

그날 밤 애라는 차코브슨의 집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김재인은 전부터 벼르기만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던 직업전환을 해버렸다. 신문사와 관계된 일을 그만두고 진고개에서 보석상을 하는 고태희라는 사람과 손을 잡았다. 그 사람은 벌써 10년전부터 만나기만 하면 재인에게 술대접을 하면서 신문사는 무엇하러 다니느냐고 지청구를 해왔다.

《나를 경멸할는진 몰라도 나처럼 지내시구료. 나쁜 일도 안하고 좋은 일도 안하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였다.) 그저 술이나 먹고 지내지.》

김재인은 첫째로는 그를 자본주나 무슨 지배인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대하듯 하면서 지낼수 있는게 좋았다. 둘째로는 그가 정치적으로 어느 편을 들지도 않고 또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는게 좋았다. 그래 애라에게서 발을 끊은 재인은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고 (만약 리기준 같은 친구와 의논을 했다가는 또 욕을 먹을게 뻔했으니까) 신문사관계

를 끊어버렸다.

(나도 가슴 한귀퉁이에나마 량심이 있거늘 어찌 자네들을 배반까지 할것이랴. 필요할 때에 자네들에게 돈이라도 댈수 있도록 하겠다.)

그는 이같이 생각하며 자위를 했다. 이렇게 장사치속에 끼여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15

허봉례가 전평신문으로 가게 되였다는 말을 한 이튿날이였다. 안철과 함께 점심을 하고 돌아온 기준은 무심코 변승룡과 봉례 둘이만 있는데 불쑥 들어갔다.

두사람은 한쪽구석에 서있었는데 기준이 들어서자 승룡이 의자에 앉았다. 기준은 두사람 다 태연한 표정을 하려는것처럼 애쓰고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례의 얼굴은 확실히 붉어졌었다고 생각했다. 허나 그렇게 생각했을뿐 기준은 그들에 대하여 더 다른 억측을 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변승룡은 언제인가 광화문동을 거닐면서 봉례에게 하던 어려운 질문의 답변을 받아보려고 했다. 봉례는 가벼이 야유조로밖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변승룡은 봉례가 래일부터 연구회에 나오지 않을것이며 따라서 좋은 기회가 없어지리라 생각하여 털어놓고 자기의 심정을 호소했다. 그 호소를 듣던 봉례는 자리를 뜨려 했다. 자리를 뜨려는 봉례를 변승룡은 막아섰는데 그때 기준이 들어왔던것이다.

그날 저녁때 기준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었다. 그는 외투깃을 올리고 두손을 외투주머니에 찌른채 창앞에 서서 잠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황혼이 깃들었다. 마주 바라보이는 저축은행이랑 다른 건물들의 이마를 붉게 물들이던 마지막 노을빛도 스러지자 가로등들이 부엉이눈들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밑으로 시민들이 급한 발걸음들을 옮기고 있었다.

그렇게 밖을 내다보고있을 때 라지오상회 나무층계를 요란스럽게 울리면서 두어시간전에 나갔던 변승룡이가 올라왔다.

잔뜩 취해서 《치, 친구를 만나서 하, 한잔 했네.》라고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고 벌떡 의자에 주저앉았다.

《잘했군.》

《미안하이.》

《미안할거 있나…》

기준이 요즈음은 무엇을 공부하느냐고 물었으나 별로 공부하는게 없다 했고 언제 고향에 또 가보겠는가고 물어도 그저 간단히 갈 마음이 없노라 했다.

《기준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변승룡은 말을 꺼냈다.

《난 이제부터 공부를 하려 하네. 정말 한바탕 해보려 한단 말일세.》

《자네야 학자가 아닌가?》

《학자? 그렇지, 학자인것은 틀림없네. 이것저것 아니까.》

《승룡이, 내 어떤 심리학서적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일이 있네. 즉 백과전서적인 박학은 거의 전면적무지를 겸할수 있는것이다라는 말이였네.》

그러자 변승룡은 쓴웃음을 지으며 알만 하다고 했다. 그는 아까부터 성냥을 대여섯가치나 허비했으나 끝내 담배에 불을 못 붙였다. 그는 량손에 담배와 성냥을 든채로 말했다.

《나는 사랑도 없네. 가정의 취미도 없지. 있는건 손바닥만 한 고향의 땅덩이인데 그것도 포기하다싶이 했네. 기준이, 내 나쁜 놈은 아닐세. 그걸 알아주게나, 응?》

《취했나보군. 누가 나쁜 사람이랬나?》

《그러니 말일세. 무얼 해야겠나? 나는 정말 미군정을 눈으로 볼수 없네. 미군정이 남조선에 실시되는 한 아무것도 할 의사가 없네. 나는 쏘미공동위원회를 믿고싶지 않네. 쏘련을 믿지 않는게 아니라 미국을 믿지 않기때문일세.》

기준은 변승룡의 표정을 살핀 후 타이르다싶이 했다.

《공동위원회가 성공하도록 우리자신들도 노력해야 하네. 공동위원회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모든 력량을 바쳐야 하네. 정말 마지막까지 그 성공을 위해서 싸워야 하네. 승룡이, 명심해들어주게.》

《허지만 나는 공부를 계속하겠네.》

《공부야 계속해야지.》

《정말 공부나 하겠어!》

기준은 입을 다물었다. 변승룡은 또 성냥을 그었다. 겨우 담배에 불을 붙인 그는 별안간 《그래, 자네는 투쟁을 할 작정인가?》 하고 물었다.

《글쎄, 투쟁을 하자고 생각만 해서 되겠나? 사는 한, 살기 위해서 싸워야만 할게 아닌가. 그뿐일세.》

기준은 코등으로 흘러내린 안경을 추켜올리면서 변승룡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변승룡은 얼굴을 들지 않고 한동안 마루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자네는 아마 나를 어쩔수 없는 소부르죠아지라고 할는지 모르네. 허기야 소부르죠아지인것을 속일수야 있나…》

잠시 입속으로 무슨 말인지 웅얼거리더니 변승룡은 어성을 높였다.

《도피행위라고 해도 좋소. 좋-소! 나, 나는 공부를 계속하겠소!》 하더니 서너모금 피우던 담배를 발밑에다 던지고 신바닥으로 쓱쓱 비볐다.

하더니 별안간 흐느껴울기 시작하는것이였다.

그날 밤 기준은 간신히 변승룡을 끌어내여 택시에 태워 그의 집으로 바래다준 다음 금화산고개를 되넘어섰다.

이제 더 무엇을 기다리랴. 물론 연구회 동인들은 다 좋은 친구들이였다. 그러나 야수들이 지배하는 사회제도에서는 친구들이 서로 언제까지나 무조건 좋을수는 없었다.

변승룡은 공부를 계속하겠노라고 했다. 물론 그것은 이 소란한 사회에서 혼자 들어앉아 너누룩한 마음으로 책이나 읽겠다는 뜻을 표명하려 한것은 아닌상싶었다. 그보다도 그의 의도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어느 일정한 조직과 규률에 참가해서 일하기를 거부함을 의미하는게 틀림없었다.

그 이튿날 오후 기준은 안국동 네거리에서 변승룡을 만났다. 그는 전날 저녁 취해서 하던 이야기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것 같았다.

그들은 고서점을 두어군데 더 들렸는데 변승룡이 자기 고향 학생을 찾아볼 일이 있으니 함께 학병동맹회관에 잠간 들렸다가 함께 종로로 나가자고 하였다. 기준은 그를 따라갔다.

두사람이 막 학병동맹회관근처에 다달았을 때였다. 회관에서 하도 소란한 소리가 일어나 급히 달려가던 두사람은 근처에 멈춰설수밖에 없었다.

모자끈을 풀어 턱에다 걸치고 카빈총들을 멘 무장경관들이 벌떼 달라붙듯이 회관을 둘러싸고있었기때문이였다. 4백~5백명이나 될듯 한 그 무도한것들은 2중, 3중으로 건물을 둘러싸고있었으며 벌써 수십명은 회관유리창을 바수기도 하고 회관안으로 들어가 떠들고 웨치고 하면서 청년들을 묶어서 끌어냈다.

잠시후였다. 돌연 십여명의 청년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밀려나오더니 경찰의 울타리를 허물기 위하여 법석을 쳤다. 허나 그들은 이내 놈들에게 포위되고말았다. 포위당한 그들은 몽둥이로, 카빈총탁으로 구타당했고 그에 반항하느라고 법석이였다.

다시 십여명의 다른 청년들이 또 밖으로 뛰여나왔다. 그중의 한 청년이 목청을 돋구어 웨쳤다.

《우리를 체포하는 리유를 대라!》

그러자 다른 청년이 《남의 회관을 함부루 습격하는자가 누구냐? 물러가라!》 하고 웨치며 경찰에게 대들었다. 먼저 경찰에게 포위되여 뭇매를 맞던 한 청년이 몽둥이 하나를 빼앗아들고 포위망을 벗어났다.

《어디 함부루 사람을 죽여봐라!》

《물러가라!》

이렇게 웨치며 그들은 경찰들과 맞섰다. 위험한 순간이였다.

그때 기준의 옆에 서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있던 변승룡이 중얼댔다.

《저… 대들면 손해야. 손해야.》

그때 돌연 총성이 나기 시작했다. 무지무도한 경찰들은 무고한 청년들의 가슴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긴것이다. 변승룡은 처마밑으로 들어섰다.

《어디 함부루 쏴봐라!》

청년들이 웨쳤다. 몽둥이를 빼앗고 포위망에서 벗어났던 학생이 가슴을 맞았다. 그는 쓰러졌다가 재빨리 일어났다. 그리고는 입술을 깨물고 총부리를 겨누는 야수앞으로 걸어갔다.

《저것… 대들면 손해야.》

변승룡이 거듭 중얼댔다.

야수들앞으로 걸어가던 청년은 또 총탄을 맞았다. 그는 쓰러졌다. 청년들의 아우성소리가 더 높았다. 그럴수록 총성이 몹시 세게 들렸다. …

총성이 멎었을 때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바줄에 묶였을 때였으며 몇사람은 피를 흘리고 쓰러졌을 때였다. 손에 땀을 쥐고 보고 서있던 시민들은 경찰들이 아무리 쫓아도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릴뿐이였다. 허나 변승룡은 그만 가자고 채근하고있었다.

이제 더 무엇을 기다리랴!

기준은 다섯달가까이 함께 일을 해오던 박문선과 헤여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문선은 새해에 들어서서도 평양에 있는 동무에게서 편지를 받아 북의 소식을 들었고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당중앙)의 소식들도 비교적 자세히 들을수 있었다. 그 소식들을 문선은 기준에게도 전달했다. 문선은 또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광범히 련합해야 한다는 당중앙의 로선에 배치되게 남조선의 통일전선에 《한민당》, 리승만까지 망라하려는 당원의 탈을 쓴 불순분자들의 그릇된 태도들에 대한 비판론문도 두차례나 써서 신문에 발표했었다.

기준은 박문선을 믿었으며 그에게서 많은것을 배웠고 그와 함께 감격과 즐거움, 울분과 괴로움을 나누면서 지냈다. 지난 다섯달은 그들의 청춘시절의 귀중한 가운데토막의 또 가운데토막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그동안에 그들은 함께 많은 경험을 했으며 많은것을 생각했다. 그러므로 간도에서 같이 지내던 1년보다 몇갑절의 세월이 그동안에 흐른것 같았다.

이제 박문선은 돌연 북으로 가게 되였다. 어떠한 경위로 그가 북으로 가게 되였는지는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피했고 비밀인것을 눈치채자 기준은 더 캐묻지도 않았다.

다만 그가 북으로 가게 되였다는 사실은 기준으로 하여금 자기의 앞길을 다시한번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갖게 하였다.

무한한 감격과 희망으로 해방을 맞이하였던 그는 무엇보다도 건실한 일군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렇게 노력한것이 사실이였지만 일단 지난 몇달을 총화해보지 않을수 없었을 때 그는 아직도 비오는 밤 서수라에서 배를 타고 쏘련근해로 들어가는것을 공상하고있는 그 정도의 소극적인 자기를 발견했던것이다. 동시에 그는 이이상 그러한 공상의 세계에서 헤매일수 없이 된것을 알았다.

《어디서나 매일반일세.》

떠나는 날 문선이 기준에게 말했다.

《이젠 쉬이 자네에게도 입당통지가 올것이니 우리 진실한 사회주의자가 되세. 그간 연구회 동인들과 만나지 못했는데 연구회를 어떻

게 하겠나?》

《자네도 없으니 이제는 해산해버릴수밖에 없네. 이제는 제 갈길들을 다들 선택했나보이. 며칠전 김재인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그는 보석상이 되였네. 그럴수 있는 친구였네. 허봉례가 전평신문으로 간것은 잘됐네. 자기 당숙밑에서 많은것을 배우고 단련될테지. 변승룡으로 말하면 바루 어제 그와 함께 학병동맹사건을 목격했는데 참 나약한 사람이네. 이내 제 갈길로 갈걸세. 해산해버릴수밖에 없지. 나는 이이상 어정쩡한 친구들과 극좌에서 극우로 다시 그 반대로 시계추처럼 흔들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여있을수 없다는걸 느꼈네.》

듣고있던 문선이 대답했다.

《나는 누구보다도 자네를 믿었고 앞으로도 믿네. 아직 입당이 되지는 않았으나 곧 통지가 있을걸세. 대담하게 보람있는 일에 달라붙길 바라네. 전평으로 가게. 서루 경쟁하세. 그리고 소식을 자주 교환하세.》

두사람은 서울역으로 나갔다. 문선은 잠간 고향에라도 다니러 가는 사람처럼 서류가방 하나만을 들고 나갔다. 그날 밤으로 넘어가게 될거라 했다. 두사람은 심상히 헤여졌다.

《좀더 건강해져야겠네.》

문선이 말했다.

《부디 일 많이 하게. 올라타게.》

문선이 사람들틈에 끼여서 차칸으로 들어가자 기준은 돌아섰다. 돌아서서 두어발자국 떼여놓았을 때 그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걸을수가 없었다. 그는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을 씻었는데 눈물을 닦으면서 헉헉 하는 자기의 흐느낌을 들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흐느끼게 하는가?) 하고 생각했다.

절친한 동지와 헤여진 까닭일가? 문선이 북으로 간다는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며 민주건설의 투사가 되는 영예로운 일이다. 그러면 모처럼 시작했던 연구회를 해산하게 된게 애석해서인가?

물론 그것도 아니였다. 기준은 벌써 달포전부터 연구회의 사명은 끝

났다고 생각해온터였다.

그도 저도 아니면? 그렇다! 미제국주의가 남조선에 타고앉은 잡도리가 만만치 않았다. 무서운 학대와 탄압이 예상되며 이미 시작되였다. 기준은 북위 38도선이 앞으로 몇해안으로는 철페되지 않을것을 직감했다. 그 벅찬 세월이 빚어낼 숱한 비극들, 눈물과 피의 흐름… 이것이 그의 머리속에 직감적으로 떠올랐기때문이다.

허나 그 벅찬 세월이 빚어낼 비극들이 두려운것은 아니였다. 아무리 다급한 경우라도 그는 그 어려운 고비가 사라지고야말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오고야말 더 어려운 고비가 속히 닥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였다. 그 눈물은 끝까지 싸울 각오와 결심을 다지는 흥분에서 우러나오는것이기도 했다.

16

리기준과 허봉례가 거의 날을 같이하여 한사람은 섬유산별로, 한사람은 전평신문으로 가게 되였는데 그것은 조금도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키가 작고 량미간이 넓은 안철은 어쩐지 기준에게 지식인냄새가 풍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키웠으나 차차 사귀는 동안 어느 틈에인지 그를 무던한 친구로 여기게 되였다.

그는 로동자들에게 소책자를 나누어주고 삐라를 분배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설명해주었다.

그는 리기준이가 수차에 걸쳐서 삐라와 격문원고를 써준데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몰라하는듯 했다. 년초에 기준이 며칠 누워서 앓은 일이 있었을 때도 그는 어떤 로동자를 시켜서 닭알 두 꾸레미와 편지 한장을 전해왔었다. 편지에는 큼직큼직한 글자로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투를 위하여— 안철》이라는 문구가 씌여져있었다.

안철은 기준이나 박문선 같은 사람들을 매우 존경했다. 그가 특히 기준에게 호감을 갖게 된것은 한 원고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의견을 말하면 매양 그것을 군소리없이 오히려 무안해하면서 접수하는 그의 태도였다.

《저… 이처럼 작은 범위에서 일하실분이 아닌줄 압니다.》

안철이 말했다.

《장차 큰 자리에 앉게 되실걸 압니다. 허지만 그동안만이라도 우리 일을 돌봐주셨으면 하는데…》

《천만에요. 저는 사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을 한다면 그건 도와드리느니보다 배우는것이겠지요.》

두사람은 수차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다.

박문선이 북행렬차를 탄 며칠후 안철은 기준의 집으로 찾아와서 또 그러한 이야기를 꺼냈다.

《얼마동안이 아니라 아주 옮겨가서 일을 도와드리고싶습니다. 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주면 가겠습니다.》

그날 기준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결정했던것이다. …

그날 저녁 허봉례가 기준의 집으로 왔었다. 순희의 안내로 방에 들어오자마자 봉례는 《리선생님, 섬유산별로 오신다지요?》 하고 웨치다싶이 물었다.

《누가 그러던가요?》

《벌써 다 알아요. 잘됐어요. 정말 반가와요!》

《아직 미정이니 남에게 말하지 마십쇼.》

《왜 미정이세요?》

그러고는 기준을 쳐다보았다.

얼었다 녹아서인지 봉례의 두볼은 사과처럼 빨개졌고 까만 눈동자는 불빛에 비쳐 윤이 흐르면서 빛났다.

(순진하고 고운 녀성이다. 변승룡이가 애타하는 까닭도 알만 하다.)

기준은 생각했다.

《미정이니까 미정이지요.》

그는 대답했다.

더 캐물을수가 없는듯 허봉례는 검정치마로 싸서 일으켜세운 두 무릎우에다 두손을 얹고 그우에다 턱을 고인채 잠시 화로불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야들야들한 까만 머리카락 몇오라기가 흰 이마로 흘러내려있었다.

두사람이 잠시 묵묵히 앉아있을 때 아이를 재우고 밖으로 나갔던 순희가 과일접시와 과일칼을 들고 들어왔다.

찬바람과 함께 언제나 그런것처럼 확— 석탄산수냄새(기준은 늘 그것을 병원냄새라고 하였다.)를 풍기며 들어온 순희는 《맛이 없는거지만 좀 깎으세요.》 하고 우선 사과를 깎아 접시에다 담았다. 그리고는 거듭 권했다.

《아이, 왜 이런걸 사오세요? 저녁을 잔뜩 먹고 왔는데…》

《이게 뭐 배부른거예요?》

《아이들이나 주시지.》

《아까 사주었답니다.》

순희는 항상 허봉례를 지식이 있고 령리하며 아름다운 녀성이라고 극구 칭찬을 했다. 뿐만아니라 언제나 봉례를 만나면 반가와했고 정답게 굴었다.

기준은 봉례를 그렇게 대하는 순희의 속마음을 뻔히 알고있었다. 그리고 또 그는 세상일은 신파연극과는 다르다는것도 알고있었다.

리기준이 섬유로조에 나간지도 벌써 달포가 지났다. 그는 각 공장들의 실정을 료해하면서 안철과 함께 그때그때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삐라와 교양자료로 쓰이는 소책자들의 원고를 쓰기도 했다. 그런 일을 하는 한편 언제부터 착수한채로 도무지 진척되지 않는 《레닌주의의 제 문제》의 번역을 완성하려 했다. 허나 그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급한 일같이 생각되던 일이 점차 뒤로 밀려가버렸다.

로동자들은 조업이 끝난 후에야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왔다.
또 기준은 거의 하루건너 직접 공장으로 나가지 않을수 없었다. 분회책임자들과 선전일군들은 자기네가 열번 이야기하느니보다 중앙에서 한번 나와주는게 몇곱절 성과가 있노라 하면서 자주 나와주기를 바랬다. 일단 나가면 심지어 성인교육반으로 가서 《가갸거겨》를 배워주는 일까지 있었다. 그것도 보람있는 사업인것을 기준은 알았다.

조직적훈련을 받지 못한 수십개소의 섬유공장 로동자(섬유산별뿐이 아니였지만)들은 해방전 일본인 또는 토착부르죠아지들에게 흠뻑 착취를 당하던 일을 가슴깊이들 생각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니만치 그들은 한시바삐 단결하려고 하며 조직에 대한 기대와 열성이 소박하게 표현되군 했다. 바로 거기에 기준이가 오래전부터 들어가려던 생기있고 광활한 세계가 있었다.

기준은 하루하루가 의의깊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술을 놓기가 바쁘게 녹아떨어지군 했으나 날이 밝으면 또 그 어수선한 사무실로 향했다.

기준의 어머니 박씨는 기회있는대로 그에게 몸을 돌보라고 성화를 했다.

《글쎄 남처럼 든든한 몸이라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 얘야!》

이렇게 타이르기도 했고 《난 모르겠다. 한두살도 아닌걸!》 하며 화도 냈다.

기준은 한귀로는 듣고 한귀로는 흘릴수밖에 없었다. 한평생 한시도 시름잊고 살아보지 못한 어머니에게 다만 위안의 말이라도 해야 할것이였다. 허나 기준은 차라리 묵묵히 대하는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이였다. 기준이 아직 자리에 누워있는데 퇴마루앞에서 손질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희가 어머니에게 들으라는듯이 《이 구두 봐, 어쩌면 이렇게 되도록 그냥 신고 다니셨어요?》 하고 중얼댔다. 사실 그의 구두는 바닥이 나서 꾸역꾸역 흙이 새들어오는 형편이

였다. 기준은 수일후면 약간의 원고료가 들어올것이여서 그때는 우선 신발부터 해결하려던차였다. 그런데 그만 가족들에게 들키고말았다.

아침식사를 끝내고 와이샤쯔바람으로 담배를 피우고있는데 병원에 나갈 차비를 한 순희가 들어와 정면으로 구두이야기를 꺼냈다.

《념려말아.》

기준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며칠만 기다리세요, 미안해요.》

순희는 좀 무안해져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늬가 미안하다구? 나더러 미안하지 않느냐는 말로 들리는구나.》

《아이 오빠두, 안예요. 그런 의미가 안예요. 오빠!》

순희가 이렇게 사과하듯이 말할 때 허봉례가 오래간만에 그들의 집으로 찾아왔다. 좀 침울하던 분위기도 아침단장을 하고 나선 두 젊은 녀성들의 인사와 웃음소리로 말미암아 구름 사라지듯 했다. 털뜨개덧저고리에 받쳐입은 봉례의 연분홍색저고리가 어쩐지 봄빛으로 보였다. 하기야 3월이 래일모레이기도 했지만…

허봉례는 급히 기준에게 전할 소식이 있어서 일부러 그에게로 들린것이였다.

이틀전 전평신문에는 기준이 김호라는 닉명으로 동광방직공장의 로동자들을 학대하는 관리측 특히 백락일일파의 비행을 폭로한 긴 기사를 게재했었다.

그 기사가운데서 《미국인 차코브슨씨와 백락일씨사이에 다리를 놓고있는 전 신문기자 조 아무개》가 어떠어떻게 롱간을 부린다고 한 대목이 더군다나 놈들의 비위에 거슬려서 경찰의 힘을 빌게까지 된것이였다. 그래 편집부장 허인기가 그날로 경찰에 불려가 하루밤을 시달리다가 어제저녁에 나왔다.

크게 봉변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그를 위협공갈하면서 그 필자가 누구인가를 바로 대라고 문초를 했는데 허인기는 공장로동자의 투고이며 신문사측이 조사한 실정과 어긋나지 않는 이상 그같은 글을

게재할 자유가 있다고 끝까지 버티였다고 한다. 그래 나오기는 했으나 놈들은 기자나 섬유로조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쓰지 못할것을 알고있으며 쓴 사람이 적발될 때는 신문사도 뒤가 좋지 않다고 거듭 위협을 하더라는것이였다.

이같은 소식을 전하고서 봉례는 기준에게 물었다.

《오늘도 나가시지요?》

《나가지 않구요.》

《주의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공장에는 나가지 마셔요.》

그러자 순희가 바투 대들었다.

《오빠, 오늘은 제발 집에서 나가지 마세요. 네ー 그러구, 이렇게 말하면 저의 무식을 폭로하는것 같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좀 헐한 일을 하시는게 좋겠어요.》

《과연 무식하다. 허동무가 속으로 웃겠다, 웃어ー》

《웃긴 무얼 웃어요. 누이동생의 마음으로는 그렇게도 생각들지요.》

이같이 봉례가 두둔하자 순희는 더욱 기가 나서 열심히 말했다.

《로동계급을 위해서 일하시는것쯤 저도 알고있습니다. 또 그 일이 얼마나 훌륭한 사업인가도 짐작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도 살아야지요. 우선 자기가 살고…》

기준은 순희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는 피우던 담배를 거의 신경질적으로 눌러 끄더니 타이르는 어조로 말했다.

《얘, 나는 자선가도 아니고 로동계급을 동정해서 하는노릇도 아니다. 애당초 로동계급은 나 같은 소시민의 동정을 바라지도 않는다. 나도 살아야 하기때문에 하는 일이다. 나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저 하는 그것뿐이다. 살기 위해서 지식을 생선장사처럼 저며서 파는 사람도 많다.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숱한 사람들, 변승룡이도 그런 사람이다. 또 살기 위해서 량심도 체면도 버리고 장사치가 된 사람도 있다. 김재인이… 너도 알겠구나. 김재인이는 그렇게 해서 보석장사를 시작했다. 어떤 유한마담은 공공연하게 정조를 팔아 살더라.》

단숨에 이렇게 주어섬긴 리기준은 주머니에서 담배 한대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않고 담배를 든채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허나 우리는 그 어느 방법도 취할수 없으며 취해서는 안된다는걸 알아야 한다.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더 많으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종당에는 잘살게 되리라는것을 믿기때문이다.》

순희는 자기 오라버니가 일찌기 집안에서 이렇게 기승이 나서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 다만 고개를 숙이고 듣고만 있었다. 봉례도 무어라 대꾸를 할나위가 없어서 단지 그가 하는 말을 신중히 듣고만 있었다.

《그 길은 물론 험하다. 그러나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하며 그 길만이 사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 길만이!》

기준은 담배에 불을 그어대고 흘러내린 안경을 치켜올렸다. 그는 더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묵묵히 담배를 반대쯤 피운 다음 허봉례에게 함께 나가자고 하면서 주섬주섬 양복저고리와 외투를 입었다. 마루로 나와 구두를 신다보니 어느 틈에인지 꿰여진 구두바닥에는 곱게 오린 단단한 마분지쪼각이 깔려있었다.

기준은 아무 말 안하고 그냥 신었다. 발은 편했으나 코허리가 시큰하고 가슴이 저렸다.

《안녕히들 다녀오세요.》

문밖을 나서자 순희는 짐짓 명랑한 음성으로 두사람에게 갸웃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

날은 어두웠고 진눈까비가 내렸다. 회관에서 나온 기준은 바지가랭이를 걷고 외투깃을 치켜세웠다. 그래도 현관밖으로 나설수가 없었다. 진눈까비는 모진 바람에 휩싸여 삼태기로 퍼붓듯이 쏴 ー 쏴 ー 소

리를 내며 쏟아지군 하였다. 길거리의 간판들이 떨어지고 가마니짝들이 날렸다. 나무가지들이 허리를 펴지 못했다.

《야!》

《굉장하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웨치며 어둠속으로들 달려갔다.

잠시 형편을 살피던 기준은 좀처럼 멎을것 같지 않아 그대로 전차정거장으로 뛰여갔다. 그러나 전차도 바람이 휘몰아들이는 진눈까비속을 헤쳐나갈수 없었다. 세대, 네대 줄지어서서 눈에 묻혀갔다. 한자앞을 분간할수 없으니 전차들도 앉은뱅이가 될수밖에 없었다.

기준은 다시 길가로 내달음질쳤다.

그는 시계를 꺼내보았다. 저녁 6시 20분이였다. 순조롭게 걸어간다 해도 동광방직까지는 시간반이나 걸릴 거리였으니 날씨가 이런 조건에서는 두시간에도 가닿을것 같지 않았다. 회의는 일곱시부터 열리게 되여있었다.

방금 넣었던 시계를 다시 꺼내보았다. 30분전이였다.

로동자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종업원대회를 앞두고 오늘 분회확대위원회를 그 공장근처에서 소집하게 되였다. 기준은 그 회의에 참석하여 산별 중앙의 지시를 전달해야 하며 토의에 참가해야 했다.

전차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것은 절망적인 일이다. 달려갈수밖에 없었다. 달려간다 해도 한시간은 늦을것이였으나 그래도 가야 했다. 저녁도 안 먹은 로동자들이 기다릴것이 아닌가. … 두덜두덜하며 헤여져가게 해서는 안된다!

모자를 푹 눌러쓴 기준은 할수없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바람은 여전히 진눈까비를 휘몰아다가 길바닥이고 건물이고 사람이고 할것없이 들이뿌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채 푹푹 빠져가며 걸었다. 십분도 채 걷지 않았으나 모자채양에서는 락수가 떨어졌고 외투는 천근이나 되는듯 무거웠다. 바지가랭이가 휘감겨서 더는 빨리 걸을수도 없었다.

(제기랄, 그만둘가부다.)

그는 잠시 유령같은 형태가 되여 거리 한복판에 멈춰섰다. 다시 돌아서려던 그는 생각되는게 있어서 그대로 섰다가 내친 걸음을 내디디였다.

(아니다. 가야 한다!)

그는 바로 오늘 아침에 수여받은 당원증을 소중히 싸서 품에다 지니고있었다. 기준은 그것을 생각하고 겉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

당원이 된 첫날의 과업이 아니냐, 당원이라는게 무엇이냐? 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칠수 있는 사람이 당원이 아니냐! 어떠한 곤난도, 어떠한 애로도 이겨내고 임무를 수행해나가는 사람이 당원이 아니냐! 그런데 당원이 된 바로 그날 진눈까비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아니다!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일이 아니냐, 어서 걸어라! 앞을 헤치고 나가자!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바람과 진눈까비속을 헤쳐나갔다. 안경을 벗어넣고 더욱 고개를 숙이고 걸어나갔다. 진눈까비가 눈보라로 변하면서 빰이 아프도록 얼어들었고 모자채양과 외투소매에 고드름이 달리기 시작했다. 허옇게 언 바지가랭이가 와삭와삭 소리를 냈다.

눈보라가 왜 이렇게 들이치기만 할가? 등뒤에서부터 밀어주었으면 저으기 가기가 낫겠는데… 어째 자꾸 외투자락을 헤치고 거세게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가? … 그렇다.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간이 걷는 길이다! 인간이 걷는 길은 순풍이 등을 미는듯이 그렇게 편하지 않다. 이 편하지 않은 길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누가 이 길을 극복해나갈수 있는가?

기준은 계속 생각했다.

(실망하지 않는 사람, 래일을 건설하기 위한 꿈을 가진 사람, 격랑속에 휩쓸려 배가 찌그덕대는 소리를 내며 부서지려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용기가 북받치는 그러한 사람만이 극복해나갈수 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당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준은 전등불빛도 희미한 한강철교를 건느고있었다.

제 2 편

1

《판국이 좋아지지는 않고 점점 까다롭게 돼간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전면적으로 조선인의 재산을 인정해주지 않을것 같이 생각되는데 조형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는지? 그래도 또 순풍에 돛을 달았다고만 말씀하실 작정입니까?》

사회경제연구회가 있던 《대한민족당》 응접실에서 조석우와 마주앉은 백락일은 두손을 깍지끼여 책상우에다 올려놓고 근심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보십시오. 적산의 관리권과 운영권이 군정청의 부, 처장이나 미국인고문의 손에 넘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동양척식회사가 고스란히 신한공사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어물어물하다가는 동광방직도 어떤 운명에 떨어질는지, 아무래도 곧이곧대로 사업을 하려는 우리만 골탕을 먹을게 뻔합니다.》

안락의자에 벌떡 자빠져서 안경알을 번쩍거리며 담배연기를 내뿜고있던 조석우는 잠시 입가에 웃음을 머금더니 자신있게 입을 열었다.

《백선생! 그런걸 기우라고 합니다. 념려 안할것을 념려하는게 기우지요. 물론 <귀속재산>에 대한 8호법령이 나왔고 신한공사가 남조선의 방대한 토지를 전부 손아귀에 틀어넣습니다만 우리에게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국인들은 일본인이 가지고있던 재산만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주셔야 하겠습니다.》

《글쎄 그 정도로 국한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민족의 재산이 풍전의 등화같이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차코브슨은 늘 문명인은 침략하지도 략탈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함께 손을 잡자고 하잖습니까? 또 그렇게 하고있지 않습니까?》

《글쎄올시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동광방직공장의 관리권을 빼앗기는 날이면 우리는 거의 파산지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지요. 생각해보십시오. 대한민족당의 경비를 거의 내가 대고있습니다. 독촉의 경비도 일부 담당하지요. 그뿐입니까. 서북청년회에서 요구해오는 자금도 전혀 모르는체 할수가 없습니다. 다 모른다 해도 우리 두사람이 쓰는 비용만 해도 한달에 1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동광방직을 내놓게 되는 날이면 어찌 되겠습니까?》

백락일은 이같이 말하고 그 누런 뻐드렁이를 감추었다. 그는 정말 근심스러웠다. 그럴것이 해방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수입원천의 태반은 동광방직에서 나온것이다.

그러나 《8호법령》에 의하여 차코브슨이 부당하게도 그를 떼여버린다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백락일은 생각하고있다.) 그렇게 된다면 만사가 나무아미타불이 되고말것이였다.

《그럴리가 없습니다.》

조석우는 마치 자동차의 전조등처럼 그 두꺼운 안경으로 백락일을 비쳐보더니 말을 이었다.

《백선생, 그 점은 제가 책임지지요. 저에게 맡기십시오. 저는 벌써 차코브슨과 얘, 쟤 하고 지나는텁니다. 념려마십시오.》

한동안 듣고만 앉았던 백락일은 다시 뻐드렁이를 드러냈다.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나는 조형만 믿습니다.》

《믿는 나무에 곰이 핀단 말은 언제나 진리가 될수는 없습니다. 차코브슨이 지금 있겠나? …》 하더니 조석우는 담배를 재털이에 비벼끄고 전화기를 들었다.

이윽고 그는 사람들이 야유해서 말하던 소위 하와이사투리로 중얼댔다. 백락일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일본어로 직접 자기가 교

섭을 하던 시대보다 얼마나 불편해졌는가를 통감할뿐이였다.

《그래 무슨 묘안이 있을것 같습니까?》

전화를 끊고 자신있는 표정을 하는 조석우에게 백락일이 물었다.

《아주 이렇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관리권을 아주 송두리째 사는 방법을 취하면 안심되지 않습니까? 요지음 다들 하고있는데…》

《그럴수가 있나요? 그런 말을 꺼냈다가 도리여 화를 입으면… 하기야 그랬으면 제일이지요. 그렇구말구…》

백락일은 그러지 않아도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조석우를 급히 만나자고 했던것이다.

《념려하실게 없지요. 단도직입적으로 교섭해봅시다. 차쿄브슨이 그만한것 선선히 내놓지 않는다면 아예 상종을 맙시다요.》

차쿄브슨이 수일내로 3백만원 가까운 현금을 딸라로 환산하여 본국 본사로 보내야 할 일이 생긴것을 조석우는 잘 알고있었다. 차쿄브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매우 난처한듯 한 표정을 하다가 이틀만 여유를 주면 알선해볼 여지가 있노라 했던것이다.

《아니, 그렇게 막치기로 대들지 말고 은근하게 해야 합니다.》

사정을 모르는 백락일은 이래저래 념려했다.

《오늘 오후에 차쿄브슨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300만원만 내겠다고 하지요. 조선피혁이 백만원, 동양인쇄가 백만원, 대성방적이 백만원… 다 이런 시세 아닙니까. 아시는바와 같이 동광방직은 조선피혁이나 동양인쇄나 대성방적에 비하면 다섯배나 되는 큰 공장이 아닙니까. 300만원이면 거저 물려받는셈이지요.》

이렇게 말한 조석우는 주머니에서 금박담배케스를 꺼내 펄컥 눌러 열더니 권연 한대를 빼물고 성냥을 그었다.

긴장한 낯빛으로 아까처럼 두손을 깍지끼고 앉았던 백락일은 《그걸 누가 모릅니까, 글쎄! 300만원으로 말을 들을가가 문제이지… 그 빌어

먹을 전평신문에서 우리 내막을 들추어내지나 않았더면 또 모르겠는걸. 군정청에서 그렇게 단속하는데도 그 빨갱이들은 점점 더 기승스러우니 원, 참! 빨갱이들만 없어도 한시름 놓겠는데…》 하고 중얼거렸다.

이같이 노상 걱정이였다.

《차쿄브슨은 전평신문 같은건 모기소리만치도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신문에 대해서는 조석우와 이야길 마십쇼. 그까짓 3류, 4류 신문쯤 언제든지 단단히 혼을 내놔야지.》

조석우는 이같이 말하고 또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한동안 기다리더니 저쪽이 나왔다.

《애라씨요? 요새는 목소리가 더 고와졌군요, 허허허ー 다른게아니라 오늘 저녁 차쿄브슨을 명월관으로 끌어내야겠는데, 네? 거긴 복잡하다고요? 가끔 그런데도 데리고 나오시구료. 네, 네, 부탁합니다. 일곱시! 네, 네…》

전화를 끊은 조석우는 일어섰다. 백락일도 따라 일어났다.

《저녁대접을 단단히 하십시다. 내 그렇게 조선료리를 좋아하는 서양인은 처음 보았다니까.》

《좋은 사람이지요.》

백락일은 문밖까지 나왔다.

《그저 조형만 믿습니다.》

조석우가 나간지 얼마 되지 않아 김동호가 나타났다. 혼자 이 궁리저 궁리를 하던 백락일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귀찮아서 《거누구요?》 하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접니다. 김동호입니다.》

《들어오우.》

방긋이 문을 연 김동호는 고개를 숙여 공손히 인사를 하고 사뿐사뿐이 들어와 섰다. 그는 힐끔 백락일의 안색을 살피고 그의 건강을 물었다.

그는 일제시대에도 사장이나 지배인이나 자기 웃사람에게 갔을 때는 사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의례히 이렇게 안부부터 묻군 했다.

하루 두번을 만나면 두번, 세번을 만나면 세번 다 안부부터 물었다. 전 리연회사 사장은 그러한 김동호를 매우 례의가 깍듯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였고 김동호를 만나면 어디인지 불편한 생각이 들어 그것을 호소했다.

그러면 동호는 《하, 그건 감기기운이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꼭 계란술을 잡수십시오. 네— 네—》라고 충고하기도 하고 혹은 《지난밤에 잘못 주무셨습니다. 하, 지금이라도 안마사를 부를갑쇼?》 하고 묻기도 했던것이다.

그 버릇은 해방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백락일은 리연회사 사장과 달라서 50살이 넘었으나 한군데도 불편한데가 없는 모양이였다. 그래 백락일을 대하기가 일본인상전 모시기보다 더 어렵게 생각되였다.

《또 무슨 문제가 생겼소?》

백락일이가 묻자 동호는 그 감때사나운 눈을 아래로 깔면서 네, 네 하고 의자에 앉았다.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서 왔습니다. 백선생!》

《그럴테지, 무슨 말이요?》

《오늘도 임금을 올려달라고 아침부터 야단들인데, 그게 직공들의 일치한 의견이라는겁니다. 참!》

《임금? 흠, 임금만은 당분간 올릴수 없게 되였소.》

《저도 절대로 올리지 않는 방침입니다만… 딱 거절해도 말입니다. 그래도 그 야단들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몇놈 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내는게 문제가 아니요.》

백락일은 타이르는 어조였다.

《로동자들을 잘 타일러야지. 타이르는게 부족한것 같소. 당신은 로

동자들에게는 온정주의를 써야 한다는것을 잘 리해해야 하오. 로동자들을 다루는데는 온정주의가 가장 도덕적입니다.》

동호는 고개를 숙였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진면목하게 백선생의 사상을 배우고있습니다. 허지만 말입니다, 분회책임자인 최영수란 타면공하고 그와 함께 맞장구를 치는 서너너덧명을 내쫓지 않으면 말입니다, 앞으로 직공을 단속하기 곤난한 실정입니다.》

백락일은 아무 대꾸도 않고 동호가 내놓은 공장서류들을 들쳐보고 있었다. 동호는 말을 이었다.

《해방이 됐다니까 제가끔들 날뛰는군요. 글쎄, 아마 모두 부장이나 과장들을 시켜주었으면 만족할 모양인데 참, 뭐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더니 무식한것들이 날뛰는 꼴은 참 목불인견입니다.》

《좌우간 로동자들을 함부루 다루면 실패한다는걸 알아야 하오. 타이르고 어루만지고… 알겠소? 이건 무어요?》

서류 한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백락일이 물었다.

《네, 그건 충남무역과 계약한 면화매매계약서입니다.》

《아니, 이 글자말이요.》

《네— D. P, 즉시불입니다.》

《어째 즉시불이요? 30일 수형으로 고쳐하도록 하시오. 면화가 동이 났단 말인가, 원…》

《저쪽에서 D. P로 하잖으면 안 싣겠답니다.》

《안 실으면 그만이지. 다시 교섭하라 하우. 현금조절을 잘하는것 같지 않으니 어쩐셈이요, 응?》

《네, 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동호는 황송해했다. 서류를 다 보고난 백락일은 결론하듯이 말했다.

《거듭 말하지만 임금인상은 당분간 불가능하오. 그리고 금명간 현금 300만원을 변통해야겠소.》

《300만원입니까, 직공들의 석달치 임금이군요.》

《그리고 차코브슨앞으로 있는 주권을 몽땅 내가 산것으로 처리하오. 혼자만 알고있소.》

《네, 잘 알겠습니다. 허지만 분회 위원장이라는 최영수만은 생각해야겠습니다. 어찌 꺽지손이 센지 영 휘여잡을수가 없고 모든걸 이자가 선동한답니다.》

《좀더 타일러보우.》

《타일러보긴 하겠습니다만…》

김동호는 밖으로 나오자 그제야 가슴을 펴고 위신을 차리면서 자동차에 올랐다.

차안에서 동호는 그 감때사나운 얼굴에다 빙그레 미소를 띠웠다. 그는 자기가 동광방직 같은 큰 기업체의 지배인으로서 방대한 재산과 2천명 가까운 로동자들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수 있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는 시내에 나온김에 맛있는 비프스테크(서양료리의 하나)를 내놓는 《영생그릴》에서 점심을 하고 가려다가 《아니, 다문 한푼이라도 이 판에 저축해두자.》 하는 생각으로 차를 곧장 영등포로 달리게 했다.

차코브슨은 조석우가 제기하는 300만원건을 쾌히 승낙했다. 자기의 권한에 달린 그 공장을 단 300만원으로 넘겨준다는것은 얼핏 생각하면 어리석은짓 같기도 했지만 사실은 매우 현명한 처사였다.

차코브슨이 쥐여잡고있는 공장은 세군데였다. 그중의 하나인 동광방직은 덩어리만 컸지 실속이 없었다. 그는 매달 동광방직의 발란스 시트(대차대조표)를 들여다보고는 어깨를 으쓱 쳐들고 빈 털터리공장이라는 표식을 해보이군 했다. 그런데다 원료와 제품은 그의 손에 의하여 이미 거의 팔아먹은 뒤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300만원이 공장을 송두리채 내주는 대가가 아닌것이기때문에 그는 선선히 관리운영권을 내맡기기로 결심했던것이다.

그가 지금 정신을 팔고있는 주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은것들이였다.

첫째로 강원도 녕월군에 있는 고바야시광산의 관리채굴권을 획득하는 문제였다. 그 광산의 획득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의 자기의 기타 일체의 리권을 포기해도 좋다고 생각하는터였다.

둘째로 바쁜 일은 앞으로 남조선이 미합중국의 식민지가 되든 어쨌든간에 광대한 농장을 갖는것으로서 이것은 매우 의의깊은 사업이라 생각했다. 일본은 조선쌀의 은혜없이 살수 없을것이며 그럴진대 조선에다 농장을 갖는 문제는 앞으로의 대일무역과도 긴밀한 련계를 맺는 일이였다. 그러므로 차코브슨은 《신한공사》에 발을 붙이기 위해서 당장 2백～3백만원이 필요했던것이다.

셋째로 사크라멘트시내의 창고에 7개월간이나 체화되여있는 일용품을 하루속히 조선으로 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는 수월치 않은 정력을 기울이고있었다. 미군정청 상업부 고문의 립장에서 그만한 물자를 수송해오기가 그닥 힘드는 일은 아니였다. 그러나 군수품수송에다 미군가족들의 수송계획이 겹쳤기때문에 차코브슨도 너무 체면없이 배선을 할수 없었고 또 하지라든지 아놀드의 눈치도 보아야 했으므로 차일피일 미루어왔던터였다. 그러다가 4월초에 쌘프랜씨스코를 떠나는 상선의 편을 얻기로 되였다. 그 배만 도착하면 약 400만딸라의 리익이 오르는데 그 금액은 체화기간의 리자와 보관료를 비롯한 일체의 비용을 제하고도 270만딸라의 순리익이 그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는것이였다. 그러고보니 광목같은 천을 짜서 근근히 화페를 걷어들이는 동광방직의 관리운영쯤은 사실 열두번째, 열세번째의 사업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절실한 타산들도 있었거니와 다른 측면에서도 차코브슨은 조석우의 청을 한가지 들어둘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자기가 리화자를 점령한데 대한 《인정》관계였다. 물론 리화자를 점령한 사실을 조석우는 모르고있으며 또 안다 해도 도덕적으로 조금도 나쁠게 없다고 차코브슨은 생각했다.

《미스터 조가 알면 어떻게 해요?》

하루는 리화자가 물었다. 그러자 40살에 난 차코브슨은 총각처럼

열정적인 몸짓을 해보이면서 《사랑, 이거 간섭할 사람 세상에 없소. 간섭하면 야만이요.》라고 대답했다.

차코브슨의 그 《인정》이라는것은 단지 조석우가 모처럼 김애라까지 소개해주었는데도 그 녀자로만 만족하지 않은데 대한 《미안한 생각》이였다. 그 미안한 생각이 조석우의 청을 듣게 했다.

김애라로 말하면 차코브슨에게 리화자도 걸려든것을 알지만 그러나 《사랑》의 절반이상은 자기가 차지한줄로 알고있었다. 차코브슨은 애라에게 돈과 귀중한 물품들을 보냈다. 애라는 가장 사치한 차림으로 종로거리를 나다닐수 있었다. 저녁마다 차코브슨의 차를 기다려서 금화장 주택지로 달려갔다.

목구멍에 걸린것을 토하는 소리갈던 일본노래소리가 퍼져나와 소란하던 그 집에서 이번에는 밤새도록 지랄맞은 미국식쟈즈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러다가 뽕짜뽕짜, 찻찻찻찻 하는 무도곡에 맞추어 춤들을 추었다. 김애라는 취하다싶이 향락속에 빠져가면서 수차나 차코브슨에게 귀띔을 했다.

《리화자 사랑하면 나쁜 사람!》

차코브슨이 이따금씩 리화자를 자기의 별실로 불러들이는 사실을 알았을 때 조석우는 불끈했다.

(화냥년들은 할수 없어. 한손으로는 이놈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저놈을 만지는 년들이야.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은 국경이 없다고 하더니 화냥년들이야말로 국경도 없거던. 에이 빌어먹을…)

이렇게 생각한 조석우는 이틀동안이나 화자를 만나지 않았다. 낮에는 독촉이나 《한국민주당》 같은 반동단체들로 다니며 《대한민족당》일을 보아주었고 저녁이면 그의 세계(그것은 녀자뿐아니라 도박까지 겸한 세계였다.)에서 살았다.

사흗째 되던 날 저녁 그는 깊이 생각하는바가 있어서 다시 화자를 만나기로 결심하였다.

(내가 참 아둔했단 말야. 이래서야 어디 큰일을 할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는 화자에게 줄 선물까지 샀다.

조석우를 만난 화자는 《무슨 일로 그렇게 기별조차 없었어요? 글쎄, 나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두고… 나는 누구를 믿고 살란 말예요? 네, 나를…》 하고 넉두리를 하면서 찔끔거렸다.

《나는 정말 서러워요.》

《정치라는게 그런거요. 정치라는건 놀 때 흠뻑 놀다가도 밤을 새우게 되면 몇밤씩 새운단 말이요.》

그는 화자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반년동안은 그 녀자를 놓지 말아야 하리라고 생각했으며 생지네 회쳐먹을 정도로 비위가 좋은 그는 능히 그동안을 참을수 있다는 자신까지 생겼다.

《래일 공장에서 광목 두필을 가지고 올테니 받아두. 한필에 또 3만 6천으로 올랐답디다.》

2

김동호가 탄 차는 공장정문에서부터 자갈을 차는 소리를 내며 사무실현관앞으로 가멎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 부리나케 원료창고앞으로 가서 창고 계원에게 원료 남은것이 얼마나 되는가고 물었다.

《네, 면화가 7톤 2백하고…》

창고 계원은 장부를 들추었다.

《그리고 저…》

《재생할건 얼마야?》

《네, 2톤 7백 남았습니다.》

《틀림없지?》

《창고안이 꽉 찼을 때도 별로 틀린 일이 없었습니다.》

김동호는 돌아섰다.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간 그는 깊숙이 안락의자

에 앉아 타자수가 날라다 준 차를 마셨다. 차 한잔을 마시고나자 그는 두다리를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그는 전 리연회사 사장이나 지배인이 곧잘 그렇게 다리를 책상에다 얹는것을 보고 얼마나 편하랴싶었으나 감히 한번도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이 공장으로 와서부터 련습을 해보았다. 아무리 해보아도 그닥 편한줄은 몰랐으나 과연 위엄이 있어보일것이기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매일 안할수 없었다. 동호는 그렇게 벌떡 자빠져서 곰곰히 생각했다.

(그렇지, 온정주의를 써야지. 허지만 대체 어떻게 하는게 온정주의인가? 직공들을 온순하게 대하는게 온정주의인가? 잘 모르겠는걸. …)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지었다.

(아무튼 공장에 리익을 더 많이 가져오게 하는데는 일반이겠지. 공장에 손해를 가져오게 하는것이라면 공산주의와 같을것이니까… 허기야 요즈음은 빨갱이들도 공장을 위한다지? 모두 무슨 판인지…)

이렇게 형편없는 생각을 하고있을 때 노랑테안경잡이요 키다리인 영업부장이 들어왔다.

《지배인님, 광주상사에서 전보가 왔는데 면화를 곧 실을수 없답니다.》

《어째서?》

김동호는 눈을 부릅떴다.

《배차가 안된답니다.》

《말이 되나? 특별교섭을 해보우. 하루만 기계가 정지해도 십여만원씩 손해가 나지 않소. 그걸 무엇으로 충당할 작정이요, 응? 철도국에 특별교섭을 해보우. 지금 원료가 7톤밖에 없소.》

《해보긴 해보겠습니다만…》

《꼭 해야지 무슨 소릴 그렇게 애매하게 하오, 응?》

《네, 해보겠습니다.》 하며 영업부장이 나갔다. 동호는 나가는 그에게 호령했다.

《그리고 충남무역것은 30일 수형으로 계약변경하오.》

《야단인뎁쇼. 충남무역에서 말을 안 들을겁니다.》

《말을 듣도록 온정주의로 나가시오.》

영업부장은 두어번 머리를 긁다가 돌아섰다. 동호는 또 호령했다.

《공장장을 불러주오.》

이윽고 공장장이 공장일지를 끼고 지배인실로 들어왔다. 공장장 장시창은 거무데데한거라든지 눈알이 감때사나운거라든지 이따금씩 상반신을 버티는 품이 영낙없는 김동호였다.

두 인물사이의 차이점은 장시창이 젊었다는것뿐이여서 처음 보는 사람은 그들을 형제간으로 속단하기도 했다.

《어제 생산능률은 어떻소?》

동호는 다리를 책상에 얹은채 물었다.

《의연히 저하돼갑니다.》 하면서 장시창은 공장일지를 펴보였다. 최근 20여일을 두고 생산능률은 순탄한 언덕길을 내려오듯이 곧장 하향선을 긋고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까닭이요?》

동호는 다리를 내려놓고 공장장과 마주앉으면서 물었다.

《야단입니다. 오늘도 사십여명이나 결근입니다. 야단이예요!》

《글쎄 무슨 까닭이냐 말이요?》

공장장은 어떻게 답변할지 몰라서 잠시 서있는데 동호가 다우쳐물었다.

《모두들 급살탕들을 먹었단 말이요. 아니, 그래 빈들빈들 기숙사에들 누워 자빠져서 약을 달라, 식사조건을 개선해달라 하니 대체 이게 무슨 까닭이냐 말이요?》

장시창이 무심코 《기숙사의 식사가 사실 말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자 김동호는 눈알을 굴리면서 잠시 공장장을 쏘아보았다.

《아니, 그게 진면목하게 하는 말이요? 그게 공장장의 립장에서 하

는 말이요, 직공들의 립장에서 하는 말이요, 응?》

《아닙니다. 기숙사감독이 일을 잘못한다는 말입니다. 기숙사감독이…》

장시창은 당황히 변명했다.

《기숙사감독인들 별수 있소. 물가가 이렇게 한없이 오르기만 해서야 임금님도 도리가 없을거요.》

《네, 그렇지요. 허지만 기숙사감독도 재간은 무던히 없습니다.》

공장장이 이같이 말하자 동호는 좀 음성을 낮추었다.

《고생들을 더해야 정신을 차릴거요. 아직도 배가 불러서 그러우. 로동자의 근성이란 할수 없다니까…》

동호는 더욱 음성을 낮추었다.

《여보, 공장장! 생산이 그렇게 떨어지고있는것은 그뒤에 최영수라든지 정형규 같은 빨갱이들이 책동을 하는 까닭이요, 책동!》

《그들이 분회간부지요.》

《분회라는게 순 빨갱이야.》

이같이 단언하면서 김동호는 다시 두다리를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그러니 함부루 잡아끌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허, 온정주의를 쓰오. 내 사업태도는 온정주의요. 알겠소? 잘 리해시켜서 래일은 다 나오도록 해야겠소.》

장시창은 덤덤히 앉아있었다.

래일은 백락일이 공장에 시찰을 나올거라는 동호의 말을 듣자 공장장은 《이제부터 기숙사를 한바탕 돌겠습니다.》 하고 이야기의 아퀴도 짓지 않고 나가버렸다.

(흥, 모두 도적질에 정신이 팔렸단 말야.) 하고 동호는 생각했다.

그리고는 무심코 책상우에 놓았던 큰 서류가방을 슬그머니 책상밑에다 내려놓았다. 광목 한필이 든 가방은 묵직했다.

공장재산을 거덜내는것은 백락일이나 조석우만이 아니였다. 그밑에 좀도적들이 있으니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도 맑다고 좀도적들이 생기

는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공장장도, 생산부장이나 경리부장도 매일 매시각 제품을 빼돌릴 생각뿐이였다.

동호는 그것을 뻔히 알지만 자기 역시 아침에 나오면 우선 견본을 한필씩 가져오게 하는데만 머리를 쓰는터라 드러내놓고 말할수가 없었다. 그래 가방을 책상밑에다 감추고난 그는 《이게 대체 무슨 깍두기판이야? 빌어먹을 놈의…》 하고 중얼댔다.

리기준이가 처음 공장으로 김동호를 찾아온것은 그날 오후였다.

동광방직공장의 관리인측이 악질적으로 나온다는 소식은 이미 섬유로동조합에 구체적으로 알려져있는터였다. 로동자의 대우를 가장 고려하지 않는 공장의 하나가 동광방직공장이였다. 기숙사는 식사조건과 위생설비가 극도로 나빴기때문에 환자가 속출하는 형편이였으며 임금은 일제시대 그대로의 기아적로임을 지출하고있었다.

그런데다 관리인측은 로동조합과 조합분회의 존재를 시들히 여겨 분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매양 당장에서 거절을 당하군 했다.

그래 섬유로조에서는 우선 첫 사업으로 직접 관리인측을 만나 절충을 하기로 했으며 그 과업이 산업건설부 책임자와 선전부 책임자에게 맡겨졌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안철이 민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을수 없게 되여 자연 기준이가 대신 나오게 되였다.

처음 기준은 김동호와 만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했다. 언제인가 전평신문에 동광방직 관리측의 내막을 폭로한 기사가 말썽이 되였었기때문은 아니였다. 그 문제는 그후 흐지부지되였을뿐아니라 이번에는 《세계일보》, 《자유일보》 같은 신문들에서 더 상세한 비판기사를 게재했기때문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 되였다. 그래 전평신문기사의 집필자문제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돼버렸다.

기준이가 동호와 만나기를 꺼린것은 대양양품점건물조건으로 싸운일이 있었던 그 기억이 더 강하기때문이였다. 도저히 피차의 말이 통할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건설부 책임자는 오히려 지난날의 그의

소행을 자세히 알고있는 기준이가 함께 가서 그의 약점을 찌르면서 절충을 하는게 효과적이라고 해서 동행한것이였다.

리기준은 《사교》나 《교제》 또는 권세있는자들과의 절충같은 일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였다. 자기에게 《련성》이라는 굴욕적인 행동을 강요하던 김동호가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안락의자에 벌떡 자빠져서 눈알을 굴리는 꼴을 보자 기준은 그만 비위가 상해 얼굴을 찡그렸다.

《거기들 앉으시오.》 하면서 김동호는 로골적으로 얕보는 시선으로 기준의 모자와 양복 그리고 구두를 차례차례 훑어보았다.

그렇게 관찰을 끝낸 그는 비로소 이 헙수룩하게 차린 래방자를 어떻게 대할것인가를 작정한 모양이였다. 그래 기준은 더욱 비위가 상했는데 그런데다 김동호가 거만한 어조로 《그래, 로동조합에서 받는 월급으로 지내시는가요?》라고 묻는 바람에 《실례가 되는줄도 모르시고 당신은 사람을 월급으로만 따지자는겁니까?》 하고 고르지 않은 음성을 내버렸던것이다.

기준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관리인측과 옥신각신하지 않고 다만 필요한 대목에 가서 몇마디씩 방조를 주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왕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놓은판이요, 그 감정을 흐지부지 눅잦히는것도 쑥스러웠기때문에 내친김에 말문을 터뜨렸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월급을 받는게 아니니 념려마시오. 어느 나라에서나 로동운동이 있으며 로동조합이 조직되여있습니다. 우리는 공장에 매여있는게 아니라 로동조합이란 조직체안에서 로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들 오셨는지 말씀하시오.》

동호는 기준의 감정을 더 건드릴 의사가 없다는듯이 이같이 물었다. 그리고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우리가 온 목적은 다른게아니라 1 600여명의 이 공장 로동자의 대우를 개선해달라는데 있습니다. 우선 임금을 올려주어야겠습니다. 현재 이 공장에서 지출하는 로임은 일제시대 그대로의 로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좀 생각해보십시오. 8.15현재 26억원이였던 조선은행권이 매국노들에 의하여 지금 100억원가까이 증발되였습니다. 국내생산은 나날이 감소되지, 물가는 밤잠 안 자고 오르지… 어찌 그 임금으로 로동자들이 생활할수 있겠습니까?》

《직공들을 그렇게 념려해주셔서 감사하군요.》

김동호는 역시 교만한 태도였다.

《허지만 그 직공들은 우리의 직공들입니다. 한푼을 주어도 우리 돈을 내주는것이니 간섭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로동조합에서 왔습니다. 지금 당신은 로동조합과 상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것을 아십시오.》

《나는 로동조합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걸 아십시오.》

《우리는 로동자들과 밀접합니다.》

《밀접하시구료.》

기준은 울컥 화가 치밀었다.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싶었으나 그럴수도 없어서 잠시 동호를 노려보고있는데 산업건설부장 박태상이 그들사이를 헤치고나섰다.

《지배인께서 좀 억설을 하시는듯 합니다. 실례지만…》 하면서 박태상은 잠간 얼굴에 미소를 띄웠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능률을 올리고 새로 건립되는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사업하신다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생산을 담당하는 로동자들이 일을 잘하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건 당신네들보다 우리가 더 생각하지 않겠소?》

《그러니 로동자들의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문제는 공장측이나 로동조합측이나 같은 의견이 아닐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현재의 임금으로는 살수 없을게 뻔하고 또 기숙사식사도 말이 아닙니다.

소금국에 밀이나 보리밥, 그것도 접시에 훑어담는 분량입니다. 지배인께서는 그걸 보신 일이 있는지요. 보셨습니까?》

《우리는 고기반찬을 해줄수 없습니다.》

김동호는 더욱 억설을 했다. 그리고는 턱 팔짱을 끼고 유리창밖으로 미군찦차와 트럭들이 먼지를 올리며 달리고있는 길거리를 내다보았다.

《우리가 요구하는건 고기반찬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박태상이 말을 이었다.

《하루 3홉의 쌀입니다. 다 사람이 살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구라는걸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때 탁상전화기종소리가 요란스레 울렸다. 동호는 전화기를 들었다.

관리인 백락일이 300만원의 보증수형을 가지고 6시까지 명월관으로 오라고 호령했다.

동호는 황송한 자세로 전화를 받다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서 전화를 끊었다.

그는 왼팔에 찬 금딱지손목시계를 보았다.

《내 더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잘 생각들 해봅시다. 허지만 우리 공장형편으로는 당장 임금을 인상할수 없습니다.》

《생산이 파탄에 이르러도 말입니까?》

기준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피우던 담배를 눌러 끄면서 물었다.

《절대로 인상할수 없습니다. 진면목하게 하는 말이외다.》

《생산이 파탄에 이를것이외다!》

기준은 거듭 웨치다싶이 했다.

《남의 공장일 그만 간섭하시오. 너무 치마폭이 넓소!》 하더니 동호는 큰소리로 타자수를 불렀다.

《자동차 준비하라고 하오.》

×

밖으로 나온 기준은 박태상을 먼저 돌아가게 하고 그 공장 로동자들의 생활을 전평신문에 소개할 의뢰를 받았기때문에 분회사무실로 갔다. 원료창고 계원이 사무실문을 열어주었다.

분회사무실안에는 찔그러진 책상이 둘, 의자가 둘, 널로 막 만든 장의자가 세개 놓여있었다.

기준은 뒤짐을 지고 서성거리다가 창앞에 멈춰섰다.

고깔모양으로 지붕이 된 십여채의 직포직장들과 그와 잇닿은 정방직장, 타면직장들의 반듯반듯한 벽돌건물들에서 울려나오는 우르릉우르릉하는 기계소리가 이 사무실에까지 울려와 유리창이 쉬지 않고 흔들렸다.

역시 내가 만난것은 좋지 않았어. 에이 졸렬했군! …

기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다.

(나는 천생 그런 일을 성과있게 해내지 못한단 말야. 산업건설부장동무가 필경 나를 비판할거야. 허지만 그 동무도 아마 담벼락하고 이야기하는게 낫다는 생각은 할거야. 이야기가 돼야지. 자존심을 송두리채 뽑아버린다면 몰라도…)

무슨 거대한 짐승이 맹렬하게 우는것처럼 고동소리가 공기를 진동시켰다. 그 소리가 여운을 남기고 멎자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지고 로동자들의 음성이 들려왔다.

각 직장들에서 남녀로동자들이 떼를 지어 나왔다. 먼발치로 보아도 헐벗고 피기가 없었으나 기준은 오직 믿을 사람은 그들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하자 김동호를 대할 때와는 달리 자신심이 생겼다.

삐그덕 찌그덕 배 침몰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내 치솟는 용기를 느낀다!

이런 시의 한 대목을 생각하고있을 때 사무실문이 열리더니 주걱턱의 정형규가 들어섰다.

《리선생! 오셨군요.》

《수고하십니다.》

기준은 정형규의 손을 힘있게 잡았다. 해방후 기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깊었던 사람은 정형규였다.

《공산주의자열성자대회》(기준은 이제야 그 회합을 정확하게 비판할수 있었다.)에서 제일 진실하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정형규였다.

기준은 안철에게서 그가 해방과 함께 감옥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에는 제관공장에서 로동을 하다가 1944년 봄 금포비행장으로 끌려가 비행장을 닦았는데 그때 함부로 사람을 구타하면서 일을 시키는 일본놈청부업자와 멱살잡이를 했다는것이였다.

청부업자의 골통을 깨놓은 그는 왜놈군대에 잡혀 결국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였다는것이였다.

안철은 정형규가 감옥생활을 한것이 1년 남짓한 동안밖에 안되지만 한감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에 책을 남의 곱은 읽었을것이라 했으며 그의 가장 우수한 특징은 정확한 기억력이라 했다. 그는 감방의 유식한 사람들에게서 이것저것 배웠는데 한번 배운것은 용하게 다 기억하고있더라는것이였다. …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정형규는 전등스위치를 틀어 불을 켜고 구석에 있는 의자를 끌었다.

그의 모자와 어깨는 솜털로 뒤덮여있었다. 주걱턱에 돋은 수염에도 한오라기의 솜이 달려서 흔늘거렸다. 정형규는 그 주걱턱을 내밀고 싱글싱글하면서 물었다.

《지배인을 만나셨던가요?》

《만났습니다. 역시 벽창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하지요. 최영수동무 여기 들리겠지요?》

《오늘 산별조직부에서 분회책임자회의를 하고있잖습니까?》

《오, 그렇군요. 그럼 정동무가 수고를 해주셔야겠군.》 하며 기준은 함께 기숙사에 가보자고 했다.

《그렇게 합시다. 한번 꼭 봐주십시오. 좋습니다!》

정형규는 뒤미처 들어온 키가 작은 로동자와 머리를 곱게 갈라넘긴 로동자를 기준에게 소개했다. 키가 작은 로동자의 이름은 김인석, 머리를 갈라넘긴 로동자는 리영춘이였다.

《두 동무 다 분회위원입니다.》 하면서 정형규는 김인석에게 오늘 저녁 정치강습반을 지도하라 했고 리영춘에게는 조선어강습반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는 《이젠 가봅시다.》라고 하면서 먼저 의자에서 일어났다.

직포직장을 휘돌아 공장 뒤문으로 나가자 공장 벽돌담과 잇닿아서 마치 감옥처럼 벽돌담이 드높게 뒤산기슭까지 둘러쳐져있었다. 그안에 얕으막한 날림식으로 지은 집들이 십여채 줄행랑처럼 늘어서있었는데 그게 8백여명의 직포공들이 기숙하고있는 숙소였다.

이미 어두워서 바깥형편은 잘 알아볼수 없었으나 정형규가 《실례합니다.》 하며 어떤 방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는데 방안에서 반찬냄새나 곤닭알냄새같은 퀴퀴한 악취가 쏟아져나와 기준의 코를 찔렀다. 한쪽에 매달린 십촉짜리 전등은 그나마 광선의 반을 벽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옆방으로 보내느라고 가뜩이나 희미한 빛이 더 침침했다.

《동무들의 생활형편을 보시러 조합에서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실정들을 이야기하십시오.》

《실례합니다. 조합에 있습니다.》

기준은 되도록 소탈한 태도를 꾸미며 이렇게 말하면서 방안으로 들어갔다.

한칸 반쯤되는 방에 무려 8～9명이 들어있기때문에 장정 두사람이

들어서자 발디딜 곳조차 없어졌다. 한 녀자가 누워있는 동무를 흔들어 깨우려 했다.

그러자 정형규가 《환자지요? 그냥 놔두시오.》라고 제지시켰다.

기준도 굳이 말렸으나 흔들리운 환자는 슬며시 눈을 떠보더니 파마를 한 머리를 한편 구석에다 박으면서 일어나 앉았다.

《한방에 평균 한명씩은 환자랍니다.》

정형규가 설명했다. 기준은 무슨 말을 물어야 할지 몰랐다.

구태여 캐묻지 않아도 이렇게 십분만 들어와 앉았으면 그들의 생활을 다 알듯싶었다.

이라도 슬슬 기여나올상싶은 구지레한 침구가 몇장 접혀서 한구석에 쌓여있고 또 몇장은 솜이 너털거린채 방바닥에 깔려있었다. 고리짝이랑 낡은 트렁크들이 쌓인쪽 벽에는 한쪽이 깨여진 사각형거울이 하나 걸려있고 거울옆에는 영화배우의 사진이 붙어있었다.

방안의 직포공들은 거의 16～17살, 고작해야 20살정도의 처녀들이였는데 모두가 피기라고는 없었다. 태양과 등져서 사는 동무들이였다. 원래는 진홍빛공단이였으나 소매가 해져서 너덜거리고 얼룩이 져서 검붉어진 저고리를 입은 녀자는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있었다.

《동무도 몸이 불편하십니까?》

기준이 물었다.

《아니요.》

그 녀자는 시름없이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으나 옆에 조여앉았던 쌍꺼풀이 진 동그란 눈동자의 녀성이 《얘도 요새 억지로 나갑니다.》하며 설명해주었다.

《안 나가면 이달치 식사비도 모자란다고 악을 쓰고 나가지만 그러다가 아주 누워버리면 어떡헐려구그래?》

《이러나저러나 매일반이지.》

머리를 동여맨 녀자가 대꾸했다.

《매일반이니 누워있으란 말이다. 아이두 참!》

동그란 눈동자의 녀자는 원래 매우 명랑한 처녀였던것 같았다.

기준이 물었다.

《고향이 어딥니까?》

《수원입니다.》

《언제부터 공장에서 일하십니까?》

《만 3년 됩니다.》

《분회일을 잘 보는 동무입니다. 이름은 고정자이고…》

정형규가 이렇게 소개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한 녀자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대접을 들고 들어왔다. 대접에는 꺼먼 엿물같은게 담겨있었는데 씁쓰름한 냄새가 풍겨졌다.

《순자야, 옜다—》

《그게 무업니까?》

기준이 물었다.

《익모초랍니다.》

《익모초요?》

방금 파마머리를 하고 가까스로 일어나앉던 녀성은 계속 배앓이를 하지만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산에서 익모초를 뜯어다가 달여먹는다는것이였다.

《그걸 먹으면 납니까?》

《먹을 때뿐이예요.》

《여북하면 그걸 먹겠어요?!》

쌍꺼풀이 진 동그란 눈의 고정자가 말했다.

《이런 사정을 우리나 알지 누가 알아주겠어요. 조합에서 가끔 나와봐주세요. 네?》

《앞으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기준이 무안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종업원이 1 600여명이나 되는데 의료시설이라고는 없답니다. 령신환 한봉지 얻을수 없답니다.》

《자주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봉례동무는 잘 있어요?》 하고 고정자가 물었다.

《네,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번 공장에 나왔었지요.》

정형규가 대답했다.

리기준은 여러 동무들에게 수입과 친척관계들을 묻기도 하고 그들의 애로를 묻기도 하다가 그 방에서 나왔다.

《저런 방에서는 성한 사람도 환자가 되겠습니다. 낮에는 실밥먼지, 밤에는 썩은 공기…》

《식당을 가보시지요.》

정형규는 그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이름이 식당이지 창고도 현대식 창고는 그보다 나을것 같았다. 천장은 뜯어지고 벽은 떨어졌었다. 긴 널판자식탁들은 한시도 말라보지 못한듯 지르르 구정물에 젖어있었고 아래는 흙바닥이였다. 몇사람이 뒤늦게 식사를 하고있었다. 불면 날아갈듯 한 모래밥이 한접시, 시래기인지 미역오라기인지 두어쪼각 둥둥 뜬 소금국 한그릇… 이것이 하루삼시 그들을 기다리는 《메뉴》였다.

(미군정은 일제시대의 법률을 그대로 쓰고있다.)

기준은 식당에서 나오면서 생각했다.

지주는 그대로 지주고 자본가도 자본가대로 남아있다. 일제시대의 관리는 지금의 관리, 일제시대의 경찰도 지금의 경찰… 해방전의 《국민총력》 리사는 공장관리인이 되고 일본자본가에게 붙어살던 놈은 지배인이 되여 관리인에게 붙었다. 착취! 놈들은 여전히 극심한 착취를 하고있다. 로동자들은 모두 허기지고 헐벗고 병들어 기력과 정신을 못차리고있다. 1천 6백여명의 청춘을 깎아먹는 놈들은 한편에서 하루저녁 수만원씩 쓰고도 태연하지 않는가?!

기준은 백락일이가 차코브슨에게 관리운영권을 사기 위하여 300만원을 내놓기로 한 사실을 모르고있었다. 로동자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재부의 일부분이 한 탐욕스러운 자본가의 마음대로 아무관계도 없는 미국인의 손아귀에 쥐여진 사실을 안다면 그는 더욱 격분할것이였다.

(과연 나는 졸렬했다.)

기준은 계속 생각했다.

젊은 로동자들의 생활은 생각지도 않고 단지 자기의 감정과 자존심을 위해서 김동호에게 대든게 아니냐, 로동자의 생활은 개선되여야 한다. 무조건 개선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자존심, 체면, 일신의 위험, 자차분한 감정… 이 모든것을 개 주자. 김동호는 자본가를 위해서 결사적이다. 나도 로동자들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노력해야 할것이 아니였더냐!

분회사무실로 돌아온 기준은 정형규와 담배를 나누어 피웠다. 정형규는 공장에서 멀지 않은 자기 집까지 가자고 했으나 기준은 다음 기회에 찾아가겠노라 했다. 그리고는 생각에 잠겨 공장을 나섰다.

3

조합일은 한정이 없어서 밤잠 자지 않고 해도 못다할 정도였다. 근로대중과 시민들의 환호와 기대속에서 열린 쏘미공동위원회는 미국측 대표의 고의적인 충돌과 억설로써 날이 갈수록 점점 엉클어져가기만 했다. 악의에 찬 미국측 대표의 배짱은 유리창속을 들여다보는것 같았다. 그러나 쏘미공동위원회의 성과적인 진행이 조선인민의 살길인것을 선전하는 사업을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되였다. 각 산별로조는 휴식할 틈이 없었고 선전일군들도 쉬지 못하였다.

한편으로는 반미투쟁이 벌어졌다. 물가가 천장 모르고 올라간데다 시장에는 쌀이 없었다. 시민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나다닐수밖에 없었으나 그것도 한도가 있었다. 노한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악에 받쳐 서울시청앞에 모여들어 롱성하면서 쌀을 내라고 아우성을 쳤다.

미국인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도 조선사람의 유일한 량식인 쌀을 내

놓지 않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을 점령하고 조선쌀을 일본에다 고가로 팔아먹어야 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체화되여있는 밀가루를 조선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했다. 그러므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인민이 기아에 시달리는것을 매우 《합리》적인 일로 여기는상싶었다.

CITY

HALL

새로 이러한 간판을 내붙인 서울시청현관으로는 미국인과 미군들이 드나들었다. 그들은 시청앞광장에 모여든 시민들을 악의에 찬 눈초리로 흘겨보면서 지나다녔다. 어떤자는 휘휘 휘파람을 불다가 권총을 빼들고 군중에게 쏘는 시늉을 했다. 어떤자는 찝차를 사람들속으로 들이몰고 지나가면서 《께 터외이! 께 터외이!(모두 가거라!)》 하고 기가 나서 부르짖었다.

그러면 시민들은 달리는 찝차를 향하여 목청을 모아 욕을 퍼부었다. 롱성하는 군중은 나날이 늘어가기만 했다.

리기준은 시민에게 주는 격문을 썼고 섬유산별산하 로동자들에게 보내는 삐라도 썼다. 그리고 직접 자기가 가지고 나가 살포하기도 했다. 그는 삐라를 살포하는 한편 목청을 돋구어 부르짖었다. 그가 이같이 가두의 군중을 향해서 웨치는것은 난생처음이였다.

《… 그렇습니다. 북조선은 작년 1945년도에는 농사가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도 북조선인민은 이렇게 식량난에 시달리지 않고있습니다. 인민정권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있으며 저물가정책을 써서 인민의 생활을 날로 향상시키고있습니다!》

기준은 흥분해서 입을 다물수가 없었다. 그는 계속 부르짖었다.

《북조선에서는 토지개혁이 실시되고있습니다. 천년, 이천년 계속되던 봉건제도를 숙청하고 땅을 발갈이하는 농민에게 분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이 실시된 남조선에서는 어떠합니까? 지주가 미군정의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

군중이 호응하면 그는 더욱 음성을 높였다.

《쌀을 달라!》

《하루 3홉이상의 쌀을 달라!》

기준은 한편 전평신문, 세계신문 같은데다 원고를 보냈다. 반미투쟁은 실업자들의 투쟁과 결부되는것이였으며 근로인민의 통일전선적역할을 겸했기때문에 의의는 한없이 컸다. 그는 피로한줄도 모르고 몇밤씩 새우다싶이 했다. 그는 로동자들과의 사업이 아직 서툴렀고 로동자들의 립장에서 사고하는 정도도 아직 부실하다고 생각했다. 김동호를 만났고 처음 기숙사방문을 열었을 때 풍겨나오는 악취에 코를 막았던 날이후 더욱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만치 그는 자기의 열성을 다 발휘하느라고 애썼다. 진종일 공장분회사무실에 들어박혀있는 날도 많았고 얼굴에 잉크칠을 하며 밤새도록 등사판을 밀 때도 있었다.

리기준에게 거센 투쟁의욕을 북돋아주는 사람은 정형규였고 또한 전평신문을 책임지고있는 허인기였다.

처음 그와 인사를 했을 때 기준은 대번 그가 《공산주의자열성자대회》에서 주최측을 공격하고 **김일성**장군님께서 개선하신 이야기를 하던 머리가 벗어지고 눈시울에 주름이 잡힌 그 인상깊은 중년남자인것을 알고 한없이 반가와했으며 그렇게 한사람두사람 견실한 동지들과 알게 되며 그들속에서 일을 하게 된 자기를 행복하게 생각했다.

기준은 봉례랑 섬유산별동무들에게서 허인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차례 들어서 그의 경력이라든지 성격을 대강 짐작했다.

그는 신장이 매우 나빠서 늘 부석부석했으며 때로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한시도 명랑하고 너그러운 표정이 가시지 않았다.

늘 웃음을 띠우고있는 크고도 둥근 눈은 상대방에게 《나에게는 허물없이 대하는게 좋습니다. 나하고는 무슨 이야기든지 하십시오.》 하고 말하는듯 했다.

첫인사를 하고나서부터 그는 《돈없이 만들어내는 신문이란 동지들의 방조가 많아야 합니다. 선생은 벌써 우리의 열성필자명부에 올랐으

니까 그쯤 알고계십시오.》라고 말했다.

《글쎄, 능력이 있어야지요.》

《겸손한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허지만 투쟁만은 겸손해서 안됩니다. 자본가는 겸손하게 착취하지 않으니까요. 그러구 미국놈들은 남조선을 통채로 먹으려 올라왔으니까요.》

차차 상종하는 동안 기준은 그가 너그러운 성품을 가졌을뿐아니라 한편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엄한 사람인것을 알았다. 그는 잔소리를 하거나 떡떡거리는 일이 없었지만 기자들은 그를 누구보다도 어렵게 생각했다.

공장방문이나 원고집필로부터 교정에 이르기까지 닥치는대로 하느라고(때로는 인쇄소로 달려가 활자추기를 하는 일도 있다는것이였다.) 허인기는 몹시 바빴으나 이따금씩 한가한 사람처럼 기준에게로 와앉아서 그에게 토론을 걸군 했다.

그는 섬유산별사업만 하더라도 안철이보다 훨씬 많은것을 알고있었다. 아직 로동운동의 1학년생인 기준은 숫제 입을 다물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 토론대신 파업의 조직, 반미투쟁과 기아행진, 실업자운동으로서의 반미투쟁과 로동운동과의 련결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했다. 허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자기의 견해로서 이야기되는것이지 조금이라도 남에게 뽐내거나 희떱게 굴려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기준은 그에게서 많은것을 배울수 있었으며 그를 선생처럼 생각하게 되였다.

허인기가 그에게 루차 강조하는 말이 있었으니 그것은 사업과 자기생활이 두갈래가 되는것처럼 비당적인 일은 없다는것이였다.

시내 곳곳에서 반미투쟁이 벌어지고 여러 공장들에서 로동자들과 자본가의 충돌이 일어남에 따라 전평은 점점 바빠졌다. 그러한 판에 감기가 들었다는 기별을 하고 허봉례가 3～4일 거퍼 나오지 않았다.

기준은 궁금했으나 찾아가 볼 시간이 없었다. 그러던차에 이상한 소식을 들었다.

순희의 말에 의하면 한 일주일전(봉례가 결근하기 직전이였다.) 허봉례가 변승룡과 함께 남대문동을 거닐더라는것이였다. 기준은 처음 그 말을 심상히 들었으나 하루이틀 지나면서 생각하니 마음속으로 짚이는데가 없지 않았다. 변승룡이가 허봉례에게 마음을 두고있다는것은 이미 기준이 짐작한 일이지만 령리한 허봉례가 그를 따르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었다. 허나 태평양 물깊이는 알수 있어도 한치밖에 안되는 사람의 마음속을 어찌 알수 있으랴싶었다.

물론 기준은 허봉례와 자기사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막상 수상하게 여기고 이리저리 추측을 하게 되자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초조한 기분속에 빠져버렸다. 바쁜 고비가 지나고 다소 시간의 여유가 생기자 더욱 그러했다.

(아무래도 좋다. 허지만 일은 일대로 해야 할게 아닌가. …)

기준은 슬그머니 이렇게 혼자 불쾌하게 생각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다가 봉례가 나오지 않기 시작하던 이튿날 기준은 광화문동을 지나다가 효자동으로 가는 전차를 기다리고 선 변승룡을 먼발치로 보았다. 허봉례의 집이 효자동에 있었고 또 변승룡은 다른 일로 그 방향으로 갈 일이 있을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였다. 엷은빛의 중절모자에다 우물정자무늬가 있는 고급춘추외투를 입었고 구두는 뻔쩍뻔쩍 윤이 났다. 허봉례는 이튿날도 나오지 않았었다.

오늘 기준은 또 공교롭게도 서대문 네거리에서 전차를 타는 허봉례를 발견했다. 틀림없이 저 녀자가 변승룡에게 다녀오는것이려니 하고 생각할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생각하자 울컥 불쾌한 감정이 가슴을 쳐서 걷잡기 어려웠다.

리기준은 새삼스레 자기가 몹시 외로운 사람인것을 느꼈다.

그의 나이 서른셋, 젊기만 하지는 않았다. 그가 여직껏 독신으로 지내는 까닭은 생활에 쪼들리기도 했거니와 불행히도 녀자와의 관계에서

는 번번히 실망하고말았기때문이였다.
교편을 잡고있던 어느해 가을 그는 일요일마다 자기 집에서 멀지 않은 인왕산중턱의 숲속으로 산보를 나오군 하는 한 처녀와 알게 되였다. 그 처녀는 타자수였는데 까맣고 동그란 눈이 아름다왔고 마음씨도 고왔다. 서모밑에서 자라났다는 그 녀자는 어디인지 쓸쓸한 빛이 떠돌았으나 그만큼 온순한 성격이기도 했다. 한달가까이 숲속으로 다니며 사랑을 속삭였는데 하루는 처녀가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다. 서모가 어떤 40살이 넘은 외과의사와 결혼을 하라고 강요한다는것이였다. 다시 며칠이 지난 뒤였다.

《래일은 약혼반지를 가져오는 날이예요.》

처녀는 울면서 말했다.

《만약 그 반지를 돌려보낸다면 어머니는 저를 인두로 지질거예요.》

기준은 슬픔과 의분에 사로잡혔으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학교에서는 쫓겨났고 집에는 동전 한푼 없는 형편이였다. 처녀는 사흘동안을 울더니 나흘되던 날부터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녀성과의 관계는 이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기준은 앞으로 행복한 사랑속에 젖어갈것 같지도 않았다. 청춘은 속절없이 영사필림처럼 휘휘 지나가버리는것만 같았다. 괴로울 정도로 쓸쓸한 심정에 사로잡힌 기준은 호젓한 길로 들어섰다.

그는 대한문 앞쪽을 향해 걸어갔다. 한동안 걷다가 그는 길 좌우편에 늘어선 나무들이 모두 초록빛으로 단장한것을 보고 놀랐다. 어느 틈에 봉오리가 지고 꽃이 피였다 졌으며 이렇게 신록이 우거지게 되였는지 몰랐다.

나의 청춘도 저렇게 계절이 바뀌듯이 어느 틈엔지 슬그머니 바뀌여지고말테지. 벌써 나의 청춘은 거반 가버리고있지 않는가, 얼마 안 가서 40살이 가까와질것이 아닌가. … 아무리 늦어도 그때는 인민의 정권이 설것이다. 그때는 나의 청춘이 갔을것이다.

기준은 되도록 천천히 걸었다. 천천히 걸으면서 마치 초록물감이 든듯 한 신록을 바라보았다. 신록의 향기는 시원하게 가슴속으로 스며드는듯 했고 그것은 마치 자기의 청춘을 사랑의 세계에로 유혹하는것 같았다.

허봉례는 지금 사랑에 파묻혀있는것일가? 행복한 사랑에 사로잡혔단 말인가? 과연 사랑은 행복한것일가?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대한문앞으로 나오자 사라지고말았다. 쌀을 달라는 프랑카드들을 들고 구호를 웨치며 시청앞에서 롱성을 하고있는 수천명의 군중이 눈에 띄웠으며 그중의 한 젊은 녀성은 군중들앞에서 목청높이 선동을 하고있었다.

스물밖에 안돼보이는 그 처녀는 얼굴도 몸맵시도 매우 아름다왔다. 그러나 눈을 동그랗게 부릅뜨고 시청과 군정청쪽을 노려보면서 끝까지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그 처녀는 동시에 마치 기준에게 억압당하는 사회제도아래에서는 행복한 사랑을 할수 없다는것을 강조하는듯싶었다.

잠시 그 처녀의 선동을 듣다가 기준은 회관으로 향하면서 다시 생각했다.

지금 행복한 사랑이 있을수 있느냐? 인민의 사회제도가 서기 전에는 그런 사랑을 할수 없다. 그런 사랑을 할수 있는 사회제도를 만드는것이 청춘이 할 일이며 그러한 투사만이 청춘인것이다.

다소 시간여유가 있다가는 다시 일이 몰리군 했다. 그래 변승룡과 허봉례의 사이를 의아한 마음으로 머리속에 그려보는것도 하루이틀 지나자 차차 사그라졌다.

허봉례는 일주일만에 나왔다. 나오던 날 봉례는 좀 여위고 해쓱해진 얼굴에 미소를 띠우고 섬유로조 선전부로 찾아왔다.

《그새 안녕하셨어요?》 했을 때 기준은 정면으로 보기를 피하면서 《네.》 하고 외마디대답을 했다. 그리고는 선전문건을 가지러 온 조선생사공장의 로동자와 이야기를 계속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봉례가 돌아서자 기준은 힐끔 그 녀자의 뒤모양을 훔쳐보았다. 곱게 빨아 다린 옥양목저고리에 까만 세루치마였다. 안짱

다리 비슷하게 사뿐사뿐 딛는 걸음걸이는 여전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그 걸음마다에서 거짓이 느껴지는것 같았다. 그는 일찌기 허봉례를 그렇게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본 일이 없었다.

선전문건을 가지러 온 로동자를 돌려보낸 다음 기준은 담배에 또 불을 그어댔다.

너무 랭정했는가? 하고 생각하다가 시시한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피우던 담배를 재털이에 눌러 껐다. 그리고는 다시 만년필을 잡았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친히 발표하신 20개조정강을 기초로 해서 그날중으로 소책자원고를 완성해야 했다.

그날 오후 기준이 거의 원고를 끝냈을 때 봉례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인사를 하러 온게 아니라 사업을 토의하러 왔다.

《바쁘신줄 알면서도 안됐습니다. 꼭 부탁을 들어주셔야 할 일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좋겠어요?》

봉례는 한편 어려워하면서도 간단히 이야기가 끝날것 같지 않은듯 조용히 의자를 기준의 책상앞으로 끌어당기고 거기 앉았다.

《무슨 일인가요?》

기준은 아까의 기분과 태도 그대로 물었다.

《20개조정강에 관한 해설론문을 리선생께 부탁하도록 편집부에서 결정했기때문에 그럽니다.》

《벌써 한편 썼는데요. 이 원고입니다.》

《좀 보여주셔요. 네?》

봉례는 반가와했다.

《그런데 이건 소책자로 나갈겁니다. 그러구 다른걸 쓸 시간은 없고…》

《몇매나 됩니까?》

《70여매!》

《마침 잘됐어요. 그걸 한 절반으로 줄여주실수 있지요, 네?》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기준은 완곡하게 거절했다.

《아이참, 야단났네.》

봉례는 사정이 딱한듯이 말했다.

《전체 조선인민의 전투강령으로 되는 그 정강이 로동자들에겐 아직도 잘 침투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요?》

《신문사가 무얼 했단 말입니까?》

기준이 힐난하는 어조로 말하자 봉례는 무안해했다. 잠시 입을 다물었으나 다시 애원하듯 했다.

《그러니 어쩝니까, 네?》

《봉례동무가 쓰시지요.》 하면서 외출할 차비를 차린 안철이 문앞으로 걸어갔다.

《봉례동무가 못 쓰시겠거든 다른 산별 선전부에 부탁하시든가…》

《사실은 익숙하게 써주실분을 선택해서 부탁하는거랍니다.》

《어이구, 더군다나…》

기준은 나자빠지는 태도였다.

《정말입니다. <조선인민보>를 비롯해서 민주주의적인 신문이 셋이나 한꺼번에 페간을 당했으니 저희도 생각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 사상이 잘 침투되도록 쓰실분이 많지 않아서 그럽니다.》

《난 문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준의 말에 봉례는 기가 질린 모양이였다. 잠시 서성거리던 안철은 문을 열고 나가면서 《기준동무를 단단히 잡으십시오.》라고 한마디 했다.

방에 남은 두사람은 잠시 묵묵했다.

그 분위기가 어색해서 기준은 《오늘부터 정강해설을 위한 선전대가 나가는줄 아시지요? 봉례동무는 어디시던가요?》 하고 물었다.

《조선생사공장입니다.》

《그럼 우리 산별산하로군요.》

《그러니 저희 신문일도 좀 봐주세요.》

봉례는 집요했다. 기준은 랭랭하게 앉아있다가 문득 사업과 자기 생활을 혼돈하면 안된다고 한 허인기의 말을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확실히 어떤 사감에 사로잡혀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선생님!》

봉례는 기뻐서 돌아갔다.

(역시 좀 해쓱해졌구나. 그러나 두볼은 피빛점이 있는 수밀도처럼 불그스레하다. 헌데 어째서 일주일이나 안 나온 사연을 말하지 않을가? 물론 나도 묻지는 않았으나… 그리고 꼭 내게 말해야 한다는 법도 없기는 하나 좌우간 녀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뻔뻔스러운것일가? 단도직입적으로 야유를 해볼가? 아니다. 그건 더욱 쑥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생각이 봉례와 마주앉은 시간을 단축시켰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산업건설부 동무하고 동광방직으로 나갑니다. 밤늦게 돌아오더라도 래일 써가지고 나오지요.》 했었고 봉례는 《몸도 약하신데 무리한 부탁드려서 안됐어요. 정말… 꼭 신세를 갚을게요.》라고 명랑해져서 말했던것이다.

혼자 남은 기준은 뒤짐을 지고 실내를 서성거리다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현정너머의 하늘이 무척 길고 큰 프랑카드를 둘러친듯이 노을에 물들어서 그 빛이 이쪽에까지 반사되였으나 거리는 이미 바다속같이 침침해지고있었다.

4

이튿날 기준은 약속을 리행했다. 신문사에서 매우 좋아했고 봉례는 자기 일을 해준것처럼 감사히 생각하는것 같았다.

그후 기준은 한동안 봉례와 만날 기회가 없었다. 20개조정강을 선전하기 위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있었을뿐아니라 쏘미공동위원회가 무기휴회로 들어갈것이 뻔히 내다보이고 그와 함께 미군정의 탄압이 로골화됨에 따라 며칠, 아니 남은 5.1절을 계기로 그 선전대들은 밤잠 안자고 활동을 해나가야 했다. 그래 기준은 기준대로, 봉례는 봉례대로 바빴으며 한편 5.1절기념행사의 준비도 진행해야 했던것이다.

5.1절기념대회는 20만 가까운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였고 기세드높은 시위가 있었다. 군중들은 한결같이 **김일성**장군님께서 발표하신 20개조정강을 받들며 남조선에서도 북조선과 같이 모든 민주개혁을 즉시 실시할것과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촉진시킬것을 주장했다.

1.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2. 토지를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라!
3. 로동자에게 8시간로동제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라!

…

등등 인민의 절실한 요구는 거리거리에 나붙거나 꽃보라처럼 공중에서 날으는 삐라로 시내와 시외에 퍼졌으며 시위에 참가한 군중들의 우렁찬 육성으로 웨쳐졌다.

그러나 미군정당국은 남조선에 상륙하던 그날부터 식민주의를 실천하기에 눈이 뒤집혔던것이다.

5.1절이 지난지 며칠 되지 않아 쏘미공동위원회는 미국대표의 악의와 불성의로 말미암아 드디여 무기휴회로 들어가고말았다.

공동위원회에다 별반 희망을 걸지 않고있던 허무주의적인 소시민들도 막상 그 소식이 전해지자 실망에 빠져버렸다.

공동위원회가 무기휴회를 선언한지 일주일쯤 후였다. 종로 네거리까지 나갔다가 그길로 전차를 타고 조선생사공장이 있는 로량진으로 나가려는 길에서 리기준은 나란히 걸어가는 변승룡 그리고 시인 송재로와 마주쳤다.

《오, 오래간만일세.》

두사람이 음성을 합쳐서 웨쳤다.

《오래간만일세.》

《리형, 잘 만났소.》

송재로가 말했다. 그러나 잘 만날것도, 아무것도 없을거라고 생각한 기준은 심상한 어조로 《어디들 가는 길인가?》 하고 물었다.

《잘 만났다니까.》

송재로가 거듭 웨쳤다.

《지금 변선생의 취임턱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 동행하게 됐으니 말이지.》

《취임턱이라니?》

기준이 물었다.

《쓸데없는 소리야.》

변승룡이 얼버무리자 송재로가 진상을 말했다.

《그럼 대학선생님으로 부임하고도 그냥 쓱싹하겠단 말인가?》

《어느 대학이야?》

기준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그러면서 변승룡에게 어디인지 달라진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늘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던 그의 손아귀에 교수용가죽가방이 쥐여져있었던것이다. 송재로는 무슨 말을 하려는 변승룡을 막다싶이 하면서 대답했다.

《아니, 아직 모르나요? 동양대학이야. 오늘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됐네.》

변승룡이 변명하듯이 말했다.

《이제야 바랄게 있나, 정세도 급변해서 반동들이 날뛰게만 됐으니 될대로 되라지, 빌어먹을…》

《이야긴 그만하고 어서 실천해.》

송재로가 재촉했다.

《변선생은 늘 세상을 해석하고 리해하기만 허거든. 자, 어서 실천…》

《좌우간 가세.》

변승룡도 끌었다.

(동양대학이라구? 음, 그 신목사가 경영하는 대학이로군. 알만 하다. 신용길이 《민주의원》에 드나든다는데 리승만이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의원》패에 붙었구나. 허기야 무슨 구실이 있겠지. 구실을 마련해가지고 들어갔겠지?!)

《그런데 난 못 가겠는걸.》

기준은 그들에게 거만하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적당히 실례할수 없는가 생각하면서 말했다.

《사실은 급한 볼일이 있어서 로량진으로 나가는 길이야, 안됐는데…》

《자네 로동조합에 있으니까. …》

변승룡이 말했다.

《그런데 있으면 잘 알겠네그려. 이젠 공동위원회의 길이 영 막히고 만건가? 앞으로 무슨 도리가 또 있는건가?》

《글쎄, 아무튼 휴회라니까…》

《제길 망했어, 망해! 어디서 좀 이야기나 하세그려.》

변승룡이 거듭 붙잡았으나 기준은 굳이 사양했다.

《정말 안됐네. 다음 기회에 하세.》

《그럼 그러세. 한번 련락하게.》

변승룡은 악수를 청하고 돌아서면서 《허봉례양도 잘 다니나?》 하고 물었다.

《응. ─》 하다가 《그건 자네가 잘 알게 아닌가》라고 할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들과 헤여져 전차에 오른 기준은 우연히 만난 두사람에 대하여 생각했다. 변승룡이가 대학선생이 되였다는것은 새로운 소식 갈지가 않았다.

기준의 머리속에는 몇마디씩 주고받은 말중에서 송재로가 변승룡은 항상 세상을 해석하고 리해한다고 한 말이 떠오를뿐이였다. 깊이 생각지 않고 한 말 같았으나 변승룡에 대한 합당한 말이였다. 그러나 더 적절하게 말한다면 세상을 해석하고 리해함에 그치기는 하지만 변승룡은 그나마도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해야 하리라 생각했다.

공동위원회의 휴회는 확실히 일반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갖다주었다. 반동은 기를 펴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눈에 뜨일 정도로 으시대고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경찰들과 부랑배(거의다 테로패들이였다.)들이 날뛰는 눈꼴사나운 꼴로 나타나고있었다. 그자들은 쏘미공동위원회가 파탄된것을 유일한 경사로 여겼다.

조선의 통일독립을 방해한 미제와 그 주구들도 같았다. 미군정은 리승만역도로 하여금 이제야말로 조선이 독립할수 있는 기회가 온것처럼 선전하게 했다. 단지 선전하게 할뿐아니라 갖가지 수단을 써서 인민대중을 로골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다. 각 공장의 로동자들은 별 리유없이 내쫓기기 시작했다.

리기준이 조선생사공장으로 나가는것도 그 공장관리인이 5.1절시위에 로동자들을 끌어냈다 하여 분회책임자를 해고한 실정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

공장실정을 조사한 기준은 한시간쯤 후 분회사무실을 나섰다.

막 공장문을 나오는데 《선생님!》 하고 허봉례가 달려들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동광방직까지 갔었어요. 꽤 멀어요. 여기서도 5리는 돼나봐요.》 하면서 허봉례는 손수건으로 땀을 씻었다.

《무슨 일로 가셨던가요?》

《거기서도 시위에 나갔다고 관리인이 시비를 한답니다.》

《그건 압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한 직포공이 공장장에게 구타를 당했답니다. 꼭 기사를 내야겠어요.》

《험악하군.》

《정말 험해요.》

《한이 있겠지.》

기준은 혼자말처럼 중얼댔다.

두사람은 최근 섬유공장들에서 일어나는 불상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걸어갔다. 투박한 겨울양복으로부터 대번에 흰 여름양복으로 뛰여넘을수밖에 없는 형세인 리기준은 이맘때가 그중 난처했다. 아직 겨울양복인 그는 땀이 나서 온몸이 끈적끈적했다.

봉례는 먼지길을 걸어오느라고 뿌옇게 된 구두를 내려다보며 걸었다. 한강철교앞까지 오자 봉례가 물었다.

《급한 일 없으세요?》

《별로…》

《그럼 물구경하면서 다리를 걸어 건늘가요?》

《아무렇게나 하지요.》

속으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온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기준은 전차정거장을 지나 철교로 들어섰다.

다리로 들어서자 먼지도 없고 사람도 드물었을뿐아니라 강바닥에서

불어드는 바람이 제법 시원했다. 강우에는 그럴 경황이 없다는듯이 뽀트 한척 뜨지 않았고 묵직한 푸른 물줄기를 따라 돛배가 한척 마포로 향해 노를 저을뿐이였다.

번쩍거리는 강우는 눈이 부셨다. 기준은 발앞을 내려다보고 걷다가 봉례의 마음을 떠보려 했다. 그래 불쑥 《변승룡이를 언제 만나셨는가요?》 하고 묻고는 힐끔 곁눈으로 그 녀자의 표정을 엿보았다.

봉례는 심상하게 《네— 언제던가, 벌써 한달이나 될거예요.》라고 대답했다.

《그후에는?》 하고 또 기준은 봉례의 표정을 훔쳐보았다.

《못 만났어요.》

봉례는 여전히 심상한 대답이였다. 그러나 몇발자국 걷다가 그렇게 묻는 말이 의심스러운지 《왜 그걸 물으세요?》 하고 기준을 쳐다보았다.

《아니요. 그저…》

기준은 얼버무렸다. 어떻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하는것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불쑥불쑥 물어본 기준은 다음 더 물어볼게 없어졌다. 하지만 소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그 정도로 말을 끊을수 없어서 다우쳐 물었다.

《변승룡이 동양대학 선생이 된걸 모르시나요?》

《대학선생님이 됐다나요? 몰랐어요.》

봉례는 이렇게 시치미를 떼는것 같더니 잠시후 다시 기준의 얼굴을 면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 심문하시듯이 물으세요, 네?》

기준은 덤덤했다. 덤덤할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말문이 막히도록 자신을 몰아넣었던 그는 자기가 미욱하기 짝없게 생각되였다. 이제는 한마디를 더 물어볼수밖에 없게 되였다.

《일주일이나 안 나오시길래 두분이 련애하는줄 알고 그랬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트인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로 기준은 정작 피할수 없는 골목으로 들어서버렸다.

봉례는 거의 멈춰서다싶이 하고 《련애요?》 하고 되물었는데 그 녀자의 얼굴은 수치스러운 생각때문인지 금시 홍조가 떠올랐고 누구를 비웃는듯 한 표정으로 내민 아래입술의 붉은 자위를 꼭 물었다.

그러나 잠시후 봉례는 다시 랭정한 마음으로 돌아간상싶었다.

몇발자국 묵묵히 걷다가 《전에 일주일동안은 매일 한번씩 서대문차를 타고 적십자병원에 다닌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굳이 강조하려는 어조도 아니였다.

(그렇구나. 정말 병을 앓았었구나.) 하면서 기준은 남을 의심한것이 무안해졌다.

(한번도 문병은 안하고 쓸데없이 사람을 오해했구나. 잘못했는걸…)

기준은 미안한 마음으로 《그건 롱담이고요. 련애하는게 뭐 나쁜일인가요?》 하고 변명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속은 벌써 이 령리한 녀자에게 다 털어보인것이나 다름없이 되였다.

옹색해진 기준은 등에서 땀이 흘렀다.

《허기야 그렇지요.》

기준은 자기의 옹졸한 생각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러한 사회제도에서야 진정한 련애란 있을수 없겠지요.》

《그럴가요?》

봉례가 물었다.

《진실한 련애는 행복해야 할겁니다. 허지만 불행한 사회제도아래에서 어찌 행복한 련애를 할수 있겠습니까? 없을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선생님!》

봉례가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둘이 다 지배계급을 반대하는 운동을 한다고 하지요. 그들에게는 물론 행복한 생활이 없습니다. 마땅치 않은 음식과 불편한 잠자리, 어디를 가나 위험한 지대고 스산하지요. 허지

만 그 부부가 가령 열흘에 한번씩 약속한 장소에서 만난다고 하세요. 사상이 같고 둘이 다 젊고 희망과 포부가 한곬이고 그리고 서루 사랑하는 사이니 그들은 만날 때마다 얼마나 사랑의 불꽃이 튀겠어요, 그게 진정한 련애가 아닐가요?》

기준은 잠자코 듣기만 했다. 무어라고 대답하려 했으나 한강철교만 건느자던게 어느덧 삼각지근처 사람이 들끓는데까지 왔다. 몰려드는 사람들때문에 더 이야기를 할수 없었고 마침 전차가 와섰으므로 두 사람은 달려가 차를 탔다.

요컨대 나의 련애관이 그릇됐단 말이지? …

기준은 봉례와 나란히 전차손잡이를 잡고 서서 생각했다.

(아니, 봉례는 상당히 령리한 말같이 했지만 사실은 공상이야. 그렇지 않구, 공상이지!)

기준은 옆에 서있는 봉례의 바람에 흩어져내린 머리칼이랑 한번 접어올린 소매속으로 보이는 흰 팔뚝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오늘 저녁 회관에서 함께 나오자고 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하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기준은 역시 봉례와 함께 나갈수 없었다. 기준이 사무실로 들어서자 안철은 약 한시간전에 동광방직에서 더욱 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분회책임자외에 각 직장에서 한사람씩 쫓겨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여섯시까지 그 공장의 분회위원들이 산업건설부에 모이기로 되여있으니까 꼭 참가하라고 했다.

벅찬 투쟁이 전개될 전야만 같았다. 한강철교를 건느면서 봉례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일은 단지 기준의 청춘시절의 한 추억으로만 남게 될는지도 몰랐다.

5

비교적 큼직한 방을 차지한 산업건설부안에 빽빽이 사람이 모여들었다. 분회책임자 최영수와 분회위원들인 정형규를 비롯하여 기준이 처음 공장으로 동호를 찾아갔을 때 잠간 만났던 키가 작달막한 김인석, 하이칼라머리로 빗어넘긴 리영춘, 김창길, 리화순 그리고 열성로동자들이 모여들었다.

마라초연기가 매캐하게 코를 찌르는 속에서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더냐는것처럼 껄껄거리며 웃기도 하고 정형규와 김인석은 야야, 이것이것 하면서 팔씨름을 하고있었다. 몇사람은 창턱에 기대여 밖을 내다보았다.

리기준은 팔씨름을 하고난 두사람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실내는 갑자기 긴장된 공기에 휩싸였다. 산업건설부장 박태상은 최영수에게 그날 일어난 일들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라고 했고 실정을 잘 료해한 후에 대책들을 강구하자고 했다.

그날 동광방직공장에서 일어난 사실들은 다음과 같았다.

점심고동이 울기 직전 공장장 장시창이 눈을 부라리고 전날 기준이가 기숙사방에서 만났던 눈이 쌍까풀진 직포공 고정자의 뺨을 친것이 한가지 불상사였다. 뺨을 친 리유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였다. 고정자의 옆을 지나가던 장시창이 《야, 기계가 건성 돈다. 건성 돌아! 무엇에 정신이 팔렸어, 응?》 하고 정자를 보고 소리쳤다.

정자는 못 들은체 하고 추 드나드는것만 보는데 장시창이 《들었어?》 하고 정자의 등을 쳤다.

정자는 홱 돌아서서 대들었다.

《무에 잘못됐어요? 왜 사람을 치는가 말이예요, 네?》

그러자 공장장은 다짜고짜로 그 녀자의 뺨을 친것이다. 의외의 봉변

을 당한 정자는 분이 치밀었다.

《왜 때려요, 왜 때리는거예요?》

이러한 고함에 호응하여 근처의 직포공들이 제가끔 왜 때리느냐고 소리들을 질렀다. 직포 2반 동무들의 작업이 혼란케 되였고 성미가 괄괄한 정자는 공장장에게 더 대들려 했으나 마침 근처에서 기름을 치고있던 기계공 유인선이가 그것을 가로막았다. 기름통이 쓰러져 세멘트 바닥이 랑자해지는것도 보지 않고 그는 공장장앞에 턱 버티여섰다.

《왜 사람을 때립니까? 말로 해도 족하지 않겠습니까?》

《넌 무슨 상관이냐, 엉?》

《볼성사납구료!》

《일 안하고 그런거 보랬니? 임마!》

《임마라니?》

《야, 이놈이? 이리 오너라!》 하고 공장장 장시창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유인선은 그의 뒤모양을 훑어보다가 기름통을 집어들고 기계실로 가버렸다. …

또 한가지 사건은 동광방직분회로서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큰 타격을 받게 된 일이였다.

그날 아침 최영수와 김창길, 리화순 세사람은 분회를 대표하여 지배인 김동호를 만났다.

문제는 이전부터 요구하고있던 임금인상을 최종적으로 아퀴짓기 위해서였다.

언제나 그러했던것처럼 그들은 조금도 희떠운 기색을 보이지 않고 현재의 임금으로는 이 이상 더 견딜수 없으며 생존할수 없다는 극히 겸손한 요구를 했다.

《살아갈수 없다고?》

동호는 그 감때사나운 눈을 부라렸다.

《그게 직공들의 일찌한 의견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최영수가 온순한 태도로 대답했다.

《일찌한 의견이라고? 다 알고있어. 5월초하루날은 왜 직공들을 다 끌어내다가 길바닥에서 허갈(거짓으로 위세를 부리여 공갈하는 것)을 하게 만들었어? 그것도 일찌한 의사였는가 말야? 다 알고있단 말야!》

김동호의 거무데데한 얼굴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너무 기가 질려서 덤덤히들 섰는데 리화순이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역정을 내실게 아닙니다. 메데는 로동자의 명절이 아닙니까? 로동자의 명절날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로동자들이 이날을 기념하여 시위행진을 하잖습니까, 그게 잘못됐습니까?》

《명절? …》

동호는 웨쳤다.

《그래, 명절이니까 제 맘대로들 날뛰였군그래, 무어? 로동운동의 자유를 달라? 또 무어? 공장을 우리 손으로 지키자? 또 있지. 공장을 파괴하려는 민족반역자를 어쩌자던가? 아니, 그렇게 기를 쓰고 부르짖는게 명절인가?》

《그게 잘못된게 있습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서있던 최영수는 지배인을 찾아온 일이 이번에도 허사였다는것을 직감하면서 이같이 따져물었다.

《잘됐어. 잘돼! 맘대루들 날뛰라니까… 더 얘기할게 없소!》

저쪽이 이왕 그렇게 나온바에는 한바탕 시비를 따져볼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앞일이 고려되여 세사람은 지배인실에서 나왔다.

그런데 오후 4시(구타사건이 있은걸 알고 허봉례가 취재하러 왔다가 막 떠난 뒤)쯤 휴식시간에 로동자들이 공장게시판앞에들 모여섰다.

타면공 최영수

타면공 김창길

기계공 유인선

직포공 리화순

이상 4명은 작업상 지장이 다대하므로 인하여 금일부로 본 공장에서 해고하기로 결정함.

서무과

아직 먹이 마르지도 않은 이러한 광고가 게시판에 나붙었기때문이였다. 그 네사람은 서무과로 가서 시비를 가리려 했으나 서무과에서는 지배인에게 밀고 지배인은 서무과로 가보라 하여 도무지 상대를 하지 않았다. …

이상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난 최영수는 분개한 어조로 《그 친일파놈들과 이 이상 상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락일이나 차코브슨과 직접 담판해야 할겁니다. 김동호는 로보트입니다. 보통방법으로는 하나도 해결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정자를 모욕한 작은 돼지(로동자들은 동호를 큰 돼지, 장시창을 작은 돼지라고 했다.)의 무지막지한 버르장머리에 의분을 느낀 유인선은 열성로동자로 회의에 참가했는데 그는 분회위원장의 말이 끝나자 벌떡 일어섰다.

《공장사무실것들은 하나도 사람 같은게 없습니다. 로동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자들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파업을 단행해야 하겠다는 동무도 있었다.

그때 정형규가 《파업이 급하지 않습니다.》 하며 일어났다.

《우리는 또 한가지 이야기해두지 않으면 안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에는 결근자가 많다는 핑게로 정체모를 사람들을 채용하고있습니다. 벌써 여섯명이나 기여들어왔는데 기계공이라는 새우눈을 비롯해서 타면에 둘, 창고에 둘, 수위의 최봉식이란자, 이런자들이 대한로총의 앞잡이입니다. 이자는 조선인민보를 습격한 테로단의 한놈이였습니다. 동무들은 그까짓것 몇놈 안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만 바

짝 경각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미 대한로총이 들어왔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아니, 들어왔습니다!》

《대한로총》이 동광방직에도 발을 붙이려고 한다는 사실은 이미 최영수, 정형규들과 산별중앙지도부에서는 알고있었다. 그러나 정형규는 이번 기회에 분회위원들뿐아니라 전체 로동자들에게 신호를 주지 않으면 안될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꺼낸것이였다.

산업건설부장은 정형규의 말을 받아 이 문제부터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한로총》이라는게 결코 로동운동을 하는 조직인것이 아니라 반동정치배들의 고용테로단으로서 제아무리 애를 써도 로동자들의 리익과 부합되지 않는 이상 군중토대를 가질수 없다는것을 이야기한 다음 그러나 이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고도의 경각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될것을 강조했다. 그는 종연방직종업원들이 그런 분자들을 과소평가하고 파업에 돌입했다가 테로를 당했으며 결국 파업이 실패까지 한 례를 들어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날 산별중앙에 모인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선후책을 토의하고 분공하였다.

1. 김동호나 공장장을 상대로 해서는 문제가 점점 엉키기만 하겠으므로 산업건설부장 박태상, 선전부장 안철 두사람이 산별로조를 대표하여 관리권을 행사하고있는 백락일과 군정청 바르버섬유과장을 방문하고 직접 선후책을 협의할것,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군정청 상업부고문인 차코브슨을 찾아갈것.

2. 선전부에서는 동광방직의 부당한 해고사건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기사를 각 신문에 보도하는것을 조직하는 한편 동광방직분회로 하여금 20~30매의 선전문을 작성케 하여 공장내 눈에 띄우는 장소들에다 붙이게 할것.

3. 목적은 어디까지나 산업건설과 민주제도를 쟁취함에 있지 파업에 있는게 아니다. 그러므로 파업선동을 시작하는것은 경솔한 일이다. 해

고를 당한 네사람은 계속 분회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수시로 무단해고에 대한 항의를 하되 분회위원장사업은 정형규가 담당하기로 할것.

4. 《대한로총》의 책동과 동태를 부단히 장악하기 위하여 분회위원회는 각반에 감시망을 조직하고 그들을 감시하게 할것. 특히 통보사업을 강화하고 각반 반장들은 그때그때의 동향을 위원장 정형규 또는 산별중앙의 리기준에게 보고할것.

…

기준이 맡은 사업은 벅찬 일이였다. 선전사업은 전평신문이 있고 다른 신문들에도 친구가 많아서 비교적 수행하기 헐했으나 《대한로총》의 동태와 책동을 제때에 알아내는 일은 간단치 않았다. 사무실에서보다 공장가까이에 더 많이 있어야 했으며 그때그때의 림시대책까지도 세울수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같은 일을 맡은것은 기준에게 있어서 분회위원들을 더 깊이 료해하고 로동자들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아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대체로 점심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보다가 기준은 공장이 파할무렵부터 형규네로 가앉기로 했다.

정형규의 집은 다복솔에 덮인 산비탈에 외따로 선 한일자모양의 집이였는데 형규의 방인 건너방 문을 열면 먼발치로 서울과 인천사이로 뻗은 신작로가 보였고 신작로너머로 공장정문이 바라다보였다.

낮동안은 백발이 된 그의 로모가 진종일 말도 없이 부엌일도 하고 뜨락도 치우고 나무도 해오고 했다. 구두수리를 하는 그의 부친 정령감은 어두워서야 신기료(이전에 신발수리를 이르던 말)방을 닫고 막걸리에 얼근히 취해서 돌아오군 했다.

3~4일동안 기준은 분회위원들과 매일 만나다싶이 했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 해고당한 네사람도 풀이 죽거나 딴 생각하지 않고 공장으로들 모이군 했다. 나흘되던 날 저녁 정형규가 쌍까풀이 진 직포공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녀자는 기준이가 있는것을 보고 주춤거렸다.

《고정자동무입니다.》

정형규가 소개했다.

《우리 만난 일이 있지요. 들어오시오.》

기준이 말했다.

《그래 공장장한테서 욕을 보셨다더니… 무어 일없습니다. 그런자들 아예 인간으로 치지 않으면 됩니다.》

방으로 들어온 정자는 아직도 분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지 시무룩한 표정으로 한쪽구석에 앉아있었다. 전에도 그렇게 보았지만 피기가 없고 어디인지 모르게 피로한 빛이 떠돌아서 바탕이 고운 얼굴도 뒤틀린상싶었다.

《고향이 어디, 충청도라고 했던가요?》

《수원입니다.》

《참, 수원이랬지. 그래 고향생각이 나지 않아요?》

정형규가 나무를 패고 세수를 하는 동안 기준이 이것저것 물었다. 정자는 나이도 그럴 나이였지만 원래는 역시 쾌활한 녀자임에 틀림없었다. 처음은 좀 수줍어하다가 말문이 터지자 시원시원히 이야기를 했다.

《고향이래야 누가 있어야 생각도 나지요. 부모도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이 외토리랍니다.》

《친척도 없나요?》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징용으로 끌려나가 오끼나와비행장을 닦다가 폭격에 돌아가셨답니다. 소학교 4학년까지 보내주던 고모마저 돌아가자 동무들하고 이 공장으로 팔려왔었답니다. 저희는 서호근처에 살았어요. 저희 집뒤에는 감나무들이 있고 거기서 멀지 않은 호수가에는 갈대가 길길이 자라납니다. 여름, 가을이면 들국화랑 등꽃도 피지만 이름모를 꽃들이 수태 많이 피지요. 저는 그 갖가지 꽃을 꺾고 놀았습니다. 빨갛고 큰것도 있고 회색꽃도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꽃잎이 보이는 아주 조그만 흰꽃도 있어요. 다 각각 다른 꽃들이지만 모두 아름다왔습니다. 그런 꽃들을 한웅큼씩 꺾어

들고 호수가로 다니면서 창가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슬픈 곡조가 부르기 좋았어요. 백원을 받고 공장으로 팔려갈것을 알고있기나 한듯이 저는 기쁜 노래를 부르기 싫었어요. 그렇게 호수가로 다니며 발등을 내려다보고 창가를 하던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래도 생각나는게 있으니 역시 고향은 고향인가보지요.》

《그럼 공장에서 몇해 일했나요?》

《여기 와서 3년 돼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럼 공장에 온 후 밤낮 그 호수가가 생각났겠지요?》

《매일 울다싶이 했지요. 그리고 얼른 키나 커지면 저 기숙사담을 뛰여넘겠는데… 하는 생각뿐이였습니다. 허지만 1~2년 지나 저보다 어린 동무가 수백명씩 들어와있게 되자 저절로 어른이 돼버렸어요. 우는 동생들을 달래야 하고 제 몸이 아파도 그 동무들 먼저 돌봐주게 됐으니까요. 저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걸 읽고 저는 좀 철이 든것 같았습니다. 그전의 슬픔은 모두 자기 한사람의 슬픔이였지만 이제는 그게 우리들모두의 슬픔이라는걸 알았으니까요. 그래 이번에 작은 돼지한테 맞은것도 제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고 생각했기때문에 덜 분하기도 하고 그렇기때문에 더 분하기도 하답니다.》

기준은 아무 눈에도 띄지 않았던 한떨기 이름모를 꽃을 발견한것 같았다. 정자를 지도해야 한다. 분회에서 좀더 이 녀성동무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몸이 불편한것 같군요.》

《직포공들은 대강 위병하고 폐병입니다. 저도 위를 망쳤는데 시장하면 더 아파와요.》

그때 정형규가 들어와서 《그래, 요즈음은 기숙사동무들이 어떻게 지냅니까?》 하고 물었다.

《전이나 다름없지요.》

《그런 말 듣자고 오시라는게 아닙니다. 이번 무단해고사건을 어떻게들 생각하는가 말이지요.》

5년동안이나 제관공노릇을 하던 정형규는 로동생활에 단련돼서 그런지 뼈대가 굵었고 언제나 억세여보였다. 기준은 가끔 그가 끼니를 건늬는것을 알고있었으나 그럴 때도 그는 노그라지는 기색이 없었다.

기준은 그것이 자기 부모에게서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로모는 진종일 허리를 펴지 않고 집을 거두었다. 더우기 그의 부친은 한잔 얼근해서는 이따금씩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도 아닌듯 혼자 꺽꺽 트림을 하면서 《난 암만 늙어도 자식 신세 지느라고 피롭히진 않을터다. 제힘으로 못살게 됨 죽어여지, 죽어여 해!》 하고 중얼댔다.

《리선생은 돈있는 놈들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러한 질문을 들이대기도 한다. 그리고는 자기가 대답했다.

《도적놈들이요, 도적! 남의 신발에다 징이나 탕탕 박아주는게 훨씬 정직하지.》

모친의 부지런함과 부친의 이같은 락천적인 성격을 물려받아서 형규는 도량이 컸다.

《정자동무, 어째 말문이 막혔어?》

《아이참.》

정자는 말했다.

《모두 반대지요, 뻔한 일 안예요.》

《여기 리선생님도 계신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깁니까?》

《내가 무슨 심판관인가?》

기준이 웃음을 띠우며 말했다.

《이 기회에 공장측의 부당한 처사들을 충분히 해설선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고 이번 기회에 말입니다. 비관주의를 단단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리선생! 녀성동무들도 누구나 공장간부측이 나쁜줄이야 알지요. 허지만 다 내 팔자야, 이렇게 되는것도 다 내 운명이야.

… 이따위 식으로들 마주 털어놓고 비관주의에 빠지는데 바루 이것이 우리의 일에 큰 지장을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자동무!》

정형규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정자는 시인했다.

《허지만 분회가 조직된 후부터는 아주 달라졌어요. 우리들도 나날이 달라지고있다는걸 아세요.》

《그럼 다행이지요.》

《앞으로 더욱 달라질겁니다.》 하더니 정자는 또 위가 아파오는지 입술을 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뜰에서 저벅저벅 발소리가 나더니 《형규 있소?》 하면서 분회위원 김인석이 들어왔다. 방으로 들어온 그는 반쯤 피우던 담배를 꺼서 후후 불어 주머니에 넣고 기준에게 말했다.

《문제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어째서요?》

《해고당한 네명대신 래일부터 딴 녀석들이 들어온답니다. 서무과의 급사로 있는 옥자가 조금전에 넌지시 귀띔을 해주더군요.》

알만 한 일이였다. 그러나 선수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기준은 울컥 무엇인지 가슴을 떠받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어물어물해서는 안되겠다. 우리만 계급투쟁을 하는게 아니다. 우리의 투쟁대상인 예속부르죠아지들은 간악하고 교활하지 않느냐?!

《<대한로총>이예요.》

정자가 웨쳤다.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되니 이게 무슨 판이람…》

인석이 두덜댔다.

그러자 《무어요?》 하고 정형규가 소리를 쳤다.

《그게 조선사람끼리 싸우는것인가? 조선인민과 미제국주의자들이 싸우는거요. 대한로총이란 미군정청과 한통이요. 그것을 똑똑히 알아야 하오. 인석동무!》

그렇다! 전체 종업원들이 그것을 똑똑히 알아야 했다.

인석은 덤덤히 앉아있었다. 형규는 말을 이었다.

《전체 종업원들이 그것을 똑똑히 알도록 해야 하오. 우리의 투쟁은 단지 우리 공장 종업원들의 생활만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인민의 나라, 민주주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을 상대로 싸우는것이라는걸 똑똑히 알도록 해야 하오. 그러기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의의깊고 힘이 센것이요!》

인석이도 고정자도 형규의 말을 신중히 듣고있었다.

이튿날 아침 기준은 최영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최봉식이라는 테로패 수위는 그날 아침 해고당한 네사람이 아무리 주장했어도 그들을 공장안에 들여놓지 않았다는것이였다.

6

박태상과 안철은 며칠동안 밖으로 나다녔다. 첫날과 이튿날은 군정청과 《대한민족당》 사무실을 두차례씩 찾아갔으나 영 본인들을 만날수 없었다.

사흘되던 날 아침 그들은 드디여 백락일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날수 있었다.

마침 그때 백락일은 조석우와 마주앉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각처에서 회의를 하겠으니 와달라지, 손님은 쉴새없이 찾아오지, 게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바쁘니, 체! 얼굴이 말이 아니 됐단 말입니다.》 하고 두덜댔다.

조석우도 뒤질세라 《천만에요. 일없으십니다. 요지음은 되려 신상이 더 좋으신것 같습니다. 나야말로 요새 같아서는 입맛이 없고 속이 답답해서 사이다 같은것만 마시고 사니 내, 원…》 하고 우는소

리를 했다.

《피차 그렇군요.》

백락일은 말로는 이렇게 수긍했지만 속으로는 (웬걸 사이다만 마셔? 턱밑에 또 턱이 생겼는데 그래, 반년전만 해도 없던 비게가 아니냐!) 하고 생각하면서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그때 박태상이 앞서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들이 로동조합에서 왔노라 하자 백락일은 짐짓 목청을 가다듬었다.

《요지음 상당히 바쁩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실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하며 안철이 입을 열었다.

그는 동광방직에서의 구타사건과 무단해고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무단해고를 취소하는 동시에 루차 공장측에 제기한 임금인상도 이번에 함께 고려해주어야 하겠노라 했다.

《글쎄올시다. 임금을 올려줄 마음이야 아마 당신네들보다 내가 더 간절할것이외다. 그럴것이 우리는 직접 직공들을 데리고있고 당신네들이야 그만해도 한다리 건너가 아니요. 생각해보시오. 팔이 들이굽지 내굽겠소? 나는 직공들을 온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외다. 나는 직공들에게 욕 한마디 해본 일 없는 사람이외다. 글쎄, 구타했다니 나는 모를 일이고 무단해고도 난 처음 듣느니만큼 어디 알아나보잔 말입니다.》

《해고한걸 그래 모르십니까?》

박태상이 물었다.

《난 모릅니다.》

《그러시다면 리유없이 해고한 지배인의 처사를 취소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해고당한 사람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그리고 현재 로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해방전 그대로인것도 모르십니까?》

《그건 알고있소이다.》

《생각해보십시오. 화폐가치가 종이쪽 되다싶이 됐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 옆에 앉아서 안경만 번쩍이던 조석우가 간참을 했다.

《말씀도중에 실례입니다만 국가경제의 형편이란 어느 한군데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로동자의 임금이 싸다는 사실은 그만큼 리윤도 적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동광방직은 빈민구제단체가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백락일은 역시 조석우가 훌륭한 답변을 한다고 생각하여 자못 만족한 안색이였다. 박태상이 《만약 로동자들이 그 임금으로는 도저히 작업을 할수 없다면 어쩌겠습니까?》 하고 묻자 또 조석우가 답변했다.

《로동의 고갈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박태상이 계속 공격을 했다.

《동광방직의 생산률이 형편없이 저하되고있다는걸 아시지요?》

《그런것까지 념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락일이 말을 받았다.

《허지만 나는 지금 골치가 쏩니다. 우리 재정은 지금 형편없이 돼있습니다. 로동조합에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사정은 좀 봐주지 않으시오?》

《대체 로동조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상이 불끈해서 따졌다.

《좌우간 우선 무단해고한 로동자들이 복직을 하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글쎄, 알아봐야 한다지 않습니까.》 하고 조석우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백락일은 손목시계를 들쳐보고 말했다.

《그럼 언제까지 회답을 주겠습니까?》

안철이 물었다.

《래일 다시 만납시다.》

두사람은 백락일의 방에서 나왔다. 그들은 또 바르버섬유과장을 찾

아 군정청으로 갔다.

약속한 시간에 찾아갔으나 바르버는 한시간이상이나 기다리게 한 다음 통역을 데리고 응접실로 나타났다.

만약 흰자위가 누르께한 눈알을 굴리지 않았다면 바르버의 얼굴은 영낙없이 곰팡이가 낀 떡덩어리 그대로였을것이다. 또 만약 무엇인지 종이쪽에다 연신 적지 않았다면 그의 손은 두마리의 털게로 보였을것이였다. 그리고 또 만약 그가 노상 껌인지 무엇인지 질겅질겅 씹고있지 않았다면 아가리가 붙어버린것으로 생각됐을것이다.

그럴것이 그와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쪽 이야기는 다 듣는 모양이였으나 자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예스(그렇다), 노우(아니다)를 고개짓과 어깨짓만으로 표현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나자 바르버는 비로소 한마디를 하고 나가버렸는데 《잘 알았답니다.》 하고 대신 대답해준 통역도 따라나갔다.

다음으로 만난것은 차코브슨이였다. 그는 하루 한번 두어시간씩 군정청에 나오는지라 만나기가 매우 힘들었다. 박태상과 안철이 그를 만난것은 무려 일곱번이나 찾아갔을 때였다.

차코브슨은 손님과 통역만 앉히고 자기는 서성거리면서 이야기를 듣더니 《오- 그런것 나는 모릅니다. 동광방직관리는 미스터 백락일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 사람하고 절충하십시오. 그 사람 신사이니까 일 잘될겁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와 절충해보려 했으나 그는 로동조합이 무엇인지 리해하지 못할뿐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성의가 도무지 없더라고 한 말에 대해서도 차코브슨은 역시 서성거리며 《그럴리 없습니다. 그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문학도 알고있고 불교철학도 알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의사가 통하지 않았다면 그건 당신네들이 무식한탓이지요. 미스터 백락일은 남을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로동조합에서는 백락일을 관리인으로 보지 않고 관리인대리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보고있는데 그러면 정식 관리인이 백락일이냐고 묻자 차코브슨은 《좌우간 미스터 백 하고 이야기하시오. 동광방직관리를 그에게 다 맡겼다니까요.》라는 대답을 할뿐이였다.

박태상과 안철은 기진해서 2~3일 그들과 만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동광방직사건은 각 신문에 보도되였으며 여론화되였다. 그러한 후에 두사람은 다시 그들을 찾았다.

그러나 차코브슨도 바르버도 도저히 만날수가 없었다. 그들은 로동조합과 만나기를 거절하는것이나 다름없는 태도였다.

백락일이가 《대한민족당》에 있다는것을 알고 두사람은 다시한번 그를 만나러 갔다.

백락일도 미국인들과 같은 태도였다. 사무실안에 있으면서도 외출했다고 했다. 성미가 급한 박태상은 웃층으로 올라가 그의 사무실문을 두드렸다.

백락일은 그들을 만나지 않을수 없었으나 《로형들은 남의 바쁜 사정도 모르고 어째 이러시오? 좌우간 우리는 잘못한게 없소이다.》 하고 나왔다.

그는 동광방직사건을 3단, 4단으로 뽑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하여 차코브슨이 군정장관에게 호소했다는것과 군정청의 명령으로 래일부터 그 신문이 정간될 운명에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소심한 편이요, 겁쟁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백락일이 그렇게 자신있는 표정을 할수 있었던것은 그 까닭이였다. …

안철에게서 그들과 만났던 자세한 경위와 함께 공장이 300만원으로 감쪽같이 백락일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리기준은 기가 막혀서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일은 점점 복잡해지며 커질것이 직감되였다. 가장 많은 시내독자를 가진 《세계일보》가 정간을 당했다는 소식은 더욱 그러한 예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기준을 더욱 흥분케 한것은 기계공이니, 준비공이니 하는 명목으로 새로 기여든 패와 이미 들어왔던 패 10여명이 허드레물건을 넣

어두었던 창고장실 옆방을 치우고 거기다 버젓하게 자기네의 소굴을 꾸미였다는 사실이였다. 그들의 꿍꿍이속은 짐작하고도 남았다.

동광방직공장 1 600여명의 로동자들은 더 참을수 없었다. 해방이 남조선에다 가져다준것은 행복과 자유가 아니라 더욱 심해진 학대와 구속이였다.

공장의 공공재산과 종업원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양으로음으로 미군정패들과 백락일일파에게 거의다 략탈을 당했다.

1 000여명에 가까운 소녀공들의 과반수는 그들자신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다싶이 한 야학반과 합창단에 참가하지 못했다. 책을 들고 누웠다가는 그대로 앓는 소리를 하며 잠들어버리군 했다.

분회위원인 리영춘은 다른 직장의 서분옥과 해방직후부터 사랑하는 사이였다. 두사람은 행복한 세상이 올것과 즐거운 생활을 할수 있게 될것을 믿어왔으며 저녁마다 만나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다. 그것때문에 영춘은 동무들에게 비평도 받았고 하이칼라머리라는 별명도 들었다.

그러나 그 하이칼라로 빗어넘기던 머리도 다시 덥수룩하게 들고 일어났다. 해방직후 좋아졌던 분옥이의 건강은 또다시 나날이 나빠져서 이제 그의 청춘은 행복한 세상을 보지 못하고말것만 같았기때문이였다.

그렇게 건강을 훼손한것은 녀자들뿐아니였다. 남성로동자들속에서도 환자가 속출했다.

어떤 청년들은 공장담벽에다 분회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백묵으로 《노예로동을 거절하자! 파업밖에 할수 없다!》라는 락서들을 했다.

종업원들이 할수 있는 최후의 대책을 세울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종업원대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공장경영주에게 요구조건들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그것을 지배인이 접수하지 않을것이 뻔하므로 파업투쟁위원회의 조직을 준비해야 했다.

긴급하게 소집된 분회위원회에서는 투쟁위원회와 교섭위원을 내정하고 벽보와 선동삐라를 만드는 일과 각 직장 종업원들을 동원하는 일,

만약 파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직전까지와 파업중에 할 선동사업들이 분공되였다. 파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분회위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였다.

《유리창쯤 부시는건 일없겠지?》

영춘이 흥분해서 말했다.

《유리창은 왜? 어디 유리를?》

최영수가 말했다.

《그랬다간 쓸데없이 도발에 걸려. 절대로 안돼!》

《저놈들이 나쁘게 나올 경우에 말야.》

《안되네!》

정형규가 탄했다.

《파업중엔 널판자 한장 부러뜨려도 안되네. 전체 종업원들에게 산업건설을 위해서 단행하는 파업이라는걸 철저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니까그래…》

《알겠네, 알겠어!》

영춘은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다.

정형규는 김인석을 보고 물었다.

《이제부터 할 일 잘 알겠나?》

《알겠네.》

인석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대답했다.

《자네는 언제나 좋은 친구야. 나는 자네게서 숱한것을 배웠네. 나를 두구보게!》

모두들 다짐을 하고 헤여졌다. 모두 약속이나 한듯이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헤여져나오다가 기준은 무슨 생각에 잠긴듯 한 리화순에게 물었다.

《왜 무서운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하면서 화순은 생그레 웃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산업을 파괴하려는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지

요. 그러니 무식한 로동자였던 저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되였다는 영예로운 생각이 듭니다. 처음이예요. 선생님!》

다음날이였다.

리기준은 산별로조를 대표하여 종업원들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였다.

아침 일찌기 일어난 그는 언제나 피로가 풀리지 않은데다 가슴이 들먹거리기까지 하는것을 겨우 진정시키고 공장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공연히 솔선해서 내가 하겠다고 했나보다. 무슨 연설을 잘한다구, 주제넘게!)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준은 자부심을 가졌다.

(아니다. 주제넘은게 아니다. 연설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문제보다 모두 다른 일들을 맡았으니까 내가 하게 되였을뿐이다. 해야 할 일을 기피하는것은 당원의 도리가 아니다. 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성의껏 해야 한다. 그런데 어째 벌써부터 이렇게 흥분상태에 있단 말인가? 또 테로라도 당할가봐 그러나? 천수백명이 보는데서 테로를 할수야 없겠지. 그럼 경찰에게 잡힐가봐서? 경찰이 덤벼들 사이가 있을라고… 침착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준은 로동자속에 섞여도 두드러져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궁리해보았다. 수염을 깎지 않은건 마침 잘됐다. 그러나 뻔뻔한 이마랑 안경을 걸친 품이 아무래도 판에 박은 인테리였다. 맨 샤쯔바람으로 나갈가 하여 샤쯔소매를 걷었다가 도로 내렸다. 어느 로동자의 팔이 그렇게 희고 가냘프랴싶어서였다. 결국 그는 넥타이만 매지 않고 여느날처럼 나갈수밖에 없었다.

무엇때문에 나는 하필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가?

기준은 로량진행 전차속에서 또 생각했다.

좀더 편한 일이 없을가?

그러나 전차가 한강다리까지 오도록 생각해봐도 더 편한 다른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해야 한다는 한가지 큰 전제를 제외하지

않는다면 몇시간을 가며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을것이였다. 그러므로 리기준이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어려운것으로 되여있으며 지금은 다만 그 초입에 들어섰을뿐 몇갑절 더 어려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있을것이였다. 그것을 피해서는 안되며 피할수도 없었다. 전차가 종점에 이르자마자 기준은 뛰여내렸다.

7

그날도 제시간에 작업이 시작되였다. 그리고 김동호는 여전히 지배인실에서 다리를 책상우에 올려놓고있었으며 창고장실 옆방패들은 쥐새끼들처럼 각 직장으로 드나들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고동이 울리자 기계소리가 멎었다.

한시간후 오후작업의 고동이 또 울렸다. 그러나 기계소리는 이미 아주 멎고말았다.

직장으로들 들어가야 할 종업원들이 직장으로 들어갈 대신 운동장으로 쓰는 타면직장앞 넓은 뜰로들 모여들었다. 떠들지들도 않았으나 우울하거나 나른한 기색들도 없었다.

나이먹은 운반공령감으로부터 열대여섯에 난, 아직도 집에서야 응석을 부릴 나이의 소녀공들에 이르기까지 한마음한뜻이였다.

기준은 수위에게 걸렸었다. 그러나 태연한 태도로 《대한민족당》에서 사장의 부탁을 받고 왔노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종업원들이 모인 운동장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모자를 벗어들고 형규를 따라 대돌우로 올라갔다. 그는 벌써 다른 아무 생각도 없었다. 단지 천수백명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목소리로 성실하게 이야기할수 있을가를 생각할뿐이였다. 그는 정성을 다하여 생각하던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는 북에서 진행되고있는 민주개혁을 절대로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북에서는 인민대중이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였으나 미군이 강점한 남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경우가 벌어지고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기준은 자기가 하는 소리가 어렵지나 않을가 하여 되도록 쉬운 말을 고르느라고 애썼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청을 높여서 웨쳤다.

《남조선에서는 미군정이 우리 나라의 산업을 무참히 파괴하고있습니다. 미군정에 붙어먹는 악질자본가들은 이 공장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료는 원료대로, 제품은 제품대로 함부루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공장을 저들끼리 송두리채 팔아먹고있습니다. 차코브슨은 백락일에게서 300만원을 받고 여러분의 이 공장을 팔아먹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로동자들은 모두 웅얼웅얼했고 큰 목청으로 욕을 퍼붓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나라의 산업을 위해서 노력하고있는 우리들에게는 먹고 입을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오직 북조선에서처럼 민주개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민의 정부가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준은 더욱 목청을 돋구었다. 그리고 남조선의 산업을 파괴하고 인민의 정부가 서는것을 방해하는 모든 반동세력과 싸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자고 웨쳤다. 오직 단결만이 우리의 유일한 재산이며 무기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고 웨쳤다.

그가 내려오자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결합시다!》 하고 종업원들은 웨쳤다.

기준은 흥분을 진정시킬수 없었다. 그는 대돌우로 다시 뛰여올랐다.

《동무들! 모두 하나같이 뭉쳐서 악질자본가와 끝까지 싸웁시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을 걷어올리고 주먹으로 허공을 지르

면서 한껏 목청을 높였다.

《동무들! 우리는 승리할것입니다. 북조선동포들이 우리에게 성원을 보내고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행복할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끝까지 싸웁시다!》

로동자들은 제각기 대답했다.

《동무들! 우리에게 한때 불행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 넘어야 합니다. 진리는 승리하며 진리는 우리들 편에 있습니다. …》

기준은 그칠줄을 몰랐다.

최영수가 대돌우로 올라갔다. 그리고 파업투쟁위원회를 조직할것을 제의하면서 투쟁위원회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가 길어지자 《더 설명 안해도 압니다!》, 《속히 조직하고 관리인측과 교섭할걸 제의합니다!》 이렇게들 웨쳤다.

파업투쟁위원회는 최영수의 복안대로 당장 조직되였다. 그리고 교섭위원들도 선정되였다. …

마침 지배인실에 모였던 공장장과 경리부장이 밖을 내다보았다.

《아니, 저게 웬 일이야?》

공장장 장시창은 눈이 둥그래져서 이렇게 웨쳤다. 경리부장은 노란 테안경을 바로 치켜쓰면서 《아니, 저게 어쩌자고… 아니?》 하고 당황해했다.

동호가 일어나더니 그들뒤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소리쳤다.

《파업을 일으키는거다. …경찰을 불러라, 어서! 저건 또 무엇들이냐?》 하면서 그는 직포직장뒤를 가리켰다.

직포직장담을 끼고 기숙사에 누웠던 70～80명의 환자들이 렬을 지어 이쪽으로 돌아나오고있었다. 느리고 기운없는 발걸음들이였으나 그들도 어딘지 모르게 희망과 긴장에 사로잡힌 안색들이였다.

《거지행렬처럼…》

동호는 거듭 소리쳤다.
《아니, 경찰을 부르라니까! 여보 경리부장, 빨리!》
그때 교섭위원인 최영수와 김인석이 지배인실로 들어섰던것이다.
그들을 보자 동호는 당황히 오락가락하다가 자기 의자에 주저앉아서 감때사나운 눈망울을 이리저리 굴리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무어야?》
김인석이 찬찬히 이야기했다.
《우리는 더 참을수가 없어서 지금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요구조건들을 들어주시겠다면 곧 작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요구조건이 무어야?》
《첫째는 임금을 현재의 5할을 인상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로동자들이 살아가기는 곤난합니다.》
《또 무어야?》
《둘째로는 무단해고를 당한 사람들을 당장 복직시켜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구 또?》
《셋째로는 현재 환자들이 수십명입니다. 공장에다 의료시설을 갖추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뿐이야? 아니, 공장을 송두리째 망하게 만들잔 말이지? 아니, 공장을 판을 내잔 말이지? 못하겠어, 차라리 나를 죽이지. 나를 죽여!》
김동호는 고래고래 소리쳤다.
《이렇게 소리칠 일이 아닙니다요!》
최영수가 말했다.
《당신네들 욕심만 부리지 말고 로동자들의 실정도 좀 차근차근히 생각해봐야 할게 아닙니까, 네? 우리는 작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것입니다.》
《무어,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구? 그럼 어서 일들을 해.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수 있잖아?》
《이런 요구를 한두번만 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라니까!》
장시창과 경리부장은 오도가도 못하고 서있었다. 최영수와 인석은 지배인실에서 다소간이라도 량심적인 말이 나올것을 기다렸다. 허나 그것은 헛된 일이였다. 그들은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지배인과 더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무실에서 나와버렸다.
밖에서는 흥분한 로동자들이 바다물결처럼 설레이면서 구호를 부르기도 하고 《김동무, 우리 잘 싸웁시다!》, 《념려마오. 우리는 힘이 있소!》라고들 큰소리로 주고받으며 팔을 내젓기도 하였다.
빽빽하게 종업원들이 모여선 운동장안은 그대로 흥분의 도가니속이였다. 지배인실에서 돌아온 두사람에게서 관리인측의 변함없는 오만한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정형규는 대돌우로 올라섰다.
정형규는 종업원들을 모두 마당에 앉게 한 다음 굵은 목청으로 동무들을 불렀다.
그는 관리인측과 공장사무실측의 부당한 조치와 그들이 하고있는 도적질을 더욱 구체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준은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두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까지 해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무슨 일이든지 대담하게 하면 되는것이다! 확실히 내 연설은 로동자들을 감동시켰다!
그는 자기의 성공을 스스로 축하하면서 생각했다.
(허지만 왜 이렇게 자꾸 가슴이 울렁거리나? 이런 때일수록 랭정해야 하잖나. 그리고 앞일을 생각해야 하잖나. 이것 봐! 자꾸 속이 울렁거려…)
기준은 지그시 감았던 눈을 떴다. 목청높이 웨치는 정형규의 얼굴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올려다보였다.
정형규의 이야기가 끝나자 종업원들은 다시 바다물결처럼 움직였다.

그러더니 일제히 우쩍 일어나면서 방축이 터지고 물이 쏟아져나오는듯한 노래소리가 폭발했다.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

기준도 일어섰다. 조선사람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된 아리랑곡조도 잘 부르지 않던 그는 목청을 높이지는 않았으나 속으로는 누구에게 지지 않게 소리높이 웨치고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구호가 불려졌고 구호로 대답하고 했다. 그러다가는 또 노래, 노래가 끝나면 또 구호의 호응…

《저것들 봐!》

영춘이가 정문밖을 가리키면서 웨쳤다.

전속력으로 자동차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났다. 꺼먼 제복을 입은것들을 실은것이 석대, 철갑모를 쓴 미군병정들을 실은것이 석대, 도합 여섯대가 신작로에서 굽이를 돌아 공장정문을 향해 달려오고있었다.

《동무들, 흩어지면 안됩니다!》

기준이 어느 틈에인지 대돌우로 뛰여올라 이같이 웨쳤다.

《무슨 일이 있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동무들!》

정형규가 기준의 옆으로 뛰여올랐다.

《동무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합니다. 저놈들은 우리를 이겨낼수 없다는걸 아십시오. 끝까지 싸웁시다!》

《저 개들, 개새끼들이다!》

김인석이 밖을 내다보며 웨쳤다.

《동무들, 하나로 뭉칩시다!》

이러한 날카로운 음성이 들렸다. 피기없는 얼굴이였으나 눈동자가 별같은 영춘이의 애인 서분옥이의 목소리였다.

《저것들을 무서워하면 안됩니다! 저것들은 개만도 못한것들입니다! 저 추악한 꼴들을 보십시오!》

여섯대의 차가 먼지를 일구면서 공장문안으로 들어와 딱 멎더니 모자끈을 턱에다 건 경찰들과 카빈총들을 멘 키다리미군들이 껑충껑충 뛰여내렸다. 미군들은 무어라고 까마귀 짖어대듯 하면서 경찰들에게 가서 설자리를 가리켰다. 경찰들을 앞세우고 좌우로 쫙 헤진 미군은 차츰차츰 공장울안을 빵 둘러쌌다. 로동자들은 그들이 둘러싸건말건 더욱 흥분한 음성으로 구호들을 불러댔다.

미군들과 경찰들이 늘어선 다음에야 최봉석이랑 준비공의 명목으로 새로 들어온 곰보랑 《대한로총》패들이 거미들처럼 비슬비슬 사무실 쪽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최영수와 인석이 나오자 재빨리 지배인실로 들어갔던것이며 거기서 수도경찰청과 백락일에게 긴급련락을 하고 김동호를 공장밖으로 빼돌렸던것이다. 그들은 자기네도 한편이라는듯이 경찰에게로들 달려갔다. 그리고는 기준이와 분회위원들이 선쪽을 바라다보면서 무엇인지 쑤군거리다가 경찰들이 늘어선 틈바구니로들 흩어져 끼웠다. 미군도 이 패거리들이 자기편인것을 인정한듯 그냥 내버려두었고 마치 새벽녘에 몰려다니는 개들처럼 그들과 뒤섞여서 괴상한 음성들을 냈다.

《선동자가 누구야?》

엠피 서넛과 경찰 댓명이 정형규, 김인석이 서있는 앞으로 다가섰다.

경찰두목 같은자가 《누가 선동했어?》 하고 묻고 정형규에게로 다가와 팔을 잡았다.

형규가 잠시 마주 노려보다가 휙- 자기 팔을 빼는 바람에 경찰을 돌려세웠다.

경찰은 급히 바로섰다.

《놔라, 개새끼!》

형규가 웨쳤다. 그러자 소녀공 20∼30명이 일제히 달려들면서 웨

쳤다.
《나예요, 나!》
《나예요, 나예요!》
소녀공들은 점점 더 많이 몰려왔다. 그 틈에서 또 경찰 한놈이 자기를 노려보는 엄한 얼굴의 기준에게로 다가왔다.
기준이 피하려고 몸을 뒤쳤을 때 어디서 덤벼들었는지 고정자가 그 경찰의 앞가슴을 떠받다싶이 했다. 그리고는 종주먹을 두르며 웨쳤다.
《내가 선동자요, 어쩔테요?》
고정자의 뒤로 마치 밀물 쏠리듯이 녀성동무들이 밀려들어서 기준과 경찰과의 사이에 두꺼운 담벽을 만들었다.
《너들이 대체 무어냐?》
기준은 거듭 웨치고 입술을 물었다. 그는 경찰의 턱을 치받고싶었다. 그러나 녀성동무들은 다른 남자들과 함께 기준을 자꾸 가운데로 끌어들였다. 미군과 경찰들은 할수없이 가장자리로들 빠져나갔다.
《언제까지들 이러고있을테냐?》
경찰두목 같은것이 웨쳤다.
《임금을 인상해주면 일을 하겠소!》
녀공들이 웨쳤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구호를 부르고 한쪽에서는 노래를 합창했다.
바가지쪽들을 늘어놓은듯 한 철갑모의 엠피들은 질겅질겅 무엇인지 씹으면서 눈알을 빙글빙글 돌리기도 했고 어떤것은 카빈총을 벗어들고 로동자들을 향하여 사격을 하는 시늉을 했다. 이미 그들은 조선인민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겨보았다. 이제 또 당기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뿐아니라 그 야수들은 속히 상금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주 방아쇠를 당길 기회가 있었으면 할것이였다.
6시 고동이 울렸다. 녀성로동자 한사람이 서무과로 빠져들어가 고동스위치를 돌린것이다.

고동이 울리자 종업원들은 조금도 흩어지거나 성글어지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걸어 엠피와 경찰의 담을 헤치고 공장뒤 기숙사로들 향했다.
남자들도 녀자기숙사로 들어가 거기서 하루를 지새야 했다.
밖이 어두워지자 경찰 한차분만 남겨놓고 미군과 나머지 경찰들은 돌아갔다. 수위실과 창고장실옆방 그리고 서무과실에 전등빛이 휘황했다. 처지게 된 경찰들은 모자끈을 늘인채 전등불밑에 모여앉아 하품을 했다. 공장울밖에 지켜선 경찰들과 《대한로총》패들은 이따금씩 고함을 치며 전지불을 켰다껐다하군 했다.

8

기숙사의 방 하나를 치우고 파업투쟁위원들과 함께 들어앉은 기준은 비로소 담배를 꺼내들었다. 그제야 기준은 좀 랭정해졌고 전후일을 분간해 생각할수 있었다. 하마트면 그 경찰에게 잡힐번 한 일을 생각하자 아슬아슬했다. 그리고 번개처럼 덤벼든 고정자가 자기보다도 몇갑절 대담하게 생각되였다.
고정자뿐아니였다. 어린 녀성로동자들, 귀여운 소녀들의 랑랑한 목소리들은 오래도록 기준의 고막에서 사라지지 않을것 같았다.
얼마동안 쉬고있던 기준은 기숙사마당에서 들리는 허인기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 나갔다. 어두워서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숙사안을 돌아보고있는것 같았다. 기준이 그들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막 식당뒤 창고를 보고 나오는 참이였다.
《쌀은 단 두섬밖에 없군요.》
허인기의 말이였다.
《보리가 열한섬 있으니까 며칠은 롱성할수 있습니다.》
정형규의 대답이였다.

《부식물이라고는 소금하고 무우시래기뿐이군. 감옥보다 더하구나. 흉악한 놈들 같으니…》 하다가 기준이 나타나자 허인기는 그의 손을 잡아 힘껏 흔들었다.

반가이 인사를 한 그는 《리선생도 이런 실정인줄 아시고 놀라셨을겁니다.》 하고는 숙사로 향했다.

기준은 사실 전에 한번 와보았을뿐 기숙사실정을 그 이상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래 그는 두사람을 따라다녔다. 허인기는 세탁장소가 어디냐고 물었다.

《없습니다. 수도는 해방후 고장이 난채 그대로입니다. 사무실 수도물을 길어다 쓴답니다.》

《우물도 없나요?》

기준이 물었다.

《우물은 원래 없습니다.》

정형규가 대답하자 허인기가 설명했다.

《녀공들 기숙사에는 우물을 안 판답니다. 감옥이상이니 자살자가 날게 뻔하니까요.》

《그렇겠군요.》

기준은 혼자 얼굴을 붉혔다. 이번에는 각 방으로 다니며 환자수를 세였다. 그리고 한동안 전등밑에서 따지더니 허인기는 《환자가 도합 52명.》 하면서 또 수첩에 적었다.

그때 분회책임자였던 최영수가 와서 허인기에게 로동자들이 모였으니 선동강연을 해달라고 했다.

《난 취재를 하러 왔는데…》 하다가 최영수를 따라섰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자 허인기는 한시간이 넘어도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기준은 조금도 지루하지 않게 듣고있었다. 들으면서 그는 허인기가 이 공장에 대하여 적어도 다섯갑절은 자기보다 더 자세히 알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열두시가 넘어서 그들은 공장에서 빠져나왔다.

처음 기준은 허인기가 어떻게 기숙사로 숨어 들어왔는지 몰랐다. 빠져나갈 때 기준은 역시 난감했다.

그런데 허인기는 《담배불을 끄십시오.》 하더니 앞서서 걸었다. 투쟁위원회 동무들이 앞뒤에서 따라왔다. 기숙사울타리 벽돌담과 창고가 잇닿은 사이에 드높은 가시철망이 있었다.

그 철망이 풀어 젖혀지고 그곳에 조금전에 조직된 자위대동무들이 망을 보고있었다. 기준은 방에서 쉬느라고 그것을 몰랐다. 허인기는 큰길까지 바래다주겠다는 형규를 굳이 돌려보냈다.

리기준은 그날 아침까지도 자기가 이미 투쟁의 도가니속에 들어선것처럼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니 들어선게 아니였다. 이제 겨우 그 문턱을 디디였을뿐이였던것이다.

기준이 동광방직기숙사에서 밤이 이슥해서 허인기와 함께 빠져나와 시내로 돌아오는 바로 그 시각에 차쿄브슨은 미24군단 총참모대리를 하는 자기의 동생과 군정청의 바르버섬유과장, 군정청의 경무부장인 모리스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었다. 그것은 사크라멘트시 창고에서 묵고있던 일용잡화를 실은 상선이 쌘프랜씨스코항을 떠났다는 전보를 받았기때문에 2백여만딸라의 리익이 굴러떨어지게 된것을 스스로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밤늦도록 마시고 춤을 추어서 어지간히 피로했으나 차쿄브슨은 이튿날 일찌기 군정청으로 나갔다. 오전중으로 부산으로 갈 상업부장을 만나 협의할 사항들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상업부장은 부산에서 한달이나 체류할 예정인데 그동안에 상선이 부산항에 도착하게 되였다. 차쿄브슨은 상업부장에게 자기의 상품이 부산과 대구에서 처분되도록 당부를 했다. 그 리유는 운임관계도 있거니와 같은 상품이 서울시내에는 이미 범람하고있기때문이였다.

《부산 매우 불결한 항구입니다. 건강 주의하시오.》

이러한 차쿄브슨의 말에 상업부장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일없습니다. 내가 있을 집 이미 다 소독하고 창마다 철사망을 쳤답니다.》
《당신에게 행복이 있을겁니다.》
《내 없는 동안 일 부탁합니다.》
상업부장을 돌려보내고난 차코브슨은 목이 컬컬해서 맥주를 가져오게 한 다음 책상우에다 조선지도를 펴놓고 그것을 들여다보고있었다. 그때 바르버섬유과장이 지난 밤 초청을 받은 인사를 하려고 들어왔다.
《무슨 연구를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서 바르버는 응접의자에 주저앉았다.
《연구가 아니라 답답해서 그럽니다. 남조선만 가지고서는 역시 시장이 좁거든요. 아무래도 북조선까지 우리의 시장을 넓혀야겠단 말입니다.》
《그건 군부와 의논하실 일이지요.》
《곧 우리 물자가 쏟아져 들어오겠는데 그대신 조선서 가져갈게 많아야 할텐데—》
차코브슨이 혼자말처럼 두덜댔다.
《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본의 원료와 바꿔야지요.》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야 북조선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남에게 루설하진 마시오만 남조선의 지하자원이야 벌써 싹 걷어갈 준비가 돼있답니다. 나는 그걸 문제시하는게 아닙니다. 좀더 크게 생각해야지요. 상업이란 적어도 수십년을 내다봐야 한답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미스터 바르버는 조선제사공장 재미를 잘 봅니까?》
《조선사람에게 200만원에 넘길려다 그만두었지요.》
《그 공장에서 무에 또 리익나올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승낙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 공장이 시내에 있는만치

거기다 정원있는 카바레를 꾸릴가 해서 그럽니다. 나의 처의 명령입니다.》
《허, 그건 어려울겁니다.》
차코브슨이 고개를 흔들 때 항상 무표정하던 모리스가 싱글싱글하며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미스터 모리스?》
이렇게 묻자 모리스는 맥주를 한잔 따라 마시더니 웃는 리유를 댔다.
《우리 방에서 어제 밤 당신이 추신 그 흑인무용에 대해서 말했지요.》
이같이 말하는것을 받아 바르버가 설명했다.
《흑인무용을 출 때 보니 미스터 차코브슨은 꼭 흑인과 똑같으시더군요. 아주 익숙해서 말입니다.》
차코브슨은 싱그레 웃더니 《그게 문명인의 특징이지요.》라고 말했다.
《문명인이니까 미개한 종족들의 흉내를 방불하게 낼수 있는것입니다. 미개인이 문명인의 흉내를 내려고 애쓰는걸 보았지요. 애쓰면 애쓸수록 우습지 않습디까?》
모두들 껄껄댔다. 그때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방긋이 문이 열리더니 조석우가 나타났다.
그는 미국인 세사람에게 미국식으로 그러나 아주 정중한 태도로 인사를 하고 한구석에 가앉았다.
조석우는 미국인을 만날 때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지금도 다리를 꼬았다가는 풀고 팔짱을 꼈다가는 도로 손을 깍지끼고 했다. 그는 《대한민족당》패들이나 동광방직사무원들앞에서는 실한 종자말같았지만 이 미국인들앞에서는 갓난 송아지같았다. 아무리 미국식언행을 해도 영 오들오들 떠는것만 같았다.
한바탕 지껄이다가 차코브슨이 비로소 조석우에게 고개를 돌렸다.

《미스터 조, 유쾌한 아침입니다.》

《유쾌하고 상쾌한 아침입니다. 미스터 차코브슨!》 이렇게 말을 받은 조석우는 긴급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동광방직때문에 영 골치가 아프군요.》

《오- 파업말입니까? 파업 이제는 진압됐지요?》

《그게 그렇게 안됐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모두 운동장에들 나와서 떠들고있답니다.》

《아니, 그걸 아직도 헤쳐놓지 못했단 말입니까? 어리석은 일이로군.》

《지금 미군과 경찰들이 동원돼있습니다. 엠피들도, 경찰들도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무어요? 엠피가 동원됐다구요? 미스터 모리스, 그게 정말입니까?》

《혹시나해서 군부에 부탁했더니만…》

차코브슨은 좀 격하면 언제나 그러한것처럼 주먹으로 가볍게 책상을 두드렸다.

《나 의견 많습니다. 어째 미개한 사람들의 파업 하나 진압시키지 못해서 엠피까지 내보낸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미개인에게 단 한사람이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무슨 꼴이겠습니까, 네? 나의 철학에 의하면 미개인은 자연도태가 되는것입니다.》

《너무 역정을 내지 마십시오.》

모리스가 말했다.

《나야 군부에 부탁만 했지 엠피를 직접 동원할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차코브슨은 전화기를 들어 군단사령부를 찾았다. 이윽고 수화기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가늘게 진동되여나왔다.

《… 동광방직공장에서 일어난 파업을 진압시키려고 미군을 동원시킨 사실을 알고있는가? 모르겠다고? 곧 알아보게. 미군이 50～60명 동원되였다는데 그런 수치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합중국의 명예에 관한 문제야. 어째 흑인을 동원시킬 생각도 하지 않았는가고 단단히 문책해보게. 그러고저러고 이틀씩이나 나가서도 진압을 못 시켰으니 대체 무엇들을 하는가고… 흑인을 동원시키라니까. 그리고 화약까지 허비할 필요는 없지만 몽둥이질을 해서라도 파헤쳐놓라구 하게. 옳지, 그렇게 해! 모처럼 유쾌한 아침이 아주 기분나빠졌어. 음, 그렇게 해봐주게.》

전화기를 놓은 차코브슨은 《미스터 조! 안심하시오. 그러고… 자, 섬유과장의 맥주 좀 축냅시다.》 하고 한잔 따라주었다.

《탱규 베리 머취!(매우 고맙습니다!)》

조석우는 바르버에게 치사했다.

《미스터 조에게 부탁이 있소.》

바르버가 말했다.

《말씀하시지요.》

《그 로동조합사람들 다시는 내게 못 오게 할수 없겠소? 정말 귀찮습니다.》

바르버는 푸릇푸릇한 반점이 있는 두볼따구니를 씰룩거렸다. 조석우는 어깨를 한번 으쓱 들어보이더니 《미안합니다. 사실은 그들때문에 저희도 애를 먹습니다.》 하고 맥주를 들이켰다.

군정청에서 돌아온 조석우는 코가 남산만큼 높아져서 백락일의 방으로 들어갔다.

《파업은 오늘 끝나게 됐습니다.》

속으로 혼자 앓고만 있던 백락일은 그 소리를 듣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의자에 주저앉았다.

《경찰이 더 동원되나요?》

《경찰 가지고 됩니까?》

《그러문요?》

《흑인이 출동합니다.》

《허— 잘됐어!》
《허지만 백선생의 실책은 실책대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조석우가 뻑뻑한 얼굴로 말했다.
《그야 인정하지요.》
할수없이 백락일이 대답했다.
《허지만 조형! 나는 정말 로동조합사람들에게까지 뜯기우고싶지는 않단 말입니다.》
조석우는 안락의자에 벌떡 자빠져서 빙그레 미소를 띠웠다.
《백선생! 백선생은 만원 나가는것만 생각하지 십만원 들어오는것은 생각지 않는분입니다. 내 얼마나 충고를 했습니까? 돈 만원씩 집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부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마부로 보인다고 조석우는 박태상, 안철을 매수하도록 백락일에게 강요했던것이였다.
《보십시오. 이틀동안에 수십만원의 손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왜 파업을 일쿠게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절부절을 못할 지경입니다.》
《이제야 할수 없지요.》
조석우는 누그러진 어조로 말했다.
《이제라도 끝나게 되였으니 다행입니다.》
《어쨌든 다행한 일입니다. 미쏘공위도 잘 끝났고 이제는 정세가 유리하게 돌아갈것 같습니다. 우리 잘해보십시다요.》
《정부가 빨리 서야지요.》
《리박사께서 어련히 생각하시겠습니까?》
《글쎄, 리박사도 대한민족당은 좋게 생각하시는 모양이더군요.》
《우리야 량심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너무 곧이곧대로가 돼서 이렇게 피해만 본단 말야. 이 사람이 어딜 갔나, 금방 앉았더니…》
《누구 말입니까?》
《김동호말입니다.》

《저게 그 사람 모자군요.》
《여보—》 하면서 백락일은 방에서 나갔다.
조석우는 안락의자에 자빠진채로 다시금 빙그레 웃음을 웃었다. 그리고는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자빠진채로 불을 붙여 둬모금 빨았다.
(아닌게아니라 백락일은 좀 우둔한 량반이야. 곧이곧대로라느니보다 하나밖에 모른다고 하는게 더 정확하지. 내가 그만한 재산을 가졌다면 당장 수배로 늘일수 있겠는데 이건 밤낮 정세타령이거든…)

9

이틀째 파업으로 들어가긴 했으나 전날보다도 기준은 어쩐지 초조했다. 그는 파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것인가를 명확히 내다볼수 없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전술이 자신있게 서지 못하기때문이였다. 쌍방의 실정을 잘 알고있어야 했다. 로동자들의 의식수준과 력량도 생각해야 했고 관리인측 즉 악질자본가에 대한 료해가 특히 필요했다. 그 자본가들은 미국인이고 조선인이고간에 총칼의 배경을 가지고 편하게 일약 거액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불한당패들이라는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있었다.
처음은 자기가 가졌던 약간의 주권을 미끼로 차코브슨에게 빌붙어 어물어물하던 백락일이 이번에는 당당히 관리인행세를 하려 했다. 그러나 더욱 궁금한것은 그자가 데리고있는 조석우의 롱간이였다. 조석우는 그 뜨내기영어로 아무렇게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씨부렁거릴것이였다.
안철, 박태상은 백락일보다도 그 두꺼운 안경쟁이가 더 악질이라고 했는데 그 악성을 이 기회에 어떻게 발휘할는지가 궁금했으나 추측할수도 없었다.
기준은 앞으로 있을수 있는 두어가지 경우는 추측하고있었다.

한가지는 관리인측이 나타나서 약간의 타협안을 내놓게 되는 경우였다. 이것은 결국 파업을 중단시키자는 그들의 교활한 수작에 지나지 않을것이기때문에 그에 순응한다면 요구조건은 한가지도 해결되지 않은채 더욱 심한 학대와 착취가 계속될것이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충적인 타협은 아예 일축해야 했다.

다른 한가지는 분회의 핵심들을 일반종업원들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경우일것이였다. 경찰이 더 많이 동원되며 부분적으로 테로까지도 감행될는지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준은 최영수, 정형규와 함께 투쟁위원회에서 매개 직장별로 새로운 핵심들 즉 후비를 선정배치했으며 련락망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대책으로 충분한것인지 어쩐지 자신이 없었다. 그래 기준은 새벽녘에 잠입한 산업건설부원과 엇바꾸어 공장을 빠져나와 중앙으로 달려갔다.

전체 종업원들의 통일된 요구조건이 완전한 해결을 볼 때까지 파업은 계속해야 하며 어떠한 타협도 있을수 없다. 또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어떠한 강압적수단과도 견결히 싸워야 하며 그를 저지시켜야 한다. 이것이 중앙의 일치한 의견이였다.

그에 따라 지역별, 산업별로 되는 응원조직을 시작할것과 광범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보도, 선전사업을 당장 지금부터 진행할것이 토의되였다.

기준은 갑자기 새로운 자신을 얻은것 같았다. 그것은 여러 동무들의 토론을 듣는 도중 반드시 최악의 경우에 부닥칠것만 예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였기때문이며 어쨌든 이번 사건의 전후는 로동대중을 더욱 훈련시키고 더욱 단결시키는데 큰 도움을 가져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였기때문이였다.

계속해서 박태상, 안철이 교섭위원이 되였는데 그들과 함께 기준이가 다시 공장에 나타난것은 낮 열한시가 가까와서였다.

전날과 같이 미군엠피들과 경찰들은 종업원들을 둘러싸고있었다.

그들은 로동조합의 정식 신임장들을 보고도 이 대표들을 공장안에 들여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신심을 갖게 된 기준은 《대한로총》패들이 그에게로 몰려왔었으나 큰소리로 말했다.

《관리인과 공장에서 만나기로 돼있소. 어째 못 들어가오?》

성급한 박태상이 옆에 섰다가 《당신네들은 수도경찰청장보다도 더 세도가 있단 말이요? 우리는 파업을 해결하러 온 대표들인데 당신들은 파업을 계속 시킬 작정이요?》라고 꾸짖었다.

그리고 세사람은 공장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종업원들이 모인 한복판을 헤치고 들어갔고 박태상이 쟁의단을 격려하는 연설을 했다. 종업원들은 어제보다도 더 확실히 자기네가 고립되여서 싸우는게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어제처럼 함성이 터져나왔고 만세소리가 폭발했다.

《로동조합 만세!》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합대표들은 종업원들이 어느 정도 조용해진 틈을 타서 그속을 빠져나와 지배인실로 갔다. 약속한 시간이 넘었는데도 지배인실은 쇠가 채워져있었다. 할수없이 공장장실로 들어갔다.

박태상은 백락일에게 전화를 걸고 조합대표들이 공장에서 기다리고 있노라 했다. 백락일은 김동호가 곧 갈것이며 오늘중으로 좋게 해결될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것은 옆 안락의자에 앉았던 조석우가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긴것이였다.

공장장실에서 우물거리던 두어명의 경찰과 《대한로총》패 서넛은 물어뜯어야 할것인가, 어쩔것인가 하고 주인의 눈치를 보는 사냥개모양으로 서로들 바라보기만 했다.

대표들은 다시 종업원들이 모인 곳으로 향했다.

그들이 나타나자 종업원들이 다시금 함성을 올렸고 만세를 불렀다. 기준은 혼자 공장 오른편쪽으로 가보았다. 그곳은 벽돌담대신 높이 철망울타리를 쳤는데 울밖에서는 2백～3백명의 군중이 이리저리 경찰

을 피하면서 철망앞으로들 바싹바싹 다가서는것이였다.
《동무들, 잘 싸우시오!》
울밖에서 이렇게 웨치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그쪽으로 달려가면 군중은 다른쪽으로들 쏠렸다.
《단결하시오! 끝까지 싸우시오!》
다른 음성이 또 울밖에서 들렸다. 그리고 무엇인지 연신 종업원들의 머리우로 날아들었다.
잠시후에야 기준은 그것이 종이에 싼 과자랑 떡이랑 과일인것을 알았다. 한 로동자가 그에게로 달려와 종이에 싼것을 하나 주었다.
기준은 그것을 풀어보았다. 찰떡이 정성스레 싸였었는데 싼 종이에는 《미국놈, 테로단, 악질자본가 모두 물리칩시다!》라는 문구가 씌여져있었다.
《승리를 축하한다!》 하는 고함소리가 나더니 별안간 수십갑의 담배가 참새떼 날아들듯이 쟁의단의 머리우로 떨어졌다. 그것들을 공받기로 받아넘기는 로동자들은 저도 모르게 거듭거듭 함성을 올렸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수건이랑 모자를 벗어 흔들었다.
철망밑에 앉아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것인지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울상을 하는 로파가 있었다. 그러자 한 소녀가 그 근처로 달려가더니 손짓을 하며 웨쳤다.
《돌아가세요, 네! 뭐가 무서워요? 먹지도 못하고 기숙사에서 앓고있는게 무서운거예요. 일없어요. 어서 돌아가세요, 어서!》
그 로파는 부모없는 소녀의 할머니였다.

점차 하늘이 흐리터분해지더니 날씨가 무더워졌다. 시내에서 울리는 12시고동이 저기압때문인지 여느날보다도 가깝게 들려왔다.
고동이 멎은지 얼마 안되여서였다. 무엇을 생각했는지 미군들이 우르르 몰려가 트럭 석대에 분승하고 밖으로 나왔다.
《할수없이 돌아가는구나.》

누구인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속단이였다. 트럭 석대는 신작로로 나갔다가 빙그르르 휘돌아서 다시 공장정문으로 향해왔다.
《무슨짓을 하려는거야?》 하며 물끄러미들 바라보는 동안에 트럭들은 정문으로 들어와 곧장 종업원들이 모여선 속을 비집고 들어오는것이였다. 그러더니 미군은 일제히 뛰여내렸다.
뛰여내리자마자 그들은 로동자들을 잡아끌어 트럭에 태우려는것이였다. 잡히지 않으려고 항거했다. 끌려올라갔다가도 도로 뛰여내렸다. 폭행을 규탄하는 욕설과 아우성소리, 운동장안은 갑자기 수라장이 되였다.
십분쯤 그렇게 법석을 일으킨 후 미군들은 한사람씩 종업원을 잡고 트럭우에 올라섰다.
트럭이 떠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기준은 그앞으로 비집고 들어가며 손짓을 했다. 자동차발동소리가 났다.
《서라, 서! 스톱!》
기준은 웨치며 다가섰다. 다가서보니 그는 헛수고를 했던것이다. 이미 트럭은 움직일수가 없게 되여있었다. 어느 틈에인지 녀성로동자들은 트럭 바로 턱밑에 엎치고 덮치기로 쓰러져버렸고 거기서 공장정문가까이까지의 땅바닥에 모두들 일부러 누워버렸다. 그렇지 못한 소녀들은 트럭밑으로 기여들어가 바퀴를 잡고 눕기도 했다.
생사를 결단하는 싸움이였으나 그들은 조금도 측은해보이지 않았고 도리여 모두 명랑하고 씩씩해보였다. 몸뚱이를 깔고 넘어가도 좋다는 비장한 각오가 어찌 그렇게 명랑한 음성으로들 표현되는지 몰랐다.
이름모를 꽃들을 한웅큼 꺾어들고 고무신자국만 내놓고 까맣게 탄 발등을 내려다보며 호수가에서 슬픈 노래만 불렀다는 고정자의 얼굴에도 괴로움이 없었다. 쌍까풀진 눈을 똑바로 뜨고 트럭 앞바퀴밑에 앉아서 정자는 웨쳤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느니 죽는게 낫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지는 못할것입니다. 살아남은 동무들이 우리의 원쑤를 갚아주시오!》

조금전에 철망밑에 앉은 로파를 보고 무엇이 무서우냐고 하던 소녀는 둘째 트럭앞에서 상반신을 일으키고 《죽여라! 이 승냥이같은 놈들아! 죽이려거든 죽여라!》 하면서 미군운전사를 향하여 희고 가냘픈 주먹이였으나 힘차게 내흔들었다.

기준은 미여지는듯 한 가슴을 어쩔지 모르다가 미군들을 향해 웨쳤다.

《너희들은 자식들도 없는가, 누이들도 없는가?》

그러나 미군들은 들은체만체 했다.

《이 야만들아! 내려라, 모두 내려라! 야만들아!》

운전사는 또 발동기소리를 울렸다. 그러자 종업원들이 아우성을 치며 점점 더 차앞으로들 덮쳤다. 발동기소리가 다시 멎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별안간 노래소리가 폭발했다.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

노래소리는 퍼져갔다. 기준은 숨쉬기도 가쁘게 가슴이 벅차왔다. …

한동안 싱갱이를 하던 미군들은 드디여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트럭앞을 헤치려 했으나 그런 수작은 도리여 더욱 큰 반감을 살수밖에 없었다. 총부리를 피하기는커녕 모두 가슴을 내대고 쏠려거든 쏘라고 아우성들을 쳤다.

그들도 도저히 승산이 없음을 안 모양이였다. 미군두목의 하나가 무어라고 소리치자 차판에 올라섰던 철갑모쟁이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잡혔던 종업원들이 우르르 내리뛰였다.

서서히 트럭앞이 틔였다. 땅바닥에서 일어들나면서도 미군의 동정을 살폈고 일어나서도 로동자들은 멀리 물러서지 않았다. 또 동무들을 태우면 다시 누울 작정들이였다. 길이 트이자 먼저 호령을 하던 미

군두목이 또 무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이번에는 철갑모쟁이들만 올라탔다. 잠시 무어라고들 쏴알거리더니 트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미군트럭들은 차례차례 신작로로들 나가 먼지를 일구면서 시내를 향하여 달려갔다.

그런지 불과 2~3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또 온다, 또 와!》

누구인지 이렇게 소리쳤다. 종업원들의 신경은 다시 신작로로 쏠렸다.

과연 또 철갑모쟁이들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전속력으로 달려와 공장쪽으로 굽이돌았다. 이윽고 트럭들은 공장안으로 달려들어 창고와 수위실근처에 가멎었다. 처음 종업원들은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런것이 그 트럭들에서 뛰여내리는것들은 백색미군이 아니라 눈알만 희게 반짝반짝하는 깜둥이들이였기때문이다.

뿐아니라 네번째와 다섯번째로 들어온 차는 큰 물탕크차였기때문에 필시 이들이 제 갈 목적지를 잘못 알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딴 용무가 있어서 온것으로 생각되였다.

깜둥이미군들이 내려서자 수위실안팎과 근처 빈 터전에들 몰켜섰던 경찰들이 기운을 얻은듯 다시 움직이면서 그들에게 묵례를 보냈다. 그 꼴은 곰앞에서 아양을 떠는 돼지새끼들을 그린 우화의 그림 그대로였다. 흰 이발을 드러내면서 쏴알거리는 깜둥이들앞으로 경찰두목들이 달려갔다가 무슨 말들을 들었는지 다시 물러섰다. 그 다음 깜둥이 몇몇이 물탕크차앞으로 걸어갔다.

남의것을 략탈해보지 않았으며 남을 해칠줄 모르는 종업원들, 사람을 믿고 존경하며 언제나 서로 겸손하기에 습관된 순박하고 정직한 로동자들은 그 흑색미군들이 호스들을 집어들 때까지도 그들의 동작만 바라보았다.

다음순간이였다. 두개의 호스로부터 물이 뻗쳐나와 로동자들에게로 퍼부어졌다. 그냥 물이 아니였다. 우유빛처럼 뿌옇고 매캐하고 구역질

나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약물이였다. 약물을 퍼부으며 깜둥이들은 무어라고 짖어댔다.
《에이, 이 짐승들아!》
《야만들아!》
여기저기서 이러한 고함소리가 터져나왔다.
《죽는 물은 아니니 겁먹지 말아!》
정형규가 웨쳤다.
《죽기밖에 더하겠소!》
서분옥이가 호응했다.
종업원들은 할수없이 물줄기가 뻗치지 않는 곳으로 이리저리 피할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또 한대의 물탕크차에서 두개의 호수가 약물을 뿜기 시작했을 때 종업원들은 물발을 피할수가 없게 되였다.
《모두 정문으로 나가자!》
안철이가 웨쳤다.
《그렇다. 정문으로 나가자!》
정형규가 안철의 고함에 호응해서 웨쳤다.
한군데 괴였던 물이 한 귀퉁이가 뚫려 흘러내리듯이 종업원들은 꾸역꾸역 정문밖으로들 나가기 시작했다.
《나가지 말앗!》 하고 경찰 하나가 소리쳤다.
그러나 남자들의 굵은 목소리들이 다시 《적기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수백명 녀성들의 음성이 이에 섞이여 울려퍼졌다. 철망밖에 섰던 군중들이 로동자들과 함께 뒤섞였다. 껌둥이미군들은 몰려나가는 로동자들의 뒤에다 대고 약물을 뿌렸다.
이따금씩 듣던 약물이 이번에는 경찰들의 모자채양을 뚝뚝 두드리기 시작했다. 경찰들은 그대로 우두머니 서서 텅 비인 운동장안과 신작로쪽을 번갈아 바라다볼뿐이였다. 잠시 망설이고있던 《대한로총》패들이 우르르 몰려 창고장실 옆방을 향하여 걸어갔다. 그들이 자기네 친구인것을 몰랐던 껌둥이들은 여라문이나 되는 그 패거리들을 향하여 나머지 약물을 퍼붓기 시작했다.
《아니요, 아니요!》
《우린 아니외다!》
이렇게들 기가 나서 웨치며 손짓을 했으나 껌둥이들은 끽끽 괴상한 소리들을 지르며 웨치고 손짓하는 《대한로총》패들의 얼굴에다가 물발을 집중시켰다. 그들을 모조리 물에서 건져낸 쥐새끼들처럼 만들어버린 후에야 깜둥이미군들은 호스를 걷어말았다.

천여명이 훨씬 넘는 종업원들은 손에 손을 잡고 신작로로 향해 나갔다. 눈언저리와 피부가 약물때문에 쓰라렸으나 그런것보다도 먼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북받쳤으며 이제야말로 죽으나사나 한덩어리로 뭉쳐야 할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앞으로들 향했다.
《이따위루 해서 내쫓는군그래.》
어느 농사군 비슷한 차림의 남자가 중얼댔다. 그러자 곁에서 걷던 중늙은이가 말을 받았다.
《누구의 공장인데 누구를 내쫓았단 말이요?》
《딴 로동자들을 쓸 작정이겠지.》
《누가 이따위 공장에 일하러 올것 같소? 옛날과는 다르오.》
이러한 틈을 비집고 정형규가 투쟁위원들을 데리고 달려왔다.
《위원동무들은 대렬을 짓고 시내까지 들어가자고들 합니다.》
정형규가 말하자 김인석과 리영춘이 《그게 좋습니다!》 하고 찬동했다. 최영수랑 리화순도 다른 의견이 없는 모양이였다.
기준은 잠시 묵묵했다. 아침에 생각하던것처럼 또다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되였기때문이였다.
《안됩니다!》
기준은 이렇게 대답하고 잠시 멈춰서서 박태상과 안철이 다가오자 그들에게 물었다.
《나는 신작로에서 곧 흩어지기를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박태상

동무? 벌써 수도청에서 련락을 받고 딴 경찰들이 떠났을는지도 모릅니다. 뒤의것들이 쫓아올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무엇인지 생각하던 안철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분회핵심들은 곧 대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디로 모일가를 작정합시다.》

박태상이 말하자 누구인지 《시청앞으로―》라고 했다. 모두들 잠잠했다. 비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일시 멎었던 노래소리가 다시 폭발했을 때 기준은 《안됩니다!》 하고 큰소리로 말했다.

《력량이 분산됩니다. 조금이라도 손실을 입어서는 안되고 사기가 저락돼서도 안됩니다.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조합사무실이 어떻습니까?》

정형규가 박태상에게 물었다.

《좋습니다. 사무실로 모입시다.》

투쟁위원들은 일제히 앞으로들 달려나갔다. 그들은 종업원들에게 급속히 분산될것과 모일 장소를 전달했다. 전달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동무들에게 같은 사항을 전달했다. 이리하여 신작로로 나서자마자 종업원들은 쫙 헤여져 시민들과 뒤섞여버렸다. 비가 제법 소리를 내며 내렸다. …

로량진 못미처에 와서 기준은 안철에게 자기는 맨 나중에 지나는 동무들까지 보고 돌아가겠노라 하고 근처에 떨어졌다. 전주대옆에 서서 안경을 벗어 옷자락에다 닦아서 다시 썼다. 그리고는 신기료방으로 들어갔다. 열예닐곱쯤 된 학생이 한짝구두를 벗고 앉아있었다.

《리선생이시군.》

힐끔 기준을 쳐다본 정령감은 이렇게 말하면서 징을 박았다. 기준은 쪽나무걸상에 앉아 담배를 한대 꺼내서 두드렸다. 잠시후 껌둥이미군차들과 물탕크차들이 서서히 지나갔다. 경찰들의 트럭이 한두대씩 왔다갔다했으나 어디까지 가는것인지는 알수 없었다.

《모두들 쫓겨난셈이로군.》

망치질을 하면서 정령감이 두덜댔다.

《도적놈들! 강도같은 놈들!》

기준은 유심히 밖을 내다보았다. 어디서 얻어쓴 모자인지 엿장사의 중절모 같은것을 쓴 정형규가 환자임에 틀림없는 한 소녀공을 업고 몇사람은 뒤따르게 하고 지나간게 마지막 인원인듯 했다. 구두를 받아신고 학생이 나가버리자 정령감은 곰방대에 불을 그어댔다.

《다른데로들 가니 무얼 하나? 싸움은 벌써 졌나본데…》

《지긴 왜 졌다고 하십니까?》

《글쎄올시다. 이기면야 좋고―》 하더니 정령감은 한숨을 내쉬였다. 그리고는 다시 두덜댔다.

《약물을 뿌리다니… 지독한 놈들! 여보, 리선생! 미국놈들은 조상이 분명치 않다메?》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란 말이겠지요. 력사가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 또 미국놈들에겐 남의 계집 채는게 도덕으로 돼있다메?》

기준은 껄껄 웃기만 했다.

《미개한자들이니 그럴수밖에…》

비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전차를 타려고 기준은 벌떡 일어섰다. 일어섰다가 그는 다시 주저앉았다. 별안간 머리가 핑 휘둘리고 눈앞이 아물아물했기때문이다. 한동안 더 앉아서 진정된 다음에야 도로 일어섰다.

《형규 보시거던요…》 정령감이 일감을 잡으면서 말했다. 《집걱정은 생각도 말라구 해주슈.》

오후 여섯시전으로 동광방직쟁의단에 속한 로동자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조합사무실로 모여들었다. 세개의 산별로조와 신문사가 들어있는 4층건물(해방전에는 보험회사였다.)의 3층, 4층을 모두 쟁의단이 차

지하게 되여 섬유산별, 기계산별이외는 모두 림시로 다른데로 사무실을 옮겨가야 했다.

방들을 배정하고나자 형규는 밤송이 같은 주걱턱을 내밀고 《종일 식사를 못하셨는데…》 하고 기준의 걱정을 했다.

《나만 못했나요. 아마 두어시간이내로 부녀동맹에서 동무들의 식사를 날라올겁니다. 정동무가 시장하지.》

《전 일없습니다.》 하며 싱그레 웃더니 그는 다시 환자들을 눕힌 방으로 들어갔다.

기준은 속으로 (무던한 동무야.) 하고 뇌였다. 그는 로량진에서부터 십여명의 환자들을 업고 끌고왔던것이였다. 사실 기준은 어디든지 주저앉고싶었다. 하지만 정형규의 모습을 보면 피로한 빛을 남보일수가 없었다.

섬유산별일군들과 투쟁위원들은 밤을 새워야 할 지경이였으나 기준은 자꾸 들어가라는 동무들의 권고에 못이겨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기준은 열이 40도까지 올랐다.

10

허봉례는 그동안 허봉례대로 바빴다. 섬유산별뿐아니라 거의 모든 산별산하의 여러 공장들에서 관리인측과 로동자들간의 분규가 그치지 않았으며 소위 정판사사건을 날조하면서 미군정은 더욱 음흉하게 굴었고 테로패들은 살 때를 만난듯이 곳곳에서 날뛰였다. 그것들이 모두 로동대중에게 알려주어야 할 기사자료였다. 몇사람 되지 않는 신문사 일군들은 혼자 두세가지씩 맡다못해 나중에는 거의 기술이 없는 봉례가 판까지 짜야 하는 날이 많았다.

처음은 자기가 분에 넘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었다.

일의 분량이 많거나 다만 고되기때문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감

당할수 없는 일이 아닌가, 자기가 보통 녀성들과 다른 점은 아버지와 5촌에게서 얼마간 정신적훈련을 받았다는것과 약간의 서적을 뒤적였다는것뿐이 아닌가, 오직 그 알량한 밑천을 가지고 다른 녀성들, 항차 실제 싸우고있는 로동자들을 교양준다는것은 주제넘을뿐아니라 위태한 만용이 아닌가?

또 처음에는 이따금씩 인터뷰를 나갔다가도 실망해서 돌아오군 했었다. 상대방들은 자기를 보도일군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선뵈러 온 처녀를 보듯이 이모저모 뜯어보는것만 같았다.

이러고야 무슨 인터뷰를 할수 있담, 어처구니없는 녀자로구나, 장사치한테 시집이나 갈 사람… 하고 생각했었다.

그러한 자기를 단시일안에 단련시켜준 사람은 역시 허인기였다. 하루는 그날 나온 신문을 들고 허인기가 봉례의 방으로 왔었다.

《이 기사 봉례동무가 썼소?》

그는 보통때는 봉례를 《너》라고 불렀으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면 의례히 《동무》로 나왔다.

《허동무, 정신 좀 차려야겠소.》 하면서 그는 봉례가 쓴 기사의 한 대목을 읽는것이였다.

《반동들은 <독립쟁취>라는 미명하에 테로, 파괴, 습격, 략탈을 공공연히 선동하고있다. 이건 괜찮고… 다음, 기업가의 태업과 생산파괴행위에 대하여 전체 종업원들은 파업과 생산중지로 대답할것이다라고 했으니 산업건설은 쌍방이 다 안하는것으로 되잖았소? 그런데다 또 다음, 전체 종업원들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기업가들의 으쩌고 어쩌고 해놨으니… 지금 기업가들이 사회주의만 반대하고있소? 그자들이 사회주의를 반대하고있는가, 지금 나라를 팔아먹으려는데… 미리 잘 보지 못한 내 책임도 있지만 허동무 정신 바짝 차려야겠소!》

봉례는 등골에서 땀이 흘렀다. 무어라 대답을 할수가 없었다.

《허동무는 기자직업자리로 취직해온것이 아니요. 투쟁을 하러 와있다니까, 구체적인 투쟁!》

또 어떤 날은 봉례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분홍저고리에 초록치마… 동무의 그 복장이 찬란하오. 일부러 허줄하게 차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는 소부르죠아가정의 처녀행세를 하는데가 아니라 악질자본가들과 싸우는데요!》

없어 비단이라고 맞춤한 옷이 없어서 그것을 입고 나왔으나 어쨌든 로동자들속에서 어울리지 않는것만은 사실이였다.

이렇게 혹독한 책망이 봉례에게는 좋은 시련의 시간들이였다. 물론 지금도 부족점은 많다고 생각하고있지만 봉례는 자기를 대담하고 억세인 일군으로 만드는데 관심을 돌리고있는 허인기에게 은근히 감사를 드렸다.

봉례는 산별로조들에서 일을 하는 순박한 로동자출신의 처녀들에게서 또한 많은것을 배웠다. 그 녀성들은 일을 해주러 다니는게 아니라 자기 일들을 하고있었다. 그 녀자들은 이리저리 자기자신들을 설명하고 변호할줄을 몰랐다. 그런 점이 자기자신과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봉례는 생각했다.

최근에 와서 허봉례의 사기를 북돋아준것은 기준의 누이 리순희와의 상종이였다. 봉례는 기준보다도 순희를 더 자주 만났었다. 봉례가 초기에 생각하던 순희는 보수적이요, 가정적인 직업녀성이였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여 약을 타러 그 녀자의 병원으로 여러차 갔었고 조합일을 부탁할게 있어서 몇번 더 찾아갔던 봉례는 순희에게서 다른 점을 발견했다. 그 다른 점이란 상당히 매끄러운 녀자로 알았던 순희가 의외로 텁텁할뿐아니라 매사에 적극적이라는것이였다.

종연방직로동자 십여명이 서북청년회패거리들에게 테로를 당해 누웠을 때 현장에 있었던 봉례는 난감했던 나머지 순희에게로 달려갔었다. 달려가면서도 십중팔구는 허사라고 생각했으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순희는 병원의 세포책임자를 만나러 3층으로 달려올라갔다. 15분쯤 후 순희는 위생복을 벗고 큰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다.

《빨리 가시지요.》

《아이, 감사해요!》

봉례는 기뻐했다.

《누가 누구한테 감사할게 있어요?》

순희는 빨리 걸으며 말했다.

《테로단에게나 인사를 드릴가요?》

공장기숙사로 들어간 순희는 아직도 공장안이 삼엄했고 서로 쉬쉬하는 판이였으나 차근차근히 피해자들을 돌보고 급한 사람부터 처치하고 주사를 놓고 했었다.

언제인가 순희는 기준에게 취직하기를 권했으나 그러고나서 후회가 막심했었다.

기준의 마음을 리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발언은 다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생활이 어렵더라도 극력 그를 도우려고 마음먹었다. 사실 순희는 남자에게 의지해서 살아본 일이 거의 없는 녀자였다. 남편이 작고한 후부터는 더욱 그러했다. 전혀 수입이 없이도 살아봤으며 얼마 되지 않는 월급으로 오라버니를 도와주기까지 한 녀자였다. 그러한 환경이 자연 순희를 활동적인 성격으로 만들었던것이다.

(순희는 악착하고 기만에 찬 사회에서 부대끼며 살아왔고 나는 온실에서 숨어산거나 갈구나.)

봉례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순희는 봉례보다 먼저 당생활을 시작했던것이다.

로동자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과 상종하는 동안 봉례는 불과 반년동안에 발육기의 처녀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쩍 자라는것 같이 담이 자랐다. 봉례는 경찰서출입도 했고 대담하게 반동단체를 찾아가서 언질을 잡아오기도 했다.

동광방직쟁의단의 응원사업이 전개되던 첫날부터 봉례는 그 일에 골몰했다. 각 산별과 신문사에서 몇명씩 선발되여 산하공장들로 나가 연설과 해설, 조직사업들을 해야 했는데 봉례는 녀성로동자가 많은 섬유산별산하 공장들을 담당했다.

쟁의단 응원활동은 학교설립기금을 모으거나 수해구제의연금품을 모집하는것과는 어방도 없이 그 의의가 달랐다. 그것은 우선 로동운동의 장성발전을 위한 주요한 계기로 되는것이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한 공장이나 한정된 수의 쟁의단만이 아니라 전체 로동자들의 투쟁의 일환으로서 전개되여야만 했다. 그러므로 학교선생식으로 연설이나 몇마디 하는것으로만은 되지 않았으며 조속히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것도 어리석은 일이였다.

어떤 로동자들은 《우리 공장사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째 응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으며 어떤 녀성은 《관리인이 두달씩이나 임금을 안 주니 무얼로 응원을 해요?》 하며 난처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 다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기란 실상 머리가 셀 정도로 힘들었다. 그러나 봉례는 바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때문에 열심히 해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곳이 자기의 최전선이였다.

하루사업을 끝마치고 저녁때 신문사로 돌아온 봉례는 이미 편집실들이 남녀로동자들로 꽉 차버린것을 알고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나 로동자들은 봉례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다. 모두들 수고한다고 인사들을 했다.

《봉례동무, 안녕하셨어요?》 하고 달려드는 고정자를 보고 비로소 동방쟁의단이 몰려든것을 알았다. 고정자와 함께 리화순이 나타났고 뒤이어 녀성로동자들이 빽빽이 방안으로 들어섰다.

《어떻게 이리들 모였어요?》

봉례는 동무들의 손을 잡은채 역시 어리둥절할수밖에 없었다. 리화순이가 그날 일어난 일들을 대충대충 이야기했다. 잘 싸운 동무들은 이름을 대가면서 익숙한 말솜씨로 이야기하자 어린 로동자들은 새삼스레 울먹울먹들 했다. 봉례도 나중에는 말대꾸를 잃고 쥐였던 정자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어서들 앉으세요. 이렇게들 섰지 말고요, 네?》

한참후에야 봉례는 말했다. 이 세상에는 여러가지 세계가 있다고 봉례는 생각했다. 언제인가 한번 만났던 변승룡의 누이동생처럼 골무나 꽃방석을 만들어 싸두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소위 규중처녀의 세계도 있고 가끔 이야기를 들은 김애라라는 잡것이 하듯이 향락을 추구하는 세계도 있었다. 또 지식인의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허영이 태반인 소위 인테리녀성의 세계도 있고 모든것을 가정살림을 위하여 바치는 소극적인 녀성들의 세계도 있었다. 그러나 봉례는 그 어느것도 자기의 세계가 아니라는것을 오늘 다시금 절실히 확신했다. 이렇게 한데 뭉쳐서 악독한자들과 끝까지 싸울 결심을 다지는 이 학대받는 사람들속이 바로 자기의 세계였다.

《그래, 서분옥동무는 어디 있어요?》

봉례가 물었다.

《저기 있잖아요.》

정자가 가리켰다. 한편벽에 기대서 비스듬히 앉아있는 분옥이는 피기없는 얼굴이였으나 방긋이 웃어보였다. 웃는 두볼에 보조개가 패였다.

《이렇게 되면 의료단도 조직할거니까 기숙사보다 낱는지 몰라요, 분옥동무!》

《여긴 우리 세상이예요!》

분옥이 말했다.

《오늘 저는 다섯개 공장을 다녔습니다.》

봉례가 말했다.

《어느 공장에서나 로동자동무들이 동무들의 투쟁을 눈물겨웁게 듣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씩 되지 않는것이였지만 자기네가 가지고있던 돈을 모두 털어놨답니다. 어떤 동무는 아껴두었던 새 운동화를 내놓았고 어떤 녀동무는 그중 나이어린 동무에게 주어달라고 하면서 꽃무늬수건을 꺼내가지고 왔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결코 고립해있지 않

습니다. 전 조선의 로동자들, 인민들이 모두 우리를 응원하고있습니다. 더우기 북조선동포들이 우리를 응원한다는걸 생각해보십시오.》
응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틈에 연설조로 넘어갔다.
《그렇습니다. 북조선의 동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수 있는것도 또 승리할 자신이 있는것도 북조선의 튼튼한 민주기지가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하다가 봉례는 생각난듯이 한쪽 구석에 내던졌던 가방을 당겨 그속에서 편지를 한통 꺼냈다. 그러더니 구석에 앉아있는 단발머리처녀를 가리키며 물었다.
《20개조정강의 내용이 어떤것인지 말해보세요.》
소녀공은 일어섰다. 그리고 높은 음성으로 말했다.
《1. 조선의 정치, 경제생활에서 과거 일제통치의 일체 잔재를 철저히 숙청할것.》
《또?》
《2. 국내에 있는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적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파쑈적, 반민주주의적 정당, 단체 및 개인들의 활동을 절대금지할것.》
《또?》
《3. 전체 인민에게 언론, 출판, 집회 및…》
소녀공이 좀 망설이자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합쳐서 한조목한조목씩 외워갔다. 더러는 주머니에서 그것이 인쇄된 종이들을 꺼냈다. 민주주의적림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그 감격적인 강령의 조항들을 젊은 로동자들은 목청높이 읽어갔다.
《좋습니다. 그만하고 이것을 읽겠어요. 이건 북으로 가신분이 기준선생에게 보낸 편지예요. 재미있는데만 읽겠어요.》
봉례는 편지를 펴들고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전체 조선인민을 옳바른 길로 이끄신다는것, 북조선의 로동자, 농민이 행복하게 살게 되였다는것, 이같은 북조선의 력량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지 않을수 없다는것 등등 내용을 한동안 읽어갔다.

량심적인 시민들, 모든 근로자들은 누구의 지시도 권고도 받지 않았지만 이미 해방직후부터 북의 소식을 아는것을 자기네 의무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을 한시라도 먼저 아는 사람은 그만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딴 사람에게 전해주군 했다. 한사람이 알고있는 사실은 대번에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듯이 알려졌다. 가령 북에서 토지를 농민에게 나누어주었다는 그 의의깊은 소식만 하더라도 전평신문사에서 통신을 접수한 그날로 벌써 라지오, 방송 같은것을 통해서인지 로동자들이 다 알고있었던것이다.
《북조선만 없어보지!》
편지를 다 읽자 문턱에 와섰던 정형규가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동무세요?》
봉례가 인사를 했다. 정형규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고 말을 이었다.
《북조선만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지경에 떨어졌을지 모르지요.》
《허지만 그런걸 절실히 느끼지 않고들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인형이라는 별명의 소녀공이 《민족반역자들, 반동들이 북조선을 호랭이보다 더 무서워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만 한 일이랍니다.》라고 말했다.
《옳습니다. 인형동무!》
리영춘이가 정형규의 어깨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웨쳤다.
정리해야 할 일이 많았으나 봉례는 한시간이상을 지체했기때문에 또 들리겠노라 하고 총총히 그 방을 나섰다.
봉례는 아래층 섬유산별로 내려갔다. 안철은 무엇인지 열심히 쓰고있었고 한쪽에서는 두서너사람이 등사판을 밀고 쳐들고 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공장사람인듯 한 로동자들이 소책자부수를 세면서 큰소리로 문화부일군들과 담화를 하고있었다. 인사도 안하고 도로 나와 기계산별을 휘돌아보았다. 한 방은 불이 꺼졌고 불이 켜진 넓은 방에서는 회의들을 하고있는듯 누구인지 심각한 어조로 말하는 소리가 울려갔다.

봉례는 편집부가 옮겨간 장소를 알아가지고 그냥 밖으로 나왔다. 방금 비가 멎은 밤의 포장도로우에 불빛들이 반사되여 반짝거리였다.

머리를 땋아내리고 찢어진 종이우산을 든 키다리처녀와 무명양말에 검정고무신을 신은 처녀가 봉례의 옆으로 지나갔는데 키다리처녀가 《끝에 레스를 단 멋쟁이치만데 지금 입긴 정말 아까와서 통일이 되면 입으려고 넣두었어.》 하고 말했다. 두 처녀는 빨리 걸어갔다.

편집부가 옮겨간 황금정쪽으로 향해가면서 봉례는 기준에 대하여 생각했다. 파업한 로동자들은 누구나 말끝마다 기준을 칭찬했다. 그가 기숙사에서 밤을 새우던 일이며 기준이 경찰에게 잡힐번 했던 일이며 미군에게로 덤벼들며 큰소리로 질책을 하던 일 그외 기준에 대한 소소한 일들까지 경쟁하다싶이들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역시 그는 건실하고 믿음직한 남자다. 그는 끝까지 외로운 사람들과 학대받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을 남자다. 그는 다른 동료들보다 많은것을 알고있으며 고생도 많이 했지만 단순한 사람이다. 그는 별로 웃지 않았으나 그러나 한번도 우울해하는걸 보지 못했다. 그는 변승룡과 같은 사람을 비웃었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줄 알고 나를 비웃었다. …)

이같이 생각하다가 봉례는 그의 결함은 어떤 점일가 하고 생각했다. 한참 생각했으나 안경을 자꾸 치켜올리는 버릇밖에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 그런데 그분이 어째 보이지 않을가? 이 바쁜 때 벌써 돌아갈수가 없을터인데… 청사를 나올 때 한바퀴 휘돌면서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으니 아마 신문사나 당으로 간게지… 얼마나 피로할가? —

11

공장로동자들이 파업을 하든 모두 병들든 차코브슨에게는 아플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후 바르버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그랬고 로동자들을 파헤친 실책에 대하여 군부에 불평을 늘어놓는 모리스를 만났을 때도 그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며 그저 《속히 다른 대책을 세우시오. 속히!》 이렇게만 대꾸했던것이다.

백락일이 조석우를 앞세우고 그를 찾아왔을 때도 차코브슨은 매우 성가시게 생각하여 시무룩한 표정으로 한동안 신문을 뒤적이고있었다.

《그래, 어떻게 해달란 말입니까?》

신문을 접어놓고 차코브슨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만 하는 백락일을 바라다보았다.

《글쎄올시다. 바루 그것을 좀 의논하려고 찾아뵌터입니다.》

《미스터 백! 사업 잘하지 못하십니다. 미스터 백은 동광방직을 300만원에 아주 산게 아닙니다. 동광방직은 통일이 되면 한국정부가 관할할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관리권을 양도받은거지요.》

백락일은 정신을 차려 대답했다.

《그렇다면 책임감이 있어야지요.》

차코브슨은 그만치 말하고 그만두려다가 이왕 이야기를 꺼낸김이라 귀찮아도 입방아를 찧을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미스터 백은 대체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은 원료와 리자만 계산하고 다른것들은 원가에 다 넣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것은 착취입니다!》

《그만한것쯤 모르는게 아니올시다.》

백락일은 황송해졌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되겠기에 용기를 내였다.

《직공들은 임금을 5할 인상하라지만 그건 도저히 안되고 2할만으로 사건이 수습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허나 그게 저희 힘만으로는 안되니 이왕지사 한번만 더 힘써봐주십시오.》

《2할이요? 5할 다 올리지 뭐…》

차코브슨은 더욱 기가 질려했다.

《바루 거기에 미스터 백과 저와의 의견차이가 있는것입니다.》

조석우는 통역을 중단하고 이같이 말하며 바투 들어앉았다.

《섬유과장께서 이미 임금인상은 부당하다고 기자단에게 언명했는데도 미스터 백은 아주 고지식하게 현재 임금의 2할을 올리자는것입니다. 그걸로는 로동자들도 듣지 않을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할 다 올린다고 해놓고 작업을 시작한 다음에 섬유과장의 말씀을 집행하자는 저의 의견을 미스터 백은 듣지 않고있습니다.》

《잘못하다가 당신네들 미군정청 망신시킵니다. 우리 합중국의 위신 저락시키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백락일은 말이 직접 통하지 않아 벙어리 랭가슴으로 앉아만 있었다. 차코브슨은 누그러진 음성으로 말했다.

《미스터 조의 의견… 글쎄 좋은 의견인듯 한데 잘들 의논해보시오.》

그러자 백락일은 한번 더 용기를 내였다.

《그럼 미스터 조의 의견대로 일을 추진시키고 한편 조형의 의견까지 얘기하겠으니 통역해주시오. 한편 서북청년회의 힘을 빌릴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일 나에게 의논하지 마시오. 나는 다만 한국의 통일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자들은 무조건 진압해야 한다는것을 주장합니다.》

조석우는 차코브슨의 말을 다 옮기지 않고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는자는 당장 처치해야 한다는것을 주장합니다.》라고만 통역했다. 그 말을 들은 백락일은 귀가 번해서 물었다.

《그렇지요? 역시 그럴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주장입니다만… 그런데 처치하는 방도 바루 그 방도 말입니다.》

차코브슨은 또 안색이 나빠졌다.

《그런것까지 나더러 대달라는 말입니까? 미스터 백! 우둔합니다.》

《서청이 조합청사로 들어갈수도 있고 로동자들을 꾀여낼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석우가 물었다.

《그런건 묻지 마십시다.》

저희들끼리 중얼대는것을 보자 차코브슨은 《나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우리가 밤낮 프로레타리아니, 계급이니, 무슨 적색조합이니, 스트라이크, 데모… 이런것들에만 정신을 팔았다고 해보시오. 아메리카합중국은 오끼나와주민보다도 뒤떨어졌을것입니다. 문명은 야만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벌떡 일어섰다.

조석우는 그런 이야기를 백락일에게 자세히 통역했다. 백락일은 한편으로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있었다.

이왕이면 김성숙 같은 재벌이나 되든지, 이건 큰 공장이 하나나 있나, 토지소유가 변변한가… 김성숙은 김제평야를 2백~3백리씩 남의 땅을 밟지 않고도 다니지 않는가 말야, 그런데 겨우 총재산 9천 2백만원이라니…

그는 바로 엊저녁 장부를 모두 들춰내서 늦도록 자기 재산을 따져보았던것이다.

(그까짓 재산이 무슨 힘을 쓴담!)

이렇게 생각하자 2류, 3류급 자본가인 백락일은 외롭기 한이 없었다.

《들으셨습니까? 돌아가서 만반대책을 취할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갑시다.》 하고 그도 일어섰다.

돌아오는 길에 바르버섬유과장을 찾아보고 한동안 협의를 한 두사람

은 역시 그에게서도 차코브슨과 비슷한 의견을 들었다.

《미국인들의 지혜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백선생?》

자동차안에서 조석우가 말했다.

밤새도록 앓고 이튿날도 일어나지 못했던 기준은 그렇게 앓으면서도 밖의 일이 궁금해서 못 견디였다. 몇시나 되였는지 정신을 가다듬고있으려니까 밖에서 《아직 덜 끓었에요, 그냥 두세요.》 하는 순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순희가 들어왔다. 기준이 눈을 뜬것을 보자 순희는 웨치다싶이 했다.

《오빠, 저도 가게 됐어요.》

《어딜 가게 됐니?》

《우리 세포에서 동광방직쟁의단 의료반으로 나가는데 제가 책임자예요.》

《잘됐구나. 몇동무나 가니?》

《세동무예요. 의약품도 넉넉히 가지고 가요. 이제 가야 해요.》 하더니 도로 나갔다.

(쟁의단이 무언줄 아누, 무슨 구경이라도 가는것 같구나.) 하고 생각하고있을 때 주사기를 들고 순희가 다시 들어왔다.

《피하예요. 아파요.》 하더니 기준의 팔에다 침을 꾹 찔렀다. 이윽고 주사침을 뽑고 순희는 《비비세요. 이젠 열이 내릴거예요. 래일 아침에 돌아오겠어요.》라고 말했다.

《잘들 봐주어라!》

기준은 대견한 마음이 들었다.

이튿날 오후에야 기준은 조합으로 나갔다. 쟁의단이 든 사무실방마다에서는 땀냄새와 반찬냄새가 풍겼다. 4층 넓은 홀에서는 쟁의단을 모아놓고 룡산공작기계공장에서 왔다는 나이먹은 로동자가 격려의 연설을 하고있었다.

기준은 넓은 벽에 거의 빈틈없이 더덕더덕 붙인 구호랑 벽보를 읽었다. 어려운 사업이였으나 응원활동은 매우 큰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쟁의단에 대하여 미군과 경찰이 감행한 무지한 폭행에 격분한 전체 종업원이 조합사무실로들 몰려와 롱성을 하고있다는 소식은 시내, 시외의 로동자들과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의분에 사로잡히게 했다. 그런데다 응원사업에 동원된 동무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기준은 눈에 띄우는 벽 한가운데다 크게 써붙인 응원금과 응원물품이 들어온 내용을 적은것을 읽어갔다.

조선생사공장 로동자일동 2 003원
한성전기회사 승무원일동 3 120원
종연방직분회 1 952원
종연방직로동자 운동화 1컬레, 수건 1매
룡산공장유지일동 1 500원
대창고무공장분회 2 200원
대창고무공장 사무원일동 550원
룡산기관구 선로공 100원
부녀동맹 서울시지부 의류 131점
천연동 최씨 300원
한성방직 종업원일동 950원 50전
조선피혁회사 3 000원
영등포염색공장 로동자일동 1 990원
아지노모도공장 밀가루 57표
동성식기공장분회 사발 230개
인천동양방직 종업원일동 1 599원
대구지방평의회 3 910원
…

《전주에서도 오고… 대단하군!》

기준이 감탄하자 옆에 섰던 박태상이가 《역시 섬유산별산하 로동자들이 가장 열성적이지요. 허동무의 수고도 대단하기는 하지만…》하며 대견해했다.

봉례를 칭찬하자 기준은 속으로 기뻤다. 그리고 문득 봉례와 거닐던 생각이 났으나 짐짓 생각을 다른데로 돌렸다.

그는 순희가 있는 곳을 찾았다. 허드레물건이 쌓였던 3층 맨 구석방을 치우고 거기다 엉성한 림시진료실을 차렸었다. 순희는 청진기를 귀에다 끼고 의사행세를 하고있었고 다른 병원 동무들도 매우 바빠했는데 빽빽이 들어선 환자들때문에 들어가볼수도 없었다.

조합사무실들은 휴식이 없었다. 종업원들은 강당에 눌러앉아 각 공장과 단체들에서 온 대표들의 격려문랑독이나 연설을 들었다. 그러한 대표들의 방문은 종일 그치지 않았다. 그래 다음날부터는 산별에서 한꺼번에 격려문을 전달하기로 하고 극히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종업원들을 모으기로 했다는 박태상의 말이였다.

기준이 사무실로 내려갔을 때 어느 틈에 찾아왔는지 유상렬이가 와앉아있었고 그와 나란히 앉은 안철이 무엇인지 묻고있었다.

《유형, 오래간만이요.》

《여, 기준이!》

《그후 한번도 찾아가지 못해서 안됐소.》

기준은 두사람앞으로 의자를 끌어당기면서 말했다.

《전평에 있다는 전화만 걸고 통 안 오길래 틀어졌나 했지.》

《허허허. 틀어질 일이 있어야지. 그래 당일로 얼마나 수고하오?》

《수고는 무슨…》

유상렬이 예언한대로 그는 편집국장자리에서 떠나 당조직부로 소환되였던것이다. 반년가까이 그가 일하는 동안 《세계일보》는 제법 신문으로서의 틀이 잡혔으며 인민의 편에 선 신문으로서 인기가 높았다. 신문을 그렇게 발전시킨 공로의 일부분이 유상렬에게 있다는것을 상부에서 인정함에 따라 그는 자기의 소원대로 당으로 들어가게 되였던것이다.

《조직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졌으니 … 힘든 일 맡았소.》

기준이 말하자 《힘들것 있나, 그것도 당분간 하겠네.》 하고 유상렬은 마치 당사업을 자기 임의로 하기나 할것처럼 대답했다. 그것은 자기가 더 《출세》하리라는것을 암시하려는 말임에 틀림없거니 하고 기준은 생각했다.

그는 당조직부를 대표해서 쟁의단격려방문을 왔노라 했는데 어쨌든 그의 얼굴에는 무엇인지 자신만만해하는 기색이 떠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러한것처럼 양복웃주머니에 사치한 손수건을 접어넣었고 벌써 바지는 백세루였는데 그런게 이 청사안에서는 그닥 어울리지 않았다. 유상렬은 안철과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니까 문제는 관리인측의 태도여하인게 아니라 군정청의 의사라니까, 어쨌든 군정이 저렇게 요지부동이니 그 의사를 타산 안할수 있는가 말이요.》

《그야 그렇지만…》

안철은 어정쩡하게 대꾸를 했다.

《허니까 내 말은 로동자들의 기세를 북돋아주는것은 중요하나 마음내키는대로 하다가 부차적사건이 생길가봐 하는 말이지. 그럴리는 없지만 가령 공장사무실측 사람을 구타한다든지, 기계를 파괴한다든지…》

《그런 우려야 벌써 없어진지 오래고…》

기준이 대답했다.

《교섭위원이 유능한 사람들로 개선됐으니까 군정청과의 교섭은 그 동무들이 잘할게 아니요?》

상렬은 기준에게로 향해 앉아서 《알겠어. 헌데 교섭도 그렇지. 이 파업을 어디까지 연장시킬수 있는가가 확실해야 할게 아닌가 즉 일정

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성공시켜야 한단 말이지. 반미투쟁처럼 룡두사미가 되지 말잔 말이요!》라고 설명했다.

《반미투쟁이 룡두사미가 된 사실만 해도 그렇지. 그것도 군중의 사기가 떨어진 까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소, 유형?》

기준은 솔직한 의견을 내놓았다.

《나는 투쟁위원회가 지레 경각성을 높여서 기발을 걷어들인것처럼 생각되오.》

《허,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유상렬이 타이르듯이 신중하게 말했다.

《공동위원회가 휴회로 들어간 이후 공세로부터 수세로 들어간 일반적전술의 필연적귀결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니까, 어디 전술이라는게 간단한가 말이요!》

기준도 안철도 덤덤히 앉아있었다. 기준은 앞으로는 당일군과 자주 만날 기회를 얻어야 상렬이가 말하는 《일반적전술》을 알게 되는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직껏은 시간여유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유상렬을 자주 만날 기회를 만들자고까지 생각했다.

《그럼 올라가볼가?》

상렬이 일어섰다.

《올라갑시다. 기준동무가 소개하는게 나보다 적당하겠군.》

이러한 안철의 말에 기준은 《내 안내하지.》 하고 유상렬을 데리고 올라갔다.

기준은 《당에서 나오신》 하는 말로 유상렬을 쟁의단에게 소개하였다. 쟁의단은 어느 누가 왔을 때보다도 우렁찬 박수를 치다가 물을 끼얹은듯이 조용해졌다. 누구인지 기침을 참아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소개를 받은 유상렬은 안주머니에서 격려문을 꺼내 펴더니 그것을 읽었다. 격려문랑독을 끝내고 그는 계속해 20분 남짓하게 연설을 했다. 로동자들의 기세를 북돋는 늘 하는 말들이여서 형식적인 점도 없지 않았으나 류창한 언변으로 엮어진 그의 연설은 그들의 가슴을 찔

렀다. 다시 박수소리가 강당안을 진동시켰고 유상렬이가 강당에서 나가자 제풀에들 노래를 불렀다.

상렬은 요즈음은 좀 바쁘지만 틈있는대로 자주 만나자고 하면서 총총히 가버렸다.

손님이 다소 뜸해진 사이에 안철은 기준에게 교섭위원이 개선되였다는 소식을 거듭 전하고 군정청과의 교섭이 의연 지지하다는것, 백락일, 김동호는 아예 만나기를 기피한다는것 그러나 군정당국을 비난하는 인민의 여론은 비등하고있으며 응원활동은 활발하다는것 등 하루반사이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기준의 건강을 걱정했다.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나오겠다고 하면서 기준은 자기 자리에 우두머니 앉아 무엇을 먼저 해야 할것인가 생각했다. 그러다가 찬찬히 유상렬의 말을 되뇌여보았다.

(공세로부터 수세로 넘어간 일반적전술의 필연적귀결… 헤겔철학의 한구절과 같구나. 과연 전술이라는게 그의 말마따나 간단한것이 아니로구나. 나는 그저 천둥벌거숭이처럼 눈앞만 보고 무작정 반달음질을 한셈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을 때 별안간 벅작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잡아라! 잡아라!》 하는 소리가 연거퍼 들렸다. 그리고 또 다급한 구두발소리들과 우르르 뛰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응?》

사무실에서들 모두 몰려나갔다. 기준이 현관앞까지 나갔을 때 흥분한 정형규가 사람들속에서 웨쳤다.

《때리진 말고 그냥 데리구 들어와!》

사람들속에서 어떤 상고머리의 멱살을 잔뜩 움켜쥔 김인석이가 나타나더니 층계로 올라왔다. 뒤이어 기계공 유인선과 또 한 로동자가 어떤 곰보의 팔을 하나씩 비틀어잡고 올라왔다.

《한놈은 놓쳤지?》

《안요, 두놈 놓쳤어.》

《한놈이야!》
이렇게들 주고받는 이야기…
《이놈아, 이 개같은 놈아!》
《에이, 반역자놈들!》
이러한 욕… 청사안은 법석이 일어났다. 잡힌것들은 위원회사무실로 끌려들어갔다.
종업원들은 문을 닫은 그안에다 대고 제가끔 웨쳤다.
《그냥 두면 안돼!》
《그 개들 맛을 좀 보여요!》
《나 같으면 다리뼉다귀를 부러뜨려놓겠다!》
《쳐죽여두 시원찮은것들이야!》
《놓친게 분해죽겠다. 애!》
《그것들을 녀성들에게 맡겨주세요. 우리가 교양주겠어요!》
기준도 위원회사무실로 들어갔다. 둘 다 서북청년회에 가입했으며 도합 넷이 들어왔는데 삐라를 2백매씩 가지고 들어온것밖에 없노라고 하면서 상고머리는 사지를 사시나무떨듯 했다.
정형규는 우리는 손을 대지 않고 곧 돌려보내겠는데 무슨 지시를 어떻게 받았고 무엇을 더 가지고 왔는지, 또 도망친 둘은 누구누구인지 그것만 정직하게 대답하라고 했다.
기준은 그자들이 뿌렸다는 삐라를 쭉 읽고나서 생각이 많을 때면 언제나 하는 버릇으로 담배를 꺼내 엄지손톱에다 한없이 두드려댔다. 그러다가 옆에 선 최영수에게 아무 표정도 없이 가만히 물었다.
《접수당번동무들이 무얼 하고있었단 말이요?》
《잠간 비웠다는군요.》
《그러다간 똥집까지 들어가도 모르고있게 될거요.》
기준은 담배를 물고 다시 그 삐라를 훑어보았다. 파업은 자주독립을 방해하는 반역행위이며 그것은 북조선의 사촉을 받은 빨갱이들이 세력을 잡으려는 음모라는것 그리고 건국의 열의가 있고 민족의 정신을 고수하는 로동자들은 빨갱이들의 음모에 속아서는 안되고 그것을 쳐부셔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따위 역설쯤으로 쟁의단을 조금이라도 동요시켜보려는 어리석은 수작이였다.

그러나 이 역설속에 얼마나 악랄한 의도가 숨어있는지 잘 모를 동무들이 있을거다. 그것을 철저히 알려주어야 했다.
서북청년회패들이 잡혀있는 방에서 나온 기준은 강당으로 달려올라갔다. 그는 반동삐라에 씌여있는것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반동들의 의도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족반역자들이 료리집에만 틀어박혀 반은 졸면서 술만 마시는게 아니라 자기네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눈이 뒤집혀있다는것과 지금 바로 이 시각에도 오늘 감행한것보다 몇배 음흉한 반역행동을 계획하고있는지 모른다는것을 루루이 말했다.
기준이 이야기를 그치자 문앞에 섰던 정형규가 종업원들속으로 비집고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동무들!》 하고 웨쳤다. 그리고는 비수를 한자루 꺼내 들어보이며 다시 웨쳤다.
《저놈들의 품에서 바루 이런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몇사람쯤 찔러죽이자고 했던것입니다. 도망쳐버린 두놈중의 하나는 권총을 가지고있었다는것입니다. 동무들, 보십시오!》
그는 비수를 치켜들었다. 3천에 가까운 선량한 눈동자들이 일제히 그 시퍼렇고 흉악한 도구를 노려보았다. 그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무뚝뚝하게 계속 웨쳤다.
《이것은 민족반역자의 소유이니까 저자들과 함께 돌려보내야 할것입니다. 여기다가 말입니다. 여기다 피를 묻히지 않고 돌려보내게 된게 다행입니다. 그러나 동무들! 다행하다고 안심할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12

이튿날부터 쟁의단의 경각성은 훨씬 높아진게 눈에 띄였다. 사무실 출입단속뿐아니라 쟁의단 성원들은 공장과 관리인측에 관한 정보까지 수집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누구나 들뜬 기분으로는 자기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리라는것을 통감하는상싶었다. 이리하여 파업은 일시 정착된 상태로 되여갔다.

이렇다할 변동은 없었으나 이일저일로 종일 분주하게 지냈다. 기준은 그날도 어두워서야 조합에서 나왔다. 그는 자기가 꽤 괄괄해지고 성격도 거칠어진것처럼 생각되였다. 그러나 사람의 성격이 단 며칠동안에 변할수는 없었다. 역시 리기준은 리기준 그 사람이였다.

전차를 타기 싫어하는 그는 그날도 남대문에서 대한문으로 돌아 거기서 정동길로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로정대로 걸었다.

정동거리로 들어서자 인기척이 드물고 컴컴했는데 어쩐지 앞이 훤해서 고개를 들어보니 7~8일쯤 밤의 달이 미소를 머금고 중천에 걸려있었다. 그는 달에 대한 아무런 흥미도 없었다.

그것을 찬찬히 쳐다볼 생각도 않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지나간 일들을 회상해보았다.

테로를 당하던 일과 미군들의 만행, 김재인의 더욱 심한 타락과 망년회 좌석에서의 추태들, 사회경제연구회의 사실상 해산과 변승룡의 대학 취직,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선 군중속에 있었던 자기와 동방쟁의단속에 휩쓸려있던 자기…

불과 5~6개월동안에 예견 안했던 엄청난 사실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전개되였던것이니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 다 예견할수 있으랴싶었다.

이 밤길보다도 더 어두울것만은 사실이 아니냐? 하다가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지 않다. 정의의 편에 서있다는것이 얼마나 떳떳한 일이며 행복한 일이냐! 그것만이 어둠속에서도 항상 빛을 보게 하고 갈길을 찾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판소앞을 돌아섰을 때 누구인지 이쪽으로 걸어왔다. 마주 걸으며 그 모습을 살핀 기준은 이내 그게 누구인가를 알았다. 좀 빠른듯 한 걸음걸이가 그러했다.

달빛을 받아 희게 떠오르는 좀 갸름한 얼굴의 륜곽이 차차 가까와올수록 틀림없었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도 이젠 별처럼 반짝하는 그 눈동자만으로도 알수 있었다.

기준은 멈춰섰다. 저쪽도 멈춰섰다.

기준은 마치 저절로 그렇게 되는것 같이 성큼성큼 걸어가 저쪽을 덥석 껴안았다.

《봉례!》

기준은 나직이 불렀다. 봉례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누구의 숨소리인지 벅차게 들렸다.

《봉례!》

거듭 이렇게 부르는 목소리가 자기의 목소리같지 않았다. 기준도 후들후들 떨고있었다.

봉례는 무슨 대답을 해야만 했으나 도저히 발성을 할수 없어 고개만 그의 가슴에 박고있었다. …

잠시후 두사람은 꿈에서 깨여난듯이 떨어졌다. 그러나 두사람 다 말을 못했다. 봉례가 가는 방향으로 되돌아서 거닐면서도 여전히 기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디 가는 길이오?》

한참후에야 기준이 물었다.

《집에요.》

들릴락말락한 소리였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댁에서요.》

기준은 또 말문이 막혔다. 저쪽에서 남자들이 지껄이면서 왔을 때야 기준은 비로소 그동안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고 물었고 봉례도 자기는 별로 한 일이 없노라고 말했다.

큰 길목까지 나왔다가 두사람이 약속이나 한듯이 돌아섰다.

《누워앓으신 동안에 고정자동무에게서 공장에서 싸우신 자세한 이야기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리선생님은 아무리 곤난한 길도 헤쳐나가실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할 사람이 많겠는데 나를 존경한다니…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존경할 사람이 어디 그리 많아요?》

《많지요. 해방후 나는 존경해야 할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봉례동무가 기진맥진할줄 알았습니다. 인식부족이지요. 나는 꾸준히 나다니는 봉례동무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해봤습니다.》

봉례는 기준이 서슴없이 말한 그 동반자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묵묵히 걸었다. 흔히 말하는 배우자대신으로 쓰이는 의미로 쓰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되였으나 동지라는 말을 우정 그렇게 쓰지도 않았을게 아닌가싶었다.

《동반자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봉례의 마음은 더욱 거북해졌다.

《나도 생각없이 불쑥 그런 말을 했군요. … 허나 리유없이 나온것도 아니지요. 나는 봉례동무를 사랑하고싶습니다. 실례의 말일가요?》

이제는 할 말을 다해버렸다고 생각한 기준은 거칠것이 없었다.

《실례가 된다면 용서하오. 우리는 십칠팔세의 아이들도 아닙니다. 좌우간 나는 봉례동무가 좋다는 말을 하고싶었습니다.》

《정말이세요?》

봉례는 가만히 물었다.

《내 봉례동무에게 롱담한 일이 있었나요? 봉례동무를 나는 허영에 뜬 거만한 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허지만 저는 약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이 어려운 고비가 끝나는것일가 하다가도 그게 너의 운명이다, 싫증내지 말고 덤비지 말고 자꾸 걸어가라! …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봉례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기준을 쳐다보았다.

《끝날 날이 있겠지요. 나는 철학자가 못되지만 모든 일은 시작되였을 때 끝날것이 예견되는거니까요.》

《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길이 제 생각에는 멀고도 멀어요. 제가 약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허지만 약한것을 강한체 하는것도 우습구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것은 우리의 환경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싸우지 않구는 제대로 살수가 없어서 싸우니까 강해지는거지요. 우리도 잘살아야 할게 아닙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싶고 우리도 깨끗한 식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싶습니다. 그런데 불면 날아갈것 같은 접시의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학대를 하니까요.》

《저는 사람들이 모두 향기로운 꽃이 활짝 펴있을 때 같고 그렇게 한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가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나이를 하나둘씩 더 먹으면서 그건 소녀의 공상이라고 생각했지요.

안예요. 그렇게 의심하면서도 지금도 공상해요. 리선생님! 어떤 사람은 고사리만 먹고 살았다지만 저는 아마 공상만 하고 사나봐요. 이따금씩 그런 공상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될것을 믿으려고 애씁니다. 들으세요? 딴 생각하시는것 같애…》

《어서 이야기하오.》

《그런 공상이 저를 키워주고 저를 일하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해주나봐요. 그런 공상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가 이런 생각까지 가끔 한답니다.》

일단 말문이 터진 봉례는 한이 없이 자기 이야기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봉례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미제국주의자들과 간고하게 싸우는 로동대렬의 언론을 다루는 일군의 한사람인것이 아니라 열대여섯에 난 소녀와도 같았다.

서소문턱에 다달으자 봉례는 《한번 더 되돌아가세요, 네?》 하고 부탁했다. 그들은 그 길을 또 되짚었다.

《그건 공상만도 아니군요.》

기준이 대답했다.

《우리가 잘 차리고 다니는걸 몰라서 잘 차리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집을 잘 꾸밀줄 몰라서 못 꾸미는것도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렇게 잘살수가 없기때문이지요. 봉례동무의 공상을 잘 알수 있습니다.》

《지금 리선생님이 입으신 그 차림이 저는 그중 마음에 들어요. 또 지금 하고계시는 생활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만약 리선생님이 영국천으로 쪽쪽 빼시고 번쩍번쩍하는 구두를 신으셨다면 저는 경멸할겁니다. 그러나 저는 존경합니다. 선생님의 수수한 차림이 얼마나 좋아보이는지 선생님자신은 모르실거예요.》

그들은 확실히 흥분에 사로잡혀있었다. 봉례도 그러했지만 기준도 다리가 계속 후들후들했다. 가슴이 벅찼다.

기준은 뚝딱거리는 자기 심장의 고동을 저쪽이 듣는것만 같아서 이따금 헛기침을 했다.

《참, 내 정신 봐! 박문선선생님에게서 온 편지를 여태 끼고있네.》

《문선동무요?》

《네.》

봉례는 가방속을 뒤져 편지를 꺼냈다. 편지를 받은 기준은 그것을

소중히 안주머니에 넣었다.

《피봉이 뜯어졌길래 먼저 읽어봤어요. 용서하세요, 네?》

봉례가 사과를 했다.

《먼저 볼수도 있지요.》

《참, 좋은 말씀 많아요.》

기준은 한시바삐 읽어보고싶었으나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물론 북조선에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가 기본적으로 숙청됐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민주개혁이 저절로 되는건 아닙니다. <개간된 처녀지>(쏘련장편소설)를 읽어봤지요. 북조선에 그렇게 반동조직이 있지야 않겠지만 많은 다비도브(우의 소설의 주인공)가 필요한것입니다. 박문선이 다비도브의 한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토지개혁총결에 관한 **김일성**장군님의 보고는 읽었어요. 그것을 읽고 어려운 사업이라는걸 알았습니다. 허지만 서로 맘껏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뜰히 위해주게 되는 사회가 오고있으니 지금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은 벅찹니다.》

《벅차지만 행복하지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에서 이길게 안예요!》

《래일이라도 회관이 습격을 당할지 모르는 판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파업이 성공 못할건 아니지만…》

《성공해야지요. 모두들 얼마나 좋아할가. 서분옥동무 어떤 분회위원하고 련애한대요.》

《리영춘동무죠.》

《전 진심으로 축하해요.》

두사람의 이야기는 한이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인적이 드물었고 미군차들만 짐승소리들을 지르거나 휘파람소리를 내는자들을 싣고 달렸다. 두사람은 다시 서소문턱으로 와서는 광화문네거리로 내려갔다.

《이젠 그만 돌아서세요. 래일 또 열이 올라요. 돌아서세요!》

봉례가 걱정스런 마음으로 말했다.

《봉례동무 전차 태워주고…》

《싫어요. 벌써 밤 열한시예요. 그만 들어가 쉬셔야 해요.》

봉례는 전차에 올라탔다.

전차속에서도 봉례는 옆에 기준이가 있는듯이 흥분해있었다. 생전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겨본 봉례였다. 한없이 행복한것 같으면서도 어쩐 일인지 심란한것을 억누를수 없었다. 두서없는 생각이 뭉게뭉게 구름 피여나듯 했다.

전차가 종점에서 멎었으나 봉례는 그대로 앉아있었다. 전차를 돌리느라고 불이 꺼졌을 때 당황히 내렸다. 어머니가 기다릴것이였으나 봉례는 느린 발걸음을 옮겼다.

봉례가 올라탄 전차가 떠나는것을 보고 돌아선 기준은 곧장 집으로 향했다. 기준은 그날이 자기의 반생에서 가장 의의깊은 날들의 하루라고 생각했다.

봉례와 그렇게 우연히 만나서 이같이 아주 돌연히(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서로 사랑을 털어놓게 될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었다.

(그렇구나. 봉례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봉례는 참 아름다운 처녀다. 씩씩하고 마음씨가 곱고…)

언제인가 한강철교를 넘으면서 하던 이야기를 회상하고 그는 빙그레 웃었다. 이제 생각하니 스무살먹은 청년도 아닌데 무던히 젖비린내 나는 소리를 늘어놨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러나 그 행복이 받을 피해… 일찌기 경험하지 못하던 거세인 폭풍속에서 이 사랑이 배겨낼수 있을가? … 지레 겁을 먹을것은 없다. 성실하고 참된 사랑을 하면 된다!)

리기준의 마음은 행복했다. 그리고 어디서 생겨났는지 새로운 힘이

솟아나오는것 같았다.

그는 속으로 웨쳤다.

(어떻게 해서든지 파업이 성공해야만 한다.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바치자!)

13

녀성들이 태반인 쟁의단성원이 몇개 마루바닥방에서 일주일씩 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남자들의 위생도 곤난한 점이 많았고 남자들로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녀성들의 소소한 필수품이 아쉬운 일이였다. 또 남자들중에는 가족들을 버려두고 오래 나와있을 처지가 못되는 사람도 있었다. 사정은 그러했으나 쟁의단은 날이 갈수록 질서가 잡히고 단결이 굳어져갔다.

안철은 좋은 기회로 생각하며 강연이요, 연설이요 쉴새없이 들이대서 그들이 잡념에 사로잡힐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를 또 로동자들도 희망했다.

그날도 기준이 아침마다 하는 짧은 상식강좌를 끝내고 위원회방으로 들렸을 때 그런 희망들을 말했다.

김인석이가 《한시간으로는 짧습니다. 그런 이야긴 앞으로는 두시간쯤 계속해주십시오.》라고 말했고 유인선은 《정말 이렇게 석달만 하면 모두 지도자가 되겠네.》 하며 으쓱했다.

《석달이나 계속했다간 야단이야. 공장에 가서 해야지.》

리영춘이 말했다. 그러자 유인선이가 받았다.

《념려말게. 오늘도 군정청에서 전화가 왔다는데 며칠사이에 돌아갈것 같다네.》

《돌아가더라도 계속하도록 해야지. 리선생이 일주일에 두번씩만이라도 나와주신다면…》

《어디 노력해봅시다.》
기준이 대답했다.
《개새끼들, 이제야 후회되는게로군.》
김인석이가 욕을 했다.
《전화질만 하문 그만인가? 잔뜩 애 좀 먹여야 해!》
그때 정형규가 문을 열었다. 형규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언제나 무뚝뚝한 태도였다.
그런데 오늘은 웬 일인지 그 주걱턱을 유난히 더 내밀고 《없다. 그건 절대로 안될걸… 천만에!》라고 두덜대며 들어섰다.
《무얼 그러우?》
기준이 물었다.
《군정당국의 의견이 요구조건을 다 해결하겠으니까 우선 공장으로 복귀하는게 어떠냐는거랍니다.》
옆에 섰던 유인선이가 의분을 참지 못하는듯 웨쳤다.
《뭐야, 개수작말래. 그놈들이…》
《가만 좀 있소. 이야길 다 들어.》
형규가 인선의 말을 막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교섭위원들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게 될거라니 대체 어떻게 된 셈판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럽디까?》
기준은 물었다.
《산업건설부의 키큰 동무가 있죠? 그 동무가 부장동무에게서 들었답니다. 전평신문사 기자하고 그렇게 담화를 하더라는겁니다.》
《부장동무 있습디까?》
《방금 나가더군요.》
《그럴리가 있소?》
기준이 말했다.
《그건 파업을 시작 안하기만 못한 일이요. 그런 뜬소문 퍼뜨리지

마시오.》
기준은 어떻게 된 소문인가싶어서 안철에게 물으려고 방을 나섰다. 층계를 내려가려는데 저쪽에서 《오빠—》 하고 순희가 불렀다. 그는 순희를 따라 림시의료실로 갔다. 거기 봉례가 와앉아있었다. 기준과 눈이 마주치자 봉례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안녕하세요.》라고 했을뿐 짐짓 자기의 표정을 보지 못하게 몸을 돌리면서 유리창으로 가서 창가림을 말았다.
《어쩌문 한번도 들어와 보지 않으셔?》
순희가 불평을 했다.
《남 바쁜데 들어와 무얼 하니?》
《두분이 남매간이신걸 저는 이제 알았어요. 어쩌나…》
고정자가 일어선채로 말했다.
봉례의 거동에 정신을 팔고있던 기준은 방안에 또 한 녀성이 있는걸 몰랐다.
《정자동무군. 왜 구석에 서있습니까? 이리 앉지.》
《의사선생님 같은 언니가 있었으문…》
정자는 순희를 의사선생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기준에게로 가까이 오면서 말했다.
《파업이 끝나면 두 선생님댁에 놀러 가도 좋지요? 네, 선생님!》
《환영하지요. 물론! 그런데 오늘은 왜 환자가 없니?》
《급한 치료는 대강 끝냈어요. 그래 어제부터는 오후에만 보기로 하고 이렇게 저만 나와 있지요.》
《참, 수고했다. 병원동무들에게 단단히 감사를 해야겠군, 정말…》
《인사는 무슨… 허지만 오빠, 들어보세요. 좌우간 진통제가 열여섯상자, 칼시움이 여덟상자, 소화제, 살균제, 붕대… 숱하게 썼어요. 그것도 강당에 써붙여야지요?》
《아무렴, 누구 이름으로 쓸가? 리순희?》
《안예요. 롱담이예요. 그럼 곤난해요.》

《급한 환자들도 있던?》

《7~8명 있어요. 서병옥?》

《서분옥이지요.》

정자가 시정해주었다.

《응, 서분옥. 그 동무 아주 위태했어요. 기숙사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안됐을 정도예요.》

《서분옥동무가 그래요?》

옆으로 와섰던 봉례가 놀랐다. 놀란 표정그대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지옥같은 곳으로 무조건 복귀한다구요? 리선생님, 그렇다지요?》

《대체 무슨 소리들이야?》

기준이 난감해했다. 봉례는 그날 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여서 매우 뻣뻣한 어조로 말했다.

《그게 무업니까? 조금전에 산업건설부장 박태상동무는 최선의 전술일거라고 하던데 리선생님도 그 최선의 전술을 지지하셨습니까?》

(그날 밤은 소녀같더니 오늘은 30살이 넘은 녀활동가로구나.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가?) 하고 생각하고있을 때 봉례가 말을 이었다.

《천오륙백명에 대해서는 고사하고 저는 한 로동자의 사정을 묻겠습니다. 서분옥이가 저라면 억울해서 자살이라도 하겠습니다.》

순희가 말을 받았다.

《오빠가 강당에 있는 동안 저희는 정자동무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자동무는 그냥 돌아가지 않겠답니다. 저도 기맥이 빠졌구요. 오빠가 인정하시다싶이 저는 우물안 개구리예요. 허지만 일이 이렇게 된것이 분해요.》

기준은 급히 자기 방으로 내려갔다.

섬유산별산하 로동자들의 생활실황통계가 급히 필요해서 그것을 꾸미느라고 지난 밤 회관에서 밤을 밝혔던 안철은 철필대를 잡은채 꺼떡꺼떡 졸고있었다. 졸건말건 기준은 질문을 들이댔다. 안철은 기준이 아

침강좌에 나갔던 동안에 교섭위원들끼리 토의한 경위를 이야기했다.

《나도 반대의견입니다. 허지만 당에서 나온 말이니까…》

《당에서 그런 지시를 할리가 없습니다.》

기준이 완강한 태도로 말했다.

《잘못 전달된게지요. 확실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 그래서 박동무가 또 당으로 뛰여가긴 했지만 좌우간 산업건설에 대한 로동자들의 열의를 보여야 한다는것이였습니다.》

기준은 묵묵히 방안을 거닐었다. 창문앞까지 갔다가 도로 돌아서고 벽에 부딪치면 다시 창문으로 향해 가군 했다. 안철이 부언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섬유산별 간부들과 동광방직파업투쟁위원회를 대표해서 최영수, 정형규 그리고 당에서 나왔다는 키가 작달막하고 침착한것인지, 깐깐한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표정의 사람이 합석해서 협의회를 했다.

협의내용은 쟁의단복귀에 대한 문제였다. 협의되는 방향을 가늠하고 있다가 안철이 말했다.

《도대체 어째서 그냥 복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구요?》

그 키가 작달막한 동무가 물었다.

《동무가 문화부장이지요?》

《그렇습니다.》

《동무는 여지껏 무슨 사업을 해왔습니까? 여지껏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소? 다시한번 말하겠습니다. 첫째로 로동자들의 산업건설에 대한 열의를 보이자는것, 현재 쟁의단의 사기라든지 현 상태로 보아 로동자들이 극좌적으로 나갈 우려가 있다는것과 아울러 생각하시오. 둘째로는 교섭위원들이 군정당국의 언질과 약속을 받았다는것, 셋째로는 동시에 단체대표권이 확인된것… 더 자세히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준이 말했다.
《그렇게 됐으니 당장이라도 쟁의단의 요구조건이 해결되겠군요. 해결해놓고봅시다그려.》
《허, 교섭위원동무들이 여지껏 한 이야기가 무어요?》
키작은 동무는 더욱 랭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의를 길게 끌 시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는군. 말재간만 부리려고들 한단 말이거던.》
《납득되지 않는거야 어쩌겠습니까?》
정형규가 굵은 목소리로 불쑥 말했다.
《여보!》
키작은 동무가 더욱 얼음같이 찬 어조로 말했다.
《동무는 로동운동을 한 공장만 가지고 할 작정이요? 1920년대에 하던 파업하고는 다르단 말이요. 미군정은 오늘 우리 로동자들의 력량을 모르는줄 아오?》
이렇게까지 나오니 모두들 더 대꾸를 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 잠시 생각하다가 한마디 더해야겠기에 안철이 또 입을 열수밖에 없었다.
《투쟁위원회동무들이 여기 다 참가하지 못했으니 겸해서 종업원들의 의견까지 물읍시다.》
《그래도 못 알아들었군.》 하고 그는 답답해했다.
원래 성급한 박태상이 급해맞아서 설명했다.
《오늘안으로 성명을 발표하기로 약속되였으니까 신문편집시간전에 끝내야 하겠습니다.》
《오늘안으로요? 저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기준이 고르지 않은 음성으로 말했다.
《동무, 투쟁위원이요?》
키작은 동무가 물었다.
《아닙니다.》
《교섭위원이요?》

《아닙니다.》
《그럼 동무는 좋소.》
이같이 무시를 당하자 기준은 울컥 부아가 치밀었다.
(위원은 아니지만 나도 당원이 아닌가?) 하면서 그는 계속 담배만 피우다가 나와버렸다.
기준이 나온 후에도 회의는 한시간이나 더 계속되였으나 종시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국 쟁의단 복귀성명서는 그날 발표할수 없게 되였다. 특히 정형규는 복귀하자는것은 당의 의견일수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였다.
(강제로 내리먹이자는 수작이 아니냐. 당이란 무엇이냐. 로동자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당이란 있을수 없는게 아니냐. 내가 아직 당을 모르는것일가. 과연 그래서 이같이 덤비는것일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당사무실로 달려가 유상렬을 찾았다.
상렬은 외출중이였다. 한번도 안면은 없지만 직접 조직부장을 만나려 했으나 그는 회의중이라고 했다.
어떻게 할가 하고 망설이고있을 때 해방후 몇차례 만난 일이 있던 리기수라는 50살이 넘은 1920년대 활동가가 복도 이쪽으로 걸어오는것을 보았다. 그가 당의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리라는것을 짐작한 기준은 그의 앞을 막았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오- 리기준씨지? 어짠 일이시오?》
인상좋은 그는 여전히 전라도말씨로 기준을 대했다.
《사실은 한가지 여쭈어볼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언 얘기인데? 들어오시오.》 하고 그는 기준을 자기 방으로 안내했다.
기준은 파업경위로부터 오늘 협의된 성명서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자기의 불만을 말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글쎄, 자상한거야 모르지만 내가 말

할수 있는건 말이여… 당은 로동자들의 의사를 대변하지만 또한 로동자들을 인도한다는걸 생각하라니께.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않구야 당을 옳게 인식 못한다는걸 알려줘야 한다니께.》라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잘못된데가 없었다. 하지만 기준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기준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다시 조합을 향해 걸었다.

어찌되였든 모든 일이 허사란 말인가? 롱성하고있는 로동자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가?

이튿날 새벽부터 다시 회의가 열렸다. 이번에는 어제 나왔던 동무와 함께 유상렬이가 나타났다.

유상렬을 만난 기준은 서로 이야기가 통할것을 예측하고 기뻐했다. 그래 어제 그를 찾아갔노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무조건 복귀는 도저히 안될거라고 리유를 따져가면서 하소연하다싶이 했다.

잠시 듣고있던 상렬은 《무조건 복귀라니… 그건 모르는 소리일세. 좌우간 회의에 참가하게.》 하고는 그를 위원들이 모인 산업건설부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어제 참가했던 전원이 다 와있었다.

상렬은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반시간이상이나 그가 한 이야기는 역시 전번에 말하던 그 《공세로부터 수세로 넘어간 일반적전술의 필연적귀결》에 대한것이였다.

그리고 당원은 모름지기 당의 방침을 접수할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철을 비판했다.

《안동무가 끝까지 반대라지요? 안동무는 문화부를 책임지고있으면서도 사업을 잘 조직하지 못합니다. 그러구야 어떻게 수십만명 섬유로동자들을 통솔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동무의 태도는 끝까지 당의 방침을 반대하려는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키작은 동무가 상렬의 말을 받아 어성을 높여 말했다.

《미제는 음흉합니다. 음흉한만큼 우리는 그때그때의 적합한 전략을 써야 하는것입니다. 극좌와 극우… 이것은 어느거나 우리의 적입니다.》

안철은 처음부터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있었다. 쟁의단의 복귀성명서를 발표할것을 결정할 때 위원중에서 끝까지 반대를 한 사람은 정형규 한사람뿐이였다.

《우리는 우리가 제출한 요구조건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공장으로 돌아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한데 뭉쳐서 싸우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14

그날 섬유로조 동방분회와 동방쟁의단일동의 명의로 발표하기로 된 성명의 복귀리유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조항이였다.

1. 군정청 상무부장과 로동국장, 맥아더사령부의 로동고문… 그리고 섬유과장 등 여러 제씨와 회담을 거듭한 결과 해고자복귀, 임금인상, 기타 요구조건 일체에 대하여 원만해결의 방식이 호상간에 해결된것,
2. 조선로동조합 전국평의회의 단체대표권이 군정당국에 의하여 확인되였으므로 군정과 로동조합을 믿고 로동조합의 지시대로 복귀하는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한것,
3. 이같은 량해가 된 이상 군정내부관계의 제 수속이 완료될 때까지 약간의 시일을 요한다는 군정당국의 립장을 존중하여 그간 생산을 중지하고있음은 우리의 본의가 아니고 생산을 계속하는것이 건국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한것,
4. 이번 투쟁을 통하여 공장측의 모략, 탄압, 해고, 구타 등에 우

리 조합원일동은 언제든지 대항할수 있고 이겨낼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를 한층 더 굳게 한것,

…

기준은 그 조항들을 거듭거듭 읽고있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속 아넘어가는것만 같아서 못 견디였다. 안철은 안철대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멍하니 자기 책상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있었다.

답답해진 기준은 그대로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벌떡 일어난 그는 모자를 집어쓰고 아무말없이 밖으로 나와버렸다. 기준은 그길로 전평신문 편집부가 옮겨간데로 향했다.

《혼자 있습니까, 봉례동무?》

편집부 사무실로 들어간 그는 봉례가 원고를 쓰고있는 앞으로 가서 큰소리를 내였다.

《깜짝이야, 난 누구시라구…》

봉례는 정말 놀랐다. 가슴을 쓸어내리듯 하다가 대답했다.

《네, 혼자예요. 앉으세요.》

기준은 풀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때 어디를 다녀오는 길인지 《리선생 오셨군.》 하면서 허인기가 들어섰다.

다시 의자에서 일어선 기준은 인사말은 하지도 않고 《허선생님! 복귀성명서를 보셨습니까, 보셨지요?》 하고 물었다. 그제야 봉례는 기준이 그것때문에 흥분했다는것을 알았다. 그래 재빨리 기준의 말을 받았다.

《그런 일방적인 성명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들 보셨군. 신문에 실으시겠지요?》

《무얼 말입니까?》

허인기는 모자와 상의를 벗어던지면서 되물었다.

《그 복귀성명을 말입니다.》

《음, 그거요?》 하더니 허인기는 전보다도 더 부석부석한 얼굴에 가벼운 웃음을 띠우고 말을 이었다.

《그건 실게 돼있지 않습니까? 지시니까요. 이미 실게 만들어서 보낸것이니 실을수밖에요.》

《그래, 허선생님도 그 성명을 지지하십니까?》

기준은 채근하듯이 물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허지만 나에게는 그것을 반대할 기회도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던것입니다.》 하면서 허인기는 힐끔 기준의 안색을 살폈다.

기준이 계속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입술만 우물거리는것을 보자 그는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신문에 실은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다는것은 아닙니다. 여보시오, 리선생! 그래 모두들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 벌은 신문사와 나누어 받을 작정이지요? 좋습니다. 나는 책임이고 벌이 무서운것도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것은 이미 싣지 않을수 없게 만들어 보낸것입니다. 싣게 돼있는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하지요. 로동자들의 실패로 파업은 끝난것입니다!》

그제서야 기준은 파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것을 확실히 자인하였다.

그러자 더욱 말문이 막혔다. 그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어찌할수 없어서 편집부에서 나왔다.

다시 자기 사무실로 돌아온 기준은 차차 마음이 진정되는것을 깨달았다. 이미 뒤에서 다 만들어놓은것을 공연히 시비하는것이 어리석게 생각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철에 대한 불만을 억누를수가 없었다.

안철은 당에 의거한것이 아니라 유상렬과 그 키작은 동무에게 굴종했다는것을 기준은 잘 알고있다. 그는 당적인 태도를 취한것이 아니라 아부를 한것이였다.

(어찌하여 아부굴종해야 했을가? 바로 그것이 무난하게 지내려는 사

무원의 근성에서 우러나온게 아니고 무엇이랴…)
이같이 생각한 기준은 그에 대한 불만이 컸다. 박태상에 대한 불만도 컸지만 여직껏 믿어오던 안철에 대해서는 아주 실망했다.
더우기 기준을 불쾌하게 한 사실은 안철이 기준에게 매우 미안해하는 그 태도였다. 그는 아침이후 완전히 애매한 사람이 되고말았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던 그의 손이 부질없이 신문철만 뒤적이고있었다. 쟁의단이 이제 어떠한 대책을 취하여야 할지 그는 생각도 않는 상싶었다.
박태상이 안달아서 재삼 안철에게로 왔다.
《이젠 성명도 발표되고 또 공장관리인측도 종업원을 받을 준비를 하기로 됐다지 않습니까? 잘못하단 망신을 당할뿐아니라 수습할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어서 로동자들을 설복시킵시다.》
그러나 안철은 여전히 어물어물하며 기준의 눈치를 살폈다.
안달이 난 박태상은 《그럼, 내 혼자 쟁의단에 납득되도록 이야기하겠으니 그리 아시오. 오늘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행동통일이 안되면 야단입니다.》라고 말하고는 웃층으로 달려올라갔다.
박태상은 쟁의단을 모아놓고 공장으로 복귀할데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어찌된 영문을 모르고있는 종업원들에게 열심히 설명했다.
종업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설명을 열심히 들었다. 설명이 끝났으나 쟁의단은 역시 물을 끼얹은듯이 잠잠했다.
박태상은 다시 연단으로 올라갔다. 그는 이 성명이 어느 한 개인이나 몇사람만의 의견도 아니요, 로동조합이 단독으로 군정과 교섭한 결과만도 아니라는것을 루루이 말했다.
《그건 그만해도 알아듣겠소이다.》
창고계의 그중 나이먹은 로동자가 일어서서 말했다.
《가라문 지금이라도 가지요. 허지만서도 가서 일을 할수 있겠는가 말이외다. 그걸 좀 강의해주시오.》
뒤이어 공장에서 철봉 잘하기로 꼽히는 경상도내기 운반공이 앉은

채로 큰소리를 냈다.
《갈라카면 가지만 또 대한로총 세도 쓰문 으이하노? 완력으로 할라카면 내 한번 힘 써보겠다만 그럴수도 없능기고… 영 개판이다!》
《그런 념려들 마십시오! 조합을 대표해서 두사람이 나간다잖습니까, 네? 해결할걸 해결하겠다니까요.》
박태상이 기진맥진한 어조로 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분회위원들은 아무도 입을 벌리지 않았다.
한 소녀공이 일어서더니 무슨 교과서 암송하듯이 《우리 로동자들은 단결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조합의 지시를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으로 돌아가야 하는것입니다.》 하고 단숨에 말하고 주저앉았다.
여기저기서 킬킬 소리가 들렸는데 누구인지 《옳소!》 하자 강당안은 웃음판이 되였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장난도 아니였고 즐거운것은 더욱 아니였다. 어찌되든 공장으로 돌아갈수밖에 없다고 단념한 로동자들의 락관주의의 표시로밖에는 생각할 도리가 없었다.
이리하여 일주일이상 조합회관에서 롱성하여 싸우던 쟁의단이 짐들을 꾸려들고 회관앞 큰길로들 모이게 되였다. 끝까지 회관에 남아있겠다고 하면서 30～40명은 강당안 거적바닥에들 벌떡 누워버렸다.
최영수는 그들을 끌어내려고 애썼다. 그런데 그들을 타이르는 동안 내려갔던 동무들이 하나씩둘씩 다시 올라왔다. 그래 최영수는 처져있을 사람은 있게 하고 급히 큰길로 내려와버렸다.
고정자는 형규와 마주앉은 기준에게로 시름없이 들어왔다.
그는 기준에게 《선생님, 저를 꾸중하지 마세요. 저는 로동자로서의 의지가 박약한가 봅니다. 확실히 그런가봐요.》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형규에게 《저를 분회에서 제명해주세요. 저는 딴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제기하고는 책상우에 엎디여 어깨를 흔들었다.
《울기는 왜 우는가요?》
기준이 뭉클한 가슴을 억누르고 소리쳤다.

《찬찬히 이야기해서 좋도록 하면 되잖습니까? 이야기를 합시다.》
그때 복도에서 우락부락하게 말하는 김인석의 음성이 들렸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글쎄, 전 내버려두십시오.》
《정형규동무는 어디 있소?》
《여기 있습니다.》 하고 형규가 일어섰을 때 박태상이 고개를 디밀었다. 대렬이 떠나겠으니 함께 나가자는것이였다.
《최영수동무가 나갔습니다.》
형규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이젠 복직도 하겠으니까 영수동무가 분회책임자입니다.》 하고는 도로 의자에 주저앉아 피우던 담배를 마저 피웠다.
기준은 《집걱정은 생각도 말라고 해주슈!》 하던 정령감의 말이 생각났다.
《떠나는군.》
누구인지 말했다. 기준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주렁주렁 종업원들의 대렬이 한강쪽으로 향해 움직이는데 맨 선두에는 조합기가 힘없이 흔들리고있었다. …
차라리 다른 일터를 구해가겠다고 하는 로동자가 한두사람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나 합당한 자리가 자기를 기다리고있어서 그러는것은 아니였다. 만약 확실하고도 좋은 공장, 기업소에 빈자리가 있다면 굳이 붙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대상들도 있기는 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일자리는 있을수 없었다. 그리고보니 막연히 공장을 떠나게 해서는 안되였다. 막연히 사회로 나가는 로동자들이 매양 그러한것처럼 푼거리장사치가 되지 않으면 실업자가 되여 거리로 떠돌다가 결국 타락하고마는 그러한 행로를 선택하는것을 남의 일 보듯 해서는 안되였다.
《강당에 처져있는 동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동무?》
기준은 정자를 옆에 앉혀놓고 형규에게 물었다. 정형규는 묵묵했다.
《군정당국의 립장을 존중한다?!》

정형규가 혼자 두덜댔다.
《쥐가 고양이사정 봐주는셈이로군. 이건 꼭 무슨 사탄이 있는 일이라니까…》
《사탄이야 무슨 사탄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삼갑시다.》
안철이 조심조심 말참견을 했다.
《좌우간 교섭위원들의 말대로 이렇게까지 양보해볼 필요가 있는것인지도 모르지요. 사실 군정당국의 의사가 이번 기회에 명백해질게 아닙니까?》
《벌써 명백하잖습니까?!》
기준이 좀 엄격한 어조로 말하자 안철은 도로 덤덤해졌다.
《그렇습니다. 명백해졌습니다!》
정형규가 말했다.
《단지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가 문제일뿐입니다.》
《그러니 처져있는 동무들은 어떻게들 하겠다는것입니까?》
기준이 거듭 물었다.
《싸우자는겁니다!》
정자가 웨치다싶이 했다. 기준은 잠시 묵묵히 앉았다가 또 물었다.
《어떻게 싸우자는건가요?》
《끝까지 싸우자는겁니다!》
이러한 정자의 말을 형규가 막았다. 그리고 의논하는 어조로 찬찬히 말하는것이였다.
《싸운다… 분회간부들, 핵심들이 대다수인데 그들이 여기 처져서 공장동무들과 떨어져서 싸운다? 어떻게 싸우나요? 안됩니다!》
《나도 그 생각입니다. 곧 돌아가는게 좋겠습니다.》
기준이 동의했다.
《그렇습니다.》
형규가 말을 이었다.
《이러다가는 처져있는 동무들만 곤난한 처지에 빠집니다. 곤난한

처지에 빠질뿐아니라 투쟁력이 분산됩니다. 공장밖에서 싸운다는것은 투쟁을 포기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공장로동자가 공장밖에서 싸울수는 없습니다. 그건 군대가 전쟁마당을 떠나서 싸우는거나 같습니다. 쟁의단이 출발하기 전까지는 나도 흥분에 들떴었습니다. 허나 그들이 출발한 순간부터 사정이 달라진걸 알았습니다.》

정형규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기준의 손을 덥석 잡았다.

《건투를 빕니다!》

기준은 그의 손을 굳게 잡아 흔들면서 말했다.

《험하게 싸운 사람에게는 더욱 큰 승리가 돌아올겁니다!》

그 다음 형규는 안철에게로 다가가 악수를 했다.

《돌아가겠습니다. 신세가 많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더 다른 일을 할게 없었다. 정형규는 강당에 남아있는 동무들에게로 가서 간곡히 타일렀다.

이윽고 그는 그들을 데리고 나와 급히 영등포로 향했다. 정자도 그속에 끼워있었다.

15

그날 동광방직공장에서 그시그시로 전화 또는 인편으로 조합에 전해온 소식들은 다음과 같았다.

복직한 종업원들이 공장을 들어섰을 때 처음 눈에 뜨인것은 수위실과 창고장 옆방으로 드나드는 《대한로총》패거리들이였는데 그 수는 거의 배로 는것 같았다. 그들은 종업원들이 들어서자 미군식으로 끽끽 소리들을 지르기도 하고 휘파람도 불군 했으며 몇몇은 권투련습을 하는것인지 경정겅정 뛰면서 서로 상판을 향하여 주먹질들을 하고있었다.

박태상과 산업건설부 부원이 지배인실로 들어갔을 때 김동호는 여전히 우락부락한 눈망울을 굴리기는 했으나 그들을 조합대표로 인정하는것만은 달라졌었다.

의자를 권하더니 대뜸 공장장을 불러서 종업원들을 기숙사로 들이게 하고 청소를 시작하게 하라고 딱딱거렸다.

차후는 관리인측과 로동자간의 불상사가 없도록 특히 지배인의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도 그는 듣는체마는체 하더라는것이였다.

박태상과 부원이 종업원들과 헤여져 공장을 나선지 10분쯤 지난 뒤 다시 조합으로 전화가 왔다. 창고장실 옆방에다 버젓이 《대한로총》의 간판을 내걸었다는 소식이였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새삼스레 분개했으나 안철은 한마디도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기준은 다음 소식만 기다리고있었다.

다시 다음 소식— 추후로 떠나간 40명 가까운 종업원이 공장에 도착하자 최봉석을 앞세우고 수위들이 달려나와 누구들인지 모르기때문에 그들을 공장안에 들일수 없다고 뻗댔을 때 영춘이가 나서서 《우리는 이 공장 사람들이요. 대체 당신네는 누구들이요?》 하고 웨치며 따졌고 그와 동시에 와— 공장안으로들 몰려들어갔다. 그리고 최봉석과 영춘이 멱살잡이를 하려는것을 정형규가 말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지 얼마동안 지나서 박태상이 조합사무실로 돌아온 직후에 전달된 그 다음 소식은 추후로 공장에 당도한 종업원들과 《대한로총》패들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때마침 달려든 경찰 수십명이 30여명의 종업원들을 한방에 감금해놓았다는것이였다.

오후부터 작업을 계속하려 했으나 열흘가까이 버려둔 직장들과 기대들은 그대로 작업을 계속할수 없는 형편이였다. 대충 청소를 하고보니 기계들은 기름이 마르고 녹이 쓸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준비직장, 직포직장들의 반제품들은 오손되였거나 헝클어져있었다. 그런것들보다도 작업에 결정적인 지장을 주게 된것은 시가 약 5백만～6백만원

에 해당하는 기계부속품들이 도난을 당한 사실이였다. 공장장 장시창에게 준비공들은 도난당한 물품과 가격을 자세히 설명했다.

한 준비공은 《아니, 그동안 저 대한로총의 간판을 단 방의 사람들이 공장에 있었겠는데 어찌된셈입니까? 심지어 피대까지 벗기여 팔아먹었으니…》라고 두덜댔으나 장시창은 덮어놓고 잘 찾아보라고만 했다 한다. …

이튿날 아침에는 더욱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전번에 해고당한 최영수와 그외 세명 그리고 어제 감금당했던 30여명중에서 정형규, 리영춘외 여섯명을 포함해서 도합 열두명의 로동자가 경찰에게 끌려갔다는것이였다.

그후 전평신문 기자는 그들이 수도경찰청 분실류치장에 감금되여있다는 사실을 알아왔다.

이리하여 동광방직공장 분회위원회는 사실상 완전히 분산되고말았다.

성급한데다 원체 좀 주대가 세지 못한 박태상은 자기의 무능력한 점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몇몇 사람들의 주관적인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파업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을 오로지 문화부 일군들의 잘못으로만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파업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에 대하여 신문사와 담화를 교환하면서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였다.

기준은 사물을 침착히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단정하는 박태상을 반박하지 않을수 없었다.

《문화부에서도 매우 부족하게 사업한것만 사실입니다. 허지만 산업건설부가 주동이 돼서 한 일이 실패된것을 어째 딴 부서에다만 그 책임을 들씌우려는지 리해할수 없습니다.》

《문화부는 전체 로동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동광방직 로동자들만을 생각하고 일했단 말입니다.》

창의창발성이 없는 그는 남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자기 의견으로 하여 주장했다. 여기에 병집이 있었다. 일부 이러한 아첨분자들이 전평내부에서 숨을 쉬고있는것이였다.

《아닙니다. 전체 로동자들을 고려했기때문에 즉 로동계급의 투지를 앙양시키고 로동계급이 얼마나 건국사업에 희생적으로 나서고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동방로동자들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고무추동했던것입니다.》

《대한로총이 세력을 잡은 공장들을 념두에 둔 일이 있습니까?》

《그런 공장들을 념두에 둔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습니까? 아주 겸손하게 싸웠더라면 좋았겠습니까?》

기준은 우럭우럭 울화가 가슴을 치밀었으나 겨우 참아가며 말했다. 그러나 박태상은 고집불통이였다.

《객관적정세와 로동자들의 력량대비를 고려했어야 했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극좌적이였다는 말…》

《극좌라구요?》

기준이 박태상의 말을 가로막고 이같이 어성을 높였다.

《우리는 자본가를 타도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수호하고 우리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파업한것이였습니다. 쟁의단은 이것을 다 알고있는데 동무만 모르는군요.》

박태상이 잠시 묵묵히 앉아있자 기준이 계속 질문을 들이댔다.

《대체 어떻게 하는게 극좌입니까? 우리가 극좌적으로 한게 무엇입니까?》

《글쎄, 객관적정세와 로동자들의 력량을 고려해야 한다니까요. 필요한 정도로 로동자들의 기세를 돋구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러나 지나치게들 기세를 올렸단 말입니다.》

《박동무! 나는 로동운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박동무나 안동무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작 많이 배울수 있었던것은 쟁의단동무들에게서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정세에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대주기 전에 터득하고있다는것을 나는 알았습

니다. 그들은 우리 산별일군들보다도 창의적이였으며 전술적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세하에서나 기세와 사기는 높아야 하며 높을수록 좋다는것을 그들은 배우지 않고도 알고있었습니다. 적의 압력이 세면 사기를 낮추고 적의 힘이 약해지면 기세를 높이는 그러한 전술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극좌였던지 다시한번 말해봐주시오, 박동무!》

《로동자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건 무엽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구요? 난 한사람의 파괴분자도, 동요분자도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안동무는 복귀를 찬성하고도 내가 쟁의단에 복귀리유를 설명할 때 반대했고 태공했습니다. 사실 로동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래 일부는 처졌던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류치장으로 갔습니다.》

《안동무는 확실히 기회주의적이였습니다. 그러나 류치장으로 끌려간게 어째 안동무만의 책임입니까?》

《안동무 책임이 크지요.》

미군정이 얼마나 꿍꿍이를 했는가를 생각하느니보다 함께 싸우던 일군만을 비난하려고 하는 박태상의 태도가 기준에게는 한없이 불쾌했다. 그러나 기준은 되도록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찬찬히 말했다.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도 필요하겠지요. 허지만 박동무, 그보다도 나는 이같이 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것인가를 먼저 론의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번 파업실패의 책임은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우리에게 있지 로동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잘 싸웠고 령리하게 싸웠습니다.》

며칠이 지난 오후 그 키가 작고 깐깐하게 생긴 친구까지 합석한 간부회의가 조합회관에서 열렸었다.

그 자리에서 안철은 섬유산별 문화부장으로부터 운수산별의 한 련락원으로 옮겨가게 되였다. 의외에 그런 처벌(안철은 그렇게 생각했다.)을 받자 단번에 풀이 죽었다. 그러나 눈치를 보아가면서 항의했다.

《나는 잘못한게 없으니까 접수할수 없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할수 없소.》

깐깐하게 생긴 동무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소. 파업의 실패를 박태상동무와 함께 동무가 책임져야 한단 말이요. 또 동무는 그뿐아니라 다수의 희생자까지 내게 했으며 쏘미공위 휴회이후의 당의 로선을 모르고 극좌적오유까지 범했소.》

안철은 그 이상 항의할수가 없었다.

그 회의에서 리기준이 림시로 문화부장을 대신하여 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안철에 대한 조치가 결코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그는 진정으로 거절했다.

《책임자는 아니였지만 이번 일의 책임을 진다면 나도 져야 할 처지입니다. 나는 정말 문화부장대리를 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달리들 생각합시다.》

지도나온 사람은 기준의 그러한 발언부터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섬유산별 간부들에게 뿌리깊이 박혀있는 자유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날 안철과 리기준은 나란히 서서 서소문을 향하여 걸어가고있었다. 걸어가면서 기준은 안철의 미지근한 태도를 시비했다.

정령감의 신기료방에는 40살에 가까운 사무원 같은 사람하고 머리가 덥수룩한 청년 두사람이 앉아있었다. 밖에서 서성거리기도 안되고 해서 기준은 배좁은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요샌 일거리가 많으십니까?》

구두창을 대느라고 골몰하던 정령감은 힐끔 소리나는쪽을 쳐다보더니 외쪽나무걸상을 밀어주면서 심상한 어조로 말했다.

《그 세월이 그 세월이지요.》

송곳으로 뚫고 노끈으로 얽아매고 하는걸 계속하면서 정령감은 말을 이었다.

《이렇게 신기료장사를 하는게 타고난 운명인걸 딴 도리가 있겠소.

운명을 거역할 재간이란 사람에게 없습넨다. 리선생은 그런 사람을 보았소? 보았거던 보았다고 그러시오. 난 60평생에 그런걸 보질 못했수다.》

《운명은 개척할수도 있답니다.》

정령감은 노끈 한가닥을 입에다 물고 다른 가닥을 힘껏 당기고나자 끈을 뱉으면서 《그런가요?》라고 물었다. 잠시후 그는 역시 납득하지 못할 말이라는듯이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

《리선생 말마따나 저 방직공장 로동자들이 요새 운명을 개척하려고 했지요. 왼통 파업을 하고 잡혀가고 한 모양인데 그렇게 해도 어디 됩디까? 돈있는 놈은 일본놈때도 미국놈때도 잘 먹고 잘 살고 자동차만 타고 다닙디다그려. 그건 어째 그렇소? 그게 타고난 팔자라니까. 그게 운명이지…》

《글쎄올시다.》

《그렇다니까! 한강이 꺼꾸루 흐른다면 몰라두, 마포에서 서빙고쪽으로 흐른다면 몰라두…》

구두수리를 마친 정령감은 사무원차림의 사람에게 내주었다. 구두를 받아 신은 그는 두어번 디디여보더니 발이 편한듯이 잠자코 돈을 내주고 나가버렸다.

다음에는 머리가 덥수룩한 청년이 신을 벗어주었다. 신을 받아들고 정령감은 거듭 《세상 꺼꾸루 만들기 전엔 운명을 거역할수 없습넨다.》 하고 주장해댔다. 그리고 머리가 덥수룩한 청년의 구두를 한동안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입속으로 두덜댔다.

《허— 이거야, 원… 청년, 이 구두는 벌써 수명이 끊어진지 오래오. 신등도 죽죽 나가지, 이거 별도리가 없는걸…》

기준의 생각으로도 어떻게 손을 댈나위가 없어보였다.

《청년, 어디 다니오?》

정령감이 묻자 순진해보이는 그는 덥수룩한 머리를 숙인채 《소사에서 농사지었지요.》 하고 대답했다. 청년의 행색을 훑어본 정령감은 자

기 자식에게 묻듯이 물었다.

《농사 안 짓구 왜 나왔소?》

잠시 망설이던 청년이 대답했다.

《남의 농토에다 미군이 가시철망을 치고 트럭을 막 몰아넣어놨으니까 못 짓지요. 농토가 쑥밭이 된걸요.》

《항의도 못해봤단 말이요?》

기준이 물었다.

《항의커녕 밀 베러 들어갔다가 총에 맞아 죽을번 했어요. 미군들이 여간 안예요.》

《그래, 어디로 가는 길이요?》

기준이 재차 물었다.

《고무공장에 있는 형님을 찾아가는 길이예요.》

잠시 무엇인지 생각하던 정령감은 구석에 놓인 큰 궤짝을 뒤적이더니 신발 한컬레를 끄집어냈다. 모양은 볼것이 없었으나 아직도 서너달은 신을만 한 단화였다.

《옜소, 이거라도 신소.》

《싫습니다, 로인님!》

《어째서?》

정령감이 웨쳤다.

《첨 뵙는데 신세를 질수 있습니까?》

《어서 신고 가우, 어서…》 하면서 정령감은 청년이 벗어놓은 낡은 신발을 궤짝에다 들이뜨렸다.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그제서야 기준은 인사를 차렸다.

《감옥살이 좀 하기루 대수요.》

《감옥살이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글쎄올시다.》

정령감은 불이 죽은 담배통에다 성냥을 그어대고서 말을 이었다.

《그놈들이 어떤 놈들이라구? 그동안에 공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오? 흠, 도적놈들! 글쎄 그동안에 미군도라꾸, 그 여덟바퀴짜리로 열두 도라꾸나 광목을 실어냈소이다. 누가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게 무어요? 창고가 텅텅 비였을거외다. 그뿐인가. 기계까지 뜯어서 부대속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놈에, 고치러 간다고 하면서 아주 버젓하게 메고 나오는 놈에… 공장이라구 아마 등신만 남았겠소이다. 두구보시구료. 미국놈하고 그 앞잡이들이 한꺼번에 들어붙어 저 공장을 가재미 발라먹듯이 다 발라먹고 가시만 집어 팽개치지 않을줄 아시오?》

이렇게 말하고 잠시 밖을 살피던 정령감은 수리할것인듯 한 구두바닥을 들치고 두툼한 종이말이를 기준에게 전했다. 기준은 얼른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신기료방에서 나왔다.

그날 기준에게 전달된 동광방직공장의 그후 소식은 다음과 같았다.

1. 《대한로총》패들은 다소라도 의심이 가는 종업원들을 유심히 살피고있으며 밤에도 은근히 동정을 살피느라고 애를 쓴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남녀기숙사들에 드나드는 사람을 단속하는 《대한로총》패들이 지켜 서있었다.

2. 공장장이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대한로총》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았고 로총패들은 그들대로 선전문을 내다붙이는것으로 미루어 전체 종업원을 《대한로총》에 가입시킬 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3. 《대한로총》은 다음과 같은 선전삐라를 각 직장벽에다 내붙였다.

《대한로총》은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는 로동자들의 단체라 모두 《대한로총》에 가입하자! 《대한로총》은 민족정신으로 뭉치고 공산주의를 결사반대하는 청년들의 단체다. 로동자들은 군정당국의 법령을 지키고 자본주에게 절대복종하자.

4. 조업상태는 기계들의 고장과 부속품들의 도난분실로 말미암아 아직도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있으며 직포직장도 겨우 반수의 기대가 움직이고있는 형편이다.

5. 백주에 테로를 당해서 누워있는 사람이 1명(타면공 김××), 밤에 랍치당했다가 돌아온 녀성로동자가 2명(직포 1반의 안××, 기타),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있다. …

이러한 소식에 접한 기준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앞이 막막했다.

해가 저물었으나 기준은 전등을 켤 생각도 않고 사무실 창문앞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이 궁리 저 궁리 했으나 역시 절벽앞에 선것처럼 답답했다. 그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자기 홀로 황량한 지경에서 길을 잃은것 같았다. 며칠전 봉례와 주고받던 이야기들도 꿈에 있었던 일처럼 삭막해졌다.

(정말 길을 잃었단 말이냐?)

이같이 생각했을 때였다.

그의 머리속에 한 거룩한 장면이 영화처럼 떠오르고있었다. 그것은 1938년 겨울에 있은 일이였다고 박문선은 전번 편지에 써보냈던것이다.

항일빨찌산대원들이 국경일대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눈보라치는 심심산간을 행군하고있었다. 식량은 이미 떨어져서 모두 눈을 끓여 마시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한 어느날 세사람의 전령병이 배낭을 뒤져서 한홉의 미시가루를 털어냈다. 그것을 **김일성**장군님께 드리자는것이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혼자 잡수지 않으시였다. 그 대원들의 손목을 끌어당겨 자신옆에 앉게 하시더니 그들에게 나누어주시면서 《이것을 한말쯤 되는것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배가 부를거요, 어서들 드시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였다.

그 장면을 머리속에 그려보던 기준은 속으로 웨쳤다.

(그렇다, 그 정신을 배우자!)

한홉의 그 미시가루는 단 한홉이 아니였던것이다.

제 3 편

1

차코브슨은 애라에게 싫증이 났다. 애초부터 오래 사귈 작정은 아니였지만 몇달 데리고 지내는 동안에 그는 애라가 처음 보던 때와는 달리 아무 매력도 없는 그저 평범한 녀자인것을 알았다. 그 녀자는 대체로 양장을 하고 다녔으나 언제 보나 옷맵시가 어울리지 않았다.

뉴욕이나 쌘프랜씨스코에서 흔히 볼수 있는 최신류행에 민감한 《문명》한 녀성들에 비하면 하인격이나 다름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몸매로 따져봐도 등이 좀 굽은것만이 흠이 아니였다. 엉덩이가 처져 붙은데다 다리가 짧아서 뒤로 본 그 모양이란 바로 기형이였고 춤을 추어도 화자처럼 사뿐사뿐 걸음을 옮기는게 아니라 이건 사뭇 질질 매달리다싶이 끌려다녔다.

그런것들보다도 차코브슨이 그중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것은 애라가 이따금씩 취해버리는 사실이였다. 술을 마시고 음란하게 구는것은 무방했지만 한동안 놀다가 쏘파고 침대고 아무데나 곤드라져 먼저 자버리는데는 질색이였다.

이러저러한 결함을 발견하고도 그 녀자와 계속 사귈 필요는 조금도 없었다.

차코브슨은 며칠 건너씩 편지를 보내면서 조선으로 오겠다고 하는 처를 생각해보았다. 자기 처에 비하면 애라는 아무것도 아니였다. 하지만 화자에 대한 호기심때문에 그는 처를 데려오는것도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선과 같이 기후가 험한 곳(실상은 조선의 기후가 좋은데 만

족했지만 그렇게 써보냈다.)으로 막연히 왔다가는 이내 환자가 될거라고 했고 쉬이 부산 절영도에다 별장을 사겠으니 좀더 기다리라 타일렀다.

애라를 떼버리기 위해서 그는 부산항에서 매각된 자기의 상품리윤의 1퍼센트만 허비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녀자는 그가 타산한 비용의 반의 반도 들지 않고 아주 쉽게 그에게서 물러나갔으니 그렇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은 극히 간단한것이였다.

상업부장 죤이 부산에서 돌아온 이튿날 저녁 차코브슨은 애라를 혼자 자기 집에 남아있게 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한시간쯤 후에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그는 최신형사진기와 금시계를 찾느라고 료리사까지 불러올려 소동을 피웠다. 미리 다른데다 건사한 그 귀중품들을 기가나서 찾는척 하다가 차코브슨은 애라를 노려보면서 도적년이라고 욕을 퍼부었다.

그는 상대방의 변명도 듣지 않고 전화기를 들더니 씨아이씨(미군방첩대)를 불렀다.

이윽고 미군들이 달려와 권총을 빼들고 올라왔다. 잠시후 그들은 그 녀자를 끌어내 찦차에다 태워가지고 갔다. 차가 떠나기 전 차코브슨은 씨아이씨장교에게 딸라를 주면서 아직도 노한 표정으로 징역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 …

한 녀자를 거마리 떼버리듯 한 차코브슨은 그날부터 화자를 무시로 드나들게 했다.

념려가 되던 체화상품의 처분이 의외로 잘된데다 일이 그렇게 되고보니 그는 날으기나 할듯이 거뜬했다. 그런데다 동광방직공장의 파업도 슬그머니 진압되여 다시 두말이 없었다.

좌우간 행운이라는것은 이상한거야 하면서 그는 생각했다.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면 어디로인지 가뭇도 없이 사라지는데 그게 찾아오려들면 이렇게 한꺼번에 들이닥친단 말야.)

이같이 생각했는데 사실 차코브슨은 지금 한두가지 행운에만 부닥쳐있는게 아니였다. 애라의 처치라든지 파업의 진압 같은것들은 극히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았다.

정작 신이 나는 일은 자기 회사의 상품을 실은 두번째 화물선이 8월 20일께 본국을 떠나게 된 일이였다. 그것으로 차코브슨주식회사의 체화상품은 대체로 다 처분하게 된다.

그런데다 또 한가지(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지만) 신이 나게 된것은 녕월군의 꼭두광산(전 고바야시광산)채굴권을 획득한 일이였다.

그는 조석우의 소개로 탐탁하고 충실한 광산기사를 채용할수 있었는데 그가 현장으로 부임해가자 광산은 한층 활기를 띠게 되였다. 그리고 며칠전에 차코브슨을 찾아온 그는 앞으로 3개월동안에 과거 1년치이상의 백중석을 채굴할수 있다는 장담을 했으니 이이상 기쁜 일은 없었다.

(그저 나는 이렇게 앉아서 음악과 문학 그리고 춤을 즐기면 된단 말야. 우둔한 친구들! 같이 조선으로 나가재도 듣지 않았지. 흠! 헐리우드녀배우들의 요사스러운 추파에다 재산을 탕진하려무나. 3년후의 리챠드 차코브슨을 보아보지, 녀배우들이 죽으로 드나들게 될테니…)

혼자 집에 있는 동안에는 음악을 듣는게 차코브슨의 취미였다. 또 그의 책상우에는 쉐익스피어의 서적이 놓여있었다.

그는 항상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의 취미를 피력하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문호는 쉐익스피어라고 했다.

그리고는 매우 기발한 의견인것처럼 《쉐익스피어를 인디아의 재부와도 바꿀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영국본토의 재부와도 바꿀수 없다고 말하고싶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슬슬 턱을 쓰다듬군 했다.

그러나 말과는 달리 그는 쉐익스피어의 작품을 아직 한권도 끝까지 읽은 일이 없었다. 어려운 문구를 리해하려고 노력하는것은 가장 무의미한 일이라고 은근히 생각하는 그는 문학도 음악도 다같이 그런것들은 녀자의 라체처럼 향락의 수단이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것이라면 두뇌를 피로케만 하는 유해로운것이라는 제멋대로의 《유물적》인 생각을 하고있었다.

쉐익스피어의 서적여백에다 그는 매일 무엇인지 적어넣었다. 그것은 날자와 상품의 매상고와 리윤과 그 리윤의 출처였다. 그러므로 쉐익스피어의 서적은 차코브슨의 손에서 떠나는 날이 없었다.

애라를 떼버린 후 그는 거의 매일 리화자를 자기 저택으로 찾아오게 했는데 그 녀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기가 요긴히 상종하고있는 조석우라는 존재가 그뒤에 그림자처럼 지켜서있어서 애라처럼 함부로 다룰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점이 오히려 그에게 호기심을 돋구게 하는 자극제였다.

그날도 차코브슨은 오후 댓시부터 화자를 데리고 놀았다. 그는 화자의 조선옷차림을 매우 좋아했고 그 녀자의 조선춤을 좋아했다. 조상불명의 족속의 하나인 차코브슨이 조선의 문화와 예술을 리해할 까닭이 없었다.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그의 눈에는 모든것들이 오직 정욕을 촉발시키는것으로만 보였던것이다.

차코브슨은 그날 류달리 명랑해서 화자가 조선춤을 추자 다음번에는 사교춤을 추고 먹고 마시다가 또 춤을 추군 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는 화자에게 흑인무용까지 배워주었다. 그러다가 피로해졌다.

어느때나 그러한것처럼 얼근히 취한 차코브슨은 커피를 마시면서 기운을 회복시켰다. 좀 기운이 회복되자 그는 축음기와 라지오를 다 꺼버리고 안락의자로 가서는 화자를 비스듬히 자기 무릎에다 앉히고 허리를 껴안았다. 오늘도 바로 그렇게 화자를 데리고 놀았다. …

그렇게 재미를 볼 때였다. 문기척소리가 나고 이어 슬그머니 문이 열리더니 조석우가 유령처럼 나타났다. 두어발자국 들어선 그는 안락의자우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멈춰섰다.

조석우를 본 리화자는 발딱 일어섰다. 그러더니 제풀에 독살이 뻗쳐서 《난 몰라요! 난 몰라요!》 하면서 의자에 벗어걸었던 치마저고리를 주어들고 옆방으로 들어가버렸다. 조석우는 심각한 표정을 한채

한없이 서있었다.

《미스터 조! 앉으시오, 앉으시오.》

차코브슨이 어색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제야 조석우는 고개를 들었다. 차코브슨은 그의 그 두꺼운 안경알속에 분노가 깃든것처럼 생각되였다.

《제가 잘못 왔습니다. 의논할 일이 있었지만 래일 다시 만날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같이 말한 조석우는 금시 울기나 할듯 한 침울한 표정으로 섰다가 돌아서서 나갔다.

차코브슨은 층계를 내려가는 발소리와 현관문 여닫는 소리를 들었다.

이튿날 아침 막 차코브슨이 군정청으로 나가자 조석우가 다시 찾아왔다. 차코브슨은 그를 응접실로 안내해들일수밖에 없었다.

차코브슨은 품안에 지니고 다니는 소형권총에 탄환을 재웠던가 안재웠던가를 생각하면서 조석우의 거동을 살폈다. 조석우는 역시 침울한 표정이였다.

《저는 일체 지나간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스터 차코브슨! 지난 이야기는 다 소용없기때문입니다.》

차코브슨은 듣고만 있었다.

(권총에 탄환이 재워지지 않아도 일없겠군. 그런데 이자를 어떻게 매수한다?) 하고 생각할 때 조석우는 말을 이었다.

《한가지 부탁드릴게 있는데 그걸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슨 부탁인지 말씀하시오.》

차코브슨은 선뜻 물었다.

《다름이 아니라…》

조석우는 긴장해서 차근차근히 말했다.

《동광방직의 관리권을 저에게 옮겨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펴더니 접은 빳빳한 종이쪼각을 빠드득 소리를 내며 펴놓았다. 200만원 금액이 기입된 은행의 소절수(환치행표)였다.

《미스터 백은 300만원을 적게 낸셈입니다. 그후 공장은 빈털터리가 된 형편임을 참작해주시고 이것만으로 어떻게…》

《좋습니다.》

한동안 무엇인지 생각하던 차코브슨은 선선히 대답했다. 극히 짧은 동안이였으나 셈이 빠른 그의 머리속에서 계산기를 다 튀겨본 후의 대답이였던것이다.

사실 그는 그 공장을 미끼로 아무에게서나 300만원을 또 받아먹고 백락일을 차버릴 작정이였다. 하지만 (에라, 100만원은 화자의 몸값이다.) 하고 쾌히 승인을 했다.

《좋습니다. 관리권을 미스터 조에게 이관해드리지요.》

《감사합니다. 미스터 차코브슨!》

차코브슨은 그날로 동광방직공장의 관리운영권을 조석우에게 이관하는 수속을 끝내게 해주었다. 또 그는 손수 백락일을 불러 그러한 사연을 통고했고 곧 군정청 공보에도 발표하도록 해주었다.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단 말이냐!

일을 끝내고 밖으로 나온 조석우는 후— 한숨을 내쉬였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도 아니요 괴로운 빛도 아닌 일종의 이상야릇한 표정이 떠올랐다. 한개 이름없는 기자로부터 대공장의 주인이 되기까지의 그의 행로는 결코 간단한것이 아니였다. 그 행로는 심리의 연구없이 리해하기 어렵다. 욕을 먹건말건 그전 친구들과 싹 발을 끊어버렸던 그의 음흉하기 짝없는 심리, 바지까지 벗겨 먹으려는 《마작》노름판에서도 쉬지 않고 궁리를 했으며 처녀외입을 하는게 원이였으나 남이 실컷 주무르던 화냥년과 함께 지내야 하던 순간순간의 심리, 고집통인 백락일이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해도 《네.》, 말을 가리켜 사슴이라고 해도 《네.》 하면서 그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수 없

었던 심리… 조석우는 이 모든 고충을 어찌 제3자가 짐작이나 할수 있으랴싶었다.

이제는 번들번들한 그 사장용승용차가 조석우에게로 굴러들어왔구나. 사회주의고 자본주의고 괜히 희떱게들 굴지 말아. 조석우는 억만장자가 될것이 아니냐, 로동자를 착취한다고? 로동자야 생긴 첫날부터 착취당하기마련이지.

그는 계속 생각했다.

헌데 일은 참 잘됐단 말야. … 미국 아닌들 내가 이렇게 할 엄두나 냈겠는가. 로동자들을 착취하건 참기름 짜듯 하건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기마련이니 참 잘됐어. 미국은 강대한 나라야!

동광방직공장의 관리권이동이 정식으로 군정청 공보에 나왔다. 청청한 날 벼락맞듯이 하루아침 돌연히 큰 공장을 송두리채 잃어버린 백락일은 밤잠을 자지 못했다. 입맛이 깔깔해서 며칠동안 닭알죽만 마셨다. 그리고 혼자 자리에 누워서 생각에 잠겨있었다.

우리 나라의 형편을 너무도 고려하지 않는단 말야. 그리고 남의 위신도 좀 생각해주어야 할게 아닌가, 내야 한 나라의 명사며 재벌이며 또 한 정당의 부당수가 아닌가. 그런 기자나부랭이에다 댈수가 있나. 그런데 그자에게 공장을 내주다니… 허기야 대흥고무공장은 양료리집 숙수노릇을 하던 이름도 성도 없던자가 관리인이 됐다지만, 하여튼 미국인들은 돈타산만 한단 말야…

이같이 자본가 호상간의 도의에 대하여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은 어리석기 짝없는 일이였다.

오히려 백락일은 그동안 미국인들의 은덕을 입었고 앞으로도 얼마간 또 입을데 대하여 감사를 해야 할것이였다. 차코브슨은 관리인을 조석우로 변경하는게 앞으로의 자기 사업과 더 큰 리윤을 남조선에서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했을뿐이였다. 그가 재벌이든 명사든 또는 기자든 청소부든 상관할게 없었다.

미제국주의는 도의상 필요에 의해서 남조선에 상륙한것은 아니다. 항상 더 큰 리윤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생존할수 없는 독점자본의 요구에 의해서 상륙한것이였다. 동광방직 로동자들의 파업은 사기적방법으로 진압했거니와 종연방직, 동양인쇄, 인천부두 등의 로동자들에게는 테로로써 대답했다. 삼척탄광의 4천여명 탄부들이 대우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으로 들어가자 미군은 그 로동자들에게다 대고 기관총사격을 했다.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에서는 《신한공사》의 착취를 반대한 농민들에게 기관총과 보총사격을 하여 5명을 즉사케 하였고 수십명의 부상자를 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의 피를 볼 때마다 주저하지 않았지만 아직 시초의 시초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인민들이 반대하건말건 《차관》이라는 이름밑에 다시 6 000만딸라를 남조선에다 투자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판국에 쌀풀냄새가 풍기는 모시두루마기를 입은 백락일쯤 미국자본가들이 애틋하게 생각할 까닭이 없었다. 백락일만이 혼자 야속하고 억울할뿐이였다.

백락일이가 더욱 심각해진것은 리승만을 만난 뒤였다. 그와 만날 기회를 갖게 된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여 백락일은 리승만에게 자기의 처지와 심경을 말했던것이다.

반은 조는것 같이 눈을 감고 앉았던 리승만은 백락일의 이야기가 끝나자 혀꼬부라진 소리로 《그래, 당신 미국사람에게 감정있단 말이요? 당신 공산주의하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는것 매우 좋지 않습네다. 썩 물러가시오. 에헴—》 하고 호통을 쳤던것이다.

리승만에게서 나온 길로 백락일은 자기 집과 사무실에다 부랴부랴 리승만의 사진을 구해다가 한장씩 걸었다. 썩 물러가라고 소리칠 때 문득 백락일은 신변의 위험성까지 느꼈기때문이였다.

독촉이라는 민족반역자들의 모임이 하는 《사업》은 테로행위였다.

그 독촉의 두목이 리승만으로서 즉 그가 테로대장이라는것은 세상에 알려진 일이였으며 리승만이가 조선에 와서 하는 일은 첫째로 《정치가》의 탈을 쓰고 추는 꼭두각시춤, 둘째로 속으로 하는 돈벌이, 셋째로는 테로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백락일에게는 그 셋째 《사업》 즉 테로행위가 그중 무서웠던것이다.

2

모든 일이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진 조석우에게는 세상이 온통 자기의것만 같았다. 그는 일약 당당한 자본가가 되였고 장차 더욱 출세하고 거부가 될 이 기쁜 소식을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다. 늘 드나들던 《대한민족당》 사무실과는 이제는 결별했다. 절친한 친구는 없었다. 앞으로는 그 《마작》판에도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 집어치우자. 기회보아서 차코브슨과 더욱 가까와질 필요가 있다. 아주 미국녀자와 결혼을 할가? 좌우간 앞으로는 미국사람들만을 상대로 하자. 사실 동광방직쯤으로 만족할 시시한 조석우가 아니거던…

공장으로 처음 나가던 날 조석우는 김동호를 불러앉히고 장시간 그동안의 사업을 청취했다.

김동호는 지배인자리를 견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열성을 보이느라고 애썼다. 사실은 그는 일체 공장일을 자기에게 도맡기는 백락일이가 계속 관리권을 가지고있는것이 자기에게 편하고 유리했으나 입으로는 반대로 표시했다.

《조선생께서 사장으로 오실것을 은근히 기대했었습니다. 백선생, 저… 백락일은 무식해서 얘기가 돼야지요. 네!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는 공장일이 순조롭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어떠신가요? 제 보기에는 혈압이 높으신것 같은데… 네, 네! 신경통은 없으신가요?》

사업보고를 청취한 뒤에 조석우는 공장장 장시창을 불렀다. 얼굴생김이 동호와 비슷한 장시창을 조석우는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다가 두 사람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는 로동조합분회 위원은 싹 떨어냈지요?》

《그렇습니다.》

공장장이 대답했다.

《허지만 어느 틈에 어떻게들 모이는지 알수가 있어야지요. 어제도 직장마다 분회벽보가 붙어있는것을 대한로총 청년들이 떼버렸는걸요.》

《이 문제가 제일 골치거리입니다.》

김동호가 말했다.

《이 문제를 진면목하게 생각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한사람씩 데려다가 억지로라도 대한로총의 가입서에다 지장을 찍게 했지요. 그래 한사람도 빠짐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와놓고 대한로총을 반대하니 이거야 원…》

조석우는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대한로총》분회의 대장이라는 최봉석이를 만나보았는데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특히 공장안에서 아무때고 사람을 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는 매사를 신중하고 은근히 하라고 타일렀던것이다.

로동자들을 죽이지도 말고 살리지도 말라… 하는게 조석우의 방침이였다. 그는 어떻게 해서 자기의 그 《현명》한 방침을 리해시킬수 있을가를 생각했던것이였다.

《잡혀간 사람들만 다시 들이지 않는다면 일없을거요. 이제부터는 로동자들을 슬슬 어루만집시다.》

그는 지난밤 경리부에서 밤을 새워 만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들여다보다가 공장장과 지배인을 앞세우고 공장으로 나갔다.

타면직장으로부터 유면, 연조, 정방, 준비의 순서로 각 직장을 돌아

보았다. 그는 마지막 직포직장을 나오다가 지배인에게 《오늘 저녁 말이요. … 앞마당에서 로동자들에게 활동사진을 보여주도록 합시다.》라고 말했다.

《그거 참 좋습니다. 직공들이 모두 좋아할겁니다.》

《비용도 얼마 들지 않으니 당장 총무과장에게 지시하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신임관리인의 분부대로 그날 저녁 식사시간이 끝난 뒤 로동자들을 위하여 영화상영이 있었다.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김동호는 새로 오게 된 관리인이 로동자들에게 베푼 이같은 배려를 감사히 생각해야 한다는 소리를 거듭 되풀이하면서 30분동안이나 이야기했다. 그리고 영사기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은 보도영화였다.

하지중장의 조선도착, 미군의 인천상륙, 그 다음으로는 리승만의 조선귀국, 리승만의 정견 발표… 이러한 순서로 영사막에 떠올랐는데 털빠진 당나귀같은 리승만이가 무어라고 비틀어진 아가리를 놀리는 장면이 나오자 마치 바람부는 화산지대에서 석회석이 날으듯이 별안간 사방에서 돌덩이들이 날아와서 삽시간에 영사막휘장이 갈가리 찢어져 버렸다.

《대한로총》패들이 소리를 지르며 팔매질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으나 소용없었으며 더 다른것을 상영할수도 없게 되였었다. …

이튿날 공장으로 나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조석우는 저으기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대한로총》것들을 그리 탐탁치 않게 여겨왔으나 그래도 그들을 단단히 잡아쥐여야겠다고 생각했고 아직도 뒤에서 선동하는 사람이 공장밖에뿐아니라 공장안에도 있다고 단정했다.

그는 문앞 책상에서 무엇인지 쓰고있는 녀자급사를 불렀다.

《야, 옥자야— 옥자라구 했지?》

《네.》 하고 급사가 일어섰다.

《저 최봉석이라구 있지. 수위실에 있다니 불러오너라.》

밖으로 나갔던 옥자는 잠시후 최봉석을 앞세우고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음, 게 앉소.》 하더니 조석우는 옥자에게 잠간 나가있으라고 했다. 옥자는 나갔다.

《어제 활동사진 돌리다가 돌던진 사람을 하나도 모르겠소?》

최봉석은 주둥이를 삐죽하게 내민채 머리를 득득 긁었다.

《아직도 빨갱이가 공장안에 있단 말이요, 알겠소?》

《그렇습니다, 사장님.》

《이번 기회에 뿌리를 빼야 해.》

《네, 네, 사장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 네.》

시계를 들여다보던 조석우는 강경히 말했다.

《이제 곧 열두시요. 이제 한시에 작업이 시작되거든 남자기숙사를 싹 뒤져보우. 괴상한게 나올거요.》

《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레. 알겠습니다, 사장님!》

최봉석은 감탄하는 표정이였다.

《내 두시까지 있겠으니까 그동안에 잘 뒤져보도록 하오.》

《남자기숙사가 스물네방이니까 열두명이 몰려가문 두방씩 맡게 됩니다.》

《그건 재간껏 하고…》

《사장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들이 아직도 모자라서…》 하면서 최봉석은 돌아섰다.

방에서 나가려는 그를 다시 불러들여 조석우는 어제 상자로 사두었던 미국담배 두갑을 꺼내 책상우에 던졌다.

《어이구 이거, 감사합니다. 사장님!》

《대한로총》 두목을 내보내놓고 조석우는 궁리를 계속했다.

공장안에 있는 《빨갱이》보다도 문제는 로동조합사람들에게 있었다.
언제인가 《대한민족당》 사무실에서 만난 조합사람들의 모습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량미간이 넓은데다 둥글넙적한 사람하고 껍죽껍죽하는 사람하고 누가 문화부장이고 누가 무슨 부장이랬던지 기억에 남지 않았으나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야만 뒤가 깨끗할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아니, 그들보다도 섬유로동조합에 리기준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기름한 얼굴에 검정테안경잽이인데 머리는 늘 푸푸하게 자랐고… 옳아, 해방직후 《공산주의자열성자대회》인지 무언지 하는 회의장에서도 봤지. 김재인이가 늘 이야기하던 그 리기준이란자가 말썽이거던. 무슨 연구회에 있다더니 어떻게 해서 그리로 뛰여들어서 귀찮게 구는지. 가만히나 있으면 또 낫겠는데 가끔 신문에다 쓰는데 이건 아주 진짜 빨갱이란 말야. 아마 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있을거야. 그렇잖고야 그런 노가다판에 들어가 앉을리가 있나?)
조석우는 푹신한 의자에 벌떡 자빠져서 한없이 생각했다.
(만약 또 파업이 일어난다면 하루 십여만원씩 손해를 보지 않나. 그런데 사실 그럴 우려가 없지 않단 말야. 원체 로동자들이 빨갱이물을 단단히 먹었거던. 그런데다 조합에서 쉬지 않고 선동을 해대니 첩경 쉽지…)
무슨 서류를 한아름 안고 김동호가 들어왔으나 좀 있다가 만나자고 한 조석우는 전화기를 들어 수도경찰청 사찰과를 찾았다.
사찰과장 홍종식과 그는 전부터 막역한 사이는 아니였으나 수삼차 료리집에서 만난 일이 있는데 만났을 때마다 서로 미국을 숭배하는 사상과 의지가 일치함을 느꼈을뿐아니라 술과 외입을 좋아하는 취미도 호상 같다는것을 알았다. 한동안 신호가 나더니 저쪽이 나왔다.
《홍종식씨입니까? 전 조석우라는 사람입니다. 허허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며칠전부터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식까지 그렇게 속히 들으셨습니까? 허허, 그러시겠지요. 수도의 수사왕이시니 그만한 일

모르실리 없겠지요. 허허허.》
이렇게 인사를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만나뵌지도 오래서 저녁때 모시고도싶고 또 말씀드릴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전화로 실례를 했습니다. 네, 저녁 6시쯤 찾아뵐수 있을가요? 네네, 7시가 좋으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안됐습니다. 안녕히…》
전화기를 놓은 조석우는 그저 만사는 주도면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철창속에 들어앉아 콩밥을 씹고있는 리기준이란 사나이를 머리속에 그려보고 흡족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섬유산별로조를 파헤쳐버리려고 별렀다.
《지배인 불러라.》
조석우는 한동안 자리를 떴다가 들어와 앉는 급사를 보고 말했다.
다시 서류를 한아름 안고 들어온 김동호와 함께 조석우는 원료구입에 대한것을 이것저것 장시간 따졌다. 그러는 동안에 1시 고동이 울리고 또 한참 시간이 흘렀다.
(이러다간 오늘은 손수건만 한 천쪼각도 차례지지 않겠는걸.) 하고 동호는 속이 상했다.
그런 판에 최봉석이가 나타났다. 어깨춤을 추듯 하면서 들어선 그는 《사장님! 세사람을 잡아냈습니다. 이런것 감춰가지고있었습니다.》 하며 잉어나 잡은듯이 떠벌였다.
조석우는 그가 내미는 서적과 종이쪽을 받아보았다. 두사람에게서 빼앗은 두권의 서적과 한사람에게서 몰수한 석장의 삐라였는데 서적들은 시내에서 판매중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소 좌익색채를 띤것이였으나 삐라는 얼토당토않은 영화광고였다.
《이런것밖에 없었나?》
《네, 그렇습니다. 그자들을 잡아가두었습니다.》
조석우는 역시 《대한로총》은 무식하다고 생각했으며 우둔하게밖에는 일하지 못하는 그들이 못마땅했다. 그러나 현명하게 했어도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을것이였다.
사실 남자기숙사안에는 조합에서 나온 삐라들이랑 분회의 문서들이 있었다. 사전에 련락을 받은 담당자들은 그 문건들을 더욱 깊숙이 감출수 있었다.
전에는 서무과에서 사무실소식을 분회에 통보했다면 파업때에 고정자 등과 함께 미군트럭앞에 누워서 싸웠고 이제는 조석우의 급사노릇을 하게 된 옥자가 그 일을 맡고있었다. 조석우가 자기를 나가있게 하고 최봉석과 만났을 때 옥자는 결방에서 엿듣다가 그길로 반책임자에게로 달려갔다.
기숙사를 뒤진다는 소식을 지체없이 알려주는것이 분회 회원으로서의 의무요, 량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것이였다.
4시가 가까와서야 조석우는 서류를 걷어넣고 밖으로 나섰다. 부리나케 따라나온 동호는 자동차문고리를 잡고 섰다가 조석우가 올라타자 《피로하시겠습니다.》 하고 깍듯이 인사말을 하고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휘발유냄새를 풍기는 자동차꽁무니에다 대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차안에 자빠져서 조석우는 《영생》레스토랑으로 갈것인가 새로 개점한 《샹하이》로 갈것인가를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굴료리를 무엇보다도 좋아했는데 굴료리는 《영생》레스토랑이 1등이였다. 하지만 《샹하이》에는 그가 점을 찍어둔 녀급이 있었다.
그 녀급은 미국선교사가 경영하는 E녀자전문학교를 갓 나왔고 열여덟밖에 안된다는 녀자(조석우도 그렇게밖에는 보지 않았다.)였다.
며칠전 밤늦게 술친구와 어울려 갔다가 우연히 그 녀급을 만난 조석우는 심산속에서 반짝이는 금강석을 발견한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을 더욱 끌게 한것은 그가 열네살때 아버지와 함께 하와이에서 나왔으므로 영어가 능한것과 목사였던 그의 아버지가 해방직전 병사한 후 생활이 곤난해서 참다못해 수일전에 나왔다고 하므로 아주 순진한 처녀임에 틀림없다는것들이였다. 다른 놈이 채가기 전에

미리미리 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차가 시내로 들어오자 《샹하이—》 하고 운전사에게 호령했다.
그 녀급을 불러놓고 조석우는 맥주를 마시고 굴대신 생선료리를 먹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자기의 위신을 거듭 세우기 위해서 공장이야기를 했다.
그 녀급이 수줍어만 하는것 같아서 안되기는 했으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그는 만원짜리 지페뭉치로 그의 허리를 찌르고 《이것 좀 맡아두. 밤 열한시에 오겠소.》 하고는 나와버렸다.
십분전 일곱시였으나 조석우는 수도경찰청으로 갔다. 사찰과장실에는 경찰복장을 한것들이 몇몇 앉아있었다. 홍종식은 무어라고 한 5분동안 명령조로 딱딱거리더니 모두 돌려보내고 응접책상에서 기다리고 앉아있는 조석우에게로 왔다.
《바쁘신데 안됐습니다.》
조석우는 잠간 일어섰다가 앉으면서 말했다. 홍종식은 간사한 얼굴에다 웃음을 띠우며 대답했다.
《바빠지는건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는거지요.》
조석우는 미국제려송연갑을 꺼내 한대를 권하고 라이터를 켜댔다.
하얀 얼굴에 코밑수염만 까뭇까뭇하게 기른 홍종식은 해방직전까지 평안북도 피현군에서 군수와 경찰서장을 하다가 해방이 되자 남조선으로 도망쳐온 경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창씨개명을 안하고 징용을 기피한 청년 세명을 제손으로 학살한 경험까지 있었는데 수도경찰청장도 그러한 그의 공로를 높이 사서 사찰과의 중요한 책임지위를 부여한것이였다.
《건국사업도 몸을 돌보면서 하셔야지요, 그렇잖습니까?》
조석우는 쥐여짜는듯 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물샐틈없는 수사망이란 원래 문명한 나라가 아니고는 해내지 못합니다. 치밀한 두뇌가 요구되니까요.》

《조선이야 매사에 미국문명을 그대로 따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홍종식은 영어로 이같이 대꾸하고 다시 조선말로 계속해 말했다.
《우리 수사방법은 일정때와는 어방도 없이 발전한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니 일정때는 수사를 한게 아니라 밀빠진 삼태기를 치고있었던거지요. 그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한답니다.》
이같이 말한 홍종식은 려송연연기를 뿜어올렸다. 조석우는 또 쿨쿨 쥐여짜는듯 한 웃음을 짓다가 금시 정색을 하고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바루 그런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저희 공장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끝났지요? 분회 간부 12명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것때문에 애먹었습니다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로동자들이 들먹들먹하니, 무슨 판인지…》 하다가 조석우는 더욱 은근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아예 조합을 한번 쳐보는게 어떨가 합니다.》
《문제없지요. 미군정이 아예 합법단체로 인정한게 잘못이지만 두구보시오. 문제없습니다. 청장각하께서도 말씀이 있었으니까 오래는 못갈거외다.》
《단체도 단체거니와 그중 말썽군이 섬유조합에 있단 말입니다.》
《누구말입니까?》
《리기준이란 사람인데 일제시대부터 진짜 빨갱이거든요. 우리 공장의 파업도 다 이자가 주동이 돼서 하는걸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간부인가요?》
조석우는 가볍게 책상우를 치고 《허— 글쎄 그러시다니까. 그런 사람을 꼭 알아두셔야 할겁니다.》라고 부추겼다.
홍종식은 열쇠를 덜그럭거리더니 큰 서류함에서 무엇인지 두툼한 책을 꺼내여 한동안 들춰보았다.

《응— 리기준이요?》
《그렇습니다.》
《무얼? 문화부원이군요.》
《그런 이름으로 있겠지요. 그리고 할짓은 뒤로 다하겠지요. 수도의 수사왕께서 그걸 모르셨거던…》 하고 조석우는 가볍게 비웃는 어조를 띠였다가 무엇인지 홍종식이 적어넣는것을 보더니 다시 신중한 어조로 돌아갔다.
《그 사람을 낚아채야 합니다.》
한시간쯤 후 조석우는 홍종식을 자기 차에다 태우고 수도경찰청을 떠났다.
(앞으로 일이 많을터인데 이자를 꿔 삶아서 해로울것은 조금도 없어. 부하다루듯 되게 해야지.)
이렇게 조석우가 생각하는 동안 차는 미끄러지듯이 달리다가 뽕뽕소리를 내면서 일류료리집인 명월관정문앞에서 멎었다.
그날 밤 조석우는 홍종식이 무엇 하나 부족하게 생각할 여지가 없도록 호화판으로 대접했다.
홍종식은 권총과 혁띠를 풀어던지고 보라빛치마저고리의 기생을 붙들고 지랄맞게 놀았다.
열한시가 가까와서 조석우는 넌지시 그 기생에게 지전뭉치를 쥐여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취한체 하고 기생을 놓지 않는 홍종식을 그 기생집으로 데려다주었다. 그리고 조석우는 하와이에서 온 그 녀급(그는 처녀가 아니라 진짜 매음녀였다.)에게로 갔다.

3

안철은 어렴풋이 잠을 깼다. 그 순간 와락 생각되는것이 어제 회의를 지도나왔던 사람에게서 모욕적인 비판을 받은 사실과 직책에서 쫓겨나다싶이 된 일이였다.

(꿈이나 아닐가? 아니야, 현실의 일이야. 허지만 행여나 꿈이였으면…) 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신이 차차 밝아오면서 다시금 억울한 마음이 들자 이불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역시 생시의 일이였다.

리기준의 집, 지난밤 늦도록 기준에게서 비판과 충고를 받던 바로 그밤이였다.

기준은 몹시 피로한듯 머리를 베개에서 떨어뜨린채 아직도 세상 모르고있었다. 식어버린 숱한 열변과도 같은 무수한 담배꼬투리가 수북하게 쌓인 재털이옆에 그의 안경이 제껴져있었고 그옆에서 기준자신이 표준시계라는 별명을 붙인 태엽감기와 그 언저리가 노랗게 된 그의 회중시계가 째깍거리고있었다. 6시 40분이였다.

잠시 눈이 멀뚱멀뚱해서 누웠던 안철은 엎디여서 마라초를 한대 말아 불을 붙이고 간밤에 기준이가 하던 이야기들을 생각해보았다. 어제 밤 기준은 결론적으로 루차 불평객만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었다.

그렇다. 당원은 불평이 있을수 없다. 당원의 불평은 당내에서 해결되여야 하며 또 해결될것이다. 당원의 불평이 불평대로 남아있다는것은 그 당원의 당성이 약한탓이며 그것은 위험한 길을 걷게 한다. 나는 불평이 해결되도록 노력하려 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과연 파업을 실패로 이끌었단 말인가? 우리가 잘못해서 로동자들이 류치장에 갇히게 되였는가? 아니다. 놈들은 사전에 분회 위원들을 박해하려고 계획했다는것이 명백해지지 않았는가. 나는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자고 했다. 그것은 결코 불평이 아니였다. 그런데도 나의 의견은 말살되였다. …

… 그래도 모르겠는가? 하고 그는 웨쳤지. 당의 로선을 모르고 극우나 극좌로 나간다고 했지?! 확실히 잘못된 고리가 있는것만 사실이다. 전평 간부들도 그것을 생각하지만 입밖에 내지 않을뿐일거다. 그리고 기준도 역시 그러할거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안철은 자기대로의 결론을 지었던것이다.

유상렬이나 그 키작은 동무의 독단만도 아니다. 확실히 잘못된 고리가 있다. 그 고리가 무엇인지 내가 모를뿐이다. 그것을 누가 알게 해줄가? 리강진 같은 큰 정치가들은 알고있을것이다. …

안철의 가슴속은 차차 평온해갔다.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기준과 함께 조반을 들고 담배를 피우다가 함께 사무실로 나왔다. 기준은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한번 불평객이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며칠동안 안철은 운수로조 사무실 한구석 책상에 앉아서 이것저것 궁리해보았다. 어떤 때는 가슴속이 평온하다가도 어떤 때는 부걱부걱 비지 끓듯 하군 했다.

섬유공장들에 대해서는 전에 5년 가까이 그런데서 일해봐서 잘 알고있지만 운수부문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었다. 그러한 자기를 의논 한마디 없이 적합하지 않은 산별에다 몰아넣은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리 운수사업을 모른다기로서니 자기에게 그저 문서필사나 삐라장수 세기정도의 일밖에는 과업을 주지 않는게 심히 불만스러웠다.

(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일제시대에 나쁜짓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해방후에는 량심적으로 살려고 먼저 이런 단체로 찾아오지 않았는가?)

그는 자기자신이 측은하게 생각되였다.

(그런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이같이 대우할수야 있을라구?)

이래저래 안철은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지식이나 사회경험이 자기보다 못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시를 주고 자기를 사환군 부리듯 한다고 생각하자 정말 참을수가 없었다.

열일곱에 난 사람과 단 둘이서 밤새도록 삐라로 쓸 종이를 잘라놓고 새벽녘에 사무실에서 나온 날 그는 차라리 자살을 해버릴가 했다. 그래 집으로 향하지 않고 남산쪽으로 걸어올라갔었다. 한참 올라가다가 그는 발길을 돌렸다.

며칠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유상렬과 함께 나온 그 키작은 친구는 일제시대에 자기처럼 월급쟁이노릇을 했을뿐 로동운동에 대해서는 자기만치도 모르는 사람이였다. 그러한 사람이 버젓하게 살면서 으쓱대는 이상 자기만 자살을 한다는것은 너무도 인생이 아까왔다.

그는 자신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도 대비해보았고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과도 대비해보았다. 어느쪽과 대비해도 현재의 자기는 불우했다.

(리기준은 당원이 당안에서 불평을 갖는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허지만 나는 당안에서 의견을 말할수 없게 되지 않았는가. 다시말하면 나는 전혀 무시당해버린 당원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 불평을 갖지 않을수 있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날 오후 안철은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성전기회사 분회로 갔었다. 거기서 그는 의외에도 전차종업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리강진을 만났다.

뒤에서 지켜섰던 안철은 이야기가 끝나자 《리선생님!》 하면서 그에게로 달려가 두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리강진은 매우 느린 어조로 물었다.

《안철동무, 전평에서 일한다지?》

《네, 그렇습니다.》

《어째 내게 들리지 않나?》

《좀 바빴습니다.》

안철은 황송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오늘 저녁 내 집으로 들리게. 집 알지?》

《찾아뵙겠습니다.》

안철의 리강진에 대한 환상은 매우 컸다. 하기야 그가 알고있는 이름난 정치가는 리강진밖에 없긴 했지만 한고향에 살면서 인사를 하게 된 후부터 안철은 그를 드물게밖에는 세상에 태여나지 않는 인격있는 공산주의운동가로 생각했던것이다.

바로 그가 일찌기 조선의 로동운동을 적지 않게 분렬시키는 역할을 놀았고 일제말기에는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친일파들과 어울려다녔으며 해방후에도 《공산주의자열성자대회》 같은 유해한 회의를 소집한 장본인이라는데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가 《장안파》였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에 대한 안철의 환상은 그 파벌까지도 그닥 나쁘게 생각지 않게 할 정도였다.

안철이가 찾아갔을 때 리강진은 사랑채 마루에다 꽃돗자리를 깔고 거기 누워서 신문을 보고있었다. 손님이 들어오자 그는 돋보기를 벗어놓고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안철의 생활과 하고있는 일을 한가지두가지 캐물었다. 여직껏 해명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있기만 하던 그 문제를 이분에게 물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안철은 자기가 비판받은 일을 하소하다싶이 자세히 이야기했다.

《지각없는 사람들!》

리강진은 개탄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 일을 맡길수가 있어야지…》

그제야 비로소 안철은 오래된 체기가 뚫린것처럼 속이 시원했다. 역시 자기의 립장이 옳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안철은 더욱 그를 숭배하게 되였다.

리강진은 그날 안철에게 입던 양복 한벌을 내주었다.

모든 민주주의적활동이 여지없이 억압을 받고있는 남조선정세하에서

공산당, 신민당, 인민당들이 그 력량을 합치게 됨에 있어서 리강진은 대회를 소집하는 방법을 주장하는 한사람으로 나섰다. 그는 말로는 당중앙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하였고 미제국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회를 소집하자는 그 의견자체가 이미 미제국주의를 인정하며 그 비호를 받으려는 파괴적인것이였다. 그것은 이내 전체 인민에게 폭로되였다. 그러나 안철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발한발 깊이 그 《대회파》에 끌려들어갔다.

이와 같이 한사람의 동지가 배반한줄은 모르고 리기준은 안철이 조합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건강만을 의심하고있었다.

안철이가 그렇게 전락해가는 동안에 정세는 나날이 불리하게만 기울어져갔다. 차차 무법천지로 돼갔다.

동광방직 쟁의단이 복귀한 후에 일어난 여러가지 불상사들과 군정당국의 허위적인 약속을 폭로한 리기준의 개인명의로 발표한 론문이 걸려서 전평신문이 발매금지를 당했다. 그와 관련하여 편집부와 섬유로조가 경찰과 테로패의 습격을 받을 우려가 생겼다.

그래 림시(그 림시가 아주 주저앉게 되였지만)로 사무실들을 황금정 네거리 3층으로 옮겨갔다. 사무실을 옮기고나자 기준은 더욱 가슴속이 허전한것 같았다.

그는 지시를 받아 기계적으로 분회들에다 전달하고있었다. 창발적의견을 내놓지도 못했고 자신있게 남을 고무하지도 못했다. 짧은 당생활의 경험만으로도 그는 다만 지시를 우에서 아래로 앵무새처럼 옮겨주기만 하는 당원들을 적지 않게 보았다. 지시를 받은 후 연구하지 않으며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하는자들은 당원인것이 아니라 당안에서 꾀바르게 처세하려는 우연분자들이다. 형세가 좋을 때 희떠우며 형세가 험할 때는 배신하는자들이다. 기준은 현재의 자기가 바로 그러한 분자들처럼 일하고있다고 생각했다.

동광방직파업의 실패는 확실히 리기준의 사기도 꺾어놓았던것이다.

봉례를 자주 만날수 있게 되였으나 그는 어쩐지 자기의 정신상태가 건전하지 않은것 같았고 따라서 그 녀자를 만나는것도 건전하지 못한것 같았다.

계속되는 각 공장의 파업과 해고사건, 실업, 전평의 성명과 군정당국의 어긋나는 대답, 미군과 무장경찰들의 불법습격과 테로학살—이러한 일들이 꼬리를 이었으나 이루 그것들을 수습하기 바빴다.

수도경찰청 분실류치장에 갇힌 정형규네들은 묻는 말에 대답을 거부하면서 견실하게 잘 싸운다는 소식이 매일 전해져왔지만 그들은 이미 동광방직으로 돌아갈수 없게 돼있으므로 조합에서 일터들을 알선해줄수밖에 없게 되여있었다.

기준은 동광방직의 관리인이 조석우로 바뀌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된 경위를 자세히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불리한 소식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기준은 그것이 장차 얼마나 악랄한 착취와 사업의 파괴를 가져오게 할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며칠을 지났다.

그러한 어느날 기준이 혼자 앉아서 먼산을 바라보고있을 때 종일 나갔다가 돌아와 무엇인지 쓰고있던 봉례가 들어왔다.

《기사를 쓰셨나요?》

기준이 물었다. 그러나 봉례는 그 대답은 않고 그의 눈치를 살피면서 《기운이 없으신것 같애요. 어디가 또 불편하세요? … 그래도 불편하신것 같은데요. 산보도 하시고 좀 놀러도 다니고 하세요.》라고 말했다.

《케가 어디 그렇게 됐나요?》

《요새처럼 우울하신것 같은 기색 전 처음 봤어요.》

《어디 명랑하게 됐습니까?》

《류치장에 갇힌 로동자들모두 잘들 싸우고있잖습니까!》

《알고있습니다. 명랑하게 되지는 않았어도 그렇다고 또 우울할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겠지요.》

《여기선 네거리가 곧장 내려다보이는군요. …》 하면서 봉례는 창

앞으로 다가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종일 어디로 다녔는지 봉례는 저고리가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져있었다.

하지만 언제 보나 깨끗하고 아름다왔다. 기준은 차차 쓸쓸한 마음이 사라졌다. 봉례는 자기에게서 쓸쓸한 마음을 쫓아버려주려고 들어온것 같았다. 반짝 등불이 켜진듯 기준의 가슴속이 환해왔다.

《무얼 그렇게 내려다보시오?》

기준이 묻자 봉례는 《안예요.》 하고 옆의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저흰 며칠안으로 이사하겠어요.》라고 말했다.

봉례는 묻지도 않는데 이사하게 된 까닭을 설명했다. 현재 봉례가 어머니를 모시고있는 집은 허인기의 소유였다. 허인기는 편집부장이였으나 사실상 신문사일을 도맡아하고있으므로 사장까지 겸한셈이였으며 기자가 7~8명밖에 안되므로 때로는 기자의 일까지 했다. 그뿐아니라 그는 신문사의 경영주이기도 했다. 그는 여직껏 십여만원의 자금을 찔러넣었으며 전평의 재정이 일정치 못하므로 전평 간부들은 앞으로도 허인기만 바라볼수밖에 없는 형편이였다. 하지만 사실 허인기의 재산이란 린제산골의 집과 숯을 깡그리 팔아서 산 돈암정 집과 봉례가 든 초가삼간이 전부였다.

며칠전 허인기는 봉례에게 끝까지 신문을 살리자고 하면서 어느 집을 팔았으면 좋겠는가 하고 의논을 했다는것이였다. 그래 초가를 먼저 팔기로 했노라 했다.

《돈암정으로요? 불편하게 됐군요.》

기준이 념려했다.

《되래 편해요. 사랑채가 돼서 떨어져있고 수도가 나오고… 그리구 아무래도 아저씨옆에서 살면 덕보는게 있겠지요. 호호호, 그건 롱담이구요. 참, 공기도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껌껌한데 전등도 안 키고 무슨 얘기야?》 하면서 허인기가 들어왔다.

그는 《어, 밀담중이신가?》 하며 짐짓 나가려는걸 봉례가 《아이

참, 별말씀…》 하면서 빨리 의자를 내주고 전등스위치를 눌렀다.

《요즈음은 신장이 좀 어떠십니까?》

기준이 물었다.

《늘 그렇지요. 의사는 그저 가만히 누워만 있으라니 이건 죽으라는 말이나 같지.》

《여전히 신색이 부셨군요.》 하면서 기준은 반백이 되여가는 그의 머리와 깊이 주름잡힌 눈시울을 살펴보았다. 허인기는 외면을 하고 창앞으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잠시 내려다보다가 그는 생각난듯이 기준에게 물었다.

《참, 봉례에게 들었는데 기준동무의 형님이 기태라지요. 34년도에 희생된 리기태…》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별로 한것도 없는 그 반제동맹사건으로 우리하고 함께 잡혔었습니다. 똑똑한 동무였습니다. 그때 몇살이던가?》

《제가 열여덟이였고 저보다 다섯살우였습니다.》

허인기는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다.

《옳아, 23~24살의 청년이였지. 잡히기 전에 수삼차 만난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잡히던 날 희생됐지요. 점심때 잡혀서 밤 열시까지 고문을 당했는데 고문당하는 소리가 끝나서도 그는 류치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기태가 변절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취조를 받으러 나갔다 들어온 동무에게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잠간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허인기는 말을 이었다.

《아까운 동무를 희생시켰지요. 그러고도 모두 덤벙거리기만 했으니. 참! 대부분이 맑스주의는 알지도 못하면서 맑스주의적언사를 몇마디씩 배워가지고 그것으로 행세했습니다. 모두 말뿐이였지요. 말로 모든것을 했지요. 그러다보니 한가지도 못했지요. 대중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고 말로만 대중을 떠벌였으며 대중은 어디 있든 그저 중앙위원이 되는데

만 골을 싸매고 덤볐더란 말입니다. …》

기준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는 혈기왕성한 청춘이였던 기태와 자기를 늘 비교해보군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태의 고문치사가 십여년전에 있었던 어떤 딴 사람의 이야기와도 같이 생각되였다. 그래 랭정히 허인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허인기는 반백의 머리카락이 은실오라기처럼 빛났다. 이제는 이미 늙어가고있었으나 자기의 의견을 토로할 때는 20살의 청년처럼 기염을 토하군 했다.

기준은 그와 마주앉는 시간을 매우 유익한 시간으로 여겼다. 그는 1920년대 특히 그 《사꾸라몽둥이시대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밤새는줄을 모르고 흥분한 어조로 자기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듣고있노라면 기준도 어느덧 흥분과 의분에 사로잡혀가군 했었다. 허인기는 말을 이었다.

《서루 때리고 서루 뜯어먹었지요. 글쎄, 생각해보시오. 이르꾸쯔크파, 상해파, 화요파, 서울파, 북풍회, 일월회, 서울신파, 서울구파, 엠엘파, 합동서울파, 서상파, 콩크룹… 에잇! 이게 일을 하자는겁니까? 리강진이가 바루 그 한사람입니다. 최익이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꾸라몽둥이로 음식점문을 열어제치고 들어가 식사를 하고는 우리는 무산자요, 우리는 무산운동을 하고있으니 그리 아오 하고는 으시대고 나오군 하잖았겠습니까. 호랭이 담배먹던 시대지요. …》

《그만큼 기백들이 있었던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기백이요? 부르죠아자제들의 헛기백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30년대에 **김일성**장군님의 빨찌산부대가 항일투쟁을 개시했을 어려운 시기에는 모두 변절하고 투항해서 개가 되고, 에잇…》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가볍게 치고는 더 생각하기 싫은듯 벌떡 일어섰다.

(덤비지 말아야겠구나. 대중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착실히 공부를 해야겠구나.)

기준은 벌써부터 생각하던 이러한 각오를 더욱 굳게 다졌다.

허인기는 말머리를 전번 압수된 신문이야기에다 돌렸다.

《압수가 돼서 기준동무의 원고료 드릴 케가 못됐습니다.》

《받을 렴치가 없습니다.》

《글쎄, 또 만여원 손해 안예요.》

《그 손해배상은 군정청앞으로 청구하십시오.》

기준은 진담처럼 말했다.

《정말입니다. 두었다가 한꺼번에 처음치부터 다 계산해 받겠습니다. 아무래도 받게 될것만은 사실이니까요.》

《요새 같아서는 료원하군요. 받기 전에 신문이 폐간될것만 같아서…》

《천만에요!》

허인기는 펄쩍 뛰였다. 그리고 서성거리던 발을 멈추더니 자신있는 어조로 말했다.

《두고보십시오. 못 나오게 해도 신문은 로동자들 손에 쥐여질겁니다. 너도 그걸 알아야 한다.》

그날은 봉례를 《너》라고 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기준이 말했다.

《미국이 남조선을 잔뜩 붙들고 내놓지 않으려구 하지요. 잡도리가 벌써 그렇지요. 미군가족까지 데려내오는게 그렇습니다만, 어림없습니다!》

그는 대머리진 이마를 번쩍거리며 자기앞에 수십명의 군중이 있기나 한것처럼 열심히 말했다.

《물론 미국은 더 악질로 나올겁니다. 부랑자들, 테로패들을 모아서 군대까지 만들고있지 않습니까? 허지만 제놈들이 일본놈들처럼 조선사람을 끝까지 해치지는 못할겁니다. 일본놈들이 중국을 침략하려다가 범의 꼬리 잡은셈 됐듯이 비록 덩어리는 작지만 남조선을 야금야금

먹어가다가는 그 꼴 될겁니다. 조선인민도 벌써 40년전과는 다릅니다. 또 남조선을 먹어가라 하고 북조선동포들은 가만있을것 같습니까? 쏘미공위가 또 열리게 될겁니다. 나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서성거리던 허인기는 전번 원고료대신 저녁을 내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식당으로 갔다. 그날은 1920년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대신 식탁에 가앉자마자 그는 가쁜숨(그는 늘 숨이 가빠했다.)을 쉬면서 군정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고 종당에는 조선인민이 잘살게 될거라는 락천적인 말을 거듭했다. 그러한 말도 처음에는 선동연설같이 들렸으나 차차 기준은 허인기의 락천주의에 동화되여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던것이다.

말복까지 지났으나 날씨는 삶는듯이 무더웠다. 그들은 밤 열시가 넘어서 식당에서 나왔다.

엠피들이 짐승들처럼 힐끔힐끔 바라보며 지나갔다.

기준과 단 둘이 되자 봉례는 《피곤하시지요? 오늘은 한시간만 걸을가요? … 아니, 내가 정신이 나갔나. 어머니 약을 갖다드릴것도 잊어버리고…》라고 했다.

《어머니가 불편하신가요?》

《늘 가슴을 앓으셔요. 어제부터 더하셔서 그래요.》

기준은 걷고싶었다. 잠간만이라도 걷자고 할가 하는데 봉례가 말했다.

《래일 산보가세요, 네? 급한 일 없으시지요? 나무 많은데로 가세요. 릉안이 좋잖아요?》

《래일 언제 말입니까?》

《점심때까지만 걷지요. 래일 일요일예요.》

《벌써 일요일인가? 음, 그렇군!》

《꼭 가세요, 네?》

《그럽시다. 허지만 오후 네시에 만날 약속을 했는데…》

《저도 오후에는 회관에 나가야 해요. 오전중에 꼭 가세요. 아침에 댁으로 갈게요, 네! 릉안이 서늘하고 좋아요.》

4

이튿날 아침 일찌기 봉례는 모시적삼에 까만치마를 입고 무엇을 넣었는지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불룩하게 해들고 기준의 집으로 왔다. 봉례는 마루끝에 서서 순희와 정호도 함께 가자고 채근이였다.

《아이참, 미련하게 내가 왜 따라가요. 눈총이나 맞으려구…》

순희는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다.

《언니도, 그럼 저도 안 가겠어요.》 하면서 봉례는 짐짓 화를 내는것처럼 했다.

기준은 두 녀자가 사사공사로 말미암아 가까이 지내는것은 짐작했으나 언제부터 순희를 언니로 부르게 됐는지는 몰랐다.

봉례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어머니도 모시고 갈게요.》라고 말하자 박씨는 손을 내흔들었다.

《어서 내 걱정은 말구 정호 에미나 데리구 가. 잘됐수. 바람두 더러들 쏘여야지…》

순희는 할수없이 정호에게 새 운동복을 갈아 입혀서 데리고 나섰다.

그들은 금화산 언덕길을 넘어서 릉안으로 들어섰다. 꼿꼿한 락엽송들과 아름드리 참나무들이 길길이 솟은 숲속은 서늘하게 그늘이 져있었고 이내 닥쳐올 가을살이걱정을 하는지 매미들이 쉬지 않고 울어댔다. 나무가지가 하늘을 덮어 굴처럼 된 릉앞길을 지나서 그들은 인기척이 없는 산기슭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신촌으로도 넘어가고 안산으로도 오를수 있는 오솔길을 따라가느라니 여기저기 그늘진 풀밭이 그들을 유혹했다.

이 오솔길과 오솔길을 이리저리 가로막으면서 졸졸 흐르는 실개천, 아름드리나무들과 애솔들, 바위들… 기준에게는 모두가 눈에 익은것이였다.

그는 이 풀밭들을 수없이 거닐었으며 이 개울물에 한두번만 손을 씻지 않았고 한두번만 움켜 떠마시지 않았었다. 맑은 공기를 가슴깊이 들이마시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할수 있을가를 자주 생각하던 곳도 바로 이 숲속이였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 세상에 부대끼느라고 이 정든 곳을 잊었던것이다. 이곳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더구나 이렇게 녀성들에게 끌려올념은 해보지도 않았었다.

제일 기뻐하는것은 정호였다. 한사코 자기가 들고 가겠다던 과자꾸레미도 엄마에게 내맡기고 피기 시작한 들국화를 꺾어 모으느라고 골몰했다.

순희는 아까부터 적십자병원에 있는 최 아무개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봉례에게 자세히 하면서 걸었다. 실력도 있고 사상적으로도 옳은 립장에 선 의사라는것, 그러나 약품을 횡취하려는 미군군의들과 다투다가 씨아이씨로 끌려갔다는것, 끌려간지 십여일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것으로 보아 잘못되였을듯 하다는것, 그의 젊은 부인이 매일같이 아이를 업고 와서 소식을 묻다가는 락심해서 가군 하는데 가엾다는것— 두루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들국화와 이름모를 다홍꽃이 융단의 무늬처럼 건성 드문 깔린 넓은 풀밭에서 그들은 멈춰섰다.

《여기가 좋군.》 하면서 기준이 양복상의와 들고 온 책을 놓았다.

《참 좋은데요.》

봉례도 가방을 놓았다.

《정호야, 이리 와.》

순희는 먼저 풀우에 앉았다.

풀밭에 벌떡 누운 기준은 심호흡을 하면서 반나절을 즐겁게 지내다가려고 생각했다. 값진 도배지무늬처럼 짙고 엷은 초록색잎사귀들 틈으로 햇솜을 편듯 흰구름이 떠가고있었다. 그렇게 누워서 신선한 나무잎들과 푸른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니 생명은 한없이 길것만 같았다.

자꾸만 비단실을 토하는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방울을 울리

는것 같기도 한 이름모를 새들이 사방에서 울다가는 날아갔다.

정호는 한아름 꺾은 꽃을 기준에게 맡기고 또 근처로 다니며 꽃이랑 나무가지를 꺾었다. 두 녀자는 수밀도(복숭아의 한가지)의 껍질을 벗기고 사과를 깎고 했다. 모든 일이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으랴싶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롭고 맑고 아름다운 환경에 누워있으니 기준은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더욱 절실히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떨어져서 사람들은 살고있으며 이 풀밭만 떠나면 그대로 피투성이의 싸움터였다.

(그런 소용없는 생각 그만두자 했는데 또 하는군.) 하며 기준은 담배연기를 빨아 공중에다 대고 후— 뿜었다. 담배연기는 꿈틀꿈틀 나무잎사귀틈을 비집고 올라서는 사라지군 했다.

과일을 깎아서 흰종이에 받쳐들고 두 녀자는 기준에게로 다가앉았다.

《잡수세요, 네?》 하면서 봉례는 기준의 머리말에 놓인 성냥갑을 집더니 성냥가치로 사과 한쪽을 찔러서 기준에게 권했다.

《그럭허니까 두분이 뭐 같은데…》

순희가 슬그머니 놀렸다. 봉례는 얼굴을 붉히다가 시치미를 떼고 《뭐 같아야만 사과를 권하나요, 언니두 참!》 하고는 딴 이야기를 꺼냈다.

《언니는 춘하추동 어느때가 제일 좋아요, 네?》

《봄!》

《저는 여름이예요. 봄도 좋지요. 온화하고 싹이 움트고 꽃이 피고… 허지만 여름은 모든것이 무성해서 생이 마음껏 뻗어나가잖아요. 이 숲속만 해도 그렇잖아요? 매미소리, 새소리, 나무도 싱싱히 자라지요. 사람도 그런가봐요.》

봉례는 소녀처럼 즐거워했다. 순희는 여름도 좋지만 이내 가을이 올것이라 생각돼서 안됐다는것이였다.

《난 아무 일도 못한 사람이지만…》 하고 기준이 또 딴 이야기를

꺼냈다.
《그전에 어쩌다가 한달쯤 감방에 갇힌 일이 있었지요. 동삼이였는데 감방철창의 유리가 다 얼지 않을 정도였지요. 유리가 어는건 한쪽 공기가 더워야 하니까요. … 한데 같은 감방에서 세수를 하려다가 얼마나 물이 찬가 하고 우선 손을 잠가보았지요. 겨드랑에 끼였던 왼손을 먼저 잠갔더니 뼈까지 저리도록 차더군요. 허나 다음으로 내놓고 마른 걸레질을 하던 바른손을 잠가보니 그 물이 더웁더란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간사하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런 교외에 나와 앉아 생각해보니 인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가가 통절히 느껴진단 말입니다. 찬 손으로는 찬것을 덜 감각한단 말입니다.》
《저도 방금 이런데다 집을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가 생각하다가 불행한 현실을 생각했습니다.》
봉례가 대답했다.
그러자 순희는 《그런 생각 안하는게 좋아요. 놀러 와서두 그런 생각만 하면 빨리 늙어요. 늙는게 뭐 좋아요? 그런 생각만 하면 오빠는 아주 늙어버릴거예요. 어느분에게 들었던가. 로씨야혁명이 끝난 직후 보니까 로씨야청년들이 모두 나이보다 더 늙어보이더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겠지요?》 하고 말했다.
《할수 없는 일이지요. 세월을 겪쳐 지내는거나 다름없으니까…》
모두들 덤덤히 앉아있었다. 자기자신은 아직도 청춘으로 알고있었지만 순희는 자기가 벌써 30살이 되였다는것을 생각했고 봉례는 봉례대로 스물다섯이 지나니 이제는 로처녀로구나 하고 쓸쓸해졌던것이다. 그들은 부지런히 울어대는 매미소리가 싫었다. 모두들 깊은 생각에 잠겨갔다.
풀대를 쑥 뽑아서 싹싹 씹었다가는 뱉고 또 딴것을 뽑아 씹고 하던 봉례가 기준을 쳐다보고 《무슨 생각 하세요?》 하고 물었다.
《생각은 무슨…》
기준이 대답했다.

그러자 순희가 《봉례동무는 무슨 생각 했어요?》 하고 물었다.
《저도 아무 생각 안했어요.》
《내 알아맞힐가?》
《맞히세요.》 하더니 봉례는 어떻게 생각했던지 별안간 순희에게로 기대면서 순희의 입을 막았다.
《또 쓸데없는 얘기 하려구, 싫어요!》
모두들 다시 명랑해졌다.
《로씨야의 청년들이 나이보다 늙어보였다지만 마음은 그 이상들 젊어졌을겁니다.》
기준이 자신있게 말했다. 세 젊은이들은 다시 웃기도 하고 정호를 불러앉히고 노래를 배워주기도 하고 유희도 시켰다. 그러다가 개울가에서 봉례는 가방을 열었다.
가방속에서 네사람분의 오붓한 점심이 나왔다. 거기다 순희가 사온 과일이랑 과자까지 합치니 종이식탁우에는 제법 호사한 식사가 차려졌다. 집에서보다도 모두들 맛있어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들은 또 개울가에서 명랑하게 놀았다. 정호는 점점 더 재미가 나는지 사방으로 뛰여다녔다. 그러다가 개울 맞은쪽, 자기 키를 넘는 풀숲으로 들어가 한동안 헤매더니 방향을 잃어버린듯 《엄마, 어디 있어?》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애가 오늘 웬 일이야?》
순희가 기막혀했다.
《엄마, 어디 있어?》
거듭 정호의 소리가 나자 봉례가 반대쪽으로 달려가 허리를 굽히고서 《여기 있어.》라고 했다. 그러자 기막혀하던 순희가 또 봉례의 반대방향으로 가서 《나 여기 있다.》 하고 소리쳤다.
정호가 자기 엄마를 찾아가는걸 본 기준이 그대로 앉았다가 《정호야, 이리 온!》 하고 불렀다.
봉례가 손벽을 치며 《정호, 이리 와요, 나 여기 있어!》 하고 달

래듯이 찾다가 정호가 기준에게로 가는줄 알자 기준에게 손짓을 해서 가까이 오라고 했다.

기준은 대여섯걸음 성큼성큼 봉례옆으로 가 허리를 굽히고 《정호야, 야옹!》 하고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봉례를 보았다. 봉례는 기준에게로 바싹 다가서서 《보여요?》 하고 풀숲을 헤쳐보았다.

정호는 벌써 어른들이 자기를 놀리는줄 알고 자기도 《야옹!》 하더니 아무나 한사람 잡기로 작정한 모양이였다. 잠시 헤매다가 개울가로 빠져나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약속이나 한듯이 어른들이 풀속으로 들 뛰여들어갔다. 기준은 봉례의 발을 밟을번 해서 피한다는게 그만 뭉클한 봉례의 팔을 잡고 넘어졌다가 도로 일어났다.

《정호야, 이리 온!》

순희가 불렀다.

《정호씨, 이리 오세요. 네?》

봉례도 또 놀렸다. 그리고는 기준에게 눈짓을 하고 또 놀리라고 했다. 할수없이 정호는 또 풀숲으로 들어섰다. 들어서자 어른들은 또 헤져나왔다. …

이렇게 한동안 하다가 기준은 아주 아이가 돼버린 자기가 쑥스럽게 생각돼서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껄껄 웃으며 먼저 앉았던 풀밭으로 올라갔다.

그는 책을 베고 벌떡 누웠다. 한잠 자려고 했으나 잠이 올것 같지 않았다. 자꾸 옷속으로 기여들어가려는 개미를 집어던지면서 허두없는 생각을 하고있었다. 그러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펑 하니 땀에 젖어서 기준은 일어나 앉았다. 어느 틈에인지 볕이 얼굴에 비치고있었다. 일어나 앉아보니 그렇게 싸다니던 정호가 그의 옆에서 쌕쌕 코를 골고있었다.

기준은 개울가로 내려갔다. 두 녀자는 점심을 싸가지고 온 보자기랑 손수건이랑 빨아널고 개울물에 발을 잠그고들 있었다. 기준은 웃켠으로 올라가 세면을 하고 슬슬 도로 내려왔다.

《오빠는 왜 빗질을 안하세요?》

기준이 나타나자 순희가 말했다.

《빗질 안하시는게 좋잖아요.》

봉례가 대신 대답했다.

기준은 그런 이야기들은 들리지도 않는듯 주머니들을 뒤지더니 《담배가 떨어졌군.》 하고 말했다.

《제가 사오지요.》

봉례가 말하자 순희가 일어서면서 《큰길앞에 있어, 내 사올께.》 하고는 발을 씻고 쪼르르 오솔길을 타고 내려갔다. 기준은 개울 맞은편 나무토막우에 앉아서 안경을 닦아 끼였다.

그때 봉례가 《저쪽 소매에 개미가 들어가요.》 하고 손짓을 했다. 기준은 개미를 잡아서 개울물에 띄웠다. 그놈이 흘러가서 봉례의 다리에 붙으려 했다. 봉례는 치마를 좀 치키고 두다리를 첨벙첨벙해서 개미를 떠내려보냈다.

그리고는 발을 씻고 양말을 신으려다가 그것을 도로 놓고 《보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기준은 모래를 한줌 집어 봉례를 향해서 뿌렸다. 물방울이 서너너덧 봉례의 흰다리에 튀였다. 물을 튕겨주고 기준은 일어서서 정호에게로 갔다.

아이가 잠을 깨자 그들은 곧 숲속에서 나왔다. 3시가 가까왔기때문이였다. 봉례는 가슴속이 후련해진것 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한달에 두어번씩 그렇게 교외로 나오자고 했고 순희는 다음 다음 일요일에는 자기가 점심준비를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서대문네거리에서 헤여져 순희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고 두사람은 전차를 탔다. 함께 차를 내려 3층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기준이 물었다.

《정리할게 많아요?》

《두시간도 안 걸릴거예요.》

《끝내고 우리 방으로 오시오.》
《가겠어요.》
기준이 사무실로 들어온지 얼마 안돼서 어제 약속했던 종연방직분회의 동무가 찾아왔다.
그 공장 《대한로총》패들이 부당하게도 종업원들에게서 돈을 걷어들이려는 책동을 폭로하고 그러한 수작을 반대하는 격문의 원고를 가지고 온것이였다. 기준은 그 동무와 마주앉아서 그 격문을 고치기 시작했다. 한시간쯤 후 분회동무도 좋아했고 기준도 만족한 격문원고가 됐다.
그가 돌아가자 기준은 그동안 서류장이랑 서랍속에 무질서하게 들이쌓인 서류들을 정리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던 그사이 기준은 아무 서류나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틀어박았던것이다.
필요치 않거나 기밀에 관계되는것들은 소각하기 위해서 한쪽에다 쌓았고 참고서류들과 서적들 그리고 소책자 등은 따로 정돈해놓았다.
(래일부터는 마음을 다잡자. 언제까지 그러구 있겠는가. 남을 위한 일도 아니다. 허인기의 말대로 종당에는 모두 우리의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끔히 정리했다. 정리를 끝내고 손을 씻으러 변소로 갔다. 손을 씻고 돌아오니 봉례가 와있었다. 창앞에다 의자를 당겨놓고 앉아서 창가림을 들치고 밖을 내다보다가 기준이 들어오자 도로 창가림을 드리우고 그를 쳐다보았다.
기준은 담배를 꺼내 피워물고 자기도 창옆으로 가앉았다.
밖에서는 전차, 자동차소리들이 들려왔으나 3층안은 조용했다. 변소의 수도꼭지가 헐거워서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그늘이 지는군. 해도 꽤 짧아졌군…》
기준은 혼자 중얼댔다.
어제와 오늘 그는 봉례와 함께 지냈으나 단 둘이서 찬찬히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막상 단 둘이 남아있으니 할 이야기란 없었다. 할 이야기는 입밖에 내지 않고도 벌써 다한것 같았다.

반쯤 피우다가 담배를 재털이에다 눌러 끈 기준은 입을 열었다.
《내 부탁이 있는데, 봉례동무!》
《무슨 부탁이세요?》
《앞으로 정세가 더 험악해질것을 각오하고있는지요?》
《각오하고있습니다.》
봉례는 긴장해서 대답했다.
《생전처음 겪는 고통이 닥칠것 같은데… 그게 어떤것일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소. 단지 나는 봉례동무에게 언제나 마음이 변하지 말고 있어 달라는걸 부탁하고싶소.》
봉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봉례동무를 믿겠습니다. 봉례동무 같은 녀성을 나는 여지껏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봉례동무는 순진하고 분별이 있고 그리고 봉례동무는 혁명가의 딸, 혁명가의 전통이 있지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봉례는 고개를 숙인채 찬찬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불우했던 혁명가의 자식입니다. 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저의 시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혁명가가 되지도 못하겠지만 그런 식의 혁명가가 돼서도 안되지 않아요. 저는 투쟁의 걸음마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저를 낮추 보시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돋보지 마세요, 네! 더 두고보시면 결함도 많을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쓰고는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만약 어떠한 폭풍이 저의 마음을 꺾는다면…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한가지, 어떤 모진 폭풍에 마음이 꺾인다면 그때는 저의 생명이 끝날것만 같아요. 이런 말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봉례! 우리는 할 이야기를 다했소.》 하고 기준은 봉례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우리는 한사람이 되였다고 해도 이의가 없겠지?》
봉례는 벽에 기대선채 목이 메였다. 기준은 다짐하듯이 말을 이었다.
《영원히 사랑할수 있겠지?》
봉례는 전력을 다해서 대답했다.
《저는 행복합니다. 언제인가 이런 사회제도하에서는 행복한 사랑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셨지요? 허지만 저는 이런 사회제도하에서 행복합니다. 정말이예요. 정말 행복해요! 모순일가요? 모순일지라도 행복한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봉례는 기준의 가슴에다 머리를 묻었다. 기준도 행복했다. 그래 거듭 봉례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봉례를 불렀을 때 기준은 3층 층계를 부지런히 달려오르는 발소리를 들었다. 두사람은 떨어졌다.
이윽고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오?》
기준이 소리치자 문이 열리고 순희가 급히 들어섰다.
《계시는군요.》 하더니 순희는 단번에 맥이 풀린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숨을 돌리려다가 가쁜대로 말했다.
《안 계시면 어쩌나 했어요. 오빠, 형사놈들이 몰려왔어요.》
《댁으로 왔어요?》
봉례도 의자에 주저앉으며 물었다.
《집으로!》 하더니 순희는 좀 차근차근히 말을 이었다.
《세놈이 들이닥치더니 왼통 집안을 이잡듯이 뒤지지 않아요. 그러구, 언제 들어와? 하고 딱딱거리잖아요. 난 딴살림이니까 모르겠소 했더니 당신도 빨갱이지 하고 딱딱거리잖아요. 그러구 노트랑 수첩들을 한보따리 들고나가잖아요. 본인이 있을 때 가져가라고 해도 들을게 무어예요? 또 올거예요.》
《놈들의 방문이 늦은셈이다.》

기준이 심상한듯이 말했다.
《어떻게 해요. 오빠, 잡히면?》
《잡히시면 안돼요. 안돼요!》
봉례는 흥분해서 말했다.
《여기는 모르지요? 집에 들어오시면 안돼요!》
순희는 일어나면서 말했다.
《8시에 병원동무들이 집으로 올지 모르니까 가봐야 해요. 오빠, 어디서 주무시겠어요, 네?》
《념려말아. 내 잘 곳 없겠니…》
순희는 봉례의 손을 잡더니 《저것들때문에 야단났어. 저 개자식들을 어떻게 없애버려, 응?》 하며 하소하듯 말했다.
《언니! 아마 모진 폭풍이 불기 시작할가봐요.》 하고 봉례가 말하자 두 녀자는 껴안았다.
기준은 순희에게 거듭 덤비지 말라고 타일렀다. 급히 층계를 내려가는 순희에게 다시 어머니가 안심하도록 해드리라고 했다.
방으로 돌아와 기준은 창가림틈으로 밖을 내려다보았다. 아래층 현관을 나선 순희는 조금 걷다가 3층우를 올려다보고는 또 총총히 걸어갔다.

5

수도경찰청 사찰과장 홍종식은 조석우가 큰 공장을 관리하게까지 되기는 했지만 그닥 대단케 생각지는 않았었다. 이러저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이따금 푸짐하게 얻어먹기나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명월관에서 단단히 신세를 진 며칠후 또 사장취임연회에 초청을 받았다.
그 연회석상에서 홍종식은 조석우를 새로 인식했다. 초청받은 사람

은 열명내외였는데 그중에는 군정청 경무부장 모리스라든지 차코브스 고문, 섬유과장 같은 미국인거물들이 와있었고 조선사람들도 이름있는 사람들이였다. 홍종식은 특히 조석우가 그 미국인들을 자기 친구 대하는것처럼 보여서 부러웠다.

조석우는 또 명동다방 2층에 있는 엑스구락부로도 홍종식을 안내했었다. 이름도 그러했지만 그 구락부는 무엇을 하기 위한것인지 남은 알수 없었으나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했다. 모이는 사람들이란 대흥광산 주인이 된 배뚱뚱이, 조선생사, 대흥고무의 관리인들, 금테안경에 금이발, 금시계투성이인 미국상품도매상 주인 그외 고급양복쟁이들과 미국구두쟁이들, 요컨대 미군의 상륙과 더불어 벼락부자들이 된, 말하자면 예속자본가들이였다. 이 소굴에서 무슨 꿍꿍이들을 하는지는 가히 알만 했지만 여기서도 조석우는 두목노릇을 하는것이였다.

(좌우간 보통이 아닌걸! 그 두꺼운 안경값을 단단히 하는데…)

홍종식은 조석우가 킬킬 웃는 소리까지 매우 위신있게 들었기때문에 자기도 앞으로는 그렇게 웃어야겠다고까지 생각했다. 이런것을 생각하고있다가 그는 분실 사찰과 주임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사찰과 주임은 《국대안》을 반대하는 선동을 한 학생 일곱명을 잡아넣었다는 보고를 했다.

보고를 듣고 전화를 끊으려다가 홍종식은 문득 조석우에게 장담하던 생각이 났다.

《… 그러구 여보, 그 로동조합에 있는 누구더라? 응, 리기준! 어떻게 됐소? … 놓쳤다구? 어떻게 해서? 무어야? 아니, 여보!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가? 그건 잡으러 간게 아니라 널 잡을터이니 피하라고 알려주러 간게 아니요, 응? 반내미들 같으니! 무어? 일주일안에 잡겠다고? 당장 잡아들이라니까, 당장!》

전화를 끊고 심히 불만스러워 그 너그럽지 못한 낯짝을 찡그리고있을 때 호출이 와서 청장실로 갔다.

전번 부산에 입항한 상선편으로 차코브스은 자기 집에서 길렀으며

친구처럼 사랑하던 개를 음식과 함께 궤짝에 넣어 수송해오게 했는데 그건 미끈하고 날쌔게 생긴 사냥개가 아니라 보신용싸움개였다. 입술이 두껍고 디룩디룩하며 축 처진 눈시울과 검붉은 눈알이 노상 어떻게 물어뜯을가를 생각하는게 분명한 심통사납게 생긴 거무데데한 부르도그종자였다.

청장실문이 열리자 바로 그 차코브스의 개가 양복을 입고 앉은것같은게 보였는데 그게 수도경찰청장 장택성이였다.

《불러계시오니까?》

홍종식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마치 물릴가 보아 조심하듯이 조심성있게 이같이 물었다.

장택성은 곧 짖어댈듯이 우르릉 코소리를 냈다.

《조선인민보.》

《네.》

《중앙일보.》

《네.》

《세계일보.》

《네.》

《세 신문 포고령위반으로 무기정간을 시킬테요.》

《네, 전평신문은요?》

《그건 좀 기다리오.》

《네!》

《오늘 오후에 발표하겠는데 발표와 동시에 간부들과 빨갱이기자들을 구금하란 말이요.》

장택성은 또 우르릉 코소리를 냈다. 홍종식은 미국식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허리를 굽혔다.

《분부하신대로 리행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희 손아귀에 쥐여져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많이 잡진 말고 중요한 사람들만… 응, 언론계란 그중 시끄

럽소. 몇명이나 생각하고있소?》
홍종식은 급히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수첩을 꺼내더니 잠시 들춰보았다.
《열댓명이내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우.》
이렇게 말한 장택성은 돌아서 나가려는 홍종식을 《또 있소.―》 하고 멈춰세웠다.
《한성대학 무슨 학부장인가, <국대안>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네, 있습니다.》
《구금하오.》
《네!》
《구금해서 한군데 가두어두고 곧 모리스부장에게 기별을 하오. 이상이요.》
《분부하신대로 틀림없이 리행하겠습니다. 청장님!》
홍종식은 지체하지 않고 부하들을 동원하여 각각 적당히 수배했다.
군정청 경무부장 모리스는 보통 미국인과 다른데가 있었다. 그는 술도 그리 마시러 다니지 않았고 춤을 추러 다니는 일도 많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월급과 특별수당(식민지수당이였는데 월급보다 많았다.) 그리고 기밀비(그것도 월급액수와 비슷했다.) 받은것들을 거의다 저축했다. 그것만이라도 한 이태 모으면 조선에다 별장과 과수원을 살수 있으리라는 타산을 했다.
그는 남조선에 발을 붙인 첫날부터 조선에서 영주할 작정을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조선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고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매우 충실한 그리스도교신자였으므로 일요일마다 례배당에 다녔으며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정중하게 가슴에다 십자를 그었다. 십자를 긋고 음식을 보고 한번 싱그레 웃은 다음 집어먹는게 그의

습관이였다.
그는 군정청에서 내놓는 일체의 법규를 위반하는 조선사람은 그 누구를 물론하고 또 그 경중을 물론하고 구금명령장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는 하느님의 말은 무엇이든지 믿었지만 일곱번만 용서할것이 아니라 일곱번을 70배 하라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하느님의 말만은 믿지 않았다.
그는 용서라는걸 몰랐다. 그의 생각대로 한다면 군정청에서 내놓는 일체의 법규를 위반하는것은 하느님을 믿지 않기때문에 그렇게 되는것이요, 천당에 가기는 물론 틀려먹은 일이였다. 그러므로 그는 조선사람을 거의다 잡아넣어야 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결국 감옥을 증설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게 했던것이다.
모리스는 남조선 각 지방의 감옥을 증설하는 동시에 남조선경찰에게 더욱더 무기와 탄약을 주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남조선경찰의 완전한 무장없이 치안을 유지한다는것은 가장 무모한 일이라고 했다. 그를 신임하고있는 군정장관은 그같은 주장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단번에 할게 아니라 야금야금 하기로 결심했다.

홍종식도 엑스구락부의 일원이 되였다. 일원이 되였다 해서 무슨 회원증이 있을리도 없고 의무와 권리가 있는것도 아니였으나 엑스구락부에 다닌다는것은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있었기때문에 그 소굴의 한사람이 된것이였다.
홍종식이가 생각하는 그 사회활동이라는것을 알기 쉽게 말한다면 조석우처럼 돈을 벌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자는것인데 홍종식은 벌써부터 경찰계에서 나갔으면 하고있었다. 그래 몇번 조석우에게 자기의 그러한 의사를 은근히 귀띔했던것이다.
세 신문사와 대학의 사람들을 검거했다는것을 청장과 모리스에게 전화로 전달하고난 홍종식은 조석우가 엑스구락부에 있는것을 알고 그리로 갔다. 조석우는 혼자 있었다.

《어제는 종일 찾았는데 대체 어딜 가셨던가요?》

안락의자에 주저앉으면서 홍종식이 물었다. 조석우는 맞은쪽 의자에 앉아서 어제 《샹하이》의 녀급과 인천조탕(소금기가 있는 온천)에 갔던 일을 회상하면서 킬킬킬 웃었다.

그리고는 《수도의 수사왕께서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조석우와 리기준은 못 찾아내셨군요.》 하고 대담하게 빈정대보았다.

《오, 그 얘길 못 드렸군.》 하며 홍종식은 조석우가 내미는 담배곽에서 담배를 한대 빼들고 말했다.

《글쎄 부하들이 개판을 쳐서 그렇게 되잖았어요. 욕을 해주었습니다. 허지만 며칠만 더 두고보십시오. 제가 서울안에 있지 어디루 가겠습니까?》

조석우는 라이터불을 대주고 말을 받았다.

《내가 경관이라면 일주야를 넘기지 않고 잡아올겁니다요.》

《어떻게? 방조를…》

《아까도 황금정 네거리에서 어물거리는걸 차안에서 봤는데…》

《방조를 좀 주시오.》

조석우는 또 웃더니 전화기를 들고 고태히보석상을 찾았다.

《주인 계시냐? 음, 좀 대라.》 하더니 송화구를 가리고 《수사왕께 방조를 드리긴 드립니다만…》 하고는 송화구에서 손을 떼고 통화를 했다.

《저 조석우입니다. 오래간만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엑스구락부와는 영 가까이하지 않으실 작정입니까? 그럼 어째 한번도… 그러실터지요. 허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살아가시면 안됩니다요. 허허… 언제 한번 만납시다. 네, 네, 그리구요 김재인씨 지금 있나요? 오래 걸리나요? 곧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는대로 구락부로 전화를 좀… 네, 네, 부탁합니다. 안녕 계십…》

전화기를 놓은 조석우는 《좀 기다리십쇼. 수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담배곽을 열었다.

홍종식은 전번에 귀띔을 했던 일을 좀더 확실히 이야기했다. 차코브슨고문과 셋이서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는것도 좋고 직접 조석우의 힘을 빌면 더욱 좋다고 했다.

《그런 일이 단번에야 되지 않겠지만 단지 기회만은 놓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조형!》

《그럭허지요. 노력해서 안될 일이 있나요. 될겁니다.》

조석우는 이렇게 선선히 말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능글능글한 웃음을 지으면서 (자, 보란 말야. 이만하면 지금 세상에서 조석우가 어느 정도인가 알만 하지? 두구보란 말야. 서울장안을 쥐였다폈다 할것이니…)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따져보았다.

(그런데 이자를 좀더 경찰복을 입혀두고 리용해먹어야 할게 아닌가? 지금 합당한 자리도 없거니와 서두를건 없어. 아무렴, 더 경찰복을 입혀둬!)

《만사는 기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그런건 조석우에게 맡겨두시구려.》 하면서 그는 안경알을 번쩍였다.

《저녁때 시간있으시지요?》

홍종식이 물었다. 경찰권한으로 외상으로라도 한턱 쓸 마음이였다.

《이제 또 공장에 나가봐야겠습니다. 원료는 부족하지, 생산량은 나날이 줄지… 야단이라니까요.》

《저녁에 만납시다요.》

《사복을 입고 나오시겠습니까? 나까지 경관취급을 당해서…》

이렇게 말할 때 전화종이 울었다. 조석우가 전화기를 들었다.

《네― 접니다. 음, 오래간만일세. 아니, 그래 돈벌이재미에 친구도 다 잊어버리기인가? 공산주의는 잊어버린게 잘됐지만 친구까지 잊어서야 쓰나? 허허허… 음, 다른게아니라 리기준이라고 있지? 섬유로동조합

에서 일하지 않나? 모처럼 공장을 하나 맡았더니 복잡해서 그러네. 그 사람을 만나 사정이야기를 하고 부탁도 해야겠는데… 집에는 12시나 돼야 돌아온다네그려. 곧 좀, 응?》 하더니 조석우는 왼손으로 홍종식에게 소리내지 말라고 손짓하고서 전화기를 귀에다 바싹 갖다댔다.

《수표교다리옆에 무슨… 무슨 사업소? 신흥토건사무소? 거기 있어… 알겠네! 한번 만나세.》

조석우는 전화를 끊었다.

《어디, 신흥토건?》

홍종식은 수첩을 꺼내며 물었다.

《신흥토건사무소!》

홍종식은 저녁때 만나자고 하며 급히 일어나 나가버렸다. …

늦게까지 공장에 있었던 조석우는 7시가 거의 되여서야 엑스구락부로 돌아왔다.

구락부에는 하와이에서 콩나물장사를 하다가 해방후 조선에 건너와 미국상품도매상을 하여 삽시간에 갑부가 된 곰보와 미국인숙수노릇을 하다가 대흥고무공장 관리인이 된 빼드렁이 그리고 역시 미국에서 료리사로 돌아치다가 조선에 나와 료리집 국영관의 서기노릇도 하군 하던 리기봉이라는 추물(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이 추물은 리승만이가 조선에 와서 금붙이, 금덩어리들을 모으는것을 존경하면서 그것을 배우는 졸도로서 장차 리승만이처럼 《정치가》가 되려고 하는 생건달이였다.) 등이 모여 마작판을 벌려놓고있었다.

잠시 패쪽 돌아가는 구경을 하다가 《뻥해 뻥—》 하며 소리치던 조석우는 홍종식이 사복을 하고 나타나자 슬그머니 빠져나가 《영생》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차안에서 홍종식은 《사찰과장 사표내게 됐습니다.》 하면서 리기준이 신흥토건사무소에 있었던게 사실인데 또 놓쳤다는 이야기를 했다.

《분실수사과에 있는것 두어놈 쫓아냈습니다. 개새끼들! 아니, 그래 잡아다 바쳐주어도 놓친단 말야? 앞으로는 정신 차리겠다고 비는것들

을 당장 내쫓고말았습니다요.》

《무얼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조석우는 말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매우 불만스러웠다.

오늘도 로동자들이 일을 못하겠다고 십여명씩 마루바닥에 쓰러졌는데 그게 다 《빨갱이》들이 시킨거라고 생각한 조석우는 로동조합을 어떻게든지 해서 헤쳐버려야 하겠다고 앙심을 먹었다. 또 리기준이란 인물이 비록 큰 인물이 아니라 해도 직접 자기 공장 로동자들과 통하고있으며 또 일이 일같지 않아서라도 초지를 달성하지 않고는 못배겼다.

거머리같이 추근추근하고 악랄한 성미로 뭉쳐진 그는 홍종식의 이야기를 듣자 단념하기는커녕 더 기가 나서 십만원을 들여서라도 잡는걸 보고야말리라고 결심했다.

《매사는 삼세번입니다. 세번째는 놓치지 않겠지요.》

조석우의 말이였다. 홍종식은 그럴듯하게 생각하면서 그를 따라 《영생》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방으로 안내를 받은 조석우는 녀급이 들어오자 《굴프라이(굴을 기름에 지지거나 튀긴것)하고 위스키, 또 무얼 할가요?》 하고 홍종식에게 물었다.

아무거나 세가지만 더 청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녀급이 나가려는데 조석우가 《가만있자, 여봐 춘희! 우리 운전사 좀 들여보내주.》 하고는 수첩을 뜯어서 서너줄 급히 무엇인지 적었다. 운전사가 들어오자 고태히보석상을 가리켜주면서 말했다.

《그분 꼭 모시고 오우.》

료리가 들어오기 시작할무렵 김재인이 나타났다. 그는 조석우와 만나고싶은 마음은 없었다.

신문사에 있을 때 더러 함께 술을 얻어먹으러 다니기는 했지만 그와 마음이 맞은것은 아니였고 8.15후는 그와 더욱 상종이 없었다. 그런데다 조석우의 뒤가 아무래도 퀴퀴하다고 생각하고있는 재인은 사실

그와 휩쓸리기가 싫었다. 그러나 동광방직 같은 큰 공장을 틀어쥐게 된 그의 수완에는 감탄했다. 그래 한번쯤 만나보자고 생각하던 판에 전화도 걸어왔고 차까지 보내왔던것이였다.

친절하게 맞이한 조석우는 《인사하지. 우리 구락부 회원이신 홍종식씨… 신문사때부터 막역한 친구입니다.》라고 서로 소개했다.

김재인은 홍종식과 인사를 하고 권하는대로 가운데좌석에 앉았다.

《자네 외교수완이 대단하이. 그래 사장취임소감이 어떤가?》

《사장이 아니라 관리인일세.》

《그게 사장이지. 사업이 잘돼가나?》

조석우는 면화구입이니, 원가계산이니, 반제품처분이니, 파운드니, 딸라니, 무슨 시세니 하면서 떠벌였다. 그러면서 연신 두사람에게 위스키를 권했고 그는 굴료리를 많이 먹었다. 다소 취기가 돌자 조석우는 정색을 하고 재인에게 말했다.

《리기준이란 사람 토건사무소에 나오지 않는다데… 야단인걸, 자네 동광방직파업사건 알지?》

《세상이 다 알지 않나, 그건 군정청이 너무한걸세.》

《글쎄, 나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말일세… 그 뒤수습을 하러 들어간 내가 또 파업이 일어나게 하면 어쩌겠나? 난 사실 로동자들에게 잘해주네. 식사대우도 잘하고… 또 요구조건을 반은 들어줄 용의가 있는데 로동자들이 말을 들을가가 문제거던.》

《다 들어주지 왜 하필 반인가?》

《이 사람이 남의 사정은 통 모르는군.》

《자네 그렇게 로동자들을 착취하면 나중에 어쩔려구 그래?》

《착취가 무어야? 원료금새가 천정 모르고 올라가지, 미국천이 들어오지… 생각해보게나, 글쎄!》

재인은 입을 다물었다. 사실 까딱없어야 할 보석값까지 미국보석때문에 타격을 받는 형편을 생각하자 조석우의 말도 전혀 거짓말은 아닌상싶었다.

《그래 절충안을 내세우겠는데 조합사람을 만날수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 사무실도 일정치 않으니 원, 그래서 재인이… 그 리기준이란 사람을 찾아봐주게나.》

《그분이 그중 리해가 빠르답니다.》

홍종식이 보태서 말했다.

《문화부장대리를 한다지, 아마…》

《문화부장인가? 그럼 더욱 좋지. 이 굴프라이가 괜찮아!》

연거퍼 술을 권하면서 롱담을 하다가 조석우는 다시 신중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어려운 부탁이네만 내 부탁이 아니라 로동자들의 부탁이라고 생각해야 해. 가까이 지내는 친구 두어사람만 찾아보면 그가 류숙하는 델 알거 안야?》

《알수 있지.》

재인은 대답했다.

《내야 하나도 몸달게 없네만 성가셔서 그러네.》

6

전평신문과 섬유산별이 옮겨간 곳을 아는 사람은 몇몇 분회간부들밖에 없었으므로 우선 안심했으나 진보적인 신문사들이 습격을 받은것과 리기준을 찾고있는 사실은 불길한 일이였다. 그래 우연히 들어와보는 사람들에게도 신문사와 섬유산별이 전혀 관계없는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복도 한복판을 널쪽으로 막았고 각각 색다른 모양의 영업소간판을 내걸었다.

그리고 각 부서가 제가끔 련락하는 곳을 따로 정하고 거기서 관계자들을 만나게 하였다.

리기준은 점심때까지는 사무실에 있다가 오후부터 련락처로 정한 신흥토건사무소로 나갔다.

그 장소는 허인기의 연줄로 얻었는데 차차 부원들을 내보내기도 하겠지만 우선 기준이 질서를 잡아놓기 위해서 매일 자신이 나가서 련락을 취했고 필요한 사무를 보기도 했던것이다.

그런지 나흘 되던 날 기준은 토건사무소창문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다가 김재인이 지나가는것을 발견했다. 기준은 그를 불러세웠다.

김재인은 1년전보다 훨씬 얼굴이 부해졌으며 차림도 고급중절모자에 마카오제양복, 접어든 춘추외투에 번쩍거리는 구두였다. 기준은 그 외형과 같이 변했을 그의 마음이 어떤것인가 알고싶어서 쫓아나갔다.

《그래 재미가 어떤가?》

《지내긴 괜찮네. 허지만 신세야 자네가 생각하는 바루 그대로 일세.》

재인은 기준의 손을 잡고 반가와하면서도 어디인지 수치를 느끼는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향기없는 제일 값싼 담배를 피고있는 옛친구에 대한 치례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소식은 자주 듣네만 한번도 찾아가지 못해서 안됐네.》

《피차 그렇지 무얼…》

재인은 자꾸 저녁을 함께 하러 가자고 했다. 기준은 가고싶었으나 그날은 8시까지 시간을 낼수 없었다.

《모레쯤 한번 만나세.》

기준이 말했다.

《어디서? 집에 있겠나?》

잠시 생각하던 기준은 자기가 전화를 걸겠노라 했다.

이튿날 오후도 기준은 토건사무소로 나갔다. 사무소는 한가할 때는 급사밖에 없다가도 어떤 때는 숱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판을 놓으며 따지기도 하고 전화질도 해댔다.

이날은 사람이 많아서 기준은 자기 책상으로 정해준 한쪽구석으로

가앉아 들고 온 신문을 뒤져보고있었다. 기사를 몇줄 읽었을 때였다.

현관쪽에서 《당신 리기준이지?》 하는 소리가 나서 그쪽을 바라보니 어떤 낯선 친구가 검정테안경을 낀 사람을 잡고있었다.

《아니야, 아니가 뭐야?》 하면서 그를 놓지 않았고 다른 패(그중 한자는 기준이 알고있는 형사였다.)들은 안으로 들어왔다.

(아차! 잘못됐고나…) 하고 생각한 다음순간 기준은 재빨리 안경을 벗어넣고 일어나서 큰소리로 《돈받을 사람은 내 방으로들 들어오십쇼!》 하고 들으란듯이 말하고는 옆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것은 방이 아니라 변소로 들어가는 복도였다.

변소로 들어간 기준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너길 되는 아래로 떨어진 골목길이 보였다. 사람도 없었다.

더 다른것을 생각할나위도 없이 기준은 아래로 뛰여내렸다.

철썩— 떨어진 기준은 어디인지 몹시 아팠으나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꿈에서 달음질치는것처럼 도무지 걸리지가 않았으나 그래도 어떻게 해서 다음 골목으로 돌아섰다.

그제야 기준은 자기 발이 한발자국도 더 내디딜수 없이 아픈것을 알았으나 걷지 않을수 없었다. 발목이야 어찌되건 이리저리 골목을 휘돌아 파고다공원 맞은쪽으로 나왔다.

급히 전차를 잡아타고 사무실로 돌아온 기준은 부원들에게 말하여 그날 토건사무소로 오기로 된 사람들을 그 어귀에서 미리막게 했다. 다행히 다른 피해는 없었다.

접질린 뼈를 잡아당겨 맞추고 이틀동안 찜질을 하고서야 다시 걸을수 있었다. 테없는 안경을 장만해 끼고 머리를 갈라 넘긴것만으로도 우선 인상이 달라졌다. 수염도 길렀으면 좋았으나 그는 수염이 그리 많지 못했다. 그래 차차 기르기로 했다.

기준은 며칠동안 변승룡의 집에서 류숙했다. 모자랑 와이샤쯔까지 얻어쓰면서 너무 여러날 신세를 지는것 같았으나 그런것까지 일일이 어렵게 여길수가 없는 형편이였으므로 그는 그날도 변승룡의 집으로 들

어갔다. 변승룡의 집에는 그의 누이동생과 식모만 있었다.

기준이 들어가자 누이동생이 저녁상을 차리려 했으나 변승룡이 올때까지 기다리겠노라 하고 그는 상한 발을 괴여놓고 변승룡의 보료우에 누웠다. 몸은 피로했으나 정신은 맑았다.

책을 읽을가 하고 그는 누운채 책장을 쭉 훑어보았다. 세개의 큰 유리책장안에 값진 서적들이 가득했고 자주 꺼내보는 책들은 따로 유리가 없는 책장에 꽂아놓고있었다.

세계문화사, 일본자본주의발달사, 고려사, 문학리론서적들, 문화예술에 관한 참고서들이 저자들의 사관의 구별없이 되는대로 섞여서 꽂혀있었다. 그가운데서 투박하게 장정을 한 레닌의 《철학노트》가 어쩐지 자꾸 눈에 띄였다.

기준은 변승룡이 전부터 가끔 그 서적을 들쳐보는것을 보았다. 그러나 기준은 변승룡이 그 서적속에서 무엇을 배우고있는지 알수 없었다. 그가 술에 취하여 울던 날 밤으로부터 8～9개월이 흘렀다. 그것은 극히 짧은 세월이였으나 그동안에 조선인민은 8～9년 또는 그 이상에 맞먹을 정도의 경험을 겪어왔다고 말할수 있으며 싸우는 인간들로 변했다. 그러나 변승룡은 변하지 않았었다.

레닌은 항상 실천과 유리된 학문을 배격하면서 리론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선생인 그는 최근 량심적인 교육가들이 한결같이 반대하고나서는 《국대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않으려 했다.

미제가 조작한 조선사람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그 교육제도를 만약 《철학노트》에서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반대해나서야 했을것이였다. 하지만 변승룡은 《대학의 운명은 다됐네.》, 《대학선생노릇도 그만두게 되였네.》라는 식으로만 대답했다.

레닌은 바로 그 서적에서 통일체의 분렬과 그 모순된 부분들의 인식은 변증법의 진수라고 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차례씩 변증법이란 말을 사용하고있는 변승룡은 남조선을 겨우 침략당하기만 하는 땅으로

보고있으며 한 계급의 폭압만을 보고 그 모순을 인식하지 않았다.

입으로는 자주 계급을 이야기했지만 실지에 있어서 그에게는 계급투쟁이란 없었다. 기준은 변승룡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장인 신목사를 욕했으나 변승룡은 그저 듣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한번은 반발을 했다.

《그야 나도 잘 알고있네. 신용길이야 부르죠아지이고 개인주의자이지. 그걸 누가 모르나? 허지만 나는 그가 어쨌든 조선사람의 편이지 미군편은 아니라고 보네. 통일전선의 립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네.》

《통일전선이라구?》

기준이 반박했다.

《대체 통일전선이라는게 무언줄 아나? 미국놈과 함께 광석을 도굴하는 민족반역자, 전 국민총력의 간부가 바루 신용길일세. 그런자들을 걷어들이는게 통일전선인줄 아나?》

《지금 량심적으로 나오면 되잖나?》

《그자가 지금 무얼 하나?》

《조선사람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것만은 사실 아닌가?》

《조선사람의 교육! 승룡이, 자네가 그렇게 말할줄은 몰랐네. 그자는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업을 하고있는걸세. 광산관리권을 얻고 학교운영권을 얻고 해서 벌써 숱한 재산을 장만했다네. 그자는 <국대안>의 발기자의 하나일세. 조선의 옳바른 교육을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는자일세.》

변승룡은 그 이상 대꾸하지 않고 말머리를 돌렸다.

기준은 좀더 그를 반박하고싶었으나 문득 학병동맹회관앞에서 청년들이 경찰들과 미군에게 대항하는것을 보고 덤벼들면 손해라고 웨치던 일을 생각했다. 더 반박을 한들 무슨 소용이랴싶었다. …

변승룡은 좀 얼근해서 돌아왔다. 그는 시인 송재로와 한잔 했노라 하면서 그날호 《문예주보》라는 신문에 실린 그의 시를 내보였다.

제목은 《삶보다 강한 죽음이여》였다.

거리의 구두닦이소년을 주제로 한 시였는데 두어번 거퍼 읽은 기준은 거기서 불만과 모욕감밖에는 느끼지 못했다. 동시에 그의 머리에는 바로 이 방에서 송년시를 읊는다고 하면서 눈을 감고 고개짓을 하던 꼬락서니가 떠올랐다. 변승룡은 그 시가 마음에 드노라 했다.

《반동문학단체에 들진 않았나?》

기준이 물었다.

《이 사람이? 일류평론가 김화도 칭찬하는 시인이 아닌가. …》

《그런가?》 했으나 기준은 숱한 사람들이 침략자와 싸우다 죽어가는 이 현실에서 리유없이 죽음을 례찬한 그 시가 후하게 평가해야 허무주의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동생이 상을 들고 들어오자 변승룡은 《술있지? 가져오너라.》라고 말했다.

기준은 그날따라 어쩐지 술에 취하기가 싫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갔던 그의 누이동생이 손님이 왔다는걸 알렸다.

《누구야?》 하면서 밖으로 나간 변승룡은 《오, 오래간만일세!》 하고 반가와했다.

《그래 대학교수생활이 어떤가?》 하면서 변승룡을 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김재인이였다.

기준은 일시에 신경이 예민해졌다.

《어, 기준! 마침 와있군.》 하면서 재인이 악수를 청했다.

기준은 벌떡 일어나 책상우에 걸터앉으면서 말했다.

《악수를 하기 전에 물어볼게 있네. 대문밖에 누가 와있나?》

《누가 와있다니?》

재인은 의아해서 되물었다.

《자네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려 다니지, 그렇지?》

《그러이. 허지만 대문밖에 와있다는게 무슨 소리인가?》

재인은 난처한 표정이였다. 변승룡은 두사람을 번갈아 볼뿐이였다.

《그럼 어째 여기까지 왔는지 참고로 알려주게, 말해보게!》

《조석우와 구락부 회원이란 사람을 만났네. 조석우 동광방직 관리인이 되잖았나? 또 파업이 일어날것 같다고 하데. 그러고 섬유산별에 있는 자네를 꼭 만나서 해결해야 하겠다고 애타하데. 그래 내가 자네 있는데를 알아봐주겠다고 그랬을뿐일세.》

《그 구락부 회원이란자 사복했던가?》

《음, 사복…》

《그자 허리에 찬것이 없던가? 꽁무니가 불룩하지 않던가 말일세.》

그제서야 재인은 덤덤히 무엇을 생각했다. 기준은 말을 이었다.

《나는 자네를 밀정으로 인정하지는 않겠네만 자네는 두번째로 나를 밀고하려고 하고있네.》

《이게 무슨짓이야?》

변승룡이 버럭 화를 냈다.

《그래 우리 집에 있다고 말하려는가, 응?》

덤덤히 앉아있던 김재인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조석우란 놈의 뒤가 켜켜하다구는 생각했지만 일이 이렇게 되는줄은 정말 몰랐네. 내가 천치일세. 내가 친구를 배반했네. 용서해주게. 기준! 자네도 알다싶이 나도 맑스주의를 조금은 아네. 어찌 자네를 또다시 배반할수 있겠나? 그리고 념려들 말게. 나 혼자 자동차를 타고 왔으니까 뒤따르는 놈이 없는것만 확실하이.》

《나는 자네들이 맑스주의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네. 그런 서적을 더러 읽었다고 해서 맑스주의를 안다고 생각하면 큰코 다치네.》

기준은 일어서면서 말했다.

《그리고 자네가 차를 운전해오지는 않았을것이니까 나는 자리를 떠야 옳은걸세.》

밖으로 나오자 기준은 무테안경으로 바꾸어 끼고 늙은이걸음새모양으로 걸어 전차길로 나왔다. 전차를 타고 황금정으로 와 사무실로 올라갔다.

그는 의자들을 한줄로 늘어놓고 상의를 벗어덮고 누웠다. 뒤뚱거리는 의자우였으나 변승룡의 집 보료보다 편한것 같았다. 그러나 가슴속은 쓰렸다. 기준은 그래도 변승룡이나 김재인이 친구겠거니 생각해왔었기때문이였다.

기준이 변승룡의 집에서 나와버리던 날 낮에 동광방직 분회간부들이 석방되였다. 기준은 그들을 만나려 했으나 시간과 장소가 다 맞지 않았었다. 위로하는 말 한마디 전할수 없게 되여 유감스레 생각던차에 며칠이 지난 어느날 정형규가 기준에게 들렸다. 기준이 새로 정한 련락처에 잠간 다녀오니 형규가 자기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있었다.

얼굴이 허옇게 흰데다 수염까지 깎아서 형규의 인상은 좀 달라졌으나 그는 역시 전처럼 주걱턱을 내밀고 기준에게로 달려와 그 넓고 두꺼운 두손으로 기준의 손을 덥석 잡았다.

기준은 그를 껴안다싶이 했다.

형규는 끌려가던 일로부터 류치장에서 형사들과 싸우던 이야기, 석방된 뒤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했다.

《그래 모두들 건강하지요?》

《책임자였으니까 최영수동무가 매를 더 맞았습니다. 뭐, 일없겠지만 아직도 누워있을겁니다.》

《그후 아버님을 한번 뵀는데 댁에도 별일없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선생, 저는 래일부터 철도산별 산업건설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전평 간부들을 만났댔습니다.》

《철도산별! 잘됐습니다.》

기준이 기뻐했다. 형규는 전처럼 얼굴에다 무뚝뚝한 표정을 띠우더니 《잘됐다면 잘됐고요. 허지만 동방에 있는 동무들 생각을 안할수 없군요.》 하고 섭섭한 기색을 보였다.

기준은 잠시 묵묵히 앉아서 달포전의 일들을 회상했다.

미군트럭앞에 엎치기덮치기로 누워버리던 녀성로동자들의 모습들, 미군을 타매하던 고정자, 서분옥의 쟁쟁한 음성들, 미군운전사를 향해서 조그마한 주먹들을 내대던 소녀공들, 이따금씩 웨치는 형규의 굵은 목소리, 울밖에서 날아들어오는 과일이랑 담배… 이 모든게 마치 이제는 자기네 생활과 그닥 련계가 없는 오래전의 일들과도 같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사물들의 영상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계속 전개되고있는 현실이였다. 아니, 현실은 그보다도 더 치렬하고 복잡했다.

기준은 형규에게 안철의 소식을 들었느냐고 물었다.

《어떻게 됐나요?》

《나도 바루 어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회파>로 넘어갔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형규는 놀란 어조였다.

《그렇게 됐답니다.》

두사람은 잠시 묵묵했다. 그리고 똑같이 쟁의단의 복귀를 둘러싸고 싸우던 일을 생각했다.

《처음부터 애매한 태도를 취하던 사람입니다.》

형규가 말했다.

기준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혼자말처럼 두덜댔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 말을 형규가 받았다.

《그렇지요. 그는 끝까지 옳은 립장에 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의 사업을 반대하는자로 전락하고만것입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기준이 또 두덜대듯 말했다. 형규는 태연하다느니보다 반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입술을 머뭇거리다가 《이제는 우리의 적입니다.》라고 명백히 말했다.

《적! 그렇군요.》

두사람은 헤여지기가 싫었다. 기준은 그와 밤깊도록 이야기를 하고싶

어서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았으나 들어가 앉을 집이 없었다.

담배를 대여섯대씩이나 나누어 피우다가 형규는 일어설수밖에 없었다.

《정말 섭섭한데…》 하고 기준이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 이야기가 수태 많을것 같은데 지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일하게 됐지만 이제는 전보다도 먼데 있게 되는셈입니다.》

기준은 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자주 소식 들을수 있으면 됐지요. 잘 싸우시오. 형규동무!》

《조심하십시오. 리선생!》

《선생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동지입니다. 형규동무와 똑같은 동지입니다. 동무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말로 서루 부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서글픈것인지 생각해보셨지요?》

기준은 뒤뚱거리면서 층계를 따라 내려갔다.

《내려오지 마십시오. 올라가세요.》

《그럼 한번 더 손을 잡읍시다.》

두사람은 또 손을 잡았다. 그리고 두사람 다 명랑한 얼굴로 싱그레 웃었다. 형규의 얼굴은 전에없이 아름다와보였다.

사람이 아름다와보이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이랴! 이렇게 기준이 생각하는 동안 형규는 뚜벅뚜벅 힘찬 발걸음으로 층계를 걸어내려갔다.

7

섬유산별 간부들은 종연방직과 동광방직 두군데다 선전공작을 집중적으로 들이대기를 주장했다. 그것은 그 공장들에 반동이 단단히 둥지를 틀고있기때문만은 아니였다. 사정은 어느 공장이나 매일반이였다.

특히 그 공장들은 로동자수가 많았으므로 린접한 여러개의 중소공장들에 주는 영향이 그만큼 강했기때문이였다.

그러므로 리기준은 전보다도 자주 로량진, 영등포지구로 나가야 했고 자주 나다니려면 좀더 자기 모습을 위장할 필요가 있었다. 토건사무소사건이후 덥수룩하게 길러오던 수염이 어지간히 자라서 이제는 그닥 어색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코밑수염만 남기고 말끔히 면도를 했다. 그리고 무테안경대신 이번에는 불그스레한 테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배우갈군요.》

같은 부서동무가 말했다.

《유표하단 말씀입니까?》

《아니, 잘됐단 말입니다. 일없습니다.》

그러한 위장으로 나다니게 된지 며칠후였다.

기준은 황금정에 있는 전기상사회사라는 간판이 붙은 벽돌건물앞을 지나다가 저쪽에서 안철이가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양을 보았다. 전보다 훤하게 차린 그는 태연하게 그 건물로 들어가려 했다. 그는 기준을 몰라본것이였다.

그 벽돌건물안에 《대회파》가 모여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기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가 소매를 잡았다. 안철은 그가 리기준인줄 알자 반가와하면서도 한편 어딘지 매우 당황해하는 빛을 보였다.

《바쁘시겠는데… 한 10분쯤 시간 내실수 없을가요?》

《네, 이야기 좀 합시다.》

안철이 이렇게 대답하자 기준은 그를 데리고 가까운 중국음식점으로 들어갔다. 식사때가 지나서 그런지 음식점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기준은 구석방을 잡고 간단한 음식을 시킨 다음 그와 마주앉았다.

《몰라보게 차리셨는데… 됐습니다.》

이러한 안철의 말은 들은체만체 기준은 털어놓고 물었다.

《대회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만나신다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은 좀 당황했다.

《그렇잖아도 기준동무를 한번 만나려던차입니다. 나는 기준동무도 대회소집을 주장했으면 합니다.》

《불평을 가지셨던건… 그건 좋습니다. 허지만 불평을 그렇게 푸시렵니까?》

《불평을 푸는게 아닙니다.》

《그럼 대회가 소집됩니까?》

《소집할 방도가 있지요.》

《어떤 방도인가요?》

《그렇잖고는 합당할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시오. 지금 박헌영일파는 자기 패거리들만 가지고 간부진을 꾸미려고 합니다. 아니, 그보다도 합당할 의사가 없습니다. 기준동무는 그들이 세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기가 났는지 모르고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기준은 잠시 묵묵했다.

사실 그는 미제의 고용간첩인 박헌영일당이 공산당과 신민당, 인민당이 합당할데 대한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로선을 당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으며 수차에 걸친 당중앙의 지적을 받고도 그것을 의식적으로 태공하고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있었다. 그리고 당생활의 경험이 적은 그는 《패거리》, 《그룹》 또는 《쎅트》가 어떻게 숨어서 움직이고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철의 태도가 옳다고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

었다.

안철은 타이르다싶이 말을 계속했다.

《생각해보십시오. 동광방직파업을 저렇게 만들어논게 누굽니까? 그들이 세력잡기에만 눈이 뒤집히다보니 그렇게 된것이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기준은 피우던 담배를 눌러 끄고 웨치다싶이 했다.

《당신도 복귀성명서발표를 지지한 한사람이 아닙니까?》

《문제는 바루 거기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지지하게 하고 그러고 나를 내쫓지 않았습니까?》

기준은 더욱 불쾌했다.

《내 기억에는 당신이 내쫓긴게 아니라 제풀에 나갔던겁니다. 당신은 개인감정을 가지고 큰일을 판단했습니다. 동광방직파업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은 누구보다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책임자의 한사람인 당신이 복귀하는데 동의했던것입니다. 그걸 똑똑히 아십시오!》

안철은 이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유상렬과 그 키작은 동무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룹이 있는지도 모른다. 군정청과 타협을 한것도 사실이다.)

기준이 이렇게 생각할 때 안철이 거듭 주장했다.

《그냥은 안됩니다. 반드시 대회에서 공정하게 민주주의적으로 간부를 선출해야 합니다.》

《어디서 대회를 합니까?》

《비밀히 하지요.》

《미군하고 비밀히요?》

기준은 통탄하는 어조로 말했다.

《당신네들은 벌써 비밀을 적앞에 다 폭로하잖았습니까? 그러고 또 무슨 비밀입니까, 네? 당신네들은 소위 간부성명을, 그 반동성명을 테로단이 발간하는 <대동신문>에 싣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기준은 두주먹을 불끈 쥐였다가 자기 무릎을 치고말았다. 안철은 반

대로 매우 침착했다.

《그건 박헌영일파에 대한 공격이지요.》

《아닙니다. 근로인민에 대한 공격입니다. 당내의 문제를 이것 보라는듯이 당밖에다, 적앞에다 폭로했습니다.》

《우리는 인민의 편이요.》

안철은 무뚝뚝하게 단언했다.

《미국편에 서려 합니다. 당신들은 결국 미제가 조작한 소위 좌우합작을 지지하는 립장에 서게 되잖았습니까? 대답해보시오.》

기준은 더 참을수 없었다.

《흥분하지 말고 실정을 잘 판단하기에 노력하십쇼. 기준동무!》

《동무라구요? 당신과 나는 벌써 동무가 아닙니다. 적입니다, 적!》

하고 기준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먹지도 않은 음식값을 치르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다.

리기준은 그길로 사무실로 돌아왔다. 처리해야 할 일이 적지 않았으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차라리 모르는체 하지 무얼 하러 그를 붙잡았담… 혼자 성을 내기만 했지 변절자의 가슴을 아프게 찌른게 무어람… 불쾌하기만 하잖나.)

그는 계속해서 생각했다.

(아직도 나는 어리구나. 옳게 싸우기 위해서 더 많이 배워야 하겠구나. 더 많이 경험하고…)

모처럼 정신을 집중시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기준은 다시금 복잡한 생각에 잠기게 되였다.

그는 비로소 《대회파》와 아울러 박헌영일당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였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옳은 판단을 갖기에는 자기의 사유와 경험과 당성이 너무 어리다는것을 거듭 깨달았다.

그러한 어느날 전평 서기부에서 리기준을 불렀다. 그는 그날 밤차로 부산으로 가야 했으며 부산에서 3주일간 체류하면서 맡겨진 과업을 수행해야 했다.

그 과업이라는것은 약 3천명의 부두로동자들의 분회위원회를 재조직하는 사업을 방조하는 일이였다. 십여일전에 있었던 대량검거로 말미암아 지방평의회에는 불과 5~6명밖에 일군이 남지 않았을뿐아니라 남은 사람들은 거의 《대회파》의 립장에 서있을거라고 했다.

평의회가 피해를 받은 날 동시에 부두분회의 위원들도 거의다 검거되였다는것이였다.

그러므로 기준은 먼저 내려간 운수산별 산업건설부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부두분회 위원회를 재조직해놓고 와야 했다.

기준은 그 과업을 수행할 자신이 없었다. 자기에게 특출한 조직적수완이 있는것도 아니였으며 부두로동판이 생소할뿐만아니라 경상도사투리도 서툴러서 대번에 표가 날것이기때문이였다. 또 자기의 얼굴모습도 유표했다. 그런 일이 한두번 아니였지만 그는 거울을 앞에 놓고 아무리 뜯어보아도 로동자답지 않았다. 더우기 해풍에 꺼슬린 억센 부두로동자처럼 보이려면 어방도 없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온통 검댕이칠을 한다? 잘 안 보이더라도 안경을 벗고 지낸다? 그러면 될가?)

어려운 환경속일수록 배우는게 많을것이라고 했으며 급한 지시라는 바람에 떠나기로 했다.

《안철이가 못되게 나올는지도 모를 일이야.》

봉례와 함께 정거장으로 나가면서 기준이 말했다.

《그보다 더 못되게 나오면 어떻게 된단 말씀인가요?》

《부산은 한 <대회파>분자의 루설로 저렇게 파괴되였다는군.》

《어쩌문…》

봉례는 가슴이 써늘해지는 모양이였다.

《그게 바루 우리의 원쑤로군요. 주의하세요, 네?》

《원쑤는 우리 조직밖에만 있지 않다는걸 명심해야 할거야.》

기준보다도 더 경험이 적은 봉례는 근심스러운 표정이였다.

8

조선의 남쪽관문인 부산부두는 언제나 복잡하고 소란했으나 리기준이 거기 도착한 전후는 더욱 그러했다.

거리나 부두에서 자욱히 떠오르는 먼지와 함께 기관차, 기선의 화통들에서 풍기는 먹물같은 연기는 맑은 하늘을 뒤덮고있었다. 화물선, 상선, 운반선들과 조그마한 증기선들, 몰골사나운 수상경찰의 배들로 말미암아 쉴 사이없이 출렁거리는 항구바다는 과일껍질, 검부레기, 껌쌌던 종이쪽들, 짚신짝, 미국제통졸임통 같은것들을 둥둥 띄운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배전에 부딪치기도 하고 부두대돌에다 거품을 토하기도 했다.

전에는 일본경찰들과 헌병들이 창고와 철도인입선, 부두가와 선박들우에서 표독한 눈초리로 로동자들을 노려보고있었으나 지금은 미제의 고용경찰들, 부두수위들 그리고 철갑모를 쓰고 권총을 찬 엠피들과 흰 혁띠의 미해병들이 모든 출입문들과 선박들우에 서서 헐벗고 굶주린 로동자들의 일거일동을 살피고있었다.

항구안과 바깥바다에는 희고검은 미국기선들이 틀림없는 해적선들처럼 정박해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낡고 작은 갖가지 종류의 선박들이 드나들고있었다.

창고들이 어깨를 비비대고 늘어선 정거장과 부두어간은 한층 복잡했다. 정거장에서와 인입선에서 날카롭고 혹은 둔한 기적소리가 쉴 사이없이 들렸고 마차들이 돌바닥우를 드르릉거리며 십여대씩 련달아 지나가는가 하면 미국트럭들이 길이 막혀서 서로 뽕빵 붕빵 하다가는 《비켜라, 이 싸나가비치(원숭이같은 자식아)!》, 《까뗌(개새끼)! 뒤로 물러갔다 나오너라!》 하고 서로 울부짖었다. 그러한 사이를 비집고 몰려드는 장사치들은 또한 저마다 떠들어댔다.

《막걸리도 있고, 전복회 잡수이소.》

이러한 아낙네의 음성을 막고 날카로운 목청의 소년이 《다이야찡, 다이야찡, 미국 다이야찡…》 하며 지나가는가 하면 그옆에서 다른 소년이 《무궁화 진짜 사시소, 미국담배 사시소.》 하고 목청을 높이는 것이였다. …

제아무리 단단히 동여매여 포장을 하고 아무리 쇠줄을 두르고 못을 박아놓아도 또 아무리 힘든 암호로 써붙여도 로동자들은 그것이 무슨 물건인지 즉시 알아냈다.

그들은 그렇게 실어들이고 실어내는 그 물건들이 조선사람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한게 아니라 반대로 남조선인민의 살림을 점점 궁지에 빠뜨리는것임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니 그 물건들이 소중할 까닭이 없었다. 돌바닥이고 진창이고간에 꽝꽝, 철썩철썩 함부로 내리뜨렸으며 그도 부족해서 몇번씩 발길로 차기도 했다.

그들은 물건만 잘 알아보는게 아니라 사람도 잘 분간했다. 로동복을 입었어도 미국인의 개노릇을 하는자는 곁에 붙이지 않았다. 신사복을 입은자와 마주서서도 그 꽁무니에 권총이 달린것을 알아냈다. 기준에게 선을 대준 동무가 경험했던 일을 그에게 이야기해주었다.

그가 처음 부두에 나타났던 날 어느 로동자가 그에게 물었다 한다.

《당신 무어하던 량반잉기요?》

《난 량반 아니요.》

《로동해본거 같잖다.》

그는 얼굴이 빨개졌으나 그러구만 있을수도 없어서 《당신은 배속에서부터 로동하는걸 배웠단 말요? 굶어죽을수 없어서 이렇게 떠다닌다오.》라고 대꾸했다.

《책상물림 영낙없다니까.》

옆에서 편포를 씹던 털보가 말하자 처음에 묻던 로동자가 《당신 그 손 좀 보이소. 녀자손 같단 말이다.》 하고 말하더라는것이였다.

기준은 그들앞에서 서투르게 행동하지 않기 위하여 부두사정과 로동자들의 동향을 주의깊게 연구했다.

며칠후부터 기준은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키가 9척이나 될상싶은 제1부두의 책임자와 가까와졌다. 부두로동자 번호표를 얻어가지고 무시로 드나들면서 기준은 《대장》을 통하여 다시 제주도출신 해양로동자와 별명인지 본명인지 길주, 길주 하고 부르는 청년을 비롯한 몇몇 로동자를 알게 되였고 그들과 저녁마다 만나게 되였다.

그런데 하루는 길주라는 로동자가 《동무는 참말 그 미국샤쯔패와 다릉기요?》 하고 물으며 기준을 마주보았다.

《대장》이 눈을 부릅뜨고 나무라자 그는 《아니문사 좋다능기라.》 하고 시치미를 뗐다.

길주가 그렇게 묻는것이 무리는 아니였다. 지방평의회 간부들과 부두분회 위원들이 일제히 검거를 당한 후 부두에는 괴상한것들이 함부로 사람을 나꿔갔다.

그것은 경찰들이나 형사들만이 아니였다. 미국샤쯔를 입은 뚝한 친구가 전평에서 나온척 하고 숨어다니면서 로동자들을 빼내가고있었다. 한두번 그의 술을 얻어먹은 로동자들은 이내 그가 《대회파》에서 파견되여온것을 알아냈다. 그래 모두들 경각성이 높아졌다.

평의회에 남은 몇사람들로 말하면 남들이 일을 도우러 왔건말건 자기네들끼리 쓸데없는 옥신각신을 되풀이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진지한 리론투쟁을 하는것도 아니며 사업상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전개하는것도 아니였다.

통일전선의 립장이냐 아니냐, 당내에 분렬이 있을수 있는가, 헤게모니란 무엇인가, 조합주의냐 아니냐… 등 이러한 문제들 즉 구름처럼 밑도 끝도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공연히 피대를 돋구었다.

위원장이 체포된 조건하에서 중책을 걸머지고있는 평의회 부위원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으로만 싸우느라고 기준이 도착한 사흘후부터는 목이 잠기고말았던것이다. 결국 그들은 로동운동에 성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해서 상대보다 자기가 낫다는것을 시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을 기준은 알게 되였다. 그들속에서 어느 한파의 사촉을 받고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기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였으며 구태여 가려낼 필요조차 없지나 않은가 하고 생각했다.

평의회를 수습할 과업을 맡고 온 운수산별의 부장도 난감한 모양이였다.

기준은 처음 길주나 제주도출신 또는 편포를 씹던 그 털보와 섞여 가벼운 짐나르기 같은 일을 하기도 했으나 며칠후부터는 주로 장사치로 가장하고 나다니기 시작했다. 길주도 그렇게 하는게 좋다고 했다.

장사치들속에 끼여있다가도 기준은 가끔 헙수룩하게 차린채 부두대돌에 걸터앉아 마라초를 피우군 했다.

그럴 때면 훈훈한 해풍이 물비린내를 싣고 자꾸만 그의 얼굴을 스쳐갔다. 눈이 부셨다.

익숙한 스케트선수를 련상케 하는 갈매기들이 긴 날개를 휘저으며 배전을 스쳐가다가는 그의 머리우로 날아올랐다. 날아올랐다가는 다시 얇은 바다로 내려와 파도를 핥군 했다.

저 갈매기들은 아무것도 모를것이다. 마치도 이 항구안이 평화로운듯이 가로세로 날으고만 있으니 너희들이 무엇을 알랴… 그러나 갈매기여, 너희들은 이 항구가 일제의 조선과 대륙침략의 《대문》으로 되였던것을 슬피 여겨 40여년동안 줄곧 울분에 출렁이던 일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 이 항구는 자기가 다시금 미제침략의 《현관》으로 씌여지는 분노에 사로잡혀있다는것도 알라!

평화를 사랑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순박한 사람들, 나라를 세우겠다는 가장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함부로 치고, 때리고, 쏘아대는 살기등등한 저놈들의 상판들을 보아라, 오― 끽끽 우짖는구나, 너희들의 그 우짖는 소리는 좋다. 그 소리는 슬픈 일을 이겨넘기라, 음흉한 놈들과 끝까지 싸우라 하는것 같구나, 그럴진대 자꾸

그렇게들 우짖어라, 갈매기여! 우리가 이기는 날까지 모두 이 항구안으로 몰려와 날으며 우짖고 우짖으며 길길이 날아라! …

이같이 생각하고있던 어느날 《대장》이 슬그머니 그의 옆으로 와 앉았다.

《이대로는 도제 로동을 해먹을 재간이 없십니더. 아까도 몇사람이 기중기옆에서 쉬고있을락 하니까 무슨 공론했느냐고 거반 죽도록 구타하고 그러고 끌고 가잖았십니꺼…》

《나도 봤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오늘도 한 로동자가 미군총에 맞아 쓰러졌십니더.》

《언제요?》

《한시간전에 4부두에 정박한 화물선우에서 말입니더. 20여년 부산항구에서 로동을 하던 나먹은 로동자라나요. 선실안을 들여다보았다고해서 줄 셋이 달린 미군장교가 달려나와 넙적다리에다 쏘았십니더.》

기준은 묵묵히 담배만 빨았다. 아닌게아니라 며칠사이로 부두수위가 20여명이나 늘었고 씨아이디(미군수사대) 사복요원이 근처를 개싸다니듯 하고있었다.

《저것 보이소. 수상경찰배는 와 저리 싸다닌다능기요?》

《싸다니다 말라지요.》

《파업을 일으키문 아니 좋십니꺼?》

《그런 조직적력량이 있나요?》

《일으킬락 하면 일으키지요.》

《력량이 있어도 지금은 안됩니다. 우리의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그같이 삼엄한 분위기속에 며칠을 더 지났다. 로동자들은 학대가 심해갈수록 로동조합이 얼마나 소중한 조직인가를 통절히 느끼고있었다.

기준이 부산에 온지 꼭 열흘이 되는 날이였다. 그는 운반선 사공처럼 하고 《대장》을 따라 기계사고때문에 항구밖 바다에 정박한 《시카고》라는 화물선옆으로 나가보았다.

《시카고》갑판우에는 카빈총을 멘 미군들과 권총을 엉덩이와 겨드랑에 두개씩 찬 씨아이디 요원들이 서성거렸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미국인들과 간상배들이 몰려다니며 쑤알거렸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풀어진 짐짝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훔치느라고 눈이 뒤집힌 미국선원들, 미군들, 통역들이 기관실로, 선창으로, 마스트뒤로 몰려다니고있었다.

《무슨 물건들인가?》

기준이 《대장》에게 물었다.

《유리혁띠, 비누, 화장품 그리고 과자, 사탕, 통졸임…》

이러한 말을 듣고보니 어느 틈에 그렇게 떴는지 물우에 짜갠 통졸임통이 수백개나 떠있었다.

이윽고 사복에다 꺼먼 색안경을 낀 독갈이 뚱뚱한자가 나타나더니 물우를 보고 까마귀처럼 짖어댔다. 그러다가 미군상관 하나를 데리고 왔다. 로동자들은 덤덤히 짐들만 나르고있었다.

사실 50키로그람씩이나 되는 짐짝을 지고 좁은 널판자를 타고 운반선까지 내려오기란 곡예놀음 못지 않았다. 다른데다 정신을 팔 여유가 없었다.

독갈이 뚱뚱한 사복쟁이와 미군상관이 한창 성이 나서 애매한 로동자들만 노려보고있을 때였다.

기준이 탄 옆 운반선의 로동자 한사람이 짐을 지고 널판자를 딛다가 미끄러졌다. 아차하는 순간 짐궤짝은 풍덩 바다로 빠졌고 로동자는 겨우 두팔로 널판자를 잡고 늘어졌다.

《저것 봐!》

기준이 웨쳤다.

《잡아주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것을 본 미국인이 까마귀처럼 떠들어대자 미군상관은 권

총을 뽑아들어 방아쇠를 당겼다. 요란한 총성과 함께 널판자에 매달렸던 로동자는 한번 불끈 몸을 솟구치더니 첨벙 물속으로 떨어져버렸다. 출렁거리는 물우에 거품과 피가 떠올랐다.

《대장》이 웃통을 벗어버리고 물속으로 뛰여들었다. 뒤이어 두어사람이 그뒤를 따랐다.

이윽고 《대장》은 총에 맞은 로동자의 다리를 움켜잡고 물우로 떠올랐다.

총에 맞은 청년을 배우로 건져올렸으나 그의 가슴팍에서 멎지 않은 피가 흘러 미국상품궤짝을 적셨다. 로동자들은 아무도 입을 벌리지 않았다. 얼마후에야 누구인지 두덜댔다.

《살인강도놈들!》

총에 맞은 청년은 울산에서 미제의 착취기관인 《신한공사》패와 격투를 한 다음 경찰에게 쫓기여 석달전부터 부두로 나왔다는것이였다. 그는 부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었다.

그날 밤 1부두 로동자들로서 갈만 한 사람은 다 울산청년의 장지로 갔으나 미국샤쯔를 따라간 일곱명만은 나오지 않았다. 원래 다섯명이였는데 어제오늘로 두사람을 더 나꿔챘던것이다.

제주도출신은 아까 운반선이 돌아왔을 때 미국샤쯔가 몇몇 로동자들을 모아놓고 무엇인지 지껄이며 선술집으로 가더라는 말을 했다.

《그게 반동과 다릉게 무엇인교?》

길주가 웨쳤다.

어둠속에서 《북쪽을 향해 눕히이소. 그 동문 누구보다도 북조선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북조선을 믿고 동경했더라오.》 하는 《대장》의 탁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대장》과 제주도출신, 길주를 비롯한 일곱명으로 1부두분회가 조직되였다.

그리고 2, 3, 4부두분회는 운수산별의 발안으로 1부두분회 위원들의 방조를 받아 각각 수일안으로 조직할것을 결정했다.

9

그 이튿날 오후였다. 리기준은 극도로 치솟은 로동자들의 분노를 어떻게 조직해야 할는지 생각하면서 역시 전날과 같은 복장을 하고 부두로 나갔다.

1부두근처로 갔을 때 그는 문득 항구 한가운데로 한척의 하얀 모터뽀트가 칼날같은 파도를 일으키면서 면바로 다가오는것을 보았다. 잠시 그것을 바라보던 기준은 그 뽀트에 올라앉은 미국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싶었고 다음순간 그중의 하나는 흉악한 인상의 모리스경무부장인것을 알았다.

(또 하나는 누굴가?) 하고 생각하다가 그는 속으로 웨쳤다.

(차코브슨이란 놈이구나.)

기준은 그가 동광방직에 왔다갔을 때 그 모습을 잘 보아두었던것이다.

차코브슨은 화물선을 가리키면서 옆에 탄 모리스에게 무어라고 지껄여대고있었다. 그제야 기준은 차코브슨이 어느 광산의 관리권도 가지고있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이 났고 바로 지금 내실고있는 귀금속이 그 광산에서 도굴해낸것임을 짐작했다. …

3부두에 멈춰서있는 7 600톤급의 리버티형화물선 《록키》는 쌘프랜씨스코에 있는 차코브슨주식회사의 상품을 만재하고 입항했었다. 거기서 양복천, 미국광목, 털샤쯔, 내의, 그외 사치품들을 닷새동안이나 실어냈다. 그리고 그저께부터 역시 차코브슨이 화물주로 되는 녕월 꽉두광산의 백중석을 내다 싣기 시작했다.

며칠전부터 부산으로 와있는 차코브슨은 의외로 할 일이 없었다. 웬만한 일은 미국상사협회에다 전화로 해도 되였고 군정청 상업부장 죤과의 련락도 장거리전화로 충분했다.

미국화물선들, 상선들은 무사히들 부산항에 도착하여 실어온 잉여물자, 소비품들을 부려놓고 그대신 남조선의 귀중한 광석들과 원료품들을 처싣고는 기적을 울리며 본국으로 돌아가군 했다.

차코브슨의 상품은 배에서 창고에 넣지도 않고 바로 도매상들의 손으로 넘어갔으며 도착한 백중석은 한가마니도 파손되지 않았었다.

그러니 차코브슨은 마시고 노는 일밖에 없었다. 그는 절영도의 그중 좋은 별장중의 한곳에서 류숙했는데 그는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방으로 바다바람이 새들어오는것 같았고 먼지투성이였다. 그리고 바람이 거세였는데 이러저러한 까닭으로 해서 그는 자기의 별장을 절영도에다 정하려던 본래의 계획을 철회하고말았다.

아침나절에는 장택성이가 그대로 와앉은듯 한 쁘레이버(그는 그 맹견을 데리고 왔었다.)와 바다가에서 뛰여다녔다. 저녁무렵부터는 《스타 홀》이라는 캬바레에 가서 춤을 추었다.

별장도 그러했고 캬바레도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그는 몇몇 녀급들만은 매우 흥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럴것이 각국 국적을 가졌거나 국적미상의 그 녀급들은 요꼬하마항구 지하홀이나 해방전 상해의 《대세계》 또는 싱가포르 같은데서 굴러먹으면서 미국항공첩보기관이나 미국해상첩보기관의 간첩노릇을 하던 매춘부들이였던것이다. 그러므로 영어로도 통했고 차림새들도 극도의 퇴페와 로골적인 색정을 촉발하는 미국식이였다.

그 녀급들을 골고루 향락하느라고 며칠을 허비하다가 차코브슨은 대구에서 다시 부산까지 출장나온 모리스를 맞이하게 되였다. 모리스는 부산의 치안을 조사하고 다음날로 돌아가려 했으나 차코브슨이 강권하는 바람에 하루를 더 묵었던것이다.

점심때까지 별장침대에 누워있던 모리스는 차코브슨과는 반대로 꼭 여기다가 별장을 하나 사두어야겠는데 신용길목사와 합자(사실은 모리스가 자금을 댄것이 아니라 권한만 제공했지만)해서 발굴하게 된 아연광산의 첫 리익분배가 얼마나 될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하

고있었다. 거의다 생각을 끝냈을 때 쁘레이버와 놀다가 들어온 차코브슨이 말했다.

《요트를 구하려고 했지만 부산에는 변변한 요트 한척 없답니다. 미스터 모리스!》

모리스는 그럴거라고 웅얼웅얼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대신 모터뽀트가 준비됐습니다. 마침 오늘은 우리 물건을 싣는 날이니 나가봅시다. 항구밖 바다는 역시 매혹적입니다.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릴겁니다. 미스터 모리스!》

모리스는 황송한 표정을 했다.

《모두 예수그리스도가 주시는 행복입니다. 미스터 차코브슨!》

이리하여 그들은 바다로 나왔다.

그들이 탄 모터뽀트는 두어번 《록키》의 옆을 돌았다. 그러다가 방파제쪽으로 향해 나갈 때였다.

돌연 어디서인지 무엇이 폭발하는 요란한 소리가 항구안에 울렸다. 갈매기들이 공중으로들 높이 날아올랐다.

그 순간 기준은 《록키》의 그 육중한 몸뚱이가 들먹거리는것을 발견했다. 그 다음순간 배우로 시커먼 연기가 길길이 치솟았다.

《폭발이다!》

《터졌다. 터졌어!》

《누구인지 해냈구나!》

이런 소리들이 들렸다. 한편 기준은 갑판우로 달려나와 날뛰는 미군들과 신사양복쟁이들의 당황한 꼴들을 보았다. 배우의 로동자들이 모두 부두로 달려내렸다. 미국인들과 미군들도 권총, 카빈총들을 겨누어들고 뛰여내렸다.

수상경찰들의 호각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경찰선들이 수면에다 흰줄을 그으며 이리떼처럼 몰려왔다.

배에서 뛰여내린 미군들이 로동자들을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모두 땅바닥에 주저앉게 했다.

《빨갱이들이다!》

경찰들이 달려들며 웨쳤다. 모자끈을 턱에 건 경찰두목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달려들면서 소리쳤다.

《로동자들을 잡아라! 빨갱이들을 모조리 체포해라!》

《손들어!》

《서라, 거기 섯!》

어느 틈에인지 방파제쪽으로 향해가던 모터뽀트가 《록키》옆으로 왔다.

차코브슨은 뽀트우에 서서 권총을 뽑아들고 목에 피대를 세워 고래고래 악을 썼다. 부르도그가 네발을 버티고 서서 목청껏 짖어댔다.

썩은 동태눈깔 흡사한 눈을 부릅뜨고 《록키》에서 룡틀임으로 치솟는 검은 연기와 그 연기에 가려져 뻘건 쟁반같이 보이는 태양을 바라보던 모리스는 벌써 세번이나 가슴에다 십자를 그었다.

(이 지상에서 모든 빨갱이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어주시옵소서.)

그때 또 《록키》의 고물이 버쩍 들리더니 더욱 요란한 소리가 났다. 기관이 폭발한것이였다. 주위의 해면이 파도치면서 작은 배들을 뒤흔들었다. 이제는 운반선도 거기 실은 물자도 건질 가망이 없어졌다.

수상경찰들의 호각소리, 미군들의 울부짖는 소리, 어디다 대고 쏘는지 알수 없는 총소리, 쁘레이버가 짖는 소리… 이 모든 소음을 헤치고 차코브슨이 팔을 저으며 목청을 돋구었다. 모리스는 무엇을 각오한듯 입을 꾹 다물고있었다. …

이리하여 7 600톤짜리 미국화물선 《록키》는 다 헐어진 집채처럼 그 형체만 남기고 비스듬히 부두에 기대있게 되였다.

기준은 그것을 오직 통쾌하게만 생각할수는 없었다. 그와 같은 《기술파업》(기계나 기타 생산설비를 파손시키는 비원칙적파업)을 해서는 안되였다. 뿐만아니라 그것이 몇몇 사람의 자연발생적행동에 그치는게 아님을 직감한 그는 확대될 피해를 생각하여 초조했다.

과연 《록키》에 붙은 불이 진압되기 전에 3부두의 로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40여명의 부두로동자들이 미군엠피와 경찰들에게 끌려갔다. 그속에 1부두분회 위원들이 섞이지 않은것을 확인한 기준은 가슴을 쓸어내리다싶이 했지만 사태는 간단치 않을것이였다. 부두구내에는 로동자들보다 경찰과 미군들의 수가 더 많은것 같았다.

부두에서 나오다가 기준은 문득 그 미국샤쯔가 평의회의 동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나가는것을 보았다. 그것을 본 기준은 무엇인지 가슴을 치받는것 같은 불쾌감을 느꼈다.

이튿날 낮 평의회 아지트에서 전날 일어난 사건에 대한 론의들이 벌어졌다. 운수산별 부장의 지시로 기준도 참가하였다. 그 자리에서 기준은 늘 과격한 언사를 쓰기만 하는 송이라는 친구와 격렬한 론쟁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공연히 과격한 언사만 쓰고있는 그에게 기준은 공격을 들이댔다.

《로동자들을 로동조합에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조직적훈련을 주는게 우리의 사업이고 목적이지요? 또 지금은 단 한명이라도 우리의 력량을 축적해야 할 단계지요? 그런데 어째서 동무는 로동자에게 비조직적행동을 하게 해서 우리에게 재차 피해를 입게 했나요? … 무슨 까닭에?》

송이라는 친구는 당황한 안색을 감추려고 애쓰면서 역시 태연한 어조로 대꾸를 했다.

《몇몇 로동자들에 의해서 제풀에 일어난 일을 어째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느냐 말이요?》

《제풀에 일어난 일? 바루 그 미국샤쯔와 당신을 따라다니던 로동자들이 저지른 일이 아닙니까?》

《나는 미국샤쯔가 누군지 모르겠소.》

그는 딱 잡아뗐다.

《나는 단지 대중의 편에 서있을뿐이요.》

《당신이 대중의 편에 섰다고 주장하려 하지만 안됩니다.》
기준이 웨쳤다.
《부두동무들은 모두 당신과 미국샤쯔가 뒤에서 비조직적행동을 한 사람들을 조종했다고 합니다.》
《무어라고? 그따위 소리를 믿어도 좋단 말인가?》
기준은 반말을 마구 쓰면서 덤벼드는 그 친구의 태도가 하도 기막혀서 마주보고있었다.
그때 운수산별 부장이 탄했다.
《격분한 대중의 기세를 리용해보자고 했지요? 솔직히 말하시오.》
《리용하다니?》
그는 펄쩍 뛰다싶이 했다.
《좋소. 동무네들이 어떤 소리를 하든 내게는 책임이 없소.》
《지금 여기서 책임을 추궁하는게 아닙니다. 사태는 엄중합니다!》 하면서 운수산별 부장은 좌중을 보며 말을 이었다.
《저 동무는 분회를 당에서 직접 장악해야 한다는것을 주장하는 동무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나? 평의회를 믿을수 없다고 했지.》
《그게 그 말이지요. 평의회를 재건할 생각은 않고 평의회를 믿지 못하겠느니, 평의회를 귀찮은 중간다리라고 동무가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 말입니다.》
《동무가 분회를 직접 쥐여보자는것입니까?》
기준이 의미있는 질문을 했다.
《무어?》
《무어라니!》
기준이 또다시 어성을 높였다.
《내 동무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사건이 있은 직후 당신은 미국샤쯔하고 같이 어디로 갔었습니까? 그 <대회파>분자하고…》
《그걸 해명해주시오.》

부위원장이 여전히 목이 잠겨서 탁한 음성으로 요구했다. 그자가 어물어물할 때 기준이 다우쳤다.
《그 미국샤쯔는 지금 우리 조직을 파괴하고있습니다. 그자는 바루 우리의 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밝혀진 당신의 사상이 결국 그 미국샤쯔의 수작과 일치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읍시다.》
송이라는 친구는 전혀 모른다던 그 미국샤쯔와 단지 전부터 인사를 하고 지내는 정도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인 사람들의 질문과 폭로로 결국 그가 미국샤쯔와 매일 만나고있다는 사실과 분회조직을 방해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위원장이 《문화부일을 맡고도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말썽만 부린 까닭을 이제사 알겠소.》 하고 탄하자 그는 《맘대루들 생각하소. 이대로는 평의회일이 안될것을 내 알고있소.》라고 악담을 퍼부으며 나가버렸다.
그가 나가버리자 모두들 무거운 짐을 벗은듯 했으나 금시 어두운 그림자가 떠도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날로 아지트를 옮겨야 했다.
부두의 공기는 나날이 험악해갔다. 무장한 경찰들과 미군들이 긴 가죽끈회초리를 들고다니면서 함부로 사람을 쳤다. 부두로동자들이 받는 학대는 정말 노예의 처지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굳게 다문채 짐을 나르고있었다.
《록키》가 타버린 나흘후 제2부두분회가 조직되였고 다음날에는 제4부두분회가 조직되였다. 피해가 심했던 3부두만은 당분간 제1부두분회에서 손을 뻗칠수밖에 없었다.
《대장》은 로동자들에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제멋대로 하는 행동은 자살행위라는것을 강조하면서 다녔다.
새로 도착한 조직성원들에게 채 수습하지 못한 일들과 분회동무들

을 인계해주고 리기준은 부산을 떠나야 했다. 검거된 로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또 한편 매우 미더운 마음으로 그는 기차에 올랐다. 그는 무엇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든든한지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부두분회들이 어느 정도 살아났고 로동자들의 압력으로 미국샤쯔가 부두에 드나들지 못하게 되였기때문만은 아니였다.

그는 차창밖을 내다보고있었으나 그의 눈앞에 떠오르는것은 풍경이 아니라 동광방직의 로동자들, 부산부두의 수많은 로동자들의 얼굴이였다.

(그렇다! 나는 알았다. 대중의 힘보다 더 크고 더 억센 힘은 없다는것을 나는 알았다. 그동안 나는 바로 그것을 배웠다.)

기차는 삼랑진을 지나 기적을 울리면서 북으로 달렸다.

10

리기준이 부산에서 공작을 하는 동안 김재인은 얼토당토않게 정치적 혐의를 받게 되면서 차차 곤난한 립장에 빠져들어갔다.

변승룡의 집에서 기준에게 타박을 받고 뒤처져있다가 나왔던 재인은 조석우를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고 단단히 결심했다. 그래 자동차를 조석우에게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단골로 다니는 빠로 가서 술을 마셨고 이튿날 보석상점으로 나가서도 조석우에게 말 한마디 전할 생각을 안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무심코 전화를 받아보니 조석우의 목소리였다. 재인이 좀 우물우물하고있는데 저쪽에서 대뜸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려거든 당당하게 하지 보석상점에 앉아서 공산주의를 할게 무언가, 응?》

재인은 더욱 당황해질수밖에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

《무슨 소리라니? 내 자네들한테 속았네. 다 끼리끼리인줄 모르고 그런 부탁을 했단 말이거던.》

《어, 리기준이 소식말인가?》

《시치미를 떼지 말게. 알만 하이.》

《아니…》

재인이 어물거리자 《잘 있게!》 하고 저쪽은 전화를 끊었다.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난 재인은 정신이 얼떨떨해져서 한동안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공산주의를 한다고? 그리고 잘 있으라고? 저자가 경찰과 내통한 모양인데 재미없는걸…)

재인은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 나를 빨갱이로 몰려는건가? 전에 내가 공산주의니, 사회운동이니 하는 말을 많이 한것은 사실이지. 그렇지만… 아니, 해방후 내가 사회경제연구회에 드나들던 일도 저자가 알고있지, 그러니 변명할 여지가 없군. 지금이라도 잡아가두면 갇히였지 별수 없잖은가…)

생각하면 할수록 차차 더 불안해졌다.

《잘 있게!》 하면서 탁 전화를 끊는 수작이 벌써 수상하다고 생각하자 재인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몇발자국 서성거리다가 도로 앉았는데 그렇게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얼마후 김재인은 엑쓰구락부로 갈수밖에 없었다. 조석우는 엑쓰구락부 안락의자에 앉아서 어떤 경찰복을 입은 사람과 수군거리고있었다. 그 경찰복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자임에 틀림없었는데 저쪽에서 먼저 알은체를 하므로 자세히 보니 그가 바로 전날 저녁 사복을 하고 재인에게 술잔을 권하던 그였다.

(그렇구나, 기준의 말이 옳았구나. 경관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두사람에게 인사를 했으나 그 음성은 이미 경찰에게 잡힌것처럼 떨렸다.

떨리는 음성을 억지로 누르면서 그는 《이 사람아, 롱담도 분수가 있지… 나더러 공산주의를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항의를 했는데 그 음성이 너무 부드러워서 자기 듣기에도 항의보다는 무엇인지 애원하는것 같았다.

《누가 리기준이를 잡아넣겠다고 했나?》

빈정대는듯 한 능글능글한 표정으로 조석우가 말했다.

《만나게 해달랬더니 피하게 할게 무언가 말야?》

《피하게 했다고?》

《이거 왜 이래? 운전사가 그러는데 자네가 들어간 직후 어떤 양복쟁이가 급히 나가버리더라는데…》

재인은 얼굴이 화끈 다는듯 했으나 시치미를 떼야만 했다.

《그 양복쟁이가 누굴가?》

《어쨌든 말야…》

조석우는 어조를 바꾸어 간청했다.

《어쨌든 한번 만나게 해주게. 응?》

《힘써보겠다니까…》

《일주일안으로…》

《그러지.》

이렇게 대답한 재인은 저으기 불안한 마음이 가시였으나 다시 생각하니 그들에게 단단히 옭매인듯 했다.

조석우는 김재인이 《빨갱이》도 아니며 리기준의 거처를 쉬이 알아내지도 못할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를 그렇게 위협해둘 필요가 있었다.

그는 벌써 십여일전부터 미24군단 총참모대리인 차코브슨의 동생에게서 좌익진영에 의심받지 않고 드나들수 있는 조선인기자나 회사원을 군부에 채용해야 하겠는데 1등 대우를 하겠으니 그런 사람을 하나 소개해달라는 은근한 부탁을 받았었다. 그런 사람을 무엇에 쓰려는지 대강 짐작한 그는 대번에 김재인을 적임자로 생각하고 점을 찍었다.

그러나 고태히상점에서 떼고 자기 손아귀에다 틀어쥐는 방법을 쓰지 않고 서뿔리 재인에게 말을 꺼냈다가는 단번에 놓쳐버릴것이였다. 총참모대리인 차코브슨의 동생도 그런 의견이였다. 그래서 위협과 어느 정도의 공갈이 필요했다.

엑쓰구락부로 달려가 변명을 하고 돌아오기는 했으나 김재인은 여전히 불안스러웠다. 며칠동안은 입맛조차 없어서 술만 마셨다. 그런데다 사흘이 지난 아침 천생 싫은소리를 하지 않던 고태히가 재인에게 《글쎄, 왜 재인씨는 공산주의에 가담하시오?》 하고 시비를 했다.

《내가 무슨 공산주의요?》

《그럼 왜 문제가 됩니까? 내 처음부터 무어라 했습니까? 일체 정치는 하지 말자고 안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요?》

《좌우간 우리 장사까지 망하게 될겁니다. 야단났군!》

이렇게 말한 이튿날 고태히는 다시 재인에게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보내겠으니 당분간 상점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이튿날부터 김재인은 보석상으로 나가지 않았다. 고태히와 아주 손을 끊기로 결심했기때문이 아니라 조석우와 약속한 일주일이 닥쳤으니 또 전화가 오든지 아주 잡으려 오든지 할것이기때문이였다.

보석상으로 나가지 않은지 며칠후 재인은 광교근처에서 걸어오는 조석우를 발견하고 가슴이 써늘해져서 급히 골목으로 피하고말았다.

지레 겁을 먹고 거리로 떠돌게 된 김재인은 차차 자기가 얼마나 시시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였다. 더우기 십여일이 지난 후부터 주머니에 돈이 한푼도 없게 되자 온종일 차집에 앉아있을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되자 사지에 기맥조차 빠졌다.

움직이기도 싫었고 늘 자는 잠이라 자고싶지도 않았다. 35년동안을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는 물같다고들 했지만 그에게는 그게 한 백년 된것 같이 지루하게 생각되였다. 그 오래동안을 취하고 향락하고, 깨면 뉘우치고, 또 마시고 하면서 단지 그것만을 되풀이했던것이다.

이제는 술생각도 없고 음식을 먹을 의욕도 없었으며 향락도 시들했다. 자기 몸뚱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것 같았으나 왜 그런지 생각해보기도 싫었다.

하루는 잘 아는 차집마담이 재인에게로 와서 물었다.

《선생님, 애라소식 들으셨어요?》

재인은 고개를 흔들었다.

《어제 애라를 만났어요. 미국놈에게 속아서 씨아이씨에까지 끌려갔다 나와서 미장원을 다시 연다는군요. 그런데 울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을 배반한것이 아닌데 선생님께 오해를 받고있다는군요.》

재인은 속으로 (여우가죽을 쓴 년!) 하고 욕했다.

차집마담은 재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좀 찾아가 위로를 해주셔요.》라고 말했다.

《위로를 해주라구요?》

재인은 반쯤 조는듯 한 어조로 말했다.

《흥! 지금 내 한몸 주체하지 못하는데…》

김재인과는 달리 변승룡은 허무주의에서 벗어나 출세를 하여 위신을 세우려고 노력했다. 그는 좌익의 세력이 거세다는것을 짐작하기는 했지만 미군의 무력앞에서는 도저히 대항할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종당에는 공산주의가 승리하겠지만 그것은 자기가 늙어버렸거나 죽은 뒤의 일일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리기준이나 박문선이 걷는 길이 비록 정의로운 행로라고는 생각했지만 은근히 그들이 가엾게 생각되였고 그들이 중간에 실망하고말것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그는 출세할것을 단념(그는 그렇게 생각했다.)하고 상업계로 나간 김재인을 불쌍하게 여겼다. 그는 두어번 재인을 술집에서 만났는데 그럴 때마다 도로 기자가 되든지 하다못해 중학교 선생이라도 좋으니 좀 위신있는 직업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변승룡은 비록 구체적으로 그렇게 타산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생각하는 위신있는 직업이란 남의 우에 서있는 그러한 직업, 사회

적지위가 있는 직업이였다. 닭의 주둥이가 될지언정 소꼬리가 되지 말라는 말을 그는 전부터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가 사회경제연구회일에 열성이였던것도 주간이 아니였다면 기대하기 어려웠는지 모른다. 또 지금은 수석교수였다. 그는 신용길을 진보적인사로도 생각지 않았고 인품있는 학자로도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가 경영하는 학교에 붙어있는 리유의 태반은 그 수석교수라는 지위때문이였다.

신용길은 《국대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변승룡을 매우 신임했다. 그래 변승룡을 군정청 문교부의 협의교수로 등록하게 했는데 그것을 안 변승룡은 역시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군정청에서 열리는 교수회합에서 영어로 연설을 하라는 신용길의 부탁을 또한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연설원고를 만들면서 적지 않게 자기의 생각과는 딴말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때 출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게 좋았고 출세한 다음에라도 자기주장을 얼마든지 내놓을것이므로 우선 좀 본의아닌 말을 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신용길과 함께 가끔 연회에 참석하게 되였다. 거기서 사회인사들과 미국인들을 만났다. 신용길은 그들에게 승룡을 변교수라고 소개했다. 그런 좌석에서 그는 백락일도 만나 인사를 했다.

백락일은 동광방직의 관리권을 빼앗기면서 차코브슨과 조석우를 한꺼번에 잃은 후 거의 돌보지 않던 삼성인쇄공장에다 재산을 집중시키는 한편 《대한민족당》에 대한 선전을 계속해서 자기의 정치적지위를 보장하기에 더욱 노력했는데 모리스는 신용길을 통하여 그를 조종하고있었다.

변승룡은 자기가 대양양품점건물에서 쫓겨난 한사람임을 백락일이 모르는것을 다행히 생각했다.

그러한 어느날 변승룡의 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동맹휴학으로 들어갔다. 그는 학생들에게 군정하에 있는 학교당국의 불가피한 조치들과 딱

한 사정을 이야기하려 했다.
그러나 막상 학생대표를 만나자 그는 한마디도 입을 벌리지 못했다. 그들은 신용길과 변승룡을 미군정에 충실한 교육의 파괴자라고 단언했으며 변승룡 같은 교수가 사직을 하거나 차후 교수제도를 달리하지 않는 한 등교할수 없다고 주장하는것이였다. 변승룡은 얼굴이 뻘개진채 한마디도 답변을 못했다.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목청을 합쳐서 웨쳤다.
《조선교육을 파괴하는 <국대안>을 반대하자!》
《변승룡교수를 해임시키라!》
이런 소리를 들은 변승룡은 무서워서 소름이 다 끼쳤다.
신용길이 축 처진 얼굴의 근육을 이그러뜨리며 표독스러운 소리로 경찰에게 전화를 걸라고 했을 때 변승룡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캄파주사를 두대나 맞은 후 일어나 앉아 기운없이 땀을 씻었다.
그리고 일어서려 했으나 학생들의 고함치는 소리와 《인터나쇼날》의 합창소리는 그로 하여금 도로 주저앉게 했다.
이튿날부터 그는 아주 병석에 누워버렸다.

11

그렇다! 대중의 힘보다 더 크고 더 억센 힘은 없다! 끝까지 대중을 믿고 따라야만 한다. …
이러한 신념을 품고 서울로 돌아오는 리기준은 앞으로 어떠한 곤난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사업을 조직할수 있을것만 같았다. 동광방직의 파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실망하고 일시 사업의 의욕까지 잃었던것도 다 대중을 믿지 못한데서 생긴 과오였다. 동방로동자들은 이제는 풀이 꺾인줄만 알았는데 그들의 투지는 그날 영사막을 갈가리 찢어놓고말았다.

부산부두에서도 그는 도저히 사업을 해낼것 같지 않았으나 풀죽지 않는 로동자들의 사기는 그를 고무하였다.
기준은 허인기랑 정형규를 만날 일이 기뻤다. 봉례가 자기를 어떻게 맞이해줄가 하는 생각도 났다. 그래 기차가 안양, 시흥을 지나자 기준은 벌써 모자를 집어쓰고 내릴 차비를 하였다.
오후 4시 서울역에 도착한 기준은 곧장 전평회관으로 들어갔다. 밑에서 편집부와 자기의 사무실이 있는데로 전화를 걸려다가 불의에 나타나는게 더 반가울듯 해서 그만두고 웃층에 있는 서기부로 올라갔다. 서기부에는 기준의 보고를 받을만 한 동무가 없었다. 한사람이 오늘은 아무도 만나지 못할거라 했다.
그는 거리로 나왔다. 20여일만에 보는 서울거리는 전과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살기등등한 부산부두에다 비하면 평화로운듯이 시민들이 지나가고있었다. 하지만 그 시민들도 미제와 미군정에 대한 불만에 싸여있는게 눈에 보이는듯 했다.
리기준이 나타나자 섬유산별동무들이 모여들어 반가이들 맞아주고 건강을 물었다. 그러나 편집부에는 봉례도 허인기도 보이지 않았다. 실내에서도 캡을 쓰고 지내는 키큰 기자는 허인기는 병때문에 하루건너씩밖에 나오지 못한다고 했다.
기준은 섬유산별동무들이 둘러앉은데서 한동안 부두로동자들에 대한 미군들과 경찰들의 학대와 탄압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는 다른 동무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그래 기준이 없는 동안 섬유공장들에서 생긴 일들 특히 동광방직과 종연방직 분회들이 《대한로총》과 잘 싸우는 이야기를 자랑삼아 했다. 그러느라고 해가 꼬박 지고말았다.
어두워서야 봉례가 기준의 방으로 달려왔다. 옆에 아직 퇴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때문에 그들의 인사는 은근했으나 그들은 너무 반가와서 서로 보고 또 보고 했다.

봉례는 그동안에 더 아름다와진것 같이 기준에게는 생각되였다.

《정말 꺼멓게 타셨어요.》

의자를 끌어 기준의 옆으로 다가앉으면서 봉례가 말했다.

《바다바람이 세서…》 하고 기준은 허인기의 소식부터 묻기 시작했다.

《신장만 나쁘신줄 알았더니 고혈압까지 겸하셨어요. 혈압이 2백을 넘군 한답니다.》

《야— 언제부터요?》

《떠나신 직후부터였어요.》

《의사는 뭐래요?》

《절대안정이 필요하다는데 글쎄 자꾸 나오시려드니 어떻게 해요?》

봉례는 근심스러운 표정이였다.

《말려도 통 듣지를 않으시는군요. 그분 성질이 그렇잖아요. 어제도 점심때까지 일을 보셨는데 그 병하고 그분의 성질하고 상극인게 그중 근심이예요.》

《야단이군!》

《혈압이 높아지자 전보다두 더 흥분하시군 하잖아요.》

기준은 또 담배를 꺼내 손톱에다 두드렸다. 봉례는 성냥을 그어댔다. 사무실에 둘이만 남게 되자 봉례는 더욱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변했다.

《더 흥분하실 일이 생겼답니다.》

《왜?》

《유상렬동무가 말예요, 전평신문하고 아저씨를 비난하고있답니다.》

《유상렬이가? 어째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상렬동무가 조직부에서 선전부로 옮겨갔는데 출판관계를 책임지게 됐다는군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다른 신문들은 내버려두고 저희 신문을 가지고 비판을 시작했답니다. 아저씨를 당으로 불러들여놓고 신문의 편집방침이 틀려먹었다고 한마디로 타박을 한 모양예요. 며칠동안 아저씨는 불만을 가지고계시기만 했는데 하루는 유상렬이가 신문사로 나왔었답니다. 그는 기자들까지 다 모인데서 아저씨와 론쟁을 했는데 상렬동무는 전평신문의 표제들을 례증하면서 자, 민주개혁의 실시를 위하여 로동계급이여 궐기하여 싸우자고 했으니 어째 로동계급만을 고립시키려는가? 또 궐기하여 싸우자는 것은 폭력투쟁의 감을 주지 않는가? 또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는 판에 박은듯 한 구호를 계속 내걸건 무어고 미군정당국의 신경을 촉발시키는 표제를 일일이 골라쓸건 무언가? 하고 비난을 하더군요. 그러니 아저씨가 조금이라도 굽히실것 같애요? 단박 대드시더군요. 그래 로동자들의 신문에 로동계급이여라고 한게 무에 극좌며 고립시키는건가?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는것은 전인민적인 요구가 아닌가, 그리고 군정당국의 신경을 느긋하게 해줄건 무언가?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들 싸우셨답니다.》

《그러고 또?》

기준은 신중한 표정이였다.

《상렬동무는 나중에 할수 없으니까 어째 당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가고 하더군요. 그러자 아저씨는 숨이 가빠하면서 당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일이 없다, 나는 지금 당일군과 토론을 하는거다라고 반박하셨는데 사흘후… 댓새전예요. 정식 회의를 열게 하고 그 자리에서 아저씨를 비판했답니다. 유상렬동무는 편집부장 허인기가 혁명의 매개 단계의 특성을 옳게 인식하지 못할뿐아니라 사업의 열성도 부족하며 신문은 극좌적으로 흐르고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근본적개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했답니다. 그러고 끝났지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잘된것 같잖아요. 비판은 정확하게 해야지요. 납득이 되게 해줘야 할게 안예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기자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잖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도 기준은 묵묵히 앉아있었다. 당장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웠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그의 머리속에는 벌써부터 깃

들었던 유상렬에 대한 의혹이 다시금 고개를 쳐들었다.

《그 동문 걸핏하면 극좌라고 하니 어쩌자는건가?》

《그게 투항주의가 아닐가요?》

봉례는 랭정하게 말했다.

《헐벗고 굶주린 로동자들을 함부루 쏴죽이는 판에 군정의 신경을 촉발하지 말라는게 뭐예요?》

《그 사람 해방직후에는 미군과 싸울듯 한 기세로 말합디다. 그렇소. 함부루 쏴죽이는 판이요. …》라고 말하면서 기준은 간단하게 울산청년이 총에 맞아 바다로 떨어지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들도 모두 민주개혁의 실시를 요구하고있노라 했다.

《그렇지요. 전 아저씨, 아니 편집부장의 반박을 지지했습니다. 손톱만치라도 친척관계가 있어서 그러는건 안예요. 언제인가 그분이 20년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하실 때 동지관계와 친척관계, 친분관계를 혼돈했다고 통탄하셨지요. 들으셨지요? 전 그 말을 명심하고있습니다. 저는 동지적립장에서 아저씨, 아니 편집부장의 반박을 지지했습니다. … 대중과 떨어져있는것, 당이 대중의 의사를 무시말살하려는것… 이것처럼 두려운게 또 어디 있을가요?》

《한 개인의 일로 생각합시다.》

《물론 유상렬동무 한 개인의 문제지요. 허지만 그 개인이 당의 중요한 부문을 책임지고있을 때 그의 언행이 당의 언행으로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네?》

《그의 언행이 당의 의사, 대중의 의사와 어긋난다면 그를 축출해야지!》

문득 이렇게까지 말한 기준은 울산청년의 령구를 북을 향해 눕히라던 어둠속에서의 《대장》의 목소리가 귀에 찡하니 울리는것을 느꼈다. 그 소리를 생각하면서 그는 자신있게 말을 이었다.

《손에 무기를 잡고 일제와 싸워이긴 빛나는 전통을 가진 우리 당의 의사만을 인민대중은 절대적으로 따를것이요!》

그제야 두사람은 자기들도 모르는새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였다.

《장안파》가 해산된 뒤 《세계일보》로 배치를 받아가게 되면서부터 유상렬은 《장안파》 간부의 하나인 리강진을 존경하지 않게 되였다. 원래 유상렬은 과거에 잘못한 일을 뉘우치거나 반성해보는 습관이 없었다.

그는 가다가 골목이 막혔으면 마부가 이끄는대로 돌아서서 딴 길을 걸어가면 그만인 말과 같았다.

잘못 간 책임은 말이 아니라 마부에게 있는것처럼 그는 모든 책임을 자기의 지도자에게 전가했기때문에 리강진을 존경하지 않는것만으로 만사가 깨끗해진듯이 생각하고있었다.

리강진대신 그는 2～3명의 지도자를 한꺼번에 존경하게 되였다. 그는 《세계일보》에 있는 동안 그들이 말하는것을 한가지도 어기지 않고 집행했다. 그대신 그들의 롱간에 의하여 곧 당조직부에서 일을 하게 되였는데 그들의 말을 충실히 지키게 되는 요인은 그들이 늘 더 높은 자리로 옮겨줄것을 암시해주었고 상렬자신이 거기에 고무되군 했기때문이였다.

조직부일을 보게 된 유상렬은 때마침 발발한 파업투쟁들에 대하여 그들이 시키는대로 처리하였고 특히 동광방직 쟁의단을 그닥 시끄럽지 않게 복귀시킨 공로가 컸다. 그러한 공로를 세운지 한두달만에 그는 과연 더 높은 자리로 옮겨앉게 되였던것이다.

조직부의 7～8번째 자리(그는 그것을 따져보았었다.)에서 선전부 출판부문의 책임자로 옮겨가게 된것은 그만큼 자기가 그들의 신임을 받는것이므로 그의 자긍은 컸다. 그는 장차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리라는 자신이 있음은 물론 현재도 마치 문화부에서 평론가 김화가 중진이듯이 선전부에서는 자기 유상렬이가 중진이라고 자신했다.

선전부로 옮겨앉은 어느날 유상렬은 그가 존경하는 그 지도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대화를 귀담아들었는데 그들은 《전평에 있는 동

무들 야단이거던.》, 《말을 안 듣는자가 많거던.》, 《잘 듣는 사람도 있지, 우리 편도 적지 않아.》, 《그 신문을 보지. 극좌적이요, 극좌!》라고들 지껄였고 이어서 《허인기란 동무가 어떻소?》, 《못써, 고집만 쓴다더군!》 하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옆에 앉았던 상렬은 허인기를 그닥 자세히 몰랐지만 그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비판을 접수할줄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수긍했다.

《잘 돌보우, 상렬동무.》

《네!》

그들의 대화는 또 계속되였었다.

《전평에서 <대회파>로 넘어간건 얼마 안되지?》

《거의 없는셈이지.》

《지방에는 많단 말이거던.》

《그것들 다 돌아서겠지.》

그때 유상렬이 말참견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재빨리 《섬유산별의 안철이가 넘어갔습니다. 동광방직파업때 애를 먹이던 그자 말씀입니다.》 하고 끼여들었다.

《음, 그런자쯤 일없소.》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그들은 《대회파》와 무슨 경쟁이나 하듯이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유상렬에게는 그런 대화들이 조금도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그들에게서 물러나온 상렬은 우선 전평신문을 다시 훑어보게 되였다.

그는 신문이 어떻게 해서 한호한호 나오는지 그에 대해서는 생각하려들지 않았다. 그는 일제시대에도 신문사와 관계를 가진 일이 있었고 해방후에는 자기자신이 신문의 권위라고 생각하는터였으므로 단지 그 신문을 자기가 편집한다면 하는 정도에서 생각해보았다. 자기가 편집한다면 그렇게 빡빡하게 두부모식판을 짜지 않고 계몽을 위주로 하

여 그림도 넣고 유익한 소설 같은것도 편재할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의견만으로 그 신문을 비판할수는 없었다. 극좌적인 점이 어느 점인가를 찾아내야 했다. 어느것을 꼭 짚어서 이게 극좌라고 지적해야 하겠으나 그게 그리 쉽지 않았다.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며칠후 겨우 두어가지 트집거리를 잡았다. 그것은 쏘미공동위원회가 휴회된이래 좌익측이 수세를 취해야 한다는 그 파괴적리론에 근거한것이였다.

그러한 트집거리를 준비해가지고 허인기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과연 허인기는 좀 강압적으로라도 누르지 않을수 없을 정도로 고집불통이라고 상렬은 생각했다.

12

구름 한점 없는 맑고 새파란 하늘이 매일매일 계속되다가 찬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릉안에는 피빛으로 물든 단풍이 한풀 지나려 했으며 매미우는 소리도 멎은지 오랜 숲속은 쓸쓸하기만 했다.

기준과 봉례 그리고 정호를 데리고 순희가 와서 한나절을 지내던 풀밭에는 피여 만발한 들국화가 뒤덮여 찬바람을 이겨내고있었다. 그러나 자주 놀러올듯 하던 그들은 아무도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봉례가 발을 잠그고있던 실개울의 물은 여전히 졸졸 흘러갔으나 이제는 오직 노란 가랑잎이 한두잎씩 떠내려갈뿐이였다.

그 개울물처럼 세월은 자꾸 흘러갔다. 하지만 시간이야 어떻게 흐르든 시가지는 복잡하고 소란했으며 흉악하고 잔인한 풍경이 곳곳에 펼쳐졌다.

해가 지자 쌀쌀한 바람이 몸에 스며들었다. 구두닦이소년들이 을씨년스럽게 몰려다니다가 두 아이가 골목모퉁이에서 하루동안 번 돈을

세보고있었다.
《얼마 벌었니?》
키작은 아이가 물었다.
《백십원.》
껑충한 아이가 대답했다.
《난 칠십원밖에 못 벌었다.》
《담배 한갑값도 못되는구나.》
골목어귀에서 담배를 피우고 섰던 기준이 껑충한 아이에게 집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집이요? 없에요.》
《어디서 자니?》
《아무데서나 자지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였다. 광화문동에서 동대문께로 서울시내를 횡단한 청계천의 다리아래들과 동대문, 남대문, 대한문들의 문속, 그도 아니면 큰 건물들의 추녀밑에는 해방후 갑자기 늘어가는 실업자들, 령세민들, 고아들이 우글우글했다.
그들중에는 먼 타국에서 해방된 조국강토가 그리워 찾아온 동포들도 많았다. 그러나 일자리를 구할수 없고 쌀과 돈을 얻을 도리가 없었다. 세방도 차례가 오지 않았다. 그들은 할수없이 그러한 곳으로들 모여들었다. 품팔이할것도 없으면 구걸을 하게 되고 아이들은 구두닦이, 담배장사들로 나선다.
조금전에 기준은 바로 광교다리아래에서 거적을 덮고 죽은 한 녀인을 보았다. 그 시체 머리맡에는 무슨 뜨물같은것을 담은 깡통에 숟가락 한자루가 꽂혀져있을뿐이였다. 시체주위에는 갈가리 찢어진 누더기를 입은 다리아래 주민들이 웅기중기 모여앉아있었다. 허기진데다 병들면 죽어갈수밖에 없다는것을 생각하는지 그들은 모두 묵묵했다.
그 모습들을 머리속에 그려보다가 기준은 혼자말처럼 두덜댔다.
《추워지는데 야단났구나.》

그러자 껑충한 소년은 정말 추워질것인가 하고 생각해보는듯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다가 키작은 동업자를 데리고 종로 네거리쪽으로 갔다. 걸어가면서 그 소년들은 또 목청을 돋구어 웨쳤다.
《구두 닦으세요, 구두—》
《미국구두약으로 닦으세요.》
(부산부두의 아이들이 웨치는것과 같구나. 발음이 좀 다를뿐이군… 어찌 서울, 부산뿐이랴. 미제는 남조선의 소년소녀들에게 학용품대신 깡통과 담배상자, 구두약상자를 들렸구나. 그 책임을 장차 누가 질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섰는데 이번에는 열서넛에 난 소녀가 어깨에 멘 상자를 내밀면서 애원하듯 했다.
《미국담배 사세요.》
사지 않겠다고 하자 《그럼 다이야찡 사세요.》 하면서 졸라댔다.
《종일 아무것도 못 팔았에요. 하나 사주세요, 네?》
기준은 너무도 딱해서 우두커니 서있다가 반가이 달려오는 순희를 보고 돌아섰다.
《잘 있었니?》
《네, 오빠는요?》 하면서 순희는 가로등에 비치군 하는 기준의 얼굴과 행색을 깐깐하게 살폈다.
《아무 일 없다. 어머니는 어떠시냐? 정호는?》
《어머님은 정정하시고 정호는 장난이 심해졌지요.》
《어머니 더 늙으셨지?》
《그렇지도 않아요. 오빠 고생하셨지요? 다 알아요. 봉례하고 얘기했어요.》
《고생은 무슨…》
《이리 오세요.》
순희는 재촉하다싶이 해서 기준을 미리 말해둔 어떤 집 건너방으로 안내했다. 교과서와 수틀이 있고 검정치마랑 걸린것이 녀학생의 방 같

았다. 거기서 기준은 오래간만에 잘 빨아 다린 내의랑 와이샤쯔를 갈아입었고 양복도 바꾸어입었다. 어엿한 춘추복이 없었으므로 그는 아직 이르긴 했으나 겨울양복으로 갈아입을수밖에 없었다.

기준이 옷을 갈아입자 순희는 밖으로 나가 상을 빌려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온 음식그릇들을 차려놓았다.

《꺼매지셨에요. 허지만 식사 같은건 제대로 못하고 다니셨죠?》

《못하긴 왜?》

《어서 잡수세요. 어머니가 손수 만드신거예요.》

《점심을 늦게 먹어서…》

《그래도 잡수세요. 어머니가 저녁 잡숫는걸 보고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어서요, 네?》 하면서 순희는 수저를 들려주었다.

나물이랑, 얌전하게 뜯은 북어무침의 맛을 보고 밥술을 떴다. 그리고 씹으려는데 별안간 눈물이 핑 돌아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밥이 아니라 그대로 늙은 어머니의 정성이였던것이다.

기준의 눈치를 보고 한동안 묵묵히 앉았던 순희는 이내 다시 명랑해졌다. 그리고는 형사들이 가끔 찾아와 헛수작을 하다가 간다는것, 정호가 이따금씩 생각나는듯 건너방문을 열어보고 삼촌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는것 그리고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반이상은 영양부족이거나 심지어는 부황이 나서 퉁퉁 부은 사람들인데 그런바에야 병원을 걷어치우고 싸전을 벌려놓고 쌀배급을 주는게 좋다는것… 두루 이런 이야기를 했다.

《신문만으로도 미국놈들이 점점 더 기승을 떠는걸 알겠으니 웬 일예요? 전라도에서도 경상도에서도 농민을 함부루 학살한대요. 공장들에선 공장대로 복대기를 치고…》

《언어도단이야. 언제 시간 있으면 부산에서 본걸 얘기하지.》

식사를 끝낸 기준이 말했다.

《조직이 엉망이예요?》

《아니, 강해!》

《그 <대회파>들이 말썽이지요? 결국 반당분자들예요!》

《흥, 그렇게 말할수 있지.》

《군정당국은 철도로동자들을 25퍼센트나 해고했다지요? 4분의 1을… 그러구 일급제를 실시한다지요? 그래 4만명이상의 철도로동자들이 일제히 파업으로 들어갈거라는데 그럴가요?》

《그렇게 될것 갈더라.》

《남조선전체가 격분에 못이겨 들먹들먹하는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일은 처음이겠지요? 이렇게 인민들이 굶주리고 구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풀죽지 않고 요동치려고 하는건 처음일거예요, 그렇지요?》

《총파업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기준이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어제 전평에서 군정당국에다 철도로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회답을 24시간안에 해줄것과 그에 응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성명을 했으니까…》

《군정이 안 듣지요? 회답이 없었지요? 그러니 총파업이 시작되겠군요. 시작되야지, 터져야지!》 하고 말하면서 순희는 음식그릇들을 차곡차곡 겹쳐서 보자기로 쌌다.

《준비는 하겠지만 신중해야 할거니까 날자가 걸릴거다.》

《오빠, 주의하세요!》

《주의고 무어고 있니?》

《주의하셔야 해요. 괜한 일로는 나다니지 마세요, 네?》

남매는 그 집에서 나왔다. 큰길로 나오자 기준이 말했다.

《가봐라. 내 념려는 말고 집안 잘 돌봐다우!》

《그건 념려마세요. 감기들지 않도록 하세요, 네?》

순희와 헤여진 기준은 생각에 잠겨 천천히 남대문동을 걸어내려갔다.

봉례는 한시간전부터 기준을 기다리고있었다. 기자들은 다 퇴근하

고 벽에 걸린 시계만이 똑딱똑딱 소리를 내고있었다. 신문들을 뒤져보다가 유리창앞으로 갔다. 잠시 창밖을 내다보다가 도로 책상앞에 와앉았다. 봉례는 아무래도 자기 일신상에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날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 변화가 어떠한것일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으나 어쨌든 더욱 어려운 환경속에 놓여지리라는것만은 예상할수 있었다.

객관적정세도 차츰 불리해졌고 유상렬의 비판과 허인기의 신병으로 말미암아 신문의 편집과 재정도 나날이 어려워만 갔다. 물론 허인기는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서라도 로동자들을 위한 그 신문의 발간만은 보장할 각오였으나 그러자니 더욱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봉례는 그 고난의 길이 어떠한것인지 예측하지 못했다.

기준과의 관계에도 무슨 변화가 있을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의 불덩어리는 객관적정세가 악화되면 될수록 자꾸 가열되기만 했다.

두사람이 만나게 되는 며칠이나 몇 주일사이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의의는 점점 커갔으며 동시에 이제는 제아무리 모진 바람이 불어친다 해도 서로 잊을수 없었다. 그런 정도였지만 역시 사랑도 더욱 어려운 길을 걷지 않을수 없을것이였다.

이래저래 봉례는 근심스러웠고 초조했다. 하지만 틀림없이 사랑하는 사람의 발자국소리가 가슴에 울려들자 봉례는 사뿐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초조한 마음도 근심도 바람에 불린 구름처럼 단번에 사라지고 말았다. 이윽고 후리후리한 그이가 들어섰다.

봉례는 기준의 앞을 막듯이 마주서서 《어떻게 할가요?》 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무얼?》

봉례의 까만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팔을 잡으려다가 《아저씨가 위태하신가봐요!》 하는 말에 기준은 그대로 서버렸다.

《음, 오늘도 못 나오셨지? 엊저녁쯤 찾아갈걸 그랬지…》

《이렇게 사흘씩이나 안 나오실분이 안예요.》

《글쎄 말이요. 이제라도 같이 갈가?》

《그러세요.》

두사람은 문을 채우고 밖으로 나섰다.

《저 보세요.》

전차를 타러 가면서 봉례가 말했다.

《언니에게 안부 전해주셨지요? 어머님 안녕하시다지요? 정호도 잘 자라고요?》

몇걸음 더 걷다가 또 물었다.

《릉안에 가셨던 생각 안 나세요?》

《몇년전 일 갈구려.》

그들은 돈암정에서 전차를 내렸다. 정거장에서 왼편 골목으로 들어가 민틋한 언덕길을 더듬어넘자 허인기의 집이였다. 그 집은 애초부터 그의 처의 이름으로 샀고 문패도 그의 처의 이름을 써붙였다. 그리고 허인기는 거주등록도 않고 친척처럼 드나들었기때문에 아직은 경찰의 주목을 끌지 않는 집이였다. 봉례는 기준을 안내해들이고 사랑채로 나갔다.

허인기는 누비이불을 덮고 번듯이 누워있었는데 기준이 들어가자 매우 반가와하면서 내의바람으로 일어나 앉았다.

그는 작으나크나 한 신문사의 재정을 쥐고있는 사람이였으나 입은 내의가 기준의 그것보다도 더 너덜너덜했다. 발치에 벗어놓은 양말에는 양말대님대신 질끈 동여매게 된 노끈이 달려있었는데 그것을 본 기준은 그가 얼마나 소박한지 새삼스레 놀랐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놀란것은 그의 병증세였다.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 부옇게 뜨고 그런데다 마치 술을 마신듯이 홍조가 흘렀다.

《누우세요.》

《일없습니다.》

《안정하셔야지요.》

《그보다도 차라리 지끈지끈 아픈 병이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을 다시 보니 부처 석고상갈았고 무척 숨이 가빠했다. 기준은 문득 자기가 학교선생을 할 때 박물선생이 고혈압으로 죽는것을 본 기억이 났다. 그 박물선생처럼 허인기는 숨이 가빠했다. 그러다가 덜컥 하면 큰일이였다.

허인기를 찾아온것은 잘했지만 오래 앉아있으면 환자에게 좋지 않을것을 알고 기준은 별로 이야기를 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허인기는 한동안 병이야기를 하다가 《유상렬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네. 봉례동무에게서 대강 들었습니다만 일이 우습게 됐더군요.》

《우습게 된게 아닙니다.》

그는 인후까지 부은것처럼 목소리도 변했었다.

《아주 잘못됐지요! 유상렬이는 비록 지금 우리 조직안에 있지만 안철이나 다름없는잡니다. 목적이 사업의 성공에 있는게 아니라 딴데 있습니다. 그는 <대회파>를 옳게 비판하지 못하고 <대회파>와 세력다툼을 하는 리승엽의 졸도입니다. 리승엽의 지시를 받고 <세계일보>를 저렇게 색채없는 신문으로 만들었고 동광방직파업을 실패케 했고 이번에는 전평신문에 손을 댔습니다. 기준동무가 나를 나쁘게 생각해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리승엽도 <대회파>도 남조선의 로동운동을 1920년대처럼 추악한 자리다툼의 진창으로 끌어넣으려고 한다는걸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사태는 바루 그렇습니다. 그는 나에게 직접 전평신문은 당에 충실치 않다고 했는데 전평신문이 당에 충실치 않은게 아닙니다. 동방쟁의단 복귀성명서를 호외로 내라는 그의 지시에 충실치 않았던것입니다. 유상렬이가 바루 그 계통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허인기는 슬그머니 자리에 누워버렸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기준은 그제야 안철이가 말한 박헌영일파라는 말과 유상렬의 정체를 어느 정도 짐작할수 있을것 같았다.

그는 허지만 만약 그렇다면 어째 더욱더 정면으로 싸우지 못하는가

하고 생각했으나 허인기를 그 이상 흥분시켜서는 안되였다.

《흥분하셨습니다. 흥분하시면 안됩니다.》

기준이 타일렀다.

《이제는 찾아뵜으니까 피로하시게 하지 말고 가야겠습니다.》

허인기는 다시 일어났다. 그는 확실히 아까보다도 더 얼굴이 피로해하는것 같았다.

《누우세요, 가겠습니다.》

기준이 일어나려 했으나 허인기는 일어나건말건 말을 이었다.

《유상렬이가, 안철이가 그리구 리승엽이가 무업니까? 과거에 무얼 했습니까. 변절투항한자들입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

《안돼요, 아저씨!》

봉례가 웨치면서 방으로 들어왔다.

《흥분하셨군요. 리선생님! 사랑으로 가세요. 네?》

기준은 봉례를 따라 일어섰다.

그리고 도로 눕는 허인기에게 《허선생의 말씀 알만 합니다. 다 좋게 해결되겠지요. 그렇게 노력해야겠지요. 조리하세요. 일간 또 들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

13

차코브슨의 권고에 못이겨 바다구경을 하려다가 흔들리는 모터뽀트우에서 《록키》가 폭파당하는 광경을 목격하였던 모리스는 질겁을 해서 륙지로 올라왔었다. 별장으로 돌아가 잠시 숨을 돌리고나자 그는 미국인고문들과 경찰서장들, 부산시장을 불렀다.

그리고 부산의 치안이 잘 보장되지 않는데 대해서 엄격히 말했다. 특히 남부산경찰서장과 시장에게 만약 이번 사건을 단단히 조사하고

범인들을 지체없이 구금하지 못한다면 군정장관의 엄중한 질책이 있을것을 각오하라 했다.

《범인들을 구금한 다음 북조선의 선동을 얼마나 받았으며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알아내야 하오.》

그는 이같이 말했다. 그의 훈시를 들은 졸도들은 찦차를 타고 각각 자기 부서로들 달려갔다.

모리스는 그날로 부산을 떠났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그길로 부산부두에서 일어난 사태를 상세히 보고하기 위해서 직접 군정장관과 만날것을 청원했다. 모리스를 신임할뿐아니라 그를 늘 인격자라고 부르는 군정장관은 쾌히 그를 만나주었다.

《수고했습니다, 미스터 모리스!》

《네, 수고한걸 말씀드리기 전에 부산의 치안상태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각하!》

모리스는 썩은 동태눈같은 눈알을 굴리면서 부산부두의 실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한동안 묵묵히 앉아서 경무부장의 이야기를 듣던 군정장관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였다.

《부산은 남조선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치안이 그래서 어쩝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해놓고 오기는 했으나 어쨌든 나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있습니다. 각하! 그러고 동시에 나는 각하께 조선사람을 보통 식민지사람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동정적으로 대해서는 장차 매우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길거라는것을 말씀드리게 되는바입니다.》

군정장관은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또한 각하께 내가 전부터 제의하던 감옥증설문제가 얼마나 시급한가를 나는 거듭 주장하는바입니다.》

《올 라잇!》

《겸해서 나는 수일안으로 남조선 전 지역의 경찰들을 무장시킬 필요가 있다는것을 제의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라잇, 내 하지중장께 말하겠소. 무장시킬 준비를 하시오.》

《잘 알았습니다. 각하,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올리고저 하는것은 모든 곤난한 사태가 다 북조선공산주의자들때문에 일어나고있다는 바루 그것입니다. 그들을 타격해야 할겁니다.》

군정장관은 역시 모리스가 믿음직한 친구이며 자기가 인격자라고 말한것도 그럴듯하구나 생각했다.

그래 담배연기를 내뿜고있다가 《그렇소. 미스터 모리스! 허지만 그건 사령관각하가 알아하실거요.》라고 말했다.

그러한 답변을 들은 모리스는 자기 본국의 내무대신이나 된듯 한 우쭐한 기분으로 군정장관실에서 나왔다.

사택으로 돌아와서도 모리스는 남조선의 경찰들을 강화하고 무장시킬것과 로동자들, 인민들의 기세를 꺾을 방법을 강구하느라고 적지 않게 머리를 썩였다.

신목사와 함께 관리하는 아연광산에 관한 생각, 이윽고 자기 소유로 될 넓은 과수원속에 서있는 자기의 주택생각들과 함께 노상 그는 치안에 대하여 생각했다.

사택에서는 많은 시간을 침대에 나자빠져서 지냈다. 침대에 누운 그는 언제나 편안했었는데 부산서 돌아온 후부터는 이따금씩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보는 버릇이 생겼다. 통 예기하지 않았던 《록키》의 폭발로 말미암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도록 놀랐던것이 그후 영 가시지 않고 이따금씩 그 화물선앞에 선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개를 흔드는것이였다.

모리스의 체중은 95키로그람이였는데 괴상한 냄새를 풍기는 그 비게덩어리가 침대에 그냥 얹혀있지 않고 고개짓까지 할 때면 침대도 찍찍 불평을 했다.

(원체 로동자는 자본가의 지배를 받기마련인거고 또 로동자도 인간이니까 천당에 가려면 하느님을 믿어야 할게 아닌가? 그런데 자본가도 하느님도 안중에 없으니 대체 어떻게 된 셈판이람?)

모리스는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할수없이 또 십자를 긋는다.

(하느님아버지시여! 로동자들을 구원해주소서. 제발 계급이란 말을 못쓰게 해주소서. 계급이란 하느님과 자본가들을 모독하는 말이오니 아예 사전에서 그 어휘를 삭제하도록 해주소서.)

모리스는 조선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로동자들을 싹 없애버리는 방법을 열심히 생각했다.

한편 차코브슨은 모리스를 배웅하고 돌아와 혼자 궁리를 하다 깊은 잠에 들어버렸다.

이튿날 그는 보수정에 있는 미국상사협회, 경찰서와 시청, 부두창고 이런데로 차를 몰고 다녔다. 그는 화물선의 폭파로 말미암아 받은 손해가 보험의 배상을 다 받아낸다 하더라도 약 5천딸라라는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이번에 실어온 자기의 상품리익의 거의 절반을 집어먹는 막대한 금액이였다.

차코브슨은 더 부산에 머물러있을 일도 없었고 흥미도 없었다. 그래 타다남은 광석을 보세창고(관세지불을 보류시킨 수입품을 넣어두는 창고)에다 쓸어넣고 서울로 돌아왔다.

금화장 자기 사택으로 돌아온 그는 이틀동안 료리사가 해들여오는 료리를 먹고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하고있었다. 휴식하면서 그가 가장 많이 생각한것은 《빨갱이》에 대한 보복, 5천딸라의 손해의 보상이였다.

사흘째 되던 날 군정청으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모리스가 만나자는 전화를 걸어왔다. 차코브슨은 모리스의 방으로 찾아갔다.

《부산에서 실례가 많았습니다. 미스터 모리스!》

《실례없습니다. 손해있습니다. 합중국의 손해 많았습니다.》 하면서 모리스는 려송연을 권했다. 차코브슨은 려송연을 한대 집어 만지작거리다가 불을 붙였다. 잠시 그의 안색을 살피던 모리스는 찬찬히 이야기를 꺼냈다.

《미스터 차코브슨! 당신을 오시라 한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조선에 주둔한 신성한 합중국 군대와 정무원 제현의 신변, 남조선 전체 사회안녕을 위하여 노력하는 본관의 당연한 의무로서 한가지 권고할 일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선량한 사람은 언제나 선량한 사람의 권고를 잘 들을것입니다.》

차코브슨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러시리라 생각하면서… 군정청 법령 제2호에 근거하여 제129호로 승인된 당신의 권한에 속한 동광방직회사공장이 계속 영등포방면의 치안을 교란하고있음을 묵인할수 없는바입니다. 그냥 두었다가 부산부두에서와 같은 사태 일어나면 큰일입니다. 미스터 차코브슨!》

슬슬 려송연연기를 피우면서 차코브슨은 모리스의 말을 분석해서 듣고있었다. 모리스는 신중한 표정과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러니만치 본관으로서는 미스터 차코브슨에게 그 공장 종업원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일시 공장을 폐쇄하는 방법이 어떨지, 바루 그것을 문의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차코브슨은 귀가 번쩍 뜨린듯 바로 앉으면서 《폐쇄?》 하고 입속으로 중얼대더니 둘째손가락으로 책상을 한번 탁 쳤다.

《좋습니다. 나는 치안과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미스터 모리스를 방조할 친선적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은 모리스는 그 동태눈깔같은 눈을 굴리며 기뻐했다.

《매우 감사합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럼 일주일쯤 후에 폐쇄령을 내리겠습니다. 미스터 차코브슨!》

자기 방으로 돌아온 차코브슨은 안락의자에 벌떡 자빠져서 생각했다.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방법이 있는걸 공연히 며칠동안 머리를 썩였단 말야. 그 공장을 파헤치면 적지 않은 재산이 손에 들어올게 아닌

가. 원료와 제품은 둘째요 건물과 기계들을 매도한다면 5천딸라의 손실을 메꿀수 있지 않는가. 됐어!)

잠시후 그는 또 생각했다.

(참 잘됐어. 헌데 매사가 순순하게만 되지는 않아. 대체 관리권을 넘겨준지 몇달 안되는 저 조석우를 어떻게 처치한다? 그게 문제로군. 원료와 제품을 다 먹으라고 할가? 아니, 그것만으로는 말을 안 들을거야. 조선사람치고는 여간 배짱이 아니거던, 그럼 어떻게 한다?)

얼마동안 더 생각에 젖어있던 차코브슨은 전화기를 들었다. 조선사람으로 적임자를 찾고있던 상업부 차장자리가 아직도 비여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아직 비여있다는것을 알자 차코브슨은 죤부장에게로 달려갔다. 거기서 조석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스터 조! 우리 당신과 중요한 협의할 일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 한시간이내로 죤부장실로 오시오. 네, 한시간이내로…》

그날 차코브슨과 죤, 모리스 그리고 조석우는 매우 만족한 회담을 끝냈다. 그중에서도 조석우는 희색이 만면해서 이미 고관이 된 마음으로 군정청을 나왔다.

동광방직공장은 정령감의 말과 같이 가재미 발라먹듯이 다 발라먹고 뼈다귀와 가시만 내버리는것 같은 그러한 운명에 놓여지게 되였다. 쉬이 공장을 페쇄할것이라는 소식이 조석우와 김동호의 대화로부터 옥자를 통하여 섬유산별에까지 전해져왔다.

그러한 소식이 들어온지 한시간도 지나지 않아 분회위원 김인석으로부터 다시 산별산업 건설부로 전화가 왔었다. 타면공들이 원료를 가지러 창고로 갔으나 창고지기는 김동호지배인이 오늘은 원료를 내지 말라고 하면서 열쇠를 빼어갔다는것이였다. 그래 타면공들은 놀게 되였는데 벌써부터 어쩐지 공장을 페쇄할 기색이 떠돌고있다는 이야기였다.

허인기의 문병을 갔던 이튿날 아침 1 600여명의 종업원이 거리로 나

앉게 되였다는 말을 들은 리기준은 너무 기가 막혀서 잠시 말을 못했다.

물론 그같은 문제는 섬유산별에만 국한해있는것은 아니였다. 이미 인천기계공장과 마포제분공장이 그러한 운명에 빠져버렸으며 수일전에는 부산 가다꾸라제사공장의 400여명 종업원이 실업군중으로 돼버렸던것이다. 그러나 공장의 규모로 보나 종업원수로 보나 또 공장에 대한 사회적관심으로 보나 동광방직을 거리낌없이 페쇄시키려는 미군정의 태도는 너무도 오만하고 무도했다.

미군정의 태도는 다만 오만무도하기만 한게 아니였다. 이제는 민족산업을 파탄시키려는 악랄한 의도가 로골적으로 공공연하게 곳곳에서 표시되고있었다. 공장들의 페쇄, 로동자들의 학대는 보통사실들로 돼버리고있었다.

기준은 문득 부산부두에서 목격한 광경을 회상했다.

꺼먼 색안경을 끼고 가죽회초리를 든 미군이 휘파람을 불고 섰다가 아귀와 같이 꽥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갑판에 달려와 승강대를 딛고 부두로 내려가는 로동자의 벌거벗은 잔등을 가죽회초리로 후려갈긴다. 철썩 하는 소리, 까뗌 하고 웨치는 소리, 얻어맞은 벌거벗은 잔등에는 금시 피가 맺히면서 한마리의 뱀이 달라붙기나 한듯이 부풀어오른다. …

이것이 바로 미군정의 태도였다.

어제 전평에서 군정당국으로 보낸 철도종업원들에 관한 성명은 그 성명에서 정했던 24시간이 지났으나 아무 회답이 없었다. 군정당국은 전평의 성명을 어느 바람소리냐는 식으로 무시해버렸던것이였다.

더 참을수 없었다.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9시를 기하여 부산철도관구 종업원 7천여명의 파업을 선두로 남조선 전체 4만 철도종업원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들의 관철을 위하여 일제히 파업으로 들어가지 않을수 없었다.

전체 종업원의 25프로의 해고 감원 반대.
월급제 페지, 일급제 실시 반대.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을 즉시 실시하라!

철도종업원들이 궐기한 사실은 동광방직분회의 활동이 활발해질 직접적인 고무력의 하나로 되였다.

김인석, 고정자들이 산별아지트로 달려왔고 산별간부들은 공장페쇄반대투쟁을 조직할데 대하여 토의를 거듭했다.

전평서기부와 산별의 지시를 받은 리기준은 밤을 새워 선전사업을 준비하고있었다.

14

사무실에서 드새고난 기준은 세면을 하러 가다가 봉례의 부축을 받고 층층대를 올라오고있는 허인기를 발견했다. 기준은 들었던 수건을 목에다 걸고 달려내려가 그의 한팔을 끼였다.

《이렇게 일찍 웬 일이십니까? 병원엘 가시는 길이신가요?》

기준이 부축하면서 물었다.

《전평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허인기는 한마디씩 간신히 대답했다. 옆에서 봉례가 설명했다.

《어제 밤 11시에 나오셨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 길이세요.》

《무슨 회의였나요?》

기준이 또 물었다. 허인기는 대답을 안하는지 못하는지 묵묵히 끌려올라와 자기 의자로 가서 펄썩 주저앉았다. 역시 그저께 밤에 본 그 모습대로 부었고 상기되여있었다. 그런데다 어딘지 모르게 몹시 피로한 기색이 떠돌았다. 기준은 아무데나 눕히고싶어졌다.

《야, 랭수 좀 다우.》

《잡숫게요?》

봉례가 묻자 《아니…》 하고 자기 손수건을 내주었다. 봉례는 세면장으로 달려가 수건을 적셔가지고 돌아왔다. 허인기는 그것을 대머리진 머리우에다 얹었다. 그리고 잠시 또 묵묵히 앉았다가 《간밤에 총파업투쟁위원회가 조직됐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차곡차곡 접은 파업선언서를 꺼냈다. 리기준은 그것을 두손으로 받아 펴놓고 읽기 시작했다. 허봉례도 거기다 고개를 박았다.

…동포여, 궐기하자! 생존을 위하여 싸울 때가 왔다. 곡창 남조선에 쌀이 없어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폭등하여 백만천만의 인민대중이 기아에 직면하고있다. 공장, 직장에서 일하는 로동자와 사무원, 소시민의 생활이 기아상태에 빠졌을뿐만아니라 수백만명의 전재민과 실업자대중은 초근목피로 호구할수도 없는 절망적사태에 도달하고있으며 걸식자는 나날이 격증되고 기아의 결과인 부황은 전 인민대중을 엄습하고있다. 전기, 금속, 섬유, 화학, 출판, 광산 등의 기업은 그 대부분이 소위 관리인이라는 반역모리배에게 롱락되고있으며 원료, 자재의 편재와 결핍, 생활의욕의 결여, 경영기술의 저렬… 외국상품의 류입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산업이 파멸에 함입하고있다. 공장페쇄와 조업축소는 도처에서 감행되고 해고와 로동조건의 악화로 실업자는 나날이 격증되고있으며 생활의 토대는 근저로부터 파괴되고있다.

그리고 정치적령역에 있어서는 소위 민주주의적건설을 운위하면서 정치야욕에 눈이 어두워 날뛰는 일련의 반동거두들의 모략과 책동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그들에게 사촉되고있는 일부 편당적반동경찰과 테로단은 세계적으로 인정되고있는 공장, 직장내의 로동자, 사무원의 조직활동을 탄압하고 진정한 애국자들을 살상, 검거, 투옥, 고문, 구타 등 만행을 자행하고있으며 앞으로 제거할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

체, 언론기관 일군들의 명단을 비밀리에 만들고있다. 국립대학안의 강행으로 학원의 자유는 말살되고 진보적인 제 신문은 페쇄되여 언론의 자유도 또한 박탈되고있다. 이렇게 하여 생활고는 극도에 달하고 기아는 전 남조선을 엄습하고있으며 사회적불안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정치적자유는 여지없이 짓밟히고 우리 민족 반만년력사상 미증유의 절망적 암흑시대가 초래되고있다.

우리는 참을대로 참아왔다. 그렇다. 이제는 참을래야 더 참을수가 없게 되였다. 팔을 끼고 앉아서 아사를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위하여 싸우느냐를 택할 때가 왔다. 우리는 단연코 싸움을 택하였다. 우리 남부조선의 로동자와 사무원, 전 근로인민대중은 기아와 테로의 전률의 구렁텅이에서 전민족을 구출하고 생존과 자유의 길을 열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하여 남부조선 4만 철도로동자를 선두로 사생존망의 일대 민족적투쟁을 시작한다. 그 여하한 탄압, 여하한 권모술책, 여하한 감언리설에도 굴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우리는 피투성이의 투쟁을 전개한다.

…3천만동포여! 호응하자! 손을 굳게 잡고 같이 나가자!

우리의 조국, 이 아름다운 3천리강토와 남조선동포의 생존을 위하여 피투성이의 투쟁을 할 때가 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소리높이 부르짖는다.

－ 쌀을 달라! 로동자와 사무원, 모든 시민에게 하루 3홉이상 배급하라!

－ 물가폭등에 따라서 임금을 인상하라!

－ 전재민과 실업자에게 일과 집과 쌀을 달라!

－ 공장페쇄 절대반대!

－ 로동운동의 절대자유 옹호!

－ 일체 반동테로 배격!

－ 북조선과 같은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을 즉시 실시하라!

－ 검거투옥중의 민주주의운동자를 즉시 석방하라!

－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라!

－ 학원의 자유를 무시하는 《국대안》을 즉시 철회하라!

－ 정간중인 세 신문을 즉시 복간시키고 그 간부들을 석방하라!

…

숨소리도 죽이고 선언서를 읽고난 두사람은 한편 흥분하면서도 제각기 자기의 앞으로의 사업을 생각하느라고 묵묵했다. 키큰 기자와 뒤이어 뚱뚱한 기자가 출근했다. 그들이 출근하자 허인기는 문병인사는 받지도 않고 선언서들을 읽으라고 했다.

《사태가 묘하게 전개되고있습니다.》

허인기가 기준에게 말했다.

《며칠전 부산부두분회가 또 습격을 받았답니다.》

《무어요?》

기준은 락담하였다.

《송 아무개라고 있었다지요?》

《네, <대회파>지요.》

《그자들이 대중신문에다 폭로했다는군요.》

《흥, 녹았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기준의 머리속에는 《대장》, 길주, 제주도출신, 그외의 부두분회동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잠시 쉬였다가 허인기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부두에다 그저께 파업지시를 내렸다는 거기에 더욱 엄중한게 있습니다. 부두는 철도보다 하루 먼저 파업했습니다. 전평에서도 몰랐습니다. 산별중앙에서도 몰랐습니다.》

《부산평의회는요?》

《부산평의회는 직접 당의 지시를 받았다는데 그건 당의 지시가 아니라 어느 개인들의 지시였습니다. 그걸 알아봐야 할겁니다. 알겠습니

까? 기준동무, <대회파>는 자기세력을 뿌리박기 위해서 분회를 폭로했고 어느 개인들은 <대회파>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부두로동자들의 분노를 리용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허인기는 점점 상기가 되였다. 봉례는 수건을 다시 적셔왔고 기준은 묵묵히 앉아있기만 했다.

한참후 허인기는 또 입을 벌렸다.

《그러니까 로동자들은 앞으로는 미군의 총탄과 맞서고 좌우로는 <대회파>와 어느 개인들의 공격을 받고있는셈이지요. 좋습니다! 이미 부두와 철도가 일어났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바에야 이제부터라도 잘 싸워야지요. …》

그때 선언서를 다 읽고난 캡을 쓴 키큰 기자가 굵은 목소리로 《곧 총파업으로 들어가겠군. 됐어, 이왕이면 하루라도 속히 터져야지.》라고 웨쳤다.

《하루속히라니? 김동무!》

허인기가 탄했다.

《이제부터 잘 싸우고 총파업이 물샐틈없이 되려면…》

그는 또 잠간 쉬였다가 말을 이었다.

《로동자들이 이달치 임금을 다 받은 후에 총파업이 단행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추수도 좀더 진행될거니까 농민들의 투쟁과도 긴밀해질거고…》

모두들 정신을 집중해서 듣고있었다. 허인기는 열심히 말했다.

《사물을 옳게 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로동자들의 생활이 제일 곤난한 그믐께가 좋지 않기때문에 10월초에 단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몇사람은 <일없어, 당원기자들은 알고있을 필요가 있어.>라고 나오고있고 리승엽과 그 졸도들은 강압적으로 당장 하자는겁니다. 그래 할수없이 중요한 요 며칠만 넘겨놓고 파업으로 들어가게 됐습…》 하다가 허인기는 별안간 장의자가 놓인데로 가서 벌떡 누웠다.

《봉례동무! 나 자동차 좀 불러주오. 안되겠소.》

봉례와 키큰 기자가 달려내려갔다. 기준은 그의 맥박을 짚어보았는데 그렇게 불규칙한 맥을 짚기는 처음이라 여간 걱정스럽지 않았다.

차가 왔다. 허인기는 기자들에게 부축을 받고 나가면서 《좌우간 신문의 역할이 큽니다. 오늘부터는 네사람의 기자가 40명분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파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김동무는 곧 공장으로 가오. 그 선언서가 오늘안으로 인쇄되여야 하오. 서기부와 련락을 갖소.》 하고 주의를 주었다.

리기준은 섬유산별 위원장이 나오자 총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캐물었다. 그리고 허인기의 말이 옳다는것을 스스로 확인할수 있었다.

4만 철도종업원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 사실은 모리스로 하여금 안절부절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판에 하지중장이 그를 불렀다. 그는 차렷자세로 들어와 선 모리스에게 래일 즉 25일부터 남조선 전 지역에서 총파업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전했다.(총파업투쟁위원회의 결정은 28일이였으나 하지는 분명히 25일이라고 발음했었다.)

《그에 대처할 준비가 곧 되겠는가?》

하지가 물었다.

《네, 이미 갖추어져있습니다.》

모리스는 공손히 대답했다.

《처음부터 총소리를 내지는 마오.》

《알겠습니다, 각하! 25일 총파업을 단행한다는것은 부하들에게 공표해도 좋습니까?》

이렇게 묻자 《아무에게도 그것을 입밖에 내서는 안되오. 그것을 미리 아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 책임지오.》라고 하지는 엄격히 말했다.

《하느님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모리스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어서 《그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하지는 더욱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그걸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소. 파업이 확대될것을 예견하고 응당한 대책을 세우라고 명령할뿐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모리스는 황송한 마음과 하지를 직접 만난 흥분을 누르지 못하고 물러나왔다.
그날 저녁 모리스는 매우 바빴지만 군정청 고관들과 일부 사회인사들이 참가하게 된 초대연에 가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김성숙재벌을 비롯한 몇몇 예속자본가와 지주들이 새로 취임한 브라운군정장관을 환영하여 조선호텔에서 베푼 환영연이였다. 거기서 모리스는 장택성을 만나자 그를 별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수도경찰청장을 옆에 앉히자 다짜고짜로 물었다.
《당신은 철도파업이 더 악화된다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어떤 대책을 세울수 있느냐 말이지요?》
《오- 그 문제 말입니까?》
이렇게 양키들식으로 말한 장택성은 차코브슨의 충견 쁘레이버처럼 잠시 으르렁대다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나는 언제나 상하작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하작전이라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모리스는 뿌연 눈알을 굴리면서 재차 물었다.
장택성은 의기양양한 어조로 《우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받고 하는 작전이지요. 탄압을 하는 한편 방해자를 들여보내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쓸만 한 방해자들을 준비했습니까?》
《대한로총을 동원시킵시다.》
《그 대한로총 나 번번이 실망했습니다. 미스터 장! 대한로총이라면

그만두는게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이시라면 또 검거전술을 쓸수밖에 없겠군요.》
장택성은 퉁명스럽게 말하고 한번 으르릉 소리를 냈다. 모리스는 그 말도 신통치 않아했다.
《검거전술로도 안됩니다. 파업본부를 일제히 수색할 도리가 없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장택성은 잡아뗴듯이 말했다.
《철도로동자들을 얕봐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다른 로동자들보다도 세고 인원도 많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여하튼 단단히 맛을 보여야 하겠는데…》
《그렇다면 탄환을 열개만 허비합시다그려!》
그 대답에 모리스는 조선사람이 모두 장택성같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음흉한 그는 그러한 답변도 만족하지 않았다.
《탄환 열개라구요? 글쎄 지금이라면 그걸로도 될는지 모르지만 만약 대포를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될 경우가 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장택성은 잠시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두꺼운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모리스는 말을 이었다.
《무기로 사태를 수습하고싶지 않아서 묻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미스터 장!》
음흉한 정도가 모리스만 못하지 않는 장택성은 모리스가 자기를 떠보고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대포이야기가 무엇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인지 그는 그날 저녁 술이 취해서까지 생각해봤으나 짚이는데가 없었다.
이튿날 시내의 십여개 공장이 한꺼번에 파업을 했고 전차종업원들까지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 《남조선에도 북조선과 같은 민

주개혁을 실시하라!》 하는 정치적요구조건을 내걸고 9월 30일까지 군정당국의 회답을 요구하게 되자 장택성은 그제야 두꺼운 입술에 미소를 띠웠다.

(모리스가 총파업을 미리 알았었구나, 제법인데… 수도경찰청장도 한대 먹었구나!)

이같이 생각하자 슬그머니 불안해졌다. 미군정이 자기를 믿지 않는것 같았고 자기를 무시하는것 같았기때문이였다.

(이러다간 수도청장이 허수아비가 되겠다. 빌어먹을, 그렇다면 이번에야 수완을 좀 보여야지. 어디 선수를 써보자!)

그는 종을 눌렀다. 비서가 들어오자 자기 의자에 벌떡 자빠진채 《사찰과장을 부르오.》 하고 말했다.

사찰과장 홍종식은 그후에도 조석우를 엑쓰구락부에서 수차 만났다. 그를 만날 때마다 홍종식은 실업계로 나가려는 자기의 희망을 귀띔했었고 어떤 때는 아주 위협적으로 《그래 한군데 알선해주지 않겠소?》 하고 요구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차차 조석우가 자기를 만나는것을 긴치않게 여기는것 같았고 그런데다 소식도 없이 엑쓰구락부를 다른데로 옮겼을뿐아니라 하루는 그를 군정청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무안까지 당했던것이다. 조석우는 한마디도 딴 이야기는 없이 덮어놓고 영어를 배우라고만 했다.

동광방직을 팔아먹게 된데다 은행과 고무공장의 주권이 있고 게다가 한자리까지 하게 되여 배가 잔뜩 부른 조석우를 그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홍종식은 그 안경쟁이로부터 발을 끊었다.

그러고나니 한동안 마음이 들떴던 자기가 쑥스럽기 한없었고 문득 일본시대에 잘살던 일이 생각나서 슬그머니 부아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는 사찰과장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야겠다는 생각이였다. 그래 홍종식은 더욱 장택성의 눈에 들도록 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장택성이 부르는것을 알자 홍종식은 한달음에 청장실로 달려갔다.

《거기 앉소.》

《하, 무슨 분부가 계시오니까?》

홍종식은 선채로 물었다.

《에, 전평간부들을 총검거한다면 말이요…》

《하, 네!》

《몇명이나 되고 몇시간이면 되겠소?》

장택성은 차코브슨의 쁘레이버처럼 두팔을 책상에다 턱 버티고 앉아서 물었다.

《저 산별로조까지 합쳐서입니까?》

《그렇소.》

홍종식은 어째 미리 이런것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았던가, 역시 그동안 마음이 들떠서 그랬군 하는 생각에 오금이 찌릿찌릿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하여간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때문에 대답했다.

《하, 저… 백십칠명입니다. 네, 그리고 일주야면 검거할수 있습니다. 네!》

《음.》

장택성은 잠시 생각에 잠겨갔다. 그러는 동안 홍종식은 가슴이 방망이질을 했다. 이 억지가 세고 심술이 여간 아닌 청장의 눈밖에 난다면 언제인가 그가 위협하던것처럼 《대한로총》 서무일이나 할수밖에 없게 될것이기때문이였다. 그런것을 생각하느라고 홍종식은 청장이 다음에 또 무엇인지 질문한것을 잘 듣지 못했다.

《하, 네? 지금 제 귀가 잠간… 네, 무어라고 하셨는지?》

《당장 사찰과원을 몇명이나 동원할수 있는가 말이요?》

《당장 말입니까? 에― 또, 천명은 넉넉히 동원할수 있습니다.》

《경비대는?》

《네, 그건 저의 권한하에 있지 않으므로 잘 모르겠습니다.》

《좋소, 나가오.》

홍종식을 내보낸 장택성은 모리스에게 생색을 내보이려는 생각 즉

전평조직을 와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그것을 곧 실천에 옮길수가 없었다. 군정청의 방침도 좀더 알아봐야겠고 세계여론도 무시할수 없으며 또 북조선에서 어떻게 문제를 세울는지도 고려해봐야 했기때문이였다.

(북조선만 없어도 되겠는데… 매사가 북조선이 저쪽에 있기때문에 이렇게 걸리거던, 빌어먹을… 이왕 들어오는바에야 미국이 아주 북조선까지 점령했더라면 좋았는걸!)

이따위 생각을 열심히 계속하다가 모리스의 전화를 받았다. 경찰을 무장시킬데 대한 협의를 하겠으니 곧 군정청으로 들어오라는 전화였다.

그날 저녁 홍종식은 사람을 잡아들이고 치고 때리고 한 하루치 보고를 끝내고 나오다가 수도경찰청앞에서 우연히 고향친구를 만났다. 어려서부터 경찰에 붙어먹다가 경부까지 됐으며 해방이 되자 남조선으로 도망쳐와서 지금은 서북청년회의 두목노릇을 하는 절친한 술친구였다.

《사시미로 한잔 하는게 제일이지!》

그 친구가 말을 꺼냈다.

《아무렴! 선천읍의 우로꼬라는 료리집하구 료리가 생각나나?》

《빌어먹을, 지금은 다 망했겠다.》

홍종식은 그 친구도 가진 돈이 없다고 하므로 외상으로라도 한잔 할 결심이 생겼다.

그들은 명동뒤골목에다 조선사람이 차려놓은 일본료리집으로 갔다. 그 료리집 구석방에서 두어시간 가까이 이것저것 청구해서 술을 만족하게 마신 그들은 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서 그만 일어나기로 했다.

구석방에서 나와 나란히 엎드려 신을 신으려 할 때 홍종식은 《이게 무어야?》 하면서 신으려던 구두에서 발을 빼더니 구두속에서 무엇인지 꺼냈다. 팔팔한 한장의 종이쪽이였다.

《무어?》 하고 홍종식이 웨쳤다.

《전체 인민들이여, 총파업을 성원하자! 아니, 이게 삐라 아닌가. 무어?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구, 민주개혁을 실시하라구? 아니, 이게…》

《빨갱이가 들어왔댔군.》

옆의 친구가 말했다. 그때 홍종식의 머리속에는 (옳지, 좋은 트집거리가 생겼군!)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신을 신고나자 중얼댔다.

《이 집에 빨갱이가 있어.》

《밖에서 들어왔겠지? 문을 닫아걸라구 해. 어서.》

《안야, 가만있게. 빨갱이가 이 집에 있단 말야.》 하면서 홍종식은 매대로 나가 오만상을 찌프리고 주인을 불렀다.

누구냐고 하면서 성가시다는 표정으로 나왔던 와이샤쯔바람의 주인은 고급정복제모의 호출자를 보자 허리를 굽혔다.

《당신네 집 일군이 몇이요?》

《네, 모두 해서 열한명입니다.》

《그속에 빨갱이가 없소?》 하고 물었는데 주인은 제 얼굴빛부터 빨개져서 더듬거리다가 《원, 천만의 말씀을…》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홍종식은 꽥 소리를 질렀다.

《정신차려.》

주인은 부들부들 떨었다.

《당신 집에서 이런 삐라가 나왔단 말야. 이건 당신네 집에서 일하는 사람속에 어떤자가 한 일이란 말야. 알겠는가?》

《네, 네!》

《만약 당신이 그 빨갱이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이 다 책임져야 해. 당신 이름은 뭐야?》 하면서 홍종식은 수첩을 꺼내들었다.

《김아무입니다.》

《고향은?》

《경상도 마산입니다.》

《래일 수도청으로 오란 말야.》

이렇게 자기 《사업》을 끝낸 연후에 음식값을 계산하자고 했으나 주인은 제발 천천히 치러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수밖에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 홍종식은 그 친구에게 말했다.

《이 삐라는 밖에서 들어왔거나 손님으로 온 사람이 넣은거야.》

《그렇다니까, 난 취했네!》

그들은 명동거리로 빠져나와 네거리를 향해 갔다. 적지 않게 술을 마신 홍종식은 좀 떨떨했는데 옆친구가 팔굽으로 쿡 찌르면서 《저것 봐.》라고 했다.

홍종식은 백메터쯤 떨어진 로상에서 무엇인지 비둘기떼처럼 공중으로 날으는것을 보았다.

삐라였다.

《총파업 만세!》

굵은 목청들이 웨쳤다. 그리고 삐라는 펄펄 군중의 머리우로 떨어졌다. 홍종식은 피뜩 술이 깨버렸다. 다음순간 그는 목청껏 《빨갱이 잡아라.》 하고 웨치면서 밀려드는 사람들을 헤치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삐라가 떨어진 근처로 달려들면서 《누구야, 누구?》 했으나 군중들은 모두 모르는척 하고 지나가기만 했다. 뿌려진 삐라도 어느 틈에인지 싹 없어졌다. 모두 주어넣었구나 하고 생각한 그는 만만해보이는 사람을 찾았다.

그때 누구인지 《저쪽으로 도망쳐갑니다.》 하고 어스름한 골목안을 가리켰다.

과연 한두명이 급히 사라져가는것 같아서 홍종식은 권총을 빼들고 그 골목으로 뛰여들어갔다. 한 10메터쯤 쫓아갔을 때였다. 무엇인지 뛰여가는 그의 이마를 으스러지도록 후려갈겼다. 그는 처마에 매달린 중국료리집간판을 치받았던것이다. 그는 신음소리 한마디 못한채 땅바닥에 쓰러져버렸으나 이내 정신을 차려야 했다. 정신을 차려 고개를 들고 손에 들었던 권총의 방아쇠를 두번 당겼다. 요란한 총소리가 골목안에서 헛되이 울렸다.

15

가을비가 질척질척 내리는데 우산도 없이 혼자 비를 맞으며 걸어간다는것은 쓸쓸한 일이였다. 랭기가 넙적다리까지 스며들었고 주머니에 찌른 두손도 찼다.

기준은 어제 아침 허인기를 자동차에 태워보낸 후부터 어쩐지 오늘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다 오늘은 삼각지근처 림시아지트에서 동광방직분회 위원들과 만나던 시각부터 이렇게 날씨까지 궂어져서 더군다나 쓸쓸했다.

기준이 본 허인기는 처음은 락관주의자였으며 다음에는 락관주의자인 동시에 울분가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병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순전히 울분가로 돼버렸다. 그러고보니 그는 결국 락관주의자가 아니였다. 기준은 전날 아침 허인기의 이야기를 한마디한마디 가슴속에 새겨넣었다. 그의 울분에 공감했으며 자기가 허인기라 하더라도 울화통이 터질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기준은 그에게서 한마디도 락관적인 언사를 듣지 못했다. 그래서 기준은 정작 쓸쓸했다.

(어찌하여 허인기는 옳지 않은것과 싸울 구체적방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가? 어떻게 싸워야 한단 말인가? 병중인 그에게 그것까지 요구하는건 무리한 일일가? 아니, 그것을 말하지 못하기때문에 그의 락관주의가 자취를 감춘게 아닐가?)

기준은 허인기를 믿고 위하는 마음이 컸기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비슷한 감정이나 요구도 그만큼 더욱 컸다.

(유상렬이라든가 일부 사람의 견해가 잘못인것은 짐작할수 있다. 그

러나 어찌하여 그는 마치 《대회파》들처럼 사람들앞에서 그것을 폭로한단 말인가? 지금 남조선의 전체 로동자들이 궐기하지 않았는가. 동광방직만 해도 방금 모든 위원들이 일치하게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공장을 사수하자고 결의하지 않았는가?)

비가 너무 쭈룩쭈룩 쏟아져서 기준은 어느 집 처마밑으로 들어섰다. 락수가 바지가랭이에다 흙탕물을 튕기는것을 내려다보고있는데 《가을비가 너무 오는걸.》 하면서 귀에 익은 음성이 기준의 옆으로 다가왔다. 정령감이였다.

《아이고, 오래간만이십니다.》

《어— 리선생 아니시요?》 하며 옆에 멈춰선 정령감에게서 모주냄새가 풍겼다. 그리고 턱수염에 흰 막걸리방울이 하나 구슬처럼 달려있었다.

《한번 찾아뵌다면서두 바뻐서 실례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보는게 더 반갑수다.》

정령감은 골통대를 빨면서 말했다.

《난 막걸리를 한잔 했는데 리선생, 저리로 갑시다.》

《아닙니다. 점심을 했습니다.》

《점심때가 벌써 언제라구…》

《아니올시다. 형규 잘 있지요? 소식은 늘 듣지만 거기서 나온 뒤 형규도 한번밖에 못 만났는걸요.》

《그것도 무언지 분주하더군.》

《저녁때면 만날수 있나요?》

《만나보시겠소?》

《꼭 한번 만나야겠습니다.》

《비도 뜸하니 우리에게로 갑시다.》

기준은 시계를 꺼내보고 정령감을 따라섰다. 정령감은 걸어가면서 한두마디씩 이야기를 했다. 그제야 비로소 기준은 그들의 소식을 들었다.

정형규가 류치장에서 나온 뒤 로량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정령감은 룡산철길뚝옆의 오막살이집으로 옮겨왔었다. 그리고 로량진 길가에 있던 신기료방을 뜯어 달구지에 실어다가 룡산역에서 오백메터쯤 한강쪽으로 간 인가가 건성드뭇한 길가에다 옮겨세웠던것이다.

거기서 정령감은 다시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곳은 신기료방으로만 씌여지지 않고 형규의 련락처를 겸한 모양이였다.

《4시부터 5시사이에 나옵디다.》

정령감은 신기료방 빈지(여러짝의 문을 차례로 맞추거나 뽑으면서 여닫게 된 문 또는 그 하나하나의 문짝)를 열면서 말했다. 로량진에 있던 방보다 다소 널직해서 좋았다.

비가 멎었다. 사람왕래가 많아지자 정령감은 헌 구두 한짝을 못탕에 걸고 탕탕 징을 박아댔다.

징을 박고있을 때 신사차림의 젊은 사람이 불쑥 나타나더니 버쩍 구두바닥을 들어보이면서 《뒤축에다 고무를 대고 미국구두처럼 도려줄수 없소?》 하고 떠들었다.

《미국구두처럼? 난 그런 재간이 없소이다.》

정령감은 외면을 했다.

《어째 없단 말이요?》

《없으니까 없지. 어째란 말이 무어요?》

《이런 늙은이두…》

외면을 했던 정령감이 신사차림의 그를 면바로 쳐다보았다. 눈섭이 치올랐고 삐죽한 턱수염은 그를 치받을듯 했다.

《늙은이라니? 난 남의 신세를 입은 일이 없어. 늙었으니 로형이 어쩌겠다는거요, 대체?》

신사양복쟁이는 《또, 늙은이두…》 하더니 활개짓을 하며 가버렸다.

《됨됨이가 벌써 미국놈갈군…》

정령감은 담배를 눌러 담으면서 두덜댔다.

《저런것들이 다 대한로총인지 무언지 그따위 패들이란 말야. 바루 저런것들이 건국을 방해하고 다닌단 말야.》

《후레자식이로군요.》

기준은 이렇게 말하면서 또 담배를 한대 꺼냈다.

네시 반부터 한시간이나 기다렸으나 그날따라 형규는 나오지 않았다. 여섯시까지 사무실로 돌아가야 할 기준은 더 기다릴수가 없었다.

《기다리다가 갔다고 말씀 전해주십시오. 그러고 래일이고 모레고 다시한번 이 시간에 들리겠다고 해주십시오.》

《거 어쩐셈이야, 그럼 또 오시오.》

정령감은 기준을 따라나오면서 섭섭해했다.

기준은 급히 걸었다. 구름이 걷힌 서쪽하늘에는 노을이 비끼고있었다. 삼각지 세거리로 나와 무심코 신문파는 매대앞을 지나던 기준은 그 매대앞이 여느날보다도 한산한것을 알았다. 단지 한 아이만이 방울을 흔들고있었다. 어떤 남자가 그 아이에게로 다가서더니 물었다.

《<대동신문>밖에 없니?》

시민들은 반동중에서도 극악한 그 테로단의 신문을 잘 사지 않았다.

《다른건 안 나와요. <대동신문> 사세요.》

《서울의 출판로동자들이 일제 파업을 했답니다.》

어떤 청년이 옆에서 알려주었다.

《일제 파업이요?》

신문을 사려던 남자가 물었다.

《<대동신문>은 인천에서 찍거든요.》

《오-라!》

그들은 흩어져갔다. 기준은 어떻게 된셈인지 알수 없었다.

(월말이나 래달에 단행하기로 됐댔는데? 오늘이 며칠인가? 25일이지, 어제가 24일이니까 오늘은 25일이 틀림없지. 그리고 다른건 다 그대로 있는데… 전차도 이렇게 달리고있는데 왜 출판만 먼저 파업을 했을가?)

리기준은 사무실로 달려올라갔다. 그리고 우선 편집부로 가보았으나 남자기자들끼리만 떠들어대고있었다. 그는 산별위원장실로 가보았다.

산별위원장은 혼자 앉아서 바른팔로 턱을 괴고 무엇인지 생각에 잠겨있었다. 기준이가 들어오자 그는 동광방직분회위원회의 소식을 물었다. 기준은 자세한 보고를 했다. 보고를 끝낸 그는 산별위원장에게 물었다.

《벌써 총파업이 시작된겁니까?》

그는 대답이 없었다. 기준은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틀동안에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산별위원장은 입을 열었다.

《월말이나 래달부터 총파업으로 들어가기로 된게 오늘과 26일 아침으로 당겨졌답니다. 투쟁위원회는 바지저고리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투쟁위원회의 한사람인 나도 바지저고리지요. 왜냐구요? 투쟁위원회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파업이 시작되였으니 바지저고리보다 나은게 무엇이겠습니까?》

《어째 그렇게 됐나요?》

《그걸 모르겠단 말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출판로동자들까지 벌써 일제 파업으로 들어갔으니 무슨노릇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내에는 인천에서 찍어오는 대한로총의 기관지 <대동신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내의 입과 귀를 그 민족반역자들의 악질신문이 독점하게 됐습니다. 사태는 바루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어쩐 영문인지 몰라서 기준은 잠시 덤덤히 앉아있었다. 산별위원장은 벌떡 의자에서 일어나 방긋이 열린 문을 꾹 닫더니 이쪽으로 걸어오면서 말했다.

《이런 일은 파업력사에 없을겁니다. 있을수가 없지요.》

그는 어성을 높였다.

《글쎄 상식으로도 그렇잖은가 말입니다. 출판이야 파업을 추동시켜놓고 그리고 비밀출판의 준비도 갖추어놓고 연후에 마지막으로 파업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맨 첫날부터 출판이 파업해버렸으니 일이 꺼꾸로 되지 않았나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선전수단을 죽여놓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꺼꾸로 됐지요. 뒤죽박죽이지요.》

《대체 누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걸 말씀해주실수 없습니까?》

기준은 이렇게 물었다.

늘 싱글싱글하던 그의 입가가 부르르 떨렸다. 기준은 그러한 산별위원장을 본 일이 없었다.

《알아봐야 합니다. 꼭 알아봐야지요. 총파업투쟁위원회를 무시하고 그 기능을 상실케 하고 직접 로동자들에게 파업을 하게 한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꼭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위원회를 무시하거나 파괴시킬수도 있습니다. 투쟁위원회가 반동이나 기회주의자들의 손아귀로 넘어갔을 때는 파괴시켜야지요. 허지만 우리의 계획은 정당했습니다. 이 정당한 계획이 무시당하고말았단 말입니다.》

기준은 더 물어볼것이 없었다. 다만 우두머니 앉아서 쓴 담배만 빨아댔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 이튿날 사업조직을 하고있는데 키큰 기자가 역시 캡을 쓴채로 기준에게로 왔다.

《파업소식 들으셨지요? 허선생께 소식을 전해야겠는데… 봉례동무는 일찍 들어가고 야단인데요.》

《봉례동무가 출판로조의 파업소식을 모르고 들어갔는가요?》

《모를겁니다. 그러고 허선생이 나오실만 하거든 래일 8시에 나오시라는 전평서기부의 련락이 있었는데요. 댁이 어디쯤이예요?》

잠시 생각다가 기준은 《그 말씀뿐이라면 제가 전해드리지요.》라고 말했다. 키큰 기자는 우선 그 말만 전해달라고 하면서 거듭거듭 부탁

하는것이였다.

그날 허인기는 중태에 빠져있었다. 오후에도 의사가 두번씩이나 다녀갔으며 기준이 들어갔을 때 그의 부인은 발치에서 다리를 주물러주었고 봉례는 그의 머리맡에서 물수건을 갈아대주고있었다. 방안에서는 퀴퀴한 냄새와 지린내가 떠돌았다.

두번째로 찾아온 리기준에게서 시내의 출판로동자들이 오늘부터 일제히 파업으로 들어갔으며 오늘치 전평신문은 판까지 다 짜놓았으나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을 감고있던 허인기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마치 기준에게 문책하듯이 《어째서?》 하고 눈을 부릅떴다.

전날보다도 더 불편해보이는 그는 눈시울의 주름살까지 펴지도록 부었으며 안색은 불긋불긋했다. 기준은 그런 소식을 알리지 않는게 좋았는걸 자기가 경솔하지나 않았나 해서 가슴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왕 말을 꺼낸바에야 이야기를 아무릴수밖에 없었다.

《섬유산별 위원장동무는 투위에서도 모른다고 하면서 투위가 바지저고리가 됐다고 하더군요.》

《다른 산별도 파업으로 들어갔나요?》

봉례가 물었다.

《오늘 밤과 래일 다 들어간답니다.》

《오늘이 며칠이냐?》

허인기가 물었다.

《25일이예요.》

봉례가 이같이 대답하자 그는 주먹을 불끈 쥐였다. 그리고는 《월급들도 못 받게… 요 며칠이 한달맞잡이인데…》 하고는 일어서려 했다.

《왜 일어서요, 네?》

세사람이 함께 말리자 그는 도로 주저앉았다. 허인기는 주저앉아서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술을 부르르 떨기만 했다.

《그럼 <대동신문>만 나오겠지?》

《그렇게 됐습니다.》

《잘됐다!》 하며 자리에 쓰러지더니 쓰러진채로 한마디씩 차근차근히 말했다.

《로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려 한다, 그런데… 전평신문은… 로동자의 신문은… 그 로동자들을… 선동하지 않고… 보이코트했다, 보이코트시켰다.》

별안간 허인기는 다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술취한 사람처럼 《보이코트시켰구나.》 하고 고함을 쳤다. 그는 벽에 걸린 스프링을 주어입었다. 부인과 봉례가 그의 량팔을 잡았다. 기준도 일어섰다.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타일렀으나 이미 그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였다. 량팔을 단단히 잡히자 발길로 힘껏 방문을 내질렀다. 우지끈 하고 방문이 부서지고 창호지가 찢기였다. 그 다음 그는 방문 부서지는 소리보다 몇갑절 요란한 음성으로 밖을 향하여 고함쳤다.

《개, 개새끼들아ㅡ 썩어져라ㅡ》

고함을 치고난 다음순간 그는 마치 고목이 쓰러지듯이 철썩 방바닥에 자빠졌다. 그리고는 다시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이 일시에 그 기능을 멈추었던것이다.

7년동안의 벅찬 력사가 흐른 후 사람들은 남조선의 9월총파업이 짐짓 날자를 앞당겨 25일 발발할것을 하지중장과 모리스만은 예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것이였으나 허인기는 그것을 모른채 그냥 운명하고말았다.

16

부인이랑 유가족들이 있기는 했으나 봉례는 자연 상주와 다름없이

초종을 치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례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했다. 그러나 그게 문제는 아니였다. 죽은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 내가게 마련이 아닌가. …

그에게서 많은것을 배우며 자라났고 아버지나 다름없이 그 그늘밑에서 살아오다싶이 한 봉례에게 있어서 허인기의 죽음은 한없는 슬픔을 자아냈다. 부인이 통곡을 하면 봉례는 한사코 말렸으나 말리는 자신은 속으로 계속 울고있었다. 그냥 신병으로 돌아갔어도 덜 애석하겠으나 치솟는 울화에 못 견디여 비장한 최후를 마친것을 생각하면 울어도 울어도 시원치 않을것 같았다. 그의 속눈섭은 노상 젖어있었고 은행껍질같던 눈두덩은 어느 사이엔지 퉁퉁 부었다.

(울기만 해서는 안된다. 비록 내 능력이 미약하지만 옳은 지도를 받으면서 싸워야 한다. 그것이 아저씨의 원한을 풀어주는 길이 아니냐!)

봉례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울었다.

차차 봉례는 사물을 랭정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더우기 이튿날 아침 여덟시부터 열린 전평서기부 긴급회의에서 각 산별 문화부 일군들과 편집부 일군들의 거의 3분의 2를 파업현장으로 파견할것이 론의되였고 그 자리에서 자기는 동광방직, 리기준은 철도기관구로 나갈것이 결정되였다는 소식을 그날 저녁 조상하러 온 동무들에게서 듣자 봉례는 한층 정신을 가다듬었다.

《공장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봉례는 서기부 동무에게 물었다.

《주로 신문발간입니다. 전평신문이 살았어도 매개 쟁의단들은 자기의 신문을 가져야 할텐데 항차 전평신문도 못 나오게 됐으니 급하게 됐지요.》

《…》

《허봉례동무야 사업하던 공장에 들어가서 하시는셈이지요 뭐.》

이제야말로 정작 어려운 가시덤불의 길이 자기를 기다리고있다고 봉례는 생각했다. 그 길은 허인기의 울화통을 터친 그자들, 과거에는 더럽

게 살아왔으며 현재에는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음모책동을 일삼는 미제의 주구들과 변절자들이 득실거리는 속을 뚫고나가는 길이였다. 바로 그러한 길을 봉례는 마치 혼자 걸어가야 하는것처럼 생각되였다. 그러자 찬바람을 마신듯 머리속이 랭랭해졌다.

저녁무렵 유상렬이가 조상을 왔을 때 봉례는 가슴이 선뜩했다. 유상렬은 사회경제연구회에서부터 그날까지 봉례를 놀라게 하는 사람이였다. 평소에 매우 친절하게 굴던 그는 어느날 봉례에게 손을 대려 했다. 나중에는 문까지 막아서려는것을 뿌리치고 유치하다고 소리치면서 피했다. 그후에도 유상렬은 태연히 연구회에 드나들었다. 그리고 《장안파》의 지지단체로 연구회의 이름을 도용했던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정중히 애도의 뜻을 표했다. 그는 검정넥타이를 매고 왔으며 고인의 앞에서 천천히 세번 향을 지피고 오래 묵상을 하였다. 그리고 슬픈 표정으로 고인에게서 물러섰다. 그를 잘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그를 점잖고 례의가 뚜렷하며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으로 볼것이였다. 그는 조금도 일을 거들지 못하고 곧 돌아가지 않으면 안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것과 바빠서 래일 장지에도 못나가게 된것을 섭섭히 생각한다는 뜻을 표했다. 그리고 역시 애도의 표정을 띠우면서 돌아갔다.

(무서운 일이야, 동지의 탈을 쓰고있잖은가!)

봉례는 몸서리가 쳐졌다.

서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다가 봉례가 기준과 만난것은 장지로 가는 도중에서였다.

기준도 그동안 슬픔에 젖어있었다. 허인기가 운명하던 날 낮까지도 기준은 그에 대한 다소간의 의견을 품고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보다도 그를 신뢰했기때문에 품을수 있는 의견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돌연 그가 세상을 떠나고보니 기준의 가슴 한귀퉁이가 허물어진것 같았다. 허인기는 어쨌든 깨끗하게 살려고 애써온 사람이며 자기 한몸보다 집단을 사랑하고 위한 사람이였다. 그 이상 보통사람에게서

무엇을 바라랴, 그의 내의가 자기것보다 헐었던것을 기준은 보았다.

그가 돌아간 뒤에 알아보니 그의 유일한 재산이였던 집 한채는 신문을 계속 찍느라고 저당에 넣었기때문에 유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남겨놓은게 없었다.

나란히 걸으면서 봉례가 물었다.

《대체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할가요?》

《당의 지도를 받아야지.》

이같이 무뚝뚝하게 말하는 기준을 봉례는 힐끔 쳐다보았다.

《그 사람들요?》

《그자들은 당이 아니요. 그자들은 당과 우리와의 사이를 막아섰단 말이요. 우리의 당중앙은 엄연하오. 당을 알려거든 이번 작정된대로 공장으로 나가야 하오. 당은 인민의 희망과 의지와 지향속에서 자기를 볼것을 지시하고있는거요.》

봉례는 다시 생각에 잠겨갔다.

전평산하의 모든 일군들은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바빠진 판이였으나 올수 있는 사람들은 한두사람씩 계속해서 장지로 모여들었다. 각 산별에서 로동자대표들까지 보내서 40～50명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깊고 편편한 무덤이 파졌다. 그안에 마른 흰모래흙을 깔았다.

녀성들의 울음소리속에서 삽시간에 우뚝한 분상이 생기고 묘비가 박혔다.

《고 허인기동지의 묘》라고 새긴 묘비앞에 서서 기계산별 위원장이 연설을 하였다. 그는 고인과 죽마고우였으며 일제때에 함께 로동운동을 하던 막역한 사이였었다. 그는 자꾸 목이 막혀했다. 간신히 목청을 가다듬자 그는 기운있게 끝을 맺었다.

《… 일찌기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들은 여지껏 일하고있던 공장들에서 쫓겨나고있을뿐아니라 미국제총칼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미군정은 우리 전평의 요구를 접수할 대신 수일내로 경찰을 일제 무장시킬것을 작정한것입니다. 동지

들! 우리는 더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대신 미제가 이 땅의 주인행세를 하려고 날뛥니다.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로동자들은 단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민의 선두에 서야 합니다. 총파업투쟁위원회를 절대지지합시다! 우리의 총파업을 승리로 이끎으로써 고 허인기동지의 원한을 풀어줍시다!》

모두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러나 더 기운있게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의 투쟁은 간고합니다. 우리의 적은 정복을 입고있는자들만이 아닙니다. <대회파>를 비롯한 기회주의분자들, 투항주의자들, 분파를 일삼는자들도 미제편에 서있습니다. 우리의 조직과 단결을 파괴하려는 그자들과 추호도 타협을 해서는 안됩니다. 고 허인기동지는 그자들과 싸우다가 희생되였습니다. 그자들과 타협없는 투쟁을 하는것만이 고 허인기동지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것으로 될겁니다. 동지들! 적과의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융화도 용서하지 말아야 할겁니다!》

여기서 말을 끊더니 그는 팔을 치켜들고 주먹을 내저었다.

《우리의 총파업을 반대하는 일체의 반동들, 미제침략자들과 리승만도배, <대회파>와 그외 분파분자들은 우리의 원쑤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누구인지 뒤에서 《민주혁명 만세!》 하고 웨쳤다.

《미군정의 식민정책을 반대하자!》

《총파업 승리 만세!》

그에 호응하여 모두들 배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자기네 일터를 향해 급히들 헤져내려갔다.

날이 저물었다. 허인기의 부인이랑 아이들을 서기부에서 보낸 자동차에 태워보내고 뒤처졌던 사람들은 뿔뿔이 헤져서 걸었다.

봉례는 기준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 근처에 사람이 없는것을 알자 봉례가 말했다.

《래일부터 동방으로 가겠어요. 허지만 어쩐지 적적해요.》

《어째서?》

기준은 아까처럼 무뚝뚝했다. 봉례의 대답을 기다리다가 그는 타이르듯이 차근차근히 말했다.

《우리는 적적하지 않소. 어려운 길을 우리 혼자만 걷는게 아니요. 우리의 앞길에는 우리가 지난날 상종하던 사람들보다 몇배 깨끗하며 씩씩하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지 않소.》

《그렇지요. 제가 그 말을 하고싶었어요.》 하면서 봉례는 기준의 팔을 잡아 꼭 끼고 말했다.

《적적한 마음이 없잖아요. 허지만 극복할테니 두고보세요. 서루 오래 떨어져있더라도 저를 생각해주시지요? 싸우는 저를 말예요, 네?》

《오래 떨어져있더라도…》 하면서 기준은 봉례의 손을 힘있게 쥐였다. 그러나 두사람은 어쩐지 그 《오래》가 단 몇달정도로는 끝나는게 아닐것만 같았다.

그날 밤 기준은 박문선으로부터 두번째로 두툼한 편지를 받았다. 펴놓았던 서류를 밀어놓은 기준은 매양 정신을 집중시킬 때 그렇게 하듯이 급히 담배불부터 그어댔다. 그리고 편지를 탐독하기 시작했다.

음!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이 채택된 이야기!

읽어가면서 그는 속으로 중얼댔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요산업국유화에 관한 법령이 발표됐군. 신나는구나, 정말!

한동안 읽어가다가 또 중얼댔다.

《그렇지! 합당이 됐구나, 북조선로동당이 창립됐구나!》

편지에는 창립대회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셨다는 사실과 그 보고의 간단한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것을 읽어가는 기준의 가슴은 기쁨으로 하여 두근거렸다. 북조선에서의 민주력량의 단결은 그대로 남조선인민의 힘으로도 되기때문이였다.

다음으로 박문선은 자기가 당에서 일을 하게 되였다는 소식과 매일

밤깊도록 일을 해도 피곤을 모른다고 했다. 그런 소식보다도 기준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것은 깨알만 한 글자로 다른 종이에 쓴 항일빨찌산의 투쟁이야기들이였다.

그가운데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1938년—1939년 겨울에 적이 첩첩히 포위한 속에서 하루 수십회씩이나 전투를 하면서도 끝내 어려운 행군을 한 이야기가 감명깊게 적혀있었다.

또 그가운데는 1940년 11월 적과의 전투끝에 빨찌산의 한 소부대가 령하 30도의 강추위가 계속되는 산중에서 고립되였다가 지휘부를 찾아 행군하는 이야기들도 적혀있었다.

깊은 산중이라 인민들과의 련계도 끊어진데다 대원들은 하나둘씩 영양부족과 혹한으로 말미암아 몸을 움직일수 없게 되는 쫄라병이라는 병에 걸려갔다. 성한 사람은 환자를 업고 환자는 고통을 극복하면서 10여일을 행군하다가 돌연 적의 포위망에 들어 적의 대부대와 교전하면서 후퇴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을 때였다. 쫄라병이 들어 신음하던 한 동지가 자기를 업은 동지의 잔등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리고 동지들의 손을 뿌리치면서 앉은자리에서 고함을 치며 싸창으로 적과 싸웠다. 그는 자기는 이왕 죽을병이 들었으니 자기에게 집중공격을 시켜놓고 그동안에 동지들이 포위망에서 빠져나가게 하자는 심산이였다. 그러나 적들이 그 동지에게 집중사격을 하자 다른 동지들이 일제히 《동지를 구하자! 적들에게 죽음을 주라!》고 웨치면서 적에게 육박했던것이다. 이 기세에 적은 도주했고 그 소부대와 그 동지는 수일후 지휘부에 도달했던것이다. …

기준은 빨찌산대원들의 그 무궁무진하고 고귀한 정신세계를 좀더 많이 그리고 자세히 알고싶었으나 편지는 그것으로 끝났었다.

이튿날 일찌기 사무실로 나온 봉례는 전평서기부에서 구체적인 과업을 받고 돌아왔다. 그리고 허인기의 책상서랍이랑 서류함을 정리하여

자기의 물건들과 함께 건사하고나자 기준에게로 왔다.

봉례는 옷이랑 싸든 두툼한 보따리를 들고 인사를 했다.

봉례가 나가려 할 때 기준은 가슴이 뭉클해서 좀 멈칫멈칫했다. 그 눈치를 챈 봉례는 방싯 웃으며 《저 보세요, 이젠 떠나겠어요.》 하고 인사를 했다.

기준이 손을 잡자 《오늘 들어가시지요. 주의하세요. 부디 건강 주의하세요, 네?》 하고 신신당부를 했다.

《서루 소식 전합시다.》

기준은 층계를 따라 내려왔다. 따라 내려가다가 봉례를 불렀다.

멈춰선 봉례에게 기준은 안주머니에서 어제 받은 그 편지를 꺼내주었다.

《박문선동무에게서 온건데 봉례에게 꼭 읽히고싶소.》

《고맙습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네.》

봉례는 소중히 받아넣고 돌아섰다.

17

리기준은 부산에서 돌아오던 날부터 정형규를 만나보고싶었으나 만날 겨를과 기회가 없다가 우연히 정령감을 만나 그와 련락할 길이 티였던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그와 함께 일을 하게 되였으니 길이고 무어고 찾을 필요가 없게 되였다.

그는 정형규를 해방직후 《공산주의자열성자대회》석상에서 처음 보았었다. 그 첫날부터 그는 기준에게 믿음직한 인상을 주었고 그 인상을 잊을수 없게 했다. 안철의 소개로 그가 동광방직분회 위원이라는것과 그의 경력을 알았으며 그에게서 구체적인 공장실정을 들었을

때부터 기준은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동광방직파업때 가장 꿋꿋하게 로동자들을 지도하던 사람은 정형규였다. 그리고 복귀성명서를 둘러싸고 시비가 있을 때도 끝까지 반대하였던 위원도 그였다. 기준은 은연중 그의 일거일동에서 적지 않은것을 배웠고 그의 활동을 보고 힘을 얻군 하였었다.

자기가 철도기관구로 파견되게 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준은 총파업의 선두에 선 철도로동자들속에서 신문을 만든다는것이 힘에 겨운 일인줄 알았지만 그 쟁의단 지도자의 한사람이 정형규인것을 기쁘고 대견하게 생각하였고 벌써부터 사기가 고무되는듯 했던것이다.

봉례가 떠난 뒤 기준은 철도산별로 가서 련락선을 받았다. 조직부원은 친절하게 선을 대주었다.

《… 11시에서 12시사이에 가시면 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룡산역에서 5백메터쯤 한강쪽으로 가시다가 바른편쪽으로 들어간 빈터에 간판도 없는 신기료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기준은 대번에 정령감을 생각했다.

《그 신기료방에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고무장화도 깁습니까?> 하고 묻고 들어가십시오.》

《고무장화도 깁습니까지요?》

정령감이 신기료방을 하는게 아니라 로동조합일을 하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준은 속으로 반가왔다.

《그 신기료방 주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준은 짐짓 물었다.

《로인입니다.》

《믿을만 한분인가보군요?》

《보배로인입니다.》

기준은 은근히 기뻤다. 그리고 정령감을 단지 의분가이며 정의감이 강한 평범한 로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했던 자기가 어리석게 생각되였다.

《그래 고무장화도 깁는다고 하거든 <제관공장이 어딥니까?> 하고 물으면 됩니다.》

《제관공장이 어디냐고요?》

《네, 그럼 기관구로 들어가는 길을 대줄겁니다.》

기준은 밖으로 나왔다. 순희에게 며칠 사무실에 없으니 찾지 말라는 전화를 걸고 11시가 지나자 정령감을 찾아갔다.

신기료방에는 정령감 혼자 앞에다 보자기를 두른채 땅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뻑뻑 곰방대를 빨고있었다. 기준이 들어서면서 암호를 사용하자 정령감은 알만 하다는듯이 담배나 한대 피우라고 했다.

《리선생이 들리시겠다 해서 그애가 이틀이나 나왔다 들어갔소이다.》

《네, 가까운 동무가 세상을 떠나고 해서 바빴습니다.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정령감은 턱으로 철길뚝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기 말뚝이 하나 박혔지요?》

《네.》

《그 말뚝이 박힌 아래에 큰 노깡(도관)이 묻혔습네다. 마른 개천인데 그 개천바닥을 딛고 노깡안으로 들어가면 저쪽이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 하더니 정령감은 징 한개를 집어주면서 말을 이었다.

《자위대가 오거든 이 징을 주시오. 그럼 됩니다.》

신기료방에서 나온 기준은 슬슬 철길뚝을 끼고 걷다가 하수도관앞에서 잠시 주위를 살폈다. 그러다가 힁하니 하수도관속으로 들어가버렸다. 처음은 깜깜했으나 이내 저쪽으로 빠져나갈수 있었다.

저쪽으로 빠져나가자 거기는 전체가 기관구구내여서 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가지와는 전혀 면모가 달랐다. 그는 몇발자국 걸어들어가 따스한 볕이 내리쪼이는 풀밭우에 주저앉았다.

시커멓게 매연에 그을은 수리창고와 그뒤의 몇채의 벽돌건물들이 눈에 띄였다. 또 그뒤로는 철도공장의 건물들이 보였다. 이쪽과 수리창고사이에는 멈춰선 기관차들과 전철초소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고 이쪽 보선구근처에는 렬차가 신호기를 떨어뜨려놓은채로 멈춰선게 바라다보였다.

구내는 이상스러우리만치 조용했다. 석탄재와 검은 연기가 축축한 수증기와 뒤섞여 빠질 사이없이 하늘을 뒤덮던 이 구내에서 이렇게 거침없이 푸른 하늘을 바라다보는게 상서롭지 않았다.

바퀴 구르는 소리, 렬차들이 맞닿는 덜커덩거리는 소리, 칙칙 수증기를 뿜는 소리와 고막을 찌르는 기적소리들로 언제나 소연하던 이 조차장이 이렇게 고요한게 상서롭지 않았다.

엿가래처럼 얼기설기 뻗어나간 레루우는 태양이 비치여 눈이 부시도록 반짝였다. 모든것이 정지되여있었다.

(이 모든것을 정지시킨것은 로동자들이 아니라 미군정이다!) 하고 기준은 생각했다.

(로동자들은 하루바삐 기관차들에 다시 불을 지피려 하는것이며 그러기 위하여 싸워 이기려는것이다!)

근처의 전철초소에서 붉은 완장을 낀 로동자가 두사람 나왔다. 그리고 기준에게로 다가왔다. 그들은 자위대원들이였다. 이윽고 기준은 그중 한사람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로 갔다.

철도파업본부로 리용되고있는 기관구 사무실들은 어느 방이나 철도로동자들로 꽉 차있었다. 벽마다 문마다 프랑카드와 구호판으로 덮여있었고 강당에서는 선동연설을 했고 한쪽방에서는 찌릉찌릉 전화종이 울리고있었다.

기준은 기관구분회위원회가 있는 2층벽돌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 이윽고 기준은 꺼먼 얼굴에 구멍새도 널직널직한 로동자와 만났다. 그가 민병대라는 《미가사 352》호의 기관사였으며 분회위원장이였다.

민병대는 구레나루가 덥수룩하고 역시 붉은 완장을 낀 로동자와 무엇인지 상론하다가 기준이 들어와서 찾아온 용건을 말하자 반가와하면서 의자를 권했다.

《잠간만 기다려주십시오.》

민병대는 이렇게 말하고 구레나루의 로동자에게 《테로들만 준동하는게 아니라 엊저녁부터는 경찰들이 나타나 정찰을 한다지 않소. 그러니 당장 자위대를 증강하고 경비초소를 증가시켜야겠소.》 하고 말했다.

《의견이 없수다. 좌우간 인원을 50명만 증가시켜야겠으니 지시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구레나루는 자위대 대장인듯 했다.

《좋소. 정형규동무와 상의해서 곧 그렇게 해봅시다. 그럼 오늘부터 경비를 3교대로 하고 신호등을 정확히 사용하도록 합시다.》

《개새끼들, 어디 보자!》 하면서 구레나루는 나가버렸다.

그가 나가자 민병대는 거듭 수고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모여있는 동안에 공부를 흠뻑 시켜줘야겠습니다. 모두들 그것을 갈망하고있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등사판도 좋은게 있고 종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젠 그걸 사용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기뻐했다.

기준이 겸손한 태도를 취하자 그는 말했다.

《얼마든지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장소, 인원, 물자 다 필요한대로 요구해주십시오. 그렇잖아도 어제부터 정형규동무가 기다렸는데 지금 밖에 있습니다. 함께 나가보실가요?》

기준이 만나보자고 하자 그는 철도모자를 집어쓰고 일어섰다.

정형규는 수리창고앞을 치워 넓은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십여명의 철도복을 입은 로동자들이 들어붙은 속에서 일을 거들고있었다. 그앞에 늘어선 유개화차들을 거의다 비켜놓았다. 그리고 형규는 마지막 유개화차의 접속철을 두팔로 버티여짚고 《여이차ㅡ 여이차ㅡ》 하면서 밀어갔다. 그것을 백메터쯤 밀어내고난 형규는 덜커덩거리며 다가

오는 무개화차를 보고 《그것은 두시오, 그냥 두시오.》 하고 웨치며 쫓아왔다.

《그건 연단으로 씁시다. 도루 밀어갑시다. 자, 밉시다.》 하면서 형규가 달려들었을 때 《수고하십니다.》 하고 기준이 다가가면서 웨쳤다.

《어서 오십시오!》

형규는 너무 반가와서 자기 손에 끈적끈적한게 묻은것도 생각지 않고 덥석 기준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는 뒤늦게야 《저런, 기름이 묻었군요.》 하면서 미안해했다.

《일없군요.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준의 손을 또 그 기름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형규는 《기관구신문이 나온다면 종업원들이 환성을 올릴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동무?》 하고 민병대의 동의를 구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사람은 사무실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형규가 설명했다.

《붉은 완장은 자위대입니다. 그러고 저 초록완장은 후방일군들이지요. 알아두셔야지… 또 저 보라빛은 선전원들입니다.》

그때 한 선전원이 민병대에게로 다가와 강연회가 끝났다는 보고를 했다. 조금전까지 강당과 사무실들에 모였던 종업원들은 거의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한 부대는 《인터나쇼날》을 부르면서 질서정연하게 렬을 지어 수리창고앞으로 갔고 2백～3백명은 사무실앞에 모여 조용히 보라빛완장을 두른 사람의 말을 듣고있었다.

기준이 처음부터 감탄한것은 그들의 강한 규률이였다. 과연 그것없이 수천명의 사상행동을 통일시키기 어려울거라 생각했다.

민병대와 경비를 강화할 문제를 토의하고난 후 형규는 그 특징있는 턱을 기준에게로 돌렸다.

《듣고싶은 말씀도 많고 하고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허지만 우선 파업상태부터 아셔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종업원들의 사기가 매우 높은것 같기는 하지만…》

《높습니다. 객차승무원이랑 보선구동무들은 좀 약한편이지요. 허지만 공장로동자들, 기관사, 기관조수, 화부들 다 좋습니다. 그런것보다도 여기서 제일 곤난한 문제는 그들이 모두 이달치 월급을 못 탄 사실입니다. 집에서들 고생할 일을 생각하고있는데 그것이 큰 지장으로 됩니다.》

《그렇겠군요, 여기 식량사정은 어떠합니까?》

《여기도 곤난합니다. 하루이틀내로 쌀을 들여오지 못하면 큰 고통을 받을것입니다. 물론 역창고에는 량곡이 있지요. 허지만 그것을 손댄다는건 우리의 본의가 아니니까요. …》

《본의가 아니지요.》

《파업기간에 우리는 나사못 한개 축내거나 못쓰게 하지 않을것이니까요. 투쟁위원회에 검사원이 있어서 그 동무들이 눈을 밝히고있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있을 때 기름때가 얼룩얼룩 묻은 작업복에다 꽁무니에 스파나와 망치를 찬 청년이 들어와서 《준비가 다됐습니다.》라고 했다.

형규는 밖을 내다보았다. 기준도 따라서 내다보았다. 수리창고안팎에 수천명 철도종업원들이 까맣게 모여앉아있었다.

《좋습니다. 시작하시지요.》 하다가 형규는 기준에게 설명했다.

《민청에서 젊은 시인을 두명 보냈는데 시랑독을 한답니다. 나가보실가요?》

기준은 형규를 따라 나섰다.

아까 남겨둔 무개화차 한대가 연단으로 씌여지고있었다. 그우에서 민병대가 간단한 연설을 했다. 로동자들은 연설도중에도 《옳습니다!》, 《옳소!》 하면서 호응을 했고 《산업의 대동맥인 철도를 우리 손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또는 《인민정권의 수립을 위하여 더욱 단결합시다!》 하고들 열렬히 웨치군 했다.

인기는 연설보다도 시랑송에 집중되였다.
《기침하지 맙시다.》
《조용하시오.》
《쉬, 쉬.》
이윽고 수천명 종업원들이 잔잔한 호수처럼 되여 귀를 기울였다. 처음 시는 《해방자》의 탈을 쓴 미제의 정체를 야유한 《미국신사의 꿈》이라는 풍자적인 시였고 다른 한 시인의 《화부의 노래》는 기관차에서 한 화부가 탄을 퍼넣으면서 남조선도 북조선과 같이 민주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것을 노래부른것이였다.
박수가 그치지 않았고 수십명씩 한꺼번에 일어나서 시랑송을 계속해달라고 제의하는 바람에 젊은 시인들은 좀 당황해졌었다. 그래 풍자적인 시를 쓴 시인은 수첩을 꺼내 한동안 뒤지더니 역시 미국과 미군정의 정책을 야유한 시를 두편 읊었고 또 한 시인은 기억을 더듬어 자작시 《쌀과 물》이라는 반미투쟁을 주제로 한 시를 랑송했는데 기준이 듣기에도 구호투성이의 완성되지 못한 작품이였으나 도리여 그것이 열렬한 갈채를 받았다.
로동자들은 비록 잘된 시는 아니였지만 그 구호들에서 자기네들이 살아갈 길을 찾았으며 싸움의 힘을 얻으려는것이였다. 이번에는 로동자들이 올라와서 시를 읊었다.
시랑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형규가 기준을 끌고 수리창고에서 백메터쯤 떨어진 곳에 멈춰선 승무차옆으로 갔다. 그들은 선로에 걸터앉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쟁의단은 뒤가 튼튼치 못합니다. 그뿐아니라 이 투쟁본부에는 수천명의 철도종업원의 핵심부대가 집결해있습니다. 이게 좋지 않습니다. 테로나 무장경찰들이 준동하는거로 보아 핵심들을 이이상 한군데다 집결시켜놓을 필요가 없게 되였습니다.》
기준은 심중히 듣고만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그저께부터 분산투쟁을 건의하였는데 지시가 떨어지지 않아서 이대로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릴수 없게 됐습니다.》
《이왕이면 급히 손을 써야 할것 같군요. 모르는 생각이지만…》
《교섭상대를 무장테로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신사의 집단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다가는 동방이상의 쓰라린 사태가 벌어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래일이라도 분산하게 될는지 모르겠군요?》
《협의해봐야지요. 그냥 싸우게 되는 경우라면 그냥 싸울수도 있습니다. 비관할건 없습니다.》
잠시 더 생각하던 기준은 밖에서 생각하던바와는 달리 사태는 매우 절박함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돌이켜 생각했다.
(형규의 말이 맞다. 비관할 필요는 없다!)
시랑송이 끝난듯 종업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목청높이 노래를 불렀다. 자기네들이 작사, 작곡한 《철도종업원의 노래》라는것이였다.
노래가 채 끝나기 전이였다. 철길뚝을 바라보던 정형규가 중얼댔다.
《저 개새끼들이!》
기준은 형규가 바라보는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뚝이 한강을 끼고 바른쪽으로 휘돌아간 우로 미군찦차 석대가 먼지를 올리며 까불거리고 오더니 멈춰섰다. 찦차들에서 철갑모를 쓴 미군 십여명이 뛰여내렸다. 그들은 이쪽을 보고 무어라고 떠들어대는 모양이였다. 어떤것은 이쪽을 손짓하면서 중얼대고 어떤것은 활개짓을 하다가 담배연기를 피워댔다.
련락원이 형규에게로 왔다.
《13호 전철초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규와 기준은 사무실로 달려갔다.
《네. 미군 12명, 네네, 수리창고하고 철도뚝길하고… 바라보기만 할뿐입니까? 네, 그럼 두목이 어떻게 생긴자인지 그걸 잘 살펴봐주십쇼.》

형규는 전화를 끊었다.

기준은 혹 모리스란자가 저렇게 와보는것인지도 모른다고 혼자 생각했는데 그의 추측이 맞았다.

13호초소에서는 어느것이 두목인지 역광선때문에 잘 알아내지 못했으나 이튿날 아침 정령감이 행인들에게서 들었다 하면서 그게 군정청 경무부장차였다는 사실을 전달해왔다.

모리스는 총파업이 일어날것을 미리 알고 만반의 준비와 대책을 갖추었다. 우선 그는 무기와 탄약을 내주어 서울의 경찰들을 무장시키도록 했고 지방경찰서장들에게도 무장할것을 시달했다. 또 그는 장택성과 만나 언제나 서울시의 경찰을 총동원할수 있는 준비를 하게 했다. 다음으로 장택성이 말한것처럼 파괴분자들을 리용하는 전술을 쓰도록 격려했다.

그러나 하루이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는 실망하다가 나중에는 당황했다. 철도파업에 호응하여 이루 막을 사이없이 출판, 체신, 식료, 전기, 토건, 조선, 해운 등 각계의 로동자들이 련달아 파업으로 들어가 그 참가인원이 수십만 또는 그 이상에 달했으나 모리스는 단 한사람의 첩자에게서도 활동보고를 받지 못했다. 까마귀떼들처럼 떠들어대던 그 《대한로총》이라는것은 총파업이 일어나자 통 기맥을 쓰지 못했다.

그래 모리스는 신임군정장관과 협의를 한 후 직접 부하를 데리고 총파업의 선두에 선 철도기관구와 몇몇 공장주변으로 나가 시찰을 했다. 파업현장의 실태를 알아본 그는 그길로 수도 경찰청에 들려 장택성을 데리고 군정청으로 돌아갔다.

18

철도파업본부는 전체가 바빴다. 저녁급식이 끝난 후에도 강연사업, 선전사업이 계속되였고 한쪽에서는 공작임무를 주느라고 종업원들을 모았고 한쪽에서는 자위대원들이 흩어져나갔다. 찌릉찌릉하는 종소리가 그치지 않는 전화실에서는 암호통화소리가 계속되였다.

평야와 같이 넓은 조차장구내는 조용했으나 사방에서 푸른 신호등불이 계속 반짝이고있었다. 이따금씩 어둠속에서 구령소리가 들렸다.

사무실안은 어디나 꽉꽉 차서 빈방을 낼수 없었다. 그래 분회위원회가 있는 옆 몇명의 자위대원들이 있던 좁은 방을 내서 신문편집실로 쓰기로 했다. 민병대가 기준을 안내했다.

《우선 림시로 여길 쓰시고 차차 또 구해보겠습니다.》

민병대가 말했다.

《여기도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나무침대를 사용하시고… 담요도 이런것밖에 없습니다.》

《념려마십시오.》

기준은 너무 미안했다. 많은 밤들을 편하지 못한 바닥에서 양복저고리를 들쓰고 자군 하던 기준은 그 방이 과남할 정도였다.

민병대가 나간 후 기준은 침대우에 앉아서 방안을 훑어보았다. 정면벽에는 매우 정성스레 몇번씩 덧칠을 하여 쓴 구호들이 붙어있었다.

기준은 그곳이 아주 적합한 자기의 방 같았다. 구석쪽 책상우에는 꺼멓게 그슬린 신호등 한개와 붉은 잉크, 아직도 잉크를 머금고있는 굵은 붓이 서너자루 놓여있었다. 유리창밖으로는 전등불이 비친 넓은 대돌이 보였다. 그곳으로 종업원들이 지나다녔다. 아까 위원장실에서 만난 구레나루를 기른 자위대원(그는 대원이 아니라 최씨성을 가진 자위대 대장이였다.)이 그 대돌우에서 누구에게인지 시간마다 보고

를 하라고 웨쳤다.

잠시후 드르륵 유리문이 열리더니 철도제복을 입은 한 젊은 종업원이 앞서고 40살이 넘어보이는 붉은 완장을 두른 작업복차림의 로동자가 뒤따라 들어왔다. 작업복의 로동자는 조차공 같았다. 젊은이는 구석쪽으로 가 잉크와 붓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로동자는 기준의 앞으로 다가와서 《신문 내주러 오신 동무로군.》 하고 알은체를 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기준이 대답했다.

그러자 그 로동자는 물었던 마라초를 침과 함께 흙바닥에다 뱉고 발로 쓱쓱 문대면서 《난 박수산이라고 합니다.》 하고는 넉가래만치나 크고 넓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했다.

《<미가사 152>호의 화부지요. 화부노릇을 20년 해먹었답니다. 동무는 로동을 한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것을 보고 철도제복의 젊은이가 《지도하시는분에게 그런걸 왜 물어요? 실례되는줄도 모르고…》 하고 나무랐다.

박수산이란 화부는 참견을 말라는듯이 말했다.

《내 까닭이 있어 묻는다네.》

《실례될거 있습니까? 난 지도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동무들에게서 배우러 왔지요.》

《고용로동이란 천하에 못해먹을것이외다. 20년동안 불구멍에다 대고 삽질밖에는 하지 못하다보니 이렇게 석탄덩어리같이 새까만 무식쟁이가 돼버렸소이다그려.》

《이제 자꾸 공부를 하시문 되지요.》

기준이 웃음을 띠우며 말했다.

《골통이 굳어져서 어디 그렇게 돼야지요. 허지만 내 한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소이다. 이제는 우리 로동계급의 힘을 꺾을수 없다는겝니다! 미국놈들이 아무리 지랄을 쳐도 안됩니다!》

그는 털털하는 목쉬인 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로동계급의 힘을 꺾을라면 어디 꺾어보라지요. 그러구 자본가들이 기차화부노릇도 하구 기관차수리도 해보라지요. 할것 같습네까? 그자들은 못합니다.》

《옳습니다. 그들은 로동계급을 착취하고 그에 의존해야만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지 저희가 주인인가 말이외다. 헌데 미국놈들이 저 지랄이거던. 어디 맘대루 해보라지. 그러다가 누가 불구멍으로 들어가는가? 내 친구는 일제때 왜놈기관사를 화통에 처넣고 잡혀간일이 있지요. 화통에 처넣으라면 문제없소이다. 불구멍에다 처넣는건 화부지요. 로동계급이란 말이외다! 우리는 벌써 우리의 힘으로 정부를 세울수 있다는걸 알았수다. 그걸 아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준은 그 박수산이란 화부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기관구신문도 그렇게 재미있게 만들어야 하리라고 생각했으며 신문제호도 《화통》이라고 다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기 좀 앉으십쇼, 네.》

기준이 자리를 권했으나 박수산은 구석에 놓인 신호등을 집어들고 《경비나가야 하겠수다. 건데 내가 이 경비보는걸 얼마나 신성한 일로 생각하는지 아시겠소? 아실거야.》 하고 말하고는 청년과 함께 나갔다.

그들이 나간 후에도 낯선 로동자들이 여러 사람 유리문을 열고 두리번거리다가 도로 문을 닫고 갔다. 필시 방을 빼앗긴거라고 추측한 기준은 미안하기 짝이 없었다. 저녁전에 전평으로 나간 형규는 밤 열두시가 가까와서야 돌아왔다. 그는 철도파업이 일어나기 며칠전부터 기관구로 나와서 일을 했고 총파업투쟁위원회가 조직된 후부터는 투쟁위원회와 철도파업본부사이의 련계를 맺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었다.

두어시간동안에 다녀오려고 나갔다가 그렇게 늦은 까닭은 기관구에 모인 쟁의단을 분산시킬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얼굴이 참외씨같은 사람(그의 이름이 리승엽인것을 형규는 나중에 알았다.) 그리고 그의 의

견에 추종하는 일부 전평간부들과 격렬한 론쟁을 했기때문이였다.
형규는 그 참외씨같은 사람의 론지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다. 그는 공연히 리론만 캐고있었다. 물론 형규는 자기가 지식이 많다고 생각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길을 거닐면서도 책을 읽었다. 그는 지식이 많지 못했으나 빈 리론가가 되는것은 죽는거나 같다고 생각했다. 해방직후부터 그날까지 그는 빈 리론을 가지고 피대를 올리는 사람들을 보아왔다.
그들은 자기의 지식자랑을 하느라고 피로한 로동자들의 잠시간을 깎아먹었으며 많은 사업들을 망쳐먹었다. 유상렬이가 그러했다. 리강진, 안철 같은 사람들은 마침내 조직까지 팔아먹으면서 빈 리론을 캤다.
그런데 그 참외씨같은 사람은 기관구의 실정을 알고있기나 한듯이 남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반박했다.
형규가 끝까지 우기자 그는 교만하게 투쟁위원들을 보고 《저 동무 교양을 좀 단단히 주오.》 하고 웨쳤다. 그리고 아예 형규를 상대하지 않았다. 부아가 치미는것을 그는 참고 또 참았던것이다.
기관구로 돌아온 형규는 민병대와 함께 기준이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론쟁하던 이야기를 대충 전했다. 그리고 꿋꿋한 어조로 말했다.
《투쟁위원들속에는 분산투쟁을 주장하는 동무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벌써 우리는 투쟁위원회의 결정이나 지시를 기다릴수가 없게 됐습니다. 곧 실행에 옮길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요. 위원장동무, 그렇잖습니까? 날이 밝는대로 위원회를 열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위로 어디로 분산해서 투쟁을 전개할는지 토의하기로 하지요, 네?》
《그렇게 합시다. 지금 사실 우리는 스스로 포위망을 만들어주고있는셈이니까요. 이 수천명이…》
형규는 한성전기 종업원들의 파업이 《대회파》의 방해로 중단되였으나 래일부터는 다시 전차가 움직이지 않을거라는 소식과 동광방직의 파업이 관리인측과의 반목속에서 계속되고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광방직의 《대한로총》패들이 총파업이 시작된 이튿날 종적을 감추었다는것과 관리인측이 원료와 제품을 실어내려고 트럭을 들이댔지만 자위대는 정문을 열어주지 않고 창고일군들은 열쇠를 내놓지 않아 두차례나 왔다가 도로 돌아갔다는것이였다.
《늦었습니다. 내려가 주무시지요.》 하고 민병대가 형규에게 권했다.
《여기서 자지요. 리선생하고…》
《그럼 그럭허시지.》 하고 분회위원장은 나갔다.
《형규동무 방은 어딥니까?》
기준은 무심코 물었다.
《아무데서나 쓰러져 자지요. 유개화차속에서도 가끔 끼여 자지요.》
《오, 거기두 좋겠군.》
기준은 이렇게 말했으나 별안간 얼굴이 뜨끈해왔다. 파업의 승리를 위하여 온종일 말처럼 달리는 형규는 자기 침실이 없는데 자기는 아직 일도 안하면서 온 첫날부터 로동자들을 내쫓고 떡 방을 차지한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때문이였다.
피곤한 형규는 눕자 이내 잠들었다. 그러나 기준은 날래 잠이 오지 않았다.
《형규동무는 아침저녁으로 해온 사업을 토의하는 동무지요. 그러고 자기가 모르는것은 아무에게나 잘 묻지요. 여기 온지 얼마 안되는데 벌써 그는 기관조수정도의 철도지식을 가지고있지요.》
이것은 저녁후 민병대가 기준에게 한 말이였다. 형규는 기준보다도 네살아래였으나 자기보다 몸집이 다소 커서 그런지 늘 같은 년배의 동지처럼 생각되군 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생각하니 그것은 몸집때문이 아니라 그의 성품때문이였다.
그 성품이 어떤것인가 하고 기준은 계속 생각했다. 결국 그것은 별것이 아니면서도 실로 고귀한것 즉 헌신적인 그의 사업태도가 부단히

보여주고있는 신뢰감이였다.

이튿날 아침 형규가 내놓은 복안에 의하여 분산투쟁의 방법이 토의되였다. 한시간 남짓하게 토의가 진행된 후 의견이 합치되여 파업위원회 위원장(분회위원장이 겸했지만)의 지시가 떨어지면 30분이내로 옮겨앉을수 있도록 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총파업투쟁위원회에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한 건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다음으로 량곡문제가 론의되였다. 지금 후방부가 보유하고있는 량곡은 이틀분이 빡빡한 실정이였다. 오늘과 래일 저녁까지면 식량이 떨어지겠으나 량곡을 보충받을 도리는 없었다.

파업이 오랜 시일을 끈다면 불가불 역구내의 량곡창고를 터칠수밖에 없겠으나 당분간은 적어도 4～5일동안은 그러한 비상수단을 취하지 말아야 했다. 그래 절약하는 문제와 대용식품문제가 나왔다. 그러나 이 문제만은 위원회에서만 결정할수 없었다.

오후 한시에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후방부를 담당한 투쟁위원인 유상진기관조수가 보고를 한 다음 군중토의에 붙이기로 했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기준은 기관구의 자세한 실정을 좀더 파악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그 회의에서 기준은 신문발간을 위해 배치된 두사람의 선전원과 두사람의 인쇄공들과 함께 이튿날 새벽에는 《화통》 제1호를 발간할것을 위임받았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누그러진 마음으로 있어서는 안되였다.

회의가 끝나자 기준은 신문발간을 위하여 배치된 동무들과 함께 등사판, 등사원지, 용지 등을 준비하는 한편 그들과 함께 편집계획을 세웠다.

종업원대회는 예정대로 제시간에 소집되였다. 역시 어제처럼 수리창고안팎에 2천여명의 종업원이 발디딜 틈도 없이 모여들었다.

키가 작달막한 유상진기관조수가 무개화차우로 올라갔다. 그는 절박한 식량사정에 대하여 반시간쯤 토로한 다음 종업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집회장은 잠시 조용했다가 쑤군쑤군하는 말소리들이 들리였고 이윽고 한사람두사람씩 일어나 자기 의견을 말했다.

기름때가 얼룩얼룩 묻은 작업복을 입은 수리공 안창수는 기관차수리를 중지한지 일주일이 넘지만 지금도 꽁무니에 스파나랑 망치를 차고 다니는 로동자였다. 그는 먼저 일어나서 말했다.

《가족 생각하문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지낸셈입니다. 하루 한끼도 좋고 세끼 죽을 먹어도 좋습니다.》

이러한 말도 적지 않은 종업원들에게는 만족감을 주지 못한 모양이였다.

군중속에서 《좋수다. 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놓으시오.》, 《그렇수다. 더 똑똑히 얘기합시다.》 하는 의견이 들어왔다.

선반공 김태영은 보라빛완장을 끼고있었다. 벌떡 일어선 그의 인상은 생각하는것을 품어두지 않고 곧이곧대로 말하는 부산부두의 길주와 같았다. 령리하게 생긴 눈이 더욱 그러했다.

그는 한번 씽긋 웃더니 《솔직히 말해서 하루 한끼만 먹고는 못 견딥니다. 하루 한끼하고 죽 한끼하고 하면 이틀은 더 견디잖습니까. 나는 그걸 주장합니다.》 하고 소리쳤다.

먼저 일어났던 안창수가 앉은채로 《내 의견과 대차없군.》 하고 두덜댔다. 그때 벌떡 일어선 로동자는 화부노릇을 20년 했다는 박수산이였다.

《허기야 먹어야 싸우지요. 정 낟알이 없으면 시래기라도 끓여먹으면서 싸웁시다그려…》

《시래기가 어디 있소?》

누구인지 이렇게 말하자 그는 어성을 높여서 말을 이었다.

《남의 얘길 들으시오. 그건 후방부에서 구하면 되잖나 말이요. 허니까 내가 말하고싶은것은 급식문제는 후방부에 일임하자는거외다. 문제는 우리의 배속도 배속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로동계급은 단결해야

한다는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힘으로 정부를 세울수 있단 말이외다. 내 말이 잘 안됐으면 누구든지 얘기해보시오!》

《옳소, 박령감!》

《말 잘했소!》

이렇게들 웨치자 박수산은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그냥 앉아버렸다. 수리창고 한쪽벽에 기대섰던 자위대장이 의장을 불렀다. 그리고 구레나룻턱을 흔들면서 《박수산동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고 소리쳤다.

《문제는 바루 거기 있습니다.》

정형규가 벌떡 일어서서 말했다.

《우리는 지금 곤난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우리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기관구안의 식량은 달랑달랑합니다. 사정은 바루 이렇지요. 그럼 어떻게 할가요? 투쟁을 그만두고 헤져야 할가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들 웨쳤다. 형규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이었다.

《안됩니다. 단연코 안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단결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군정청에 제출한 우리의 요구조건들이 하루속히 달성되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렇잖음 이번에 해고당한 만명 가까운 철도종업원동무들과 그 가족이 닥쳐오는 추위에 떨면서 거리에 방황할것입니다. 우리는 일급을 받게 되여 더욱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의 실시는 고사하고 우리는 더욱 천대와 박해를 받으며 노예적착취를 당할것입니다. 동무들! 단결합시다. 더욱 굳게…》

정형규의 말에 호응하여 젊은 용접공과 다른 기관차 조수가 자기 의견을 말했다.

결국 종업원들은 박수산이 제기한대로 식량문제를 후방부에 일임하되 로동자들을 동원시켜 시래기, 산나물들을 구해들이기로 했다.

그 종업원대회에서 표현된 로동자들의 언행을 적는것만으로도 신문은 꾸미고도 남을 정도였다. 기준은 더욱 선동성있는 어휘를 선택하면서 기사를 썼고 선전원들에게도 그렇게 쓰게 했다. 저녁부터 두 인쇄공이 원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쪽으로 다 쓴 원지는 등사하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어느 틈에 새벽 2시를 치고 좀 있다가 3시를 치고 거짓말같이 또 4시를 쳤다. 기준은 선전원들과 함께 밝을녘에 잠시 눈을 붙였다.

옆방에서 전화받는 소리에 문득 눈을 떠보니 해가 솟아올랐었다. 눈을 비비고 기준은 주섬주섬 일어났다. 문득 그는 유리창밖을 내다보았다. 대돌 저쪽에 서있는 빈 유개화차앞에 종업원들이 십여명 모여서 무엇인지 들여다보고있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 한가운데 《화통》 제1호가 펼쳐져있었다. 그것을 본 기준은 비로소 자기가 이 쟁의단의 한사람이 된것을 알고 속으로 기뻤다.

19

기준은 또 한밤을 새워서라도 두번째 신문을 내놓으리라고 생각했다. 제1호에는 다른 공장들의 파업정형을 소개할 지면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그 기사를 선동성있게 보도해야 했다.

그리고 지난밤 40여명이 동원되여 시래기 백여두름을 구해들인 이야기를 재미있게 소개할 필요도 있었다. 어쨌든 기준은 인쇄공들에게 낮에 좀 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리고 자기는 구내로 돌아다니며 종업원들과 마라초를 말면서 담화를 했다.

그러나 오후부터 기관구의 사태는 전혀 달라졌다. 제1호와 같이 틀차린 직장신문을 낼만 한 그러한 환경이 되지 못했던것이다.

낮 12시가 갓 지나서였다. 기준은 박수산이가 당번을 서는 7호전철

초소앞 레루우에 앉아서 그가 일제때 백무선에서 지내던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 좌우간 친구를 속이는 놈은 제 먼저 죽습데다.》라고 말할 때 옆에 앉았던 봉석이라는 노래를 잘 부르는 련락원이 웨쳤다.

《저거 보세요, 저거!》

봉석이가 가리키는쪽으로 시선을 돌린 기준은 미군보병들과 엠피들, 무장경찰들이 여기저기서 철길뚝우로 기여오르는것을 보았다.

《한강쪽을 보세요!》

봉석이가 또 웨쳤다. 한강쪽 뚝우로는 이미 경찰들과 《대한로총》패들임에 틀림없을 괴상하게 차린자들이 울타리치듯 늘어서고있었다. 그리고 그 어간어간에 철갑모를 쓴 미군들이 끼여서기 시작했다.

《뒤를 보세요!》

《개자식들!》

수산이 뒤를 돌아다보고 두덜댔다. 기준은 놈들이 공장, 기관구, 조차장을 한꺼번에 포위하는것을 알았다. 박수산은 급히 초소안으로 들어갔다. 그안에서 투쟁본부와 련락을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기준은 공장과 수리창고 그리고 투쟁본부 사무실들을 바라보았다. 모두들 밖으로 나와 긴장해서 사방을 바라다보고있었다. 그러다가 차차 로동자들의 그림자가 적어져갔다. 모두들 나와서있지 못하게 한것 같았다.

박수산은 전철초소 감시구멍으로 밖을 응시하면서 련락을 취하고있었다. 기준은 사무실로 돌아가기 전에 그자들을 더 보아둘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레루우에 앉은채 다시 뚝을 세세히 살폈다.

미군들은 미군대로, 경찰들은 경찰대로 일매지게 제복에다 제모 또는 철갑모를 쓴게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우화책에 나오는 우습광스러운 그림들처럼 모두 짐승의 상판이였다. 하지만 그 짐승같은것들의 손아귀에 미국제살인도구, 카빈총들이 쥐여져있는것이다.

그자들이 늘어선 앞으로 미군장교인듯 한자가 지나가면서 무어라

고 호령을 하고있었다. 다른 미군장교는 뚝바깥쪽을 내려다보고 쑤알댔다.

조금전에 기여오른 찝차들은 잠시 나왔다물러섰다 하다가 발동을 껐다. 발동소리는 멎었으나 몽둥이를 든 테로단들은 그 원시적무기를 치켜들면서 제가끔 까마귀들처럼 무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한 틈사이로 말대가리들이 불쑥불쑥 삐져나오더니 이번에는 기마경찰들이 나타났다.

《저런 놈의 자식들, 정말 눈깔이 뒤집혔나부다. 네놈들이 쏘기밖에 더하겠니, 체!》

초소안에서 박수산이 큰소리로 두덜댔다. 기마경찰들은 뚝우를 달려가고 달려오고 했다.

그 수작들을 바라보던 리기준은 일어났다. 그는 기관차들이 늘어선 옆으로 해서 수리창고앞을 지나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무실안은 긴장된채로 법석이였다. 한쪽에서는 긴급한 전화들을 받는듯 목소리들이 컸고 빨랐다.

투쟁위원회 사무실도 바빴다. 형규는 전화를 받고있었고 민병대는 사방에서 몰려든 자위대와 련락원들에게서 소식을 듣고있었다. 기준은 그들의 보고로 기관구가 룡산역, 역창고들과 격리된것을 알았다. 미군들과 경찰들은 그쪽과 기관구사이를 완전히 차단하고말았다는것이였다.

전화를 끊은 형규가 옆에 선 후방부 책임자인 유상진위원에게 물었다.

《그럼 종업원들의 량곡도 그쪽에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경리부창고에 있는 량곡이니까요.》

《그럼 취사장에는 조금도 없습니까?》

《싹싹 훑으면 한끼분은 될겁니다.》

정형규는 입을 다물었다.

투쟁위원들과 각 부서 책임자들, 반장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모인줄

알자 잠시 땅바닥을 내려다보고있던 형규가 턱을 쳐들었다.

《위원장동무, 제 먼저 말할가요?》

《말씀하십쇼.》

《대체로 두가지로 생각됩니다. 이윽고 이쪽에다 대고 사격을 하든지 그렇잖음 이렇게 포위해놓고 이쪽이 손을 들고 나가기를 기다리든지… 그 두가지겠지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쪽에다 대고 쏜다면 희생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포위만 하는 경우라면 누가 견디나 해보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굴복도 투항도 있을수 없습니다. 징병나갔던 동무들을 다 모아놓고 방어대책을 강구할것과 량곡이 없으므로 단식투쟁을 하면서 외부의 여론을 환기시킬것, 이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형규의 판단이 빠른데 탄복할수밖에 없었다. 민병대는 호응했다.

《옳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형규는 말을 이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첫째로 각 반장동무들은 자기 반내에서 징병나갔던 동무들을 곧 강당으로 모이게 할것, 위원동무들은 선전원동무들을 동원하여 전체 종업원들이 단식투쟁을 할 사상적준비를 갖추도록 선전을 들이대게 할것, 그리고 유상진동무는 량곡, 시래기, 기타 지금 취사장에 있는것만이라도 음식물의 정확한 명세서를 만드십시오. 이 시각부터 한톨의 낟알도 아끼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 생각은 그뿐입니다.》

민병대는 다른 의견을 물었다. 다른 의견이 있을수 없었다.

《지금 형규동무의 말대로 집행할것을 제기합니다.》

《좋습니다!》

모두들 동의했다.

그러자 민병대는 《지금 우리는 1분이 한시간입니다. 곧들 집행하십

시오.》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미군정당국의 대답이였구나!》

정형규는 혼자말로 이렇게 분개했다. …

과연 미군들과 경찰들은 연 10리가 넘는 공장과 기관구, 조차장주위를 말뚝들처럼 둘러싸고있을뿐 한시간이 지나고 두시간이 넘어도 별 변동이 없었다. 그렇게 되자 이쪽도 점점 더 침착해지면서 치밀하게 사업들을 조직해갔다.

종업원들은 놈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들 모여서 투쟁위원이나 선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어느 한 로동자도 비겁해하는 기색은 없었다.

오후 5시쯤 해서였다. 기준이 상의를 벗어붙이고 선전원들과 함께 등사판을 밀고있을 때 정형규가 그를 위원장실로 불렀다. 기준은 두손과 볼에 등사잉크가 묻은채로 옆방으로 가보았다. 모두 공작들을 나가서 방은 비여있었다.

기준이 들어가자 형규는 그에게 한장의 문서를 전했다. 그것은 포위전에 나갔다가 방금 신기료방앞의 그 하수도관으로 은밀히 빠져들어온 련락원이 전평에서 받아온 문건들의 하나였다.

형규는 《유상렬의 지시입니다.》라고 알려주었다.

기준은 문서를 받아 쭉 훑어읽었다. 읽고나서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다음으로 형규는 또 한장의 문서를 내보였다.

《이것은 저에게 보낸 지시입니다. 어제 총파업투쟁위원회에 나왔던 참외씨처럼 생긴 그 사람의 말투그대로 적혔는데 한봉투에 넣고 비봉했더군요.》

리기준에게 온 지시는 직장 신문발간책임자인 그에게 보낸 유상렬의 편지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혁명의 현 단계를 정확히 포착하고 신문의 일반적 또는 특수적 성격을 살리면서 선동성을 강화할것,

2. 일반적전술의 필연적귀결로서 제기되는만큼 인민이 결사적인 투쟁을 전개하도록 고무시킬것,

3. 편집위원을 보고하며 매 호마다 편집방침을 보고할것.

…

그리고 정형규에게 온 지시문은 《금일 현재로 분산투쟁을 전개할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이였다.

두장의 《지시문》을 다 읽고난 기준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어째 총파업투쟁위원회가 조직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편지질을 하는가? 어째 이 사람들은 늘 우리하고는 반대일가? 아주 묘하게 해서 전평신문을, 우리의 혀를 잘라버렸지, 여러 지역에서 분산투쟁을 하겠다니까 못하게 하고 이렇게 포위시켜논 다음에야 흩어지라지, 미군정에 대하여 신경을 건드리는 언사, 극좌적언사를 쓰지 말라더니 이번에는 결사적인 투쟁을 전개하라지… 대체 이자들이…》 하다가 기준은 자기앞으로 온 그 문서가 마치 종이인게 아니라 무슨 가죽쪼각이기나 한것처럼 두손에 힘을 주어 북북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격분에 못이기는 음성으로 말했다.

《형규동무!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자들이 동광방직파업을 파괴했습니다. 바루 이자들이 허인기동지의 병을 악화시켜놨던것입니다. 이자들은 우리의 동지가 아닙니다. 당원이 아닙니다. 이자들은 바루 저뚝에 늘어선자들과 다름없습니다!》

《그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형규가 말을 받았다.

《기관구에서는 수천명이 저녁식사를 못하지만 그들은 아마 오늘 밤에도 술추렴을 할겁니다. 허나 그건 둘째고 지금 평의회아지트에서 우리의 파업투쟁을 시비하는 협의회를 시작했다는데 거기 유상렬이가 있답니다. 그자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욕하는지 궁금하군요.》

《거기 참가할수 없을가?》

기준이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했다.

《우리 일이니까 할수 있겠지요.》

《내가 가보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일없습니다. 위원회에서 나에게 참가할것을 위임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준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손을 씻고 상의를 걸치고 나왔다.

형규는 사무실로 돌아온 민병대와 함께 기준의 신변을 우려하고있었다.

《일없습니다. 돌아올 때는 어두워질거고…》

기준은 박수산이 지키는 전철초소로 나갔다. 거기서 십분쯤 놈들의 동정을 살피다가 전호처럼 패여진 개울창으로 해서 은밀히 하수도관을 빠져나갔다.

그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평의회아지트에 당도하기 위하여 거의 뛰다싶이 했다.

아지트인 매약회사 사무실에 다달았을 때 밖에서 경비를 서고있는 전평신문의 캡쓴 기자를 보고 안심했다. 기준은 잠시 땀을 씻으면서 주위를 살피다가 성큼성큼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안은 불이 내는 부엌안처럼 담배연기로 하여 자욱했다. 기준은 그러한 연기속, 그속에서의 토의, 그러한 분위기에 친숙해진지 오래였다. 그속에서 이 판국을 헤쳐나가려는 사람들이 판자노리와 량미간에 피줄을 세우고 토론을 하고있었다.

기준은 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지 않고 기관구에서 파견해왔다는 말만 전했다. 그리고는 신중한 표정으로 한구석에 걸터앉았다.

흥분한 어조로 토론을 하던 한 투쟁위원이 기준을 보자 《마침 저 동무가 왔으니 더 길게 이야기할게 아니라 저 동무의 말을 들어봅시다.》 하고 말했다.

《들어볼것도 없소.》

유상렬이 한가운데 턱 버티고 앉은채로 말했다.
《이제라도 분산지시를 집행할것을 토의하시오. 그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평간부의 한사람이 수긍했다. 그옆에 앉았던 섬유산별 위원장이 말을 받았다.
《안됩니다. 파업단을 분산시킨다는것은 희생자를 내는것이며 놈들에게 투항하는 길을 마련해주는것으로 됩니다.》
유상렬의 태도는 변함없었다.
《이건 나 한사람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알만 합니까? 리승엽선생의 지시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시라고?》
잠자코 앉았던 기준이 대들었다.
《그렇소. 지시요.》
《어떻게 그런 지시를 내릴수 있을거며 또 그걸 전달하오?》
《동무에게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소.》
《어째서 없소?》
기준은 답답해서 물었다.
《누가 동무에게 언권을 주었길래 이렇게 간섭이요?》
《간섭이 아니요.》
《언권이 없소.》
《나는 투쟁위원이 아니지만 당원이요. 파업단의 한사람이요.》
《알겠소. 잠자코 듣소.》
상렬은 기준을 무시하려 했다. 기준은 도저히 그냥 입을 다물수 없었다.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세계일보가 어떻게 됐나? 동광방직파업은? 전평신문은? 그러고 또다시… 자, 우리가 분산투쟁을 건의했을 때는 어째 분산하지 못하게 했는가? 집단적으로 대항해야 할 시각에 와서는 왜 또 분산하라는가? 어째서… 이래저래 우리의 파업을 파탄시키

자는 심보지? 자네는 대체 무얼 하는 사람인가?》
《무얼 하는 사람이냐고?》
상렬은 기막히다는듯이 되물었다.
《자네는 얼굴이 뜨거운줄을 모르는 사람인가? 다시말하면 철면피냐 말이야?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길을 바루잡을줄 아는 사람이 참된 사람일세. 항차 당원일진대 자기의 과오를 깊이 깨달아야 하며 그것을 잘 비판할줄 알고 시정할줄 알아야 하잖나? 그런데 자네는… 자네는… 잘 듣게. 자네는 치욕스러운 과거를 망각하는데 습관된 사람일세. 수치와 치욕을 순간에 망각하고 떳떳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데 습관된 사람일세. 무서운 일일세!》
《아니, 무어라구?》
유상렬은 낯색이 해쓱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기준에게로 다가왔다.
기준이 《설마》 하는 순간 상렬의 손이 그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그는 완력을 행사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것이다. 멱살을 움켜잡자 재빨리 투쟁위원들이 달려들어 두사람을 헤쳐놓았다. 상렬은 제 있던 자리로 끌려갔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비렬한자인줄은 몰랐네.》
기준이 벌떡 일어선채로 웨쳤다.
상렬은 씨근씨근하면서 《어디 며칠후에 보자!》 하면서 뱉듯이 두덜댔다.
《며칠후에? 응, 당에서 내쫓겠다는 말이지… 그렇지? 여보, 당신!》
기준은 비루하고 비렬한자의 얼굴을 노려보면서 당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당신은 나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지금 수천수만명의 로동자들이 총칼에 포위돼있다는걸 생각하시오. 그들은 당신 같은것을 내버려두지 않을거요. 그걸 똑똑히 알아두오.》
기준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두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었

다. 그리고는 마치 체조를 하기나 하듯이 주먹을 쥔 두팔에 힘을 주어 치켰다내렸다 하면서 웨쳤다.

《이 기회주의자야! 이 개인주의자야! 공명출세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자야! 나가라, 이 신성한 자리에서 나가라!》

유상렬은 또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준에게로 다가서기전에 위원들에게 두팔을 잡혔다. 위원들은 기준을 주저앉게 했다. 두 사람에게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타이르면서 그들은 또 공중에 뜬 리론들을 캐기 시작했다. …

한편 기관구에서는 벌써 기준이 준비한 《화통》 제2호의 배포가 시작되고있었다. 제2호에는 다음과 같은 호소가 붉은 잉크로 크게 박혀져있었다.

총칼의 위협을 박차고 우리의 정당하고도 겸손한 요구조건의 관철을 위하여 더욱 씩씩하게 싸우자! 싸워야만 산다!

4만 철도종업원들은 단결하고있다! 더욱 철석같이 단결하자! 단 한 사람이라도 투쟁대렬에서 리탈되거나 분산돼서는 안된다! 대렬에서의 리탈은 죽음의 길로 가는것이다! 대렬의 분산은 어떠한 형태든지 파멸을 의미하는것이다!

해가 저물자마자 3배로 증가된 자위대가 뚝밑을 따라 40～50메터씩의 간격을 두고 기관구를 삥 둘러 배치되였다. 그리고 쟁의단 전체 성원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나섰다.

징병으로 나갔던 종업원들의 회합에서는 투쟁본부와 수리창고어간 그리고 수리창고와 공장사이 약 6백메터어간에다 참호를 파기로 론의되였고 그것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였던것이다.

많은 동무들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정당방위를 위하여 사제수류탄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으나 그것은 보류하기로 했다.

징병으로 나갔던 종업원들중에서 전투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따로 보위대가 조직되였다. 그들은 새로 만든 흰 완장들을 끼고 나섰다.

좀 말랐지만 강기있게 생긴 선반공이 보위대장이였다. 그는 모여든 종업원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동무들에게 부탁합니다. 담배불이나 기타 불빛을 절대 비치지 말것, 큰소리로 떠들지들 말것, 이상 엄수하고 이제부터 보위대원들이 지도하는대로 호작업을 시작하십시오.》

기관구를 포위한 미군들과 경찰들은 천막속에 뒹굴거나 화토불을 질러놓고 그 주위에들 앉아서 떠들어댔다. 그러는 동안 기관구안에서는 곡괭이질, 삽질하는 소리가 계속되였다.

쟁그렁 하고 삽끼리 마주치는 소리, 기침소리가 이따금씩 들렸다. 곡괭이끝에서 불꽃이 튀였다.

평의회아지트에서 돌아온 기준은 한동안 흥분과 증오에 사로잡혀있었다. 형규, 민병대와 함께 담배를 두어대씩 나누어 피우고서야 밖으로 나갔다.

기준은 수리창고근처에서 길주같이 생긴 선반공 김태영, 수리공 안창수들과 함께 삽질을 했다. 오래동안 단단히 다져진 구내의 땅바닥은 삽날을 잘 받지 않았다. 형규랑 민병대는 다음호 신문발간을 위하여 기준에게는 구경만 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자신들까지 합쳐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시각을 다투어 수행해야 할 그 작업을 어찌 자기 혼자만 방관할수 있으랴싶었다. 그리고 다음호 신문은 작업을 한 뒤 준비해도 좋았다.

두어시간 가까이 삽질을 하자 기준은 속샤쯔가 척 등에 달라붙었다. 다음에는 허리가 끊어지는것 같았고 나중에는 삽질을 하는게 아니라 삽자루에 휘여감기듯 했다. 그는 또다시 허리를 폈다. 주머니에 손이 갔으나 그렇게 좋아하는 담배도 피울수 없었다. 그대신 찬 공기만 들이마셨다. 저쪽에서도 쉬는듯 정형규의 목소리가 들리고 모두들 얕은 음성으로 웃어댔다. 그 소리들이 기준에게는 더없이 믿음직하게 들렸다.

이쪽에서도 롱담들을 했다.

《배심이 없어서 어디 잘 파지나?》

《배심이 없거든 똥집에다 힘을 주게나…》

《그럼 화닥닥하게!》

모두들 웃었다. 그들은 누구나 몹시 시장기를 느꼈으나 이렇게들 롱들을 하고나서는 또 팔다리를 세우 놀리는것이였다.

두메터깊이로 파게 되였으나 한메터 남짓하게 팠을 때는 새벽 2시가 넘었다. 이지러진 달이 남산중턱에서 슬그머니 떠오르고있었다.

너무 시장해진 종업원들은 허덕허덕하면서도 또 롱을 했다.

《설렁탕이나 한그릇 먹으러 가세.》

《설렁탕보다 호떡이 좋소. 김이 무럭무럭 나는것으로…》

그 소리를 듣고있던 김태영이 먹는 이야기는 집어치우라고 신랄한 어조로 타일렀다.

《그런 이야긴 투지를 약하게 만들뿐이요. 역선전이라니까.》

모두들 덤덤해졌다. 그러나 파업이 시작된 후 가뜩 주리고 피로해진데다 이번에는 전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했기때문에 기운이 진했다. 원체 약한 기준은 거의 몸을 움직일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어디서인지 구수한 냄새가 풍기더니 후방부일군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들고 온 양동이(양철로 동이처럼 만든 그릇)에서 시래기죽을 한공기씩 퍼주었다. 차례로 서서 한그릇씩 받아들자 혀를 차며 후루룩후루룩 마셨다. 그리고 잠시들 쉬였다. 그러나 한공기의 멀건 죽이 그들의 성에 차지 않은건 물론이였다.

《간에 기별은 했겠지?》

《글쎄…》

《더웁기나 했더라문…》

이렇게들 두덜대는 사람이 있었다.

잠자코 듣고있던 기준은 여러 사람에게 들으라고 항일빨찌산대원들이 한홉의 미시가루를 나누어먹던 이야기를 자세히 했다.

《우리의 지금 환경을 어떻게 거기다 비할수 있습니까? 우리의 배가 그렇게 고프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포위되였으나 저쪽에는 인민대중이 저놈들을 포위하고있습니다. 한끼의 결식과 하루밤 자지 못한건 장난같은 이야기입니다. 빨찌산대원들은 령하 30～40도의 추위속에서 눈보라를 헤치며 현재 우리가 하고있는 작업의 수십배의 고통스러운 행군을 했습니다. 십여일씩 굶었습니다. 심지어는 더운물도 못 끓여 마셨답니다. 한홉의 미시가루가 다 무업니까? 거기다 대면 지금 마신 죽은 고량진미입니다. 그러나 빨찌산대원들은 그 미시가루를 나눠먹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대원들에게 그 한홉을 한말쯤 되는것으로 생각하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동무들! 바루 그 말씀속에 담긴 깊은 사상을 배워야 합니다.》

기준의 이야기는 어느덧 연설조로 변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신 항일빨찌산의 투지를 배웁시다. 그들의 락관주의를 배웁시다!》

모두들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그들은 가슴이 찔린것이였다. 잠자코 앉았던 수리공 안창수가 《자, 계속합시다.》 하고 말하자 금시 어디서 기운이 샘솟은듯이 모두 와르르 덤벼들었다. 그리고 묵묵히들 작업을 계속했다. 기준도 아까보다 훨씬 기운이 나는것 같았다.

20

훤히 동이 틀무렵 참호작업은 중지되였다. 보위대 대장은 그만하면 우선 적(그는 적이라는 술어를 썼다.)이 사격을 해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투쟁위원회는 날이 밝자 사업을 조직했다. 그리고 자위대, 보위대, 후방일군들과 그외의 전체 종업원이 자지 못한 실정에 비추어 교대로 취침할것을 지시했다. 취침은 거적들을 깔고 호바닥에서 하기로 되였

다. 자위대가 교대되였다. 이리하여 미군들과 경찰들, 테로패들은 어제와 다름없이 울타리를 치고있었으나 가을의 태양이 따스한 손길을 뻗친 아침한때의 기관구안은 평화로운듯이 조용했다.

리기준도 다만 한두시간이라도 눈을 붙여야 했으나 취침한 동무들이 깨나는대로 읽을것을 주고싶어서 한사람의 선전원과 한사람의 인쇄공과 마주앉자 《화통》 제3호 발간을 계획했다.

긴 글들이 필요없었다. 정의는 어디까지나 우리 편에 있다는것,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것을 강조하고 투쟁은 힘들고 어려우나 로동계급은 실망할줄 모르며 비관할줄 모른다는것을 강조해야 했다.

기준과 선전원은 글을 쓰고 인쇄공은 신문제호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그때 별안간 공장쪽에서 《저놈 잡아라!》 하는 고함소리가 연거퍼 들렸다. 기준은 급히 밖으로 나가보았다. 위원장실에 있던 형규랑 투쟁위원들도 뛰여나왔다.

소리나는쪽을 바라보니 어떤 작업복쟁이 두놈을 7~8명의 종업원이 메돼지몰이하듯이 몰아오고있었다. 그 작업복쟁이들은 이를 악물고 바람개비들처럼 뚝쪽으로 향하고있다.

《테로단이다. 잡아죽여라!》

쫓아오고있는 종업원들이 웨쳤다. 그 소리에 여기저기서 채 눈을 붙이지 않은 종업원들이 뛰여나와 곡괭이, 삽, 망치, 쇠몽둥이, 스파나 할것없이 제가끔 하나씩 집어들고 그자들을 앞질렀다.

그자들은 이내 잡혔다. 만약 함께 달려간 정형규가 만일을 생각하고 종업원들의 앞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그자들은 문자그대로 뼈다귀도 추리지 못할번 했다.

그것들이 잡힌것을 알자 테로단이 늘어선 한강쪽 뚝우에서 짐승 우짖듯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잡힌 두놈은 어제 밤의 그 테로패들이 아니라 새벽에 공장뒤 풀밭으로 해서 잠입한 다른 테로패들이였는데 수류탄을 한개씩 가지고있었다. 목적은 파업본부 사무실을 파괴할 작정이였으나 채 사무실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공장안에 숨어있었

던것이였다. 자위대원들은 그자들에게서 수류탄을 빼앗고 근처 전철초소안에다 몰아넣었다.

그런지 얼마 안돼서였다. 기준은 사무실 유리창밖으로 여러대의 찦차가 신기료방근처 뚝우로 기여올라 두꺼비 기여가듯 움직이고있는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음순간 무심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니 세대의 미군땅크가 무한궤도소리를 내면서 역시 그 근처 뚝우로 기여오르는것이였다.

《호를 잘 팠습니다.》

투쟁위원 한사람이 말했다.

《저놈들이 못하는짓이 없단 말야.》

민병대가 소리쳤다. 형규는 사무실 유리창문을 열어제꼈다. 그 땅크들은 각각 백메터가량씩 간격을 두고 멈춰서서 빙그르르 포신을 이쪽으로 돌려놓았다. 흉악한 짐승의 아가리같은 포구멍이 면바로 그들을 노렸다.

《참호로 들어갈것. 참호로!》

보위대원들이 이렇게 웨치면서 달려갔다. 투쟁위원회도 전화를 떼들고 사무실에서 나왔다.

기준은 호둔덕에 그냥 서서 거동을 살폈다. 자세히 살펴보던 그는 한 찦차에서 내린 디룩디룩한 미국인을 발견했는데 그 안색과 썩은 동태눈깔같은 눈알을 돌리는게 먼발치로도 확연히 보였다.

《모리스란 놈이 나타났습니다. 모리스란 놈이…》

기준은 투쟁위원들을 향해 웨쳤다.

《저건 장택성 안예요?》

민병대가 웨쳤다.

《그렇습니다. 저놈들이 지휘를 하러 온 모양입니다.》

한편 정형규는 그 근처 전철초소의 전화를 받고있었다.

《…알겠습니다. 네… 기관총사격을 할것 같은 태세라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호밖으로 고개들을 내밀고 정세를 살피고있는 종업원들도, 참호둔덕에 서있는 투쟁위원들도 흥분에 쌓여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요란한 사격소리가 들렸다.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그렇게 요란한 총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었다. 더우기 그 총의 사격대상이 될줄은 몰랐던것이였다. 보위대 대장은 《기관총사격이다! 숨어라, 숨어!》 하고 웨쳤다.

기준도 호로 내려갔다. 사격을 받은 공장건물의 유리창이 싹 부서지고 담벽에서 연기가 오르는것을 본 그는 치솟는 분노로 하여 전신을 떨었다.

투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리기준은 모리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였다. 거기다가 그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했는데 세번이나 고쳐써서야 겨우 그렇게 상대를 인간으로 간주한 글이 되였던것이다.

… 우리는 이미 제출한 요구조건에 대하여 군정당국의 원만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롱성투쟁을 할것이다. 우리의 요구조건은 우리 나라 산업의 대동맥인 철도를 운영시킴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최소한의 요구라는것을 다시한번 말해두는바이다.

… 우리는 미군정청 경무부 책임자인 당신에게 이 시각으로 포위망을 헤칠것을 강경히 요구한다. 당신은 조선의 산업건설을 위하여 자기희생적인 로력을 하고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기관총사격을 감행케 하였다. 당신이 포와 총의 사격을 하게 하면 비무장인민인 우리는 많은 희생자를 낼것이다. 그래도 사격을 하겠다면 좋다! 최후의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주장을 고집할것이다.

즉시 무력행사를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즉시 테로행위를 중지시킬것을 요구한다.

…

자위대 대장은 전철초소안에 몰아넣었던 두놈의 테로분자를 끌어내여 투쟁위원회의 편지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모리스가 부하들을 데리

고 서있는 앞으로 올려보냈다. 테로분자들은 그 편지를 미군에게 전했다. 동시에 그들은 경찰에게 잡혀 뚝너머로 끌려갔다.

이윽고 모리스의 회답이 왔다. 그 회답은 서신으로 온것이 아니였다. 고막을 찢는듯 사방에서 굉장한 소리가 들리더니 쌩 쌩 쇠깎는 소리를 내면서 불덩이가 머리우와 귀전을 스쳐갔고 공장과 수리창고, 사무실일대에 불이 퍼지면서 유리창들과 담벽들이 파괴되기 시작했다. 화물차들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그리고 수리창고옆 기름탕크에 불이 붙었다. 즉 모리스는 이같이 기관총의 일제사격으로 회답을 했던것이다.

밖에 있었던 종업원들은 땅바닥에 착 엎드려서 참호로 기여들어가야 하는것을 몰랐다. 전쟁도 모르고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들은 뻣뻣이들 뛰였다. 그러다가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는 동무가 있었다.

《엎드려! 엎드려서 기여!》

《겁내지 말아!》

보위대원들과 정형규가 웨쳤다.

참호속은 미군총탄을 피해 들어온 종업원들로 꽉 찼다. 그들은 고개를 오무리고 앉아있었으나 사격소리가 멎자 떠들어댔다. 보위대원들은 부상당한 2～3명에게 좀 엉터리였으나 급한 처치를 해주느라고 바빴다.

《다 죽는줄 알았구나…》

누구인지 이렇게 두덜대자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줄 아나?》 하고 한 보위대원이 대꾸했다.

《전쟁터에서도 사망률은 1할정도라네.》

《죽고 안 죽고간에 저 륙시처참을 할 자식들이 눈이 뒤집혔구나.》

화부 박수산이 열이 나서 웨쳤다.

《제놈들이 우리를 다 죽이지는 못하거던. 철도로동자만 해도 4만이니 몇만이니 하는데 그래 그걸 다 죽이고 제놈들은 성할줄 아나? 발겨죽일 자식들, 우리 손으로 우리 정부를 세우겠다는데 왜 지랄들이야?》

《흥, 참! 우리들에게다 대고 총을 쏘다니, 원…》
누구인지 또 두덜댔다. 그러자 수리공 안창수가 《그것들이 무얼 못할줄 아나? 그런데 전평은 무얼 하고 총파업투쟁위원회는 무얼 하는거야? 항의나 하고있나?》 하고 떠들었다.
기준은 그러한 불평이 나올줄 알았다.
《모두 낮잠을 잔다네.》
누구인지 대꾸했다.
《항의가 무슨 소용입니까?》
기준이 타이르듯이 말했다.
《우리는 오직 살아가야 하는것과 같이 싸워나가야 합니다.》
《군정청의 안색을 봐가면서 하는 항의? 다 지내본 찌꺼기요.》
박수산이 말했다.
《우리가 버티고 싸우는게 항의라니까.》
《옳소!》
몇사람이 웨쳤다.
《그 말이 지당하오.》
먼발치에서 듣던 선반공 김태영이 이렇게 호응했다. 정형규도 그러했지만 리기준은 전평이나 총파업투쟁위원회가 미제의 주구들과 파쟁분자들때문에 그 지도력을 상실하고있다는 사실을 종업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장차 말할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종업원들은 총파업투쟁위원회가 사실상 파업기금의 보조도, 한톨의 량식의 보조도 조직해주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어떤 종업원들은 이따금씩 전평이나 총파업투쟁위원회를 욕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반박했다. 그 두가지 심정은 다 알만 한 일이였다. 그런데 그들이 포위돼버리자 욕하던 사람도, 그것을 반박하던 사람도 다같이 총파업투쟁위원회는 자기네들과 관계가 없는것으로 여기게 되였다.
그들은 벌써부터 혀바닥으로만 투쟁을 하는 어떠한 사람도 믿지 않

게 되였다. 그들은 아무리 훌륭하다는 사람도, 유명하다는 사람도 믿지 않았으나 조금도 외롭지 않았으며 적적하지 않았다. 아직 스무살도 못된 노래 잘 부르는 련락원 봉석이 팔짱을 낀채 참호벽에 기대선것을 본 형규는 물었다.
《무얼 생각하우?》
《아닙니다.》
《쓸쓸해보이는데…》
《아닙니다.》
바로 그때였다. 전화실에 들렸던 민병대가 호로 달려나오면서 웨쳤다.
《동무들, 동무들! 내 말 듣소.》
그는 가슴이 막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웨치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모두들 호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그를 주목했다. 호둔덕까지 온 후에야 그는 입을 열었다.
《동무들! 방금 나는 라지오를 들었습니다. 북조선방송을 들었습니다. 그걸 확성기로 동무들에게 크게 들려드리지 못한게 유감입니다. …
동무들! 평양에서 말입니다. … 평양에서 우리의 파업을 지지해주는 궐기대회가 있었던것입니다. 수십만군중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 철도파업단을 지지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종업원들의 눈동자가 빛났다. 희망과 신뢰와 승리의 신심이 가득찬 눈동자들이였다.
민병대는 말을 이었다.
《그 대회에 모인 수십만군중이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고무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할것을 결의했답니다.》
그런 소식을 듣자 누구인지 돌연 만세를 웨쳤다. 이윽고 만세소리는 퍼져갔다. 그들의 기세는 점점 더 거세여갔고 그것은 만세소리로

변해 다시금 기관구안을 뒤흔들었다.

형규는 봉석이가 어느 틈에인지 호둔덕으로 올라와 그 음악적인 성대로 목청껏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는 씩씩한 모습을 보고 가슴속이 훈훈해졌다.

기관구안에서 또 만세소리가 일어나자 얼마동안 고요했던 미군들과 경찰들은 또다시 기관총사격을 시작했다. 그바람에 참호둔덕에 섰던 전주대의 허리가 뭉텅 부러져서 전선에 디룽디룽 매달렸다. 사무실 유리창들이 부서지면서 유리쪼각, 쇠쪼각들이 붕붕거리며 참호우로 날아왔다.

《이크! 어깨에 뭐가 박혔다.》

《백정놈의 새끼들!》

《모두 참호바닥에 엎드려요!》

이렇게들 웨쳤다.

《동무들! 저놈들은 끝끝내 총탄으로 대답하고있습니다.》

기준이 격분에 못이긴 음성으로 웨쳤다.

《우리는 총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우리 편의것입니다.》

저쪽에서도 선전원의 완장을 두른 팔이 휘둘러지면서 굵은 음성이 울려왔다.

《승리는 정의의 편에 있습니다.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

《동무들! 우리는 고립돼서 싸우는게 아닙니다. 철길뚝밖에는 인민이 있습니다. 북조선의 전체 동포들이 우리를 성원하고있다는걸 생각해보십시오.》

기준이 또 웨쳤다.

《옳습니다.》

《끝까지 싸웁시다.》

이러한 고함소리들을 누르려는듯 참호밖은 더욱 요란해졌다. 참호근처에 섰던 유개화차가 집중사격을 받아 석쇠처럼 구멍이 뚫리고말았다.

그러한 속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일어서라 4만의 철도로동자
나가자 인민의 선두에 서서
…

기준은 그 노래가 어느 틈에 그렇게 퍼졌는지 가슴이 뭉클할 정도였다.

(그렇다. 그 노래들을 불러라, 목청높이 불러라!)

그는 이렇게 속으로 웨쳤다. 과연 노래소리는 차차 높아갔다. 봉석의 목소리가 두드러졌으나 전체 쟁의단의 합창으로 돼버리자 참호가 들썩했으며 마침내 기관총소리를 제압했다.

발악하는 제국주의 무섭지 않다
매국노 반역자 그 무엇이랴
김일성장군님 높이 받들고
인민의 정권 세워나가자

거세고 우렁찬 노래소리는 기관구를 넘어 멀리멀리 울려퍼졌다.

×

이같이 기관구가 법석 뒤집혔을 때 한편 동광방직공장 종업원들도 엠피와 테로패들에게 포위되여있었다. 기숙사뒤 언덕우에는 무장경관들이 총부리를 겨누고있었다.

허봉례는 그가 생각했던것처럼 적지 않게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공장안으로 들어온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종업원들이 모두 자기를 환영했고 더우기 많은 녀성로동자들이 그의 팔을 잡고 공

장이야기로부터 녀성끼리가 아니고는 말하기 어려운 자기네 일신상문제에 이르기까지 털어놓는 바람에 우선 시간적으로 쓸쓸하게 지낼 여가가 없었다.

선전원들과 만나야 했고 자신이 강연이나 연설을 하기도 했으며 저녁이면 우리글강습반일까지 관여해야 했다. 기준의 경우와 비슷하게 봉례도 아직 로동자들의 글로 공장신문을 꾸며나갈수가 없었다. 거의다 자기가 원고를 써서 투쟁위원회에 넘기군 했었다.

정형규와 가까이 지내던 김인석, 의분에 못 견디여 공장장과 맞서 싸우던 기계공 유인선 그리고 고정자들이 중심이 되여 투쟁위원회가 조직되여있었다.

투쟁위원회 위원들과 전체 종업원들은 지난번 파업에서 경험했던 쓰라린 기억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그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 각오였다. 투쟁위원회의 지시는 각 반을 통하여 잘 물드는 염색과도 같이 모든 종업원들에게 침투되여갔다.

《대한로총》의 간판을 떼버리고 거기다 본부를 정한 자위대원들은 투지가 만만했다. 그들은 정문 접수실을 다시는 아무에게도 내주지 않으려고 거기다 많은 인원을 배치했다. 그 눈치를 차린 경찰들은 정문밖에서들 우글거렸다.

감격적인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허봉례의 가슴을 쳤다. 그중에서도 이틀전 엠피들과 경찰들이 공장을 포위할 때 종업원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공장담을 끼고 쭉 겹겹으로 둘러서서 《인터나쇼날》을 합창하던 일과 어제 조석우가 세번째로 트럭을 보냈을 때 경찰들이 총을 겨누어대며 정문을 파괴하고 열어젖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달려나가 정문에서 창고앞까지 빈틈없이 주저앉은 종업원들을 더 어떻게 할수 없어서 이번에도 그냥 돌아간 사실들을 잊을수 없었다.

그런데 세번째 트럭이 돌아간 직후였다. 어떻게 포위망을 넘어섰는지 안철이가 뻐개진 정문으로 해서 접수실로 왔다. 그를 아직도 섬유산별 문화부장으로 알고있는 로동자들은 지난번 파업때 일을 생각하

고 그를 분회사무실로 안내했다.

때마침 위원회가 소집되여 한사람두사람씩 위원들이 모여들고있었다. 처음부터 랭정한 표정으로 대하는 김인석에게 안철은 친절하게 굴었다. 그러면서도 매우 심각하게 이 동무들이 나를 신임했었지 하는 자신있는 얼굴로 김인석과 마주앉았다.

《인석동무도 나를 오해하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안철은 좀 흥분한 어조였다.

《문제는 당을 위하여 싸우느라고 목숨을 내건 놈이라는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는 단지 동무들에게 한가지 알려주지 않을수 없는 의무감때문에 저놈들을 속이고 이렇게 들어온것입니다.》

《우리에게 리로운 말씀입니까?》

《내 얘길 듣고 판단하십시오. 지금 전체 로동자들이 궐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길은 다난합니다. 왜냐하면 로동자들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기구가 부실하기때문입니다.》

그때 허봉례가 들어섰다. 안철이가 앉아있는것을 본 봉례는 허인기가 작고한 이튿날 유상렬을 만났던것보다도 더 가슴이 선뜩했다. 안철은 김인석을 보고 말을 이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요. 대체 총파업투쟁위원회를 누가 저렇게 무맥하게 만들었습니까? 총파업투쟁위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원호기금활동을 합니까, 선전활동을 제대로 합니까? 시작부터 파업을 불리하게 이끌어갔습니다. 우리는 전번 파업에서 어떤 경험을 얻었습니까? 미군정은 오늘부터 기관구를 무력으로 포위하게 했습니다. 이러다간 그들은 또다시 군정청의 밥이 되고말겁니다. 나는 절치부심하고있습니다. 불순분자들이 총파업투쟁위원회를 틀어쥐고있는 사실을 그냥 볼수 없는것입니다. 그에 분개한 로동자들은 <남조선생활개선투쟁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그 불순분자들이 감히 손을 대지 못할것입니다.》

덤덤히들 앉아 듣고있던 위원들은 그제야 안철이가 찾아온 사유를

알게 되였다. 뒤에 서있던 봉례는 성큼성큼 안철의 앞으로 걸어갔다.

《오래간만입니다.》

봉례의 음성은 떨렸다. 봉례를 보자 안철은 확실히 당황한 표정이였으나 애써 태연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봉례와 김인석 두사람을 향하여 다시 말을 계속하려 했으나 봉례가 가로챘다.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즉 동광방직분회를 <대회파>가 날조한 <남조선생활개선투쟁위원회>에다 끌어들이자는거지요, 그렇지요?》

《글쎄, 그건…》

《글쎄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아직도 전차가 다니고있습니다. 전차종업원들의 파업을 교묘하게 파탄시켰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여보세요, 안됩니다. 여기 모두 바지저고리만 앉아있는줄 압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게 있나요? 우리는 옳은 길을 가자는건데…》

분회위원들은 노했다.

《옳은 길?》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웨쳤다. 기준에게서 부산부두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후에도 《대회파》의 반역적행동들을 살펴보았던 봉례는 얼굴이 빨개져서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웨쳤다.

《썩 물러가시지요. 당신이야말로 군정청편입니다!》

안철이 격한 음성으로 《무어라구?》 했을 때 김인석이가 일어나더니 덥석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 자식아, 군정청편이 아니고 무어냐, 응?》 하더니 그를 사무실밖으로 끌어냈다.

《날 반역자로 취급하는가?》

안철은 분개했다.

《그럼, 뭐야?》

《그래 내가, 내가, 아니…》 하면서 안철은 인석의 팔을 비틀려 했다. 그러나 김인석의 팔뚝은 강철같았다. 그는 끌려나갔다.

《다시 아가리를 벌렸다간 제명에 못 죽을줄 알아라!》

개망신을 당한 안철은 어슬렁어슬렁 밖으로 나갈수밖에 없었다. 정문밖에서 그가 경찰에게 붙잡혀 얻어맞으면서 찦차로 끌려가 거기 타고 사라지는 꼴을 유심히 살핀 봉례는 그 수작들이 어쩐지 수상했다. 수상하게 생각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뒤맛이 쓴 일이였다.

봉례는 그날 밤 편한 마음으로 잘수 없었다.

이튿날 오후 즉 기관구에서 《철도종업원의 노래》가 멀리멀리 울려퍼지던 바로 그 시각에 조석우의 트럭 석대가 달려들었다. 그 트럭들에는 미군과 경찰들이 타고있었다. 종업원들이 차앞을 막아서자 그들은 기숙사담밑으로 갔다. 그리고 기숙사뒤 언덕에 늘어선 무장경찰들과 함께 자동차지붕들을 딛고 담을 넘어 기숙사울안으로들 들어섰다.

놈들의 동정을 살핀 봉례는 급히 분회사무실로 달려가 종업원들을 공장앞뜰에다 모일것을 주장했다. 봉례는 머리를 치켜올리고 김인석의 캡을 달래서 깊이 눌러썼다. 그리고는 치마저고리우에다 남자작업복을 입었다. 얼굴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아무도 그를 녀성으로 인정하지 않을것이였다. 그렇게 차리고나니 활동하기가 좋았다.

봉례는 다시 밖으로 달려나가 종업원들을 앞뜰에 모이게 했다. 봉례의 첫째 임무는 한사람의 종업원도 흩어지지 않고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것이라고 자기스스로 생각했다.

앞뜰 대돌우에 올라선 봉례는 목청높이 웨쳤다.

《동무들! 저놈들이 우리를 해치려 합니다. 한사람도 흩어지면 안됩니다! 어서 팔들을 서로 굳게 끼세요. 어서들 끼세요!》

기숙사로 뛰여든 놈들은 카빈총사격을 시작했다. 기숙사안의 사람들을 싹 내쫓자 이번에는 공장으로들 나왔다. 공장건물들과 사무실안의 로동자들을 다 내쫓고 다시 카빈총사격을 했다.

정문앞과 운동장에 모여선 종업원들의 머리우로 총탄이 날았다. 종업원들은 놈들을 향해서 고함을 쳤다. 총파업만세들을 불렀다. 만세를 부르면서 종업원들은 우뢰와 폭풍을 품은 구름처럼 뭉쳐갔다.

《우리는 총탄도 아무것도 무서울게 없습니다! 저놈들은 짐승들입니다!》

봉례의 목소리였다. 봉례는 창고앞에 쌓아놓은 궤짝우로 올라섰다. 그리고는 기숙사로부터 공장쪽으로들 나오면서 공중에다 대고 사격을 계속하는 미군과 경찰들을 향하여 날카로운 음성으로 웨쳤다.

《이 짐승들아! 이 침략자들아! 우리는 공장에서 나간다. 그러나 네놈들이 이 공장을 움직이게 하지 못할거다. 동무들! 더욱 단단히 팔을 끼십시오. 우리는 전체 시민에게 우리의 기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봉례가 뛰여내리자 김인석이 종업원의 선두에 서서 전진하라고 웨쳤다. 남성로동자들은 녀성들과 소녀공들을 감싸면서 그들을 공장밖으로 끌어냈다. 5～6명씩 팔을 끼면서 대렬을 지어 큰길로 나갔다. 그들은 미리 준비했던 프랑카드들을 치켜들고 기아행진을 시작한것이였다. 그들은 웨쳤다.

《하루 3홉의 쌀을 달라!》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을 실시하라!》

그리고 노래들을 불렀다.

21

《철도종업원의 노래》가 우렁차게 울려나오자 놈들은 노래소리가 일어나는 참호쪽에다 대고 집중사격을 했다. 리기준이 참호둔덕으로 기여다니면서 한사람도 참호밖으로 나가지 말것과 미군과 경찰들이 덤벼들더라도 태연하게 앉아있을것을 강조했다.

《흩어져서는 안됩니다. 흩어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모두들 대답했다.

《미군과 리승만이가 무언지 이제는 삼척동자도 알게 생겼수다. 바루 로동계급의 적이요. 적!》

박수산의 목소리였다.

《적이 총을 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았다니… 생각하문 치가 떨린다! 개새끼들을 모두 화통속에다 쓸어넣고 불을 지펴 마땅하다니까…》

《3상결정을 리행하지 않는 저것들이 무엇하러 조선에 올라왔겠소. 뻔한 일이지.》

구레나루가 소리쳤다.

《략탈자들이야!》

《살인강도라고 해야지!》

어느 틈에인지 날씨가 흐려지고 찬바람이 일어났다. 아까부터 기름탕크에서 치솟는 검은 연기가 바람에 불려 온통 조차장의 하늘을 뒤덮었다. 사격이 멎자 주위는 심야처럼 고요해졌다. 민병대는 전철초소의 동무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자위대원들이 참호로 돌아오고있을 때 철길뚝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진행되였다.

여직껏 기관구안을 노려보고있던 싸움개처럼 생긴 장택성은 권총을 든채 버티고 선 모리스를 보고 무어라고 지껄여댔다. 그러자 모리스는 《오케이》를 두번 중얼댔다.

장택성은 《그만하고 쳐들어가라, 쳐들어가!》 하고 큰소리로 짖어댔다. 한편에서는 미군두목이 호령을 질렀다. 그 호령에 맞추어 뚝우에 늘어섰던 미군들과 경찰들이 일제히 뚝아래로 뛰여내렸다. 그리고 땅바닥에 넙적히들 엎드리더니 차차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했다. 땅크가 포신을 추켜들었다내렸다 했다. …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울게 없었다. 이제는 모두들 졸린것도 몰랐고 시장한줄도 몰랐다.

기준은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태연한 표정으로 《동무들!》 하고 소리쳤다.

《우리들은 모두다 투사입니다! 이제 놈들은 우리의 힘을 누를수도 꺾을수도 없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간의 피해를 입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도리여 우리의 힘을 몇배로 자라게 하는것으로 될겁니다!》

그는 팔을 치켜들고 계속 웨쳤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더욱더욱 굳게 단결해야 합니다. 단결만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라는걸 다시한번 깊이 생각합시다!》

이렇게 말하며 팔을 치켜들었던 그는 별안간 그 팔을 뚝 떨어뜨리고말았다. 포위망을 좁히면서 놈들은 다시 사격을 시작했으며 그 총탄의 하나가 그의 팔을 맞혔던것이다. 총탄을 맞은 팔에서 금시 피가 쭈르르 흘렀다. 박수산이 자기 샤쯔자락을 쭉 찢어서 기준의 팔을 동여매주었다. 기준은 동여맨 상처의 겉으로 점점 피가 번져나오는것도 내버려두고 또 웨쳤다.

《어떠한자도 우리의 단결을 파괴할수 없다는 자신을 가집시다!》

보위대장이 기준의 뒤를 이어 웨쳤다.

《적은 우리를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놈들의 무기보다 무서운것을 가지고있습니다. 정신입니다!》

수리창고앞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태영, 부산부두의 길주와 같은 인상을 주는 그 꿋꿋한 선반공이 전철초소에서 그중 늦게 들어오다가 적탄에 명중된것이였다. 악— 소리를 치고 쓰러졌다가 그는 도로 일어나 놈들을 향해 《이 짐승들아!》 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또 쓰러졌다. 보위대동무들이 그를 참호로 업어들였다.

참호바닥에 주저앉은 기준은 저려드는 팔을 한손으로 잡고 차근차근히 생각했다.

(생명은 고귀한것이다. 고귀하기때문에 학대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된다. 고귀하기때문에 집단은 그것을 옹호하며 그것을 옹호해주는 집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바치는것이다. 두려워말고 주저하지 말고 대담히 싸우는것만이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증거로 되는게 아니냐, 그러므로 《쫄라병》에 시달리던 한 항일빨찌산대원은 조국과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칠것을 서슴지 않았던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혁명투사이며 당원의 정신이 아니냐!)

보위대원이 가져다준 붕대로 팔을 고쳐 감으면서 기준은 더 생각해보았다.

(그러한 의의깊은 이야기들을 전해준 박문선동무여, 감사하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각에도 나의 투지를 북돋아주며 참호속에 있는 우리 전우들의 사기를 고무해주는구나. 싸움을 중지하는것은 치욕이다. 싸워야 할 때 힘을 다하여, 생명을 내걸고 싸울수 있는것, 이 어찌 사는 보람이 아니냐,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냐!)

다시금 노래소리가 폭발한 참호안은 불속같았다.

미군과 경찰들은 이 불속같은 참호로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한동안 사격을 중지하고있던 놈들은 노래소리가 멎은 후에야 다시 사격을 하더니 아귀들처럼 이발을 드러내고 헐떡거리면서 일제히 달려들었다. 놈들은 참호안에다 대고 권총들을 휘둘렀다.

《쏠려거든 쏴라!》

기준이 벼락같이 웨쳤다. 그러자 겁많은 놈들은 주춤했다.

《쏘기 전에 나와!》

경찰두목놈이 말했다.

《누구를 쏘는가?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을 쏘겠는가?》

기준이 웨쳤다.

《주모자로구나.》

《내가 주모자다.》
박수산이 소리쳤다.
끌어내려는 놈들과 반항하는 종업원들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고함소리, 다투는 소리, 총소리가 뒤섞인 속에서 박수산이 끌려나갔다. 수리창고쪽에서 정형규가 경찰 7~8명에게 붙잡혔다. 그렇게 잡히고도 형규는 목청높이 노래를 불렀다.
《나와!》
두어놈이 기준을 보고 짖어대듯 했다.
《쏠테면 쏴봐라!》
참호중턱에 걸터앉은 기준은 팔짱을 끼고서 호령했다. 그러다가 선전원동무들끼리 모여선쪽으로 달려갔다. 놈들은 따라오려다 말았다. 기준은 음성을 낮추어서 그러나 간곡하고 힘있는 어조로 말했다.
《동무들! 동무들에게 부탁합니다. 로동자들은 단결해야 합니다. 단결만이 사는 길입니다. 조직을 수습할 때 이번에 가장 잘 싸운 동무들을 핵심으로 해야 하며 곧 <화통>을 속간해야 합니다. 모든걸 비밀아지트에서 해야 합니다. 나는 동무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 부탁합니다, 동무들!》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한 기준은 다시 태연한 태도로 미군과 경찰들을 노려보았다. 딴 경찰놈들이 기준에게로 덮쳐들었다. 격투가 벌어졌다. 격투끝에 기준과 몇몇 종업원들이 또 잡혔다.
《우리는 잡혔지만 기관구조직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해질겁니다!》
기준이 웨쳤다.
《철도종업원 만세!》
《철도파업단 만세!》
여기저기서 호응했다. 그리고 격투가 계속되였다.
큰길가에 성벽처럼 늘어선 군중은 아무리 쫓아도 가지 않았다. 나중에는 경찰들이 총부리를 들이대고 위협했지만 그래도 흩어지지 않고 놈들의 꼴을 노려보기만 할뿐이였다.

길가뿐아니라 군중들은 2층집 창문마다에서 내다보았고 지붕으로들 기여올라 들끓는 기관구안을 바라보았다.
정령감은 아까부터 신기료방지붕우에 올라가서 투쟁본부를 유심히 살피고있었다.
《잡혀들 나오는군.》
군중속에서 누구인지 두덜댔다.
《개새끼들! 무슨 죄가 있다구 사람을 저렇게 결박한담…》
딴 목소리가 들렸다.
철길뚝우로 결박을 당한 철도로동자들이 경찰과 테로패들에게 포위되여 수십명씩 끌려나왔다. 그런데 로동자들은 순순히 끌려나오는게 아니라 《적기가》를 합창하면서 나왔고 뚝에 올라서서 군중들을 보자 만세를 부르고 고함들을 쳤다.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
이같이 웨치자 경찰들이 총탁으로 치고 주먹질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다물지 않았다.
《남조선에도 북조선과 같이 민주개혁을 실시하라!》
《실시하라!》
모두들 호응했다.
《쌀을 달라!》
《희생된 동무들의 원쑤를 갚자!》
《원쑤를 갚자!》
경찰들과 테로패들은 눈이 뒤집혀서 로동자들을 트럭우로 끌어올리려 했다. 하지만 그놈들은 도저히 로동자들의 기세를 억누를수가 없었다. 길가에 늘어선 군중이 로동자들의 고함에 호응하여 웨치기 시작했고 군중의 머리우에서 누가 뿌렸는지 삐라가 펄럭펄럭 날으기 시작하자 경찰들은 더욱 미친개 날뛰듯 했다.
경찰들이야 날뛰건말건 군중들과 파업단은 차차 한마음한뜻으로 뭉쳐갔다. 군중은 목소리를 합쳐서 《테로를 중지하라!》, 《정권을 인민

위원회에 넘기라!》라고들 웨쳤다.
8.15후 수만, 수십만군중에 의하여 매일과 같이 웨쳐지는 그 구호는 부를 때마다 새로웠고 절실했다.
정령감의 신기료방근처로 철도로동자들과 미군들, 경찰들이 꾸역꾸역 밀려나오고있을 바로 그때였다. 한강쪽으로부터 큰길이 메여지도록 몰려 프랑카드를 흔들며 고함들을 치는 행렬이 접근해오고있었다. 동광방직 종업원들이였다.
《생사람을 굶어죽일 작정이냐?!》
《곡창 남조선에 왜 쌀이 없느냐?!》
이렇게들 고함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다가왔다. 대렬은 신기료방에 못 미쳐서 멈춰섰다. 동정을 살피던 그들은 이윽고 정세를 판단했다. 그들은 프랑카드와 손들을 흔들면서 웨쳤다.
《철도로동자동무들 만세!》
《끝까지 싸우자!》
이러한 소리를 듣자 철도로동자들은 더욱 가슴속이 후더워지는것 같았다.
《누구들인가?》
잡혀나오면서 서로 물었다. 시민들이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철도로동자들이 웨쳤다.
《동광방직파업 만세!》
두 파업단들은 서로 만세들을 불러주었고 거기다가 가두에 섰던 군중들까지 호응하여 거리가 뒤흔들렸다. 함성은 이윽고 《적기가》의 핑장하고 우렁찬 교향악으로 변했다.
이리하여 피어린 싸움터가 된 그 가두일대는 흥분에 휩싸인 대회장과도 같았다. 땅크가 공포를 쏘았다. 경찰들은 호각을 불며 뛰였다. 그러자 로동자들과 시민들은 더욱 흥분에 사로잡혔다.
《총파업 만세!》 어떤 젊은 녀성의 목소리.
《파업단동무들을 원호합시다!》 한 중로인의 목소리.

철도로동자들은 할수없이 한사람씩 끌려서 트럭우로 올랐다. 그러나 그들은 트럭우에서도 조용하지는 않았다. 박수산이 트럭지붕에 기대선채로 군중을 향하여 목쉬인 소리로 웨쳤다.
《여러분! 우리 동무들이 놈들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소이다. 허지만 우리는 더 많은 희생을 당한다 해도 결코 항복하지 않을겁니다!》
그옆에서 정형규가 쇠고랑에 채워진 두팔을 치켜올리면서 웨쳤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뒤에는 수백만의 조직된 로동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뒤에는 남북조선의 인민들이 있습니다! 북조선인민 만세!》
한 경찰이 그 트럭으로 달려올라가 형규의 등줄기를 잡았다. 그러나 형규는 등줄기를 잡힌채로 총파업만세를 불렀다. 경찰은 그의 목을 눌러댔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 경찰은 형규의 발길에 채워 길바닥으로 나가떨어졌다. 또 총성이 울렸다.
행렬 맨앞으로 나선 허봉례는 정형규가 트럭우에서 경찰과 싸우는것을 보자 점점 더 흥분했다. 봉례는 목청껏 형규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만세소리, 고함소리때문에 형규는 듣지 못했다. 봉례는 할수없이 잠시 우두머니 서서 철길뚝과 트럭들을 번갈아 보고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리기준이가 결박을 당한채 경찰 세놈에게 끌려 트럭에 오르는 모습을 발견했다.
(어쩌나?)
봉례는 위원들과 함께 행렬을 이끌고 기준이랑 올라탄 트럭쪽으로 가려고 사람들을 헤치기 시작했다. 봉례는 자기가 캡을 쓰고 남자작업복을 입고있다는것을 생각하고 캡을 벗으려다가 그만두었다.
사람들을 헤쳐나가다가 봉례는 잠간 멈춰서서 다시 기준을 찾았다. 트럭 맨뒤에 선 그는 좀 여윈듯 했으나 활기가 있어보였다. 머리는 8.15직후처럼 푸시시했고 검정테안경이 코허리로 흘러내린것을 결박당한 팔로 치켜올렸다. 옆에 선 동무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희색이 가득한 얼굴로 행렬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동광방직파업 만세

를 불렀다.

(저분이 팔에 붕대를 감았으니 부상을 당했구나. 부상이 어느 정도란 말인가?)

이러한 생각이 봉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래 또 사람들을 헤쳐갔으나 엠피들과 경찰들이 기가 나서 군중을 밀어댔다. 또 총소리가 들렸다. 봉례는 사람이 적은 뚝아래로 해서 기준에게로 가려했다.

또 기준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봉례는 더욱 안타까와져서 무턱대고 사람들을 밀고나갔다. 그래 겨우 뚝앞까지 왔을 때 그 녀자는 뜻하지 않은 광경을 목격하게 되였다.

어느 틈에인지 신기료방지봉우에서 내려온 정령감이 군중앞으로 비집고 나섰다. 그는 모리스와 장택성이 버티고 서있는 철길뚝을 향해서 목쉰 소리를 질렀다.

《이 도적같은 놈들아! 이 날강도들아!》

정령감의 거동을 본 한 경찰이 그를 떠밀었다. 그러나 정령감은 이리저리 비켜서서 다시 철길뚝을 향해 고함쳤다.

분노에 찬 로인을 발견한 경찰두목 한놈이 그를 노려보다가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정갱이를 으스러지라고 차는것이였다.

《저것, 저놈 봐!》

봉례가 이렇게 웨치는 순간 정령감은 쓰러졌다. 풀썩 쓰러졌던 정령감은 다시 땅을 짚고 일어나 또 모리스를 노려보았다. 그러자 경찰두목은 더욱 얼굴빛이 붉으락푸르락해지더니 눈을 부라리고 또 발길질을 했다. 어디서인지 비호같이 덤벼든 김인석이 그 두목놈을 군중속으로 끌고들어가 수세미 꾸겨놓듯 해버렸다.

《아!》

봉례는 그 자리에 멈춰서고말았다. 두번째 쓰러진 정령감은 다시는 못 일어날것만 같았다. 그런데 또 팔로 땅을 짚었다. 그러더니 상반신을 일으키고 목청껏 웨쳤다.

《이 도적놈들! 이 강도들! 왜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러느냐, 응?》

그의 굵은 목소리는 기운찼다. 그는 로인답지 않게 꼿꼿이 상반신을 세우고 더욱 목청을 돋구었다.

《이 강도들아, 우리 땅에서 나가라! 어서 나가라!》

그때였다. 동광방직의 대렬이 엠피와 경찰들을 밀고 와짝 앞으로 밀려나왔다. 겁을 먹은 그자들이 총을 휘두르며 군중속에서 빠져나가자 군중은 더욱 밀물처럼 흐르면서 트럭들앞으로 육박했다. 또 만세소리가 폭발했다.

《정형규동무, 안심하세요!》

고정자가 웨쳤다.

《잘 싸우시오. 뒤에 우리가 있습니다!》

굵은 김인석의 목소리였다.

형규는 동광방직동무들과 시선이 마주치자 환성을 올렸다. 그는 수정에 채운 두손을 치켜올리고 여러 동무들의 환성에 호응했다.

《기준동무, 기준동무!》

동광방직분회 위원들이 웨쳤다.

《리선생님, 리선생님!》

어린 녀공들과 고정자가 기준의 앞으로 몰려들었다. 그속으로 《저보세요!》 하면서 봉례가 달려들었다.

봉례는 더 아무 말을 못하고 캡을 벗어 흔들면서 기준의 앞으로 바싹 다가섰다. 그제야 기준은 봉례를 보았다. 그가 허리를 굽혀 붕대로 감기고 포승줄로 옭아매인 팔을 뻗어 봉례의 손을 잡으려 했을 때 부르릉부르릉 발동소리를 내던 트럭이 두어자나 움직여나갔다. 봉례는 그의 손을 잡지 못했고 밀려든 군중때문에 트럭을 따라갈수도 없었다.

《건강히… 부디 건강히…》

봉례는 열심히 말했다. 그리고 더 다른 말을 해야겠는데 목이 막혀서 손을 젓기만 했다.

기준은 봉례와 친누이동생들 같은 녀공들에게 잘 싸우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리고 남성로동자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자 멀어져가는 트럭우에서 결박된 두손을 치켜들고 《인민의 정권을 수립합시다!》 하고 웨쳤다.

만세소리, 고함소리속에서 트럭들은 휘발유연기를 풍기며 굴러갔다. 다시 미군들과 경찰들이 공포를 쏘면서 그들을 헤쳐놓으려 했다. 기관구안에서는 그때까지도 노래소리가 드높이 울리고있었다. 멀어져가는 트럭을 바라보는 봉례의 가슴속은 금시 심장의 고동이 멎기나 할듯이 벅차올랐다.

《씩씩한 청년들이야!》

군중속에서 누구인지 이렇게 감탄했다. 옆의 사람이 그 말을 받았다.

《저런 청년들이 우리 나라의 운명을 해결한단 말입니다.》

기관구안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호응하여 이쪽에서도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고함치고 했다. 흥분한 군중의 물결을 막을자는 없었다. 마침내 땅크들이 군중속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군중을 헤치지 못했다.

《이 미국강도들아! 우리 땅에서 나가라! 냉큼 나가라!》

정령감은 김인석의 등에 업혀서 또 이렇게 고함쳤다.

22

그날 수많은 철도종업원들이 검거되면서 철도로동자의 핵심부대가 흩어졌다. 놈들은 철도파업본부로 리용되던 사무실들과 참호에다 불을 질렀다. 동시에 그날 동광방직공장에서는 미군과 경찰들이 지켜선 가운데서 원료와 제품, 그외 일체의 동산이 조석우에 의하여 략탈되였으며 기계와 건물만은 신용길목사의 소유로 돌아갔다. 정문에 새

겨붙였던 공장간판이 파내여지고 그대신 《재단법인박애회》라는 간판이 나붙었다.

그 《박애회》라는 이름을 가진 《재단법인》의 표면상책임자로 변승룡이가 나타난것은 비극이였다. 그는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싶지 않았으나 학생들의 동맹파업으로 말미암아 학교에 나갈수도 없었고 또 만일 안 나간다면 《국대안》반대자로 오해를 받겠으므로 안 나갈수도 없었다. 이리하여 그는 신용길에게 단단히 틀어잡히게 되였는데 신용길은 수석교수보다는 《박애회》 간사장이 되는게 변승룡에게 적합하다고 하였고 그도 그게 시끄럽지 않을것 같았다.

변승룡은 신문지상에서 또는 사람들의 입으로 총파업에 관한 소식을 자주 보고 들었다. 그러나 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요.》 하는 정도로밖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되도록 총파업에 대해서는 생각하고싶지 않았다. 시위행렬이 지나가도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다만 로동자들이 너무 과격하게 나온다고 제멋대로 생각했다. …

총파업의 전위부대들이였던 철도기관구와 동광방직파업은 이렇게 되여 끝났다.

아니, 그것은 끝난것이 아니였다. 수만의 철도로동자들도, 방직로동자들도, 또 다른 산별로동자들까지 모두가 그 큰 시련의 도가니속을 거쳐 의식적인 로동자로, 조선의 통일독립을 방해하는 미제와 리승만역도와 타협없이 싸우는 투사들로 자라났던것이다.

해방직후 동광방직공장은 정형규와 2～3명의 선진로동자들이 투쟁을 지도했다. 그러나 이제 각 섬유공장들로 잠입한 수다한 동광방직종업원들은 모두 정형규가 지도했던것처럼 투쟁을 조직할수 있게 된것이다.

모두 로동계급의 기세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았다. 전체 인민들이 그것을 알았다. 결코 자기네가 끝까지 실패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단지 유상렬과 같은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고있었다.

그는 자기 아지트에 틀어박혀서 (대체 어떻게 된셈이야? 이 기자동

무는 어딜 갔는가? 제멋대루 돌아다닌단 말야.) 하고 생각했다.

그때 아예 그렇게 태여난것처럼 언제 보아도 캡을 눌러쓰고있는 전평신문의 남자기자가 들어왔다. 상렬은 총파업이후 그를 자기의 련락원으로 썼다.

그는 《통신사들이 여태껏 낮잠들을 자다가 오늘부터 보도들을 하는군요. 이게 오늘 나온겁니다.》 하고 통신묶음을 상렬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어조를 바꾸어서 말했다.

《어제는 대구에서 또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더군요.》

통신을 받아든 유상렬은 그것을 들치더니 《대구역전에서 로동자, 학생들과 경찰 대충돌이라… 경찰대의 발사로 6명이 즉사라.》 하고 소리를 내여 표제를 읽었다. 그옆에서 기자가 설명했다.

《로동자, 학생뿐아니라 시민까지 만여명이나 모였답니다. 모여든 군중들을 향하여 미군과 경찰들이 함부루 총을 쏘아댔답니다. 6명이 즉사라지만 부상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꾸 희생자만 나는군.》

상렬은 통탄하는것도 아니요, 분개한것도 아닌 랭랭한 어조로 말했다. 기자가 탄하듯이 말을 받았다.

《할수 있나요. 희생자가 없이 투쟁을 할수 있나요?》

그러자 상렬은 《희생자를 내는게 목적이 아니라 싸워 이기는게 목적이요, 이기는것.》 하고 쏘아붙였다.

이튿날 밖에서 돌아온 기자는 대구사건에 대해서 더 상세한 소식을 상렬에게 전했다.

대구역앞에 모여든 시민들은 《쌀을 달라!》는 삐라를 뿌리며 파업단을 습격하는 미군과 경찰들에게 엎치기덮치기로 몰려들었다는것, 총탄에 맞아 쓰러진 사람이 부지기수이며 부상자는 더욱 헤아릴수 없는 정도라는것 등이였다.

《그리고 대구경찰서를 습격했답니다.》

기자가 말했다.

《경찰서를 습격하고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길것과 테로정책을 즉시 중지하라고 시위행진을 했다는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우?》

상렬이 물었다.

《대구시내는 계엄령이 발표됐답니다.》

《무모한 폭동이야…》

역시 랭랭한 표정으로 상렬이 말했다. 기자는 무엇인지 쿡 가슴을 치받는것을 느꼈다.

《무모하다니요?》

《글쎄, 그런줄 알고있소.》

기자는 남조선의 전 지역을 휩쓸고있는 힘, 그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힘인지 당장 설명하기는 어려웠으나 확실히 그것은 인민의 거대한 힘이였다. 신문에 보도되는 피상적인 소식만으로도 취업한 로동자들까지 투쟁을 중지하지 않고있다는것이 알려졌다. 공장, 기업소로부터 투쟁은 도시와 농촌의 전체 인민속으로 불길같이 번져지고있었다.

그날 점심때는 군정청앞에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만명이상의 시민들이 군정청정문을 둘러싸고 시위를 단행했다. 군정청은 쇠창살울타리가 아니라 미군과 무장경찰들의 울타리였고 정문안에 걸어놓은 기관총옆에는 철갑모를 쓴 미군들이 전투태세를 취하고있었다.

그런데 유상렬은 이 모든것을 《무모한 폭동》이라고 폭언하는것이였다. 허인기와 론쟁을 할 때부터 그를 의아하게 생각하던 기자는 《그 말씀이 잘된것 같잖습니다.》 하고 항의했다.

《잘된것 같잖다고?》

상렬이 자존심이 깨지는듯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당의 의견이란 말야, 당의 의견. 동무가 무얼 안다고 그래?》

기자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하루 건너 매번 다른것으로 갈아매고 나오는 그의 넥타이, 그날은 자지색바탕에 창살무늬가 놓인것을 맸는데 그것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러다가 드디여 그는 울화통을 터

뜨렸다.

《어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나요? 그게 동지에 대한 태도인가요?》 하고 그는 남보는데서 처음으로 캡을 벗어던졌다. 캡을 벗은 그의 머리에는 큰 흠집이 나타났다. 그것은 광주학생사건때 일본놈 기마경찰의 칼에 맞은 자국이였다.

《동무는 상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렬이 도리여 어성을 높였다. 기자는 상렬보다도 더 음성을 높였다.

《굶어죽겠으니 쌀을 달라는것입니다. 그게 무에 무모합니까? 상부가 그렇게 말할수 있나요?》

유상렬은 잠시 입가를 떨다가 《상부를 못 믿겠거든 그럼 가게.》 하고 쏘았다.

《가지요, 가지요!》 하고 기자는 도로 캡을 집어쓰고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저게 당원이야? 참, 별…》

유상렬이가 이렇게 혼자 두덜대고있을 때 대구의 로동자, 학생, 시민 도합 2만여명의 군중들은 역앞에서 쓰러진 동무들의 시체를 메고 무장경찰들과 미군의 간섭을 물리치면서 시위를 하고있었다.

미군과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하여 또 사격을 감행했다. 이에 격분한 시위대는 무장경찰들과 맞다들어 싸웠고 놈들의 무장을 빼앗아 자체로 무장하고 악질경찰들과 반동분자들을 처단하고있었다. …

바로 그 시각에 또 조석우는 차코브슨의 사택으로 찾아갔다. 그 두 사람의 사이는 경제적으로 주종관계에 있을뿐아니라 이제는 그 직책상으로도 상하부의 관계였다. 조석우는 그러한 관계에 아무 불만도 없었다. 한 공장의 관리인행세를 못하게 됐지만 그대신 사회적위치가 엄연해졌다. 그보다도 공장건물과 기계를 신용길《재단》에 넘겨주어 차코브슨에게 방대한 재산을 축적케 해준 대가로 자기는 원료와 제품, 기타 일체의 동산을 매도하여 일시에 2천만원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수중에 쥐게 되였으니 흡족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지금 조그만 인쇄소에다 목을 걸고있는 백락일과 자기를 비해보고 그를 릉가할수 있다고 생각했다. 해방직후에는 그의 심부름군 겸 통역에 지나지 않았던 자기가 그와 재산과 세력을 비교해보게까지 된 일을 생각하면 대단했다.

조석우가 찾아갔을 때 차코브슨은 안락의자에 벌떡 나자빠져서 려송연을 피우고있었다. 그는 방직공장의 건물과 기계의 관리권을 신용길에게 넘겨준 대가(사실은 매도한거나 다름없었으므로 매도한 대가였는데)를 송두리채 자기의 수입으로 할수 있게 된것을 만족히 생각하고있었다. 그래 조석우가 나타나자 《수고했습니다, 미스터 조!》 하고 악수를 청했다. 조석우는 의기양양해서 안경알을 번뜩거리며 지절거렸다.

《나 수고한것 없습니다, 미스터 모리스의 두터운 배려때문에 그렇게 쉽게 락착됐지요. 엠피와 경찰들의 힘을 빌지 않고야 동광방직이 저렇게 아주 깨끗이 처분될수 있겠습니까?》

《미스터 조의 공로도 큽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수고해주어야겠는데… 이틀동안만 틈낼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서 될 일이라면 이틀이 아니라 두달이라도 틈을 내지요.》

그러한 답변은 차코브슨을 더욱 만족케 했다. 그는 초인종을 눌러 료리사를 불렀다. 주인의 분부를 듣고 나간 료리사는 이윽고 텍사스산 특제위스키와 샌드위치를 받쳐 들여왔다.

《자, 시끄러운 문제들이 일단락한 의미에서 우리끼리 축배를 듭시다.》

《오! 텍사스위스키, 오래간만입니다. 취흥이 참 좋은 술이지요, 미스터 차코브슨!》

두개의 유리잔에다 새빨간 액체를 따르면서 차코브슨은 말했다.

《로동자 한사람의 피를 모두 훑어모아도 이 술 한잔값이 못될겁니

다. 이걸 마시면 언제나 기분좋게 취하고 활기가 솟지요.》
두사람은 잔을 찧었다. 그리고 쭉 들이키고 샌드위치를 집었다.
《미스터 조!》
차코브슨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동광방직 관리권은 미스터 신용길에게 넘겨주어 한시름 놓았지만 <록키>의 폭발로 입은 손실은 아직도 손실대로 있소. 대체 나는 중간에서 공연히 당신네들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요? 나는 아마 선심만 쓰려고 조선에 왔나보오. 허기야 나는 주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신성한 천당을 보고있기는 하오만…》
《알만 합니다, 미스터 차코브슨! 부산으로 가서 잔무를 처리해드려야 하리라고 생각하던중입니다.》
《2～3일이면 될거요.》
《알만 합니다. 건져낸 백중석의 보관, 보험회사와의 사무처리, 다음번 출항선박의 선정… 기타 문제들을 다 원만히 해드릴 각오입니다. 래일 떠나지요.》
조석우는 자동차로 부산까지 달릴것을 결심했다. 그리고 부산서 이틀이 아니라 3～4일 실컷 놀다 오리라고 계획했다. 물론 서울에서 해야 할 잡무들이 적지 않았으나 이미 큰 재산들은 안전한데다 넣어놓았으므로 그런 잡무들은 시들하기만 했다. 그보다도 미국인들의 화제에 자주 오르는 부산의 《스타홀》에 흥미가 많았던것이다. 조석우의 도수높은 안경이 또 유리잔속에 비쳤다. 차코브슨은 또 위스키를 따랐다.
부산으로 갈것을 약속하고난 조석우는 김동호를 상업부의 어느 과장자리에다 갖다앉힐것을 의논했다. 조석우는 앞으로 자기의 사업을 보아줄 충복으로 김동호를 선택했던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솔직하고 사상이 건전한 사람을 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게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백락일의 고무공장으로 가려 합니다. 미국에 충실한 사람을 그런 개인의 중소공장에다 내굴린다는것은 아까운 일입니다.》
《그럼 래일 임명하시오. 죤부장에게 내가 승인했다고 하시오.》
《미스터 죤도 오케이하실겁니다.》
이러한 담화까지 끝낸 두사람은 지극히 흡족한 마음으로 가늘게 울리는 라지오음악을 듣고있었다. 저녁노을이 창가림을 통하여 전화기가 놓인 책상우에 비쳐들었다. 잠시 라지오음악이 멎었을 때 전화종이 시끄럽게 울렸다. 차코브슨이 송수화기를 들었다.
《핼로우, 야, 야! (여보시오, 네, 네!)》
군정청 광업부에 있는 그의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다. 잠시 저쪽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차코브슨은 별안간 그 노랑눈이 부엉이눈깔처럼 둥그래졌다. 그리고는 씹던 샌드위치를 한꺼번에 삼켜버리고는 웨쳐댔다.
《정말인가? 정말 꼭두광산 로동자들이 파업을 했단 말이지, 자세한 소식은 모른다고? 왜 몰라, 당장 알아봐주게, 기다리겠네.》
차코브슨이 전화를 끊자 조석우는 《스타홀》에서 놀려던 계획도 다 틀렸구나 하면서 짐짓 락담하는 어조로 《야단났군요. 미리 손을 쓸걸 그걸 생각 못했군요.》 하고 말했다.
화순탄광의 2천여명 탄부들이 파업을 단행한 어제, 화순탄광의 뒤를 이어 꼭두광산 천수백명의 로동자들도 같은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으로 들어갔던것이다.
차코브슨은 급히 민용전화국을 찾았다. 꼭두광산에다 지급직통전화를 걸려 했으나 잠시후 교환수는 그에게 녕월일대의 전화선이 끊겼다는 소식을 전했다.
차코브슨은 그 전화선을 끊은 사람이 격분에 찬 로동자들인게 아니라 마치 교환수이기나 한것처럼 교환수에게 성을 내다가 이번에는 군용전화국을 찾았다. 미군전용전화선도 녕월읍까지밖에는 통하지 못

했다.
《어떻게 된 판국이야?》
송수화기를 내동댕이치다싶이 한 차쿄브슨은 웨쳤다.
《야단이군요.》
《대체 기사장이란자는 무얼 한다오?》
차쿄브슨은 조석우에게 화를 냈다.
《글쎄올시다. 미스터 차쿄브슨! 전보도 안되는지?》 하면서 조석우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군정청 통신과를 찾아 자세한것을 알아보려 했으나 광산주위를 로동자들이 지키고있는 까닭에 일체의 통신도 사람의 왕래도 두절되였다는것이였다. 하도 답답해서 차쿄브슨은 모리스를 찾았으나 모리스는 군단사령부로 갔다 했고 자기 동생을 찾았으나 그는 방금 외출했다는것이였다.
《매사가 이렇게 될줄은 몰랐다. 문제는 그 미개한 로동자들때문이다. 그런데 그 로동자들, 조선의 로동자들, 그 미개한 인간들을 왜 그냥 내버려두는가 말야? …》
이같이 기가 나서 웨치고있을 때 밖에서 자동차소리가 나더니 모리스와 동생이 나란히 실내로 들어왔다. 모리스는 자기의 용무를 끝내자 차쿄브슨의 동생을 유인하여 텍사스산 위스키를 마시러 온것이였다.
모리스는 싱그레 능글맞게 웃으며 들어섰고 군복을 입은 동생은 매우 경쾌한 기분으로 춤추듯이 걸어들어왔다. 그들을 보자 차쿄브슨은 더욱 기가 나서 웨쳤다.
《글쎄, 어쩌자고 미개한 인간들을, 조선의 로동자들을 그냥 내버려둔단 말입니까? 아메리카합중국을 모욕하는 그들을 어쩌자고 인간으로 대우한단 말입니까? 꾹두광산도 파업이라니… 글쎄, 미스터 모리스! …》
잠시 차쿄브슨의 넉두리를 듣고있던 그의 동생은 《념려마십시오. 그렇잖아도 그 문제때문에 미스터 모리스가 사령부로 오셨다니까요. 군대를 보내기로 했으니 념려마시고 위스키나 내시지요.》 하고 성급히 설명했다.
그러나 모리스는 입가를 찡긋찡긋하면서 웃다가 피에 주린 아귀와 같은 상판을 내대고 차근차근히 중얼댔다.
《아메리카합중국은 강대한 나라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화약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화약과 무기를 더 실어들일수 있지요. 조선의 로동자들은 화약맛을 못 봐서 저러는겁니다. 화약맛을 봐야 온순해지고 하느님도 믿게 될겁니다. 총사령관각하께서 하신 말과 같이 그 인생들이 아까운게 아니라 화약이 아까와서 그럽니다만 이젠 아까와도 사용할수밖에 없지요. 하하하…》

23

멸망해가는것은 일매지게 망해버리지 않고 어떤것은 서서히, 어떤것은 급격히 꺼꾸러졌다.
부산부두로동자들의 파업과 꾹두광산의 파업으로 말미암아 정신상태가 미칠 지경이 된 차쿄브슨은 처음으로 자기의 운명이 영원하지 못하다는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다.
모리스의 호언장담도 그들의 운명을 조금도 희망적으로 변경시킬수는 없었다. 모리스가 돌아간 뒤 광업부에 있는 그 친구에게서 다시 전화를 받고 광산로동자들의 충천한 기세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난 차쿄브슨은 겁에 질려서 대문과 자기 침실문에 쇠를 채우고 누워버렸다.
신용길이나 조석우의 경우로 말한다면 비록 지금은 순풍에 돛을 단듯이 《행운》속으로 미끄러져나가고있었으나 그 운명은 풍전의 등화와 다름없었다. 그에 비하면 배경도 경제적실권도 변변치 않은 변승룡, 백락일 등의 앞길은 따져볼나위조차 없는 형편이였다. 그러나 어쨌든 차쿄브슨으로부터 백락일에 이르기까지 멸망의 내리막길에 들어

서있는것만은 사실이였다. 그것은 앞으로의 력사가 더욱 확실히 증명해줄것이다.

그들중의 어느 누구와도 비길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퇴락해버린 사람은 김재인이였다. 그는 물우에 떠서 자란 부평초와도 같은 존재로서 아무데다도 그 뿌리를 박지 못하고 살아왔던것이였다.

허봉례가 매우 바삐 뛰여다니던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봉례는 다섯군데나 선을 달아놓고 마지막으로 전평서기부 련락원을 덕수궁안에서 기다렸던것이다.

석조전앞으로 슬슬 거닐고있다가 봉례는 문득 그 대돌에 앉아서 별을 쪼이고있는 김재인을 발견했다. 외면을 하려다가 시선이 마주치자 할수없이 《김재인씨 아니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오래간만이군요.》

그는 시름없이 인사를 받았다. 그의 어지러운 행색을 살피면서 봉례는 《왜 여기 앉아계셔요?》 하고 물었다.

《그저 이렇게 소일이나 하고 지냅니다.》 하고 재인은 일어섰다. 오래동안 가위맛을 못 본 그의 뒤머리는 덥수룩하게 자랐었다. 그는 사람을 피해서 풀밭쪽으로 향해 걸었다.

《왜 장사를 그만두셨나요?》

《장사고 뭐고… 허봉례씨, 나는 한 방탕한 계집에게 홀려서 이런 신세가 돼버렸답니다. 그 계집은 나에게 편한것만 추구하도록 고취했던것입니다. 그래 나는 벌써 10여년전부터 로동에서 한발한발 떨어져버렸답니다. 그리고 편히 누워서 사는 습성만 길렀답니다. 좀 질긴것은 씹기 싫어서, 그저 목구멍으로 슬슬 넘어가는 음식만 먹고살았지요. 그리고 취해서 향락만 추구하고… 당신들이 사회경제연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미국식으로 사치하게 살수 있을가를 생각했던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꼴이 됐지요. 옷도 다 팔아먹어서 주제가 이 모양입니다. 허지만 나의 정신상태에 비하면 내 주제꼴은 아직도 신사입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건전한 사람과 마주서기도 싫습니다. …》

잠자코 듣고있던 봉례는 무어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불쌍해보이는게 아니라 미웠기때문이였다. 그때 마침 련락원이 나타났다.

그래 봉례는 급한 어조로 《당신이 그렇게 된것은 그 녀자때문이 아니라 바루 당신때문이였다는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인민의 편이 아니라 미국편이였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허봉례씨!》

《안녕히 계십시오.》

흥분한 봉례는 그에게서 물러나 힝하니 련락원이 거닐고있는데로 향하며 힐끔 한번 뒤를 돌아다본 다음 앞서서 정문으로 나와버렸던것이였다.

×

열흘이 지나고 스무날이 지나고 또 하루이틀 지나갔다. 그러는 동안 남조선은 완전히 인간도살장으로 변해갔다. 곳곳에서 로동자, 농민들의 더운 피가 흘렀다.

미군과 괴뢰경찰들은 무력을 강화했다. 각 경찰서들에는 기관총중대가 새로 설치되게 되였으며 기관총을 걸어놓은 경찰서마다에는 드높이 바리케드들을 쌓아올렸다.

살아가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들은 점점 굳게 단결해갔다. 그러면서 흩어진 조직들을 수습해갔다. 전평산하의 조직들도 차차 다시금 정비되여가고있었다.

격일간이던것이 재정때문에 당분간 1주 1회밖에 발간할수 없는 형편이였으나 어쨌든 전평신문은 속간되게 되였다. 기자들이 자기 자리로들 돌아왔다.

캡을 쓰고 다니는 기자는 유상렬과 싸운 후 울분에 싸여있었으나

한편 언제든지 유상렬과 다시 만나 론쟁을 할 기회를 노리면서 쉬지 않고 책을 읽고있었다.

허봉례로 말하면 어버이나 다름없이 여기면서 의지해왔고 스승이나 다름없이 배우던 허인기를 잃었고 련이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자 너무도 기가 막혔다.

봉례는 지난 한두달동안에 10년은 더 나이먹은것처럼 생각되였고 자기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늙어가듯이 늙어가는가보다싶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봉례의 가슴속에 사무치는것은 원쑤들에 대한 강렬한 증오심이였다.

리승만과 그의 경찰들, 테로패들, 리승엽, 리강진, 안철, 유상렬… 이런것들은 모두가 미군정과 야합한 허봉례의 원쑤들이였다. 그것들은 남조선인민의 가슴에다 대고 총을 쏘는 미군과 다른 점이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가 갈렸다. 죽음이란 전에 생각하듯이 그렇게 두려운것이 아니였다.

고정자에게서 정령감이 다시 신기료방에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봉례는 기쁘고 반가왔다.

정령감을 돌아갈 사람으로 생각했던 봉례였다. 그러나 치명상을 받지 않았던 그는 다만 고통에 시달리기만 했었다. 고통에 시달리는것을 보았던 봉례는 오래 료양을 해야 하리라고만 생각했다.

그동안 김인석, 고정자를 비롯한 전 동광방직의 종업원들이 문병을 조직했고 봉례도 두어번 찾아갔었다. 하지만 그들이 각각 다른 직장으로들 들어갔을뿐아니라 모두 조직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으므로 자연 정령감을 돌볼수 없었으며 봉례도 바빴다.

정령감은 드디여 고통을 이겨내고 일어났던것이였다. 봉례는 그 힘이 어디서 우러나오는것인지 잘 알았다.

그 힘은 굶겨놓고 위협을 해도 소용없었다. 독약을 뿌려도, 곤봉이나 가죽채찍으로 갈겨도 풀죽지 않았으며 총탄으로 쏘아도 없어지지 않았다. 없어지기는커녕 그 힘을 반대하면 할수록 그것은 자라났다. 허봉례는 그 힘을 동광방직의 로동자들, 소녀공들에게서 보았고 군정청앞에서 시위하는 시민들에게서 보았으며 기준을 통하여 부산부두의 로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그리고 수천명 철도로동자들의 하늘땅을 뒤흔드는 우렁찬 합창소리를 듣는 동안에 몸으로 느꼈다.

박문선, 허인기, 정형규 그리고 누구보다도 리기준, 이들은 허봉례의 한평생에서 잊을수 없는 사람들로서 그러한 줄기찬 힘을 가진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그 힘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령도의 해발아래 민주의 새봄이 활짝 꽃펴나고있는 북조선에서 받고있었다.

그들은 지금 한사람도 봉례가까이에 없었다. 그러나 몹시도 쓸쓸할 때, 살을 에이듯이 춥고 외로울 때, 또 오도가도 못할 정도로 곤난할 때 허봉례에게 입김을 뿜으며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그들이였다.

×

순희를 밖에다 두고 기준과의 첫 면회를 끝마치고 나온 허봉례는 가슴이 울렁거려서 아무 말도 못했다. 순희는 자기 이름으로 면회를 신청했던것이였으나 어느모로 생각하든 봉례를 만나보게 하는것이 의미있을듯 해서 굳이 봉례를 들여보냈던것이다.

감옥에서 나와 순희의 옆으로 달려온 봉례는 순희의 손을 잡고 《잠간만―》 하더니 가만히 몸을 의지했다. 마치 열렬한 포옹을 하고난 뒤처럼 사지가 풀리는것 같았다. 사지가 풀리기만 하는게 아니라 애오라지 떨리기까지 했다. 그것은 간수놈들에 대한 증오를 참지 못한 전률이였던것이다.

간수놈은 모두 해서 댓마디밖에는 이야기를 주고받을수 없게 했다. 그러니 그동안에 쌓이고쌓인 이야기중에서 어느것을 골라야 할지 어찌 분간할수 있을가보냐. …

기준은 건강한 얼굴에다 웃음을 띠우며 나타났었다. 총에 맞은 자리도, 고문의 상처들도 이제는 일없다는것을 알리려고 하는상싶었다.

《상처들이 어떠세요?》

《이젠 건강하오.》

《어머님 안녕하시고 언니, 정호 다 잘 있어요. 전하실 말씀 없어요?》

《없소. 봉례도 몸조심하오.》 하며 기준은 눈짓을 했다. 경각성을 높이라는 뜻이였다.

《무어 차입 요구하실것 없어요?》

《없소.》

이렇게 말했을 때 간수놈이 《그만 들어가.》 하고 기준의 등을 밀었다. 봉례는 그놈의 상판을 노려보았다.

기준은 《부디 건강히…》 하면서 들어갔다. 한마디도 못했구나싶은 생각이 봉례의 가슴을 쳐서 불현듯 주먹이 불끈 쥐여졌으나 다른 간수놈이 봉례의 등을 밀어냈다. …

얼마후 봉례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순희에게서 몸을 떼고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마디, 두마디씩 면회한 경위를 이야기했다. 순희는 잠자코 봉례의 그 한마디한마디를 음미하듯이 들었다.

어느덧 그들은 서대문네거리까지 걸어내려왔다.

《언니, 난 언니하고 좀 걷고싶어.》

《나두…》 하면서 순희는 봉례를 서소문쪽으로 끌었다. 두사람은 인기척이 드문 정동길로 들어섰다. 가랑잎들이 우수수 날려서 봉례의 머리에 한잎, 순희의 어깨에 한잎 떨어져서 하늘거렸다. 그우로 초겨울의 여윈 석양빛이 엉성한 나무가지를 통해 비쳐들고있었다.

젊은 두 녀자는 묵묵히 걷고만 있었다.

한참후 비로소 순희가 말했다.

《봉례동무, 우리 마음을 더 굳게굳게 먹읍시다. 응?》

《그럼요, 언니!》

봉례의 대답은 간단했다. 봉례는 자기 머리속에 그려진 면회실에 선 리기준의 모습이 지워질가봐 안타까왔다. 름름한 그 모습, 미더운 그

모습이였다.

(오래 떨어져있더라도…)

봉례는 이러한 기준의 말을 생각했다. 그러다가 무엇을 또 생각했는지 순희의 손을 꽉 쥐고 말했다.

《언니, 진실한 청춘은 항상 폭풍속에 선다지요?》

《진실한 청춘은 제아무리 거세인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지요.》

《참된 사람들의 력사는 아마 폭풍의 력사인가봐!》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력사의 한토막을 살았을뿐이예요. 언니!》

주체49(1960)년

통일문학작품선집 ④

장편소설 폭풍의 력사

저 자	김영석
편 찬	박사 김성희
편 집	정성남, 송명희
장 정	김윤일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04(2015)년 11월 23일
발 행	주체104(2015)년 11월 27일

ㄱ- 1239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016-9